

천진암 성지, 변기영문시놀이사랑방
internet homepage의

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	2000. 06. 24.
②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2008. 07. 02.
③ 우리 겨레가 나아갈 길	2009. 09. 09.
④ 오늘의 인류가 나아갈 길	2009. 09. 09.
⑤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II, III	2013. 03. 31.
⑥ 우리 겨레가 나아갈 길 II	2013. 03. 31.
⑦ 오늘의 인류가 나아갈 길 II	2013. 03. 31.
⑧ 우리 겨레가 나아갈 길 III, IV	2017. 11. 18.
⑨ 오늘의 인류가 나아갈 길 III, IV	2017. 11. 18.

〈原稿 資料保全用 非賣品 限定版 複寫本〉

오늘의 인류가 나아갈 길

III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천진산 메아리, 새소식, 자료실과
변기영문시놀이사랑방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2013.03.07.~2017.11.03.

卞基榮 문시놀이 著

權日身沙右居士紀念書齋

우리 겨레가 나아갈 길

국내외를 포함하여 8천만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은 어떤 길이며, 우리겨레는 지금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길로, 어떤 길에 끌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길을 내며 가는가? 아니면, 남들이 내고 간 길이 우리를 가게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半萬年을 살아온 우리겨레의 터전인 槿域三千里 남쪽에서는 마음과 눈이 돈주머니에만 집중되어, 경제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고, 북쪽에서는 손에서 칼자루를 놓지 못하여 생업까지 전폐하다시피 해 가며, 다른 일에 손을 대지 못하는 先軍于先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經濟力으로 통일을 期約하는 생각이나, 軍事力으로 통일을 自信하는 意圖가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도 同族끼리의 유혈사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民族生存은 民族統一에 于先하는 大命題이며, 民族共生을 어렵게 하는 政治制度나 思想은 하루속히 버리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統一以後의 결실은 불가피한 운명입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움직이는 思想이나 精神이, 국민의 自由와 正義와 眞理의 기초 위에 있지 않으면, 그 나라는 돼지우리나 별통의 차원을 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合理的인 論理가 사회 전반에서 生活化하여, 倫理가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非論理的이고 不合理的한 계획이나 주장을 眞理視하며, 추종을 강요하는 민족에게는 自由가 없고, 自由가 없는 곳에 正義가 있을 수 없으며, 자유와 정의가 없는 곳에 眞實이 있을 수 없으니, 虛僞와 不義와 속박의 울타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며, 나아갈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어, 울안을 돌기만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나 어떤 겨레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항은, 인구에 비례하여 매년 곡물 소비량과 肉類 소비량, 魚類 소비량, 기름과 電氣를 합한 에너지 소비량, 국토와 국민 수에 비하여 道路 총 延長, 등을 따져보며, 자동차 보유수나,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복지 수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경제생활 위주의 피상적이며 외형적일 뿐, 온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物質生活와 精神生活이 相互補完하면서, 진정한 平和롭고 正義로운 번영의 길 위에서 均衡과 調和를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지 냉엄하게 省察해야만 합니다.

南韓은 분명히 娛樂과 遊興과 體育과 休息과 享樂과 奢侈가 過度하며,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박성을 띤 오락이나 체육은 금지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산군 시대에 있던 흥청을 훗날 한양의 선비들이 망청이라 부르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흥청망청의 역사를 잊고 있습니다.

開天節과 愛國歌에 깃들여 있는 敬天愛人의 天主思想이 우리가 걸어온 길ियो 힘인데도, 여기서 이탈하여 돈주머니나 들고 가다보면 늘 다투고 싸워야 하며, 칼자루를 쥐고 가면 늘 경계하며 피를 흘리게 되고, 언젠가는 돌이 다 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弘益人間과 理化世界의 정치이념과 사회기강과 백성의 길을 補强하며 完成하는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과 거룩한 길이 유일하고 완전한 인간의 길ियो, 대부분 현대 인류의 길이니, 또한 우리 겨레의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논설집은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 www.chonjinam.org - 2013~2017년까지의 각 메뉴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www.msgrpeterbyon.org - 2016~2017년까지의 각 메뉴에 실린 글들을, 원고 자료의 보전 차원에서 우선 복사하여 한데 모

아서 묶은 것입니다.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는 3차례나 해커들의 침입과 파괴로, 게재되었던 원고들도 망실된 것들이 적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를 계속하기 위하여, 해커들의 훼방을 막으며 개선하고, 또 사랑방 홈페이지 추가개설에 수고해주신 최인영 사장과 트라이넷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적지 않은 사진 제작과 기사 작성, 홈페이지 관리와 논설집 편찬에 주야로 고생한 천진암 성지 우리 직원들, 특히, 천진암에서부터 거처를 곡수리로 옮긴 이후로, 각가지 악조건하에서, 내용 복사, 편집에 수고한 허관순 편찬실장과, 적지 않은 분량의 각종 옛날 사진들을 스캐너하며, 사진 자료 보전을 위해 고생한 고옥자 자료실장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성조 5위 시복이 확정되면, 현양사업과 100년 계획 대성당 건립에 관여하는 이들이, 반드시 뒤져봐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끝.

2017. 11. 18.

곡수리 공소 沙右居士紀念書齋에서 변기영 몬시놀

오늘의 인류가 나아갈 길

그 옛날 그리스나 로마 대제국이나 바빌로니아 왕국이나 중국의 당나라, 수나라, 진나라, 등 과거 강대국들과 근대와 현대의 독일, 영국, 스페인, 미국, 소련, 프랑스, 일본 등 이른바 선진 강대국들을 우리의 본보기나 목표로 삼고자하는 복고주의적인 大國建設의 帝國主義的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 인류가 되풀이하지 말아야만 할 비극의 길입니다.

오늘날 중국이 티베트나 위그루, 등 약소국가들을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점령하여 흡수하는 것은 옛 소련이 東歐圈의 약소민족들을 점령하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점령했던 일본, 서독, 이태리, 남한을 흡수하지 않고 독립시키고,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켰으나, 공산주의 소련이 점령했던 나라들은 흑심한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였고, 소련 자체가 와해되어,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연평균 국민소득이 5만 불을 넘어, 9만 불에까지 이르고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 민족들의 부유함 역시 우리 인류의 이상적 모델이 되기에는 반드시 더 보태고 채워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분명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제일의 나라」, 「세계 최고의 국가」, 「세계 최상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잘 잡힌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답고, 「우리」를 완성한, 「우리나라」, 「우리겨레 사회」를 이룩하면 됩니다. 온 겨레가 自由를 滿喫하며, 正義를 실행하며, 眞實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共產主義나 社會主義는 지난 세기에 인류가 경험한, 방법

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시행착오의 사상ियो, 제도였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빌려다가 돌려가며 넘겨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수단이, 「우리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단군시대의, 弘益人間 이념과 理化世界의 방법은 현대에도 존중하며, 온 인류가 수용해야 할 天倫的인 법칙입니다. 인류역사상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피 흘리며 싸우고, 빼앗고 빼앗기며 지금에 이르고 있는, 오늘의 인류는 홍익인간 사상으로 국제관계를 화목과 협력의 한 가정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補完的이며 完成的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충만하게 하여, 「우리」를, 「우리」만을 위한 「우리」로 완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아끼고, 가꾸고, 남들에게 끼쳐주는 과정에서, 조물주 天主 聖子の 마음과 정신과 赦罪의 血祭가 힘이 되고, 動力이 되어, 開天節의 祭天儀式 慶祝 精神과 愛國歌의, 「하느님이 保佑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배달겨레 나라 백성들의 숨결과 목소리가 전 세계 인류에게 보탬이 되어, 「우리」가 보다 큰 「우리」가 되어, 어느 겨레나 어느 나라나 어느 개인도 반감과 배타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는 한족들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 논설집은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 www.chonjinam.org - 2013~2017년까지의 각 메뉴와 [변기영문시놀사랑방 홈페이지], www.msgrpeterbyon.org - 2016~2017년까지의 각 메뉴에 실린 글들을, 원고 자료의 보전 차원에서 우선 복사하여 한데 모아서 묶은 것입니다.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는 3차례나 해커들의 침입과 파괴로, 게재되었던 원고들도 망실된 것들이 적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를 계속하기 위하여, 해커들의 횡방을 막으며 개선하고, 또 사랑방 홈페이지 추가개설에 수고해주신 최인영 사장과 트라이넷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적지 않은 사진 제작과 기사 작성, 홈페이지 관리와 논설집 편찬에 주야로 고생한 천진암 성지 우

리 직원들, 특히, 천진암에서부터 거처를 곡수리로 옮긴 이후로, 각가지 악조건하에서, 내용 복사, 편집에 수고한 허관순 편찬실장과, 적지 않은 분량의 각종 옛날 사진들을 스캐너하며, 사진 자료 보전을 위해 고생한 고옥자 자료실장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성조 5위 시복이 확정되면, 현양사업과 100년 계획 대성당 건립에 관여하는 이들이, 반드시 뒤져봐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끝.

2017. 11. 18.

곡수리 공소 沙右居士紀念書齋에서 변기영 몬시놀

목 차

우리 겨레가 나아갈 길 III, IV	3
오늘의 인류가 나아갈 길 III, IV	6
1. 천진암 성지 2013년 성주간 예절 시간표(3월 24일~31일)	49
● 작성일 : 2013-03-07 14:59	
2. 商人들의 흥정이나 타협과 협상과 달리, 政治人들은 政治哲學과 信念을 따라야 !	50
● 작성일 : 2013-03-08 22:30	
3. “조선 왕조 치하의 순교자” 133명의 시복 안건 제목을,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로 확정 - 주교회의 2013년 춘계 정기총회 -	53
● 작성일 : 2013-03-09 12:26	
4. 새 교황 선출을 위하여, 추기경님들 외부단절 기도회의실로 !	56
● 작성일 : 2013-03-09 13:50	
5. 교황선거에 참가하지 못하는 한국천주교회의 아쉬움과 반성	56
● 작성일 : 2013-03-11 23:05	
6. 대륙별, 국가별, 교황 선거인단 추기경 통계와 명단	58
● 작성일 : 2013-03-13 01:44	
7. 프란치스코 제265대 새 교황님 탄생	66
● 작성일 : 2013-03-14 09:31	
8. 교황님이 되신 다음날 아침, 첫 외출은 아주 평범하게 성모대성당 참배부터 하셨는데 !	69
● 작성일 : 2013-03-15 10:25	
9. “제265대 교황 프란치스코” 라고 해야 합니다.	75
● 작성일 : 2013-03-18 12:54	

10. 사도 성 베드로와 일반 교황들과의 관계와 차이와
구분에 대한 소고 83
● 작성일 : 2013-03-25 23:00
11. 예수님의 부활 ! 핵무기 전란의 위협 !
한민족이 부활 생활 시작하도록! 87
● 작성일 : 2013-03-29 17:31
12.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 3월 중 방문자 통계 90
● 작성일 : 2013-04-01 01:13
13. 이 땅에서 人類 自滅과 地球 滅亡의 核武器 戰爭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91
● 작성일 : 2013-04-04 00:26
14. 오늘의 북한이 나아갈 길은 ! 98
● 작성일 : 2013-04-07 15:33
15. 한국 건국에 美國 Spellman 추기경과 中國 우뵘(于斌)
대주교, 한국 노기남 주교의 잊혀진 활동 略史 102
● 작성일 : 2013-04-13 01:20
16. 베트남 호치민시 천주교 신부 32명 천진암 성지 순례 112
● 작성일 : 2013-04-21 01:20
17. 교회의 창립(fundatio): 제2차 바타칸 공의회
가르침에 따른 이해 112
● 작성일 : 2013-04-28 17:56
18. 2013년 6월 1일(토) 저녁 6시,
제183회 월례 촛불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6
● 작성일 : 2013-05-20 10:18
19. 기뻐합니다. 드디어 [세계평화의 성모상], 천진암 성지로
이동완료, 최종 다듬어, 상단 도색!<도착 환영 화보> · 120
● 작성일 : 2013-06-04 09:57
20. 드디어 모습 들어내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세계 평화의 성모상] 122
● 작성일 : 2013-06-14 21:49
21. 세계평화의 성모 마리아 청동상, 천진암 성지 성모성당

앞의 영구적인 좌대에 안착 순간 화보	122
● 작성일 : 2013-06-16 23:32	
22. 루르드 성지 동굴 제단도 폭우로 침수 !	
2013년 6월 18일에만 2회, 2012년 10월보다 흑심 ! ...	125
● 작성일 : 2013-06-19 09:15	
23. 오죽하면, 우선, ‘신뢰 프로세스부터’ 라는 말이...! ·	127
● 작성일 : 2013-06-22 11:55	
24.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4주년(1779~2013)기념일 행사	
제35회(1979~2013) 거행〈사진화보〉	132
● 작성일 : 2013-06-24 22:40	
25. 망초대와 잡풀로 덮인 시복 후보, 주님의 종,	
순교자 황사영 진사 묘를 참배하며...!	135
● 작성일 : 2013-06-30 10:46	
26. 2013년 7월 6일(토) 저녁 6시,	
제184회 월례 촛불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38
● 작성일 : 2013-06-30 12:06	
27.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 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정약중, 5위 시복추진 착수, 교황청 시성성에서 승인 ·	140
● 작성일 : 2013-07-05 18:07	
28. 한국천주교회 창립자(創立者)와 창설자(創設者)와	
선구자(先驅者) 용어 차이와 식별 검토	141
● 작성일 : 2013-07-09 01:50	
29. 수원교구, 신학생회 도보성지순례,	
성소국장 지철현 신부 외 170명(2013.07.09)	145
● 작성일 : 2013-07-12 17:04	
30. 이제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라고 부릅니다 !	145
● 작성일 : 2013-07-16 00:51	
31. 諡福과 諡聖 관련 최근 교황청 諡聖省 법령과 내규 ...	148
● 작성일 : 2013-07-17 22:29	
32. 새로 쓰며 다시 읽어 보는 우리나라 천주교회사-1- ·	150

- 작성일 : 2013-07-18 00:42
- 33. 현대 로마 교황님들의 모범적인
성모 신심을 외면하지 말자 ! 170
- 작성일 : 2013-07-25 23:38
- 34. 8월 5일(月)은 문도공 요한 정약용 승지 기념일!
천진암 성지에서 낮12시 기념미사 175
- 작성일 : 2013-07-26 23:39
- 35. 大韓民國 建國記念日, 8월 15일은
聖母 마리아 昇天大祝日이었다. 177
- 작성일 : 2013-08-19 10:03
- 36. 제186회 월례 촛불기도회
- 2013년 9월 7일(토) 저녁 6시 184
- 작성일 : 2013-08-27 11:33
- 37. 소박한 촛불 祈禱會와 요란한 촛불 示威 185
- 작성일 : 2013-09-05 09:55
- 38. 변기영 몬시뇰, 서부전선 1사단 전진부대
3개 대대 방문, 강의(2013.09.06) 188
- 작성일 : 2013-09-17 11:01
- 39.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Fernando Filoni 추기경,
천진암 성지 방문 192
- 작성일 : 2013-09-22 11:03
- 40. 천진암 성지를 순례하신 이 시대 최상의 대 석학
Walter Kasper 추기경의 기도와 정성! 194
- 작성일 : 2013-09-23 09:00
- 41.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Fernando Filoni 추기경은
어떤 분이신가?〈인물, 약력 소개〉 197
- 작성일 : 2013-09-25 23:46
- 42. 9월 29일, 오늘 정오, 교황청 발표- Filoni 추기경, 수원교
구50주년 계기, 한국 사목방문, 한국천주교회 탄생지 천진
암 성지 순례,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5위 묘 참배, 등
..... 200

- 작성일 : 2013-09-29 22:26
- 43. 교황청, Filoni 추기경, 인천공항 도착, 입국환영,
귀빈실 기자회견〈사진화보〉 201
- 작성일 : 2013-10-02 22:24
- 44. 사진으로 보는, Fernando Filoni
추기경님의 천진암 성지 순례방문 화보 ! 203
- 작성일 : 2013-10-08 20:47
- 45. 필로니 추기경, 바티칸 귀국 후, 한국방문에 대한
10월 9일, 기자회견 요지에는? 211
- 작성일 : 2013-10-10 10:06
- 46. 제188회 월례 촛불기도회
- 2013년 11월 2일(토) 저녁 6시 216
- 작성일 : 2013-10-19 12:34
- 47. 15세기 이태리 순교자 800명 同時 諡聖,
20세기 스페인 순교자 522명 同時 諡福 ! 216
- 작성일 : 2013-10-21 00:59
- 48. 조어대(釣魚臺)에서의 假想 中日戰爭에서
日本이 이기거나, 中國이 이기려면? 238
- 작성일 : 2013-11-03 14:36
- 49. 대한 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 예하
(大韓佛教 曹溪宗 宗正 眞際 猊下) 천진암 방문 240
- 작성일 : 2013-11-10 14:17
- 50. 오는 11월 18일 월요일은,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의
북경파견 230주년 기념일입니다 ! 241
- 작성일 : 2013-11-11 22:50
- 51. 2013년, [은총의 해]는 西山으로 넘어가도, 이 해에 받은
은총은 東山 위에 떠오르는 새벽처럼! 243
- 작성일 : 2013-11-13 01:54
- 52. 입법부나 사법부보다도, 우선 우리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245

- 작성일 : 2013-11-20 11:58
- 53. 제189회 월례 촛불기도회 - 2013년 12월 7일(토)
저녁 6시 성모신심 미사로 시작 247
- 작성일 : 2013-11-22 19:31
- 54. 휴전선 철조망에 목숨을 걸어놓고, DMZ를 지키는
最前方 聖人 勇士들을 보니...!〈사진 화보〉 248
- 작성일 : 2013-11-24 22:23
- 55. 성지화보, NEWS &
VOICE OF CHON JIN AM TODAY No.31 253
- 작성일 : 2013-11-26 14:52
- 56. Rev. Hammond, G.E. Maryknoll〈메리놀회 함신부 일행
북한 환자 돌보기 사진 보도〉 253
- 작성일 : 2013-11-28 22:42
- 57. 제189회 월례 촛불기도회 - 2013년 12월 7일(토)
저녁 6시 성모신심 미사로 시작 255
- 작성일 : 2013-11-29 08:13
- 58. 한국인들의 기소된 사기범죄 위증이 일본의 671배,
사기는 17배, 무고는 4,151배라니...! 256
- 작성일 : 2013-12-04 21:24
- 59. Ubi Sancta Maria Mater Dei,
ibi Jesus Christus Filius Dei est nobiscum ! 257
- 작성일 : 2013-12-05 11:48
- 60. 성탄과 연말연시 예절 시간표〈천진암 성지〉 259
- 작성일 : 2013-12-07 08:49
- 61. 천진암 성지 부주임 으로 새로 임명된
이 그레고리오 신부님 환영 ! 260
- 작성일 : 2013-12-07 15:02
- 62. 궁예가 산 사람을 불로 지져죽이던 철원에서
다시 개성으로 도움을 옮기던 왕건태조 ! 262
- 작성일 : 2013-12-16 01:16
- 63. 교황성하께서 성탄절을 앞두고,

연일 겸손한 덕을 강조하신다 !	264
● 작성일 : 2013-12-20 17:31	
64. 교황성하, 시성성 장관 아마토 추기경, 조건부(“donec aliter provideatur”) 재임명(conferma)	268
● 작성일 : 2013-12-20 21:04	
65. 제190회 월례 촛불기도회 - 2014년 1월 4일(토) 저녁 6시 성모신심 미사로 시작	271
● 작성일 : 2013-12-26 09:57	
66. 원주, 안승길 신부, 자신의 임종시각을 미리 알고, 성탄전야 동창신부 2명과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나서 바로 선종!	273
● 작성일 : 2013-12-28 00:19	
67. 3명의 동방박사들과 5위 하느님의 중,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들 비교 묵상!	275
● 작성일 : 2014-01-03 14:48	
68. 지난 1년간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 접속자, 68만 7천여 명, 월평균 5만 7천여 명 !	285
● 작성일 : 2014-01-03 15:00	
69. 2014년 1월 1일(수요일), 제35회 앵자봉 등산 순례기도회	289
● 작성일 : 2014-01-05 10:50	
70. 코뚜레에 맨 고삐로 5살 꼬마한테 끌려 다니는 황소 같은 人間群像들을 보며...!	292
● 작성일 : 2014-01-06 05:40	
71. 言論人들과 政治人들과 知性人들은 백성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어야!	294
● 작성일 : 2014-01-06 10:52	
72. 교황성하, 서울대교구장 염수정대주교를 새 추기경에 임명, 2014. 1. 12. - Roma, Radio Vaticana	295
● 작성일 : 2014-01-12 21:32	

73. 대통령의 [통일 대박 언급]과
로마 교황의 한반도 통일사목 정책은 ? 298
● 작성일 : 2014-01-17 00:42
74. 제191회 월례 촛불기도회
- 2014년 2월 1일(토), 저녁 6시 미사 309
● 작성일 : 2014-01-19 11:00
75. 청와대 기습 시도한 북한 124명,
특수부대원 31명의 몰살 실전 기록 ! 311
● 작성일 : 2014-01-21 15:49
76. 國語를 지키지 못하면, 國家와 國史를 지키기 어렵다. 337
● 작성일 : 2014-01-22 18:20
77. 100년 계획 천진암대성당 건립, 어디까지 와 있나 ? · 338
● 작성일 : 2014-01-23 23:13
78. 돈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를 기다리는
돈을 놓치지 않도록, 찾아 나아가 잡아야 ! 343
● 작성일 : 2014-01-30 00:13
79. 아시아 국가들의 지각변동 격변기에,
國家存立과 統一國力の 기초, 國家精神이 있는가 ? 345
● 작성일 : 2014-02-03 17:16
80. 수원교구 출신, 문학림 신부, 남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교로 임명되심을 축하합시다 ! 347
● 작성일 : 2014-02-07 12:49
81. 2월 10일은 신유년 박해 기념일, 2월 23일은
병인년 박해 기념일, 순교 선혈로 붉게 물든 2월 ! 348
● 작성일 : 2014-02-10 09:34
82. 제192회 월례 촛불기도회
- 2014년 3월 1일(토) 저녁 6시 350
● 작성일 : 2014-02-12 10:02
83. “東海(The Eastern Ocean)” 表記, 1600年代 東印度
英國大使館 發行 世界 古地圖 ! 352
● 작성일 : 2014-02-13 22:46

84. 2012년, 1년 동안, 수녀 30여 명씩 되던 수녀원
250여개 소가 사라진 셈인데 ! 354
● 작성일 : 2014-03-05 23:40
85. 제193회 월례 촛불기도회
- 2014년 4월 5일(토) 저녁 6시 369
● 작성일 : 2014-03-15 08:23
86. 최근 북한 정권이 매우 잘 하는 올바른 정책과,
지금 남한 정부가 매우 잘하는 정책은 ? 371
● 작성일 : 2014-03-21 11:36
87. 매를 부르는 이 시대에 회초리가 없기야 하라마는,
채찍조차 잡을 사람도 없다고...?! 373
● 작성일 : 2014-03-26 04:50
88. 이수성 고문(前 국무총리), 천진암 성지 순례 374
● 작성일 : 2014-03-29 16:47
89. 지난 36년간(1978~2014) 천진암 성지에
17만여 주 식목에 함께한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376
● 작성일 : 2014-04-05 00:18
90. 천진암 성지 2014년 성주간 예절 시간표
(4월 13일~20일) 379
● 작성일 : 2014-04-05 08:33
91. 일이 가장 큰 은총입니다 ! 380
● 작성일 : 2014-04-10 03:09
92. 駐 바티칸 교황청 韓國 大使,
김경석 박사 일행 천진암 성지순례(2014. 04. 11) 382
● 작성일 : 2014-04-11 20:24
93. 조선 천주교회 창립사에 관한 Daveluy 주교와
Maubant 신부의 문헌 발췌 해석 382
● 작성일 : 2014-04-14 15:55
94. 로마 교황 성하의 오는 8월 한국 방문 시 시복식 거행
대미사 거행 장소로 여의도 5·16 광장을 복구시켜야! · 407
● 작성일 : 2014-04-15 05:26

95. 내일 성금요일(聖金曜日)을, 세월호 학생들과
그 가족들 생각하며, 온 [국민의 성금요일]로 !!! 407
● 작성일 : 2014-04-17 22:14
96. 우리도 함께 타고 가는 [여객선], [국가와 사회]라는
여객선 선원들이고 선장들이 아닌가 ? 410
● 작성일 : 2014-04-18 07:19
97. 제194회 월례 촛불기도회
2014년 5월 3일(토) 저녁 6시 412
● 작성일 : 2014-04-18 20:58
98. 만민의 소원이고 희망이며 신념이었던 부활은
무한 영원한 새 인간생명의 存在形式 ! 414
● 작성일 : 2014-04-19 21:00
99. 독화살을 맞으면 우선 독화살을 뽑고 제독(除毒) 치료가
최우선인데 - 세월호 침몰 학생들을 생각하며 ! 417
● 작성일 : 2014-04-21 17:08
100. 남미 페루교구(PRELATURA De Sicuani) 주교님과 수원교
구 선교사 신부 2명, 대만 화련교구 마데 수녀회 17명, 천
진암 성지 순례, 낮 12시 순례객 미사(2014.04.29.) .. 418
● 작성일 : 2014-04-30 00:08
101. 2014년 6월 24일, 한국천주교회창립
제235주년 기념제 거행 419
● 작성일 : 2014-05-10 00:00
102. 초상난 집에 와서 장사(葬事) 술 가지고
친구 사귀는 김선달은.... 430
● 작성일 : 2014-05-18 15:49
103. 양병묵 신부님 선종 ! 신학생 때 갓 결혼한 형님대신
일본군 징용에 자원입대한 한국판 聖폴베 신부 ! 431
● 작성일 : 2014-05-21 22:20
104. 제195회 월례 촛불기도회
- 2014년 6월 7일(토) 저녁 6시 434
● 작성일 : 2014-05-24 21:28

105. 해양경찰의 제도 개혁? 체제 개편? 체질 개선? 436
- 작성일 : 2014-05-25 02:38
106. 한국천주교회 創立史를 보다 올바르게
연구하려는 史學人들을 위하여 ! 438
- 작성일 : 2014-05-29 23:09
107. 우리 사회가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의 무대가 되어서야...! 476
- 작성일 : 2014-06-20 01:07
108.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5주년 기념제 중,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 예고 478
- 작성일 : 2014-06-24 01:39
109. 청문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서서
돌을 집어 저 여인을 쳐라 ! 482
- 작성일 : 2014-06-26 00:16
110. 교황 방한과 천진암 성지의 한국천주교회 창립기념 행사
거행 화보 2014. 6.24. 천진암 성지 ! 484
- 작성일 : 2014-06-27 22:57
111. 제196회 월례 촛불기도회
2014년 7월 5일(토) 저녁 6시 489
- 작성일 : 2014-06-30 07:38
112. 교황 성하의 한국방문 계획과 천진암 성지의
한국천주교회 창립기념일 행사 의미와 가치와 교훈 ! 491
- 작성일 : 2014-07-01 01:59
113. 교황님 방한과 청소년들이 세운 한국천주교회 499
- 작성일 : 2014-07-05 00:34
114. Korean Catholic Church was founded in 1779
by teenagers of 14~22 years old in Korea 503
- 작성일 : 2014-07-05 09:34
115. 만천유고(蔓川遺稿)는 위작(僞作)일 수 없다. 공부 더하고
논해야 한다<1979년, 9월호, 월보 天真菴 제17호>. 507
- 작성일 : 2014-07-16 09:33

116. 南北 統一憲法 제정하자고?
국민들의 良心과 常識을 먼저 치료하여 살려야 ! 523
● 작성일 : 2014-07-18 01:50
117. 국가와 민족, 직장과 가정 위한, 천진암성지 제197회 월례
촛불기도회 봉헌(2014.08.02.,토, 저녁 6시) 성료! 525
● 작성일 : 2014-07-20 11:03
118. 8월 5일 화요일은 문도공 요한 정약용 승지 기념일,
낮 12시 미사 529
● 작성일 : 2014-07-23 23:12
119. 8월 15일은 ‘聖母 昇天大祝日’ 이고, 大韓民國
‘建國 紀念日’ 낮12시 기념 대미사 봉헌 ! 533
● 작성일 : 2014-08-10 23:54
120. 방한 첫날 교황님이 한국주교회의에 하신 강연 중,
이벽 성조 언급은 큰 의미 ! 534
● 작성일 : 2014-08-14 22:46
121. 한국주교님들에게 하신 교황님 말씀
2014. 8. 14. 서울에서 544
● 작성일 : 2014-08-26 11:27
122. 제198 월례 촛불기도회 - 2014년 9월 6(토) 저녁 6시,
미사에 이어 묵주의 기도 ! 618
● 작성일 : 2014-09-01 08:11
123. 교황님 방한 첫날 한국 주교님들에게 하신,
[기억 지킴이] 말씀의 교훈과 의미 ?! 619
● 작성일 : 2014-09-02 11:19
124. 韓民族의 聖山, 白頭山 天池 자락에
平和의 聖母像이 세워지면 ? - 백두산 순례화보 632
● 작성일 : 2014-09-05 01:54
125. 박제가의 이덕조 애도시(楚亭 朴齊家 作
李德操 薨 哀悼詩)와 이벽 성조 시복시성 637
● 작성일 : 2014-09-16 17:35
126. 9월 순교자 성월에 적어도 성지 순례 신공을...! 645

- 작성일 : 2014-09-20 23:45
- 127. 11월 1일(토) 저녁 6시, 제200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에는, 교우들이 신부님들도 모시고
 함께 와서 기도합니다 ! 647
- 작성일 : 2014-09-23 18:41
- 128. 10월은 우리 배달겨레의 聖月 ! 上帝님께 祭祀하고,
 祖上님을 공경하던 달 ! 654
- 작성일 : 2014-10-02 01:42
- 129. 박근혜 대통령의 U.N. 총회 기조연설을 읽으며...! 657
- 작성일 : 2014-10-06 01:36
- 130.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 www.chonjinam.org]
 방문자들의 접속 통계 660
- 작성일 : 2014-10-08 11:40
- 131. 오늘의 北韓社會와 無血의 南北統一,
 立憲君主制와 近代化의 길 ! 661
- 작성일 : 2014-10-11 01:18
- 132. 통일대박의 꿈과 殺伐한 狂亂의
 현실 對處와 打開가...! 665
- 작성일 : 2014-10-15 14:53
- 133. 단군성조의 弘益人間 정치이념은
 이 광란의 시대에 국제연합 綱領보다도...! 677
- 작성일 : 2014-10-19 04:47
- 134. 최근 Fatima 성지에 신축된 현대식
 天主 聖三位 大聖堂 규모〈사진〉 686
- 작성일 : 2014-10-23 00:22
- 135. 안반이 글러서 떡이 안 된다고 ?
 개헌은 헌법학자들에게 맡겨야 ! 694
- 작성일 : 2014-10-27 01:56
- 136. 백두산 순례화보 - 10월 상달(上月) 보내며
 단군성조의 ‘弘益人間’ 되새기자 ! 698
- 작성일 : 2014-10-29 00:39

137. 제200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 사진화보
 - 11월 1일, 국가와 민족,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 707
 ● 작성일 : 2014-11-05 09:18
138. 교황님께서 방한 첫날 한국주교님들에게
 하신 말씀(5개 국어 원문) 再讀 ! 710
 ● 작성일 : 2014-11-07 22:44
139. 요한 丁若鏞 승지 6대손 요한 丁海運
 (향년 77세) 선생 선종 783
 ● 작성일 : 2014-11-14 01:00
140. 11월 18일 낮 12시, 이승훈 진사 북경파견,
 제231주년 기념미사 봉헌 - 천진암에서 787
 ● 작성일 : 2014-11-16 17:03
141. 가까이 앞당겨 오고 있는 남북통일이
 더욱 수월해지고 있지 않는가 ? 792
 ● 작성일 : 2014-11-19 02:35
142. 12월 6일(토) 저녁 6시, 국가와 민족,
 가정과 직장 위한 촛불기도회(제201회) 794
 ● 작성일 : 2014-11-25 10:13
143. 울슬라회 이봉자 골롬바 회장님(향년 91세) 선종! - 수원교
 구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성모님 같으시던 자매님! 797
 ● 작성일 : 2014-11-30 17:45
144. 천진암대성당 건립, 어디까지 와 있나 ?
 어떻게 되어가나 ? ① 800
 ● 작성일 : 2014-12-04 13:32
145. 방한 중 교황님의 한국교회 [기억 지킴이] 말씀의 참뜻은?
 - Guardians of Memory - 806
 ● 작성일 : 2014-12-04 13:42
146. 新武器와 軍士力을 집중, 증강하는 한반도에서
 오락과 유흥, 사치와 향락, 등은 줄여야...! 809
 ● 작성일 : 2014-12-05 02:43
147. 강추위 속에서도 봉헌한, 제201회 월례 촛불기도회

사진 화보 - 2014년 12월 7일 저녁 -	816
● 작성일 : 2014-12-12 22:46	
148. 天真菴大聖堂建立委圓會 임원 임명	
2012년 1월 26일(목) 서울 PALACE HOTEL	
中國食堂에서 열린 새해 첫 모임에서 !	818
● 작성일 : 2014-12-16 16:23	
149. 천진암대성당건립위원회 회의(2014.12.15.,	
서울 논현동 한우리 한식당, 저녁6시), 임명장 수여 ...	822
● 작성일 : 2014-12-16 21:56	
150. 성탄절, 2014년 연말,	
2015년 연초 예절 시간표(천진암성지)	826
● 작성일 : 2014-12-17 16:47	
151. 1월 3일(토)저녁 6시, 국가와 민족, 가정과	
직장 위한 제202회 촛불기도회 봉헌 사진화보	828
● 작성일 : 2014-12-17 22:07	
152.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는, 촛불 시위를 자제하고,	
가정과 성당에서 촛불 祈禱만 함께 바쳤으면 !	830
● 작성일 : 2014-12-22 11:14	
153. 주한교황대사관 참사관 카보레 몬시뇰 일행	
천진암 성지 순례	835
● 작성일 : 2014-12-23 18:13	
154. 無神論과의 불가피한 전쟁에서 교회의	
信仰的 先制攻擊은 최선의 방어인데...!	836
● 작성일 : 2014-12-30 02:06	
155. 앵자봉 등산 순례기도회, 제36회(1980~2015),	
2015년 1월 1일(목), 천진암 성지 -사진화보-	846
● 작성일 : 2015-01-02 21:01	
156. 격변이 예상되는 2015년을 평화롭게 사는 4가지 길 ...	848
● 작성일 : 2015-01-04 01:40	
157. 강추위 혹한 속에서 봉헌된 1월 3일(토) 저녁 6시,	
국가와 민족, 가정과 직장 위한 제202회	

촛불기도회 봉헌 사진화보	850
● 작성일 : 2015-01-05 08:36	
158. 독일국민들의 쾰른대성당 건립 800年史와 예수 公現大祝日 來歷 !	853
● 작성일 : 2015-01-08 01:49	
159.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을 지내며, 당선 직후의 당시 評論小考를 읽으며... ..	858
● 작성일 : 2015-01-11 00:58	
160. 1월 15일(木), 제35회(1981~2015) 권철신 성현(1736~1801)을 기념일 미사 - 낮12시-	862
● 작성일 : 2015-01-14 23:10	
161. 2015년 2월 7일 저녁,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 위한, 촛불기도회 사진화보 - 제203회- ·	874
● 작성일 : 2015-01-17 09:35	
162. 북한에도 금년에는 남한 천주교 신부 50여명만이라도 入北, 常住하도록...!	875
● 작성일 : 2015-01-20 13:06	
163. 오늘의 한국사회 言論 淨化를 위하여, 오늘 가톨릭 言論人 들의 主保 聖人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축일에 ! ..	878
● 작성일 : 2015-01-24 16:04	
164.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지키고, 아끼고, 가꾸는 것은 종교다 !	881
● 작성일 : 2015-01-28 00:59	
165. 오늘 아침 교황님의 무서운 말씀 ; 기억상실증으로 初心을 잃으면, 무덤 속의 구더기와 무엇이 다르랴? ..	883
● 작성일 : 2015-01-31 11:31	
166. 미사 거행 중 射殺 당한 Romero 대주교의 죽음을 교회는 殉敎로 인정 !	891
● 작성일 : 2015-02-10 00:49	
167. 세계 인류의 거울이며 본보기, 하느님의 종 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福者 정약중,	

한국교회 創立聖祖들 묘소 참배	894
● 작성일 : 2015-02-15 12:13	
168. 제204회 천진암 성지 나라와 겨레, 직장과 가정을 위한 월례 촛불기도회, 2015년 3월 7일(토) 저녁 6시에 봉헌	897
● 작성일 : 2015-02-16 08:49	
169. 중동 이슬람 精神과 극동 無神論 思想이 제3차 世界大戰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899
● 작성일 : 2015-02-21 00:17	
170. 2015년 사순시기, 성주간 예절 시간표 (2월 22일~4월 5일) - 천진암성지 -	901
● 작성일 : 2015-02-21 16:00	
171. 한미 연례 군사훈련과 북한의 대응 태세를 걱정하며...! 902	
● 작성일 : 2015-03-02 01:44	
172. 佛國寺 住持 宗雨 큰 스님과 石窟庵 住持 宗常 큰 스님(佛國寺 館長)일행, 천진암 성지를 순례 (2015.03.02. 오후 4시)	922
● 작성일 : 2015-03-03 17:23	
173. 제204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사진화보(2015.03.07)	923
● 작성일 : 2015-03-08 20:33	
174. 주한 교황대사관 참사관 카보레(Cabore) 몬시뇰 환송(2015. 3. 13.)	925
● 작성일 : 2015-03-14 09:06	
175. 미사일 高空 打撃用 THAAD 배치는 軍의 參 결정에 일임해야 하고...!	926
● 작성일 : 2015-03-15 02:55	
176. 제205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첫 토요일 저녁 6시에 월례 촛불기도회와 부활성야미사(2015.04.04)	927
● 작성일 : 2015-03-18 07:58	

177. 휴전선 임진각 근거리에, [기도의 THAAD기지],
푸른군대 지하성당 완공 단계 ! 929
● 작성일 : 2015-03-21 01:39
178. 성녀 벨라멧다의 고통을 줄이던 코담배 찜지와
성주간 고통의 신비 묵상 934
● 작성일 : 2015-03-31 04:28
179. 부활은 모든 민족의 공통된 소망이며,
인간 생명의 무한 영원한 완성입니다. 935
● 작성일 : 2015-04-05 19:43
180. 제205회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한
첫 토요일 저녁 6시에 월례 촛불기도회와
부활성야미사 사진화보(2015.04.04., 오후 6시) 938
● 작성일 : 2015-04-06 16:48
181. 교황님 말씀 ; “오늘날 초대교회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신자들이 이 순간에도 박해로 순교하고 있는데…” .. 940
● 작성일 : 2015-04-07 17:32
182. 최근 로마 신학계에서 예언자적인 사상가로
Teilhard de Chardin 신부 사상의 재조명 소식 945
● 작성일 : 2015-04-10 13:10
183. 제206회(5월 2일) 조국과 민족, 가정과 직장을 위한,
천진암 성지 월례 촛불기도회 봉헌(저녁 6시) 950
● 작성일 : 2015-04-15 13:31
184. 중남미 순방 중인 우리나라 대통령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교우가정이 저녁기도 중에... .. 952
● 작성일 : 2015-04-17 17:19
185. 민주주의 자유사회 言論 속의 臆論도 잡풀처럼 베거나
깎지 말고, 뽑거나 아주 캐내어 버려야만...! 953
● 작성일 : 2015-04-21 09:50
186. 천진암대성당건립위원회 회의(임원 추가 위촉),
2015. 04. 19, 주일, 천진암성지 957
● 작성일 : 2015-04-22 11:48

187. 국토건설과 천진암 성지 개척,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 위대한 정치가들과 훌륭한 공무원들의 공헌이…! … 957
 ● 작성일 : 2015-05-03 02:23
188.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 “이벽과 양반 출신 신앙의
 제1세대 선조들에 대한 기억을 지키게 하라.” ……… 965
 ● 작성일 : 2015-05-09 17:21
189. 2015년 6월 24일(수),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 236주년
 (1779~2015) 기념제 거행 ! …………… 969
 ● 작성일 : 2015-05-12 10:31
190. 불교 연등회와 세계평화기원대회를 보며,
 여의도 5:16 광장 원상복구 필요성 절감이…! ……… 974
 ● 작성일 : 2015-05-18 01:48
191. 제207회(6월 6일) 조국과 민족,
 가정과 직장을 위한, 천진암 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봉헌(저녁 6시) ……… 976
 ● 작성일 : 2015-05-19 09:05
192. 현재 일부 언론의 차기 대권후보 거론은
 시기와 정도가 너무 일찍 과도하지 않는지 ? ……… 978
 ● 작성일 : 2015-05-20 02:48
193.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도좌를 방문한(Ad Limina)
 한국 주교들에게 하신 연설문 …………… 979
 ● 작성일 : 2015-05-22 01:57
194. 돌을 집어 들고, 나팔수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몰려가자고 ?! …………… 1008
 ● 작성일 : 2015-05-23 11:47
195. 外製 독감이 지나간다고?
 허풍장이 움살꾼들도 나팔들고 모였다고 ?
 우리 大韓人의 체질과 氣魄 앞에서야…?> ……… 1015
 ● 작성일 : 2015-06-08 11:00
196. 6월 24일(水),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창립기념일 행사, 예정대로 거행 ! ……… 1019

- 작성일 : 2015-06-17 00:30
- 197. 많은 돈을 쓰면서, 외국관광을 겸한 해외성지 순례
 못지않게, 국내 성지 순례부터... 1024
- 작성일 : 2015-06-18 22:22
- 198. 내일은 이벽성조께서, 殉敎 後, 195년(1785~1979) 만에
 천진암 天學堂 터에 돌아오신 날 ! 1025
- 작성일 : 2015-06-23 04:41
- 199. 한국천주교회 창립기념행사에, 1천 200여명 신도 모여!
 〈사진 화보〉 - 천진암 성지에서 ! 1028
- 작성일 : 2015-06-24 23:33
- 200. 제208회(7월 4일) 조국과 민족,
 가정과 직장을 위한, 천진암 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봉헌(저녁 6시) 1038
- 작성일 : 2015-06-26 20:36
- 201. 이 광란(狂亂)의 시국에, Anarchism 思想이
 기지개켜는 하품소리가...! 1039
- 작성일 : 2015-07-02 01:58
- 202. 제67주년(1948~2015) 제헌절에, 헌법 기초자
 토마스 유진오 박사 묘와 생가 터를 참배하며 ! 1045
- 작성일 : 2015-07-17 22:38
- 203. 제209회(8월 1일) 조국과 민족,
 가정과 직장을 위한, 천진암 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봉헌(저녁 6시) 1060
- 작성일 : 2015-07-21 20:14
- 204. 大韓民國 建國記念日(8월 15일)에,
 건국 전후 천주교회의 역할 소고 ! 1063
- 작성일 : 2015-07-23 06:10
- 205. 8월 5일(水) 요한 정약용 기념일! 오늘의 敎會史學人들 대부분이
 너무도 모르는 문도공의 교회활동 개요 소개 ! 1072
- 작성일 : 2015-07-29 00:23
- 206. 원자폭탄 투하 직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사진들과 일본

항복식 전후 광경 사진들 !〈1945년 8월, 일본〉	1091
● 작성일 : 2015-08-07 12:43	
207. 국무총리를 대통령 전권특사로 임명, 9월 초, 중국의 항일승전기념일 행사에 참석케 해야...!	1097
● 작성일 : 2015-08-11 01:44	
208. 9월 5일(토), 제210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토요일 저녁 6시)	1101
● 작성일 : 2015-08-22 07:42	
209. 전쟁은 政治人들이 결정하거나, 軍人들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1103
● 작성일 : 2015-08-22 12:13	
210. 9월 9일, 오늘은 조선교구 설정 기념일,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의 교서로... ..	1109
● 작성일 : 2015-09-09 22:35	
211. 한민족100년계획천진암대성당건립위원회 건설본부장에 최문석 사장 임명〈大聖堂建立委員會〉 ..	1113
● 작성일 : 2015-09-21 00:06	
212. 10월 3일(토), 제211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토요일 저녁 6시)	1115
● 작성일 : 2015-09-21 08:16	
213. 교구장님 본받아, 추석에 잊지 말고 좀 챙겨야 할 우리 사제들〈사진〉 !	1117
● 작성일 : 2015-09-23 00:01	
214. 기적의 9월 27일, 오늘 [103 성인들의 生日], 교황님의 103위 시성 확정과 천진암대성당 건립 !	1124
● 작성일 : 2015-09-27 23:11	
215. 이벽 성조께서는 32세의 짧은 일생을 布衣道人으로 정결하게 살다가 순교하셨다 !〈죽보와 이장 사진〉	1134
● 작성일 : 2015-10-12 23:55	

216. 11월 7일(토), 제212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토요일 저녁 6시) 1145
- 작성일 : 2015-10-18 19:48
217. 하느님의 종, 이벽성조의 거룩하고 장렬한 三重死刑 순교의
최후를 前後하여 현장을 함께한 동료들의 기록 문헌 이해 !
쿠바카드 몬시뇰 천진암 성지 방문 - 1147
- 작성일 : 2015-10-19 12:35
218. 교황님, 로마 교황청에 평신도 성성(?) 신설 발표! 1193
- 작성일 : 2015-10-23 11:42
219. 천진암대성당 건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
최근 모스크바 대성당 복원 축성 !!! 1194
- 작성일 : 2015-10-31 11:31
220. 京釜大運河 건설 目的 水資源 確保管理에 !
- 검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화해야 ! 1207
- 작성일 : 2015-11-03 23:38
221. 독일의 저명한 피터 노이너 신부님(Peter Neuner, 前
Muenchen 가톨릭 신학대학 교수) 천진암성지 순례 차
방문 1219
- 작성일 : 2015-11-14 11:48
222. 프랑스 Institute Catholique de Paris 가톨릭신학대학교
교수단 일행의 천진암 성지 순방-〈사진화보〉 1223
- 작성일 : 2015-11-14 11:52
223. 12월 5일(토), 제213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토요일 저녁 6시~9시) 1227
- 작성일 : 2015-11-18 10:02
224. 종교단체의 범인은익과
범법자 보호의 성격과 한계는 ? 1229
- 작성일 : 2015-11-23 02:01
225. 성탄절 묵상! 교황방한과 한국주교단 로마 AD LIMINA 때

교황님 강론의 근거가 된 황사영 진사 백서(帛書)	
묵상을 ...!	1231
● 작성일 : 2015-12-03 16:36	
226. 성탄과 2015년 연말, 2016년 연초 예절 시간표	
〈천진암성지〉	1262
● 작성일 : 2015-12-11 13:08	
227. 한민족100년계획천진암대성당 건립, 어디까지 와 있나?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 -사전 읽기-	1264
● 작성일 : 2015-12-19 14:22	
228. 1월 2일(토), 제214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하여...	
(오후 6시 ~9시)	1281
● 작성일 : 2015-12-27 09:29	
229. www.chonjinam.org 2015년 월별 방문자 통계	1283
● 작성일 : 2016-01-04 01:00	
230. 원로 가톨릭 언론인,	
정론직필의 홍의(마티아) 기자 선종(향년 75세)	1285
● 작성일 : 2016-01-10 11:40	
231. 1월 15일, 금요일은 제36회(1981~2016) 하느님의 종,	
권철신 암브로시오 성현(1736~1801) 기념일입니다! ·	1287
● 작성일 : 2016-01-13 14:43	
232. 2월 6일(토), 제215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	
(사진화보),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하여...	
(오후 6시 ~9시)	1299
● 작성일 : 2016-01-20 08:36	
233. 哲學不在 시대에 일부 臆論의 산물인, 信念不在 名人化의	
高聲과, 박제가의, “진인상명리” 묵상 !	1300
● 작성일 : 2016-01-22 11:04	
234. 교황님 말씀: 주교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1342
● 작성일 : 2016-01-23 05:32	

235. 韓民族의 集團自爆 !? 서울은 불바다 !?
 평양은 잿더미!? [파리 평화협정]과 월남 패망사 ! ... 1349
 ● 작성일 : 2016-02-12 00:47
236. 천진암성지 2016년 사순시기,
 성주간 예절 시간표(2월 14일~3월 27일) 1359
 ● 작성일 : 2016-02-16 10:38
237. 레닌의 초대형 동상건립 터에 최근 세워진
 모스크바 주교좌대성당 축성식 ! 1360
 ● 작성일 : 2016-03-05 12:15
238. 3월 5일(토), 제216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
 (사진화보),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하여...
 (오후 6시 ~9시) 1364
 ● 작성일 : 2016-03-08 10:34
239. 2016년 3월 20일 ~ 27일,
 성주간 예절과 부활절 미사 시간표 1364
 ● 작성일 : 2016-03-17 11:07
240. 경갑룡 주교님 입원 중태 80여일 !
 성삼일간 신도들 기도로 입과 혀만이라도 풀렸으면! 1367
 ● 작성일 : 2016-03-24 23:36
241. 4월 2일(토), 제217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
 (사진화보),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하여...
 (오후 6시 ~9시) 1370
 ● 작성일 : 2016-04-08 22:07
242. 수백만 명이 죽은 후, 잿더미 앞에서 위령미사 봉헌보다,
 언론계와 종교계는 핵무기 파기 기도와 반핵운동을! · 1371
 ● 작성일 : 2016-04-09 09:02
243. 국민의 道理는 저버리고, 개인의 義理 때문에 투표한다면,
 민주주의는 요원합니다 ! 1388
 ● 작성일 : 2016-04-10 20:41
244. 지진과 화산폭발, 해일과 핵실험, 원전붕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성모 신심은...! 1390

- 작성일 : 2016-04-17 00:32
- 245. 신봉승 선생님 선종 ! MBC, 연속 사극,
[조선왕조500년], 특히 [파문] 작가 ! 1399
- 작성일 : 2016-04-21 07:56
- 246. [사제이니까 죽였다]는 증언으로,
5명의 죽음을 [순교]로 인정, 시복 ! 1401
- 작성일 : 2016-04-24 23:40
- 247. 복자회 김옥희 수녀님, 무주 산골에서 교회사 학문연구와
한국 명상수도 정신으로...! 1402
- 작성일 : 2016-04-25 10:11
- 248. 교황청 기관지, Hassan Rohani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발언의 이례적 보도 음미 ! 1404
- 작성일 : 2016-05-04 12:56
- 249. 5월 7일(토), 제218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
(사진화보), 조국과 민족, 직장가정을 위하여...
(오후 6시 ~9시) 1420
- 작성일 : 2016-05-11 11:44
- 250. 세자 요한 강영훈, 제3대 천진암성지위원회
위원장님 선종(향년 94세) 1422
- 작성일 : 2016-05-12 00:46
- 251. 이벽 성조 8대 종손 이완형 스테파노 회장 선종(향년 79세)
..... 1426
- 작성일 : 2016-05-17 07:57
- 252. 최보식 기자의, 李煥性(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인터뷰
- “全斗煥은 12·12와 상관있고, 5·18과는 無關” - 1427
- 작성일 : 2016-05-17 11:53
- 253. 大韓民國 建國記念日,
8월 15일은 聖母 마리아 昇天大祝日 ! 1435
- 작성일 : 2016-05-19 17:07
- 254. 6월 4일(토), 제219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
조국과 민족, 직장가정을 위하여...

(오후 6시 ~9시)	1442
● 작성일 : 2016-05-19 20:26	
255. 교황님 말씀; Clericalism이 교회를 망치고 있지만, 교회의 주인공들(protagonisti)은 평신도들” 입니다!	1444
● 작성일 : 2016-05-24 01:28	
256. 양근성지 순교자 현양대회(2016. 5. 29. 주일) 사진 화보	1450
● 작성일 : 2016-06-02 12:10	
257. 가난한 신자들이 피땀으로 지은 구산공소 성당건물에서 마지막 미사를 드리고 나서...(2016.6.5.)	1451
● 작성일 : 2016-06-07 13:02	
258. 송병선 신부 [천진암 성지 건설본부장]으로, 김동원 신부, [천진암 성지 전담]으로 임명 !	1456
● 작성일 : 2016-06-13 04:32	
259. 교황님 말씀; 평신도들은 교회의 주인공, 53년간 교회 장기 근속 봉직한 평신도 칠순기념 저녁축하 !	1458
● 작성일 : 2016-06-14 22:50	
260. 7월 2일(토), 제220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 (사진화보),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하여... (오후 6시 ~9시)	1461
● 작성일 : 2016-07-05 20:00	
261. 교황주일(6월 26일 주일)에 겸손한 반성과 진솔한 한마디 기도를 !	1462
● 작성일 : 2016-06-27 23:55	
262.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 2016. 6. 24. 천진암 성지, 사진화보 -	1464
● 작성일 : 2016-07-06 20:36	
263. 전쟁이 나더라도, 핵폭풍 전야가 오더라도, 天主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로, 평화를 잃지 맙시다! ·	1468
● 작성일 2016-07-10 오전 4:04:00	

264. 8월 6일(토), 제221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
조국과 민족, 직장가정을 위하여…,
(오후 6시 ~9시) 1471
- 작성일 : 2016-07-22 15:53
265. 100년 계획과 당대주의 반성! <무더위 속 성지 홈페이지
최근 방문자 통계 - 변기영 몬시뇰 새 주소> 1473
- 작성일 : 2016-07-28 04:32
266. 교황님, 천주교회 여성 부제직에 관한
연구위원회 구성 ! 1478
- 작성일 : 2016-08-03 03:11
267. 1억 2백 80여만 원을 봉헌한 교회직원,
30여 년 간 그리 많지 않은 급여에서,
매월 20~30여만 원씩 봉헌 ! 1484
- 작성일 : 2016-08-18 23:33
268. 중국의, [南韓 Thaad 設置 반대]와,
[南中國海 독점]에 대한 美國의 대처방안 再考 ! 1486
- 작성일 : 2016-08-25 06:17
269. 교황님, 자의교서 발표; 인간적인 발전을 !
(HUMANAM PROGRESSIONEM) 발표…. 1490
- 작성일 : 2016-09-02 21:02
270. 9월 9일은 1831년 조선교구(대목구)
설정 기념일인데 ! 1499
- 작성일 : 2016-09-08 23:13
271. 毒화살을 맞으면…! 韓·美·日의 對 北·中,
新大東亞 戰爭 勃發의 危險性 現場化 문턱에서…? 1501
- 작성일 : 2016-09-10 04:54
272. 지진과 화산폭발, 해일과 핵실험, 원전붕괴의 방사능
오염 시대에 성모 신심과 우리 신앙은 ?! 1505
- 작성일 : 2016-09-20 21:36
273. 교황님 방한과 청소년들이 세운 한국천주교회의 젊은 피 !
Young Korean students founded Korean Catholic

Church 250 years ago !	1516
● 작성일 : 2016.09.30 오후 8:42:10	
274. 개천절에, 잃어버린 10월 상달(上月), 上帝聖月, 최초 애국가의 수난사를 잊지 말자! Sorrowful history of the first national anthem of Korea !	1521
● 작성일 : 2016-10-04 04:11	
275.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려서 놀림감이 되었던, 한 시골 교구 젊은 사제의 실로 고달프고, 고독한, 그러나 한국교회 역사상 최대의 기쁜 소식 !	1535
● 작성일 : 2016.09.30 오후 8:57:46	
276. 주한 교황대사 Osvaldo Padilla 대주교, 곡수리성당 방문 - 2016.11.22. 오전 11시	1540
● 작성일 : 2016.09.30 오후 9:36:32	
277. Daveluy 主教의 韓國 殉教者 歷史를 위한 備忘錄	1546
● 작성일 : 2016.10.01 오전 10:49:15	
278. 서양 오랑캐의 도를 추종하는 저 5,6명은 족보에서 제명하라 !	1721
● 작성일 : 2016.10.10 오후 1:20:18	
279. 동영상: [이 땅에 빛을 밝힌 신앙 선조, 이벽 성조의 생애와 최후]를 다시 보면서 !	1723
● 작성일 : 2016.10.10 오후 9:45:25	
280. 103위 성인들의 축일 첫 대미사를, 9월 20일 축일이 아닌, 10월 14일 주일에 성베드로대성당	1725
● 작성일 : 2016.10.10 오후 10:13:20	
281. 「10월이라 ‘上달’ 이니, 上帝님께 祭祀하고, 祖上님께 時祭하세 !」	1741
● 작성일 : 2016-10-11 22:38	
282. 태극기와 교황기를 처음 게양하며 - 양평본당 곡수리 공소 이야기 - (1)	1744
● 작성일 : 2016.10.12 오후 3:48:42	
283. 양평본당의 지평면 곡수리 공소 지역의 역사(2)	1750

- 작성일 : 2016.10.13 오후 4:15:51
- 284. 사람마다 벼슬하면, 농부 될 사람 뉘 있으며 ?! 1752
- 작성일 : 2016.10.21 오전 12:37:29
- 285. 白頭山 天池 巡禮 - 開天節에 잊혀져가는 上帝聖月 상달
(上月)에 붙여, Pilgrimage to Mount Paektu(白頭山) &
Heavenly Lake Chonji(天池), the most holy sanctuary
of all the Koreans' Forefathers of 5 thousand years
ago ! 1754
- 작성일 : 2016.10.22 오후 8:45:02
- 286. 우리가 지금 이르고 있을 때가 아닌데 ! 1760
- 작성일 : 2016.10.27 오전 3:58:19
- 287. 능지처참 형으로 순교하신 황사영 진사의 묘 참배! .. 1762
- 작성일 : 2016.10.29 오후 9:37:03
- 288. ‘나뭇잎 족속 같은 인생이어라’ - Virgilius -
지금은 우리가 이르고 있을 때가 아닌데! 1766
- 작성일 : 2016.10.30 오후 10:51:10
- 289. 원님 덕분에 나팔 한번 불어보는 이 시대 우리들!〈한국주교
단 전원 서명의 103위 시성 기적심사관면 청원서〉! .. 1768
- 작성일 : 2016.10.30 오후 11:09:20
- 290. 이 광란의 시국에 위령의 날,
무혈의 순교자 성모님의 일생을 되새기며..., ... 1779
- 작성일 : 2016.11.02 오전 11:31:05
- 291.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 11월 2일 위령의 날에, 교회 묘지에서,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 - 1780
- 작성일 : 2016.11.03 오전 1:32:34
- 292. 천진암 성지 화보 : 수원교구 50주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
50주년, 천진암 성지 50주년 기념 1783
- 작성일 : 2016.11.06 오후 3:18:17
- 293. 善과 平和(bonum et pax), 眞과 正義(verum et justum)가
滅種되지 말아야 할 텐데 ! 1784

- 작성일 : 2016.11.11 오후 1:30:34
- 294. 교황대사 Osvaldo Padilla, 수원교구장, 양평본당 곡수공소
봉헌식(성당, 기념서재, 천학방, 기념비석) 사진화보
- 2016년 11월 22일 1788
- 작성일 : 2016.11.22 오후 7:59:58
- 295. 國權을 守護하고, 國憲을 遵수하라! 언론폭력과 언어폭력이
지배하는 背信의 忘德時代 社會에서,
Betrayers' voice ! Bene currit sed extra viam ! · 1797
- 작성일 : 2016.11.29 오전 4:22:05
- 296. [님 따라 한 평생을 !] - 1996년 늦가을, Pbc에서 제작
방영한 VHS를 20년 만에 다시 보니...! 1803
- 작성일 : 2016.12.04 오후 10:51:28
- 297. con il Papa per il bando totale delle armi atomiche
- 교황청, 원자력 무기의 총체적 일괄 처리를...! 1806
- 작성일 : 2016.12.07 오전 10:55:52
- 298.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는 시늉도 안하고, 내가
통곡을 해도 너희는 가슴을 치는 흉내도 안내고...! ... 1811
- 작성일 : 2016.12.09 오전 11:32:55
- 299. 650 Chinese catholic peoples' communities with 22
Chinese priests visited Chon Jin Am, the Birthplace of
the Korean Church in Korea, for pilgrimage all
together ! 1813
- 작성일 : 2016.12.12 오후 8:49:50
- 300. Papa: il clericalismo è un male che allontana il
popolo dalla Chiesa - 교황님, 성직자 제일주의로
신도들 교회와 멀어져...! 1815
- 작성일 : 2016.12.14 오전 11:53:50
- 301. 언론태풍 시대에, 國權 守護를 위해
政治人들은 國憲 遵守가 제일 첫 사명인데!
- Violence of TV & News Papers etc...
Mass communication ! 1826

- 작성일 : 2016.12.14 오후 6:10:10
- 302. 배달겨레 天主 信仰史와 大韓天主教會 史記 評傳 1833
- 작성일 : 2016.12.16 오후 8:27:27
- 303. 축 성탄! - 곡수리 성당의 성탄과 연말연시 미사 시간
일부 변경 알림 - 새 해 만복을 ! 1859
- 작성일 : 2016.12.17 오후 11:00:29
- 304. 이제 우리 모두 聖誕하자!
너와 나의 영원하고 무한한 성탄을 위하여 ! 1860
- 작성일 : 2016.12.25 오전 8:12:08
- 305. 戰爭武器 非核化運動을 !
-주님의 성탄은 영원하고 무한한, 우리 성탄의 길! .. 1861
- 작성일 : 2016.12.25 오전 8:19:50
- 306. 곡수공소 성당의 성탄절 풍경
〈Holy Christmass in Mission station - photos〉
2016. 12. 24. ~25〉 1864
- 작성일 : 2016.12.26 오후 10:06:14
- 307. 동방박사들이 바친 황금(黃金)과 유향(乳香)과 몰약(沒藥)과
최근 제단의 과도한 꽃다발 장식 반성과 묵상 ! 1866
- 작성일 : 2016.12.27 오후 11:55:26
- 308. 용기와 희망의 새 해 ! - A Happy & Peaceful New Year
2017 to all of You! - Sun Rise in Eastern Sea! .. 1870
- 작성일 : 2017.01.01 오후 9:58:37
- 309. 곡수공소 송년미사와 감사 성체강복,
소성당에서 송년 다과회〈사진 허관순〉 1874
- 작성일 : 2017.01.01 오후 10:58:37
- 310. ‘바보 변기영’ 과 ‘바보 노무현’ 의 차이 - [최보식 칼럼] -
Difference between the President, Stupit Lo Moo
Hyon & Stupit Msgr. Byon- column by Chio 1875
- 작성일: 2017.01.10 오전 10:29:38
- 311. Denuclearization movement of war- weapon !
교황 성하, 韓半島의 北韓 核武器 實驗 繼續 및 各國 武器

- 密去來에 警鍾, 武器 非核化 勞力 천명, Holy Father,
spoke denuclearization..., ... 1881
- 작성일 : 2017.01.10 오후 6:22:27
312. 양평본당 주임 노성호 신부님
곡수 공소 방문 미사<사진화보> 1932
- 작성일 : 2017.01.11 오후 11:00:14
313. 天主敎會의 大韓民國 建國 活動 概觀 !
우리가 어떻게 세운 [우리나라]인데 ! 1934
- 작성일 : 2017.01.14 오전 11:33:17
314. 주변국들의 핵무기 보유에 우리 종교인들은 침묵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정치인들은 保守道, 進歩道, 中道道,
아닌, 모두가 正道로 걸어가야 ! 1948
- 작성일 : 2017.01.27 오후 2:13:46
315. 대통령 탄핵 결정은 반드시 正義로워야 하고, 헌법재판관들
에게는 [完全한 自由]로 판결하게 해야...! 1957
- 작성일 : 2017-01-31 오전11:49:35
316. 기쁜소식입니다 ! 금년 우리 곡수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2명뿐이다가 1명이 더 생겨서, 3명이나 되었다니 ! .. 1959
- 작성일 : 2017.02.10 오후 12:07:49
317. 2017년 2월 18일 태극기 쫓기 대회 동영상
- 여형구 신부 참석, 강연 포함 - 1960
- 작성일 : 2017.02.19 오후 7:50:31
318. 愛國心이 있는 곳에 太極旗가 휘날린다 !
태극기는 우리겨레의 정신적 힘이오,
생존과 번영의 武器다 !! 1960
- 작성일 : 2017.02.25 오후 9:31:52
319. 오늘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갈 길 !
탄핵과 개헌과 대선 시국에 !
- Impeachment, Constitutional Revision,
Presidential Election..., - 1968
- 작성일 : 2017.03.02 오후 11:02:30

320. 사순시기 동안 곡수리 성당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봉헌 -2017년도 성주간 시간표 알림- 1969
 ● 작성일 : 2017.03.03 오전 11:43:39
321. 교황님, 이슬람 과격단체와 북한도 언급,
 박해 받는 신도들과 함께 해야 !
 - 교황님의 호소 ! <Aiutiamo i tanti cristiani
 perseguitati nel mondo !> 1972
 ● 작성일 : 2017.03.03 오후 9:24:50
322. 한 나라의 국력이란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전에,
 국민 정신기강과 국민들의 국가의식 수준을 말한다! ... 1974
 ● 작성일 : 2017.03.10 오후 10:51:29
323. The 3rd world war by nuclear weapon of communist
 regimes must be prevented & avoided urgently today
 in Korean peninsula ! 1976
 ● 작성일 : 2017.03.10 오전 10:35:37
324. 한민족100년계획천진암대성당 건립, 어디까지 와 있나 ?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
 - 순례가기 전에 사전에 읽고 가기 ! 1984
 ● 작성일 : 2017.03.10 오후 11:05:58
325. 하느님의 중, 殉敎者 李承薰 進士의 李璣 聖祖 欽慕 詩,
 [光風霽月] 小考와 東西洋의 聖人觀 2003
 ● 작성일 : 2017.03.12 오후 11:13:51
326. 대한민국이 아니었다면, 아니,
 6·25로 대한민국이 아주 없어졌다면,
 오늘의 우리 政客들이 숨이라도 쉴 수 있으랴 ?! 2007
 ● 작성일 : 2017.03.17 오전 11:21:54
327.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2017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주한 교황대사의 연설문(2017년 3월 21일) 2010
 ● 작성일 : 2017.03.22 오후 4:07:41
328. 천주님 말씀에 귀먹어리가 된, [돌 심장]을,
 따뜻한 [살 심장]으로 바꿔야 !

- Holy Father; siamo “cattolici atei”
se abbiamo il cuore duro ! 2013
- 작성일 : 2017.03.23 오후 9:34:45
329. 교황님 말씀; 평화는 상호 파괴의 협박 위에서
수립되지 않고, 정의와 총체적인 인간 발전 위에서
확립되어야! ... Holy Father... 2017
- 작성일 : 2017.03.29 오전 2:52:33
330. [Max Thunder Drill] 작전과, 戰雲이 짙어진 韓半島에서,
美·中, 兩軍의 限界 守則(Denuclearization)···! 2025
- 작성일 : 2017.04.07 오후 10:35:19
331. The Most Rev. Mattias Ri Yong-Hoon,
Bishop of Suwon, pastoral visitation - 교구장 이용훈
주교 양평본당 사목방문(2017.04.09. 성지주일) 2028
- 작성일 : 2017.04.09 오후 5:51:22
332. 부활을 싫어하는 유물론자들에게 ! 부활이 없다면,
인간의 일생도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 2031
- 작성일 : 2017.04.18 오전 4:46:19
333. 2017년 4월의 곡수리 성당, 봄 풍경! <사진 화보>
沙右居士紀念書齋와 柳閑堂 權氏 紀念天學房 ! 2034
- 작성일 : 2017.04.27 오전 8:27:24
334. 대통령 선거?! 득표에는 이겼으나, 개표에는 지고,
발표에는 울고 마는 일 없어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 ! 2041
- 작성일 : 2017.05.02 오전 3:12:55
335. Papa: il Signore è capace di cambiare un cuore di
pietra con uno di carne - 주님께서는 [돌 심장]을
[살 심장]으로 바꿔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 2045
- 작성일 : 2017.05.03 오후 10:04:45
336. 성모 마리아 Fatima 발현 100주년(1917.05.13.~2017.05.13.),
연속 특집- 1) 루시아 수녀 선종, 2) 파티마 성모상 사진
축성 후 순례 기도 ! 2052

- 작성일 : 2017.05.05 오후 5:06:17
- 337. Fatima 성모님 발현 100주년 기념
 - 3) 교황님 방문 예정 발표 2056
- 작성일 : 2017.05.06 오전 7:28:28
- 338. 4) 천진암 성지의 파티마 성모상 건립과정 2058
- 작성일 : 2017.05.06 오전 11:40:16
- 339. 5)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5월 13일),
 - 교황 성하 파티마 성지 순례 스케줄 요약 2063
- 작성일 : 2017.05.07 오후 12:10:50
- 340. 6) Fatima에서의 성모 발현 목격자 3명의 연대기
 - Chronology of the three seers 2068
- 작성일 : 2017.05.09 오후 9:25:39
- 341. Holy Father, 세속 거짓 지혜 조심, 착하신 목자 예수님
 - 따라...! - 형식주의, 성직자 위주 사고방식, 피하라 -
 - 국가 공무원 아니고, 목자들이니... 2096
- 작성일 : 2017.05.08 오전 10:55:49
- 342. [냉담자]냐, [배교자]냐, 우리들은 이런 일에
 - [순교자들]의 재판장인가?
 - apostasia ? o martyrium ? o indifferentes ? ... 2105
- 작성일 : 2017.05.10 오후 9:36:14
- 343. 교황님의 냉담주의 얼음 심장 격파에 총동원령!
 - Fatima, le pape François lance une mobilisation
 - générale contre <l'indifférence qui gèle le cœur> 2109
- 작성일 : 2017.05.14 오후 5:16:19
- 344. 바티칸 천문대 - 우주의 근본 탐구 예산 책정 -
 - Bilancio della conferenza della Specola vaticana
 - in onore di Georges Lemaître - Alle radici
 - del cosmo 2125
- 작성일 : 2017.05.18 오전 1:44:37
- 345. 한국천주교회 창립주역 광암 이벽 성조 묘
 - 이장 사진화보 일부 - 1) 2131

- 작성일 : 2017.05.20 오후 9:31:14
- 346. 李曄 聖祖 墓 移葬 사진 화보
 - The photos of the Tomb exhumation of the Korean Church's Founding Father, Yi Byok 2135
- 작성일 : 2017.05.22 오후 2:56:57
- 347. Denuclearization of war in front of a new war outbreak in the world !
 - 戰爭武器 非核化의 時急性 ! 2137
- 작성일 : 2017.05.23 오후 5:10:39
- 348. [太宗雨]를 기다리며 [祈雨祭]바치는 백성들의 祭壇 위에,
 묶여 있는 Isaac은 祭物이 아니니,
 곧 풀어주어야만 하고...! 2141
- 작성일 : 2017.05.29 오후 11:28:30
- 349. 주일헌금을 성지로 몽땅 보내는 버릇은
 언제부터, 어디서 배웠나 ? 2157
- 작성일 : 2017.06.01 오전 4:15:23
- 350. 교황님의 오늘(6월 6일 火) 아침 미사 강론,
 [교회의 위선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기만하며 파괴한다!]
 Holy Father, how the hypocrisy destroys our Church... 2163
- 작성일 : 2017.06.06 오후 11:50:40
- 351. 중장 계급 버리고, 중령 계급을 자청하여,
 한국전에 참전한, 프랑스 Monclar 대대장 ! 2170
- 작성일 : 2017.06.15 오후 5:25:44
- 352.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8주년(1779~2017), 제39회
 (1979~2017) 한국천주교회창립기념행사(6월 24일) 거행
 - 사진 화보/Korean Church's Foundation Day ! 2175
- 작성일 : 2017.06.26 오후 3:10:12
- 353. 核武器 擴散의 責任있는 強大國들은?!
 Denuclearization of weapon ?
 <Msgr. Byon de Chon Jin Am, 1994. 25. May> .. 2180
- 작성일 : 2017.07.08 오전 11:09:27

354. 소순태 교수, [성교요지] 용어 출처 발굴 연구서,
 하상출판사 발행, 교구장 승인 !
 - Study on Giullio Aleni (艾儒畧) S.J.(1582~1649)
 etc..., ... 2194
- 작성일 : 2017.07.15 오전 11:48:59
355. 中國과 朝鮮 天主敎會 발전의 大先驅者
 Giullio Aleni, S. J.(中國名, 艾儒畧 思及) 回顧 ! 2198
- 작성일 : 2017.07.18 오전 3:05:18
356.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
 “MAIOREM HAC DILECTIONEM”
 SULL’OFFERTA DELLA VITA, il nuovo motu proprio
 per la beatificazione seu canonizzazione ! 2200
- 작성일 : 2017.07.18 오후 4:07:59
357. 바벨탑과 에펠탑, 사라진 세계무역회관 쌍둥이 빌딩과
 롯데 현 서울 탑, 인도 보디 가야 成佛塔 등의 건축 철학
 觀想 ! 2226
- 작성일 : 2017.07.29 오전 10:36:44
358. 다음 주일(8월 6일)에는 [군인 아저씨들과 옥수수
 하모니카]를 불면서 여름철을 보냅시다 ! 2230
- 작성일 : 2017.07.31 오전 10:32:06
359. 8월 5일 토요일은 文度公 若望 丁若鏞 承旨
 기념일입니다 ! 2233
- 작성일 : 2017.08.01 오후 8:55:24
360.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더니 !
 민주주의 망신은 ...! 2235
- 작성일 : 2017.08.01 오후 9:05:18
361. 8월 15일은 大韓民國 ‘建國 記念日’ 이며, 天主敎會
 ‘聖母 昇天 大祝日’ 이고, ‘無窮花 紀念日’ ! 2238
- 작성일 : 2017.08.06 오전 11:21:20
362. “경제발전만 바라보지 말고 아시아 정신문화 이끌어야”

- 〈경기일보에서 펴온 글〉 - 2256
- 작성일 : 2017.08.08 오전 9:40:55
363. 오늘날 최근 북한 정권이 매우 잘 하는 올바른 정책은?
 宗教와 外交와 經濟, 이 3가지는 칼과 돈과 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2262
- 작성일 : 2017.08.14 오후 9:30:42
364. 곡수 성당의 8·15, 대한민국건국기념일 겸 천주교회
 성모승천대축일 경축미사 봉헌과 경축회식 ! 2264
- 작성일 : 2017.08.16 오후 9:37:13
365. 한국에서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 Msgr. George
 Koovakad - 천주교회의 희망 사항이죠 ! - Msgr. Peter
 Byon 2267
- 작성일 : 2017.08.18 오후 4:43:00
366.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한민족이 받은
 특은의 역사 ! 대축일의 신비여 ! 2270
- 작성일 : 2017.08.20 오후 10:58:44
367. 9월 9일은, 조선교구 설립일, 1831년의 교황 그레고리오 16세,
 성 정하상 성 유진길, 부르기에르 소주교, 등을
 기억합시다. 2275
- 작성일 : 2017.09.05 오전 2:04:47
368. Holy Mary of anti-communism..., 無神論 共產主義者들의
 悔改와, 核戰爭 豫防을 위하여 성모님께 ! 2281
- 작성일 : 2017.09.11 오후 8:25:53
369. 지축이 핵으로 동요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자! -천진암성지
 주임 김동원 신부와 권일신 성가대 곡수성당 순례!- 2287
- 작성일 : 2017.09.13 오전 9:45:00
370. 순교자 황사영 진사 묘 순례 - 변기영 몬시뇰 일행이 해마다
 찾는 데, 잡풀이 수북하고, 출입 금지 표지판...(2017.09.18)
 2295
- 작성일 : 2017.09.18 오후 8:26:51
371. 鷺子山 동편 한 골짜기에 있었다는 鳳泰庵, 日出庵, 走魚寺,

石伊庵, 樊魚寺, 小庵, 셋절, 7개 절터에 대한 小考, 略述

..... 2299

● 작성일 : 2017.09.22 오후 9:20:31

372. 정의를 떠난 권력 행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正義가 없는 權力이나 권한 행사는 폭력이고, 불의입니다. .. 2309

● 작성일 : 2017.09.24 오후 5:19:51

373. 순교자들의 피로 물든 9월을 보내며, 방랑시인 김삿갓의 [九月山] 詩 한 수 음미를 ! 2314

● 작성일 : 2017.09.30 오후 11:04:28

374. 양평 신도들 34명, 본당주임 노성호 신부 참석,
파티마에서 [태양의 기적] 100주년 기념미사!
〈2017년 10월 13일(금) 낮 12시〉 2318

● 작성일 : 2017.10.10 오전 5:15:59

375. 言論이 正直해야 社會가 바로 나갈 텐데 ! 1960년 봄,
3.15.부정선거 당시 우리 언론을 되돌아보자 ! 2321

● 작성일 : 2017.10.15 오전 6:12:16

376. 진리와 진실도 다수결로 결정하려고 하나 ?!
- 삶과 종교;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경기일보, 제22면에서〈퍼온 글〉 2323

● 작성일 : 2017.10.17 오후 9:43:20

377. 늦가을의 名詩, ‘나뭇잎 족속 같은 인생이여라’
있는 바람에 불리어 땅에 떨어지고, - Virgilius
- 〈장애 묵상 추가〉 - 2336

● 작성일 : 2017.10.19 오전 4:07:38

378. 휴전 후, 청와대 기습시도한 북한 124 특수부대원
김신조 외 31명의 몰살(1968년 1월 21일) ! 2341

● 작성일 : 2017.10.19 오후 8:00:08

379. 環境破壞와 環境改善은 識別해야 !
〈도롱뇽 시나리오 狂風에 愚弄 당하는 국민들〉 2367

● 작성일 : 2017.10.21 오전 3:39:53

380.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방문 기회 놓치지 말아야 !

Body guards & Attache army unit groups of Pres.

Trump for Extreme Asia visit ! - 2371

● 작성일 : 2017.10.26 오전 11:47:47

381. “아들 낳아서 신부 보낼거가 아녀!” 하는 소리 들으며,

96세, 天壽를 하신, 김순옥 마리아, 우리 동창

김정원 몬시뇰의 어머니가 살아오신 길은 ! 2377

● 작성일 : 2017.10.29 오전 8:08:43

382. 핵무기로 집단 자살 위협으로 치닫는 오늘의 인류를…!

- 교황님 말씀 - Papa Francesco: armi nucleari,

l'umanità rischia il suicidio ! 2383

● 작성일 : 2017.11.03 오전 4:25:29

221. 독일의 저명한 피터 노이나 신부님(Peter Neuner, 前 Muenchen 가톨릭 신학대학 교수) 천진암성지 순례차 방문

유럽 신학계에서 저명한 독일 前 뮌헨 가톨릭대신학교 교수 피터 노이나 신부님 (Muenchen, Prof. Dr. Peter Neuner)이, 中國 西安에서의 초빙 강연을 마치고, 한국을 방문하여, 신정호 신부님(서울 혜화동 가톨릭대신학교 교수)의 안내로 천진암성지를 순례하면서 성지주임 김학렬 신부님의 안내로 하느님의 종, 세자요한 광암 이벽,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권일신, 베드로 이승훈, 암브로시오 권철신, 복자 아우구띠노 정약종,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들 묘를 참배, 신정호 신부님의 유창한 독일어 통역, 2015.11.12.)(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299번 참조).

독일 前 뮌헨 가톨릭대신학교 교수 피터 노이나 신부님 (Muenchen, Prof. Dr. Peter Neuner)이 신정호 신부님(서울 혜화동 가톨릭대신학교 교수)의 안내로 천진암성지를 순례하면서 성지주임 김학렬 신부님의 안내로 하느님의 종, 세자요한 광암 이벽,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권일신, 베드로 이승훈, 암브로시오 권철신, 복자 아우구띠노 정약종,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들 묘를 참배 후, 한민족100년제천진암대성당 건립 터 현장을 둘러보며, 변기영 몬시뇰의 설명을 들었다(신정호 신부님의 유창한 독일어 통역, 2015.11.12.)(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299번 참조).

독일 前 뮌헨 가톨릭대신학교 교수 피터 노이나 신부님 (Muenchen, Prof. Dr. Peter Neuner)이 신정호 신부님(서울 혜화동 가톨릭대신학교 교수)의 안내로 천진암성지를 순례하면서 성지주임 김학렬 신부님의 안내로 하느님의 종, 세자요한 광암 이벽,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권일신, 베드로 이승훈, 암브로시오 권철신, 복자 아우구띠노 정약종,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들

묘를 참배 후, 한민족100년계회천진암대성당 건립 터 현장을 둘러보며, 변기영 몬시뇰의 설명을 듣고, 천진암성지 세계평화를 위한 성모상을 참배하였다(신정호 신부님의 유창한 독일어 통역, 2015.11.12)(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299번 참조).

독일 前 뮌헨 가톨릭대신학교 교수 피터 노이나 신부님(Muenchen, Prof. Dr. Peter Neuner)이 신정호 신부님(서울 혜화동 가톨릭대신학교 교수)의 안내로 천진암성지를 순례하면서 성지주임 김학렬 신부님의 안내로 하느님의 종, 세자요한 광암 이벽,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권일신, 베드로 이승훈, 암브로시오 권철신, 복자 아우구띠노 정약중,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들 묘를 참배 후, 한민족100년계회천진암대성당 건립 터 현장을 둘러보며, 변기영 몬시뇰의 설명을 듣고, 천진암성지 세계평화를 위한 성모상을 참배하고 나서, 내부시설 중인 천진암박물관을 둘러보았다(신정호 신부님의 유창한 독일어 통역, 2015.11.12)(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299번 참조).

독일 前 뮌헨 가톨릭대신학교 교수 피터 노이나 신부님(Muenchen, Prof. Dr. Peter Neuner)이 신정호 신부님(서울 혜화동 가톨릭대신학교 교수)의 안내로 천진암성지를 순례하면서 성지주임 김학렬 신부님의 안내로 하느님의 종, 세자요한 광암 이벽,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권일신, 베드로 이승훈, 암브로시오 권철신, 복자 아우구띠노 정약중,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들 묘를 참배 후, 한민족100년계회천진암대성당 건립 터 현장을 둘러보며, 변기영 몬시뇰의 설명을 듣고, 천진암성지 세계평화를 위한 성모상을 참배하고 나서, 내부시설 중인 천진암박물관을 둘러본 후에, 한국천주교회창립사연구소 편찬실을 들러서, 변기영 몬시뇰의 설명을 들었다 (신정호 신부님의 유창한 독일어 통역, 2015.11.12)(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299번 참조).

독일 前 뮌헨 가톨릭대신학교 교수 피터 노이나 신부님(Muenchen, Prof. Dr. Peter Neuner)이 신정호 신부님(서울 혜화동 가톨릭대신학교 교수)의 안내로 천진암성지를 순례하면

서 성지주임 김학렬 신부님의 안내로 하느님의 종, 세자요한 광암 이벽,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권일신, 베드로 이승훈, 암브로시오 권철신, 복자 아우구띠노 정약중,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들 묘를 참배 후, 한민족100년계회천진암대성당 건립 터 현장을 둘러보며, 변기영 몬시뇰의 설명을 듣고, 천진암성지 세계평화를 위한 성모상을 참배하고 나서, 내부시설 중인 천진암박물관을 둘러본 후에, 한국천주교회창립사연구소 편찬실을 들러서, 변기영 몬시뇰의 설명을 듣고, 전산실의,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www.chonjinam.org의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management counter를 열어, 한·중·영·일·불·이·서·독어로 된 월별, 일별, 시간별, 언어별, 시청자 통계를 보고, 놀라는 기색이었다(신정호 신부님의 유창한 독일어 통역, 2015.11.12)(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299번 참조).

독일 前 뮌헨 가톨릭대신학교 교수 피터 노이나 신부님 (Muenchen, Prof. Dr. Peter Neuner)이 신정호 신부님(서울 혜화동 가톨릭대신학교 교수)의 안내로 천진암성지를 순례하면서 성지주임 김학렬 신부님의 안내로 하느님의 종, 세자요한 광암 이벽,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권일신, 베드로 이승훈, 암브로시오 권철신, 복자 아우구띠노 정약중,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들 묘를 참배 후, 한민족100년계회천진암대성당 건립 터 현장을 둘러보며, 변기영 몬시뇰의 설명을 듣고, 천진암성지 세계평화를 위한 성모상을 참배하고 나서, 내부시설 중인 천진암박물관을 둘러본 후에, 한국천주교회창립사연구소 편찬실을 들러서, 변기영 몬시뇰의 설명을 듣고, 전산실의,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www.chonjinam.org의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management counter를 열어, 한·중·영·일·불·이·서·독어로 된 월별, 일별, 시간별, 언어별, 시청자 통계를 보고, 놀라는 기색이었다(신정호 신부님의 유창한 독일어 통역, 2015.11.12). 연구소의 고문서 중, 정약용, 권철신, 등 친필 원본 일부를 보고, 사진촬영을 요청, 허락하였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299번 참조).

독일 前 뮌헨 가톨릭대신학교 교수 피터 노이나 신부님(Muenchen, Prof. Dr. Peter Neuner)이 신정호 신부님(서울 혜화동 가톨릭대신학교 교수)의 안내로 천진암성지를 순례하면서 성지주임 김학렬 신부님의 안내로 하느님의 종, 세자요한 광암 이벽,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권일신, 베드로 이승훈, 암브로시오 권철신, 복자 아우구띠노 정약중,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들 묘를 참배 후, 한민족100년제회천진암대성당 건립 터 현장을 둘러보며, 변기영 몬시뇰의 설명을 듣고, 천진암성지 세계평화를 위한 성모상을 참배하고 나서, 내부시설 중인 천진암박물관을 둘러본 후에, 한국천주교회창립사연구소 편찬실을 들러서, 변기영 몬시뇰의 설명을 듣고, 전산실의,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www.chonjinam.org 의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management counter를 열어, 한·중·영·일·불·이·서·독어로 된 월별, 일별, 시간별, 언어별, 시청자 통계를 보고, 놀라는 기색이었다(신정호 신부님의 유창한 독일어 통역, 2015.11.12). 연구소의 고문서 중, 정약용, 권철신, 등 친필 원본 일부를 보고, 사진촬영을 요청, 허락하였다. 점심 시작 턴, 방문 기념문을 남기고...(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299번 참조).

독일 前 뮌헨 가톨릭대신학교 교수 피터 노이나 신부님(Muenchen, Prof. Dr. Peter Neuner)이 신정호 신부님(서울 혜화동 가톨릭대신학교 교수)의 안내로 천진암성지를 순례하면서 성지주임 김학렬 신부님의 안내로 하느님의 종, 세자요한 광암 이벽,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권일신, 베드로 이승훈, 암브로시오 권철신, 복자 아우구띠노 정약중,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들 묘를 참배 후, 한민족100년제회천진암대성당 건립 터 현장을 둘러보며, 변기영 몬시뇰의 설명을 듣고, 천진암성지 세계평화를 위한 성모상을 참배하고 나서, 내부시설 중인 천진암박물관을 둘러본 후에, 한국천주교회창립사연구소 편찬실을 들러서, 변기영 몬시뇰의 설명을 듣고, 전산실의,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www.chonjinam.org 의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management

counter를 열어, 한·중·영·일·불·이·서·독어로 된 월별, 일별, 시간별, 언어별, 시청자 통계를 보고, 놀라는 기색이었다(신정호 신부님의 유창한 독일어 통역, 2015.11.12.). 연구소의 고문서 중, 정약용, 권철신, 등 친필 원본 일부를 보고, 사진촬영을 요청, 허락하였다. 점심 시작 던, 방문 기념문을 남기고, 연구소에서 간소한 점심을 모두가 함께 하면서, 내일의 세계교회에 관한 소견들을 나누었다.

변기영 몬시뇰이, 내일의 천주교회는 평신도들의 사도직활동 성공 여부에 좌우되며, 우리 성직자들이 평신도들을 존경하는 것이, 미래교회 발전의 첫 걸음이라는 말에, 노이너 신부님은 즉시 동감이며 동의한다고 답하였다.

● 작성일 : 2015-11-14 11:48

222. 프랑스 Institute Catholique de Paris

가톨릭신학대학교 교수단 일행의

천진암 성지 순방- <사진화보>

유럽에서 로마 다음으로, 전 세계 교회의 신학 연구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파리대신학교의 프랑스 파리의 요셉 도레 대주교(J. Doré, 스트라스부르크 명예 대주교), 앙리 -제롬 가제 신부(H.-J. Gagey, 파리가톨릭대학교 교수), 프랑스와 모그 교수(F. Moog, 파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쥘비에브 메드 비엘 수녀(G. Medevelelle, 파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조엘 몰리나리오 교수(J. Molinario, 파리가톨릭대학교 교리교육학 부장) 일행이 수원가톨릭대학 교수 한민택 신부님의 안내로, 2015년 10월 30일,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변기영 몬시뇰의 현장안내 설명(한민택 신부 통역)을 들으며, 천진암 성지를 순례 하였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일행은 천진암 터에 모셔진 하느님의 종, 이벽, 권일신, 이승

훈, 권철신, 복자 정약중, 5위 묘 참배와, 후손대표들(이상균 회장, 이승훈 순교자 7대직계 후손), 이재형(이벽 성조 문중 8대 후손), 정해만(정약중 7대 후손)도 만나는 감격을 체험하며, 한민족100년계획 천진암대성당 건립현장,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강복문 머릿돌과 제대석, 성모성당, 천진암박물관, 한국천주교회창립사 연구원, 등을 순방하고 나서, 간결한 점심을 하였다.

하느님의 종, 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복자 정약중, 한국천주교회창립성조 5위 묘를 참배한 후, 교회창립성조 직계 후손들과 함께(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한민족100년계획천진암대성당 건립현장에서(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머릿돌 강복문 비석 앞에서(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머릿돌 강복문 비석을 읽고서((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1770년 늦가을부터 1784년 늦봄까지, 교회창립성조들이 본거지로 삼았던 천진암 터 앞의 강학당 터 설명을 들으면서(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이벽 성조 묘 앞에서의 기도를 바치며...(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강학 당시 권철신 학자의 나이를 따라 44 돌계단을 내려오며(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강학 당시 권철신 학자의 나이를 따라 44 돌계단을 내려와서, 15년간 학자들이 마시던 빙천수를 마셔보면서(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1770년 늦가을부터 1784년 늦봄까지, 교회창립성조들이 본거지로 삼았던 천진암 터 앞의 강학당 터를 밟으며 설명을 들으니...(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천진암 박물관 연건평 1,500평 중 1층 450평을 들어와서 벽에

걸린 정약용 문도공이 천진암 현장에서 지은 시문들을 읽고…
(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천진암 박물관 연건평 1,500평 중 2층 450 평을 올라와 둘러보고 내려오면서 들어와서 벽에 걸린 정약용 문도공이 천진암 현장에서 지은 시문들과 교황문헌을 보면서…(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천진암 박물관(연건평 1,500평) 현관을 나오면서….(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성모경당(240평)을 참배하고….(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한국천주교회창립사연구원의 변기영 몬시뇰 집무실에서 8개국어로 나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일 각국어 방문자(평균 5,000여명~13,000여명)를 들어가 보고 놀라면서….(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한국천주교회창립사연구원의 변기영 몬시뇰 집무실에서 8개국어로 나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일 각국어 방문자(평균 5,000여명~13,000여명)를 들어가 보고 놀라고 나서, 대주교님이 대표로 방문 표시로 몇자 쓰고….(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한국천주교회창립사연구원의 변기영 몬시뇰 집무실에서 8개국어로 나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일 각국어 방문자(평균 5000여명~13000여명)를 들어가 보고 놀라고 나서, 대주교님 일행에게 방문 표시로 기념 메달을 받으시고…(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한국천주교회창립사연구원의 변기영 몬시뇰 집무실에서 8개국어로 나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일 각국어 방문자(평균 5,000여명~13,000여명)를 들어가 보고 놀라고 나서, 대주교님 일행의 방문 표시로 기념 어록을 남기고….(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연구원 식당에서 간소한 점심을 함께하고(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연구원 식당에서 간소한 점심을 함께하고, 은둔처 연구소를 나서며...(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0번 참조).

파리 가톨릭신학대학 교수단 일행은, 잊혀져 가던 한국천주교회 창립 성조, 세자요한 이벽 성조를 비롯한 선조들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처음으로 파리 가톨릭대학에서 3편(이성배 신부, 김옥희 수녀, 김웅태 신부)이나 나오게 한데 대하여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Le Tesi dottorali che trattano opere, spiritualità, virtù, vita e attività dei 5 fondatori della Chiesa coreana

Kim, Anne Ok Hee, Le rôle de Yi Byok dans L'introduction et La Diffusion du atholicisme en Corée, Université de Paris-Sorbonne : Paris 1977.

Ri, Jean Songbae, Les Principes confucéens de la première théologie chrétienne en Corée, d'après l'oeuvre de Yi Byok (1754~1785), Institut Catholique de Paris : Paris 1977.

Diaz Hector, A Korean Theology-Chu-Gyo-Yo-Ji : Essentials of the Lord's Teaching by Chong Yak-Jong Augustine(1760~1801), directed by prof. Shonborn[1], Fribourg 1986.

Kim, Ung-Tai, L'expérience religieuse coreenne dans la première annonce du message chrétien (1779-1839), Institut Catholique de Paris : Paris 1989.

Moon Tahn II[2], Jesuit and Seonbi(士) in East Asia and the Production of the First Korean Supplemental Teaching by Yi Byeok - The Idea of God in the Essence of Sage Teaching as an Exercise in Self-Cultivation(Sudeok) and Self-Expenditure(Jeonghan), New College, The Mound -

The University of Edinburgh, England, July 2001.

Kim, Dong-Won, 初期韓國天主教會平信徒의信仰與靈修 (La Spiritualità dei laici Fondatori della primitiva comunità della Chiesa Cattolica in Corea), Fu Jen Università di Taipei China, 2003.

[1] Ora il cardinale di Vienna.

[2] Ora professore ebreo in Corea.

● 작성일 : 2015-11-14 11:52

223. 12월 5일(토), 제213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토요일 저녁 6시~9시)

오는 12월 5일(토요일) 저녁 6시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직장
과 가정을 위하여,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제213회 천
진암 성지 월례 촛불기도회가 봉헌됩니다.

매월 첫 토요일 저녁에 바치는 천진암 성지의 월례 촛불기도
회는 오후 6시부터 여러 사제들이 [성모신심 미사]를 봉헌하고,
이어서 촛불을 들고 묵주의 기도 15단을 정성껏 바치며, 세계
평화의 성모상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
합니다.

平和統一은 공짜통일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은 統一戰爭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기도와 희생과 인내와 보속과 봉헌으로 점철
된 殉教統一입니다. 죽고 죽이는 武士掌風이나, 西風과 대결하
는 東風보다도 더 막강한, 천상에 계신 성모 마리아의 聖母 天
風 까지도 동원하는 기도와 보속이 전제된, 天主님이 도와주시
는 초자연적 戰力에 의해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통일입니다.
天主 聖父님의 神風으로 온 우주 천체가 再改되기 전에, 기도와

보속의 天風으로 우리나라와 우리겨레를 平和統一합시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면 하늘도 말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피 흘리는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전범자들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천주님께 기도합시다 !!!

비나 눈이 내려도 예정대로 거행되며, 기후가 아주 심하게 나쁘면 행렬은 하지 않고, 실내에서 거행합니다. 천진암 성지는 심산궁곡이라서, 해가 지면 매우 추우므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이만큼 안전하게 지내는 것도, 이곳 천진암 성지의 소박하고 순수한 천진회원들의 뜨거운 기도의 덕이라고 믿습니다. 기도 후에는 천진암성지 천진회가 마련한, 국밥 또는 국수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특히 극동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빈약한 국가들이, 무력 강국화와 경제대국화에 집중하면서 영토확장까지 추구하는 이웃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핵무기 신앙에 집착하는 북한을 대하고 있는 우리로서, “세계평화의 성모님” 진심으로 열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남북한이 모두, 중국과 일본, 특히 북한도 더욱 정직하고 겸손해지고, 남한도 오락과 유흥과 사치와 향락을 줄이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 개인들도 국가도 모두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

이 세대가 천주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212회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오후 6시 미사, 2015.11.08.)(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1번 참조).

● 작성일 : 2015-11-18 10:02

224. 종교단체의 범인은익과 범법자 보호의 성격과 한계는 ?

종교단체의 범인은익과 범법자 보호의 성격과 한계는 ?

- 김수환 추기경의 간첩 불고지죄는…?

종교단체의 범인은익(犯人隱匿)이나 범죄인 보호(弱者 保護)의 성격과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 전쟁 중에 我軍의 총에 맞아 부상한 적군이 살기 위하여 聖堂이나 佛堂이나 禮拜堂, 수녀원 같은 종교기관으로 찾아들어와 救助를 요청하는 경우, 부상한 적군을 받아들여 감추어주고, 치료해주며, 돌보아주는 것을 범인은익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으며, 또 이적행위(利敵行爲)라고 보지도 않는 것이 성직자들 편에서의 상식이라고 할 것이다. 적십자정신으로도 이해되고 설명이 되는, 종교단체의 慈悲 이전의 당연한 직무수행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빵 사먹을 돈이 전혀 없어서 며칠을 굶은 장발장이 성당 제단의 금빛 촛대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혀서, 도둑질하고 나온 그 성당으로 다시 끌려왔을 때, 사제는 경찰에게, ‘장 발장이 도둑질 한 것이 아니고, 사제인 내가 그에게 준 것’ 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를 풀어주게 하였는데, 빅돌 위고의 이 대목을 많은 이들은, ‘그 사제는 천당 가는 거짓말을 하였다’ 고 생각하였다.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이 경찰한테 쫓기다가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가 숨겨주기를 청한 적이 있었다. 추기경은 그에게, 자수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자수하지 않고, 나가서 다니다가 다른데서 체포되어, 그 간첩을 수사하던 기관에서는 뒤늦게서야 이를 알고, 추기경이 범인은익까지는 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적어도 간첩을 알고도 관계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不告之罪만은 범하였다고 보고, 처벌해야만 한다는 입장과, 보호를 청하러 찾아온 弱者를 성직자가 차마 어떻게 고발하느냐는 입장으로 당시 사제들

사이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까지 거론된 적이 있었다.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잘 아는 노인 사제와의 식사 중에, 성직자의 범인은익이나 범인보호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중세 이후 잦은 전란을 겪은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성당을 찾아와 보호를 요청하는 범죄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지만, 살인범이나 폭력사범이나 방화범 같은, 이른 바, 公安事犯들은 여기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 통례이며, 특히, 전쟁 중에 反國家的인 무장한 적군이나 간첩이 성당으로 잠입하여, 항복도 귀순도 거부하며, 은신처 제공과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의 면전에서는 친절히 응하면서도,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뒤로 我軍에게 알려주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본분이라고, 자연스럽게 하는 말을 들었다.

청와대 습격을 위해 북한에서 파견되었던, 이른 바, 1968년 김신조 부대의 ‘1·21 사태’ 때, 양주군의 법원리 초리골 산속에서 30여명의 공비들한테 5시간이상 억류되었던 4명의 나무꾼들이, 경찰에 알리지 않기로 거짓 약속하고 밤늦게서야 풀려서 마을로 내려와 밥을 해다 주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마을 이장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였던 행동이 유사한 예라고나 할까?

2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점령된 프랑스의 어느 산골 수도 공동체에서, 부대장과 장교들 몇 명의 강요에 의해,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고 하며, 의심 많은 독일군 대장이 그 수도공동체 임원들보고, “포도주를 먼저 마셔보라”고 한 후, 안심하고 독일군 장교들도 함께 마시어, 모두 함께 죽은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비전투요원인이었던 저들의 극한적인 抗獨투쟁 참여의 일면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전시에든 군중신부들은 총을 가지고 적군을 사살하지 않게 되어 있지만…! 임진왜란 때와 몽고족의 元나라 침략 때, 살생을 피하는 스님들이 僧兵으로서 보여준 용맹한 전투와 戰功은 우리 국민들에게 護國佛教의 교과서이기도 하다.

결국, 종교기관의 성직자들이 범죄인 은익이나 범죄인 보호를

요청받는 경우에도, 그 범죄인이 범한 범법행위에 대한 同意나 同助나 목인이나 同參이나 後援이나 共犯의 성격을 共有하는 同僚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정 때, 일본 형사한테 쫓기는 우리 독립군을 감추어주고, 보호하는 것을, 일본 총독부 편에서는 범죄행위로 여겼지만, 우리 편에서는 독립투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될 뿐이었듯이…! 반면에, 전국 모든 교회와 사찰과 성당이 범인보호소가 된다면…? - Msgr. Byon-

● 작성일 : 2015-11-23 02:01

225. 성탄절 묵상!! 교황방한과 한국주교단 로마 ADLIMINA 때 교황님 강론의 근거가 된 황사영 진사 백서(帛書) 묵상을…!

성탄 ! 성탄 ! 성탄 !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도 하느님과 하나가 될수 있으니, 하느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탄 ! 성탄 ! 성탄 !

교황성하의 작년 방한과 금년 한국주교님들의 로마 ADLIMINA 때, 교황님의 공식 주요강론문맥 속에는, 김학렬 신부의 독후감과 합리적 지적대로, 황사영순교자의 백서에 나오는 文句도…! 교황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황사영 백서의 문귀들을 대조하며 읽읍시다. 성탄절 묵상으로!

순교자 황사영 백서(帛書) 주요 부분 주해.

<이하는, 1801년 辛酉年 박해 때 26세로 순교하는 황사영 진사(1775~1801)가 충북 제천의 배론 산골로 피신하여, 여름내내 옹기 굽는 토굴 가마 속에서 비단에 써서, 북경 주교에게 보내

는 帛書의 주요부분을, 보다 알기 쉽게 새로 시도한譯述(역술)입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한국교회 창립선조들이 자발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직접 천주님의 존재를 확인하여 신앙하며 공경함으로써 조선천주교회를 세웠음을 최초로 밝히고 증언한 첫 문헌이다. 작년과 금년 교황 프란치스코 선언문과 교황 聖 요한 바오로 2세의 공식 강론의 근거를 제시한, 실로 귀중한 기록입니다.

지금의 국립대학 박사학위를 능가한다고 볼 수 있는 당시 조선 왕이 친히 수여한 진사 학위를 받은 황사영 진사가 쓴 백서(帛書)는 그 내용이 40여년 후, 이를 알리는 조선에 최초로 입국한 프랑스인 선교사 Pierre Maubant 신부의 1838년 프랑스어 보고서 문헌보다 38년이나 앞서는 고귀한 것이다(Msgr. Byon).

황사영 백서(帛書) 중 주요 부분 원문

主恩之於東國,可謂迴越尋常,初未嘗有傳教者來而,主特舉斯道而親之繼,又以授聖事者豫之,種種特恩,指不勝屈,今年此罰,固知罪人等,辜負之攸致,然主之仁慈,猶未全棄,似此殘破之中,特留一線之路,明保肯救東國之表證,主佑既如此,若中西諸國事主之人,合心全力而圖之,豈不能化殃爲吉,救活此手掌之地耶,罪人等以此自慰而慰人,忍死延生,願大爺承行主旨,速施申救.〈황사영백서 art.101〉

위 원문의 漢字語 國語音譯

[…주은지어동국(主恩之於東國)/가위형월심상(可謂迴越尋常)/초미상유전교자래이(初未嘗有傳教者來而)/주특거사도이친여지계(主特舉斯道而親之繼)/우이수성사자예지(又以授聖事者豫之)/종종 특은지불승굴(種種特恩,指不勝屈)/금년차벌(今年此罰)/고지죄인

등고부지유치(固知罪人等, 辜負之攸致)/연주지인자유미전기(然主之仁慈, 猶未全棄)/사차잔파지중(似此殘破之中)/특유일선지로(特留一線之路)/명보궁교동국지표증(明保肯救東國之表證)/주우기여차(主佑既如此)/약증서제국사주지인(若中西諸國事主之人)/합심전력이도지(合心全力而圖之)/기불능화앙위길(豈不能化殃爲吉)/구활차수장지지야(救活此手掌之地耶)/죄인등이차자위이위인(罪人等以此自慰而慰人)/인사연생(忍死延生)/원대야승행주지(願大爺承行主旨)/속속시신구(速速施申救)…]〈황사영백서 art.101〉

위 원문에 대한 현대어 역술.

천주님께서 우리 동쪽나라 조선에 베푸신 크신 은덕은(主恩之於東國),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특출한 예라고 말할 수 있 으니(可謂迥越尋常),

일찍이 처음부터 그 어떤 傳敎者도 들어오기 전에(初未嘗有傳敎者來而),

천주님께서서는 친히 이道を 우리 선조들에게 특별히 들어보이 시고(主特舉斯道而),

우리와 마주하며 끊임없이 거들어 주시고자, 聖事 거행자도 미리 마련하여 주시니(親?之繼 又以授聖事者豫之),

가지가지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특별한 은덕은 일일이 손가락 꼽아가며 셀 수가 없습니다(種種特恩, 指不勝屈).

금년 들어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박해의 벌은(今年此罰),

우리 죄인들의 잘못 때문임을 굳게 알고 있기에(固知罪人等),

우리는 이 멍에를 지고서 가고 있습니다마는(固負之攸致然),

천주님의 자비는 오히려 아직도 우리를 차마 다 버리지 아니 하시고 (主之仁慈猶未全棄),

우리 모두가 살아남지 못할 이러한 파멸 속에서도(似此殘破之中),

특별히 한 가닥 실낱같은 길을 남겨 두셨으니(特留一線之路),

이는 분명히, 우리를 꼭 구출하여 지키려 하심을 밝히 보이시는(明保肯救),

우리 동쪽 나라를 위한 표증이라 생각합니다(東國之表證).

천주님의 도우심이 이미 이처럼 있사오니(主佑既如此),

만일 중국과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若中西諸國事主之人),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 계획을 세워 힘쓴다면(合心全力而圖之),

지금 겪는 재앙이 길복(吉福)으로 바뀌게 될 것이므로(豈不能化殃爲吉),

손바닥만한 이 땅의 우리를 건져 살리는 일이 어찌 불가능하겠습니까?(救活此手掌之地耶)

우리 죄인들은 이렇게나마 자신을 위로하고, 서로를 위로하며(罪人等以此自慰而慰人),

차마 죽지 못하는, 죽음을 참고 견디면서, 삶을 늘여가고 있사오니(忍死延生),

청컨대 주교 대인께서는 천주님의 뜻을 받들어(願大爺承行主旨),

신속히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速速施申救)

-卞基榮 몬시뇰 譯述-〈黃嗣永帛書 art.101〉

2014년 8월 14일, 서울, 주교회의 주교님들과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사진, 평화신문>(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89번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작년(2014.8. 14) 여름에 한국에 오시던 첫날, 전국 주교님들에게 하신, [기억 지킴이] 말씀과, 금년 봄에 로마의 사도좌를 예방한(2015. 3. 12) 한국주교님들에게 하신 [한국의 첫 신앙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지나가는 일시적인 말씀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금년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묵상제목으로 삼아, 천천히 몇 차례 읽어보고 되새기며, 실천하도록 합시다.

작년 여름에 오셔서 [기억 지킴이] 주제로, 한국천주교회창립성조, 하느님의 종, 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복자 정약

중, 등, 한국교회신앙의 제1세대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Yi Byeok e i nobili anziani della prima generazione).

금년 봄에 로마의 사도좌를 단체로 공식 예방한(Ad Limina) 한국 주교님들에게는, 한국에서 천주교 [신앙의 첫 공동체]를 이룩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영세, 견진, 등 일반적인 성사를 받기 전에,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천주교 신앙인들이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분들이 실천한 거룩한 신도생활은 오늘의 우리 모두와 전 세계 교회에 모범과 교훈을 주고 있음을 상기시키시며(Già prima che la loro fede,,, Quella prima comunità…)본받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국어번역문 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점도 있어서, 공부하는 젊은세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교황님이 사용하신 이태리어 원문을 이하에 올렸으며, 본 난에 들어가면 영어와 불어와 독어 번역문도 올려져 있으므로 유럽 주요 언어로 비교하며 보고자 하면, 이 홈페이지(www.chonjinam.org)의 [이번 주 풍경소리] No. 240호 (2014. 8. 26.)와, No. 272호 (2015. 5.9.)호에 들어가면, 교황님 말씀 전문이 韓·英·佛·伊·西, 주요 외국어 공식번역문이 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과 대조하여보는 黃嗣永 帛書 중 일부 발췌문〉

[…主恩之於東國，可謂迴越尋常，初未嘗有傳教者來而，主特舉斯道而親?之繼，又以授聖事者豫之，種種特恩指不勝屈，今年此罰，固知罪人等辜負之攸致，然 主之仁慈猶未全棄，似此殘破之中，特留一線之路，明保肯救東國之表證，主佑既如此，若中西諸國事主之人，合心全力而圖之，豈不能化殃爲吉， 救活此手掌之地耶，罪人等以此自慰而慰人，忍死延生，願大爺承行主旨，速速施申救…]<항사영백서 art.101>

〈천주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있어서는 보통 정도를 훨씬 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처음부터 전교하는 사람이 찾아온 적도 없이 천주께서는 특히 이 진리를 들어서 친히 들려주시며, 마주하여 함께 거들어주셨고, 이어서 또 성사를 주는 사람을 주신 가지가지 특별한 은혜는 손가락으로 일일이 다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받고 있는 이 별은 원래 저희들의 배은망덕으로 일어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의 인자하심이 아직도 아주 저희를 아주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잔인하게 파괴된 가운데서도 특히 한 줄기의 길을 남기셨음은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표징이 뚜렷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의 보우하심이 이미 이와 같으니, 만일 중국과 서양 각국의 천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온 힘으로 도모하면 어찌 이 양화를 변하여 길복(吉福)으로 만들어 이 손바닥만한 땅을 살려내지 못하오리이까? 저희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옵고, 또 서로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있사오며, 죽음을 참아가며, 실로 죽지 못해 목숨을 늘여가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교님께서는 천주의 뜻대로 행하사, 속히 저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소서)

〈황사영 帛書, 金盆鎭 譯, 한국순교사화 제4권, 가톨릭출판사, 1976/일부 글자 변기영 교정 보완 - 親卑之 → 親?之〉

〈파도처럼 밀려오는 전 세계 각처에서 모이는 로마 순례단들을 접견하시었는데, 로마로 돌아가신 후, 1년 후에, 로마를 정례 예방하는 한국 주교들에게, 교황님께서는 또 다시 한국천주교회의 창립사에 대한, [기억 지킴이] 같은 노선에서, 아래요지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전국 주교님들을 통하여 우리 전국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2015. 03. 12.)는 이처럼 사도좌를 방문한 한국 주교들에게 하신 연설에서, 최초의 한국 천주교 신자들, 즉 이벽, 이승훈, 권철신, 권일신, 정약종, 등 신앙의 1세대 신앙공동체가 세례, 견진, 성체, 등의 성사를 받기 전부터, 마치 사도시대에서처럼, 이미 얼마나 거룩한 신앙생활과 신앙활동을 하였으며, 마침내는 목숨까지 바

쳤는지 모를 수 없는 거룩한 기억을 잃지 맙시다. -Msgr. Byon-〉

Conferenza Episcopale Coreana(Seoul)-Giovedì, 14 agosto 2014.

한국어 cbck 번역문 & European Languages from Vatican.va〉

〈이하, 2014. 14. Agosto, 서울, 한국주교회의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방한 첫날 한국 주교들에게 하신 연설, 한국어 번역문과 이태리어 원문 - Essere Custodi della Memoria〉

한국 주교들과 만남에서 - 프란치스코 교황성하의 말씀

〈서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강당에서- 2014년 8월 14일, 목요일〉

- [기억 지킴이]의 본분을 다하자! -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 주신 형제적인 환영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활기찬 삶을 직접 보게 된 것은 저에게 커다란 복입니다. 목자로서 여러분은 주님의 양 떼를 지키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지키는 것은 특별히 주교에게 맡겨진 임무의 하나로, 곧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형제 주교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지키는 임무의 두 가지 중심 측면을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억의 지킴이가 되는 것, 그리고 희망의 지킴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의 지킴이가 되는 것. 윤지충 바오로와 그 동료들의 시복은 순교자들이 뿌린 씨앗으로 이 땅에서 은총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순교자들의 후손이고, 그리스도 신앙을 영웅적으로 증언한 그 증거의 상속자들입니다. 또한 평신도들에게서 시작되어 여러 세대에

걸친 그들의 충실성과 끊임없는 노고로 크게 자라난, 매우 비범한 전통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직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신도였고, 그들 스스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가 하느님의 말씀과 직접 만나 시작되었다는 것은 뜻이 깊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에는 아름다움과 진실성이 있어서, 복음과 복음의 요구, 곧 회개, 내적 쇄신, 사랑의 삶에 대한 요구가 이백과 첫 세대의 양반원로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한국 교회는 바로 그 메시지에, 그 순수함에,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비추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 땅에 뿌려진 복음의 비옥함과 여러분의 신앙 선조들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은, 오늘날 활기찬 본당 사목구와 교회 단체들의 번창에서, 탄탄한 교리교육과정에서, 젊은이들과 가톨릭 학교, 신학교와 대학교에 대한 사목적 관심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국가의 정신적 문화적 생활에 대한 역할과 선교에 관한 힘찬 열정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교지였던 한국은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편 교회는 여러분이 세계에 파견한 수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억의 지킴이가 되는 것은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고 고이 간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 기억으로부터 영적인 자산을 꺼내어, 앞을 내다보는 지혜와 결단으로 미래의 희망과 약속과 도전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듯이, 한국 교회의 삶과 사명은 궁극적으로 외적, 양적, 제도적인 잣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복음의 빛과 그 부르심에 비추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억의 지킴이가 되는 것이란, 성장시켜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1코린 3,6 참조) 깨닫고, 동시에 성장은 과거처럼 현재에도 고난을 이겨내며 끊임없이 일하는 그러한 노고의 열매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순교자들과 지난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억은 현실적이

어야합니다. 이상화되거나 “승리에 도취” 된 기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회개 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과거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길을 나아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 진전을 가로막거나 실제로 멈추게 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기억의 지킴이가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은 또한 희망의 지킴이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희망, 순교자들을 감격시킨 그 희망의 지킴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번영 속에서도 어떤 다른 것, 어떤 더 큰 것, 어떤 진정하고 충만한 것을 찾고 있는 세상에 이 희망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 사제들은 여러분의 성화 직무를 통하여 이 희망을 제시하십시오. 이 성화 직무는 신자들을 전례와 성사 안에 있는 은총의 샘으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는(필리3,14 참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행동하도록 끊임없이 재촉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친교 안에서 성덕의 불꽃, 형제적 사랑의 불꽃, 선교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게 함으로써 이 희망을 지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의 사제들 곁에 머무르도록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일하고 성덕을 추구하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들의 아낌없는 봉사에 감사를 드린다고, 저의 사랑에 넘치는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제들 곁에 머무르십시오. 당부합니다. 사제들 곁에 가까이 머무르십시오. 사제들이 주교를 자주 만날 수 있게 하십시오. 형제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주교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사제들은 사목 생활의 많은 순간에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주교가 사제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사제들을 멀리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저의 고향에서

몇몇 사제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주교님께 전화해서 면담 신청을 했고,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 주교님, 만일 오늘날 한 사제가 주교님께 면담 신청을 하는 전화를 했다면, 오늘이나 내일 곧장 그 사제에게 전화하십시오. 만약 만나 줄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이리이러한 일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하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의 대답을 즉시 들려주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사제들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선교하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교회, 특히 이 시대 사회의 변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라는 도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를 받아들이고 그 지체 하나 하나와 동화되는 데에 “영적인 맛”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68항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인들의 기억과 지혜와 경험, 그리고 젊은이들의 열망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지킴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젊은이들의 교육을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교도 중요하지만 대학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모든 단계의 가톨릭 학교가 지닌 근본 사명의 수행을 뒷받침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젊은이들의 정신과 마음이 하느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또 좋은 것, 참된 것, 아름다운 것 안에서 자라나서, 그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직한 시민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희망의 지킴이가 된다는 것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특히 난민들과 이민들, 사회의 변두리에서 사는 사람들과 연대를 실행하여, 한국 교회의 예언자적 증거가 끊임없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구체적인 자선 활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 사회, 직업, 교육 수준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사업적인 차원으로만 축소시키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 한 인간으로 성장할 권리 - 자신의 인격과 창의력과 문화를 존엄하게 표현하여야 할 필요성을 잊어버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연대는 복음의 중심에 있고, 그리스도인 생활의 필수 요소로 여겨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연대는 교회의 풍요한 유산인 사회 교리를 바탕으로 한 강론과 교리 교육을 통하여 신자들의 정신과 마음에 스며들어야 하며, 교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이들의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교회” 라는 사도 시대의 이상은 여러분 나라의 첫 신앙 공동체에서 그 생생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이 미래를 향해 순례하는 한국 교회가 걸어갈 길에 계속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얼굴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의 얼굴일 때에, 당신 신비체의 친교 안에서 언제나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예수님의 마음에 늘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끌려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복음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복음의 시작과 끝에도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과 함께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고) 나자렛 회당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오 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심판 받을 때 적용될 “규범”을 알려주십니다. 거기에도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변영의 시기에 오는 위험, 유혹이 있습니다. 위험이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한갓 “사교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곧 신비적 측면을 잃고 하느님의 신비를 거행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공동체는 영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를 지닌 조직이지만, 예언자

적인 누락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이들이 교회에서 할 일은 없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역사 안에서 개별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수없이 겪어 온 유혹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중산층의 공동체가 되어, 가난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 안에 들어가기로 부끄러워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또한 정신적 웰빙, 사목적 웰빙에 대한 유혹입니다. 곧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부유한 교회, 또는 잘사는 자들을 위한 중산층의 교회가 되려는 유혹입니다.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맨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바오로는 코린토인들을 꾸짖어야만 하였고(1코린 11,17), 야고보 사도는 더욱 강하고 더욱 분명하게 그들 부유한 공동체들, 부자들을 위한 부유한 교회들을 꾸짖어야만 하였습니다(야고2,1-7).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쫓아내지는 않지만, 가난한 이들이 감히 교회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또 제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도 없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번영에 대한 유혹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을 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꾸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 안에서 제 형제들의 힘을 복돋아주어야 할 형제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는 번영하는 교회이고, 선교하는 훌륭한 교회이고, 커다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바로 교회의 예언자적 구조에서 가난한 이들을 제거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부자들을 위한 부유한 교회, 하나의 웰빙 교회 ……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번영의 신학”에 이르렀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저 그런 쓸모없는 교회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언자적인 복음의 증거는 한국 교회에 특별한 도전들을 제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번영하였으나 또한 매우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적인 사회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목자들은 복음서에서 예수

님께서 가르치신 기준보다도 기업 사회에서 비롯된 능률적인 운영, 기획, 조직의 모델들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성공과 권력이라는 세속적 기준을 따르는 생활양식과 사고방식까지도 받아들이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의 지혜를 판단할수 있는 힘을 잃어 헛되게 된다면, 우리는 불행할 것입니다! (1코린 1,17 참조)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 사제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러한 온갖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성령을 질식시키고, 회개를 무사안일로 대체하고, 마침내 모든 선교 열정을 소멸시켜 버리는 그러한 정신적 사목적 세속성에서 하늘이 우리를 구원해주시기를 빕니다(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93-97항 참조).

사랑하는 형제 주교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억과 희망의 지킴이가 되는 여러분의 사명에 관한 이러한 묵상으로, 저는 한국 신자들의 일치와 성덕과 열정을 증진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기억과 희망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미래를 향해 이끌어 갑니다. 제 기도 안에서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느님 은총의 힘에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성실하신 분” 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실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2테살3,3). 순교자들이 씨앗을 뿌리고 가톨릭 신자들이 대대로 물을 주어, 이 나라와 세상의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서 여러분에게 전해진 신앙이,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기도로 이 땅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빕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사목과 보호에 맡겨진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저의 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하 이태리어 원문〉

Ringrazio il Vescovo Peter U-il Kang per le sue fraterne

parole dibenvenuto a nome vostro. È una benedizione per me essere qui e conoscere dipersona la vita dinamica della Chiesa in Corea. A voi, come Pastori, spetta il compito di custodire il gregge del Signore. Siete i custodi delle meraviglie che Egli compie nel suo popolo. Custodire è uno dei compiti specificamente affidati al Vescovo: prendersi cura del popolo di Dio. Oggi vorrei riflettere con voi come fratello nell'episcopato su due aspetti centrali di tale custodia del popolo di Dio in questo Paese: essere custodi della memoria e essere custodi della speranza.

Essere custodi della memoria. La beatificazione di Paul Yun Ji-chung e dei suoi compagni è un'occasione per ringraziare il Signore che, dai semi sparsi dai martiri, ha fatto scaturire un abbondante raccolto di grazia in questa terra. Voi siete i discendenti dei martiri, eredi della loro eroica testimonianza di fede in Cristo. Siete inoltre eredi di una straordinaria tradizione che iniziò e crebbe largamente grazie alla fedeltà, alla perseveranza e al lavoro di generazioni di laici. Questi non avevano la tentazione del clericalismo: erano laici, andavano avanti da soli! È significativo che la storia della Chiesa in Corea abbia avuto inizio da un incontro diretto con la Parola di Dio. È stata la bellezza intrinseca e l'integrità del messaggio cristiano – il Vangelo e il suo appello alla conversione, al rinnovamento interiore e a una vita di carità – ad impressionare

Yi Byeok e i nobili anziani della prima generazione; ed è a quel messaggio, alla sua purezza, che la Chiesa in Corea guarda come in uno specchio, per scoprire autenticamente sé stessa.

La fecondità del Vangelo in terra coreana e la grande eredità tramandata dai vostri antenati nella fede, oggi si possono riconoscere nel fiorire di parrocchie attive e di movimenti ecclesiali, in solidi programmi di catechesi, nell'attenzione pastorale verso i giovani e nelle scuole cattoliche, nei seminari e nelle università. La Chiesa in Corea è stimata per il suo ruolo nella vita spirituale e culturale della nazione e per il suo forte impulso missionario. Da terra di missione, la Corea è diventata oggi una terra di missionari; e la Chiesa universale continua a trarre beneficio dai tanti sacerdoti e religiosi che avete inviato nel mondo.

Essere custodi della memoria significa qualcosa di più che ricordare e fare tesoro delle grazie del passato. Significa anche trarne le risorse spirituali per affrontare con lungimiranza e determinazione le speranze, le promesse e le sfide del futuro. Come voi stessi avete notato, la vita e la missione della Chiesa in Corea non si misurano in definitiva in termini esteriori, quantitativi e istituzionali; piuttosto esse devono essere giudicate nella chiara luce del Vangelo e della sua chiamata ad una conversione alla persona di Gesù Cristo. Essere custodi della memoria significa rendersi conto che la crescita viene da Dio (cfr 1 Cor 3,6) e al tempo stesso è il frutto di un paziente e perseverante lavoro, nel passato come nel presente. La nostra memoria dei martiri e delle generazioni passate di cristiani deve essere realistica, non idealizzata o e non "trionfalistica." Guardare al passato senza ascoltare la chiamata di Dio alla conversione nel presente non ci aiuterà a proseguire il cammino; al contrario frenerà o

addirittura arresterà il nostro progresso spirituale.

Oltre ad essere custodi della memoria, cari fratelli, voi siete anche chiamati ad essere custodi della speranza: quella speranza offerta dal Vangelo della grazia e della misericordia di Dio in Gesù Cristo, quella speranza che ha ispirato i martiri. È questa speranza che siamo invitati a proclamare ad un mondo che, malgrado la sua prosperità materiale, cerca qualcosa di più, qualcosa di più grande, qualcosa di autentico e che dà pienezza. Voi e i vostri fratelli sacerdoti offrite questa speranza con il vostro ministero di santificazione, che non solo conduce i fedeli alle sorgenti della grazia nella liturgia e nei sacramenti, ma costantemente li spinge ad agire in risposta alla chiamata di Dio a tendere alla meta (cfr Fil 3,14). Voi custodite questa speranza mantenendo viva la fiamma della santità, della carità fraterna e dello zelo missionario nella comunione ecclesiale. Per questa ragione vi chiedo di rimanere sempre vicini ai vostri sacerdoti, incoraggiandoli nel loro lavoro quotidiano, nella loro ricerca di santità e nella proclamazione del Vangelo di salvezza. Vi chiedo di trasmettere loro il mio affettuoso saluto e la mia gratitudine per il generoso servizio in favore del popolo di Dio. Vicini ai vostri sacerdoti, mi raccomando, vicinanza, vicinanza ai sacerdoti. Che loro possano incontrare il vescovo. Questa vicinanza fraterna del vescovo, e anche paterna: ne hanno bisogno in tanti momenti della loro vita pastorale. Non vescovi lontani o, peggio, che si allontanano dai loro preti. Con dolore lo dico. Nella mia terra, tante volte ho sentito qualche sacerdote che mi diceva: "Ho chiamato il vescovo, ho chiesto udienza; sono passati tre mesi, ancora non ho

risposta.” Ma senti, fratello, se un sacerdote oggi ti chiama per chiederti udienza, richiamalo subito, oggi o domani. Se tu non hai tempo per riceverlo, diglielo: “Non posso perché ho questo, questo, questo. Ma io volevo sentirti esono a tua disposizione.” Ma che sentano la risposta del padre, subito. Per favore, non allontanatevi dai vostri sacerdoti.

Se noi accettiamo la sfida di essere una Chiesa missionaria, una Chiesa costantemente in uscita verso il mondo e in particolare verso le periferie della società contemporanea, avremo bisogno di sviluppare quel “gusto spirituale” che ci rende capaci di accogliere e di identificarci con ogni membro del Corpo di Cristo (cfr Esort. ap. *Evangelii gaudium*, 268). In questo senso una particolare sollecitudine chiede di essere mostrata nelle nostre comunità nei confronti dei bambini e dei più anziani. Come possiamo essere custodi di speranza se trascuriamo la memoria, la saggezza e l’esperienza degli anziani e le aspirazioni dei giovani? A questo proposito vorrei chiedervi di prendervi cura in modo speciale dell’educazione dei giovani, sostenendo nella loro indispensabile missione non solo le università, che sono importanti, ma anche le scuole cattoliche di ogni grado, a partire da quelle elementari, dove le giovani menti e i cuori vengono formati all’amore di Dio e della sua Chiesa, al bene, al vero e al bello, ad essere buoni cristiani e onesti cittadini.

Essere custodi di speranza implica anche garantire che la testimonianza profetica della Chiesa in Corea continui ad esprimersi nella sua sollecitudine per i poveri e nei suoi programmi di solidarietà, soprattutto per i rifugiati e i

migranti e per coloro che vivono ai margini della società. Questa sollecitudine dovrebbe manifestarsi non solo attraverso concrete iniziative di carità – che sono necessarie – ma anche nel costante lavoro di promozione a livello sociale, occupazionale ed educativo. Possiamo correre il rischio di ridurre il nostro impegno con i bisognosi alla sola dimensione assistenziale, dimenticando la necessità di ognuno di crescere come persona – il diritto che ha di crescere come persona – e di poter esprimere con dignità la propria personalità, creatività e cultura. La solidarietà con i poveri è al centro del Vangelo; va considerata come un elemento essenziale della vita cristiana; mediante la predicazione e la catechesi, fondate sul ricco patrimonio della dottrina sociale della Chiesa, essa deve permeare i cuori e le menti dei fedeli e riflettersi in ogni aspetto della vita ecclesiale. L'ideale apostolico di una Chiesa dei poveri e per i poveri, una Chiesa povera per i poveri, ha trovato espressione eloquente nelle prime comunità cristiane della vostra nazione. Auspico che questo ideale continui a modellare il cammino della Chiesa in Corea nel suo pellegrinaggio verso il futuro. Sono convinto che se il volto della Chiesa è in primo luogo il volto dell'amore, sempre più giovani saranno attratti verso il cuore di Gesù sempre infiammato di amore divino nella comunione del suo mistico Corpo.

Ho detto che i poveri sono al centro del Vangelo; sono anche all'inizio e alla fine. Gesù, nella sinagoga di Nazareth, parla chiaro, all'inizio della sua vita apostolica. E quando parla dell'ultimo giorno e ci fa conoscere quel "protocollo" sul quale tutti noi saremo giudicati – Matteo 25 –, anche lì

cisono i poveri. C'è un pericolo, c'è una tentazione che viene nei momenti di prosperità: è il pericolo che la comunità cristiana si "socializzi", cioè che perda quella dimensione mistica, che perda la capacità di celebrare il Mistero e si trasformi in una organizzazione spirituale, cristiana, con valori cristiani, ma senza lievito profetico. Lì si è persa la funzione che hanno i poveri nella Chiesa. Questa è una tentazione della quale le Chiese particolari, le comunità cristiane hanno sofferto tanto, nella storia. E questo fino al punto di trasformarsi in una comunità di classe media, nella quale i poveri arrivano a provare anche vergogna: hanno vergogna di entrare. E' la tentazione del benessere spirituale, del benessere pastorale. Non è una Chiesa povera per i poveri, ma una Chiesa ricca per i ricchi, o una Chiesa di classe media per i benestanti. E questo non è cosa nuova: questo cominciò all'inizio. Paolo deve rimproverare i Corinzi, nella Prima Lettera, capitolo XI, versetto 17; e l'apostolo Giacomo più forte ancora, e più esplicito, nel suo capitolo II, versetti da 1 a 7: deve rimproverare queste comunità benestanti, queste Chiese benestanti per i benestanti. Non si cacciano via i poveri ma si vive in modo tale che loro non osino entrare, non si sentano a casa loro. Questa è una tentazione della prosperità. Io non vi rimprovero, perché so che voi lavorate bene. Ma come fratello che deve confermare nella fede i suoi fratelli, vi dico: state attenti, perché la vostra è una Chiesa in prosperità, è una grande Chiesa missionaria, è una grande Chiesa. Il diavolo non semina questa zizzania, questa tentazione di togliere i poveri dalla struttura profetica stessa della Chiesa, e vi faccia diventare una

Chiesa benestante per i benestanti, una Chiesa del benessere... non dico fino ad arrivare alla 'teologia della prosperità', no, manella mediocrità.

Cari fratelli, una profetica testimonianza evangelica presenta alcune sfide particolari per la Chiesa in Corea, dal momento che essa vive ed opera nel mezzo di una società prospera ma sempre più secolarizzata e materialistica. In tali circostanze gli operatori pastorali sono tentati di adottare non solo efficaci modelli di gestione, programmazione e organizzazione tratti dal mondo degli affari, ma anche uno stile di vita e una mentalità guidati più da criteri mondani di successo e persino di potere che dai criteri enunciati da Gesù nel Vangelo. Guai a noi se la Croce viene svuotata del suo potere di giudicare la saggezza di questo mondo! (cfr 1 Cor 1,17). Esorto voi e i vostri fratelli sacerdoti a respingere questa tentazione in tutte le sue forme. Voglia il Cielo che possiamo salvarci da quella mondanità spirituale e pastorale che soffoca lo Spirito, sostituisce la conversione con la compiacenza e finisce per dissipare ogni fervore missionario! (cfr Esort. ap. *Evangelii gaudium*, 93-97).

Cari fratelli Vescovi, grazie di tutto quello che voi fate: grazie. E queste riflessioni sulla vostra missione come custodi della memoria e della speranza, ho voluto incoraggiarvi nei vostri sforzi per incrementare l'unità, la santità e lo zelo dei fedeli in Corea. La memoria e la speranza ci ispirano e ci guidano verso il futuro. Vi ricordo tutti nelle mie preghiere e vi esorto sempre a confidare nella forza della grazia di Dio. Non dimenticatevi: "Il Signore è fedele." Noi non siamo fedeli, ma Lui è

fedele. “Egli vi confermerà evi custodirà dal Maligno” (2 Ts 3,3). Possano le preghiere di Maria, Madredella Chiesa, portare a piena fioritura in questa terra i semi sparsi daimartiri, irrorati da generazioni di fedeli cattolici e trasmessi a voi come promessa per il futuro del Paese e del mondo. A voi e a tutti coloro che sisono affidati alla vostra cura pastorale e alla vostra custodia, imparto dicuore la mia Benedizione, e vi chiedo, per favore, di pregare per me. Grazie.

〈한국교회를 사목 방문하시고 나서도 계속 여러 나라를 방문하시고 날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전 세계 각처에서모이는 로마 순례단들을 접견하시었는데, 로마로 돌아가신 후, 1년 후에, 로마를 정례 예방하는 한국 주교들에게, 교황님께서는 또 다시 한국천주교회의 창립사에 대한, [기억 지킴이] 같은 노선에서, 아래 요지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전국 주교들을 통하여 우리 전국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도좌를 방문한(Ad Limina) 한국 주교님들에게 하신 말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2015. 03. 12.)사도좌를 방문한 한국 주교들에게 하신 연설에서, 최초의 한국 천주교 신자들, 즉이벽, 이승훈, 권철신, 권일신, 정약종, 등 신앙의 1세대 신앙 공동체가 세례, 견진, 성체, 등의 성사를 받기 전부터, 마치 사도시대에서처럼, 이미 얼마나 거룩한 신앙생활과 신앙활동을 하였으며, 마침내는 목숨까지 바쳤는지를 강조하셨다. -Msgr. Byon-〉

〈이하 2015. 03. 12. 바티칸에서 로마의 사도좌를 방문한(Ad Limina) 한국 주교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하신 말씀의 한국어 번역문과 이탈리아 원문〉

사랑하는 형제주교 여러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의 묘소를 참배하고 우리를 일치시키는 우의와 친교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사도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날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봉사에 은총과 쇄신의 기회가 되기를 빕니다.

저는 여러분과 한국과 몽골 교회 전체를 대표하여 따뜻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신 김희중 대주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뵈게 되니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좋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때 저를 매우 따뜻하게 맞이하고 자신의 삶의 기쁨과 슬픔을 저와 함께 나눈 한국인들의 선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방문한 일은 보편 교회를 위한 저의 직무에 언제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국방문 기간에 우리는 한국의 교회생활, 특히 하느님의 백성과 사회에 봉사하는 우리의 주교직무에 관하여 성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의 한국 방문의 세 측면을 강조하면서 오늘 그 성찰을 여러분과 함께 이어나가하고자 합니다. 그 세 측면은 기억과 젊음,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사명입니다. 저는 이 성찰을 몽골 교회와도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광활한 지역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는 하느님나라의 완성을 약속하는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마태 13,31-32 참조). 이러한 성찰이 그 씨앗을 계속 키우고 몽골사람들의 신앙의 비옥한 토양에 자양분이 되기를 빕니다.

저의 한국 방문 때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 가운데 하나는 윤지충과 동료 순교자들의 시복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복자품에 올리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한국 교회의 태동기에 내려 주신 셀 수 없는 은총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하느님의 은사에 대한 충실한 응답에도 감사하였습니다.

한국의 첫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교회의 성사생활로 온전히 나타내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계급과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예수님

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주님의 첫 제자들처럼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사도 4,32 참조). “그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들의 진정한 보화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윤지충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 강론, 2014.8.16.).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궁극적인 행동으로 완성되어 그들의 피가 교회뭇자리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 첫 공동체는 여러분과 교회 전체에 그리스도인 삶의 아름다운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찾는 올곧은 마음, 그들이 신봉하고자 선택한 종교의 고귀한 원칙들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그들이 증언한 애덕과 모든 이를 향한 연대성”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 강론, 2014.8.16.)입니다. 그들의 모범은 우리를 만남과 자선과 희생으로 초대하여 더욱 충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들이 가르쳐 준 교훈은, 기술과 통신에서 이루어진 많은 발전에도 개인들이 더욱 고립되고 공동체가 무기력해지는 우리 시대에 특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교구의 신부와 수도자와 평신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본당과 학교와 사도직 시설들을 참다운 만남의 자리로 만드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모든 인간의 존엄에 눈을 뜨도록 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또한 이는 다른 이들과 만남, 특히 가난한 이, 노인, 우리 가운데 잊힌 이들과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자비를 체험하면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힘을 더욱 더 확신하는 증인이 됩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은사를 더욱 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 서로에게 바치는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로마12,1.9-10 참조).

저는 이제 여러분 조상들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려는 위대한 열정을 지닌 젊은이들을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면서 희망과 기대와 가능성으로 충만합니다. 아시아 청년 대회를 위하여 한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모인 젊은이들과 함께 하고 그들이 하느님과 서로에게 열려 있음을 경험한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이 우리가 서로를 돌볼 것을 촉구하듯이 바로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주교님들이 자기 교구와 본당과 단체에 젊은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안의 우리 신앙과 삶의 부요를 나누려고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분명하고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충성의 진실성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느님 백성의 모범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시다(1베도 5,3 참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젊은이들은 곧바로 우리와 교회를 비난할 것입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솔직함은 신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도록 돕고자 노력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교구의 생활을 돌이켜 보고, 사목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할 때에 여러분이 섬기는 젊은이들을 앞세우도록 하십시오. “더 거룩하고 더 선교적이고 겸손한 교회, 또한 가난한 이들, 외로운 이들, 아픈 이들, 소외된 이들을 찾아 섬기는 가운데 하느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하나인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제6회 아시아 청년 대회 폐막 미사 강론, 2014.8.17.) 데에 젊은이들을 동반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여러분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한다

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이러한 친근함이 교회 단체와 공동체를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그들과 그들 가족이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음이 가톨릭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삶에 더욱 깊숙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봉사를 통하여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세상의 누룩이 될 것입니다(마태 13,33 참조).

이제 여러분이 지역 교회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는 데에, 여러분의 직무를 격려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굳건히 하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시려고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종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마태 20,28 참조).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에게 예외 없이 거저 주는 봉사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이 실천하시는 관대하고 헌신적인 직무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는 자기 증여에서 특별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단순히 마땅하고 옳은 일일 뿐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삶을 새로운 빛과 깊은 기쁨으로 채울 수 있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 (「복음의 기쁨」, 167항).

이러한 봉사의 정신으로 여러분이 서로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형제적 지원으로 여러분은 한국과 몽골의 교회를 강화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부들과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훈계하고 바로잡아 줄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어려움과 기쁨에 함께 하는 참다운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수도자들과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봉헌은 나날이 교회생활을 부요하게 해 주고 도움이 됩니다. 이들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가시적인 표징을 사회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묵시 21,1-2참조). 주님의 포도밭에서 실천하는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여러분이 모든 평신도와 함께 여러분 선조의 유산을 바탕으로 삼고 한국과 몽골에서 교회의 친교와 사명을 깊이하기 위한 주님께 맞갖은 제물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몽골의 가톨릭 공동체가 하느님 나라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열정을 계속 간직하며 성령의 성화하는 힘이 선교하는 제자인 그들의 활동에 함께 한다는 것을 늘 확신하기 바랍니다(「복음의 기쁨」, 119항 참조).

사랑하는 형제 주교 여러분, 한국과 몽골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속적인 증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영적으로 가까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모두를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전구에 맡겨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보호에 맡겨진 모든 이에게 저의 진심 어린 교황 강복을 보내 드립니다.

〈이하, 이태리어 원문〉

DISCORSO DEL SANTO PADRE FRANCESCO AGLI ECC. MI PRESULI DELLA CONFERENZA EPISCOPALE DI COREA, IN VISITA "AD LIMINA APOSTOLORUM"

Sala del Concistoro / Giovedì, 12 marzo 2015

Cari Fratelli Vescovi,

È una grande gioia per me darvi il benvenuto mentre realizzate la vostra visita ad Limina Apostolorum per pregare sulle tombe dei Santi Pietro e Paolo e per rafforzare i vincoli di amicizia e di comunione che ci uniscono. Prego perché questi giorni siano un'occasione di grazia e di rinnovamento nel vostro servizio a Cristo e alla sua Chiesa.

Ringrazio l'Arcivescovo Kim per le calorose parole di

saluto che ha pronunciato a nome vostro e di tutta la Chiesa in Corea e in Mongolia. La vostra presenza, oggi, riporta alla mente i lieti ricordi della mia recente visita in Corea, dove ho sperimentato di persona la bontà del popolo coreano, che mi ha accolto con tanta generosità e ha condiviso con me le gioie e le tristezze della sua vita. La visita nel vostro Paese continuerà a essere per me un incoraggiamento duraturo nel mio ministero per la Chiesa Universale.

Nel corso della mia visita abbiamo avuto l'opportunità di riflettere sulla vita della Chiesa in Corea e, in particolare, sul nostro ministero episcopale al servizio del popolo di Dio e della società. Desidero continuare quella riflessione con voi oggi, evidenziando tre aspetti della mia visita: la memoria, i giovani e la missione di confermare i nostri fratelli e le nostre sorelle nella fede. Vorrei anche condividere queste riflessioni con la Chiesa in Mongolia. Pur essendo una piccola comunità in un territorio vasto, essa è come il granello di senape che è la promessa della pienezza del Regno di Dio (cfr. Mt 13, 31-32). Possano queste riflessioni incoraggiare la crescita costante di quel granello e nutrire il ricco suolo della fede del popolo della Mongolia.

Per me, uno dei momenti più belli della visita in Corea è stata la beatificazione dei martiri Paul Yun Ji-chung e compagni. Annoverandoli tra i beati, abbiamo lodato Dio per le innumerevoli grazie che ha riversato sulla Chiesa in Corea nella sua infanzia, e anche reso grazie per la risposta fedele data a questi doni di Dio.

Già prima che la loro fede trovasse piena espressione

nella vita sacramentale della Chiesa, questi primi cristiani coreani non solo avevano alimentato la loro relazione personale con Gesù, ma lo avevano anche portato ad altri, a prescindere dalla classe o dalla posizione sociale, e avevano dimorato in una comunità di fede e di carità come i primi discepoli del Signore (cfr. At 4, 32). «Erano disposti a grandi sacrifici e a lasciarsi spogliare di quanto li potesse allontanare da Cristo [...]: solo Cristo era il loro vero tesoro» (Omelia a Seoul, 16 agosto 2014). Il loro amore di Dio e del prossimo si è compiuto nell'atto finale di dare la propria vita, irrigando con il loro sangue il semenzaio della Chiesa.

Quella prima comunità ha lasciato a voi e a tutta la Chiesa una bella testimonianza di vita cristiana: «la loro rettitudine nella ricerca della verità, la loro fedeltà ai sommi principi della religione che hanno scelto di abbracciare, nonché la loro testimonianza di carità e di solidarietà verso tutti» (Ibidem). Il loro esempio è una scuola che può fare di noi testimoni cristiani sempre più fedeli, chiamandoci all'incontro, alla carità e al sacrificio. Le lezioni che hanno impartito possono essere applicate in modo particolare ai nostri tempi in cui, malgrado i numerosi progressi compiuti nella tecnologia e nella comunicazione, gli individui sono sempre più isolati e le comunità indebolite. Quanto è importante, dunque, che lavoriate insieme con i sacerdoti, i religiosi e le religiose e i leader laici delle vostre diocesi per assicurare che le parrocchie, le scuole e i centri di apostolato siano autentici luoghi d'incontro: incontro con il Signore, che c'insegna come amare e che apre i nostri occhi alla dignità

di ogni persona, e incontro gli uni con gli altri, specialmente con i poveri, gli anziani, le persone dimenticate in mezzo a noi. Quando incontriamo Gesù e sperimentiamo la sua compassione per noi, diventiamo testimoni sempre più convincenti del suo potere salvifico; condividiamo più facilmente il nostro amore per lui e i doni con i quali siamo stati benedetti. Diventiamo un sacrificio vivente, dediti a Dio e agli altri nell'amore (cfr. Rm12, 1, 9-10).

Il mio pensiero va ora ai vostri giovani, che desiderano fortemente portare avanti l'eredità dei vostri antenati. Sono agli inizi della loro vita e pieni di speranza, promessa e possibilità. È stata una gioia per me stare con i giovani della Corea e di tutta l'Asia che si sono riuniti per la Giornata della Gioventù asiatica, e di sperimentare la loro apertura a Dio e agli altri. Proprio come la testimonianza dei primi cristiani ci invita a prenderci cura degli uni degli altri, così i nostri giovani ci sfidano ad ascoltarci gli uni gli altri. So che nelle vostre diocesi, parrocchie e istituzioni state cercando nuovi modi per coinvolgere i giovani, affinché possano avere una voce ed essere ascoltati, al fine di condividere la ricchezza della vostra fede e della vita nella Chiesa. Quando parliamo con i giovani, essi ci sfidano a condividere la verità di Gesù Cristo con chiarezza e in un modo che possano comprendere. Mettono anche alla prova l'autenticità della nostra fede e fedeltà. Sebbene predichiamo Cristo e non noi stessi, siamo chiamati a essere d'esempio al popolo di Dio (cfr. 1 Pt 5, 3) al fine di attirare le persone a lui. I giovani richiameranno subito noi e la Chiesa all'ordine se la

nostra vita non rispecchierà la nostra fede. La loro onestà a questo riguardo può esserci d'aiuto, proprio mentre cerchiamo di assistere i fedeli nel manifestare la fede nella loro vita quotidiana.

Mentre riflettete sulla vita delle vostre diocesi, mentre formulate e rivedete i vostri piani pastorali, vi esorto a tenere presenti i giovani che servite. Vedeteli come partner nell'«edificare una Chiesa più santa, più missionaria e umile [...] una Chiesa che ama e adora Dio, cercando di servire i poveri, le persone sole, i malati e gli emarginati» (Omelia al Castello di Haemi, 17 agosto 2014). Siate loro vicini e mostrate che vi preoccupate di loro e comprendete i loro bisogni. Questa vicinanza non solo rafforzerà le istituzioni e le comunità della Chiesa, ma vi aiuterà anche a comprendere le difficoltà che loro e le loro famiglie sperimentano nella vita quotidiana nella società. In questo modo, il Vangelo penetrerà sempre più profondamente nella vita sia della comunità cattolica sia della società nel suo insieme. Attraverso il vostro servizio ai giovani, la Chiesa diventerà quel lievito nel mondo che il Signore ci chiama a essere (cfr. Mt 13, 33).

Mentre vi preparate a ritornare alle vostre Chiese locali, oltre che a incoraggiarvi nel vostro ministero e a confermarvi nella vostra missione, vi chiedo, soprattutto, di essere servitori proprio come Cristo è venuto per servire e non per essere servito (cfr. Mt 20, 28). La nostra è una vita di servizio, donata liberamente, per ogni anima affidata alle nostre cure, senza eccezioni. Ho constatato ciò nel vostro servizio generoso e altruistico alla vostra gente, che trova una particolare espressione nel vostro annuncio di

Gesù Cristo e ne dono di voi stessi che rinnovate ogni giorno. «Annunciare Cristo significam mostrare che credere in Lui e seguirlo non è solamente una cosa vera e giusta, ma anche bella, capace di colmare la vita di un nuovo splendore e di una gioia profonda, anche in mezzo alle prove» (Evangelii gaudium, n. 167).

In questo spirito di servizio, possiate essere solleciti gli uni verso gli altri. Attraverso la vostra collaborazione e il vostro sostegno fraterno, rafforzerete la Chiesa in Corea e in Mongolia e diventerete sempre più efficaci nel proclamare Cristo. Possiate anche essere vicini ai vostri sacerdoti: siate veri padri, che cercano non solo di esortare e di correggere, ma ancor più di accompagnarli nelle loro difficoltà e nelle loro gioie. Avvicinatevi anche ai tanti religiosi e alle religiose, la cui consacrazione arricchisce e sostiene ogni giorno la vita della Chiesa, poiché essi offrono alla società un segno visibile del nuovo cielo e della nuova terra (cfr. Ap 21, 1-2). Con questi operai impegnati nella vigna del Signore, insieme con tutti i fedeli laici, possiate edificare sull'eredità dei vostri avi e offrire al Signore un degnosacrificio per rendere più profonde la comunione e la missione della Chiesa in Corea e in Mongolia.

Desidero esprimere il mio apprezzamento in modo particolare alla comunità cattolica in Mongolia, per i suoi sforzi nell'edificare il Regno di Dio. Possa essa rimanere fervente nella fede, sempre fiduciosa che la forza santificatrice dello Spirito Santo è all'opera in lei come discepola missionaria (cfr. Evangelii gaudium, n. 119).

Cari fratelli Vescovi, con rinnovata gratitudine per la

testimonianzaduratura delle comunità cristiane in Corea e in Mongolia, vi assicuro delle miecostanti preghiere e della mia vicinanza spirituale. Affido tutti voiall'intercessione di Maria, Madre della Chiesa e imparto volentieri la miaBenedizione Apostolica a voi e a tutti coloro che sono affidati alle vostre cure.

2014. 8. 14. 서울, 주교회의 주교님들과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사진, 평화신문>(사진은 천진암성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89번 참조).

성탄 ! 성탄 !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도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니, 하느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성탄 ! 성탄 ! 2015 성탄절에-

● 작성일 : 2015-12-03 16:36

226. 성탄과 2015년 연말, 2016년 연초 예절 시간표<천진암성지>

천진암 성지의 성탄절과 연말연시 예절 시간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 거룩한 시기,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천진암 성지에서 거룩히, 고요히, 기도하며 지냅니다.

<2015년 성탄과 연말>

♣ 12월 15일(화요일) : 하느님의 종, 권일신 성현 기념일
 낮 12시 : 미사.

♣ 12월 24일(목요일) :
 저녁 7시 : 성탄전야 저녁식사<참가신청은 22일 오전까지, 안내소로 사전 신청(031-764-5994)>.

저녁 9시 : 성탄 묵상, Gregorian 성가 연습, 고백성사.

저녁 10시 : 성탄 밤 미사, 미사 후 경축 다과.

♣ 12월 25일(금요일) : 예수성탄 대축일

낮 12시 : 성탄 낮 미사.

♣ 12월 31일(목요일) :

밤 10시 : 연말 감사미사와 성체강복 후, 송년회 다과.

밤 11시 45분 : 한민족 100년 계획 천진암대성당 터에서,
성가와 감사의 기도 속에 2015년을 보내며, 2016년 새해를 맞아, 애국가 봉창(4절까지), 만세 12창 부르고, 휴게실에 내려와 따뜻한 커피나 차 한잔씩 하고 귀가합니다.

〈2016년 새해〉

♣ 1월 1일(금요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오전 9시 30분 :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 5위 묘 참배.

제37회(1980~2016) 천진산 앵자봉 등산 산상 기도회.

* 참가자들은 오전 9시까지 광암성당 마당에 집합, 기도 후 출발, 점심은 하산 후, 오후 1시에 동태지리지 식사, 참가자들은 안내소로 사전 신청(031-764-5994).

오후 3시 : 새해 첫 미사.

♣ 1월 2(토요일)

저녁 6시 미사,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한 첫 토요일 제214회 월례 촛불기도회, 7시 촛불기도회 후, 저녁 9시 식사 후, 귀가.

♣ 1월 5일(화요일)

낮 12시 : 천진암 강학 제237주년(1779~2016) 기념일 미사.

♣ 1월 15일(금요일) : 하느님의 종 권철신(1736~1801) 기념일

낮 12시 : 미사.

♣ 1월 16일(토요일) :

낮 12시 : 기해년(1839) 박해 기념일 미사.

● 작성일 : 2015-12-11 13:08

227. 한민족100년계획천진암대성당 건립, 어디까지 와 있나?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사전 읽기-

성탄 ! 성탄 !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도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하느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성탄 ! 성탄 !

아프리카 아이보리 코스트의 Yamousscro에 건립된, 평화의 성모 대성당 건립현장을 견학 회고!

1989. 3. 24일, 건축공사 당시의 야무스크로 대성당 조감도(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대성당건립현장 제74번 참조).

야무스크로 대성당의 중앙제단을 향한 7,000 좌석과 직경6m, 기둥 279개, 약 3만 명 수용, 중앙 돔직경 90m, 1986년 착공, 1990년 완공,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축성(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대성당건립현장 제74번 참조).

〈아프리카 야무스크로 대성당 건축과정을 1주일간 머물며 돌아보는 변기영 신부(1989년 3월 24일, 당시 49세)〉((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대성당건립현장 제74번 참조).

1986년, 대성당 착공 당시 야무스크로의 인구는 불과 2천여 명, 주변지역까지 합쳐서 겨우 4천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聖요한바오로 교황의 방문과 준공식 거행 후, 수도를 당시 150만 인구의 아비장에서 야무스크로로 이전하면서, 2011년 현재 30만 명이 되었다. 부와니 대통령은 소년시절 천주교로 개종한 후, 프랑스 파리에서 출마하여 국회의원 2회, 장관 1회를 역임하였다.

특히, 국회의원 출마 때, “프랑스 국민 여러분이, 나를 국회

의원으로 뽑아주면, 나는 파리의 프랑스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코트 디 보르의 독립운동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나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숲속에서 게릴라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며 외치던 그를, 파리시민들은 2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시켰고, 귀국 후, 독립을 완수하였다. 불가피하게 절대다수 국민의 지지로 집권을 연속한 부와니 대통령은 거의 1당체제로 통치하면서, 거의 40여년 가까이, 빵 값을 한 번도 올리지 않기로 유명하여, 이웃 나라에서 밀입국하는 굶주린 밀입국 인구증가로 골치를 앓았다.

대대로 부유한 집안이었던 부와니 대통령은 천주교 신앙으로 열심한 그의 어머니, 막달렌 여사의 기도와 함께, 수백만평의 사탕수수밭과 커피 밭을 팔아, 야무스크로 대성당 건립에 주력하였고, 외채가 많은 나라에서, 2억 달러나 들여가며, 대성당을 건립한다고, 당시의 프랑스와 유럽 언론에서는 거의 매월, 매주 비평과 비난이 계속 극심하였다. 건축회사는 프랑스회사였다. 야무스크로 평화의 성모 대성당이 건축되던 그 당시 전국 인구는 약 850여만 명 중에 천주교신자는 인구의 13%에 불과하고, 이슬람과 각종 동물숭배 신앙을 가지고 살던 각양각색의 토착민들이 많았으나, 필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을 만나보며 이야기해보니, 모두가 유럽에서는 만나보기 쉽지 않은, 천사같은 착한 사람들 같았다. 부와니 대통령의 집권과 통치로, Cote d'Ivoire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코트디 보르 독립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Felix Hoophouet Boigny 대통령(1905~1993)이 주도한 대성당 건립은 착공 때부터 완공 때(1986~1990)까지, 유럽 언론의 끈질긴 반대와 비난으로, 그 나라 국내 교회도, 심지어 주교나 신부나 수녀들도, 건축현장을 방문하는 이들이 전혀 없었다. 성직자로서는 필자가 최초라는 말을 현장에서 몇 번 들을 정도였다. 그래서 착공 미사도 못 올린 대성당이 완공되자, 낙성식 미

사도 드릴 성직자가 없었으나, 용감하신 聖요한바오로 2세 교황은, 유럽 언론들의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무더위 찜통 기후를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1990년 9월 10일, 현지를 방문하여, 대성당 축성식 미사를 드리며, 유명한 강론 말씀을 교회안에 남겨주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느님의 성전 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天主님의 성전(聖殿)은 地上에서 天主님의 표지(標識)다! (Templum Dei est signum Dei super terram !)” - Msgr. Byon-

270개의 기둥 중에 일부 주요 기둥 속에 설치된 층계(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대성당건립현장 제74번 참조).

컴퓨터 상의 영상도면을 따라 설계되고 제작된 중앙제단과 천개((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대성당건립현장 제74번 참조).

야무스크로 대성당의 천개와 컴퓨터 영상(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대성당건립현장 제74번 참조).

한민족 100년계획 천진암대성당 건립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대성당건립현장 제74번 참조).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또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가? ① 概括
천진암대성당 건물이 왜 빨리 올라가지 않느냐고 많은 이들이 재촉하며 야단이다. 빨리 보고 싶고, 들어가서 기도하며, 미사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리라! 그러나 다른 나라에 이미 건립되었고, 일부는 아직도 진행 중인 1,000 여 곳이 넘는, 많은 대성당 건립 과정과 기간에 비하면, 우리나라 천진암대성당 건립은 온갖 어려움과 공격적인 비협조 속에서도 정말 기적적으로, 가장 빨리 진척되고 있는 편이다.

한국천주교회에서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으로 될 천진암 대성당 건립의 기초와 골조와 지붕까지만의 공사비는 현재 물가 기준으로 약 1천 500억 내외 추산, 이때부터 사용 시작 가능 ! 공사기간은 5년 내외 -

근년에 완공된 아프리카 Yamousscro 에 착공 5년만에 완공된

평화의 성모 대성당 건축비는 2억 달러, 미국 로스앤젤리스에서 착공 7년만에 최근 완공된 천사의 모후 대성당은 2억 3천만달러, 착공 5년만에 1999년 완공된 소련의 모스크바 구세주 대성당은 황금으로 내부 천정과 외부 돔 지붕을 입히느라 7억5천만달러(?)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술적 조각품들과 1톤 이상의 황금으로 내외를 입히는 등, 최상의 예술로 금은 寶石物, 등으로 천주께 드리는 정성을 미루고 피하면서, 좀 검소하고 단순하게 하면, 3천평 내외의 대성당 실제 건축 완공에는 대개가 2억 달러 미만 소요 됩니다 ! 우리 모두 기도하며 한 번 해봅시다!

매우 장기간 지속된 한 두 곳의 예를 들면,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대성당은 터뒀기에 400여년(930년 착수~1330년 완료), 건축에 600여년(1330년 착공~1925년 낙성), 약 1,000년 넘게 걸렸습니다. 로마의 사도 성 베드로 대성당은 354년 완공된 첫 대성당이 1000여 년간 사용되다가 붕괴 위험이 계속되어, 1450년 경 설계도 작성에 손을 대면서, 중앙부분부터 일부 철거와 착공을 시작, 1506년 두 번째로 현재의 새 대성당이 정식 착공된 후, 330여년 걸렸으나, 아직 미완성이고, 독일 쾰른대성당은 1160년 경 착공된 후, 지붕 없이 400여년, 지붕 하고나서 400여년, 약 800여 년째 계속 사용하면서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백 년씩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속의 국가 정권들은 수없이 바뀌어 왔고,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사상과 예술도 변하여 왔으며, 신자들의 신심과 열심도, 더웠다 식었다, 하며 달라졌지만, 천주님 공경하는 신앙심은 유구한 세월 속에서도 한결같이 꾸준히 이어오며, 계속 성장하여, 주님의 큰 집, 대성당을 쓰면서 지어가고 있으니, 이러한 정신적인 건축물은 건축과정에서도 나라와 겨레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아끼며 가꾸어 나가는 수호신입니다.

대성당 건립은 인간들의 돈이나 권세나 조직이나 예술이나 행정 기술이나, 관심이나 의욕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

느님의 성전은 성신의 감도로 교회 하느님 백성들의 신앙심에 의해서 시작되고 계속되며, 하느님의 보살피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성당 건립은 천주교 신앙 토착화의 결정적인 단계로 보는 것이 역사를 바로 보는 史學人들의 인식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지상에서 하느님의 표지다!(Templum Dei, signum Dei super terram)’

1990년(?), <아프리카 코트 디 보아르의 야무스크로 대성당(3만여 명 수용) 낙성식 미사 주례차 현장 방문한 聖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강론 내용>

唐나라 시대에 中原과 요동 지역에는 景敎, 또는 十字敎라고도 부르던 그리스도교의 한 교파가 주로 당나라에 전파되어, 약 3천여 개의 본당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오고 있으나, 지금은 大小 景敎碑 정도 몇 개 외에는, 경교의 신앙 자체도 한 때 스쳐가는 바람처럼, 남은 것이 없으니, 대성당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이씨조선의 抑佛崇儒 정책으로 불교가 수난을 당할 때, 법주사,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불국사, 같은 5 大 사찰들은, 조선 불교 생존에 있어서 뿐 아니라, 나아가, 몽고족 대란이나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현대에 들어오면서 倭賊들의 침탈에 있어서, 국난의 위기에, 살생을 엄금하는 불교 스님들이 수천 명씩僧軍을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창을 들고 몽고군과 왜군을 무찔렀으며, 자신들을 억압하는 조선 왕국을 위한 護國佛教의 위대한 역사적 교과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고려 때 몽고족의 침략 대란 중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김윤후 스님이 용인 處仁城(현재의 남사면 아곡리), 城內가 겨우 3천여 평 밖에 안 되는 작은 土城을 에워싼 몽고군 부대의 사령관 살레탑 장군을 사살하던 용력이나, 서산대사 사명당 등, 임진란 때의 호국 스님들의 道力이나 덕망 외에도, 전국 불교의 여러 큰 사찰들은 국가수호의 본거지로서 護國佛教의 큰 힘이 되었습

니다.

대성당의 건립과정은, 그 시작이나 완공 못지않게, 건축과정도 보다 더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니, 천진암대성당도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지난 40여 년 간, 터전과, 주변 배수로, 하천과 주변 기반 시설, 성역 내 신도들 이동공간, 순례자들 신심 예절단의 이동 공간, 상수도과 하수도과 저류지, 조림, 등,,,먼저 하지 않을 수 없는, 얼마나 많은 공사와 행사가 지금까지 그칠 줄 모르고 끝없이 여기에도 있어 왔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돌아보면 실로 땀을 씻는 수건을 손에 들고, 감개무량한 한숨이 저절로 길게 나옵니다.

그동안 5위 성현들의 묘역 조성과 수녀원, 연구원, 박물관, 외에도, 토목 공사와 건축공사, 순례객 관리, 등에 임시로 불가피한 60여 평씩 되는 일시적인 가건물 시설들, 창고나 사무실만도, 짓고 헐어 옮기고, 다시 짓고, 또 헐어 고치고, 거듭한 것들이 13동이나 됩니다. 큰돈이 없으니, 일식(一式)으로 한 번에 못하고, 재정상의 큰 부채를 피하며, 조금씩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 이럴 수밖에 ! 심지어 40년이 되도록 아직도 사제관 없어서, 사제들이 많을 때는 4,5명씩 되는데, 여기저기 숙직실이나 임시 거처에서 지금도 그냥 살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36년 전만 하여도 천주교회 소유의 토지가 단 한 평도 없던, 이곳, 한국 천주교회 발상지 천진암 성지에, 그동안 화전하던 토지나 산자락까지, 조각 땅 270여 필지를 하나 둘씩 매입하여 모아서, 현재 한 덩어리 36만여 평이 되었고, 거듭된 10여 년간의 무사고 터담기 공사로, 3만여 평의 대성당 터 수평 대지가 중심부에 2단계로 이루어졌으며, 국내외 최상의 저명한 전문 학자들과 성직자들에 의해 15년여에 걸쳐 입안된 설계도가 확립되고 다듬어져 마침내 완성되고, 지방 행정 기관의 어려운 건축허가와 함께, 교황 聖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몸소 親作하시고 친필 서명하신, [교황강복문]이 하사되어, 마침내 착공되고, 30톤 통돌에 조각, 완공, 안치되었으며, 또한 100톤의 통돌 중앙 제대

석이 마련되어, 로마 교황대사 대주교와 아시아 및 북남미 대주교들이 함께하는 정초식, 축성식, 등을 거행하였습니다.

대성당은 순례하는 이들과 관광하는 이들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淨化하며 聖化시킴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정신적 聖德 教育場이 되고, 지주가 되고, 千年 세월을 두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하느님의 보우하심과 백성들의 애국심을 키우는 터전이 되며, 종종 계속되는 경제 불경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신앙의 순례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국내외의 관광객들을 불러들임으로써,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관광자원 확보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됩니다. 해외 여러 성지 순례자들은 대성당 참배를 최우선으로 하여, 반드시 빼놓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럽에 가면, 으레 대성당 참배가 여행 주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빈국이던 포르투갈의 빈민촌 Fatima 성지는 2년 전 15,000여명 수용하는 두 번째 대성당이 준공되었는데, 매년 5백 여만 명 이상의 국내외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포르투갈은 주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국제적 기반 편의시설로, 연간 25억 불 내외의 관광수입을 얻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1인당 2주간 체류하며, 평균 5천불내외의 사용 추산), 프랑스도 서남부의 피레네 산맥 심산궁곡의 극빈 지역, Lourdes 성지에는 대성당이 4동째 완공되어, 매년 6백 여 만 명의 순례자들과 관광객들로, 프랑스는 연평균 30억불 이상의 관광 수입을 얻게 되자, 중앙 정부는 그 험한 산맥의 실로 난공사 지형을 무릅쓰고, 가까운 읍내 Tarbre 에까지도 떼제베 고속 기차 철로까지 수백 km를 연결하였고, 성지에서 16km 이상의 지점 산맥 입구 읍내 Pau에는 작은 국제공항까지 개설하였습니다. 20여 차례 유럽 각 성지를 순례하던 필자도, 스페인 Madrid에서 비행기로 파리를 경유하지 않고, 작은 여객기로 30여 분만에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Pau 공항에 내려서 Lourdes에 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관광수입은 원자재 구입비나, 과중한 공장 건설비나 가공비,

포장, 선전 광고비, 운반비, 등이 필요 없는, 거의 전액 순수익으로, 이태리와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의 국민들의 최대 수입원입니다. 열강들의 대량살상 무기 제조 밀매 수익처럼, 핵 폐기물 처리, 등의 위해잔여물도 없는, 영구적 문화 수익사업입니다. 무력에 의한 수입이 아닌, 문화력에 의한 민족현양 수익사업입니다. 이러한 국익 장기 사업을, 이 시대는 어찌하여 무능하고 못한 시골 신부들 한두 명의 어깨에 얹어놓고, 수수방관하며, 심지어 일부는 횡방이나 일삼으며 최대의 파괴적인 비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지 !!?

한마디로, 100년 장기 계획의 대성당 건립은 신앙심이나 애국심을 키우는 국민정신 면에서 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건전하고 거룩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천주교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천진암대성당 건립에서 얻는 모든 수익사업은 국가와 지역 사회가 챙기고 취하는데, 우리 시골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대국 사람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속담이 있지만, 재주부리는 곰에게도 공마단 주인 대국양반은 곰에게 먹이와 휴식을 주기라도 하고 있음을, 이 시대 우리 사회는 알고나 있는지?!

역대 교황님들이 공인하고 격찬하는 한국천주교회의 自發的인 創立史 現場, 특히,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한국인들이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며 자발적으로 세운 한국천주교회 발상지 천진암 성지의 대성당은 한민족의 정신문화를 세계화시키는, 빛나는 민족정신사업이 아닐 수 없으며, 그동안 그칠 줄 모르고 닦쳐오는, 실로 얼마나 많은 난관들을 교회는 지금까지 극복하며 나왔는가 !

이 시대 자신들과 후손들을 위한 역사적인 기념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함께하지는 못할망정, 사사로운 개인들의 무리한 폭리추구를 위하여 억지 시도나 무경우 시도를 위하여, 욕심과 투기심으로 종종 최대의 비협조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과, 일부 무법자들의 불법까지 계속 끼어들어, 때를 쓰며 억지를 부리는 서글

픈 시대 !!! 無經緯와, 온갖 비난과 비평과 반대와 훼방, 등을, 장애물 경기하듯, 교회는 실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무서운 인내를 가지고 계속 허덕이며 이를 거둬 극복하면서, 주님의 집, 하느님의 성전, 한민족100년계획천진암대성당 건립은, 하느님이 보우하사 꾸준히, 즐기차게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전국 순례자들의 성금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100년 계획’ 이란, 99년 다음 100년이라는 수학적인 의미의 100년이 아니니, 100년 계획이라고 하여,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않으며, 누가 박수를 쳐준다고 일하는 실무자들이 우쭐대지도 않고, 손가락질한다고 시무룩해 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 교회는 오늘도 여기 주님의 집 건축 현장을, 우리의 殉敎現場으로 삼고, 우리의 殉敎刑場으로 믿고, 황소걸음처럼, 뚜벅뚜벅 같은 발걸음으로, 후퇴나 정지나 노선 이탈을 모른 채, 한 걸음씩 내딛고 나아가갈 뿐입니다 ! 흐르던 땀이 마르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다할 때까지 바치려는 각오와 결심으로, 전국의 천진회원들은 자자손손이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아프리카 아이보리 코스트의 야무스크로(Yamuscro) 대성당 건립 현장을 며칠간 답사하면서(현재 완공, 聖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祝聖), 필자는 아프리카 구원의 희망과 신앙을 實感하였었습니다. 인구 4천여 명의 작은 시골 면소재지의 허허벌판이었던 야무스크로는 1990년대 초에 당시 인구 150만의 아비장 대교구에서 분리 독립되어 바로 교구로 승격되었고, 현재는 대주교 1인과 보좌주교 2명이 상주하는 큰 교구가 되었으며, 아프리카의 유일한 최고의 현대적인 명승지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천주교 신앙 토착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30여 년 전, 1886년 봄, 서울 명동 대성당(427평, 1천 500여명 수용) 터닦기가 착공될 때, 우리나라에는 교황청에 보고된 전국 신자들 수가 1만 4천 5백여 명뿐이었고, 사제들은 모두 10명, 주교 1명, 성직자들은 모두가 프랑스 선교사들만 11명 뿐이

고, 수녀들은 단 한명도 없던 시절, 서울 장안에는 천주교 신자수가 불과 250명~300여명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만시지탄이 있지만, 오늘의 한국교회는 적어도 수도권에 대성당 하나쯤은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극심한 난관을 극복하며 명동대성당을 건립한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동대성당 건립이 없이, 지나간 100년의 세월을 생각해봅시다!!

선조들의 殉敎 鮮血도 이를 재촉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할 수 있는 것(기도와 강론)을 함께하여 봅시다.

① - 추후 계속 - Msgr. Byon-

성탄 ! 성탄 !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도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하느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성탄 ! 성탄 !

2015 성탄절에 - Msgr. Byon-

천진암 성지 개척이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에 관광자원이 되었다!

- 위대한 정치가들과 유능한 행정관들, 훌륭한 공무원들의 공헌을 되새기며...! -

한국천주교회 발상지 천진암 성지는 경기도 광주산맥의 주봉이 되는 앵자산의 서북쪽 광주군의 퇴촌면 지역이다. 산세가 수려한 명산이라 광주 8경 중의 3경이지만, 산악지대로 농경지가 매우 적고, 주로 산사태의 토사가 많아 토질이 비옥하지 않으며, 산업시설도 없어서, 퇴촌면, 특히 광주산맥 주봉이 되는 앵자산, 무갑산, 관산, 등 심산궁곡의 관음리 우산리 무갑리 지역민들은 농경지도 소득도 충분치 않아 어려움이 많아서, 산 비탈에는 지금도 火田하던 흔적들이 적지 않다. 급경사면의 경작지화를 위한 화전 밭은 장마철 산사태나 토사의 원인이 되어, 중앙정부의 산림청에서는 조림을 서둘러서, 아시바 감으로 낙엽송 묘목을 심게 하였다. 그런데 곤지암에서 퇴촌, 분원에 이르는 경안천과, 양평에 이르는 한강에는 교량이 없어서, 퇴촌면과 남

종면은 국도에서 고립되어 불편이 극심하였다.

특히 주변 도로가 없어서, 분원, 두미 나루터와 마재, 등에 소금배가 운용되던 시대에, 1961년 5.16 군사 혁명 정부는 서울에 전기가 부족하여, 수력발전과 수도 서울의 수해 예방을 겸한 팔당 댐 건설 공사를 추진하였고, 공사용 트럭 통행을 위해, 임시 도로를 우선 번천에서 두미까지 일방통행로를 개설하여, 경안천 서안, 도마치, 이성리, 두미 나루터, 아랫 두미 강가에까지 마차통행이 좀 수월하게 되었다.

팔당댐 건설 기공식(1966년 착공~1973년 완공) - 金光彦 촬영, 사진 제공. - 서울의 전력 수급과 우기 서울의 홍수 피해 예방을 주목적으로 건설된 팔당수력발전소 건설 공사는 국가적으로, 특히 수도권의 한강 수계 안전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토건설사업이었으나, 한국천주교회 발상지 천진암 성지의 개척과, 특히, 한민족100년계획 천진암대성당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진출입로 확장 개설, 등에도 미리 초석이 되는 하느님 안배의 손길이였다. 앞으로 설명할, 천진암대성당 건립을 위하여, 하늘이 미리 섭리하신 국토건설사업이었다고 확신한다. -Msgr. Byon

팔당댐 건설 기공식 중 박정희 대통령의 기공식 기념식사(1966년 착공~1973년 완공)-金光彦 촬영(사진은 천진암성지 대성당 건립현장 제74번 참조).

팔당댐 건설 기공식(1966년 착공~1973년 완공)-金光彦 촬영(사진은 천진암성지 대성당 건립현장 제74번 참조).

팔당댐 건설(1966년 착공~1973년 완공) 위 사진 중, <한국전력주식회사 팔당댐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기공식 중, 박정희 대통령의 기공식 기념식사-물길이 치솟는 지점은 지금의 팔당 댐 남쪽 시작 지점이고, 물길 뒤로 약간 오른 쪽은 아랫 두미 마을이다. 30여 면의 사진들은 자료실에서 추후 볼 수 있음.<한국전력주식회사(한전)의 팔당댐 수력발전소 공사 기공식 당시(1966년 6월)부터, 팔당건설사무소 현장에 근무하던 직원, 젊은 날의

金光彦 촬영 제공>(사진은 천진암성지 대성당 건립현장 제74번 참조).

우리나라가 전력부족과, 특히 매년 연례행사처럼 겪는, 장마철 많은 인명피해를 내던 서울 한강의 물난리 수해 방지를 위하여, 1964년(?) 초여름 당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이 팔당댐 건설 후보지 현장 점검(?)을 겸하여, 한강 서울 상류의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이 합류하는 남종면 분원 주변과 퇴촌면 강변을 둘러보면서, 퇴촌면의 도마리 냇갈 가에서 시골 농부들이 천렵(川獵?)하듯, 아주 소박하게 민물 매운탕으로 점심을 하였는데, 개울 건너 광동리를 바라보며, 농민들이 경안천에 임시로 만들어 건너다니던, 모래 가마니와 기둥감 두줄을 한데 묶은 외나무 겹다리를 보고, “장마철에는 저 다리가 떠내려 갈텐데, 그러면 저 건너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통행하느냐?” 고 박대통령이 묻자, 동석하였던 도지사(남봉진? 이흥배?)가, “퇴촌과 남종(분원) 2개 면민 모두가 완전히 고립되어, 여러 날 동안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다리 놓기를 반복하면서 건너다닙니다.” 하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시골 출신의 박정희 대통령은, “저런 ! 아주 시멘트로 좀 튼튼히 큰 다리를 하나 놓도록 해야지요 ! 그리고, 저 건너 초가집들은 매년 봄에 짚으로 영을 엮어서 지붕을 새로 해야 할 텐데, 전국 농민들이 초가집 지붕을 한번 하면 좀 여러 해씩 쓰도록 해봅시다!” 하며 지시하였는데, 평소 좀 과묵한 박정희 대통령의 한마디에, 바로 퇴촌을 건너가는 첫 다리가 처음 착공되었고, 수행원들의 추진으로 상공부에서는 초가집 지붕 개량용 자재로 쓰레트 생산 개발에 착수하여, 처음 제작된 쓰레트로 전국에서 퇴촌면 광동리 마을이 제일 먼저 쓰레트 지붕개량 시범부락이 되었다고, 당시 관계인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천진암 터가 있는 우산 2리 절막 마을은 당시 심산공곡 종점 이어서, 퇴촌 면사무소에서 천진암 터가 있는 우산리 절막까지 12 Km를 가려면 지그재그 식으로 흐르는 바윗돌 무더기 우산천

을 건너기 위해, 자주 신발을 벗어두고, 징검다리 와 외나무다리를 13번이나 건너야만 하는 산골이었다.

그런데 당시 동부면의 구산 성지 마을은 천수답이 많고 토질도 과히 좋지 않아 농민들 생활이 어려운 편이었으나, 비닐하우스의 상추 재배를 처음 시작하여, 겨울 농사로 큰 성과를 내자, 순교성인 김성우 안당 형제들의 7대 후손이 되는 젊은 김학성, 새마을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전국 최연소 면장(당시 31세?)으로 임용되어, 당시 광주군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던 퇴촌면 면장으로 부임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참여로, 면내의 새마을 사업, 특히, 관음리와 우산리에 이르는 산골 통행로 마차길과 징검다리의 간이교량들이 소폭으로나마 신규축조, 개선되었다.

그래도, 군이나 도의 예산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삼륜차나 대형 차량의 교차가 힘들어서, 중간 중간 한 편에서 기다려야 하는 곳들이 적지 않았다. 1975년 말, 필자가 수원교구청 사목국장 재직 시에 처음 천진암을 다녀갈 때만 해도, 퇴촌면 사무소의 건물 외벽은 송판으로 비늘처럼 붙이고, 빗물에 썩지 않게 검은 골탈(?) 칠을 하고, 지붕은 붉게 녹슬은 함석 조각으로 되어있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5·16 군사혁명 정부가 추진한,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과 마을로 가는 마차길들은 좀 넓게 개선되었다. 1982년 천진암 성지의 절막마을 취락구조 개선으로 새로 지은 11동 건물이 퇴촌면 내의 최초 붉은 벽돌과 조선 개와(개량용 시멘트 제) 식으로 되어서, 면내의 여러 마을에서 구경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1960년 남상철 회장님과 정원진 신부님이 처음으로 앵자산의 천진암 터와 주어사 터, 번어사 터, 일출암 터, 봉태암 터, 석이암 터, 등을 찾아 답사하고, 1963년 1월 경향잡지에 게재하여 알렸었으나, 당시 관할교구(서울교구)에서는 전혀 관심을 둘 겨를이 없었고, 1963년 서울에서 분리 독립된 수원교구는 너무나 빈약하여, 22개 본당 중 대부분이 외국 교회의 미사예물 원조를

필요로 하였었고, 천진암 성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더욱이, 천진암 계곡과 퇴촌면 내에는 천주교회 토지가 단 한 평도 없었을 뿐 아니라, 천주교회 신자가 한명도 없었다. 몇 년 후, 훗날 북쪽 엮티 고개 산맥너머 영동리의 석둔이 좁은 계곡에 양평 용문 산골에서 이사 온 교우들 서너집이 배를 타고 일년에 한두 번 양평성당으로 다니고 있음이 김학성 퇴촌면장한테 알려졌을 뿐이었다.

필자가 두 번째 교구청 근무를 마치고, 1976년 봄, 광주군 동부면 신장본당(신자 수 450여명, 일년 예산 80여만원) 주임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산골 농경지가 되어버린, 옛 천진암 터에 단 50평~100여평만이라도 확보하여, 한조각 둘이라도 기념비를 세우고자, 주머니에는 그 때나 지금이나 돈도 없으면서, 신장 본당 대신학생들(차부제품 받은 김학렬, 동생 김학무, 형제)을 데리고, 천진암 터를 한두 차례 재답사하였으나, 산골 논 다랑이였던 천진암 터를 대대로 경작하던 근면하고 선량한 소유권자, 이창룡씨(새마을 지도자)는 매우 호의적이었고, 대토(代土)를 바라고 있었으며, 가난한 신장본당에 새로 부임한 필자는, 마음뿐이지, 그나마 무일푼으로서, 천진암 터 산골 논 50평이나 100평을 매입할 돈도 없었을 뿐더러, 아주 간소하고 작은 기념비석 하나 세울 돈이 없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기념사업을 하도록, 어느 수도회에라도 맡겨보려고, 이곳저곳, 그래도 당시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굴지의 수녀회, 등 7개 수도회 책임자들에게 부탁하여 보았으나, 함께 현지 답사를 하며 현장을 보고 나면, 처음 답사하며 겪은 도로 불편을 내세워, 번번이 진출입 도로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며, 모두들 천진암 성지기념사업을 말지 않는다고, 일언지하에 거부하였다.

그런데 당시 서울 某 저명인사가 전담 한 평에 100원씩 주고 지금의 빙천담 터 주변 몇 백 평을 매입하였을 정도로, 도무지 토지매매가 없던 산골이었다. 그 당시 퇴촌면 소재지는 도로 옆

의 전답이 1천200원 내외로 어찌다가 생기는 이농주민의 토지가 운이 좋아 매매되었었다. 면내의 인구도 불과 몇 천 명(1,500여 명?)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울며 겨자 먹기란 말처럼, 필자는 할 수 없이 우선 내 자신이 천진암 터에 땅이라도 몇 평 사놓고 돌 한조각이라도 세워보자는 심정으로, 우선 토사로 뒤덮힌 빙천 터 불모지 가시덩굴로 덮인 경사지의 400여 평 찻을 평당 2천원(?)씩에 매입하였다(1978.9.16. 김대건 신부 순교기념일). 그러자, 마을 사람들 몇이 자기네 전답도 사 달라고, 밤중에 지금의 하남시 신장성당까지 몇 번이나 밤에 찾아왔으나, 필자는 무일푼으로 아주 난처하였었다. 산골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도시로 이사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살레시오회 출신으로 수원교구에 입적한 벨지움 태생의 Raymond Spies(한국 姓 파신부)신부의 성금 지원으로, 천진암 터 15필지 계단식 논다랑이부터 강학당 터 750여평 田, 암자 터 150여평 찻, 주변 火田畓 터, 등 土砂로 뒤덮힌 불모지를 하나씩 둘씩 매입하였으나, 지게지고 오르는 바윗돌 사이로 난 산비탈길 외에는 진입로가 없어서 불편이 극심하였다. 그 후, 1980년 봄, 필자가 한국주교회의의 한국천주교회200주년기념준비 주교특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되면서 부터는, 한국천주교회 역사상 최초, 최대의 국제적인 기념행사 준비로, 필자의 서울사무실 일이 너무나 폭주하여, 그 때부터 5년간 필자는 주일 오후에만 잠깐씩 천진암을 방문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고, 신장본당 업무도 첫 보좌로 온 이용훈 신부(현재 수원교구장 주교)가 실무를 다하였다.

그러나 학생 때부터 책 번역하며 글 쓰던 버릇으로, 한국 천주교회 창립사와 발상지 천진암 터에 관하여 글을 써서, 교회 내 정기 간행물로 전국 성당에 알리기 시작하였고, 전국 각처에서 천진암 성지를 찾는 순례단들이 급증하였다. 특히 대구대교구의 박창수 신부를 비롯한 순례자들이 버스 3대~5대씩 이끌고 마차길을 따라 간신히 우산리까지는 들어왔으나, 회차를 못하

여, 시골길에서 후진을 계속하느라, 새벽 4시경에서야 대구에 귀가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통행로가 불편하여, 대구 부산 등, 남부지방 관광운수업체들의 불만토로와 진정으로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81년 새로 부임한 염보현 경기도 지사의 관심과, 실로 고마운 협조로, 우선 번천리부터 천진암 성지 마을까지 시골길 15 Km 도로포장을, 종점 우산 2리 천진암 입구부터 착공하여, 우선 1.7Km를 마치게 되었는데, 특히, 평소 민족정신과 애국심이 투철하고, 유능한 행정관으로서, 私心이 전혀 없는 염지사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한국 천주교 발상지 천진암 성지조성을 위하여, 성역 내의 국토이용관리법을 변경 고시(1982년), 하였으며, 성역 내의 각종 개척 사업 공사가 나능하게 정비하였으며, 마을 취락구조 개선 사업, 등, 성지 기반 시설 추진을 지원, 완수케 하였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으로 전임하자, 서울 올림픽 준비도 완벽하게 수행하여, 한민족사에 기리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주변의 낙후지역 도로개설과 서울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한 점은, 그 어렵던 시절, 염보현 경기도지사 는 이 시대 우리나라 현대화에 있어, 당시 정부의 가장 위대하고 유능한 행정관이었다고, 필자는 확신하며 존경하고 있다.

그 후, 1983년 초에 후임 김태호 지사가 계속하여 번천리까지 천진암로 도로의 포장공사를 연결, 마무리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1983년 봄, 버스 2대로 서울 관훈클럽 외신 기자들의 천진암 성지 순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1983년 11월 초 로마 교황의 한국 방문이 확정발표되었는데, 그 후에 일부 거리의 사람들은 단순한 짐작으로, 교황방한 덕으로 천진암로 도로 포장인 된 것처럼 말하지만, 당시의 날짜별 각 신문 보도와 천진암 가는 도로 확장 지적의 공부상 지목 변경 연월일을 보면, 사실상 천진암 성지 진입로 확장과 포장은 교황방문이 거론되기 훨씬 전에, 즉, 그보다 3년 전에 착수되었고,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황 방한 결정 발표와는 무관하게, 훨씬 먼저 착수되고 완공되었음이 공부상으로도 확증되고 있다. 따라서 1984년부터는 외국인 순례자들의 방문 부쩍 늘어서, 프랑스인 주교 25명, 사제 78명을 모시고, 486명의 외국인들의 천진암 방문을 시작으로 유럽교회에 천진암 성지가 크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상하수도 와 수세식 화장실, 등이 없어서, 불편과 수치는 피할 수가 없었다.

김태호 지사의 뒤를 이어, 이해구 지사와, 특히, 김용래 지사는 천진암성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성역 내의 하천정리와 각종 기반시설 토목공사 자문과 지원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심재홍 지사는 성역로 십자가에 이르는 경사면 토사방지의 난공사 진입 통로 조성 과 힘든 포장에 크게 공헌하였고, 이인제 지사의 청소년수련장 시설 완공, 특히, 경제적 해안을 가진 후임 임창렬 지사의 천진암 성지 진입로 8 Km에 대한 4차선 확장 계획과 천진암의 실학박물관 건립 예산 확보는 당시 도의회의 승인(4차선 8km 450억, 실학박물관 건립 예산 150억, 합계 600억 예산이 도의회에서 승인. 당시 광주군의 일반 예산 2천 4백억 내외) 되어 4차선 도로확장 설계, 측량 착수) 하달 후에, 시행 과정에서, 지사의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후임 김문수 지사의 박물관 수장고 건립 후원, 등, 장기적 안목을 지닌 유능하고 위대한 역대 경기도지사들의 한국천주교 발상지 천진암 성지 조성에 기여한, 실로 지대한 공헌은 천진암 성지 자료집 기록과 당시 언론보도 등, 한국천주교회 역사에 길이길이 크나큰 공헌사로 남을 것이다.

그런데, 1975년부터, 필자가 천진암 터를 찾아 답사하던 시절은 물론,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퇴촌면 소재지에 음식점이 하나도 없어서, 군에서 누가 나오면, 먼 직원의 집에서 점심 대접을 한다는 시절이었고, 필자역시 점심을 사먹을 데가 아주 전혀 없기 때문에, 천진암 터를 재삼재사 답사를 왔다 가는 날은 점심을 굶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신장까지 나가야 했었다.

그러나 천진암 성지에 전국 각처에서, 특히 해외에서도, 가장 많을 때는 1984년도 프랑스 신자들이 480명이 프랑스 주교 25명과 프랑스 사제 78명과 함께 천진암 성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수세식 화장실, 상수도등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빈자로 위장하고, 약자로 위장한 알바기 하려는, 일부 부동산 투자인들의 불법과 무법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반대와 방해는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종종 토지를 사서 천주 교회에 기증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더구나 천진암 성지 순례자들은 반드시 도시락을 가지고 오도록 미리 알려야 했었는데, 계속 증가하는 순례자들로 인하여, 특히, 매년 6월 24일, 한국천주교회 창립기념일 행사에는 연평균 1만여명 내외의 신도들이 전국에서 모였고, 이런 큰 행사 때에는, 때로 5만여명(당시 경찰 추산)까지 운집하는 군중들을 위한 상수도와 하수도, 화장실이 없어, 아주 고전을 하였고, 길가에는 차차 간이음식점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수백여개가 넘게, 음식을 아주 잘하는 요식업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천진암 성지가 지역 경제발전과 활성화에도 적지 않게, 지금도 크게 기여하며, 구심점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大韓民族100년계획 天真菴大聖堂 건립 조감도(1979~2079)(사진은 천진암성지 대성당 건립현장 제74번 참조).

- 추후 계속 - Msgr. Byon

● 작성일 : 2015-12-19 14:22

228. 1월 2일(토), 제214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하여...(오후 6시 ~9시)

오는 1월 2일(토요일) 저녁 6시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직

장과 가정을 위하여,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제214회 천진암 성지 월례 촛불기도회가 봉헌됩니다.

매월 첫 토요일 저녁에 바치는 천진암 성지의 월례 촛불기도회는 오후 6시부터 여러 사제들이 [성모신심 미사]를 봉헌하고, 이어서 촛불을 들고 묵주의 기도 15단을 정성껏 바치며, 세계평화의 성모상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平和統一은 공짜통일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은 統一戰爭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기도와 희생과 인내와 보속과 봉헌으로 점철된 殉教統一입니다. 죽고 죽이는 武士掌風이나, 西風과 대결하는 東風보다도 더 막강한, 천상에 계신 성모 마리아의 聖母 天風 까지도 동원하는 기도와 보속이 전제된, 天主님이 도와주시는 초자연적 戰力에 의해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통일입니다. 天主 聖父님의 神風으로 온 우주 천체가 再改되기 전에, 기도와 보속의 天風으로 우리나라와 우리겨레를 平和統一합시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면 하늘도 말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피흘리는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전범자들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천주님께 기도합시다 !!!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특히 극동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빈약한 국가들이, 무력 강국화와 경제대국화에 집중하면서 영토확장까지 추구하는 이웃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핵무기 신앙에 집착하는 북한을 대하고 있는 우리로서, “세계평화의 성모님”께 진심으로 열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남북한이 모두, 중국과 일본, 특히 북한도 더욱 정직하고 겸손해지고, 남한도 오락과 유흥과 사치와 향락을 줄이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 개인들도 국가도 모두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

이 세대가 천주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213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오후 6시 미사, 2015.12.05.)(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4번 참조).

● 작성일 : 2015-12-27 09:29

229. www.chonjinam.org

2015년 월별 방문자 통계

1999년에 처음 개설된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 www.chonjinam.org 는 아주 고약한 웹방꾼들(해커)의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공격으로 수차례나 완전 파괴되어 몇 달씩 중단되었다가, 최인영 사장님의 헌신적인 봉사로, 제3차 복구 개편(2012년 3월 7일)된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접속 방문자 통계와, 최근 2015년의 월별 통계를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 홈페이지는 漢字와 유럽 언어 등을 종종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종교적인 思辨的 내용물이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視讀者들께서 불편하실 텐데도 불고하시고, 이처럼 많이 자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인력과 예산이 허락되면 확대, 개편, 개선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때때로 너무 궁색하여, 상업광고물이라도 받으라는 권유를 몇 차례 받았으나, 사양하였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며 빌어먹으며 일하는 것이 벌어먹으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말연시에는 management count를 열어서, 1년간의 통계 개관을 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총 접속 방문자 카운트 : 4,605,120명-

[시간별통계] / [일별통계] / [국가별통계], 등은 생략.

2015년 1월 총 접속 횟수 : 205,260 명

최대 접속 카운트 : 14,697

평균 접속 카운트 : 6,621

최저 접속 카운트 : 1,543

2015년 2월 총 접속횟수 : 167,023 명

최대 접속 카운트 : 12,742

평균 접속 카운트 : 5,965

최저 접속 카운트 : 1,207

2015년 3월 총 접속횟수 : 194,028 명

최대 접속 카운트 : 14,650

평균 접속 카운트 : 6,259

최저 접속 카운트 : 1,735

2015년 4월 총 접속횟수 : 202,049 명

최대 접속 카운트 : 16,419

평균 접속 카운트 : 6,735

최저 접속 카운트 : 1,344

2015년 5월 총 접속횟수 : 205,963 명

최대 접속 카운트 : 20,838

평균 접속 카운트 : 6,644

최저 접속 카운트 : 1,946

2015년 6월 총 접속횟수 : 108,601 명

최대 접속 카운트 : 10,034

평균 접속 카운트 : 3,620

최저 접속 카운트 : 1,703

2015년 7월 총 접속횟수 : 110,096 명

최대 접속 카운트 : 6,611

평균 접속 카운트 : 3,551

최저 접속 카운트 : 1,429

2015년 8월 총 접속횟수 : 124,351 명

최대 접속 카운트 : 7,154

평균 접속 카운트 : 4,011

최저 접속 카운트 : 2,093

2015년 9월 총 접속횟수 : 133,219 명

최대 접속 카운트 : 8,100

평균 접속 카운트 : 4,441

최저 접속 카운트 : 2,137

2015년 10월 총 접속횟수 : 158,353 명

최대 접속 카운트 : 13,058

평균 접속 카운트 : 5,108

최저 접속 카운트 : 2,667

2015년 11월 총 접속횟수 : 147,788 명

최대 접속 카운트 : 12,395

평균 접속 카운트 : 4,926

최저 접속 카운트 : 1,623

2015년 12월 총 접속횟수 : 145,690 명

최대 접속 카운트 : 9,397

평균 접속 카운트 : 4,700

최저 접속 카운트 : 2,474

www.chonjinam.org 제3차 복구 개편 이후 총 접속 방문자
통계 <2012년 3월 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접속 카
운트 : 4,605,120 명>

<韓國語 권에서 60%, 英語 권에서 20%, 中國語 권에서 5%,
기타 言語(佛·伊·西·中·日·獨) 권에서 15% 내외> [시간별통계] /
[일별통계] /[국가별통계], 등은 생략합니다. 각국어 번역봉사하
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Msgr. Peter Byon

● 작성일 : 2016-01-04 01:00

230. 원로 가톨릭 언론인, 정론직필의 홍의(마티아) 기자 선종(향년 75세)

정론직필의 원로 가톨릭 언론인, 홍의(마티아) 기자 선종(향년

75세, 1월 9일 지병으로 선종, 이문동 경희의료원 영안실 302호) 소식을 듣고, 서글픈 마음으로 찾아가 영전에 향 올리며 조문하고 나니, 나이로 봐서는, 바로 한 걸음 앞에 필자를 추월하므로, 좀 과속하여 먼저 간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다가온 내 차례가 대기 중에 있음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걸음이 좀 빠른 분도 있고…! 필자처럼 좀 느림방이도 있고…! 지금 서울 이문동 경희의료원 영안실 302호에 모셔져 있고, 내일 구파발 본당 교회묘지 납골당에 모셔진다고 들었습니다.

변기영 몬시뇰, 전 한국일보 홍의 마티아 기자, 조문(2010년 4월 21일, 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 언론인신앙학교 특강에서 홍의 마티아 기자와 함께)(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 306번 참조).

변기영 몬시뇰, 전 한국일보 홍의 마티아 기자, 조문(서울 경희대 병원 장례식장, 2016.01.09)(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6번 참조).

본래 함경도 북청 신포가 고향인 홍기자는 정론직필의 언론인으로서, 후배들이 존경하며 사사(事師)하는, 천주교 기자들의 모범이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천주교회 창립사 재발견과 재 규명과 재확인의 격동기에 합리적이며 신앙적인 노선으로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소탈하고도 온후하며, 항상 관대하였던 마티아 홍의 기자의 선종을 알려드리오니, 전국 모든 교우들, 특히, 천진회원들은 진솔한 기도를 바쳐드립니다!

포천군 내촌면 화현리에 있는, 월남한 함경도 신창읍민회 회원들만이 사용하는 공동묘지에서 발견한 이벽 성조의 묘를 만부득이 천진암 성지로 이장한 후, 옛 묘터를, 새로운 망자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고, 회원들도 불과 몇 평씩만 사용하는 지역에, 신창읍민회의 훌륭한 어른들은 천주교회가 이벽성조 옛 묘터 20평을 영구사용하도록 허가하였는데, 이 업무를 당시 홍기자가 맡아 하였으니, 서울교구 박희봉 신부

님이 현재의 포천 화현리 이벽 성조 성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일도 홍기자의 업적입니다.

1978년 봄, 수원교구 신장성당에서 발행하던, 실로 하찮은 4면짜리 백로지 [월보 천진암]에, 최초로, 1779년의 한국천주교회 창립연도 소견이 거론된 후, 그 해 연말 주교회의 경향잡지(당시 편집국장 정은규 신부)에, 한국천주교회 출발 역사는 북경에서의 이승훈 진사 영세년도(1784년)보다, 적어도 5년 앞서는, 1779년, 천진암에서의 천주교 강학이 절정에 오르던 해로 해야 한다는 이론이 발표되자, 당시 인기가 많던, [주간 한국]에 카바스토리이로 이를 특필대사하여, 최초로 사회 일반 언론에 발표한 것도 홍의 기자였습니다. 즉, 최초로 한국사회 언론에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홍의 기자는 가톨릭언론인회를 꾸준히 키워오는 일에 크게 헌신하였으니, 우리나라 교회 창립선조들께서 홍기자를 천상에서 환영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변기영 몬시뇰>

● 작성일 : 2016-01-10 11:40

231. 1월 15일, 금요일은 제36회(1981~2016)

하느님의 종, 권철신 암브로시오 성현 (1736~1801) 기념일입니다 !

한국천주교회 창립의 주역 중 한분이신 암브로시오 녹암(鹿菴) 권철신(權哲身, 1736~1801) 성현을 기념하는 날, 천진암 성지 광암성당에서는, 후손들과 함께 낮 12시에 기념 미사를 봉헌하고, 다과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선조들의 정신과 업적과 덕행을 되새기고, 감사드리면서, 이 어른들의 시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을 바칩시다. 장차 시복,시성되실 우리 신앙선조들에 관한 기념하는 날이 전혀 없이 20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리다가 한국 교회가 국제적인 윤리부재의 천민들의 집단이 될까

걱정입니다. 늦었지만, 이제 제36회째(1981~2016), 심산궁곡의 산골, 천진암 성지에서나마, 우리 신앙선조들을 기념하는 정신으로 제사를 올립니다. 너무나 촌스럽고 서툴다고 남들이 흉을 보든, 후대들이 탓을 하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조곤 하에서, 우리 나름의 산골 제사랍니다. 혹시라도 뜻을 같이하는 교우들은 와서 함께합시다.

1984년 103위 시성식 그 전에도, 특히, 1925년 79위 시복식 이전에도, 우리나라 신자들은 김대건 신부님과 정하상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신앙의 순교 선조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존경하고, 자주 순교지나 묘소나 생가 터, 등 연고지를 찾아 참배하며, 기도를 바쳤습니다.

주후 754년 독일 라인강가의 덕구지역에서 순교한 보니파시오 대주교를 독일 교회 신자들과 로마 교황청은 1827년 시복되기 그 이전부터, 천 백여 년간 시복,시성되기 전부터, 시성 후, 성인호칭기도에 기 이름이 오를 때까지 보니파시오를 독일천주교회의 사도(Apostolus Germaniae)라고 공식 문헌에서까지 늘 지칭하며 존경하였습니다.

1450년대 화형식을 받고 순교한 프랑스의 잔 다크가 1925년 시복될 때까지, 500여 년간 프랑스 교회, 특히, 오를레앙 지역의 교회는 기념성당 건립은 물론, 5세동안 매년 5월, 지금도 대대적인 성녀 잔 다크 현양대회를 합니다. 잔 다크 성녀는 프랑스 국민들의 대주보입니다.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들은 천주교회에 자진 입교하는 미신자들의 주보로서 전 세계 교회의 존경을 받는 모범이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로마 교황님들의 말씀을 존중하며 따르고 실천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 이 기회에 *****

한국천주교회 권철신 성현의 고향과 강학 장소와 순교,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더 몇 가지 확실한 사실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기념하는 위대한 순교자 권철신 성현에 관한 몇 가지 점을 재확인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가) 권철신 성현 5형제 분의 고향은 현재 양평읍 사무소와 양평 도서관과 양평 중고등학교가 있는 양평군 양근면 갈산리입니다.

나) 또한 산북면 下品里 앵자산 계곡의 지극히 협소한 30여평 내외의 주어사 터는, 권철신 성현이 잠시 머물렀던 곳(寓居)일 뿐, 여러 선비들이 모여 강학을 하던 곳도 아니고, 지형상 물리적으로도 강학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니며, 강학을 하였다는 기록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더욱이, 정약용 선생이나 이벽 성조께서 주어사에 관한 흔적이나, 언급이나, 기록이 없는, 큰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다) 그리고 권철신 성현께서는 1801년 신유년 박해 때 박해자들에 의하여 타살(打殺)되신 거룩한 순교자이십니다.

① 권철신 성현 5형제의 고향 갈산리와 감호정에 대하여.

정약용 선생은 녹암 권철신 묘지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공은諱가 哲身이고, 字가 旣明인데, 스스로 지은 號는 曰 鹿菴이며, 유명한 그곳에(名其所) 살았으니(居), 가로되(曰) 감호(鑑湖)라는 곳이다.(公諱哲身 字旣明 自號 曰鹿菴 名其所居 曰鑑湖..).” 즉, 좀 더 알기 쉽게 풀어 말하면, “공은 족보상 이름이 [철신]이고, 어려서 부르던 이름은 [기명]이며, 스스로 지은 호는 [녹암]인데, 저 유명한 고장에 살았으니, 가로되 [감호]라는 곳이다.”

또한, 1791년 신해년 박해 때, 동생 권일신이 순교한 후에는, “녹암 권철신을 따르는 문도(門徒)들이 모두 발길을 끊어서, 권철신은, “대문을 닫아걸고, 슬픔을 머금은 채, 10여 년간 산문(山門) 밖을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門徒皆絕 公杜門衡哀足跡不出乎 山門者十年.)고 정약용은 녹암 묘지명에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리적인 의미의 산문(山門)이란 계곡 안의 산을 등지고, 뒤쪽은 막히고, 앞쪽은 좌우의 양쪽 산자락이 마치 담

처럼 둘러 있어, 한 곳이 대문(大門)처럼 좁혀져 있는 산어귀를 말한다. 즉 대부분 절이 있는 골짜기 입구처럼, 예컨대, 천진암 성지 입구나, 용문사 입구처럼. 그러나, 대석리(大石里)의 대감(大甘) 마을 입구는 넓은 벌판인데다가, 뒤쪽이 산을 등지고 막혀 있지 않고, 용담리, 백자리, 하품리, 상품리, 송현리 등 길고 드넓은 탁 터진 벌판지역이므로 산문(山門)이라는 표현이 해당될 수가 없다.

그러나 양근리(楊根里)에 연결된 바로 갈산리(葛山里)는 탕기(湯器)나 파리처럼 둥글게 생긴 낮은 산자락으로 북쪽, 동쪽, 서쪽이 산으로 빙둘러 있고, 서남쪽으로만 약간 열려 있는 곳이다. 현재는 왜정 때 신규 도로를 낮은 산자락 능선으로 내었다가 계속 높낮이를 평탄케 하며, 확장한 신장로 때문에 좀 넓혀져 보이지만, 지금도 자세히 보면 산문(山門)의 표현이 적중된 지형(地形)이다. 정약용 선생의 지형에 관한 기록은 현재 양평 읍사무소와 양평중고등학교와 양평도서관이 있는 갈산리(葛山里) 안 마을이 녹암 권철신네 5형제(철신, 제신, 일신, 익신, 득신)가 큰 서당을 차리고 대대로 살던 곳임에 적중되는 표현이다.

이곳 감호(鑑湖)와 갈산(葛山)을 거론할 때, Daveluy 주교는 그의 문헌에서 감호는 그대로 감호라고 하였는데, 갈산을 감산이라고 하고 있다. 즉, 권철신 형제들은 양근 감산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감호의 갈산’을, 합쳐서 줄여 말하던 우리말의 습관이니, 鑑湖의 鑑과 葛山의 山만을 따서 그렇게 단축하여 불렀다. 마치, 여수와 순천을 합쳐 여천시라고 함과 같이, 우리 국어에서, 충주와 청주를 합하여 줄여서 ‘충청도’라는 이름이, 또, 전주와 라주를 줄이고 합쳐서, ‘전라도’라는 지명 칭호가 된 것과 같다. 선교사들의 다른 문헌에서는 양근의 갈산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권철신의 직계 5대손 권오규 변호사(1900~1995), 동생 권오진 회장 및, 故 오기선 신부님, 등의 증언과, 4대손들이 생존해 있던 1906년 경향잡지 1권 보감의, “대한성교사기”에서도 순

교자 권철신은 양근 葛山里에 살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鑑湖岩이 새겨진 옛날의 큰 바위가 발견되었으나, 양평은 원주민 노인들은 어려서부터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양근 성지주임 권일수 신부님이 알려왔으며, 이에,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교회 역사학을 전문 연구하고, 귀국하여 수원대신학교에서 교회 역사학 교수로 다년간 근무하고, 용인대리구의 교구장 대리로 근무한 김학렬 신부님이 자세히 답사하고 나서, 우리 홈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권철신의 생장향에 관한 더 이상의 다른 이론은 이제 불가능하고, 불필요합니다.

② 권철신이 잠시 走魚寺에 우거(寓居)하였을 뿐, 선비들은 천진암에서 강학을 개최하였었습니다. 주어사 터는 천주교회 창립과 별 의미가 없는 곳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선비들의 강학이 지형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입니다. 과거 의징대사 한 분이 상좌을 한명 데리고 잠시 은거하던 곳입니다.

1. 走魚寺라는 단어는 丁若鏞의 權哲身 墓誌銘과 丁若銓 墓誌銘에서 꼭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전부로서, 현재까지 문헌상 기록은 정약용의 글에서 2번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어떤 관련 기록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2. 그런데, 더구나 走魚寺에서 講學이 있었다는 기록은 위의 거기에도 없고, 또 어디에도 없으며, 다만, 녹암이 [寓居走魚寺할 때] 강학이 있었다는 문장을 확대해석하는 史學人들이 종종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권철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簡札이나 墓誌銘 등에 나타나는 1768년 겨울, 1770년 여름, 1773년 겨울, 1777년 겨울, 1779년 겨울의 강학을 모두 走魚寺에서 한 것처럼, 붙이는 것은 무리입니다. 권철신의 생장향이며, 대부분이 書堂이 있던 楊根 葛山里에서, 또는 천진암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주어사에서 있었던 것처럼 짐작해서 미루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더욱이, 寓居라는 말은, 隱居나, 蟄居나, 同居나, 獨居나, 別居, 등에서 보듯이, [잠시 거한다]는 뜻으로, 居하는 기간과

시기를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짧게는 몇 시간이나(여름 소나기 올 때 원두막에 寓居한 후),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입니다. 결국 녹암 공이 주어사에 寓居하던 시기를 말 할 뿐으로, 그 시기에 講學이 있었다고 하여, 당시 천진암에서 있었던 강학도, 녹암 공이 우거하던 주어사에서도 하였다는 해석은 확대 오류의 큰 잘못입니다. 녹암 공이 주어사에 잠시 우거하던 그 시기에 강학은 같은 앵자산의 天真菴이나 鳳泰庵이나 樊魚寺나 日出庵이나, 楊根 鑑湖나 葛山, 등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모든 기록은 현장 대조와 일치해야 하는데, 走魚寺 터의 地形은 30여 평 남짓한 아주 협소하여, 선비들의 빈번한 장기적인 모임은 地形上 物理的으로 不可能한 곳을 三尺童子라도 알만한 곳입니다. 특히, 氷泉은 北向溪谷에만 있는 것으로, 주어사 터처럼 東南向 계곡에는 없는 것입니다(최석우 신부님과 논쟁사 참고). 즉, 주어사에서는 적지 않은 선비들이 老少가 한데 모여서 講學할만한 場所도, 居處도, 食水도, 生活用水도, 모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입니다. 현재는 숯가마 터 하나가 오래동안 자리잡고 있고, 바위산 급경사 주변에 숯가마 인부들이 잠자던 한 두 평씩의 움막터 흔적이 한두곳 보일 뿐입니다.(필자는 1975년부터 2010년까지, 앵자산에 있었다는 암자와 사찰 터 8개소(천진암, 주어사, 번어사, 일출암, 소암, 일출암, 봉태암, 간암)에 관하여 좀 깊이 알아보고자, 앵자봉을 넘나들며 답사한 적이 모두 지금까지 140여회 이상 됩니다)

5. 茶山은 천진암에서의 讀書處나 豪士昔講讀, 등에서 보듯이, 아주 많은 기록을 남기며, 자신들의 母校처럼, 수차례, 심지어 늙어서까지도 찾아가 머물며, 추억의 詩文을 많이 남기고 있으나, 走魚寺에 대하여는 녹암이 우거하던 시기가 고작입니다. 주어사 터에 의미 부여는 매우 허탈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벽 성조와 정약용 선생의 주어사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고, 특히 당시의 實學과 天學에 관 기록에 있어, 가장 비중 높은

정약용 선생의 기록에는 주어사 강학이란 기록이 全無합니다.

6. 楊根 葛山이나 鑑湖가 주어사보다는 비할 수 없이 더 의미 있는 곳으로, 특히 당시 권철신과 권일신 같은 대학자들을 스승으로 섬기는 선비들이 영남(홍유한 子弟 洪樂質, 등)과 호남, 등 전국에서 많이 모여들어, 면학하던 학문의 전당이 있던 葛山은, 實學運動과 天學(=天主教) 전파에 매우 의미 있는 곳이며, 더욱이, 乙巳年 박해(1785년)와, 신해년 박해(1791년), 또 을묘년 박해(1795년)와, 신유년 박해(1801년)의 피비린내 나는 박해 현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權日身 형제들의 가옥을 불태워 버릴 정도로 극심하여, 녹암공은 1791년부터 1801년까지 10년간 杜門不出하며 집박예를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丁若鏞).

7. 丁若鏞 선생이 15세로 결혼한 후, 정유년(1777년)에 천진암에 와서 스승이신 이벽 광암 공에게 결혼 인사차 지어 드린 詩文(다산전집 제1권 첫머리)부터, 65세의 노구를 이끌고 정해년(1827년)에 와서 며칠씩 머물며 지은 저 많은 詩文들(제2권)을 읽어보면 강학 장소 규명은 충분합니다.

8. 결론: 走魚寺는 한국천주교회 創立史 면에서나, 實學運動史 면에서나 그리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丁若鏞 선생도, 유배생활 前이나 後나, 주어사를 찾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남긴 기록도 全無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천진암 강학에 녹암 공의 참석을 밝히면서, 비록 신유년 박해 후이지만, 양근 갈산에 잔유하던 일부 후손들과 친지들에게 또다시 화근꺼리가 되지 않도록, 일부러 양근 갈산의 권철신 선생도 참석하였다고 쓰지 않고, 아주 멀리 떨어진, 심산궁곡의 협소하고, 이름만 남아 있다시피한 주어사에, 그나마 잠깐 거하던 그 시기에 강학이 있었다고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昔在己亥冬 講學于天真菴 走魚寺雪中 李槩夜至 張燭談經 其後七年 而謫生此 所謂盛筵難再也> 일찍이 기해년 겨울에 천진암에서 강학이 있을 때, 주어사는 설중이었다. 이벽이 밤중에 이르러, 촛불들을 켜놓고 경서를 담론하였는데, 그 후 7년 후에, 천진암에서 있었던 이

강학을 비방하는 소리가 생겨서, 그러한 강학을 다시는 해보기 어려웠다. -정약용-

③ 권철신, 권일신, 형제는 모두 신해년 박해와 신유년 박해 때, 천주교 신앙 때문에 打殺되었습니다. “권철신과 권일신은 모두 천주교를 하기 때문에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以邪學杖斃-1807년 안동권씨 족보)”고 명시되어 있듯이, 두분이 모두 杖下殉教하셨습니다.

〈지형 설명 추가〉

양평군 양근면, 양근리를 중심으로 강북 강변의 상하류 강가와 바닥은 거의가 주로 바위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물 수심이 바로 아주 깊어서, 불순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강북 강변가의 물은 맑고 깊고, 또 당연히 몹시 차가워서, 마치 호수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양평읍 앞강 가의 오빈리(五賓里)에 있던 오로정(五老亭)은 언제부터인지 감호정(鑑湖亭)으로 되었고, 이 감호정에서는 선비들과 귀빈들이 자주 모여 시회(詩會)를 열었으며, 후에는 덕망이 높은 분의 거처가 있다고 하여, 덕고실(德高室)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아예 덕구실이라고도 한다. 마치 갈산을 갈산으로도 부르는 것과 같다. 아마 정조 임금까지도 존경하던 권일신 직암공이 윗 마을 갈산리에서 거처를 감호정 마을로 옮긴 후부터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양근면의 앞강 남쪽, 즉 강상면, 강하면의 운심리, 성덕리, 세월리, 쪽은 비교적 넓은 평야의 논과 편편한 찰 질흙으로 강남쪽 강변이 형성되어 있고, 또 수심이 얕아서, 물이 맑지도 않고, 수초(水草)도 많아서, 거울처럼 물 맑은 감호(鑑湖)라고 부를 수도 없고, 실제로 강남쪽을 감호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상수도 시설이 없던 시절, 큰 우물은 필수적이다. 갈산리 양평읍 사무소 안마당에는 복개한 큰 우물은 아직도 있어서, 가물 때는 앞마을 양근리(楊根里) 사람들까지 모두 퍼다 먹었다는, 아주 큰 우물인데, 강상면 대석리(大石里)의 대감(大甘) 마을은 그

렇지 못하다. 양근면 갈산리(葛山里)는 앞 강이 바로 옆의 갈산에 붙어 있고, 비교적 얕은 산자락으로 둘러 쌓인 평지(平地)마을이라, 앞강 상류의 물이 스며들어 우물물이 많지만, 대석리의 대감마을은 뒷산 계곡도 아주 짧고, 산비탈은 경사가 심한 지역이라서, 비좁은 계곡 자체가 평소에도 토랑 물조차 흐르지 않는 건조한 좁은 토랑이다. 큰 물이 없고, 가뭄이 있을 때는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산비탈이므로, 양반 대가의 권철신네 여러 형제들의 많은 문족(門族)들을 비롯한 식객(食客)들의 빈번한 출입과 서당 운영 등을 감안할 때, 권철신 5형제분들의 생장향이 이른바, 대석리 대감마을로 보는 것은 늘 신빙성이 매우 어렵게 보여지는 점이었다. 양반대가들이 이런 곳에 생활 터전을 잡지 않는다.

그런데 양근면 五賓里의 감호정(鑑湖亭)과 강상면 大石里 大甘마을과의 거리는 사십여리(18km)나 되는데, 더군다나 잦은 詩會를 참석하거나 주관하기 위해서는 걷는 거리에다가 늘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하는 통행수단 등을 감안할 때도, 권일신 형제분들이 강상면 대감마을에 살면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며, 더군다나 자기 집 마을에서 40여리 떨어진 강건너 정자 이름을 따서 자기 호를 짓는다는 것은 당시 상식에 좀 어긋난다. 선비들이 대개가 자기 집에 붙은 앞강이나 앞 냇갈 이름, 혹은 집에 붙은 뒷 동산 이름을 따서 자연스레 서로 부르며 호를 짓기 때문이다. 결국 후손들의 전승과 다산의 기록은 매우 부합된다.

후손들이 전하는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양근면(楊根面: 一名, 邑內面) 갈산리(葛山里)에 권철신(權哲身)네 5형제가 살았고, 권일신(權一身)은 훗날 감호정(鑑湖亭)이 있는 덕곡(德谷)으로 이사하였는데, 그 이유는 학문을 좋아하던 권일신(權日身)은 감호정(鑑湖亭)에 박학다식(博學多識)한 선비들이 자주 모여 시회(詩會)를 열던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감호정(鑑湖亭)은 처음에 덕곡(德谷) 마을 앞강의 오로정(五老亭)이라고 불렀는데, 덕곡리(德谷里)를 훗날 덕고실(德高室)로 부르다가 지금은 덕구

실로 부르기도 한다. 권철신 권일신 학자들을 말할 때, 감호(鑑湖)라는 말을 쓰는 것은 당시 자연스러운 습관이었다. 오로정(五老亭)에서 유래한 말인지는 모르나, 지금 이 지역을 五賓里, 즉 다섯 귀빈들에 연관된 이름이 붙어 있다.

마치 정약용(丁若鏞) 선생이 강진으로 귀양 간 후, 뒷동산에 다(茶)나무를 심고, 그 작은 산자락을 다산(茶山)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호(號)도 다산(茶山)이라고 한 것과 같다.

원래 선인(先人)들이 자기 호(號)를 정할 때, 지역 이름(예, 호남(湖南), 양근(陽根), 수원(水原)을 따서 짓는 법은 없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향 마을 이름이나 아니면 자신이 거(居)하고 있는 장소 이름, 즉 이승훈(李承薰) 성현(聖賢)의 경우, “만천(蔓川)”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승훈 선생이 태어난 서울 중림동 반석방(盤石坊) 앞을 흐르는 냇갈 이름이었다. 서울역 뒤로 해서 원효로로 흐르는 이 냇물에는 덩굴풀이 우거져 있다 해서 사람들이 “덩굴내” 또는 덩굴풀 만(蔓)”이라는 글자를 쓴 “만초천(蔓草川)”을 “만천(蔓川)”이라고 불렀었다.

정약용(丁若鏞) 선생이 강진으로 귀양 가기 전 짧은 날 자신의 호를 사암(俟菴)이라고도 하였으나, 자기 집 앞의 강물은 남한강(南漢江)과 북한강(北漢江)의 두갈래 강물줄기가 합류하는 곳이므로, 두 강물 뜻이 있는, [二 水] 변에 쓰는, 열수(洌水)라고 하였듯이, 권일신이나 권철신이 자신들의 호처럼 사용하던 감호(鑑湖)는 감호정(鑑湖亭)있는 마을 앞 강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삼사십리 거리나 되는 강 건너 산골 비탈에 있는 대석리(大石里)의 大甘마을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감호(鑑湖)는 감호정(鑑湖亭)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덕곡(德谷), 양근(楊根), 갈산(葛山)마을의 양평읍내 앞강을 의미한다.

1800년 6월경에 권상문이 체포된다. 이때는 양근군 감옥에 수감되었을 것이다.

1801년 2월 초(11일경)에는 양아버지 권철신 용이 체포되어, 서울감옥에서 무서운 매를 맞고, 2주일 후(2월25일경) 숨을 거

둔다. 아직 사형선고가 확정되기 전이라서, 박해자들이 먼저 때려 죽이고 나서, 사형판결문을 작성하여 얻어내느라 법석을 떨었다.

1802년 1월 초(1월)에 권상문은 자기 본 고향에서 참수처형하도록, 서울에서 양근으로 끌고 가게 하였다. 그 이유는 양근이 그 당시 권철신 형제들의 영향으로 가장 많은 천주교신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곳이기 때문이었다. 강건너 강상면 대석리의 대감마을에 끌고 가서 처형하게 할 이유가 없으며, 천주교신자들이 당시 가장 많기로 알려졌던, 양근면 양근리와 갈산리와 도주율(도곡리)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양평 관아가 있던 군청소재지 양근 앞강 강변(지금의 양평본당 아래 강가)에서 참수한다. 즉, 권상문의 고향 땅에서, 고향 마을에서 처형한 것이다. 권상문을, 신유박해 6개월 전에 체포 구속하던 세력과, 고향 땅으로 끌고 내려와서 처형케 하도록 강요하던 세력(조선왕조실록 참조)은, 증오심에 불타던 같은 세력이었다. 즉, 천주교를 하므로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다(以邪學杖斃) - 1807년의 안동 권씨 족보.

Msgr. Byon <2006-03-27> (08:47)

***** 이 기회에 *****

교황님의 이번 방한 중, 한국 주교님들에게 하신, [기억 지킴이] 말씀 과, 로마를 정기 예방한 한국 주교님들에게 하신, [성사생활하기 전의 한국 평신도 공동체]에 관한 말씀 일부를 참고로 몇 줄을 보탭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작년(2014.8. 14) 여름에 한국에 오시던 첫날, 전국 주교님들에게 하신, [기억 지킴이](Memory Guard) 말씀과, 금년 봄에 로마의 사도좌를 예방한(2015. 3. 12) 한국주교님들에게 하신 [한국의 첫 신앙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지나가는 일시적인 말씀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금년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묵상제목으로 삼아, 천천히 몇 차례 읽어보고 되새기며, 실천하도록 합시다.

작년 여름에 오셔서 [기억 지킴이] 주제로, 한국천주교회창립성조, 하느님의 종, 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복자 정약종, 등, 한국교회 신앙의 제1세대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Yi Byeok e i nobili anziani della prima generazione).

금년 봄에 로마의 사도좌를 단체로 공식 예방한(Ad Limina) 한국 주교님들에게는, 한국에서 천주교 [신앙의 첫 공동체]를 이룩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영세, 견진, 등 일반적인 성사를 받기 전에,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천주교 신앙인들이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사도시대에서처럼, 한국교회 창립초기 한국 평신도들이 실천한 거룩한 신도생활은 오늘의 우리 모두와 전 세계 교회에(Quella prima comunità ha lasciato a voi e a tutta la Chiesa una bella testimonianza di vita cristiana) 모범과 교훈을 주고 있음을 상기시키시며(Già prima che la loro fede... Quella prima comunità...)본받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전 세계 보편 교회, 모든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증거(... bella testimonianza della vita christiana...)” 라고 언급하심은 장차 이벽, 권일신, 이승훈, 권철신, 정약종, 5위 하느님의 종들이 분명히 諡聖되실 것을 감안하시는 표현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어번역문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점도 있어서, 공부하는 젊은세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교황님이 사용하신 이태리어 원문을 이하에 올렸으며, 본 난에 들어가면 영어와 불어와 독어 번역문도 올려져 있으므로 유럽 주요 언어로 비교하며 보고자 하면, 이 홈페이지(www.chonjinam.org)의 [이번 주 풍경소리] No. 240호 (2014. 8. 26.)와, No. 272호 (2015. 5.9.)호에 들어가면, 교황님 말씀 전문이 韓·英·佛·伊·西, 주요 외국어 공식번역문이 있습니다. Msgr. Byon

232. 2월 6일(토), 제215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사진화보),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하여...(오후 6시 ~9시)

지난 2월 6일(토요일) 저녁 6시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직장
과 가정을 위하여,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제215회 천
진암 성지 월례 촛불기도회가 봉헌되었습니다. 설날을 하루 앞
둔 연휴기간 추운 날씨에도 광암성당을 가득 메운 천진회원들의
뜨거운 열성에 모두가 감격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매월 첫 토요일 저녁에 바치는 천진암 성지의 월례 촛불기도
회는 오후 6시부터 여러 사제들이 [성모신심 미사]를 봉헌하고,
이어서 촛불을 들고 묵주의 기도 15단을 정성껏 바치며, 세계
평화의 성모상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
합니다.

平和統一은 공짜통일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은 統一戰爭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기도와 희생과 인내와 보속과 봉헌으로 점철
된 殉教統一입니다. 죽고 죽이는 武士掌風이나, 西風과 대결하
는 東風보다도 더 막강한, 천상에 계신 성모 마리아의 聖母 天
風 까지도 동원하는 기도와 보속이 전제된, 天主님이 도와주시
는 초자연적 戰力에 의해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통일입니다.
天主 聖父님의 神風으로 온 우주 천체가 再改되기 전에, 기도와
보속의 天風으로 우리나라와 우리겨레를 平和統一합시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면
하늘도 말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피 흘리는 싸움입니다. 결
국 우리 모두가 전범자들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천주님께 기도합시다 !!!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특히 극동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빈약한 국가들이, 무력 강국화와 경제대국화에 집중하면서 영토확장까지 추구하는 이웃 중국, 일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핵무기 신앙에 집착하는 북한을 대하고 있는 우리로서, "세계평화의 성모님"께 진심으로 열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남북한이 모두, 중국과 일본, 특히 북한도 더욱 진솔하고 정직하고 겸손해지고, 남한도 오락과 유흥과 사치와 향락을 줄이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 개인들도 국가도 모두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대가 천주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215회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전 미사 봉헌(오후 6시 미사, 2016.02.06.)(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8번 참조).

제215회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오후 6시 미사, 2016.02.06), 이재형 회장, 천진회 전국총회장으로 임명장 수여(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8번 참조).

제215회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임명장(오후 6시 미사, 2016.02.06.)(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08번 참조).

● 작성일 : 2016-01-20 08:36

233. 哲學不在 시대에 일부 臆論의 산물인, 信念不在 名人化의 高聲과, 박제가의, "진인상명리" 묵상!

철학부재 시대에 일부 역론의 산물인, 신념부재 名人然하는 이들의 고성(高聲)이 그칠 줄 모르고 천지를 진동하는 이 때, 1785년 乙巳年 한국천주교 최초의 박해로 이벽 성조께서 실로 외로이

수난하시던 시기에, 한양 장안의 허구 많은 識者들이 모여서 번 갈아가며 진리와 정의에 어긋난, 말도 안 되는 참으로 語不成說의 [말 잔치]를 거둑하며, 가문에 멸문지화를 불러올 사문난적이 나타났다고 野壇法席하던 그 때와 다를 바 없으니, 이벽 성조의 짧은 일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초정 박제가의, [이벽 추도시] 첫머리 “진인상명리(晉人尙名理)” 라도 묵상합시다!

이벽 성조의 장례식 때 초정 박제가는 추도시에서, 晉人尙名理(진인상명리/진나라 때 사람들은 늘 명분과 의리를 내세우며), 淸譚亂厥世(청담난궐세/맑은 말로 밝힌다고 그 때 세상 더 어지럽히며 더럽혔지만), 德操議六合(덕조의육합/덕조는 오히려 上下左右先後內外 萬人과함께 늘 議合하였는데), 何嘗離實際(하상이 실제/그대는 어찌 이렇게도 일찍 實際를 버리고 떠난단 말인가?).

이벽 성조께서는 만 31세 짧은 일생을, 어려서부터는 15년간이나 修道에 전념하시며, 學問에 열중하시고, 傳道와 교회창립에 집중하시다가, 10여일간의 아사벌(餓死罰)로 탈진한 상태에서, 음독벌(飲毒罰)을 강요당한 후, 몸을 여러겹 두꺼운 이불로 명석처럼 말아서 호흡을 막는 질식벌(窒息罰)로 최후를 맞아 운명하셨다. “다 이루셨다!” 특히, 이벽 성조께서는 출가승처럼, 독신생활의 布衣道人이셨음이 들어나고 있다 !

만 31세의 짧은 일생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순교하신 이벽 성조께서는, 외형적으로는 부모들이 정해진 혼인상의 부인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소년시절부터 술과 여성을 가까이하지 않는 출가승들처럼, 貞潔한 布衣道人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사후 100여년 후, 친지들이 족보상으로만 재취한 것으로 올리기도 하였지만, 족보상으로, 전처 안동권씨도 无育(=無育, 즉, 아기를 낳지 못하였다)고(1848년 무신보) 기록되었고, 후처 해주정씨도, 无育(=無育, 즉, 아기를 낳지 못하였다고(1873년 계유보), 모든 족보에 기록되었으니, 이벽 성조의 生前 유년시절과 死後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문에서 족보상으로만 정한 혼인 기록상

으로도, 두 부인들이 모두 무욕이라는 사실은 밝혀 놓았다. 더구나 이벽성조의 평생동정 생활은 문도공 정약용의 시문과, 초정 박제가의 이벽 추도시와, 진사 황하영의 백서, 등, 側近名士들의 그 당시 詩文 證言으로도 확증되고 있다.

이제 이벽 성조의 최후에 관하여 먼저 밝혀보자.

1785년 을사년 봄에 일어난 한국교회 최초의 천주교 박해 때, 이벽 성조의 최후는, 집안에 연금되어, 불철주야로, 식음을 전폐하고, 의관을 바꾸지 않고, 신도들과의 면회도 엄금된 채, 기도하며, 10여 일간의 餓死罰로 탈진한 상태에서, 죽음을 강요하는 飮毒罰과, 급살(急煞)을 강행하는, 여러겹 이불말이하는 窒息罰로 순교하셨다.

(… après huit ou neuf jours quand la sueur commençait à sortir ceux qui le soignaient l'enveloppèrent de plusieurs couvertures, malgré tous les soins et efforts qui lui furent prodigués, il ne fit qu'étouffer sous ces lourds vêtements et la sueur ne pouvant percer et sortir, il en mourut à l'âge de 33 ans)

晉人尙名理 진인상명리/진나라 때 사람들은 늘 명분과 의리를 내세우며,

淸譚亂厥世 청담난꺽세/맑은 말로 밝힌다고 그 때 세상 더 어지럽히며 더럽혔지만!①

德操議六合 덕조의육합/덕조는 오히려 上下左右先後內外 萬人과함께 늘 議合하였는데,

何嘗離實際 하상이실제/어찌 이리도 일찍 實際를 버리고 떠나야 하나?②

〈아사벌(餓死罰), 음독벌(飮毒罰), 질식벌(窒息罰)〉 순교의 최후를 前後하여, 박해시국의 현장을 함께하던, 최측근 丁若鏞의 기록과, 초정 박제가의 추도시와 얼마 후 당시 조선교회 박해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최고 사목권자 Daveluy 주교의 문헌들!

- 이벽 성조께서는 같은 시대의 임금, 正祖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당한 같은 아사별로 처형되었고, 경기감사 이익운도 아들을 결박하여 마당 가운데 굴려놓고, 공개적인 처형의 음독별 강행으로 처형하였으며, 남한산성에서 신도들을 붙들어가다 며칠씩 굶기고 매질하며, 다른 신자들 이름을 말하라고 고문을 가한 후,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도들을 결박하여 줄을 세워 무릎 꿇린 후, 칼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하여, 얼굴에 물을 뿌리고, 얇고 질긴 한지(韓紙)를 얼굴에 겹겹이 세번 발라서, 눈과 코와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여 처형하는, 도모지 사형법(塗貌紙 死刑法)의 질식별로, 순교하게 하였으니, 특히, 도모지 사형술은, “죽는 자가 누구인지, 죽이는 자가 누구인지, 친구인지, 가문의 친척인지, 서로, 도무지 모른다.” 는 말까지 생겨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

- 이벽 성조의 순교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박해자들에 의해서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준비되어, 당시 조선사회의 지식인들과 권세가들이 총력으로 문중과 가정에 압력을 가하며 자행된, 조선에서 최초 최상의 희생의 제전이였다 ! -

- 지금과 문화와 생활관습과 언어와 용어와 사상이 전혀 다른 250여 년 전의 순교 현장에 관한, 丁若鏞의 기록과 Daveluy 주교의 문헌들을, 현대인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번역하였다 - 卞基榮 몬시놀-

1) 이벽 성조의 청소년 시절에 관한 문헌 이해.

- 고문헌을 현대감각으로 풀어가며 역술 시도 -

“조선왕국에 천주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하여 처음으로 천주교 신앙운동에 始動을 걸도록, 하느님께서 선택하여 도구로 활용하신 인물은, 字를 덕조(德祖)라 하고, 호를 광암(曠菴)이라고 하는 이벽(李穡)이었다. 이벽은 경주이씨로, 고려 왕조 때부터 이미 그의 조상들 가운데에는 지위가 높고, 학문이나 벼슬로 뛰어

난 사람들이 여럿이었다. 文武를 겸했던 그의 가문은 후손들이 대부분 기골이 장대하여 증조부 이후로는 주로 무관직에 종사하였고, 이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직책들을 맡아오고 있었다. 특히, 이벽은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뛰어난 많은 자질을 갖추고 태어났다.

무술 연마에 출중한 소년 이벽 - 그래서 이벽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친이 이벽을 형 이격과 동생 이석과 더불어, 무관 벼슬을 하는 데 필요한 활쏘기, 말타기, 등, 무사가 되기 위한 체력 훈련을 시키고자 하였으며, 장차 가문과 조정을 빛내는 역사적 큰 인물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벽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무를 불문하고 벼슬길의 과거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끈질기게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며 고집을 부리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벽은 부친의 애정을 잃어가게 되었고, 부친은 지나치게 고집이 센 그의 성격을 따라, ‘벽(壁)’이라는 족보 항렬의 이름을, 글자의 뜻과는 달리, 발음만 따서, 고집불통을 가리키는 뜻으로, 그를 고집(壁)장이, [벽]으로 부르는 것이었다.”

“이벽은 자라면서 체격과 기골이 아주 더욱 장대하고 힘이 세어져서, 훗날 무관 벼슬의 장군으로 활약한 형 이격(李格)과 동생 이석(李皙)과 더불어 더욱 건장한 체구를 타고난 장군 감으로 성장하면서, 당시 젊은 선비들의 꿈이었던 무술연마에도 뛰어난 수준을 보이며 날로 급성장하였다. 키는 2m가 넘는 8척이었고, 한 손으로도 무쇠 백 근을 번쩍 번쩍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였다.”

학문에 뛰어났던 젊은 천재 이벽 - “그러면서도 어려운 책의 난해한 글도 10 줄씩을 한꺼번에 비호같이 읽어내려 갔으니, 한쪽 눈으로는 책 위쪽 부분을 여러 줄씩 읽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 눈으로는 같은 책의 아랫 쪽 부분을 여러 줄씩 한꺼번에 읽고 이해하였다. 또한, 한쪽 눈으로는 원 쪽을 보면서 동시에 다른 한 쪽 눈으로는 오른 쪽을 보는 사람이었고, 더욱이, 몸을

날려 펴져 뛰어 오르면서, 공중에서 몸을 3바퀴씩 핑글핑글 돌아서 사뿐히 땅에 내려와 서기도 하였고, 사람 키의 2배나 되는 높이까지 뛰어 올라, 일반 어른 키의 2길썩이나 뛰어넘기도 하였다.” 더욱이 당시 북학파의 거두, 이덕무는, “이벽은 인품이 매우 고결한 위인”이라 하였으며, 조선사회 개혁을 꿈꾸던 정조 임금과 박제가, 이덕무, 등 서출 명인명사들 사이에 양반집 명문대가 경주이씨 이벽 성조가 함께 하였음은 놀라운 일이며, 이벽과 이덕무, 박제가, 등의 이러한 자료 발굴과 발표는 서종태 박사가 최초로(?) 발굴하여 처음 밝혀지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벽은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실의(天主實義)라는 책은 평생토록 항상 즐겨 읽어서, 거기에 아주 심취해 있었으며, 따라서, 그 서양 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교주로서, 그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하였으나, 30여세에 일찍 요절하였다. 그 후에, 왕세자 익위(翼衛)를 맡은 이들의 추천으로 상소도 하고, 세자 전에 나아가 천주교 이야기를 설법하기도 하였다.”

우아한 인품이 道人다웠던 젊은 학자 이벽 - “매우 활달하고 매우 수려하게 빼어난 용모와 잘 생긴 이벽의 풍채는 아주 늙늙하고 당당하였고, 당연히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게 하였다. 그의 재주도 이처럼 뛰어난 외모에 걸맞게, 유창한 언변은 힘차고 조리에 맞아,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에 견줄 만하였으며, 모든 면에서 월등한 智力을 타고난 이벽은 오직 事物의 이치와 모든 학설의 참된 근본과 기본 토대만을 깊이 추구하였다. 언제나 事物의 根本을 파고드는 데 몰두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경전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거기에 들어 있는 깊은 뜻을 파악하려고 애썼다. 1784년 겨울에 정헌 이가환 대학자와의 공개토론에 참석하였던 정약용은, “이벽의 웅변은 큰 강물과 같이 유유히 그러나 아주 힘차게 흘러내려가듯 하여, 정헌 이가환이 마침내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정헌 이가환 묘지명]에서 기록하고 있다.”

무서운 추진력과 유능한 운영 관리 능력의 청년 선비 이벽 - “이벽의 이처럼 출중한 천부적 소질은 개인적으로 빛나는 앞날을 그에게 보장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벽은 일찍부터 당대의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 쓴 책들을 정독하며 연구하는 데도 집중하였고, 자신이 하는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관련된 학문 연구에 있어서도, 자신을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모든 지식인들과 교분을 맺고자 노력하였다.

이벽은 당시 사회의 고리타분한 형식적인 관습이나 복잡다단한 허례허식적인 예의에 거의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은 고결하고도 매우 고상한 품위를 풍기는 인상을 느끼게 하였고, 그러면서도 즐겨 농담을 좋아하였다. 그러나, 직업적인 학자들과 뚜렷이 구별시켜주는 벼슬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탁월한 인격자 이벽에 관한 당시 여러 자료들을 접하면서,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라도, 이 땅에 매우 드물게 출현하는 그의 특출난 인품에 대한 인식이 다소 간이라도 가능하게 되었다.”

2) 이벽 성조 가문의 선조들에 관한 역사 소개

충효 정신의 모범이었던 이벽의 선조들 - 한국천주교회 창립 성조 광암 이벽성조계서는 1754년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화현리 신기동에서, 아버지 경주이씨 이부만과 어머니 청주한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다. 이벽 성조의 가문과 선조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매우 유명한 구국충신(救國忠臣)의 집안이니, 우리나라가 元나라, 明나라, 淸나라, 日本, 등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처해 있을 때, 국제관계를 담당할 대표적인 학자 출신이면서도 文武를 겸한 충신들을 많이 배출한 가문이다. 후손들과 특히 이벽 성조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준 직계 선조들 중에는, 학문과 사상과 덕망과 무술로, 외교와 治世에 있어, 元, 明, 淸, 日本, 등, 주변 강대국들의 무력 침략에 맞서

서, 국가 민족을 위하여, 국권과 왕권을 수호한 충렬의 정치가들과 名臣들이 적지 않았다.

고려 말, 元 나라의 몽고족이 60여 년간 고려를 장기적으로 침탈할 때, 익제 이제현(1287~1367)과, 임진왜란 7년 간의 전란 때 지퇴당 이정형(1549~1607),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인질이 되었던 소현세자의 볼모살이 8년간을 이국 땅에서 함께한 묵암 이경상(1603~1647), 등은 국가를 위하여 당시 국왕보다 더 유능하였고, 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도 있다.

국권 회복과 우리나라 건국에 이바지한 가문 - 훗날 이들의 후예들 중에는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형제들이, 3.1.독립운동 이후, 가산을 정리하여 북만주 지역으로 가서, 간도 지방에 항일독립운동의 기본사업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들도 있다. 그 제1기 졸업생들 중에는,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 시절 변영태 국무총리, 및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정일권 국회의장, 등이 있다. 모두 대한민국 건국의 연혁에 남는 건국의 기둥이 된 이들이다.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려 말과 조선 후기에 이르는 동안 위대한 가문의 출중한 인물들을 선조로 모시고, 그 정신과 체질을 이어받은 후손들 중에 세계적인 大道師로 태어난 이벽 성조계서는 정치, 외교 분야의 선조 학자들의 전통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사상과 종교적 면에서도 당연히, 다분히, 어느 정도의 정신과 遺德을 받게 되었다.

1229년부터 반세기 동안 7차에 걸쳐, 元나라가 고려를 침략하여, 몽고족이 거의 57년간이나 고려의 王들과 대신들을 북경에 인질로 끌어가곤 하였을 때, 익제 이제현의 업적은 엄청나지만, 특히 충선왕과 함께, 북경에서 [萬卷堂]이라는 서원을 열어, 元나라 북경의 학자들과 함께 강학하며, 교분을 두터이 하면서, 은근히 고려의 국권회복을 위한 인재양성에도 힘썼고, 철학과 사상에 있어서도 고려에 性理學을 확립하였으며, 충선왕과 함께 머나먼 사천성에 있는 신비의 名山, 아미산에까지 성지를 순례

하면서, 天地神明께 조국 고려의 국권회복을 기원할 정도로, 종교적 성품과 정성도 갖춘 문하시중(현 국무총리에 해당)에까지 오른 고난의 충신이었다.

익제 이제현은 당시까지만 해도, 고려인으로서는 최초로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까지 장기간 최장거리 서쪽 세계 각국을 탐방하며 견문을 쌓았으며, 조국 독립에 희생을 바친 학자 출신 정치가였다. 특히, 서양 문물의 접경지대였던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순방하면서, 이미 그곳에 들어와 있던 일부 천주교 성당 관광방문과 주교 신부들과의 相面을 비롯한 동서문화의 相見으로 훗날 귀국 후 이제현은 고려 왕국에 서양의 천주교 문화 소개에 침묵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추정이 아닐 수 없다. 애국심과 尙武精神으로 출중한 문하시중(현재의 국무총리직)으로, 볼모살이하는 신세로, 단순한 세계 유람을 다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소견이다. 몽고족에 대한 반격이 가능한 서방과도 다변외교의 가능성을 엿보며, 유사시에 고려는 동쪽에서 대응하려는 현대의 국제연합군처럼 抗夢思想의 몸부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 견문으로 해외 선진 문물 수용하던 선구자들 가문 - 고려가 조선으로 정권이 바뀐 후, 1593년 말부터 시작된 7년간의 임진왜란 때는, 익제 이제현의 5대손이 되는 지퇴당 이정형이, 신의주까지 피난하는 선조 임금을 안전하게 경호하였으며, 왕명으로 명나라에까지 파견되어 구원병을 요청하여, 왜적을 물리치는데 일조를 하였고, 더욱이 이정형은 자신보다 14세 연하의 지봉 이수광(1563~1628)을 아끼고 돌보던 절친한 선배 정치인으로서, 지봉 이수광도 북경을 왕래하면서, 많은 서양 서적들, 특히, 天主實義, 직방외기, 칠극, 같은 천주교 서적이 조선에 최초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이수광이 그 후 집필한 [芝峯類說]은 우리나라 實學의 태동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그 배후에는 지퇴당 이정형의 후원과 공헌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 韓民族의 개화와, 조국 근대화, 및 사회개

혈에 큰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나고, 30여년이 지난 후, 1637년에 만주족이 병자호란을 일으켜, 남한산성이 함락되자, 仁祖 임금의 항복으로, 소현세자, 봉림대군, 등이 볼모로 잡혀 갈 때부터, 지퇴당 이정형의 친 손자였던 묵암 이경상은 8년간이나, 볼모살이하는 소현세자를 안전하게 모시고 지켰으며, 1645년 봄 귀국하기 전에는, 북경에 와서 머물면서, 당시 南堂 천주교회를 세우고 주임신부로 있으면서 明과 淸의 양 정권 하에서 천문과 기상 관측의 국가기관을 맡아 일하던, 독일인 Adam Schall(중국명, 湯若望 탕약망) 신부를 소현세자와 함께 찾아가, 친분과 우의를 돈독하게 주선하였고, 특히, 이경상은 서장관으로서 조선인 수행원 중에 시종관 3명이 천주교회에 입교하게 하여, 아담 샬 신부한테 세례성사까지 받고, 이어서 귀국하게 하였다.

이는 1784년 봄 북경에서 이승훈(1756~1801) 진사의 1인 영세보다 135년이나 앞서는 한국천주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소현세자와 이경상은 귀국할 때, 중국인 천주교 영세신자 5명도 함께 더 대동하고 함께 귀국하였으나, 귀국 후 몇 달 안 되어 소현세자가 독살(?)로 의심되는 변고로 급사하자, 중국인 천주교 신자 5명은 바로 추방당하여 중국으로 귀국조치되고,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함께 귀국한 조선인 시종관 천주교 신자 3명은 그 후부터 종적이 묘연하게 되었다.

영웅호걸의 부귀공명보다 布衣道師로서의 이벽 - 그런데 이벽 성조께서는 바로 묵암 이경상의 직계 6대손으로서,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국내외적으로 가장 식견이 넓은 훌륭한 집안에서, 先祖 때부터 내려오는 門中の 많은 국내외 서적들을 접하며, 성장하였다.

또한 이벽 성조의 祖父 이달(1703~1773)도, 武科에 급제하고, 호남병마절도사부총관의 벼슬까지 하였고, 부친 이부만(1727~1817)은 사후에 이조판서를 추증받았으며, 형 이격(1748~1812)은 무술이 출중하여 21세(1769)에 이미 무과에 급제

한 후, 별군직관, 황해병마절도사 부총관, 좌포장,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동생 이석(1759~1829)역시 무술이 뛰어나 21세(1780)에 무과에 급제한 후, 좌포장, 제남병사, 등의 벼슬을 하였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었던 이벽 성조께서는 형이나 동생보다도 기골이 장대한 체격과 무술로도 무과나 문과의 과거 시험을 외면하여(大科非吾志也) 아버지의 눈 밖에 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항복(1556~1618), 등과 같이, 같은 경주이씨 문중에서 천재적인 머리와 폭넓은 학식과 충효의 정신이 출중하고, 애국심과 기백이 차고 넘치는, 영웅호걸의 체질을 타고난 명인명사들 중에, 오직 이벽 성조만이 젊은 布衣道師였음은 당대에도 萬人이 다 아는 사실이었다.

武術보다 學識보다 修德에 치중한 이벽 - 이러한 가문에서 태어나(1754), 어려서부터 신동(神童)이라 불리던 이벽성조께서는 태어나면서 어린 아기 때부터 다른 아기들과는 달리, 보는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하며, 포근하고 흐뭇하며, 온화한 감명을 주므로, 아버지는 이름을, “덕이 있는 할아버지(德祖)”라고 하였는데, 예방의학이 황무지였던 그 시절에는 유아 사망률도 높아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아무쪼록 죽지만 말고 잘 커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의 이름을, 돌이(玆喜), 철이(鐵喜), 무쇠, 돌쇠, 하늘 노인(天老, 李格의 字), 큰 노인(大叟, 李皙의 字), 덕 있는 할아버지(德祖, 이벽 성조의 字), 덕 있는 노인(德叟, 李懋의 字), 등으로 지어 부르기도 하였다.

소년으로 성장하면서 이벽 성조께서는, 기골이 더욱 장대하여, 3형제 모두가 武術을 연마하거나, 인격도야를 위한 정신 기강 확립의 修道的 훈련에도 전념하였으며, 일부 다른 집안의 소년들처럼 호패를 차게 되는 15세 경의 成人禮를 전후하여, 冠名이나 字를 새로 짓거나 개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벽 성조께서도 자신의 [德祖]라는 字를, [德操]로, 즉, ‘덕을 잡고 닦아나가는 志操’를 뜻하는 글자로 바꾸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벽 성조와 가까이서 친하게 함께하던 정약용이 15세에 결혼을 하고나서 이듬해 봄에, 인사차 천진암 독서처에서 수덕에 열중하던 이벽 성조께 혼인 후 인사차 찾아뵙고, 정중하게 지어 드린 贈呈詩文은, 광암 이벽 성조의 혼시에 대한 답례문으로 볼 수도 있으니, 俟菴 정약용은 그 贈李曄 시에서, 이벽 성조를 가리켜, [... 선생님은 만사에 있어서, 庶民이나 常民도 인간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부귀영화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며, 聖賢君子의 학덕과 영웅호걸의 기백을 골고루 갖추시었으며... 아주 어려서부터 덕을 닦는데 힘쓰시더니, 지금도 그 강개(慷慨)한 모습이 얼굴에 한결같이 들어나 늘 뵈옵게 됩니다.] 하였다.

家庭과 慣例를 넘어 神의 세계로 향한 이벽 - 이제, 이벽 성조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몇 가지 전하는 조각 글들을 더 붙이면, 이벽 성조께서는 다섯 살 때(1759) 이미 철이 들어 사리판단이 어른다웠고, 일곱 살(1761) 때는 사서삼경을 읽고 이해하였다고 李曄傳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 당시의 양반대가의 어린이들 중에는 총명한 꼬마들이 종종 있었으니, 권철신은 字가 旣明으로 (이미 明悟가 열려 어른답다는 뜻) 불렀고, 동생 권일신은 省悟라고 하였으니, 이 역시, 매사를 어른답게 두루 살피고 깨닫는다는 뜻이었다.

그 당시의 원로 대학자 성호 이익(1681~1763) 선생은 일찍이 10세 미만의 어린 이벽을 보고, “이 아이는 자라서 장차 반드시 아주 큰 그릇이 되리라” 고 예언하였다고 丁學術(정학술)은, [李曄傳(이벽전)]에서 밝히고 있다.

열다섯 살(1770)을 전후하여, 훗날 1800년대 초에 병조판서, 한성판윤, 등의 고위직을 한 권엄의 딸 柳閑堂權氏와 혼인하였으나, 당시 양반대가의 관습대로, 결혼하는 당사자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들끼리 결정하는 혼인이었으며, 특히 벼슬에 오르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던 양반가의 아들들은 혼례 후 불과 며칠 후에 대부분 즉시 훌륭한 스승들을 찾거나 스님들을

찾아, 入山하여 학업과 무술연마나 修道에 전념하도록 부모들이 강요하던 시대였으므로, 이벽 성조께서는 누님 댁이 있는 마재에서 비교적 그리 멀지 않은 광주산맥의 주봉이 되는 앵자산 천진암 계곡으로 자의반 타의반 입산하여, 은거하며 학문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천진암에 入山 隱居, 天學道場의 布衣道師 이벽 - 오늘의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의 고등교육기관이 없던 시대에, 마치 佛舍나 道場을 찾던 여느 출가승(出家僧)들과도 같이,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에는 마음도 없고, 겨를도 없었던 때였다. 또 당시에 과거 시험 준비나 무술연마 등에 열중하는 소년들 중에 과거에 급제하는 이들은 대개가 7년 내지 10여년의 공부와 체력단련과 무술연마에 몰두해야 하므로, 혼례는 비록 15세 전후에 올리지만, 부인들이 첫 아이를 낳는 것은 혼례 후 10여년이 지나서 25세 이후에서나 족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 이는 10여 년간 공부 때문이었다.

더욱이, 소년 이벽 성조께서는 1770년부터, 경기도 광주산맥 앵자산(一名, 원양산)에 있는 天真菴에 讀書處(道場)을 마련하고, 은거하면서, 학업과 修道에 열중하였으니, 천진암은 누님 집이 있는 마현에서 30여리 내외 밖에 안 되는 비교적 멀지 않은 심산궁곡에 있었다. 누님 경주이씨(1750~1780)는, 당시 의금부도사, 화순 군수, 울산군수, 진주 목사, 등의 지방 벼슬을 하던 정재원(1730~1792)의 장남 정약현(1751~1821)과 결혼하였는데, 당시로서는 명문대가 경주이씨 가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라주정씨 정약현에게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그 스승의 그 弟子 이벽 성조와 정약용 승지 - 이벽 성조께서는 마재에 있는 누님 댁, 즉, 정약현의 집에 자주 들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한 살 위의 매형이 되는 정약현의 이복 동생들, 정약전(1756~1816), 정약중(1760~1801), 정약용(1762~1836), 3명이 매우 영리하고 학구적인 어린 사돈들이어서 말이 서로 통하는 친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丁氏네 어린 사돈 소년들

이 10여세 전부터, 천진암에 놀러가게 되면, 이벽 성조께서는 손 아래의 영특한 이 사돈들에게, 천문학과 지리학, 性理學과 의학, 수학과 曆學(역학), 기하원본과 天學, 즉, 天主教, 등, 서양의 신기하고 새로운 新學問(신학문)과 특히, 천주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러한 새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줌으로써, 어린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3형제의 경탄과 존경과 신망을 받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자연스레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실 천진암은 정약용의 母校와 같았다.

이벽 성조께서 15세 되던 1769년 기축년에, 이벽 성조보다 6세 연상의 만형 李格(1748~1812)이 21세로 무과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관직으로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는데, 이벽 성조께서는 포천에 있는 아버지 집과 광주 땅 검단산 아래 斗尾에도 시골집(鄉邸)이었으나, 종종 서울에 가서 형님 댁에 들러 서울의 지성인들과도 친분을 쌓게 되었다.

柳閑堂權氏의 無育과 兵判監 權嚴의 이벽 원망과 天學 증오 - 이벽 성조께서 21세 되던 1775년 경(?), 약 5년 전에 혼례만 치르고 있던 상태에서 남편을 본받아 학문에만 열중하던 허약한 몸의 유한당권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높은 관직에 있던 장인 권엄과 처가에서는 이벽성조께 대한 원망과 증오가 폭발하였으니, 옛날에 시집간 여성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무육(無育=不妊)으로 사망하면, 친정집 문중에까지, 수치와 오명이 되어, “그 집 딸들 중에는 불임여성이 있다” 고하여, 혼인기피 대상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유교 孔孟의 사상으로 효도를 제일로 삼았고, 불효 중에는 후사를 잇는 자손을 낳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불효는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五刑之屬而三千以第二莫大於不孝, 無後爲大>

그리하여, 처갓집, 특히 장인 권엄은 자기 딸이 아기를 못낳는 것이 아니라, 사위 광암 이벽이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 도 닭는 데만 열중하느라고, 아예 집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니, 자신의 부인 평양조씨는 아이를 이미 여럿 낳아

잘 길렀고, 둘째 딸도 시집가서 자녀를 잘 낳아 길렀으니, 큰 딸 유한당이 아기를 못 낳고, 학문에만 열중하다가 죽은 것은 사위 이벽의 탓이며, 그 홀륭하던 사위 이벽이 부인한테도 오지 않고 멀리하여, 저렇게 된 것은 天主學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확신하며, 천주교에 대한 반감과 증오심이 날로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이벽 성조와 혼례를 한 딸도, 사위를 본받아 공부만 하다가 불임 여성으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더욱 천주교를 무척 반대하였다. 물론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던 시대에, 높은 관직에 있던 자신은 천주교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시켜야만 자신의 관직이 무사할 수도 있었겠지만, 집안의 과년한 여자들을 위해서 불임여성이 있는 집안이라는 오명 때문에도 사위 이벽과 이벽이 굳게 신앙하는 천주교를 증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홀륭한 재주를 가지고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며, 과거 시험에도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얼출신 박제가 등과 어울리는 것도, 모두가 천주교 공격의 충분한 이유였다.

그러나, 족보에까지 無育으로 나오는 이벽 성조의 첫째 부인 유한당권씨는 학문과 수덕에 열중하는 비범한 인격자 이벽 성조를 본받아, 학문에 열중하면서, 유한당언행실록, 등의 저서를 남겼으며, 몸이 허약해져서, 20대 전후에 젊어서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10여년이 지나서, 이벽 성조의 순교 후에, 묘를 이장하여, 화현리에 합장되었다.

이벽 성조 묘 발굴 이장 때, 유한당 권씨의 유해는 희검은 뼈가루와 검붉은 진토만 조금 나왔는데, 당시 이장전문가와 법의학 교수는, 20여세 이전에 일찍 젊어서 죽으면, 뼈가 쉽게 삭기 때문이므로, 이벽 성조보다 10여년 먼저 사망하고, 매장하였다가 발굴하여 합장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정하였다.

그런데, 이벽 성조 순교 후, 60여년이 지난 후에 편찬된 족보에, 둘째 부인으로 기록된 해주정씨도 無育, 즉 불임여성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벽 성조 묘 발굴 이장 때, 유골이 굵은 채로 그대로 있고, 당시 처녀가 시집갈 때 꾸미듯, 어리에 쪽두리, 등

을 하고 있어서, 참관인들이 이상히 여겼고, 그대로 천진암에 이장하였다. 이장 전문가와 법의학 교수가 검시한 후, 적어도 60여세가 넘어서 사망한 할머니로 단정하였다. 사실 그 당시에는 불교의 비구니 여승들 뿐 아니라, 개성의 황진이처럼, 독신으로 동정을 지키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벽 성조께서는 불임여성들만 선별하여 혼인하게 하였을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정약용의 표현대로 수덕에 열중하며, 박제가의 표현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한국 천주교회 창립에 몰두하기 위하여, 또 황사영이 백서에서 밝히듯, 布衣道士로 출가승이나 현재 전 세계 45만여 명의 사제들처럼 평생 독신자로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1785년 을사년 박해 때부터, 1791년 신해년 박해, 1795년 을묘년 박해, 1801년 신유년 박해, 등 항상 박해가 있을 때마다 권엄은 천주교 박해에 앞장섰다. 심지어, 1801년, 신유박해 때는, 병판대감으로서 권엄이 평소 아끼고 칭찬하던, 정약용, 이승훈, 등이 그 못된 천주학을 하였다니, 아주 극형에 처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을 정도였다.

이벽 성조께서 26세 되던 1780년 庚子년에는, 이벽 성조보다 5세 연하의 동생 李栢(1759~1829)도, 21세로 무과에 급제하여, 한양에 살기 시작하였는데, 무술이 뛰어났던 이벽 성조는 아버지의 강권에도 불고하고, 그 전에도, 이 후에도 끝내 과거시험, 특히 武科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노여움을 더 사게 되었으며, 가끔씩 천진암 天學道場에서 내려와 아버지한테 불려가도, 포천 부모님 집에는 인사차 잠시 들릴 뿐, 마재 누님 집예를 더 자주 들리게 되었고, 종종 서울에 올라가서, 형과 동생의 집에 머물게 되어도, 당시 조선사회 개혁에 관심이 많던 북학파의 박제가, 이덕무, 등 서자 출신의 대석학들을 만나서, 중국 북경 여행담을 들으며, 서양의 新學問에 관한 토론이나 天主實義 독해에 시간을 보낼 뿐, 과거응시와 결혼생활에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포천 아버지의 노여움을 더하게 하였다.

靑年武士에서 젊은 학자로, 새 종교의 개척자로 활약하는 이벽 - 이벽성조께서는 열아홉 살이 될 때(1773), 권상복의 문집을 편찬하면서 [天學考]를 지어, 跋文(발문)에 붙였으며, [上天道]라는 글을 지어, 화현리에서 마재로 오는 중간 광능 입구에 있는 奉先寺 춘파대에 기증하였다고, 정학술의 [李檠傳]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벽 성조께서는 스물다섯 살 때(1779), 성호 이익 선생의 학풍을 이으려는 선비들 중에 정약전, 이승훈(1756~1801), 권상문(1755~1801) 등과도 함께 학문 연구와 토론에 힘썼으며, 이때 이미 이벽성조께서는 天學의 道理를 아주 깊이 깨닫고, 믿으며, 실행하고 있었으니, 특히, 당시에 天學이라고 부르던 천주교에 관한 서적들은 현고조부 이경상 공이 소현세자를 모시고 중국에 8년간(1637~1645) 있다가 귀국할 때, Adam Schall 신부에게서 받은 것들과, 지봉 이수광(1563~1628), 홍대용(1731~1783), 이이명(1658~1722), 같은 중국 왕래 사신단 편에 들어온 것들도 있었지만, 다불위 주교의 저술을 보면, 이벽의 강학보다 200여 년 앞서서, 1593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지퇴당 이정형과 지봉 이수광과 30여년 후, 즉, 1637년 병자호란 이후, 묵암 이경상, 등 조선의 사신들이 북경에 빈번히 왕래하면서, 서양서적들과 천주교 서적들은 이미 그 이전 중세기부터 조선에 들어와 학계에 많이 알려져 있었다고, 정약용은 말한다는 사실을, Daveluy 신부는 그의 저서 서론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다.

3) 이벽 성조의 천주교 연구와 강학 및 첫 신도단체

1770년 天真菴 天學道場 이벽 성조의 天學叢林 소년 선비들 - “조선에는 학문 연구에 매진하는 학자들이나 博士들이 있었는데, 요한세자 광암 이벽은 1770년부터,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철학적이며 사상적인 학문연구와 수덕에 몰두하였으며, 다른 학자들보다도 이벽은 널리 알려진 가장 출

중한 젊은 학자였다. 이벽은 대학자 권철신과 젊은 丁氏네 어린 소년 사돈 형제들, 특히 정약전과 정약용, 등 3형제들과 함께 인간의 본성과 하늘과 땅에 대한 갖가지 의문을 서로 던지고, 서로 답하면서, 천주교의 서적들도 섭렵하게 되었으며, 사람의 영혼과 덕행, 학습과 神의 섭리에 대한 천주교 교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훌륭하다고 판단하고 나서는, 즉시(ut statim) 자신들의 평소 일상생활 관습까지도 십계명 같은 하느님의 계명에 맞게 일치시켜 살아나가기로 결정하고, 즉시 실천하였다.” 는 사실은, 이미 1880년대의 동남아 천주교회 여러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천주교회 역사 교과서 증보판]에까지 실려 있을 정도였다.

이벽성조의 천주교 연구와 신앙 실천에 대하여는 文度公 요한 정약용 승지의 여러 문헌, 특히 詩文集과 墓誌銘, 天真消搖集, 등에도 매우 명확하게 나오고 있으니, 무서운 박해 시절에 쓰여진 문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벽 성조께서 순교하신(1785년) 후, 12년이나 지난 1797년에, 문도공이 조정에서 정조 임금을 모시는 동부승지로 재직하던 말기에 이르러, 즉, 1797년 정사년 봄, 정약전, 정약중, 두 분 형님들과 함께 천진암에 와서 이들을 머물면서 지은 詩文에서는, 꽤 오래간만에 천진암에 오니, “이벽 선생이 독서하던 독서처(연구소)는 아직도 저기 그대로 있는데, 온 세상에 한바탕 돌풍을 일으키던 원공(苑公)의 발자취는 아득하여, 다시는 찾아보기 어렵도다. 풍류와 문채는 모름지기 신령한 경지에 이르러서야 할 수 있으리니, 그 때 그 시절 추억하며, 한나절 내 술마시며, 또 한나절 내 시를 읊어보노라.” 하였다.

특히, 문도공 요한 정약용 승지가 1827년 65세가 되던 해 정초부터 120일 동안을 앓다가 일어나서, 옛 친구들과 함께 늦은 봄, 일생에 마지막으로 천진암에 와서 3일간을 머물면서, 옛날 천진암에서 공부하던 10여세 전후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현장에서 아주 많은 여러 편의 시를 지었다. 그 중 몇 귀절을 뽑

아서 의역해 보면, 이벽 성조께서 정약용 형제들과 함께 하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상상해볼 수 있다.

“천진암에 오르는 바윗돌 사이로 난 이 돌밭 오솔길은 내가 어려서 놀던 길인데 ! … 그 때 바로 이곳 천진암, 여기서는 일찍이 호걸다운 선비들이 강학하며 독서하였었지 ! … 그러나 참선하던 저 방에서 기도하던 옛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 어디 가서 다시 구해서 데려올 수 있으랴! … 그 옛날 공부하던 추억의 그 시절 그 생활, 다시는 해볼 수 없겠네 그러! … 저녁 죽 먹으라고 치던 북소리도 들리는 듯한데, 그때 해질녘에 같이 놀던 옛 동무도 생각나네! ….”

文度公 요한 丁若鏞 承旨의 母校 天真菴의 李槃 聖祖 - 이처럼 천진암은 문도공 요한 정약용 승지가 10세 이전 어려서부터 종종 와서 놀며, 8세 위의 사돈이 되는 스승 광암 이벽 성조의 가르침을 받으며 공부하던 정든 母校였기에, 젊어서도 자주 들렸었지만, 늙어서도 마지막으로 찾아와, 무너진 절간에서는 머물 수가 없어서, 천진암 터에서 왼편의 남쪽 낮은 고개 너머에 있던 옆 마을에 사는, 이포(伊蒲) 지위의 계를 받은 佛子의 호의로, 그 집에서 3일을 머물며 많은 시문을 남겼다. 특히, 정약용 승지는 형 정약전과 함께 어려서부터 이벽 성조를 따라다니며 같이 공부하고 함께 놀았으며, 이벽 성조한테서는 달력, 특히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매우 생소한 태양력과 수학, 천문학과 지리학, 의학, 심지어, 기하원본과 새로운 종교(천주교)의 학설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벽 성조께서는 1770년부터 입산하여, 천진암의 독서처를 본거지로 삼아, 천주교 교리 연구와 신앙을 실천하면서, 찾아오는 청소년 선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천주교신앙의 젊은 소년들 단체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웃어른으로서 구심점이 되었다. 신자도, 사제도 없이 갖 태어난 젊은이들의 신앙 모임을 자발적으로 탄생시킨 이벽 성조께서는 중국 북경 천주교회 사제들에게 천주교회 예절에 관하여 물어보

고, 좀더 알아보고자, 연락관계를 맺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몇 차례나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아무런 결실을 내지 못하였다.

蔓川 이승훈 진사의 북경 파견과 이벽 성조의 천학총림 공동체 - 그러다가 마침내 1783년 늦가을, 이벽 성조께서는, 천주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몇몇 改宗者들과 힘을 합하여, 이승훈 진사를 자신의 대리자(Delegate)로, 즉 자신들의 신도단체 대표자로, 북경 천주교회에 파견하였고, 이승훈 진사는 북경에서 1784년 2월에, 북경 북당에 와서 머물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 예수회원, Joseph de Grammont 신부한테서 세례성사까지 받고 귀국함으로써, 천진암 깊은 산속에서 갓 태어난 한국천주교회의 젊고 작은 신앙의 첫 단체는 민족구원을 위하여 용감히 수도 서울로 본거지를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800년대 말, 일찍이 영국 황실대학의 교수로서, 주일본 영국대사관에 머물면서 20여 년간이나 일본 문화와 조선 문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귀중한 저서를 남긴, H. Longford 교수의 글에서도 더욱 자세히 들어나고 있으며, 또한 천진암의 이벽독서처를 본거지로 하여, 이벽성조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선비들이 모여 강학하며, 천주교를 배우고, 실천하던 시기에 대한, [니벽전]의 기록은 비록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면을 알게 하고 있다.

이벽 성조께서는, “戊戌年(1778) 25세 때, 성호 이익 선생을 따르는 학도들, 賢友賢士, 李氏, 丁氏네와 학문에 힘썼다.” … 이벽 성조께서는, 일찍이 북경에 다녀온, 홍군사한테서 천학서적함을 받아, 주야로 정독하며 깊이 심사숙고함으로써, 의심나는 점이 없게 되자, 산수 좋은 곳들을 찾아 주유천하하였으며, 광주 땅에 있는 앵자산에 있는 절에 은거하자, 道를 닦겠다는 벗들이 무리를 지어 모였으며, 聖教要旨를 불러주어 받아쓰게 하였다. 성교요지는 친구약 성경을 약술한 교과서처럼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벽성조께서 이 때 지으신 天主恭敬歌는 천진암 천학도장의 청소년 선비들이 부르던 校歌였으며, 곡조가

있던 노래였다.

천진암 천학총림의 강학 수준은 출발 때에 비하여 비약적인 발전 …, 己亥年(1779) 26세 때는 어진 벗들(賢友)과 힘써 배우려는 학도들(勉學)이 이벽 선생을 웃어른으로 모시어(爲上), 山寺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으며, 이벽 선생은 기묘한 학식을 아주 많이 넓게 알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天文과 地理, 醫藥과 복술(周易?), 性命(性理學과 命理), 등에도 모두 통달하시므로,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여도, 아주 쉽게 풀어서 대답해주시는 것이 흐르는 청산유수와 같았고, 그 門下에는 제자들이 총림(叢林)을 이루게 되었으며, 巷間에 명성이 자자하게 전파되고 있었다.

1779년 기해년의 천진암 天學堂 모습은 이미 천주교회가 신흥 종교의 형식을 갖추고, 힘차게 움이 트고 싹이 돋아나는 모습이다. 이때부터 젊은이들의 이 천주교 단체(天學 叢林)는 명실 공히, 한민족이 자발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천주교회를 창립하는 결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벽 성조께서는 이때부터 거의 3년간 북경 천주교회에 사람을 파견하여, 좀 더 많은 지식, 특히, 천주공경 예식서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수차 시도하기 시작하였으나, 번번이 결과가 없었던 차에, 1783년 늦가을 이승훈 진사 파견이 대성공을 거두는 희소식이었다.

이승훈 진사가 아버지 이동욱의 冬至使 사절단에 합류하여 북경에 가게 되는 기회에, 한국 천주교회를 위하여, 이벽 성조께서 부여하는 사명을 받고 북경으로 파견된 역사는, 국내외 여러 자료에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 중에, 황사영 진사가 1801년 10월 말에 쓴 백서(帛書)의 문귀만 되살펴보자.

“이승훈은 이벽 布衣道師님이 기특히 여기던 사람인데, 이승훈에게 이벽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북경에 가면 천주당이라는 집이 있고, 그 집을 찾아가면, 서양에서 와 있는 선비들이 있을 것이니, 천주교를 전하는 사람이 어느 분이냐고 물어서, 기도서를 한권 구하러 왔노라고 하계. 그리고, 아울러 洗禮를

받게 하여 달라고 청하게, 그러면 서양 선비가 자네를 무척 환대하며 사랑할걸세. 결코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네!”

그런데, 이승훈 진사 파견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A. Daveluy 주교는 그의 한국순교자 역사 비망록에서 언급하고 있다. 북경에 갔던 이승훈 진사가 1784년 봄에 귀국하면서, 이벽 성조께서는 용기백배하여, 천진암의 천학총림, 즉 한국천주교회 최초의 젊은 신앙의 첫 공동체는 본거지를 서울로 옮기게 되었다.

[… 조선 양반 가정의 귀공자 소년으로서 실로 위대한 인물이었던 광암 이벽은 고요한 산속에 들어가서 1770년부터 천주교 연구와 신앙실천에 전념하였으며, 정확히 13년간 천주교 연구와 실천에 집중한 후, 자기 친구 아버지가 북경에 사신으로 가는 기회에, 그를 따라가게 하였고, 그 친구는 북경에서 이듬해 영세하고 귀국하게 되었다 ….]고 룽휘드 교수는 적고 있다.

4) 이벽성조의 천진암 강학과 천학총림(天學叢林)의 서울 이전

1784년 갑진년 봄 음력 4월 15일, 이벽 성조께서는 입산한지 15년 째 되는 해에 마침내 下山하시어 한양으로 가신다고 아래 마을에 있던 몇몇 새 입교자들에게도 알려지자, 이른 아침부터 몇몇 사람들이 두미 나루터에 모이게 되었고,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 3형제와 몇몇 동료 제자들이 이벽성조를 모시고 같은 배를 타고 서울로 떠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날, 배 위에서 당시 22세의 정약용 선비가 읊은 詩는 매우 감격적이다.

우선 詩의 제목부터, [同友人 李德操 櫟 乘舟入京]이라고 하였는데, 만일 그 시의 제목을, 혹시라도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이 보았다면, 얼굴이 死色이 되어, 막내동이 정약용을 몹시 야단쳤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 하면, 상감마마가 계시는 도성, 서울에 간다는 말은, 부산에서나 신의주에서나, 전국 어디서나 [上京]한다고 해야지, [入京]한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흥경래 같은 역적 반란군이나, 혹은 중국에서 오는 사신단이나, [漢

陽 入城], 혹은 入京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시험에서 이미 2차례나 낙방한 당시 22세의 정약용은 그 당시 서울 남산 아래 회현동 산비탈에 무허가 법률사무소 같은 기능을 하는 허술한 집에 방을 하나 얻어서 억울한 서민들의 법률구제 활동을 하던 때로 알려졌는데, 당시 조정의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고, 더욱이 매형 이승훈 진사가 북경에 가서 서양인들을 만나보고, 영세까지 하고 왔기에, 박학다식하며 동시에 초인간적인 면모를 풍기는 이벽 성조를 모시고 함께 서울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모로 정신적 힘이 솟구치기 때문이었다. 사실은 지금도 대부분 국민들은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거나, ‘上京한다’고 말하지 “서울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런데 200여 년 전 그 시대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천진암에서 이벽성조께 많은 학문을 깊이 배운 정약용은 당시 자신들이 天學道理로 무장하였으며, 조선사회 개혁을 거론한다는 초정 박제가와 이덕무, 등의 서출 출신의 북학과 저명인사들과도 친분을 나누고 있는 이벽성조를 모시고, 정조 임금의 사회개혁 정책 구현에 一助라도 바치기 위하여, 한양에 당당히 入城한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 1784년 4월 중순, 정약용 22세 때 李檣 鄉邸 斗米 나루터에서 지은 詩 －

[同友人 李德操 檣 乘舟入京]

벗 이덕조 벽과 서울 가는 배를 함께 타고 가면서, 지은 정약용의 이 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역술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시도해보면 다음과 같다.

배로 떠나려는 우리를 보고 숲속 꾀꼬리들이 환송가처럼 서울에

잘 다녀오시라고 부르는 노래소리 뒤로하고, 우리 나그네들을
태운 배는 서울로 떠나는데,(제수황리역객선,啼樹黃鸝逆客船)

두미 여울의 양쪽 강가 마을에는 아침밥 짓는 연기가 마치 상
서로운 香煙을 분향하듯, 하늘로 피어오르며 높이 퍼지네(수변
촌락시조연 水邊村落始朝煙)

어느덧 봄은 깊어 완연하여 강 양쪽 밭 기슭에 활짝 핀 복사
꽃은 마치 花童들이 뿌리는 환영 꽃잎들처럼, 실바람에 날리는
붉은 꽃잎이 붉은 비 뿌리는 듯하구나(춘심양안간홍우春深兩岸
看紅雨)

오늘따라 이른 아침 배라서 바람이 잠자는 듯 하니, 흐르는
강 물살도 잔잔하여, 하늘도 우리와 함께 하듯, 강물은 거울같
아 하늘도 강물 속에 들어와 잠겨있네.(풍정중류부경천 風靜中
流俯鏡天)

일찍이 中原의 천재시인 소식은 지상의 물과 하늘의 달을 노
래하였었지(소식재고담수월 蘇軾才高談水月)*①

또한 이응 도사님은 덕이 높아 그 명성이 백성들 사이에 신선
으로 소문났었지.(이응명중약신선 李膺名重若神仙)*②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나야말로 별 재주도 없고, 덕망
도 없어, 너무도 부족함을 깊이 알게 되도다.(심지졸렬락무뢰 深
知拙劣絡無賴)

그리하여 이벽 선생님과 옛 성현들이 남겨주고 가시는 글이라
도 읽어서, 옛 성현들 뜻에 보답코자 하노라! (욕파잔경보석현
欲把殘經報昔賢)

* ① 소식(蘇軾)은 이태백 같은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人間事와 世波를 물에 비유하고, 천상의 초자연적 신비의 세계
에 관한 일을 달에 비유하여 시를 읊었었다. 이벽 성조를 소식
에 비하는 대목이다.

* ② 이응(李膺)은 덕이 높아서, 세속을 떠나 泰山으로 아주

입산할 때, 이응 도사님이 태산으로 입산하시는 마지막 모습 뵈오려고, 수백리 밖에서도 환송인사차 모여온 백성들의 수레가 백여리 길 양쪽 가에 늘어서 있었다는 고사를 연상하며, 정약용은 이벽 성조께서 천진암 천학도장에서 下山하여 한양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감격스럽게 느끼고 있음을 노래한 詩다.

5) 1785년 을사년 박해(乙巳年 迫害)와 이벽성조의 순교

서울로 본거지를 옮긴 천진암에서의 신앙공동체는 - 고요한 앵자산의 천진암 산속 천학도장에서 천학총림을 이루며 갓 태어난 천주교 신앙의 실로 순수하고 소박하고 아주 진솔한 젊은이들의 이 신앙단체는, 이승훈 진사가 북경에서 귀국한 후, 이벽 성조의 뜻을 따라, 서울로 본거지를 옮겼으나, 사제도 없고, 성당도 없던 시절이니, 모두가 맡근 일을 이벽 성조에만 의지하였으므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예상치 못한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벽 성조의 인격과 설법으로 새 입교 지원자들은 늘어갔다. 이 어린 한국천주교회는 박해가 기다리고 있 줄은 미처 몰랐을 것이다.

서울로 용감히 입성하여, 우선은 수표동에 있던 이벽 성조의 자택을 집회소로 삼아, 전도활동을 시작하였다. 천주교회에서는 양반 상민, 남녀노소 빈부귀천, 만인이 모두 같은 한 형제들처럼 서로 위하며 사랑하면서 지내고자 하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남존여비 사상이 극심하여, 여자들은 이름조차 없을 때였다. 그런데 천주교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여자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므로, 난생 처음 자신의 이름을 가진 기쁨에서, 곱돌에 이름을 새겨 부인들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자랑하였다.

더욱이, 한번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고, 부인이 나쁜 병에 걸려도 소박하여 친절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부자나 양반도 소실을 두지 않는다는 말은 여성들에게 실로 감격스러운 복음이었다. 즉 칠거지악을 부정하는 천주교의 교리는 여성들에게 실로

복음이였다. 이벽 성조의 천주교 가르침을 전해 듣고, 대학자이며 부유한 권철신도 본 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도, 소실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더욱 힘 있는 복음이였다. 권철신은 본 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여도, 소실을 두지 않고, 동생 권일신의 아들, 권상문을 양자로 삼았다.

더구나 과로하여 몸에 병이 나서 누어야만 하루 이틀 쉴 뿐, 명절이나 잔칫날 같은 큰일을 치르는 날은 양반들에게나 축일이 지, 종들과 상민들에게는 일만 더 많아져서 지치도록 일하는데, 천주교를 믿으면 일곱날마다 하루씩은 쉬면서 기도한다는 새로운 종교의 복음에 대하여, 서울 장안의 중인들 천민들과 많은 여성들도 관심을 가지고 입교하고자 교리를 배우려고 모여들었다. 특히, 이벽 성조의 인격과 덕망과 박학다식한 언변으로 전교활동은 마른 봄의 산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우선 북경 성당에 가서 서양 신부한테 세례를 받고 귀국한 이승훈 진사가 이벽 성조를 위시하여 권일신네 형제들과, 정약전, 정약용네 형제들에게, 그리고 최창현, 김범우, 등 중인 계급과 종들 중의 자유 입교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 때 일부 부인들도 적지 않게 세례를 받았으므로, 부인들의 전도활성화로 신도들은 급증가하였다.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동안 500여명의 신도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곱날마다 천주 공경하는 날, 즉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없이 우선은 이벽 성조의 집에 모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벽 성조의 집은 경주이씨 양반 가문의 집이라서, 양반네들은 자유로이 출입하며 모일 수 있으나, 일반 常民들, 특히 庶民들이나 천민들과 종들과 아녀자들의 출입은 당연히 자유롭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 계급 차별이 극심하고 남녀칠세부동석의 시절이라서, 음력으로 따져서 주일을 맞아 새 입교자들이 모여도, 안채에서는 양반집 아낙네들이, 바깥사랑채에서는 양반출신의 남정네들이 각각 따로 모여, 기도를 바쳐야 했고, 그나마 중인계급과 천민 계급의 상민들과 양반집의 종들은 양반들과 한

방에서 한자리에 같이 앉아서, 기도를 바친다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큰 흥이므로, 매우 불편하고, 불안하며 힘든 일이었다.

- 수표동 이벽 성조 자택에서 시작한 서울에서의 첫 집회소는 명례방 김범우 역관의 집으로 -

그리하여, 소년시절부터 계급 차별을 하지 않고,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며 함께 어울리던 이벽 성조와 초대 신앙의 선조들은 우선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일 머리를 짜며 고민해야 하였다. 집회소를 常民이나 賤民 집으로 옮기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출입하겠지만, 지체가 높은 양반층에서는 오기를 꺼려하고, 신앙집회에 불참할 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양반 상민, 남녀노소가 자유롭게 출입하며 함께할 수 있는 중인계급의 집 중에서도, 의원이나 역관 직업을 가진 곳을 택하게 되었고, 평소 이벽 성조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던 김범우 토마스 역관은 의원을 겸하고 있어서, 남녀가 유별한 사회에서 진맥과 치료를 위하여, 여러 채의 집들이 있었고, 살림도 부유한 편이어서, 신입 교우들을 접대하는 것도 큰 부담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김범우는 아주 기꺼이 자기 집에서 집회를 하도록 봉헌하였다. 바로 오늘의 명동대성당 아래 둘레 지역이다.

김범우네 8형제(범우, 이우, 관우, 명우, 현우, 성우, 적우, 등)는 어렵지 않게 입교하였고, 비교적 생활도 넉넉한 편이고, 중인계급에다가 통역관 겸 한의원과 한약방과 외국어 강습학원(중국어, 왜어, 몽고어, 등)을 겸하는 집안으로, 집도 여러 채씩 가지고 있는 큰 보람을 느끼었다. 그래서, 양반, 상민, 남녀 노소가 진맥과 치료를 병자하며, 일반 가정집보다 훨씬 자유로이 출입하며, 모일 수 있었다. 따라서, 새 입교자들이 더욱 늘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천진암 강학회가 한창이던 때를 전후하여, 천주교에

관한 소문은 이미 장안에 널리 알려져 있던 터에, 순암 안정복은 사위 권일신도 이벽이 선전하는 천주교에 폭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권철신네 형제들에게 경고 서찰을 보내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 정조 임금은 조선사회의 개혁 정책을 펴나가고 있었는데, 북학파라고 흔히 부르는 박제가 이덕무 등의 서출 출신 젊은이들도 이벽 성조와 교분이 두터우며, 이벽성조께서 열렬히 선전하는 천주교에 관심을 기울이던 때라서, 완고한 유교 집안의 일부 양반들은 그대로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이가환, 이기양, 같은 저명한 학자들을 움직여, 주동자 이벽을 불러 타이틀 겸 공개토론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도록 하려고 주선하였으나, 뜻밖에도, 이가환, 이기양, 대 학자들이 공개토론회에서 모두 젊은 이벽 성조의 해박한 지식과 합리적 논거에 의한 언변에 굴복하자, 이제는 서울 장안의 젊은 선비들까지도 이벽 성조께서 부르짖는 천주교 신앙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서울 양반 사회가 전복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신흥 서양 종교로 인하여 당혹감과 위기감을 느끼던 양반 유림들과 반대파에서는 드디어 권력으로 처리하기로 정하였다.

우선 주동자 天學道師 이벽을 없애버리려 했다. 첫 단계로 주동자로 본 이벽성조를 신도들과 격리시키면서, 집회소를 폐쇄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천주교 신도들이 명례방 김범우 역관의 집에 모일 때, 현장을 급습하여 집회를 해산시키고, 성물을 압수하면서도, 양반 자제들은 함부로 관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집주인 김범우만을 형조로 잡아다가 가두고 매질을 하여, 며칠 후 경상남도 밀양군 단장면 단장리로 귀양을 보내고, 집회를 주관하던 이벽 성조와 거기에 참석하였던 권일신, 이승훈, 정약용, 등 양반집 자제들은 각각 그 양반 가문의 종친회 원로들을 움직여서 천주학을 못하도록 부모들이 조치하게 하고, 천주학 책들은 빼앗아 불사르게 하는 대소동을 일으켰다. 서울에서 천주교의 최초 본거지를 없애버리는 작전이었다.

그래도 대학자 권일신은 추조판서 김화진 앞에 나아가서, 중인 계급의 김범우를 잡아다가 벌을 주려면, 우리 양반들도 똑같이 하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부당하게 압수하여 뺏어간, 천주교 聖物과 聖書들을 즉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승훈 진사의 가정과 정약용 집안 및 권철신 집안에서는 모두, 문중 원로 노인들의 심한 꾸중과 호령을 받고는, 우선 집안 네 웃어른에 대한 예의상, “집안에 소란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는 자제들의 사죄로 조용히 수그러들었으나, 한국천주교의 始祖라고까지 부르던 주동자 광암 이벽성조의 집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랐고, 점점 확대되고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주모자로 지목된 이벽성조는 이가환, 이기양 같은 대학자들도 굴복시키는 뛰어난 인물이므로, 사실 박해자들 편에서는 이벽성조에게 대항할 인물이 없었다. 또한 박제가, 이덕무, 같은 조선 사회 개혁을 꿈꾸며 외치는 북학파 대표급 인사들과 교분이 있는 이벽성조의 비중으로 인하여 반대파에서는, 우선 이벽성조를 추종세력과 격리시키기 위하여, 아버지 이부만에게 압력을 가중시키는 연합 집중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벽성조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천주교를 계속 신앙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부자지간의 충돌역시 한층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아들의 천주교 신앙을 말리다 못하여, 할 수없이 대청마루 뜰에서 대들보에 밧줄을 걸고,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기에까지 이르렀으랴! 경주이씨 집안에 사문난적이 태어나 멸문지화를 입게 되었으므로, 우선은 이벽 자신이 자진(自盡=自決, 즉, 모을 매달거나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것)하게 하였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가 목을 매달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을사년 박해 때, 천주교를 박해하는 양반들이 서울 문안과 4대문 문밖으로까지 돌린 [통문]을 보면, 서양 오랑캐의 법을 따르는 저 西學人 5,6명은 오랑캐 무리들이니, 양반의 문중에서 담장 밖으로 내쫓아 몰아내야만 한다고 동네방

네 거리마다 방도 부치고, 통문도 돌리며, 일부 선비들은 규탄 집회도 거론하였다. 양반이 상민들과 겸상하여 밥을 먹고, 모여 앉으면 모두가 함께 손으로 얼굴에 헛손질을 하며, 남녀칠세부 동석인데, 아낙네들이 남정네들과 한집에 모여, 주문을 같이 외우고, 창가를 함께 부르기도 하며, 일곱날마다 하루씩은 일도 아니하고 낮잠을 쉰건 자게 한다니, 이는 道를 닦는 것이 아니라, 亡國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야단이었다.

그리하여,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를 믿는 5,6명의 가장들에게 공격은 집중되었으니, 바로 이 5,6명이 한국천주교회 창립의 기동과도 같이 중심이 된 창립선조 5위다. 즉, 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정약중, 등이었다. 이 분들이 속한 가정은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저들을 집에서 속히, 엄히, 내쫓아,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거든, 반드시 천민화하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오랑캐 무리들은 양반이 아니므로, 각 양반 문중에서는 저들을 양반 가문의 담장 밖으로 내쫓는다는 말은, 양반 족보에서 저들 이름을 삭제하여, 아주 빼내어 버리게 하라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천민이 되어, 탈관삭직에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不時에 하던 벼슬도 떨어지고, 집안은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탈관삭직에 패가망신하게 되면, 이벽 성조 가정의 경우, 이격과 이석의 벼슬이 떨어지고, 온 가족이 천민이 되는 것 아닌가?! 경주이씨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자, 불같은 성격의 이부만은 아들 이벽이 천주교를 버리도록 하지 못하면 문중에서 쫓겨나게 되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벽의 천주교 신앙포기를 받아내야만 하게 되어 있으나, 이벽의 고집을 잘 앎으로,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다불위 주교의 기록을 살펴보자. 이런 경우, 문중이 모두 멸문지화를 당하느니, 사문난적으로 문제아인 아들 이벽에게, 일부 친지들은 스스로 목을 매거나 독을 마시고 자살하기를 바라고 권하는 것이 관례로서, 자진(自盡, 自決 自殺)하지 않으므로, 아버지

이부만 공이 차라리 자신이 자결할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벽의 아버지는 天性이 걱정적인 사람으로, 천주교에 연루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었는데, 천주교에 깊이 빠진 듯이 보이는 자기 아들의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종교적 心性을 뿌리뽑기 위하여 최상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자기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자, 끝내는 자살하기 위해 목을 매달기에 이르렀다. 槃은 그러한 광경에 당황하였고, 무감각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었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굴복한 상태는 아니었다.

천주교인이라고 부르기도 부당한 어떤 교인 하나가 그에게 찾아와, 그가 느끼고 있는 듯 보이던 동요를 완결시키려고 하였다. 그는 槃을 배교시키는 데 성공하기 위해 가능한 온갖 수단을 다 썼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였다. 槃은 지치고, 그토록 시달림을 받아 정신이 혼미해졌어도 공개적으로 분명한 배교를 선언하라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아버지의 자살이나 형제들의 탈관삭직이나 집안의 패가망신 같은, 자기 앞에 다 쳐오고 있는 모든 불행을 물리치기 위하여, 완곡하면서도 유연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오호라!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그를 감금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신앙을 막기 위하여 목을 매달고 있을 때, 그가 잃지 않고 간직한 신앙심은 그의 가슴속에서 자연적인 인정에 끊임없이 공격을 가했다. 한 편에는 하느님 아버지가 계셨고, 다른 한 편에는 친 아버지가 계셨다. 어찌 천주를 부인하겠는가? 어찌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겠는가? 이러한 끊임없는 싸움은 그를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서글프고 우울해졌으며 말이 없어졌다.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시간마다 신음소리가 들렸다. 의관도 더 이상 벗지 않았고, 잠은 눈에서 멀리 달아나 버렸다. 아직은 가끔 음식에 손을 대기는 했지만, 입맛을 완전히 잃었으므로, 아무 맛도 없고, 몸을 위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치열한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불행하게도 본성이 우세한 위

치를 차지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차츰 회한과 마음의 동요가 가라앉았고, 은총의 마지막 노력이 간신히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평소의 건강상태로 되돌아왔으며, 벼슬에 대한 욕심이 되살아났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그에게는 아무 것도 시도해볼 시간이 없었다.

1786년(병오년) 봄 당시 유행하던 흑사병(중국인들 말로 역병)에 걸렸고, 8, 9일 후, 그가 땀을 흘리기 시작하자 간호하던 사람들이 여러 겹의 이불로 덮어서 몸을 명석처럼 말아서 양쪽 마구리를 막아 호흡을 못하게 되자, 무거운 이불 속에서 숨이 막힌데다가 땀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였으므로, 온갖 간호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른셋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여기서 염병이라 부르던 역병이 유행한 것은 1838년 무술년이었으니, 다블뤼 주교의 이 대목은 틀린 것이다. 이벽 성조께서 돌아가신 해는 1786년 병오년이 아니라, 1785년 을사년으로 경주이씨 족보 戊申譜가 명시하고 있으며, 1785년 을사년의 이벽 성조 장례식에 참석한 정약용의 만사(輓詞) 저작년도가 1785년 乙巳年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약용의 만사를 따라 같은 해에 초정 박제가의 李檣 哀悼詩, 즉 만사가 저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 열병에는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데, 오히려 땀을 흘리지 못하도록 이불로 아주 막아버렸다는 것도 우리나라 염병 간호의 치료관습을 모르는 기록이다. 만일 이벽 성조께서 아버지의 요구대로,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배교를 선언하였다면, 바깥출입을 못하도록 방에 감금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벽 성조를 그 추종자들과 격리시키라는 문중과 친지들의 압박에 의해 아버지가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배교시키려 하였으나, 듣지 않자, 너의 천주교 신앙 때문에 네 형과 동생의 벼슬이 떨어지고, 우리 집안이 탈관삭직에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며 사느니보다, 네가 보는 앞에서 차라리 내가 먼저 목매달아 죽는 꼴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아버지는 실제로 목을 매달았다. 국사대사전에서는 이부만이 아들의 천주교

신앙을 막기 위하여 목매달아 죽었다고 하였으나, 이벽 성조의 유연한 말솜에 자살은 미수에 그쳐, 그 후 17년이나 더 살았다. 그 대신 아들 이벽 성조께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판국에 아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잘 먹고, 잠을 잘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효성이 지극한 가문에서, 불철주야로 식음을 전폐하고 의관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배교는 할 수 없으나, 당분간 명례방 김범우네 집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말로, 아버지가 목매달고 있던 밧줄을 가족들이 풀게 하였으리라고 일부 학자들은 설명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그러나 박해의 압력은 더 처절하게 심화되어 갔다. 하여간 이 부만의 자살은 미수로 그쳐서, 이벽 성조께서는 아버지의 목숨을 건졌다. 아버지를 자살하여 죽게 만드는 종교라면, 당시 아무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이다. 이벽성조께서는 천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는 순교하신 것이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친지들이, 그러면 차라리 주동자 이벽이 밖에 나와서 천주교를 버린다고 명확히 사람들에게 밝히라고 하자, 배교하라는 이 요구에, 이벽성조께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배교할 수는 없지만, 배교가 아닌, 아버지의 말씀대로 명례방에 나가지 않겠다는 말로, 목을 매달던 아버지를 구하였으나, 공개적으로 진심으로 배교하라는 요구에는 강경하게 거부하자, 친지들의 면회도 금지하면서, 역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게 하고, 문을 밖에서 못질하고, 별당 둘레를 금줄로 띠어, 일체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훗날 이벽 성조께서 역병으로 사망하였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벽 성조의 천주교 신앙 때문에 문중이 멸문지화를 입는 것보다 차라리 이벽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옳다고 하여, 문중과 친지들의 압력으로 餓死罰을 주게 되었으니, 당시 正祖 임금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父王 英祖가 아사벌로 10여일을 굶겨 죽게 하였듯이, 양반대가에서는 아들이 父命을 끝까지 거스르면,

차마 칼로 아들을 죽일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친 아들을 개를 잡듯이 밧줄 올라미로 목을 묶어서 매달아 죽일 수도 없으므로, 이런 경우, “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밥도 주지 말라” 고 하여, 아사별로 피흘리지 않고, 조용히, 굶겨서 죽이는 것이 더 큰 불행과 비극을 예방하기 위하여, 궁중에서나 큰 양반대가의 뒤뜰 별관에서 있었던, 종종 있었던 비극의 역사였다.

박해 중에, 우리말과 우리 풍속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서양 선교사가, 일부 신도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술했던 것으로,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몇 가지 확실한 것은;

① 1785년 乙巳年 봄에 명례방 김범우 통역관의 집에서 집회를 하다가 형조판서 김화진이 보낸 추조금리들에 의해 해산되고, 성물과 성서도 압수당하였으며, 이벽 성조는 아버지의 집으로 호출되어 배교를 강요받았고, 서울의 온 장안 반대 세력층에서 들고 일어나서, 4대문 안팎으로 통문까지 돌리며, 이부만에게 무서운 압력을 계속 가중하였다.

② 배교 강요를 끝끝내 거부하자, 일부 친지들과 측근들은 가문이 아주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벽 당사자가 자진(自盡, 自決 自殺)하기를 바라고 권하여도 하지 않으므로, 차라리 아버지 이부만이 이벽 대신 대청마루 들보에 밧줄을 걸어 자살하기 위하여 목을 매었다. 당황한 가족들은 이벽 성조를 꾸짖으며, 배교는 아니더라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 명례방 집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말로 아버지는 자살미수로 죽음을 면하게 하였다.

③ 그러나, 이벽 성조께서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천주교 추종자들이 다시 집결하게 되고, 추조판서 김화진 대감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자신들도 천주교 신자이니, 김범우와 같은 벌을 받게 해 달라고 항의하며 성서와 성물을 내놓으라고 대들던, 사우거사(沙右居士) 권일신과 그 제자들이 다시 뭉쳐서, 더 큰 소란을 다시 일으키게 될 터이므로, 사태가 더욱 악화되

지 않도록, 주동자 이벽만은 집안에 감금하게 조치하고, 신자들은 물론이고, 문중이나 어떤 친지도 만나지 못하도록, 대면을 금지시키면서, “이벽은 천벌을 받아서, 염병에 걸렸다.” 고 거짓말을 퍼트리게 하였으며, 달포가 넘도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여, 지칠대로 지친 이벽에게는 아사별로 조용히 죽도록 굶기게 하였다.

④ 형조판서가 추조금리들을 동원하여 천주교를 막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무서운 고문으로 계속 엄히 조치해 나가면, 사문난적(斯文亂賊), 이벽 때문에 문중이 멸문지화를 면하기 어려우니, 이벽 한 사람을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은 모아지게 되었다.

⑤ 감금상태에서 아사별로 굶기기 시작하자, 통찰력이 빠른 이벽성조께서는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방안의 벽에다가 붓으로, “무협중봉지세 사입중천, 은하열숙지년 금환천국(巫峽中峯之勢死入重泉/ 銀河列宿之年錦還天國)이라고, 굵은 붓글씨로 크게 特筆大書한 후, 굶주림으로 허기져 가면서 천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수밖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무협 중봉에 서있는 형세로다, 이제는 죽어서 황천 길로 들어가고 있으나, 은하수 별자리에 둥근 달 떠오르듯, 비단옷 곱게 차려 입고서 하늘나라 가노라.

⑥ 열흘가까이 지나도록 운명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부만도 이제는 허탈한 상태에서, 아직도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자, 이제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기도 불가능할 정도이며, 또 어렵게 또 살아나도, 그 천주학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후환이 더 커질 것이니, 기왕에 버린 자식이고, 아무래도 이 세상을 떠나는 아들 이벽을 어서 빨리 가도록, 당시 마치 死境을 헤매는 죄인들에게 대하는 관례처럼, 빨리 죽도록 음독시켜 도와주게 하였고, 기골이 장대한 장수 체질의 이벽 성조께서는 음독상태에서도 숨이 속히 넘어가지 않고 계속 운명 직전 신음하며 몸부림하는 것이 길어지자, 처참한 광경을 속히 매듭짓도록,

마지막으로, 두꺼운 이불 여러겹으로 이벽성조의 몸을 멍석처럼 말아서(…, l'enveloppèrent de plusieurs couvertures…), 발과 머리가 있는 상하 양쪽 마구리를 눌러 막아서, 숨을 아주 못 쉬도록 막아 질식사시켜 운명하게 하였으니(… il ne fit qu'étouffer sous ces lourds vêtements…), 1785년 을사년 7월 5일이었다. 이른 봄부터 서울 장안이 떠들썩하게 시작된 乙巳秋曹摘發事件으로 우리나라 천주교회의 최초 박해, 당쟁과 사회여론과 공권력과 문종의 가세와 가정에 집중된 박해로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께서는 가장 혹독하고, 고독한, 실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⑦ 천주교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아 이벽 성조께서는 가장 참혹하고 무서운 餓死罰에 이어 飮毒罰과 최종적으로 窒息罰로 최후를 맞이하였으니, 순교자들 중에 가장 혹심한 3重 死刑벌을 받은 것이다.

⑧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는, 그래도 하늘과 땅을 볼 수 있었고, 공기를 마시며,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과 이모 마리아를 보며, 유언도 하실 수 있었고, “다 이루었다” 고 최후의 말씀도 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벽 성조께서는, 신도들과 격리되어, 배교를 강요하는 시달림으로 한 달 이상 거의 두 달 정도 시달리다가, 목을 매어 자살하려는 아버지의 모습과, 감금되어 굶기는 형벌에 이어, 죽음의 문에 들어서는데 그에게는 아무도 손을 잡고 임종을 돕는 이가 곁에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아무 말도 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겹겹이 두겹게 몸을 휘감아 이불 말아한 속에서, 고통과 함께 무서운 고독과 고립상태에서, 가족들 누구의 손도 잡을 수없이, 유언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숨도 쉬지 못하게 하는, 극심한 고통 중에, 가중되는 독약과 빨리 저 세상으로 떠나기를 재촉하는, 숨도 더 이상 못 쉬게 막아버리는 상태에서, 오로지 마음속으로만 천주님을 찾으며, 짧은 일생 만 31세(1754~1785)로 운명하셨다.

⑨ 이벽 성조께서 운명하시던 날, 이 때, 아직 벼슬에 오르지 못한 23세의 정약용과, 서출이라 벼슬에 오를 수 없었던 35세의 절친한 벗 박제가만은 적어도 사랑채에라도 와서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근거는, 저 두 벗들은 문인들로서, 弟子와 學兄으로서 각자 우리에게 남겨준 만사(輓詞)와 애도시(哀悼詩)에 나오는 文句와 표현 때문이다.

⑩ 사실, 1주일 이상 굶어서 다 죽어가는 아들을 본다는 것이 괴로운 부모는, 이왕에 죽어가는 자식이니, 차라리 빨리 죽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바로 음독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시절 신유박해 때 경기감사 이익운이 아들의 천주교 신앙 때문에 자신의 벼슬이 떨어지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아들을 잡아다가 집에 가두고 배교하도록 달래도 소용이 없자, 종래에는 아들을 결박하여,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강제로 입을 벌리고 음독시켜 죽게 하였던 것처럼, 아사벌 끝에 가서는 飲毒罰로 마치게 하는 것이 사형수를 돕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음독시켜도 얼른 운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숨을 쉬지 못하여 빨리 죽도록,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질식사(窒息死)시키는 것으로, 동시대의 신유박해 때, 남한산성으로 붙들려온 천주교신자들을 하루에 돼지감자 한 개씩만 먹여서 10여일 이상 지나면, 피골이 상접하고, 온 몸은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지칠대로 지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비틀거리는 신도들을 사형시킬 때, 칼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신자들을 결박하여 줄을 맞춰서 무릎 꿇린 후에, 얼굴에 물을 붓고 나서 韓紙로 3번 얼굴을 겹겹이 바르면, 힘이 없어 입을 벌릴 수가 없어서, 입과 코가 막힌 채로, 바로 숨이 막혀 숨을 거두게 하였다. 이것을 도모지(塗貌紙) 사형법이라 하였다.

하느님의 종,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 세자요한 광암 이벽성조께서는, 1785년 을사년 늦봄, 한국의 첫 박해로, 추종하던 신도들과 격리당하여 집안에 감금당한 후, 배교하라는 혹심한 시달림과 불면과 굶주림으로 적어도 달포내지 두어 달가량 가내연금

상태에서 고통을 받아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아사별로 10여 일간 더 굶긴 후에도 숨이 끊어지지 않아, 강제로 음독시켰으나, 그래도 계속 몸부림을 치며, 숨을 쉬므로, 두꺼운 이불로 겹겹이 여러겹 명석처럼 몸을 말아서 발과 머리 양쪽 입구를 막아 질식사시켰던 것이다.

순교자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3 중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아 중첩되 죽음의 고통 속에서 순교하셨다. 이를 미리 아셨는지, 운명사에서 사입중천(死入重泉)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황천길 중에 가장 무겁고, 무서운 고통이 중첩된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있음 표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상의 예수님보다 더 외롭고, 괴로운 캄캄한 고통 속에서 순교하셨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아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과 이모 마리아, 등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앞을 보면서 유언을 하시면서 운명하셨으나, 이벽 성조께서는 달포가 넘는 동안 온갖 시달림 속에서 아버지의 진노와 미움 속에서, 물 한 모금 없이 목이 타들어가는 아사별의 고통 속에서, 캄캄하게, 가족도 아무도 못 보는 암흑의 여러겹 이불말이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게 막는 질식사를 당하시어 순교하셨기 때문이다.

6) 하느님의 종 이벽 성조의 장례 때 지은 정약용의 만사(輓詞)와 박제가의 애도시(李檠 哀悼詩) - 만사나 애도시는 가장 절친한 사람이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문상한 후에, 객실에 나와 짓는 것이 보통이다. 이벽 성조의 장례식에 참석한 두 학자들의 만사는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1785년, 23세의 侯菴 丁若鏞(1762~1836)이 李檠 聖祖 葬禮 때 와서 지은 [友人 李德操 輓詞]

仙鶴下人間선학하인간 신선나라 학이 인간세계에 내려오니

軒然見風神현연견풍신 그 찬란한 모습에서 우리는 神의 풍채를 보았도다.

羽翮皎如雪우핵교여설 그 날개와 깃털은 모두가 눈처럼 온통 흰색이었기에

鷄鶩生嫌嗔계목생혐진 닭과 오리떼들이 모두 시새움하며 골을 부렸었지!

鳴聲動九霄명성동구소 그 학의 울음소리는 아홉하늘 끝까지 울려 퍼졌고,

嘹亮出風塵료량출풍진 그 맑고 밝게 외치던 목소리는 풍진세상에 뛰어났었네.

乘秋忽飛去승추홀비거 가을이 되어 찬바람 타고 문득 훌쩍 날아가 버리니,

悵悵空勞人초창공로인 창자까지 끊어지듯 아무리 애달아한들 무슨 소용있으랴!

* 風神은 木神이나 山神이나 海神과 달리 바람으로 나타나신 神을 의미한다.

1785년, 35세의 楚亭 朴齊家(1750~1805) 李檠 葬禮 때 지은 [李檠 哀悼詩]

晉人尙名理 진인상명리/진나라 때 사람들은 늘 명분과 의리를 내세우며,

淸譚亂厥世 청담난궐세/맑은 말로 밝힌다고 그 때 세상 더 어지럽히며 더럽혔지만!①

德操議六合 덕조의육합/덕조는 오히려 上下左右先後內外 萬人과함께 늘 議合하였는데,

何嘗離實際 하상이실제/어찌 이리도 일찍 實際를 버리고 떠나야 하나 ?②

匹夫關時運 필부관시운/세상 돌아가는 時運에 매인 凡夫로서,

破屋志經濟 파옥지경제/집안 일 모두 破하고, 백성들 구하러
는 뜻만 두고 다하였었지!③

胸中大璣衡 흉중대기형/가슴 속 깊이 품고 있던 크나큰 옥구
슬 저울같은 心志는

四海一孤詣 사해일고예/東西南北 드넓은 天地에 외로히 높이
도 홀로 올라 자리하였으니,④

物物喻性體 물물유성체/만물의 근원과 본질을 깨닫게 하고,
形形明比例 형형명비례/온갖 조물들을 서로 견주며 형상과 체
질의 뜻 밝혀주더니!⑤

鴻荒諒未開 홍황양미개/황량한 별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일에
도 그 참뜻에 신념을 두더니,

名言孰相契 명언숙상계/이제 그 유명한 말로라도 누가 서로
믿고 다시 모이게 하라?⑥

天風吹鸚鵡 천풍취앵무/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늘에서 불어오
는 바람 앵무새에게 닥치면,

翻成出籠計 번성출농계/바닥에 등을 대고 거꾸러 누어, 새장
을 빠져나갈 길 찾지만,⑦

遽廬罷殘夢 거려파잔몽/다급하게 마련한 오두막에서 못다 이
룬 남은 꿈마저 다 내버리고,

靑山葬靈慧 청산장영혜/청산에 그 영특한 지혜를 파묻고 떠나
가려하네 그러! ⑧

春秋不暫停 춘추부잠정/봄 가을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흘
러가니,

萬化無非逝 만화무비서/萬有에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어 萬
물이 되어가게 마련이라네.⑨

高嘯送飛鴻 고소송비홍/높이 올리는 휘파람 소리에, 나르는
기러기 떠나 보내려 하노라니,

乾坤暗雙涕 건곤암쌍체/하늘과 땅도 한 쌍이 되어, 속으로 눈
물 흘리며 울고 있고나!⑩

註

① 중국인들처럼, 당시 조선 선비들도 명분과 체면과 위신을 내세워, 모두 말들은 잘하나, 사회는 더욱 당쟁으로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유적인 문구.

② 그런데 덕조(이벽 성조의 자)는 권철신, 이승훈, 정약용, 이가환, 이기양, 등, 지체 높은 양반 선배들과, 김범우, 최창현, 등 중인들과도, 또 박제가, 이덕무, 같은 서얼출신들과도 함께 어울리며 벗하였음을 말한다. 이를 議六合이라 하였다.

③ 아버지 뜻 따라 혼인은 하였으나, 가정을 꾸리고 돌볼 생각 아니하고, 천진암 독서처 동료 학우들과, 마재 누님 집의 정약용 사돈들과, 양근 권철신 대석학 형제분들과, 한양의 이격, 이석, 형제들 집에 머물며, 조선의 개혁을 갈망하던 북학파의 박제가 등과 사회 제도 개선과 민족 구원사업에만 열중하였다는 뜻이다.

④ 마음속에는 천주교 신앙을 간직한 채, 아무도 알아주려하지 않는 큰 뜻을 홀로 품고 있었다.

⑤ 피조물을 보고 창조주 천주를 알도록, 천차만별 만물의 근본과 형체와 본질을 서로 견주며, 그 존재의 원인과 존재 목적을 밝히고 풀어 주던 이벽이었다는 뜻.

⑥ 그런데, 황량한 잡풀 벌판 같은 당시의 사회 실상을 볼 때, 덕조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 이 세상에, 대체 누가 있어, 덕조 대신 그런 해설을 해주며 사람들을 모아서 묶어줄 수 있으랴?

⑦ 그러나 떠날 때가 되어, 피할 수 없는 하늘 바람이 앵무새에게 불어오니, 새가 새장을 빠져 나가려고, 새는 새장안의 천정을 두 발로 잡고 등을 새장의 바닥 쪽에 대듯 누워가며, 나갈 구멍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듯 하지만 탈출구가 없듯이.

- 여기서 이벽 성조를 앵무새에 비유한 것은, 천주교를 버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이나, 친구들의 애절한 말에도, 대답은 앵무새처럼 항상 [천주님]만을 말한다는 뜻이며, 새장은 가정에 감금

된 현실을, 또 새가 누운 자세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듯 함은, 이불로 겹겹이 말이하듯 몸을 말아서 死境을 헤매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벽 성조의 運命詩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즉, 巫峽中峯之勢 死入重泉<무협 협산의 중봉에 서 있는 형세로다. 사면팔방 어디로도 갈 수 없어, 두 번 세 번 죽는 듯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銀河列宿之年錦還天國<그러나 높고 넓은 하늘 은하수 별자리에 둥근 달 떠오르듯, 나는 비단옷 곱게 차려 입고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로다!>

⑧ 天真菴 讀書處의 天學叢林을 의미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⑨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만물이 쉬지 않고 진행됨을 의미한 듯.

⑩ 정약용의 李檠輓詞 끝말과 같다. 乘秋忽飛去, 悵悵空勞人 보다 더욱 폭넓은, <하늘과 땅이 한 쌍이 되어, 속으로 슬피 울며 눈물짓는다.>는 말에는, 가정과 친지들과 천주교 신도들과 북학과 선비들을 총 망라하여, 하늘을 대리하듯 말하던 상감마마께서도, 모두가 아까워하고 애달파함을 표현한 것이다. 즉, 乾坤暗雙涕에서 물리적 의미의 天地라는 말대신, 윤리적 의미의 乾坤이라 함은, 당시 북학과 선비들을 잘 알고 있던 상감마마 정조 임금도, 내색은 못할망정 속으로 천주교신도들과 함께 이벽 성조의 죽음을 마음 속 깊이 슬퍼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2015/10/31. 천진암 Msgr. Byon

연도별 이벽성조의 일생 요약

1754년 갑술년 포천현 壯士里 승천이라 하는 고을에서 탄생하였다.

1770년 15세 전후까지, 형 이격과 동생 이석과 함께 3형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 타고 활 쏘는 무술연마에 힘써 출중한

재능을 나타내었다. 형과 동생은 바로 20세 초반에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으나, 이벽성조께서는 勉學과 修道에 힘썼고, 이 시기에 시집간 누님 집이 있는 마재의 앞강 두미 여울 건너 윗두미 마을에도 잠시 머물면서, 영자산 천진암에 입산하여 천학도장을 시작하였다.

1777년 23세 경부터 천주교 교리 연구와 강학에 집중하면서, 한편으로 박제가 이덕무 등 북학파의 명인들과 교분을 나누며 북학파의 조선사회 개혁에 상감의 정책노선을 지지하면서도, 천주실의 같은 천주교 교리를 북학파 친구들, 특히, 박제가, 등에게 전하였다.

1779년 25세부터는 북경 천주교회와의 연락을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1783년 가을 마침내 이승훈 진사를 북경 교회에 파견하고, 영세귀국하게 하였다.

1784년 봄(음력 4월), 천진암의 천학 본거지를 서울, 수표동 자택으로 옮겼다.

1785년 봄, 명례방 김범우 역관의 집으로 천주교 집회소를 다시 옮겼으며, 을사박해를 맞았다. 한국 최초의 천주교 박해로, 이벽성조께서는 집안에 감금되어 배교를 강요하는 친지들한테 시달리다가 아사별과 음독별과 질식별로 무서운 고독 속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Msgr. Byon

● 작성일 : 2016-01-22 11:04

234. 교황님 말씀: 주교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어제(1월 22일) 교황님께서 우리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에게 하신 강론말씀입니다.

Francis: God's people suffer if their bishops fail to

pray(2016-01-22 Vatican Radio)

교황님 말씀: 주교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2016-01-22 Vatican Radio

〈이하 英韓 번역문〉

(Vatican Radio) The bishop's task is to pray and to proclaim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a bishop does not pray and does not announce the Gospel but is concerned with other things, God's people suffer. That's the message Pope Francis imparted to the faithful gathered Friday for the daily morning Mass at the Casa Santa Marta.

주교의 임무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주교가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알리지 않고, 다른 일에 상관하게 되면, 하느님의 백성은 고통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이 말씀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오늘(2016. 01. 22)아침 평일 미사 강론 때 참석한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The day's Gospel (Mk 3: 13-19) indicates why Jesus chose the Twelve Apostles "to be with him and to be sent out to preach and have authority to cast out demons." The Twelve, said Pope Francis, "are the first bishops." After the death of Judas, Matthias is elected in "the first episcopal ordination of the Church." And, the Pope pointed out, "the bishops are pillars of the Church," called to be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오늘 미사 복음(Mk 3: 13-19)은 예수님께서 왜 12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도록, 또, 왜, 나가서 강론하며, 마귀를 쫓아내도록 권능을 갖게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 12제자들은 바

로 최초의 주교들임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죽은 후, 마티아가 주교로 서임되었는데, 교회 최초의 주교 서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교들은 교회의 기둥들이며, 예수님 부활의 증거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We bishops have this responsibility to be witnesses: witnesses to the fact that the Lord Jesus is alive, that the Lord Jesus is risen, that the Lord Jesus walks with us, that the Lord Jesus saves us, that the Lord Jesus gave his life for us, that the Lord Jesus is our hope, that the Lord Jesus always welcomes us and forgives us. Giving witness. Our life must be this: a testimony. True witness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우리 주교들은 바로 이 증거자라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교들이 증거하는 사실은 곧 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 다니고 계시며, 주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주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환영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증거를 줍니다. 우리의 생활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즉, 증거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Bishops have two jobs: to pray and to preach

주교들에게는 2가지 일이 있으니, 기도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입니다.

"The first task of a bishop is to be with Jesus in prayer. The first job of a bishop is not to prepare pastoral plans ... no, no! Prayer: this is the first task. The second task is to be a witness, that is, to preach. To preach the salvation that the Lord Jesus has brought. Two tasks that are not easy, but it is precisely these two tasks that are the strong pillars of the Church. If these columns are weakened because the bishop does not pray or prays

little, forgets to pray; or because the bishop does not announce the Gospel and instead takes care of other things, the Church also weakens; it suffers. God's people suffer. Because the columns are weak."

주교의 첫째 임무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교가 우선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사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결코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 첫째 임무입니다. 둘째로 해야 할 임무는 증거하는 것이니, 곧, 강론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구원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임무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2가지 일은 교회의 튼튼한 기둥입니다. 만일 주교가 다른 일들을 상관하느라고 기도하지 않거나, 적게 기도하거나,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복음을 알리지 않거나 하게 되면, 이 기둥들이 허약하게 되기 마련이니, 교회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기둥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The Church without the bishop doesn't work," said the Pope. Therefore, we must all pray for our bishops, he concluded, as an "obligation of love, an obligation of children in reverence to the Father, an obligation of brothers so that the family remains united in its witness to Jesus Christ, living and risen:"

주교가 없이 교회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우리 주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한다고, 교황님은 결론하시면서, 사랑해야 할 의무로서, 아버지를 존경해야 할 의무로서, 형제들로서의 의무로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가정인 교회에 살아 계시고 일치하여 지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Pray for us bishops: we too have weaknesses"

우리 주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역시 허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The Pope invited the faithful to pray for “us bishops, because we too are sinners; we too have weaknesses. We also have the danger of Judas: because he too had been elected as a column. We also run the risk of not praying, of doing something else instead of proclaiming the Gospel and casting out demons ... Pray, so that the bishops are what Jesus desired, so that we all give witness to Jesus’ Resurrection. The people of God pray for the bishops. In every Mass we pray for the bishops.

교황님께서는 미사 참석한 신도들에게, 우리 주교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교들 역시 죄인들이며,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교들 역시 유다스의 위험을 지니고 있으면서, 교회의 기둥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교들 역시 기도하지 않는 위험과,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 등의 일 대신에 다른 일들을 하는 위험 속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주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사 때마다 우리는 주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We pray for Peter, the head of the college of bishops, and we pray for our local bishop. But this is not enough: we say the name, and many times we say it out of habit, and then we go on. Pray for the bishop with your heart! Ask the Lord: Lord, take care of my bishop; take care of all the bishops, and send us bishops who are true witnesses – bishops who pray and bishops who help us through their preaching to understand the Gospel, so that we may trust that you, Lord, are alive and that you're with us."

우리는 주교단의 머리가 되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각 교구장 주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즉, 주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흔히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간청합시다; 주님 우리 주교님을 보살펴주십시오! 강론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알아듣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모든 주교님들을 보살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하여주소서!

(from Vatican Radio)

〈이하 이태리어 원문〉

Francesco: se il vescovo non prega, il popolo di Dio soffre

2016-01-22 Radio Vaticana

Compito del vescovo è quello di pregare e annunciare la Risurrezione di Gesù; se il vescovo non prega e non annuncia il Vangelo ma si occupa di altre cose, il popolo di Dio ne soffre: è quanto ha affermato il Papa nella Messa del mattino a Casa Santa Marta. Il servizio di Sergio Centofanti:

Il Vangelo del giorno (Mc 3, 13-19) racconta la scelta dei Dodici Apostoli da parte di Gesù: li sceglie “perché stiano con Lui e per mandarli a predicare con il potere di scacciare i demoni.” I Dodici – afferma Papa Francesco – “sono i primi vescovi.” Dopo la morte di Giuda viene eletto Mattia: è “la prima ordinazione episcopale della Chiesa.” “I vescovi sono colonne della Chiesa”, chiamati

ad essere testimoni della Risurrezione di Gesù:

“Noi vescovi abbiamo questa responsabilità di essere testimoni: testimoni che il Signore Gesù è vivo, che il Signore Gesù è risorto, che il Signore Gesù cammina con noi, che il Signore Gesù ci salva, che il Signore Gesù ha dato la sua vita per noi, che il Signore Gesù è la nostra speranza, che il Signore Gesù ci accoglie sempre e ci perdona. La testimonianza. La nostra vita dev’essere questo: una testimonianza. Una vera testimonianza della Resurrezione di Cristo.”

I vescovi – ha proseguito il Papa – hanno due compiti:

“Il primo compito del vescovo è stare con Gesù nella preghiera. Il primo compito del vescovo non è fare piani pastorali ... no, no! Pregare: questo è il primo compito. Il secondo compito è essere testimone, cioè predicare. Predicare la salvezza che il Signore Gesù ci ha portato. Due compiti non facili, ma sono propriamente questi due compiti che fanno forti le colonne della Chiesa. Se queste colonne si indeboliscono perché il vescovo non prega o prega poco, si dimentica di pregare; o perché il vescovo non annuncia il Vangelo, si occupa di altre cose, la Chiesa anche si indebolisce; soffre. Il popolo di Dio soffre. Perché le colonne sono deboli.”

“La Chiesa senza vescovo non può andare” – conclude il Papa – per questo “la preghiera di tutti noi per i nostri vescovi è un obbligo, ma un obbligo d’amore, un obbligo dei figli nei confronti del Padre, un obbligo di fratelli, perché la famiglia rimanga unita nella confessione di Gesù Cristo, vivo e risorto”:

“Per questo, io vorrei oggi invitare voi a pregare per

noi vescovi. Perché anche noi siamo peccatori, anche noi abbiamo debolezze, anche noi abbiamo il pericolo di Giuda: perché anche lui era stato eletto come colonna. Anche noi corriamo il pericolo di non pregare, di fare qualcosa che non sia annunciare il Vangelo e scacciare i demoni ... Pregare, perché i vescovi siano quello che Gesù voleva, che tutti noi diamo testimonianza della Resurrezione di Gesù. Il popolo di Dio prega per i vescovi. In ogni Messa si prega per i vescovi: si prega per Pietro, il capo del collegio episcopale, e si prega per il vescovo del luogo. Ma questo è poco: si dice il nome e tante volte si dice per abitudine, e si va avanti. Pregare per il vescovo con il cuore, chiedere al Signore: Signore, abbi cura del mio vescovo; abbi cura di tutti i vescovi, e mandaci i vescovi che siano veri testimoni, vescovi che preghino, e vescovi che ci aiutino, con la loro predica, a capire il Vangelo, a essere sicuri che Tu, Signore, sei vivo, sei fra noi.”(Da Radio Vaticana) - Msgr. Byon

● 작성일 : 2016-01-23 05:32

235. 韓民族의 集團自爆!? 서울은 불바다!? 평양은 젓더미!? [파리 평화협정]과 월남 패망사!!

오늘의 人類는 세계 도처에서 서로 크고 작은 집단학살(集團虐殺)을 일삼다가 마침내 집단자살(集團自殺)의 수단으로 집단자폭(集團自爆)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기도합시다 ! 더구나 중국이 평화협정을 또 내세운다니!

1973년 [파리 평화협정]과 미군철수로 시작된, 1975년 [월남 패망]을 되새겨 봅시다!

1945년 8월 5일, 원자폭탄 투하 직후의 일본 히로시마 모

습!!(사진은 천진암성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94번 참조).

서울을 불바다로?! 평양은 잿더미로?! 삼천리강산에 [새마을 운동]으로 건설한 문화를, [헌마을 운동]으로 잿더미를 만드는 사상과 정신은 무엇인가 !!? 서울을 불바다로!? 평양은 잿더미로!? 폭탄으로 누구를 위해서 무엇하러 통일해야 하나!? 정복이나 점령으로는 합병이나 합방(合邦)이지, 통일이 아니다. 진정한 통일은 양쪽 동포들의 합리적인 윤리적 가치관의 일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을 불바다로? 그럼, 평양도 잿더미로?!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 [평양도 잿더미]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데! 미국만 믿고, 중국에도 기대보며...! 나름대로 이해와 협력과 인내로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하려 했지만 ! 이는 상대가 어불성설(語不成說)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서, 마이동풍(馬耳東風)이고,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니, 하루라도 신앙으로 살면서 한마디 나라 위한 기도라도 바치기를 어찌 소홀할 수 있습니까?!〈對面共話，心隔一千山〉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한테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이 말은 1945년 해방 후, 親中容共 사상이 있던 당시 申不出(?)이라는 만담가가 하던 소리로, 서울의 동대문과 남대문에 대자보까지 써 붙였던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사변 발발 불과 몇일 전까지, 요사이처럼 북한은 남북 평화협상을 계속 제기하였었는데, 당시 표현으로, 대구 10월 폭동과 여수순천 반란사건, 제주 4·3 폭동에 연이어, 1950년 들어오면서, 38선 도처에서는 북한 공산군의 크고 작은 기습공격이 그치지 않던 시절, 전쟁보다 회담을 더 중요시하며, 상대방의 말을 잘 믿는 미군 3만여 명이 고문단 몇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하고 나서 불과 두어 달도 안 되어,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남한은 미국만을 너무 믿었고, 북한은 소련이 계속 함께 싸우며 도와주리라는 말에 속았기에, 백만의 중공군이 임무교대하였으며, 2차 대전 후 극빈상태의 일본은 3년간의 한국전쟁 동

안 주한미군을 위한 군수산업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중국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中國 大人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국가나 단체나 조직이나 조직원의 말이나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믿을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중국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평화협정]의 본 의도를 모른 척하고 관심을 갖는 열간이들은 중공의 모택동 공산당 전략, 즉, 공산당의 평화전략과 월남 패망의 역사를 모르는 이들이다. 미국과 월맹 간의 파리 평화회담이 마침내 결실되어,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자, 전 세계의 환영을 받았고, 미군은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안전장치로서,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 후, 또 다시 먼저 공격하는 쪽(월맹과 베트남)에 대하여는 세계 5 대강국들(미·소·영·중·불)이 선전포고 없이, 즉시 반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막상 미군철수와 동시에 월맹의 진격으로 사이공은 함락되고, 수십만명의 보-트 피플이 아우성치는 비극이 일어났어도, 다시 반격하는 강국은 없었다. 당시 월남국민들 중에 지배적이던 공짜 자유와 공짜 평화의 정신자세가 열강들의 재반격을 포기하게 하였다. 하늘은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돕지 않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맹과 베트남의 공격으로 마침내 월남의 수도 사이공이 1975년 함락되면서 월남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공산화되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 위대한 大韓民國을 貧村에서 이만큼 再建한, 건설의 훌륭한 [새마을 運動家들]을 하나하나 모두, 없는 흙집이라도 만들어 내서라도, 묻어버리고 잊혀지게 하고자, 광란의 혁명풍으로 대도시 파괴뿐인 [현마을 運動人들]을, 심지어 貧者와 弱者로까지 僞裝시켜서 내세워, 각계각층에 끼어들어, 철면피하게 발광하며 동분서주하게 하는 이 시대에, 민족수치의 이 시대 역사 현장과 시국을, 우리는 더 이상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해야 한단 말인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사가 일시에 갈리고, 유구한 역사민족, 大韓民族의 자멸을 초래할 수

도 있는 가공할 핵전쟁! 대재앙의 먹구름 아래서,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모님께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난이나 연습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적대적 국가들의 찬성을 받아 국방시설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군사시설을 세계 만민에게 공개하는 나라들도 있는 지?! 중국과 북한과 소련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찬성을 얻어, 무력을 개발하고 증강하고 있는지?! 일부 언론인들은 언론자유이름으로 조국의 국방을 흔들어도 되는지? 국방이 약하고, 국방 없는 나라가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지!? 보도의 자유는 그 결과에 대한 공익의무가 전제된 권리가 아닌가? 오늘의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시국에 신도들은 촛불 들고 모여서 교회의 천상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천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 실험과 대륙간 유도탄 실험 발사로, 미국의 최신 핵무기 탑재 항공기들과 군함들이 한반도로 집결하고 있는 현상이 연일 TV 화면을 장식하여, 전 세계가 놀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서울 불바다] 방송이 거듭되던 시절, 발표했던 내용을 간추려서 수정하여 다시 한 번 읽어봅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 [평양도 잿더미]가 된다는 데! 참으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이 함부로 쉽게 연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

도대체 서울에는 누가 살고 있길래?! 어느 민족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길래! 걸핏하면 [서울 불바다化]를 거론하며, 실로 소름이 끼치도록 끔찍하게 목청을 돋구며 야단인가?! 천이백만이 넘는 서울 시민 중에 미운 외국인들이 서울에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는지 ? 우리민족끼리 서로 대량학살을 하자는 것인지!?

일찍이 지난 1950년 6.25.사변 때는, 소련과 중공이 미공군한테 제공권을 빼앗겨서 평양이 서울보다 몇 배 훨씬 더 잿더미가 되었었다는 역사를 남북 모두가 잊었는지? 불행히도 또 다시 남북전쟁이 난다면, 이번에도, 현재도, 북한과 중국은 미공군의 제

공권을 빼앗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북한과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만은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미국과 싸워서, 히틀러의 독일도, 소화천황의 일본도, 세계적인 강국들이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惡談이나 詛呪나 暴言은 言語暴力으로, 개인들 간에도 형사범죄인데 ! 더구나 국가들간에야…!

더욱이 사랑을 말하고 실천하려는 종교인들도 자기네 나라와 마을과 가정을 침탈하는 자들이 타민족이든 동족이든간에, 이러한 적들의 총구 앞에 우리 모두가 비무장으로 나란히 서서 죽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것은 종교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민족 뿐 아니라, 아무리 동족이라도 어느 나라나 강도와 절도는 처벌하며, 살인자들은 엄벌합니다.

[불바다]니, [젓더미]니, 하고 싸우며 난투극을 벌여도, 그래 봐야, 삼천리강산을 강대국들의 [신무기 시험장]으로 만들 뿐이고, 강대국들의 초현대적 [신무기 대목장]이 열리는 [신무기 장마당]이 되게 하는 것뿐이 아닐까? 그래도, 무력에 의한 남북 점령통일은 마음먹은 대로 그리 쉽지 않고, 이조차도 더욱 멀어지고, 또다시 동족상잔의 유혈사태 홍수가 그치고 나면, [휴전선의 이동]으로 끝나는, [제2의 6.25 사변 再版]이 될 뿐일 텐데 !

핵무기 보유에 대한 북한의 고집은 남한과 일본과 대만 등의 핵무장을 강요하는 빌미를 주며, 북한동포들의 가난을 더욱 장기적으로 심화시켜, 북한을 극동의 제2 쿠바처럼 만드는 길이 될 뿐이니, 사실 핵무기 보유는 권력과 체제유지나 통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百害無益한 것입니다. 핵무기 보유 덕택으로 국가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움과 기피의 위험하고 불행한 대상국가들이 될 뿐입니다.

1945년 8월 11일, 원자폭탄 투하 직 후의 일본 나가사키 모습! (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94번 참조).

Nagasaki, after bombardment of atomic bomb by B-29 fighter-bomber, A.M. 11:00 hours of the 9th, August 1945!

There was only 1 country, United States, that could use the atomic bombs 70 years ago, when the world war II was terminated by only 2 atomic bombs.

舊 소련 공산당 정권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작은 나라들이 핵무기가 없다고 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을 유지시키는 것도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특히 핵무기 보유 덕택은 아니고, 미국의 國民意識, 國民精神, 특히 自由와 正義와 眞理와 良心이 상식과 愛國心과 함께 아직은 어느 정도 그래도 살아있는 미국사회의 國民의식 수준과 합리적인, [국민정신 자세 紀綱] 덕택이라고 봅니다. 체제유지는 자유가 보장된 愛國心이 있는 자발적인 국민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 인류는 自由와 正義와 眞理의 사회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自由가 없는 곳에는 正義도 있을 수 없고, 眞實도 없으며, 진정한 종교도, 자유로운 신앙도 있을 수 없습니다. 中東의 민주화 熱風은 사실상, 極東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東風입니다. 불행이도 아직도 잔존하는 無神論 共產主義 思想으로 인하여 북한도, 중국도, 이제는 現代化한 人類의 자유문화 차원에서 뒷북치는 100여 년 전의 꼴찌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는, 아니, 지금도, 세계 인류는 결코 피할 수 없는 [自由化時代]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쟁이나 유혈사태라도 일어나서 북한이 갑자기 망하여 되는 통일을 원치 않고, 다만 북한사회가 즉시 망하기를 바라지 않고, 한시 바빠 조속히 북한사회가 빨리 달라지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북한이 달라지기 전에는, 항복이 아닌, 통일노력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무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思想 때문입니다. 북한사회의 現代化는 경제적인 건설면 보다는, 精神的이며 思想的이며 意識的인 [自由化]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져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自由가 없는 곳에는 正義도 있을 수 없고, 眞實도 없으며, 진

정한 종교도, 자유로운 신앙도 있을 수 없습니다. 中東의 민주화 熱風은 사실상, 極東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東風입니다. 불행이도 아직도 잔존하는 無神論 共產主義 思想으로 인하여 북한도, 중국도, 이제는 現代化한 人類의 자유문화 차원에서 뒷북치는 100여 년 전의 꼴찌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는, 아니, 지금도, 세계 인류는 결코 피할 수 없는 [自由化時代]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쟁이나 유혈사태라도 일어나서 북한이 갑자기 망하여 되는 통일을 원치 않고, 다만 북한사회가 즉시 망하기를 바라지 않고, 한시 바빠 조속히 북한사회가 빨리 달라지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북한이 달라지기 전에는, 항복이 아닌, 통일노력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무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思想 때문입니다. 북한사회의 現代化는 경제적인 건설면 보다도, 精神的이며 思想的이며 意識的인 [自由化]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져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가장 부끄러운 20여만 명에 달한다는 탈북자 소식이나, 수준이하의 대부분 동포들의 비참한 가난과, 너무나 不自由스러운 억압사회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북한 동포들도 自由民主主義로 自力, 自立, 自治 精神으로, 굳세고, 바르고, 용감하게 살아나가도록, 우리는 힘껏 正直하고 眞率하게, 또 용감하게 윤리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남한의 일부 지성인들과 종교인들까지 잘못된 유물주의 고대사상에 물이 들어, 우리 신앙인들까지도 정직하지 못하고, 진술하지 못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북한사회도 近代化를 향한 개혁을 위하여, 무혈혁명으로 現代化를 위한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마치 모든 분야에서, 이른 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외치던, “페테스트로이카(改革)” 나, 전후 월남의, “도이 모이(혁신)” 운동을 부르짖던 양심과 애국심을 본받아, 북한 지성인들도 한시바빠 개방과 개혁의 길로 첫 발을 내딛도록, 우리는 힘껏 바르고 참된 말을 거듭

하여 지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으로, 특히,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진솔하게 말하며 후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국에 성당마다 신도들이 촛불 들고 모여서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의 정치인, 언론인, 교육가, 종교인, 법조인, 예술인, 등, 知性人들이 북한사회 현실에 대한 言行에 있어서, 보다 正直하고 眞率하게 말해야 합니다. 不當한 제도와 非人間的 참혹한 人權 現實에 대하여, 분명하고 용감하게 알려야만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북한 현실에 대하여 침묵할 의무가 없고, 침묵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침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우리는 비겁한 하수인이거나, 침묵할 권리가 있다면, 우리도 잘못된 같은 길 위에서 함께 거닐고 있는 동료들이나 공범자들입니다. 침묵은 묵인이고, 동조이므로, 공범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천주교 교구장 주교의 사목지침을 따르는 진정한 성당이 하나도 없고, 사제도 없으며, 수녀도 없고, 성직자들의 거주나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해방 직 후만 해도, 50여개소의 천주교 성당들과 5만여명의 천주교 신도들이 있던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소련과 중국에도 성당들이 있고, 신도들과 사제들이 있는데…! 종교적 신앙의 자유는 인권 신장의 척도입니다.

침묵은 바로 묵인이요, 동조며, 共犯이 될 수도 있으니, 천주교 신앙부재 북한의 참혹한 현실에 관하여는 철저한 병어리가 되어버린 남한의 일부 知識人들이, 자유와 풍요가 세계 선진국 수준인 남한 사회에 관하여는 達辯의 억지 비판을 넘어, 반대와 방해를 일삼으며, 심지어, 위대한 선진화 경제대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敵對視하며, 國力을 瓦解시키고, 無力化시키는 일에만까지 후안무치하게 나서며, 쌍지팡이를 짚고 난리를 치는, 일부 남한의 지성인들이 있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실로 너무나 正直하지 못한 처신으로, 良識(양심과 상식)의 함량미

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사회의 진실에 대하여 우리 知性人들의 비겁한 침묵으로 북한사회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억제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가능성이 얼마나 증가되고 있으며, 전쟁이 어떻게 얼마나 예방될 수 있는지?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발전 실험으로 강대국들의 신무기들이 집합하여 신무기 대목장이 열리고 있지 않은지 !? 북한의 自由化와 民主化에 무관심한 우리의 침묵이 현실개선에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自由不在 사회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일부 종교인들과 지식인들까지 철저히 침묵하는 것이 무슨, 어떠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살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한 신도들이고, 진리의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성당마다 교우들이 촛불 들고 모여서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그 어떤 경우에,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전쟁은 비참한 파괴의 [현마을운동]이니, 대도시를 건설한 선조들의 [새마을운동]의 피땀을 불사르는 민족사적인 비극입니다.

우리 모두가 自由의 殉教者, 正義의 勇士, 眞理의 宣言者로서 소박하고 진솔한 信仰人들이 되어 살다가 죽을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정성껏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We are Martyrs of freedom, Warriors of justice, and, Speakers of truth!) 오늘의 이 위대한 大韓民國을 再建한, [새마을 運動家들]을 없이하려고, [현마을 運動人들]이 나타나서, 심지어 貧者와 弱者로까지 偽裝하고, 각계각층에 끼어들어, 철면피하게 발광하며, 동분서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민족 수치의 역사 현장과 시국을, 우리는 더 이상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시국에 성당마다 교우들이 촛불 들고 모여서,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그 어떤 경우가 와야, 기도하겠다는 것입니까 ?! 우리 모두가 自由의 殉教者, 正義의 勇士, 眞理의 宣言者로서, 진정한 信仰人들이 되어 살면서,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천주 성부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도록, 겸손하고 진솔한 기도를 바치며, 죽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의 人類는 전 세계 도처에서, 서로 크고 작은 집단학살(集團虐殺)을 일삼다가 마침내 집단자살(集團自殺)의 수단으로 집단자폭(集團自爆)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겨레를 불쌍히 여기소서!
Maria, Auxillium Christianorum, Ora pro nobis!

<이번 주 풍경소리. No. 47. 2011-03-01. 4:35,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 [평양도 잿더미]가 된다는데! /

이번 주 풍경소리. No. 282, 2015. 8. 11. 국무총리를 대통령 전권특사로 임명, 9월 초, 중국의 항일승전기념일 행사에 참석케 함이 차라리...! 참고> Msgr. Byon.

신앙은 칼보다 강하고, 하느님은 핵폭탄도 돌덩이로 만드실 텐데!! 核爆彈보다 無神論 共產主義 思想을 먼저 더 憂慮하며 祈禱해야!! 天主信仰만이 最強의 非核必勝의 武器!! 天主信仰人들이 너무나 極少數인 北韓과 日本, 中國에 天主信仰 있어야 亞細亞에 戰雲이 사라질 텐데! 北韓, 中國, 日本의 福音化는 大韓信仰人들의 使命이고 特恩! 韓·中·日은 大韓信仰人들의 殉教現場이고 殉教刑場! 平和統一에는 殉教信仰이 最于先 必要不可缺의 武器!

We are all, martyrs of freedom, warriors of justice, Speakers of truth !

● 작성일: 2016-02-12 00:47

236. 천진암성지 2016년 사순시기, 성주간 예절 시간표(2월 14일~3월 27일)

2016년 사순시기, 성주간, 부활절 미사, 예절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2월 14일~3월 25일,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광암성당)

3월 20일, 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오전 7시 30분 / 낮 12시

3월 21일, 성 월요일 미사: 낮 12시 /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광암성당)

3월 22일, 성 화요일 미사: 낮 12시 /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광암성당)

3월 23일, 성 수요일 미사: 낮 12시 /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광암성당)

3월 24일, 성 목요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광암 성당)

저녁 7시 미사와 주님 만찬 예절(광암성당)

저녁 8시~새벽 5시 밤샘 성체조배(광암성당)

3월 25일, 성 금요일 - 미사는 없음 -

오후 3시 십자가의 길(광암성당)

저녁 7시 주님 수난예절(광암성당)

3월 26일, 성 토요일 : 오후 6시 저녁식사

밤 10시 부활성야 미사(성모경당)

3월 27일, 주일, 예수부활 대축일 미사:

낮 12시(성모경당)

* 3월 28일, 부활주간 월요일부터는 종전과 같이 매일 12시 미사가 있습니다.

* 성주간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은총의 시기이니, 모든 교우

들이 성당에 가서 거룩한 교회 예절에 참석해야 합니다.

* 3월 26일, 성 토요일, 천진암 성지의 저녁 공동식사에 함께 하실 분들은, 참가비는 없으나, 다만 준비 관계로, 하루 전에 미리 천진암 성지 안내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764-5994〉 2016년 2월 16일 천진암 성지

● 작성일 : 2016-02-16 10:38

237. 레닌의 초대형 동상건립 터에 최근 세워진 모스크바 주교좌대성당 축성식!

며칠 전 天真會 미국 지부장 정베드로 회장이 모스크바 대성당 순례 기념으로 모스크바의 주교좌대성당 즉 구세주대성당(Ecclesia Redemptoris) 건축과 축성 및 현재 푸틴 대통령의 대성당 참배를 비롯한, 많은 화려한 성사거행 사진들이 게재된, 70여 면에 달하는 꽤 큰 소개용 사진책자를 보내왔습니다. 혼자 읽어보기에는 아까워서 간결이 소개합니다. 안내서마다 소개 내용이 소개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대성당건립현장 제75번 참조).

지난 2000년 성년 전야에 축성된 모스크바 총대주교좌 대성당은 無神論 共產政府의 그리스도교 와해 정책이 극심하던 시절, 즉 1931년에 러시아 공산당 스탈린 정권에 의해 폭파되어 완전파괴 되었었다. 그런데 공산주의 러시아 정부는 이 성지에 공산주의 러시아 대궁전을 대규모로 건립하는 동시에 450m 높이의 초대형 탑을 세우고, 맨 꼭대기에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론 실천의 구세주요, 선구자인 레닌의 초대형 동상을 건립하기로 되어 장기계획으로 추진하여왔으나, 1980년부터 시작된 모스크바 신자들의 끈질긴 대성당재건운동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어 1995년에는 본 건물 착공을 하게 되었고, 특히 모스크바 시장 루즈코프와 현 소련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과 협력과, 특히, 유럽 각국 그리스도교 단체들의 후원으로 공산혁명 이전에

있었던 그 옛날의 대성당이 전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再建 復舊된 것이다.

지상에서 천탑까지 높이는 103.5m, 내부 넓이는 27,000 m² (약 3,000평), 내부 천정높이는 79m, 벽 두께는 평균 3.2m, 그리고 지붕의 중앙 돔 직경은 30m이며, 내부에 굽은 기둥이 없어 10,000여명 신도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성당이다. 러시아 내의 聖地 再建 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스크바 시장 루즈코프는, “러시아 정교회 정신의 부흥운동의 출발이오 상징”으로 이를 강조하며 경축하였다. 그 동안 이 대성당에서 거행되고 있는 정교회 성사와 각종 행사를 보면 모스크바 총대주교(Patriarch) 알렉시오 2세 총대주교와 많은 주교들과 사제들이 수많은 신도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레닌그라드(Leningrade) 대도시 역시 옛날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여 페테르스부룩(Petersburg)으로 都市名을 되찾았고, 레닌의 동상은 철거되었다. 러시아의 여러 대도시에서, 특히 모스크바에서 주교좌대성당의 再建과 復舊는 반세기에 걸친 無神論 共產主義 宗主國이 有神論 그리스도교국가로 활발히 회복, 再建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수천만명을 숙청 참살하면서 레닌, 스탈린, 트로츠키, 등이 꿈꾸며 강조하던 노동자 농민들의 理想鄉 地上天國 건설은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내었으니, 노동은 그대로이고 가난은 더욱 심화되고, 自由不在 사회의 억압과 고통은 점점 가중되어, 서방국가 국민들의 자유와 엄청난 발전과 번영의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처참한 비극으로, 참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러시아가 되고 있었다. 神權이 무시되는 곳에 人權이 존중될 수 없고, 신앙과 종교는 법률 조항에만 자유라고 해놨을 뿐, 조직을 통한 선전과 선동과 지령과 감시와 억압과 위협으로 하는 통치는 오래 갈 수가 없었다. 神도 머물 수 없는 사회에 인간들은 살기가 더욱 어려웠었다.

기업가와 사장들과 부자들을 숙청과 제거의 대상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증오하며 제거하고 나면, 가난한 이들이 모두 기업가와 사장으로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부자와 기업가들은 없어졌는데도, 가난한 자들은 부자가 되지 않고 가난한 채로 그대로 노동자들로 남아있었다.

인간사회는 능력껏 일하며 돈 벌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 평등주의란 법률 앞에서 권리와 의무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타고난 재능과 취미와 소질도 강제로 동등하게, 동일하게 천편일률적으로 규격화하는 획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학문의 발전이나 인간생활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 무신론 공산주의 종주국이 스스로 유신론 자유주의 민주국가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은 인류의 앞날을 매우 희망스럽게 하고 있다.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유물사관을 배경으로 하는 일종의 철학이요, 사상이며, 신념이요, 신조요, 신앙의 성격도 띠고 있으나, 이를 정치제도화 하는 것은 실패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정치란 신념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를 정치제도화 할 때 백성들이 잘 살 수는 없다. 혹 잘 산다 해도 그것은 정치 때문이지, 종교 때문은 아니다.

종교와 정치는 서로 분리(separation)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서로 구분(distinction)될 수 있고,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치와 종교는 상호보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업가들과 회사 사장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줄 때 종이봉투에 넣어서 주지 말고, 마음으로 잘 써서 주어야 한다. 회사 운영도 법을 가지고, 법대로, 법조항대로만 하려하지 말고, 양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한다. 돈이 좀 있다고 해도, 가난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고 서글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노동자들도 기업가나 회사 사장들을 제거와 숙청과 투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존경하며 협력하는 동반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하여간 80여 년간 러시아 전국 각처에서 매일같이 귀가 따갑도록 외쳐대던 노동자 농민은 레닌이나 스탈린의 꿈과 이론대로 그들의 공약대로 하루 한두 시간만 일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지상낙원의 노동자 농민들이 아니고, 가난에 계속 찌들리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남한국민들이 북한동포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하지만 북한의 정치제도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 북한도 지난 반세기동안 귀가 아프도록 노동자 농민들을 추켜세우며 떠들어댔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북한의 노동자농민들이 가장 혹심한 가난과 고통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죽하면 매년 죽음을 무릅쓰고 수만 명 이상이 탈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니...! 저러한 지경의 북한 정치제도에 남한 경제를 맡기자는 일부 정치초년생들의 얼굴이 뻔히 쳐다보일 뿐이다. 제정신들이 있는지?

온 국민들은 제 정신을 좀 차리자.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저 많은 장점은 가리며 억지로라도 생트집을 하여 못된 목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쁜 나라인양 헐뜯는 이들은 북한으로 왜 가지 않는지? 미국을 미워하는 반미주의자들도 미국에는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민족이 현재 130만 명 이상 살고 있는 미국은 다민족국가다. 요즈음 민족자주라는 말로 민족고립을 향하는 폐쇄주의는 민족퇴보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뉴욕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민족의 자녀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어라. 그 좋은 재주를 모두 마음껏 갈고 닦고 발휘할 수 있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라. 북한은 젊은이들이 10여년씩 군복무에 청춘을 모두 써버리게 하지 말고, 세계무대로 모두 자유롭게 나가게 하여야 한다.

조직주의나 선동주의, 협박과 위협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러시아를 보라. 정치는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복

리를 위한 것이다. 젊은이들을 속이는 온갖 선전과 선동 다음에 오는 불만과 불행을 유혈사태로 해결할 수는 없다. Msgr. Byon 大韓族100년계획 天真菴大聖堂 건립 조감도(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대성당건립현장 제75번 참조).

● 작성일 : 2016-03-05 12:15

238. 3월 5일(토), 제216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사진화보),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하여...(오후 6시 ~9시)

2016년 3월 5일(토) 저녁, 제216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월례 첫 토요일의 천진암성지 촛불기도회(사진화보)가 고요하고 거룩하게 봉헌되었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원, 안양, 등지에서 모인 교우들은, 핵무기 전쟁의 위험 속에서, 우리나라와 겨레를 보호해주시도록, 성모님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님께 애타는 기도를 바쳤습니다.(오후 6시 ~9시)

제216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오후 6시 미사, 2016.03.05.)(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11번 참조).

● 작성일 : 2016-03-08 10:34

239. 2016년 3월 20일 ~ 27일, 성주간 예절과 부활절 미사 시간표

2016년 3월 20일~27일, 성주간, 부활절 미사, 예절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3월 20일, 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오전 7시 30분 / 낮 12시

3월 21일, 성 월요일 미사: 낮 12시 /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광암성당)

3월 22일, 성 화요일 미사: 낮 12시 /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광암성당)

3월 23일, 성 수요일 미사: 낮 12시 /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광암성당)

3월 24일, 성 목요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광암 성당)

저녁 7시 미사와 주님 만찬 예절(광암성당)

저녁 8시~새벽 5시 밤샘 성체조배(광암성당)

3월 25일, 성 금요일 - 미사는 없음 -

오후 3시 십자가의 길(광암성당)

저녁 7시 주님 수난예절(광암성당)

3월 26일, 성 토요일 : 오후 6시 저녁식사

밤 10시 부활성야 미사(성모경당)

3월 27일, 주일, 예수부활 대축일 미사:

낮 12시(성모경당)

* 3월 28일, 부활주간 월요일부터는 종전과 같이 매일 12시
미사가 있습니다.

* 성주간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은총의 시기이니, 모든 교우
들이 성당에 가서 거룩한 교회 예절에 참석해야 합니다.

* 3월 26일, 성 토요일, 천진암 성지의 저녁 공동식사에 함께
하실 분들은, 참가비는 없으나, 다만 준비 관계로, 하루 전에 미
리 천진암 성지 안내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764-5994〉

2016년 2월 16일 천진암 성지

한반도 핵전쟁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에, 부활신앙으로 난

세를 극복하자!

천주교 신앙의 특징은 부활신앙이다. 부활은 만민의 공통된 소원이요 희망이었다. 역사와 문화를 따라 표현만 대동소이하였다. 피라미드, 무덤, 제사, 등이 다 인류의 그 몸부림이다. 후세와 사후에도 현세 인간생명 생존을 바라고 믿었다. 다만, 復活, 回復, 再生, 再活, 제2의 出生, reurrection / revive / renaissance / regeneration / 새출발, 새생명, 새로운 樣式의 인간생명, 등 여러 표현을 사용하였다!

부활은 임종이나 운명 직전 육신생명의 회복이 아니다(큰 수술 후 회복실에서 중환자에 관한 표현처럼). 사실 부활은 영혼 육신이 일치결합한 온전한 인간의 신비적인 완성을 말한다. 나비나 잠자리나 매미가, 전생의 누에나 굼벩이나, 애벌레 시절의 생명의 부활이나 회복이 아니고, 새로운 제2의 생명의 출발, 인간생명의 새로운 樣式의 출발이다. 주님의 부활신앙을 생활한 모범은 성모님과 사도들의 일생이었다.

신약성경이 전혀 없던 시절, 성당과 교회 공동체가 아직 형성되기 전, 당시 세속은 로마 대제국이나 중국에서도, 천하통일이라는 정복전쟁과, 복수전쟁 시대였으나,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사방으로 흩어져 부활신앙을 몸소 실천하면서, 일생을 바쳤는데, 사도들처럼, 사도시대 신앙을 닮은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들은, 자발적으로 천주교 신앙공동체를 이루며, 가장 아름다운 천주교 신앙생활의 부활신앙 모범을 남기셨다.〈현 교황님은 작년 3월 12일 로마 교황청 정례 단체예방(ad limina)한 한국 주교님들에게 실로 가톨릭교회 심오한 교의를 말씀하셨다.

사도들, 특히 성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형에, 바오로는 참수형에, 야고버는 돌팔매 물매로… 등, 모두 장렬한 순교를 감수하였다. 참수 전 희색이 만면하던 정하상, 김대건 신부의 열변을 묵상하자. 멸시와 무시와 가난과 유배와 굶주림과 온갖 고난을 초탈한 우리 부활신앙의 선조들!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모든 나라가 전염병과 심지어 집단 자살 테러, 등으로 지금 전란에 휩싸여 있다. 사실 이 세대는 전쟁 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특히, 북한은 가공할 핵무기와 장거리포로 미국 본토 공격까지 폭언으로 장담하고 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불의와 싸우며, 죽음의 세력을 이겨나가자.

우리는 이미 부활생명을 지니고, 부활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을 내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16/3/26. 광암성당에서 강론 요지. Msgr. Byon

● 작성일 : 2016-03-17 11:07

240. 경갑룡 주교님 입원 중태 80여일 ! 성삼일간 신도들 기도로 입과 혀만이라도 풀렸으면!!!

성 요셉축일(2016. 3. 19, 토요일) 오후, 입원 중이신 경갑룡 주교님을 잠시 문병하였습니다. 성삼일에 우리 신도들이 특별한 기도를 바칩시다. 잃은 양을 찾아다니느라 고생하는 목자가 병고에 시달리며 고통 중에 있으면 우리 양들은 마땅히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지난 연말(2015. 12. 31)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출혈(?)로 수술 후, 3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도 중환자로서, 일체 말씀도 못하시고,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안정 치료를 위하여, 문병이나 면회가 일체 금지된 상태인데, 필자는 하루 전 아주 어렵게 허락을 받아, 아주 잠깐 뵙을 수 있었습니다. 경주교님이 필자를 알아보시고, 눈매와 입술을 조금씩 움직이긴 하셨으나, 말씀을 전혀 못하시고, 손발도 일체 동작을 제대로 못하시나, 그래도 3개월 가까이 모시는 간병사들은 경주교님의 의사 표현 노력을 감지하여, 필자에게 통역(?)하여 주었습니다. 필자가 올 거라는 소식을 하루 전에 들으시고, 문병 당일 오후에는 고통중

에도 저를 기다리는 의사표시를 하시며 계셨습니다.

경갑룡 주교님은 저보다 10세 연상으로 금년 87세이신데,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 보좌주교, 주교회의 한국천주교회200주년기념준비위원회 위원장(1980), 대전교구장, 등을 역임하시며, 한국천주교회 성장의 격동기에 갖가지 난관을 무릅쓰시며,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1980년 5월 6일, 신장본당(지금의 하남시)을 방문, 장시간 기다리시다가, 천진암 성지에 다녀오는 필자를 만나보시고 가셔서,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님의 동의를 얻어, 필자를 주교회의 한국천주교회200주년기념준비위원회 초대사무국장으로 임명하셨는데(1980년 5월 16일,) 3일 후, 바로, 5·18 광주사태(당시 언론의 보도 표현)로, 광주, 목포, 나주, 순천, 등이 관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면서,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로 걱정이 극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연일 핵폭탄과 장거리 탄도탄 발사, 등 핵전쟁의 운이 점점 짙어지는 지금, 전란의 위협으로 불안한 때일수록, 실로 험악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도들은 침착하고 용감한 국민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 하겠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이 나가는 이 살벌한 길에서 적은 도움이라도 받도록, 특히 용감한 경주교님을 본받도록, 당시 한 가지 일을 알리고 싶습니다.

당시는 한국천주교회200주년기념 대행사를 거행한다거나 준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리라고 모두가 생각할 수밖에 없던 시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필자도 불안한 마음으로, 평소 좀 알고 지내던 주한교황 대사 Luciano Angeloni 대주교님을 뵈고 소견을 청하였더니, “장마철에는 풍세가 사나워도 날씨가 항상 그렇치는 않을 것이니, 하늘은 반드시 본래의 맑고 밝은, 청명하고 좋은 하늘 즉, “sereno cielo”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교님들의 결정을 따라, 200주년 기념행사 준비 계획초안 수립을 착수하라.” 고, 필자에게 용

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각 교구 총대리 신부회의 소집 자체가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경주교님의 독심과 추진력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교회 내외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심하던 때, 준비위원장 경주교님이 아니었다면, 지난 200주년 큰 행사와 성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의 첫 방한과, 103위 시성, 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경주교님의 쾌차를 위하여, 이번 성3일간, 모든 신자들이 기도 중에 꼭 기억하며 성모님께 간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 중태로 고통 중이신 경주교님을 문병하던 날, 대전 국립현충원에서는, 6.25 사변(당시 표현)때, 일등상사로 전역한 역전의 용사 중 친지 한 분(안성, 가스팔 최동국 웅)이 90세로 선종하여, 현충원에 안장되므로, 묘지 축성 및 하관기도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웅은 1945년 해방되던 해 봄, 18세 때, 15세의 어린 소녀와 결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동아전쟁 말이라서, 일본이 정신대(위안부)로 보내려고, 시골마다 소녀들을 강제차출 하던 때였으므로, 이를 모면하려고, 어린 나이에든 우선 혼례를 하게하고, 시집 부모는 길가의 밭 300평에 초가삼칸을 마련하여, 새 살림을 차려주었고, 최가스팔 웅은 같은 집에서 8남매를 낳아 키우며, 70여년을 같은 집에서 살다가 90세에 선종하였습니다.

천진암성지위원회 2대 위원장으로 20여년 이상 봉사하신 강영훈 전 국무총리(중장 예편)역시 1951년, 1·4 후퇴(당시 표현) 때, 사단장(?)으로, 육군 준장이었는데, 남하한 중공군을 물리치며, 서울을 재탈환한 후, 신희 살림집으로 가족을 위해, 서소문 서쪽 산비탈 피난민 촌에 있는 판자집(대지 50평)을 사서, 살면서 아들 딸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켰고, 지금도 같은 집에서 70여년을 그 비좁은 터에 개축한 같은 집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골목길에 주차장도 없이!!! 우리 모두 노동의 댓가로만 살고, 노동의 댓가만큼만 사는 것을 만족히 여기며, 위대한 역전의 용사들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정신적 교과서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Msgr. Byon

● 작성일 : 2016-03-24 23:36

241. 4월 2일(토), 제217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사진화보),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하여...(오후 6시 ~9시)

매월 첫 토요일 저녁에 바치는 천진암성지의 월례 촛불기도회는 오후 6시부터 여러 사제들이 [성모신심 미사]를 봉헌하고, 이어서 촛불을 들고 묵주의 기도 15단을 정성껏 바치며, 세계 평화의 성모상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平和統一은 공짜통일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은 統一戰爭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기도와 희생과 인내와 보속과 봉헌으로 점철된 殉教統一입니다. 죽고 죽이는 武士掌風이나, 西風과 대결하는 東風보다도 더 막강한, 천상에 계신 성모 마리아의 聖母 天風 까지도 동원하는 기도와 보속이 전제된, 天主님이 도와주시는 초자연적 戰力에 의해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통일입니다. 天主 聖父님의 神風으로 온 우주 천체가 再改되기 전에, 기도와 보속의 天風으로 우리나라와 우리겨레를 平和統一합시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면 하늘도 말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피흘리는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전범자들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천주님께 기도합시다 !!!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특히 극동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빈약한 국가들이, 무력 강국화와 경제대국화에 집중하면서 영토확장까지 추구하는 이웃 중국, 일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핵무기 신앙에 집착하는 북한을 대하고 있는 우리로서, “세

계평화의 성모님”께 진심으로 열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남북한이 모두, 중국과 일본, 특히 북한도 더욱 진솔하고 정직하고 겸손해지고, 남한도 오락과 유흥과 사치와 향락을 줄이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 개인들도 국가도 모두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대가 천주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平和統一은 공짜통일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은 統一戰爭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기도와 희생과 인내와 보속과 봉헌으로 점철된 殉教統一입니다. 죽고 죽이는 武士掌風이나, 西風과 대결하는 東風보다도 더 막강한, 천상에 계신 성모 마리아의 聖母 天風 까지도 동원하는 기도와 보속이 전제된, 天主님이 도와주시는 초자연적 戰力에 의해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통일입니다. 天主 聖父님의 神風으로 온 우주 천체가 再改되기 전에, 기도와 보속의 天風으로 우리나라와 우리겨레를 平和統一합시다!

제217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오후 6시 미사, 2016.04.02.)(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15번 참조).

● 작성일 : 2016-04-08 22:07

242. 수백만 명이 죽은 후, 잿더미 앞에서 위령미사 봉헌보다, 언론계와 종교계는 핵무기 파기 기도와 반핵운동을 !

일촉즉발의 핵전쟁을 향하는 한반도 위기에, 세계 언론과 종교계는 어찌하여 수수방관하며 침묵하며, 신앙인들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 군사무기의 非核化運動과 反核講論을!

- “DENUCLEARIZATION MOVEMENT를 외칩시다!” -

수십만 명이나 수백만 명이 불에 타서 죽은 갯더미 위에서 합동위령 미사를 올리는 대규모 행사는 너무 늦은 신심이 아닐까?! - 이슬람 무장단체의 자살테러로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하는 참혹한 비극에 비교가 안 되는 가공할 핵전쟁! 언론계와 종교계는 武器 非核化運動과 反核運動을!

1945년 8월 5일, 원자폭탄 투하 직후의 일본 히로시마(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시사자료실 제302번 참조)!

非核化, 武器非核化, 反核運動 (DENUCLEARIZATION MOVEMENT)의 세계화가 시급합니다!

한반도 핵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에, 전 세계 언론과 종교 지도자들은 왜 침묵하고 있으며, 신앙인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핵전쟁 현장 문턱의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성공은 세계 비핵화의 출발입니다! 우선 북한같은 작은 나라의 적은 핵부터 비핵화하여, 차차 강대국들의 어마어마한 무기의 비핵화까지 확대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인류가 적어도 무기의 비핵화만은 성사시켜야만 합니다. 핵무기나 원자력 무기 사용은 70여 년 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끝나게 해야만 합니다. 연일 핵보복 선제공격 능력을 과시하는 발표가 대결상태의 남북 양편에서 반복되는 가공할 시국에, 세계 언론들의 침묵 방관과, 전 세계 굴지의 종교인들조차 왜 반병어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심지어 국내 일부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무언으로 수수방관하며, 축구시합 구경거리만도 못한, 실로 관심 밖의 일로,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듯합니다.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이어지는 자살폭탄의 집단 살해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십만 명이나 수백만 명이 일순간에 불바다 속에서 재가 되고, 파괴와 방사능 오염으로, 수백 년간 이상이 생존 불가능한 폐허의 불모지화 한다는 핵전쟁 터를 모르지 않으면서!!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무기의 비핵화를 위한 반핵운동(非核化運動, DENUCLEARIZATION MOVEMENT)”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핵화 운동의 대변인 사

명을 명심하고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시작합시다. “비핵화 운동(非核化運動, DENUCLEARIZATION MOVEMENT)!”

국가간에 인류의 일반 생활필수품 무역거래에 비하여, 천문학적인 거액이 오고 간다는, [무기거래], 특히 핵무기 관련 장거리 탄두 미사일과 핵탑재 항공기와 통신기, 등의 밀거래로 얻는 국가 수입으로, 이른 바, 흔히, 아주 [잘 산다]는 큰 나라들의 언론과 종교역시, 지성인들과 신앙인들도 호강에 겨워서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무기를, 특히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팔아서, 그 돈으로 잘 산다는 것은, 매우 [잘못 사는] 것입니다. 대도시들을 불바다로 만들면서, 순식간에 수십만, 수백만의 대량 인명살상과 동시에 반만년의 역사 현장들을 잿더미로, 정말 초토화(焦土化)하려는 서론과 전주곡같은 잔인한 폭언을 감상만 하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인가? 온 인류가 마음을 바로잡도록 기도하며, 보속하고, 서로서로에게 알리고 가르쳐서, 자멸의 핵무기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비핵화 운동(非核化運動), 반핵운동(反核運動) - DENUCLEARIZATION MOVEMENT)!”

핵공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의 핵공격 직전의 핵기지에 대한 선제 핵공격이 불가피하다는 병법과 작전을 타하기도 어렵지만, 동포들의 생활고를 예견하면서도, 부득불 각종 제약선택을 시행하려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주변 강대국들의 양보없는 이해관계 틈바구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좌불안석으로 피를 말리는 위치에서 苦心焦思하는 통치자로서, 핵전쟁 현장화로 치닫는 급박한 한반도에서…! 不撤晝夜로 無血統一을 염원하며,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상호신뢰구축을 형식상으로라도 반복해야만 하는 처지가 아닌지?! 그러나, 하늘이 도와서 한반도 비핵화가 성사된다면 이는 바로 세계 인류의 비핵화로 나가는 거룩하고 위대한 걸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희생적인 비핵화 노력으로 세계의 비핵화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성공하지 못하면, 전 세계 강대국들의 비

핵화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성공한다면, 강대국들의 무기 비핵화를 훨씬 더더욱 쉽게 하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인류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만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강대국들이 보유한 핵그늘 아래서 공멸의 공포와 불안으로, 죽음을 참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실로, [죽어가는 고통을 참는 것으로 생명을 연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즉, 온 인류가 인사연생(忍死延生- 黃嗣永 帛書의 末尾 名言.)의 시국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반핵정신과 비핵화정책은 정파와 당파를 떠나서 온 국민이 전 인류와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 지지하며 함께해야 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天命이고, 전 세계 인류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최급선무의 사명입니다. 전 세계 지성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입을 열어 적극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핵무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겠다는 것은 무역이 아닙니다. 현대 인류에게 가난을 해결한답시고, 더 큰 가난을 물려준, 비극의 원천이 되는 공산주의 방법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그칠 줄 모르고 일어나는 크고 작은 폭력과 무죄한 인명 피해도 참기 어려운 비극이지만, 수십만, 수백만 集團自爆의 참극을 예방하려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하여, 시시각각으로 악화일변도로 변화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 현장에서, 우리 종교인들은 목이 쉬도록 애타게 외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켜야 합니다. 세계 모든 良識있는 언론들과 신앙인들은 자발적으로 총동원하여, 주저함 없이, 즉시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강대국들과 세계 인류 전체의 비핵화를 위한 장족(長足)의 출발을 한반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성공으로, 핵무기의 씨앗을 뿌린 강대국들의 비핵화역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할 사명이 오늘의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락과 유흥, 사치와 향락에 도취되어, 핵무기가 통치하는 현장에서, 오늘 우리는, 한마디 바른 말이라도 보태고 함께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인색할 수는 없습니다! “비핵화 운동(非核化運動, DENUCLEARIZATION MOVEMENT)을!” Maria Auxillium Christianorum, ora pro nobis! – Msgr. Byon

Korean Peninsula in flash point of nuclear war now !Miserere nostri, Domine, Miserere nostri ! in front of nuclear war !

Denuclearization needs prayers and plea of all the religions' leaders and of all the media right now for it in such urgent flashpoint of a nuclear war by N. Korea's threat with nuclear weapon against the denuclearized R.O.K. &against the regular military exercise preventive of the U.S. jointing force. All the countries of our humankind should be denuclearized in imitating S. Korea !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can be the first practical step so that all the other powers' nuclearized weapons will be disappeared, because Korean Peninsula today is only one frontline of war field, where the communism and the democracism are conflicted even by nuclear bombs !

In such a kind of an urgent warlike flashpoint, all the religious leaders, faithful peoples, and all the peace loving media can not but be sincere speakers of truth and be warriors of justice ! They do not have any kind of responsibility to be silent, nor, to have any right to speak of it in other ways differently from their conscience ! That which the korean president, Miss Park, Juliana, work all day and night to devote herself for denuclearization of Korea Peninsula must be a starting step to make all the human being free, safe today from the terrible nuclear war tomorrow by powers' war weapon nuclearized ! Before

almighty and merciful God, all the religious leaders, all the faithfuls, and all the journalists with their press and media systems have to raise their voice tone, all together with our president for the denuclearization !

Msgr. Byon. 2016. 03.09.

Maria Auxillium Christianorum, ora pro nobis! -

- 비핵화운동(非核化運動, DENUCLEARIZATION MOVEMENT)! -

Maria Auxillium Christianorum, ora pro nobis! - Msgr. Byon

- 강대국들의 무기 밀거래와 핵무기 제조 비판과 반성을! -

핵무기를 먼저 개발하고 제조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약소국들과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강대국들이다. 또 「강대국」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없어도 아무런 위협을 받을 수 없는 것도 강대국들이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는 「맹수」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무기이므로, 별도 무기가 불필요하나, 스핑크 같은 연약한 동물들은 독한 방귀 같은 자신 보호무기가 필요하듯이, 사실상 핵무기 개발 제조 보유의 필요성은 약소국들에게나 있음직한 구상인데, 오늘날 핵무기란 강대국들이 먼저 만들어가지고 갖가지 목적으로 약소국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아이들은 어른들한테서 거짓말과 욕설을 배우듯이, 약소국들이 핵무기 보유병에 전염되어, 강대국 흉내를 내보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따지고 보면 그 책임이 먼저 「강대국」들에게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핵무기 사찰은 강대국들이 먼저 약소국들한테 수시로 받아야 할 일이며, 또 만일, 약소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대국들을 점령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핵무기 폐지는 강대국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일이다.

특히 우리가 근세에 와서, 대륙 민족들로부터의 1637년 병자호란과 해양 민족들로부터의 1593년 임진왜란 등을 겪으며, 비

참한 전란에서 살아남은 선조들의 후예인 우리로서는, 특히 통일한국을 내다보면서, 핵무기 보유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약소국이든 강대국이든 간에 제 정신을 잃은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최후로 의지하는 대상인 神처럼 모시고 받들고 있다. 즉, 핵무기 신앙시대다. 그러나 핵무기란 장기 독재국가들의 체제 유지나 빈곤한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백해무익할 뿐이며, 각국의 자국 방어나 타국 침범에도 사실상 실용성이 없는 무기이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분명히 무용지물이다.

예를 들어,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와해되었으며, 아직도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는가? 소련의 핵무기가 미국의 핵무기보다 성능이 낮고 분량이 적어서 소련의 와해를 막지 못하였는가? 따라서 미국은 핵무기 덕택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이루었는가? 미국이 핵무기 개발과 보유비용으로 세계 저개발 빈민국가들을 지원하였다면, 세계 만민으로부터 감사와 칭송 속에서, 오늘과 같은 갈등과 자살집단 테러도 줄었을 것이며, 지구는 하느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간들의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을 것이다. 소련과 중공, 등이 핵개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로이 잘 살면서, 세계 인류 번영에도 크게 기여했을 것이며, 자국들도 더 큰 평화 속에서 더 잘 살게 되었을 것이다. 핵무기는 자신도 남들도 잘 살 수 없게 불안과 공포와 교만으로 마침내 자멸과 공멸로 가게 하는 악마의 손길이다.

사실상 약소국들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없는 동시에, 약소국들 자신의 체제 유지에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약소국 자신들의 조직 붕괴에 가속제가 되고, 빈곤심화의 촉진제가 될 뿐인데도, 전 세계의 정치가들은 인류 자멸의 핵무기 개발, 제조 등에 엄청난 자금과 정성을 바치며, 「핵무기 신앙」에 빠져 있으니,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간에 핵무기에 매달리는 나라는 광인집단이 아닐 수 없다. 핵무기를 제조,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은 도대체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가난하고, 무지하고 순진한 약소국 국민들을 집단 살해하는 무기들을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소위 선진 강대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마시는 커피가 약소민족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무기를 팔아 벌어들인 돈으로 보다 싼 값에 사서 마실 수 있는 것이니, 저들의 커피에는 약소민족들의 피가 섞여있고, 또 자신들이 값싸게 사먹고 있는 빵에는 약소민족들의 살덩이가 섞여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는가?

집단 살인무기를 제조 판매한 자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강대국의 국민들은 살인강도들의 가족들이 아닌가? 무서운 집단 살인무기를 만들어 팔아먹는 나라에는 사람다운 사람들이 없고, 사람의 모습을 가진 늑대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강대국의 언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집단 살상 무기 대량생산과 무역거래에 관하여, 침묵할 의무가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핵무기 때문에 가공할 전쟁 위협으로 치닫고 있다. 핵무기 개발이나 제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순수 산업발전용이라던 북한의 핵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큰 소리가 자연스레 나올 정도의 수준임을 드러냈고, 북한 핵을 막아야 한다는 불가피한 이유로,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미군의 부대 훈련장으로 쓰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있다. 누구도 달갑게 여길 수 없는 미사일 배치 요청이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는 바로 중국대륙까지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냐고, 대륙 민족의 눈매를 달라지게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와 열강들과의 관계, 또 이념과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상이한 체제와 관계, 등으로 반핵적인 발언이나 주장에 대하여, 각기 전혀 다른 각도에서, 특히 남북과 열강들과의 이해관계 면에서 오해와 증오, 소외와 보복 등이 걱정스러워 사실상 속에 있는 말을 시원하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인들 중에도 핵무기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고, 미국을 싫어하는 일본인들이 모두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므로, 반

핵주의와 반미주의가 다르고, 반미주의와 용공주의가 다른데, 왜 아시아를 불바다로 만들 성냥개비가 한반도에서 춤을 추는 마당에, 무슨 독감에 걸렸길래 한국언론들의 목소리는 숨겨가는 모기들의 울음소리같이 멀리 가날프게 귀 밖에서만 울린 뿐인가? 국제적인 열강들의 세력은 언젠가 바뀌게 되고, 모든 나라 국민들의 사상도 변하고 있지만, 민족들은 보다 영구적이며, 그 생존은 절대 선천적인 것이 아닌가?

이제 소련의 민주화와 인도주의화, 한마디로 소련을 변화시킨 힘이 미국의 핵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 소련의 회개와 개방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핵무기 덕택이 아니다. 또 미국을 위시한 서방 열강들의 외교역량 덕택도 아니고,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발전 덕택도 아니다. 소련 개방에 핵무기가 기여한 역할은 없었다. 또 동시에 소련의 개방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력 때문에도 아니다. 무력이나 경제력의 격차나 불균형은 국가들간의 편파와 세력별 단결을 강화시키며, 나아가서는 국가들간의 전쟁을 야기시키기 쉬울 뿐이다. 한마디로 돈(경제력)이나 칼(무력)이나 말(외교수완)로 소련이 회개하고 개방되어, 인도주의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황님의 권고를 따라, 전 세계 천주교 신도들의 기도와 성모님의 도우심 덕택이다. 신자들의 기도와 성모님의 간청을 들으시는 천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셨기 때문이다. 소련의 변화는 천주께서 현대 인류에게 읽어보라고 주시는 교과서이다. 천주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헛소리이며, 공염불에 불과하다.

체육경기와 무기 제조라는 인간들의 완력과 무력 향상이 오늘날 인류의 문화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가게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지성인들이 장님이 되어 있다. 마치 경제발전이 국가존립의 유일한 목적인양 생각하면서, 또 지금도 무력이라는 것이 아직도 각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시대로 여기고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나라가 경제발전과 신무기 개발과 제조 판매 계획에만 광분하고

있고, U.N. 이라는 이름아래 국제회의는 장사꾼들의 노천시장처럼 되고 있을 뿐이 아닌가 한다.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가들과 언론인들은 천주교회가 마치 사회의 경제 문제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정치 조직이나 자선단체 조직체인양, 은연 중 복음의 변질을 시도하며 강요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는 자신들의 업무를 남들에게 떠넘기는 직무유기이다. 정말 교회내의 일부 신앙인들까지 교회가 사회의 가난을 해결하는 단체요 기관인양 오판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좀 제 정신을 차려야 하겠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물질적 지원에만 너무 집중되어 이해되고 있다. 사회복지문제가 가장 최고 수준으로 해결된 북 유럽이나 서방 선진국의 국민들이 천주공경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사실 소련이 회개하고 개방된 것은, 전 세계의 천주교신자들, 특히 매년 6백여만 명씩의 신도들이 로마 교황님의 권고를 따라, 파티마, 루르드, 반뇌 같은 여러 성지를 순례하면서,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론 사회주의 소련의 회개를 위하여,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회심을 위해 성모님께 기도한 덕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남북통일도 신자들의 기도가 선행되고 지속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남북한 동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의 남북통일에 북한의 책무기가 아무런 기여도 못할 것이며, 미국의 책무기 덕택으로 우리겨레가 통일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 무력으로 통일해보겠다고 전쟁을 일으켜도, 기껏해야 휴전선의 이동으로 끝나는 전란에 그칠 것이며, 우리 민족의 엄청난 인명피해만 있을 것이다. 또 북한 공산주의 사상의 힘이나, 남한과 자유세계의 경제력 덕택으로 통일되지도 않고, 또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의식 수준과 가치관의 일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의 손이건 자신의 손이건 간에, 손에 잡혀 있는 칼이나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즉 무력이나 금력으로는 통일되지 않고, 일시 점령되거나 합병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외형

적 체제상의 합방이나 점령이라는 것은, 내면적이며 정신적인 사랑과 이해로 이루어지는 참 통일은 아니다. 이제 남북통일은 진정한 한민족의 참된 통일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신도들은 우선 전 민족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발전적 변화를 위하여 힘쓰며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해와 사랑으로 민족통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이 무심할 수가 없다. 천상에 계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특히,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며, 지상 교회의 어머니이시고, 신도들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마침내 한겨레 하나되어 평화로이 공생하는 평화통일의 결실을 맺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는 분열하거나 서로를 죽이려는 전쟁의 비극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다. Msgr. Byon ! <1994. 5. 25. Chon Jin Am, Monthly Bulletten>

Les armes nucleaires des grandes puissnces

De nos jours, en fabriquant et en possedant les armes nucleaires, les pays puissants menacent les petits pays faibles voire me?me l'humanite tout entiere. Etre un pays puissant signifie deja en soi avoir une arme la plus forte, et, sans me??me posseder d'arme nucleaire, n'avoir pas a craindre d'e??tre menace. Le lion et le tigre n'ont d'autres armes que leur force et leur ferocite. Le fait d'e??tre fauve levient l'arme la plus redoutable. Par contre, les petits animaux faibles ont besoin d'un systeme de protection.

Par exemple, la mouffette secrete et projette, comme moyen de defense, un liquide d'une odeur infecte. C'est une question ineluctable de survie. Ainsi, dans les petits pays faibles, l'idée de posseder des armes nucleaires

pourrait provenir de leur état de nécessité. Surtout, dans un pays comme la Corée qui a enduré des guerres d'invasion au cours de son histoire : du continent, elle a eu l'invasion chinoise (Byung-Ja-Ho-Ran en 1637), de l'océan, elle a eu l'invasion japonaise (Im-Jin-Oue-Ran en 1592).

En toute franchise, en tant que descendants des survivants de telles guerres implacables et prévoyant la réunification de la Corée, il nous est difficile de repousser la tentation de posséder des armes nucléaires. Mais en réalité ce sont des pays puissants qui possèdent ces armes et, à leur profit, en menaçant les petits pays.

Comme les enfants apprennent le mensonge et l'injure auprès des adultes, les pays faibles sont infectés d'une maladie contagieuse ; l'envie de posséder l'arme nucléaire. Ils tentent d'imiter leurs prédécesseurs. Les pays puissants devraient se rendre compte de tout cela et assumer leur responsabilité. Il est donc équitable que les petits pays puissent effectuer de façon régulière l'inspection des armes nucléaires en commençant d'abord dans les pays puissants.

Même si de petites nations possèdent ces armes dangereuses, elles ne pourraient, en aucun cas, occuper des pays puissants. Comme on dit : "Rien n'est si contagieux que l'exemple", pour ce qui est de la suppression des armes nucléaires, les pays puissants devraient se montrer comme un exemple à suivre. Or, en ce moment, les hommes politiques du monde, que ce soient ceux des grandes puissances ou ceux des pays faibles, nous semblent vénérer comme Dieu, en les

considerant comme l'objet de notre dernier recours. Sans doute, les effets de l'arme atomique seraient effroyables. Mais elle n'est ni si puissante et ni si utile que nous le pensions. Autrement dit, elle ne peut prolonger le maintien d'un regime dictatorial ni porter secours aux pays pauvres ; elle n'est purement et simplement que neusable.

Du plus, nous pourrions nous poser des questions sur l'efficacite. des armes nucleaires pour la defense nationale de chaque pays. Prenons l'exemple de l'ancien U.R.S.S. : s'est-elle ecroulee parce qu'elle n'avait pas d'armes nucleaires? N'est elle pas dans la misere complete? Ou est-ce parce que ses armes nucleaires etaient moins nombreuses et moins puissantes que celles des Etats-Unis? Et en consequence est-ce grace a leurs armes atomiques que les americains ont accompli leur expansion economique, tout en sauvegardant un regime democratique?

La Russie et la Chine vivaient largement mieux que maintenant, si elles ne s'etaient pas tant livrees a la recherche nucleaire. De meme les Etats-Unis et d'autres puissances democratiques auraient pu contribuer plus a la prosperite de l'humanite et vivaient encore mieux aujourd'hui, s'ils ne s'adonnaient pas tant a recherche nucleaire. En fait, la possession des armes nucleaires par des petits pays ne peut etre une menace pour les Etats-Unis.

Et cela n'est pas une garantie de stabilite pour leur regime politique, quel qu'il soit. En revanche, cela va accelerer leur effondrement en aggravant le processus d'appauvrissement. En depit de tout, les politiciens se sont

voues entierement aux armes nucleaires en y investissant de facon insensee, et en y mettant le meilleur d'eux-me?mes.

Quel qu'il soit le pays qui se cramponne aux armes nucleaires ne peut que faire partie du groupe des fanatiques. Comment les consciences peuvent-elles rester silencieuses devant un tel abus? Pour quelle raison la bonne conscience des puissances nucleaires se retranchent-elles derriere le mutisme? Les peuples, soi-disant de pays developpes vivent en quelque sorte de la vente des armes qui massacrent les peuples pauvres et innocents. Du plus, ils concluent des mqrches e des prix de rabais avec cet argent malhonne??te, gagne par le carnage des innocents.

Comment ne peuvet-ils il savoir que le cafe qu'ils boivent est le sang de peuples faibles, et que le pain qu'ils mangent est la chair de ceuxci? Les peuples des grandes puissances dirigees par les fonds venant le la vente des armes, ne sont-ils pas de la me??me famille que celle des cambrioleur a main armee? Dans ces pays-la n'existent-ils que les loups sous forme humaine? Que sont-ils donc devenus les intellectuels? Que font-ells les presses de ces pays? Nous pourrions nous demander si tour(politiciens forçant l'achat des armes dangereuses, marchants des armes, les intellectules gardant le silence et vivant sans souci) ont le me??me et sont, au fond, est pareils a des loups.

Actuellement, la Coree court terriblement le danger de la guerre a cause des armes nucleaires. Au debut, les nord coreeens afirmaient que leur recherche nucleaire

serait purement destinee al'usage industriel. Mais recemment; ils ont laisse entendre un autre son de cloche, en disant : "Nous pouvons transformer Seoul en une mer de feu" pour contrecarrer cette affirmation menacante, sous le preteste d'empecher une attaque eventuelle du Nord, les Etats-Unis annoncent partout la mise en place de missiles en Coree du Sud, comme si cette peninsule etait l'un des camps d'entrainement de l'armee americaine. En l'occurrence, surprise, la Chine don't l'attitude redouble de vigilance a l'egard des americains, se demande si elle n'est pas la vraie cible de ceux-ci.

De ce fait, nous avons l'impression que les puissances occidentales, prenant certaines parties de l'Asie qui font probleme, tels que Hongkong, Taiwan; Macao et ainsi que la Coree du Nord comme tremplin de leurs..., amorcent leur "strategie de trente ans", qui a pour but de diviser la Chine en plusieurs blocs, de sorte que le grand bouleversement de l'Asie approche rapidement d'un moment a l'autre. Parmi les americains, il existe des gens opposes aux armes nucleaires. De meme parmi les japonais, il existe des anti-americais qui ne sont pas communistes. Ainsi, l'opposition au nucleaire est differente de l'anti-americanisme, et l'anti-americanisme ne correspond pas au pro-communisme.

Or, pour quelle raison, la voix des presses garde-t-elle un silence pesant? Au moment ou une meche, don't la moindre flamme provoquerait un grand trouble en Asie, guette l'occasion de s'enflammer, pourquoi n'entendons nous que les echos lointains et faibles de la presse, qui touche nos oreilles comme des bourdonnements d'insectes

mourants? Me??me si le pouvoir et l'ideologie changent d'un co??te a l'autre, que le peuple d'une nation n'est-il pas perpetuel et sa survie n'est-elle pas grandiose?

A present, nous sommes persuades que la force capable de transformer la Russie en voie de la democratisation et de l'humanisation, n'est pas du aux armes nucleaires des americains ni a celles d'autres pays democratiques. Le changement radical en Russie n'est pas fonde non plus sur la competence diplomatique des grandes puissances occidentales, ni sur leur expansion economique. Plus precisement, les armes nucleaires n'ont joue aucun ro??le dans la transformation de la Russie. En me??me temps, la puissance econmique des pays developpes de l'Occident n'a pas pu influencer l'ouverture de la Russie. En realite, le desequilibre des forces militaires et economiques ne peut que renforcer la situation d'inegalite et provoquer la guerre entre les pays opposes.

Bref, ni l'argent ni l'epee pas plus que le discours diplomatique n'ont pu toucher l'attitude fermee de la Russie. En se repentant, elle revient dans la bonne direction gra??ce aux prieres des fideles et a l'aide de la Sainte Mere. Dieu attendrit le coeur endurci des russes. La transformation de la Russie est pour notre humanite un livre de reference en provenance de Dieu. Par les competitions sportives et l'utilisation d'armes dangereuses progressent la violence et la force militaire. Beaucoup d'intellectuels restent aveugles quant aux consequences et a l'influence de ce genre de choses sur developpement de la civilisation humaine.

Il ne faudrait pas penser comme si la croissance

economique etait l'unique moyen de survie d'un Etat et mettre tout l'energie au service du projet de developpement econmique. Il ne faudrait pas non plus denaturer l'Evangile, en considerant l'Eglise comme une organisation fondee en vue de resoudre loutes sortes de problemes sociaux. Tout le monde doit reprendre ses esprits. Les pays developpes de l'Occident don't le systeme de securite sociale est arrive au plus haut niveau s'eloignent de plus en plus de Dieu. Qu'est-ce que tout cela signifie?

C'est un fait, derriere le repentir de la Russie, il y a les prieres de nombreux fideles du monde entier. Surtout suivant le conseil du Saint Pere, chaque annee, plus de six millions de fideles catholique se rassemblent aux lieux saints comme Fatima, Lourdes et Banneux et prient la Vierge Marie pour le repentir des communistes. C'est precisement gra??ce a ces prieres ferventes et perseverantes que Dieu a exauce leurs voeux. La reunification de la Coree egalement ne serait realisable d'abord que par la priere et la perseverance dans la priere.

Les armes nucleaires du Nord (si elles existent), ne pourraient en aucun cas contribuer a la reunification de la Coree. Celles des Etats-Unis n'ameneraient pas notre peuple e s'unir de nouveau. Ni l'ideologie communiste de la Coree du Nord, ni la puissance economique de la Coree du Sud ne sont pas capable de realiser notre re??ve : la reunification de notre pays.

Que ce soit de notre propre gre ou de la volonte d'autrui, la reunification est encore loin, tant qu'on essaie

de l'accomplir par la force militaire ou par le pouvoir de l'argent. Utilisant de tels moyens on pourrait peut-être occuper ou annexer un pays, mais rien de plus. Qui ne pourrait distinguer l'apparence de reunification par annexion ou occupation d'avec la reunification, realisee par la comprehension et l'affection interieure? Nous y arriverons finalement a l'aide de la Sainte Mere, en priant avec amour dans la serenite et dans la comprehension pour la reunification de notre peuple.

(Pere Pierre Byon Ki-Young, a Chon-Jin-Am, Berceau de l'Eglise catholique en Coree... 1994. 25. May, in Chon Jin Am —monthly Bulletten).

1945년 8월 11일, 원자폭탄 투하 직 후의 일본 나가사키 모습(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시사자료실 제302번 참조)!

Nagasaki, after bombardment of atomic bomb by B-29 fighter-bomber, A.M. 11:00 hours of the 9th, August 1945! There was only 1 country, United States, that could use the atomic bombs 70 years ago, when the world war II was terminated by only 2 atomic bombs.

“비핵화 운동(非核化運動, DENUCLEARIZATION MOVEMENT)을 ! 핵무기 포기 운동을 !”

“비핵화 운동(非核化運動, DENUCLEARIZATION MOVEMENT)을 ! [핵무기 포기 강론과 반핵운동]을 !” Maria Auxillium Christianorum, ora pro nobis!

Msgr. Byon

● 작성일 : 2016-04-09 09:02

243. 국민의 道理는 저버리고, 개인의 義理 때문에 투표한다면, 민주주의는 요원합니다 !

國民의 道理는 망각하고, 저버리고, 개인적 義理 때문에 선거에 임한다면, 우리사회에 민주주의는 요원합니다 !

이번 총선에 있어서도, 일부 국민들이 道理를 저버리고, 義理에만 매여서 선거한다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이 정도라면,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요원합니다.

형제간에나, 동향인들간에나, 학교 동문들간에나, 동업자들간에나, 동기생들간에나, 친구들간에 물론 義理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나 ,누구나, 모든 義理도 道理만은 따라야만 하며, 도리 안에서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총선이나 대선 같은 國家大事에 있어서, 도리를 망각하고, 도리를 저버리고, 의리만을 내세워 투표한다면, 그러한 망국 행위를 하는 국민은 민주주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적 선거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거에 있어서, 출마와 공천과 공약과 선전은 애국심으로 해야 하고, 투표와 개표와 발표는 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거행하는 神聖한 大事가 될 수 없고, 이름만의 선거는 놀이와 장난과 사업이나 경기에 불과합니다. 공명심으로 사업삼아 출마하거나 공천하거나 선전하며 투표하는 국민은 없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위급한 처지에서도, 올바른 말 한마디 자유로이 하지 못하는 이들은 애국심과 양심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나라의 존립에 전무후무 하리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참으로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는, 그래도 나라와 겨레를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진솔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공약에 남북의 민족통일이나 국가와 민족의 안보가 개인적 사리사욕과 당파적 주도권 확보에 파묻혀 실종된 느낌입니다.

自由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선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理性과 良識이 사라진 사람들에게도 선거는 불가능합니다. 국가적인 선거는 놀이와 장난이 아닙니다. 총선이나 대선 같은 국가대사 하루 전날은 온 국민이 오락과 유흥을 금하고 금식하며, 각자 천

지신명과 조상님들 영전에 정한 마음을 바치며, 신성한 선거자유와 권리를 거룩히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최초의 선출직 역사가 나옵니다(사도행전 6장 1절~6절). 신망이 두터운 7명의 선출직을 뽑기 전후에 사도들과 교우들은 피정신공하듯 기도하였습니다. 선거는 기도하면서 정성스러운 마음과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교황선거 때, 추기경단은 피정하면서 기도하며 선거합니다.

국가적인 선거 하루 전날은 적어도 술과 유흥을 금하고, 맑은 정신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뜻을 잡고, 옛 선비들처럼, 며칠 전부터, 이른 새벽 냉수로 몸을 씻고, 치성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침묵 속에서 깊이 생각하며, 천지신명과 조상님들의 영전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성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바로하며, 마음을 가다듬고서, 거룩히, 정중히, 정성껏, 진솔하게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선거하는 날은 먹고 마시며,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닙니다. 선거 전날과 당일엔 모든 국민이 오락과 유흥을 자제하며, 신앙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 단체에서는 이른 아침 국가적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을 위한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예식을 행하도록 합시다.

국가를 위한 선거입니다. 자신의 사업이나 명성을 위한 작당행위가 아닙니다. 국가적 선거의 聖化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Mgr. Byon

● 작성일 : 2016-04-10 20:41

244. 지진과 화산폭발, 해일과 핵실험, 원전붕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성모 신심은...!

지진과 화산폭발, 해일과 핵실험, 원전붕괴 시대에 성모 신심과 우리 신앙은 ?!

- 평소에 우리 모두가 무심히 밟고, 던고, 다니며 살고 있는 [땅]이지만, 이 땅은 우리에게 곡식을 내어주고, 가축을 키워주며, 우리가 집을 짓고 살게 하며, 길을 닦고 다니게 하면서도, 불평불만의 거부반응 표시나, 요구조건 한마디 없이, 우리의 생존을 지탱하여 주고 있다.

바다 물은 더하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땅과 바다의 고마움을 모르고,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을 지키고, 아끼고, 가꾸고, 사랑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이 고마운 땅과 바다를, 더럽히며 못살게 굴고 있다. 인간들은 전쟁을 일으켜, 무죄한 수백만, 수천만 명 젊은이들의 피로 물들이고, 주검으로 채우더니, 현세에 와서는 해양과 지하에서까지 가공할 핵실험도 수없이 자행하고 있고, 하늘로 오르기 위해, 수십톤씩 되는 위성들을 시켜 발뒷굽치로 힘껏 땅을 건어차며 불로 지지고 떠난다. 이번 일본의 대지진과 대해일과 원자력 핵방사능 대오염의 현실 앞에서, 세계 인류는 정신을 차리는지! 어찌, 日本人들만의 不幸이며, 불운의 비극이라? 이 시대 지구상의 온 인류를 대표하여, 일본인들이 선택된 희생제물일 뿐이다.

그동안 말없이 우리에게 봉사하던 땅과 바다 물과 대자연의 물질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할 것은 없는지? 이번 대재앙을 당하다보니, 지구가 전보다 더 작아지고, 전보다 더 좁아진 느낌이다. 더구나 생명을 가진 우리 인류가 아마 무생물이라고 무시하며 천시하던 물질만도 못한 점이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반성해야만 한다. 물질은 물리법칙을 엄수하며,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성실하게 존재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해 봉사하고 있지 않는가? 땅과 바다와 물질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오용하는 우리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법칙대로만 대하고 있는 대부, 대모이신 대자연, 이

대자연은 우리의 투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륙이나 착륙을 위한 활주로도 전혀 없는 뾰족한 풀끝에도, 소음이나 공해나 연료도 없이, 더욱이 풀끝에 아무런 흠집도 내지 않고, 고요히 앉았다가 조용히 날아가는 잠자리만 한 항공기 하나를 만들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과학기술 신앙]만을 가지고, 너무나 빠르고, 뿔내며,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우쭐대며,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날 우리의 이 꼴을, 땅과 바다와 하늘은 어떻게 더 이상 참고 있으랴? 참으로 꼴不見으로, 가관이 아니라? 조물주 천주님을 까마득히 잊고서, 천주님을 위한 사용을 걱정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무생물이라고 무시하며 무심히 대하던 물질들도, 이제는 의인화(擬人化)나 신격화(神格化)라도 하여보며, [땅님], [바다님], [물님], 또, 너무나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느님” 보다는 차라리, [하늘님], 하며, 존경어라도 쓰면서, 우리를 낮추고 싶지 않은가? 저런 대재앙으로 이런 끔찍한 죽음과 공포와 고통으로, 온 인류가 지금 아주 혼쭐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有心한 인간들이 無心하게 無視하던, 無能하게만 여기던 無生命의 땅과 바다와 물질들한테서, 이보다 더 얼마나 무섭게 야단을 맞아야만 정신을 차린단 말인가?!

日本의 저 엄청난고도 끔찍한 지진과 해일과 核 방사능의 오염 공포 속에서, 같은 인류의 한 형제들이 아우성치며, “우리가 왜, 무엇하러,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참으로 不時에 땅이 되고 물이 되어가는 日本人들의 대재난 앞에서, 우리도 모두 잠시라도 땅이 되고, 물이 되어, 우리를 살펴보자 !

인간들의 전쟁과 핵실험 폭음, 오락과 유흥의 함성으로, 땅님께서도 놀라시고, 地神님께서도 심히 怒하셨나보다! 도처에서 폭발하는 火山과 지진은, 누가, 무엇하러, 왜, 누구를 위함인가? 큰 바다 물님께서도 大怒하시니, 海神님께서도 칼춤을 추시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법칙만 따르시는 정직한

무생물, 해일님은 너무도 인정사정이 없구나! 그래도, 하늘님의
怒氣만은, 다행인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天主님
께서도 더 이상 미루거나 막을 수 없는, 진노의 그 날은, 천체
가 지닌 未知의 힘(dark energy)으로 아니 올 수 없을 텐데!

우주 천체가 요동하면, 결코 지진이나 해일에 비할 바가 아니
리라! 땅과 바다와 만물을 관리하는 인간들이 眞理와 自由와 正
義를 滿喫(만끽)하며, 모를 수 없는 知能과 理性을 가지고, 배우
고, 익히고, 닦으면서도, 無理와 非合理와 非論理와 不合理와 非
倫理의 길에서 횡포를 일삼는 사람들이…!

특히, 존경과 영광과 추앙과 人氣와 찬미 받는 일에 환장한
종교인들이, 욕망과功名심에 化身이 되어, 선량하고 근면한 신
앙의 사람들까지도 誤用하고 악용하며, 더 높은 하늘님 위에까
지 오르려 함이, 이제는 하늘님도 못 말리는 지경에 왔으니, 日
本人 우리 형제들이 겪는 땅님의 대지진과 물님의 대해일 속에
서 방사능 공포와 죽음의, 어찌, 앞으로 닥쳐 올수도 있는, 달과
지구와 태양의 아주 사소한 궤도 이탈이나 변질로도 천체질서의
급변에서 오는 하늘님의 진노만이야 하랴?

하늘님의 怒氣는 땅님도 물님도 바다님도, 地神도 海神도, 天
神도, 말리지도, 막지도 못할 것만 같다. 인류의 대표격으로 이
번에 日本人 형제들이 당하는 대재앙의 고통과 학업을, 전 세계
인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천주 대전에서 이제는
[사람]으로 되돌아가야 하겠다. 특히, 知性人들과 宗教人들이 앞
장서서!〈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주풍경소리], No.49.
2011-03-17, Msgr. Byon〉

***** 파티마의 성모상 *****

세계 2차 대전 참전 모면을 기도하며 걱정하던 포르투갈 부인
들은 Fatima에 발현하신 성모님께 감사하며 정성을 모아 표하
기로 하였다. 7천만 명 이상이 죽어간 세계2차 대전에 유럽에서

유일하게 참전을 모면한 나라는 포르투갈이었다. 또한 포르투갈은 성모 발현 후로, 교우들의 열심한 성모신심으로 바치는 기도와 성모님의 보살피심으로 잔인한 강력범죄가 없는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10세미만의 루시아, 히야친타, 프란치스코 3명의 어린이들이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목격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9세) 루시아 소녀가 성모님의 모습을 6개월 동안 매월 한번씩, 그리고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뵈고 나서 말해주는 목격담을 근거로, 성모 마리아의 모습 최근사치를 그린 發現像을 토대로하여, 매우 어렵게 木刻 조각상이 최초로 모습을 들어 낸 것은,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직후 전 유럽이 모두가 살기 힘든 때였고, 또 포르투갈과 그 중에서도 파티마 지역은 너무 몹시 가난한 시골이라 성모상 제작이 어려워, 발현 3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신심있는 교우 Gilberto Fernandes dos Santos 씨가 가까스로 어렵게 모아서 실로 정성껏 바친 성금으로, Jose Ferreira Thedim 조각가가 목각상 조각을 결심하고, 브라질에서 특별히 수입한 삼목(杉木)을 가지고 110cm 크기로 조각하여, 성모 발현지 상수리나무 옆에 아주 좁고 작게, 마치 한국의 열녀각(烈女閣)이나 효자각(孝子閣)처럼, 지금 사진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다고 할 만큼, 아주 작게 세운 발현각에 모시고, 1920년 5월 13일에 최초로 순례자들 기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목각 성모상은 발현지에서 약 3km 떨어진 파티마 본당으로 임시 옮겨, 축성하고, 성모 공경 본당행사를 한 후, 다시 상수리나무 옆 발현각으로 다시 옮기고 그 앞에서 순례오는 시골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후에는 수도 리스본으로도 옮겨 성모 신심행사를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의 전운이 심각해지면서, 1942년 10월 13일을 기하여, 포르투갈 부인회 회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진주 313개와 2,679개의 보석을 바치고, 12명의 조각가들이 무

보수로 자원하여 면류관을 만들어서, 세계 2次 大戰 참전 모면을 기도하며, 성모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정성껏 만들어 씌워렸는데, 후에 좀 더 다듬고 보완하여,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 5월 13일에는 교황특사 Masella 추기경이 순례와서, 세계 교회 이름으로, 마침내 면류관 대관식(戴冠式)을 거행하였습니다. 1981년 5월 13일, 로마에서 故 교황 복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저격당하신 자신의 몸속에 박혔던 암살범의 총알을, 감사의 뜻으로, 이 성모상 면류관에 보태어 박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천주 신앙을 외면하고, 핵무기 신앙으로 광분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핵폭탄 공격 위협으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락과 유흥과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어, 금년에 천진암 성지 100년계획 대성당 건립 넓은터 한쪽에 자리 잡고 세워지는 성모상은 無神論 克服의, [世界平和의 聖母像]으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천진암 청동 성모상 자체(15m높이에 좌대 7m 높이) 제작 건립만도 힘에 겨운 처지이므로, 아직 면류관 제작과 대관식은 현재 우리나라 천주교회의 성모신심으로 보아, 엄두도 못 내고, 훗날로 미루게 됩니다.

***** Le Puy의 성모상 *****

천진암 성지에 세워진 [천진암 성지 무신론 극복의 세계 평화의 성모상]은 전 세계 교회 안에서도 그리 작은 편은 아니지만, 아주 큰 편에 속하지도 못합니다. 인도네시아 마호멜 교도 섬에 고난회 회원들이 세운 성모상(35m)이나, 프랑스 러뽀(Le Puy)면 소재지 중앙 바위 동산 위에 중세기에 무쇠로 만들어 세운 성모상(33m) 등이 있습니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 296번 참조).

특히, Le Puy의 성모상은 프랑스 동남부 지역이 허구많은 침략(반달족, 몽고족, 이슬람, 등) 등으로 주변 지역 읍내들이 초토화될 때 유일하게 성모님의 보호를 받아 무사하였고, 한재가

심한 거듭된 흉년의 기근도 모면하면서, 특히, 각종 전염병이 만연하던 중에도, 더욱이, 노스트라다무스 시절 흑사병으로 전 유럽 인구의 50%가 무참히 사망하여 장례조차 못 치르는 마을이 허다하였을 때도, 전 읍민들의 기도의 대상이요, 중심이며 의지가 되었던 성모께 대한 신심 집결의 대상으로, 실로 기적적으로 무사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Photos 참조).

Le Puy는 프랑스 전국에서 가장 작은 교구이지만, 사제성소가 가장 많은 교구로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선교사제 파견이 가장 많은 교구이며, 최근 사제성소의 급감현상으로 적지 않은 대신학교들이 폐교, 통합되고 있으나, 아직도 사제성소가 여전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리의방전교회 한국 지부장과 경북 영주본당을 설립한 Marcel Pellise(M.E.P.) 배세영 신부의 고향으로, 필자가 Le Puy를 함께 방문하여 3일간 머물 때, 배신부님(한국 姓)이 밤늦도록 Perrin 신부님과 함께 들려주던 거룩한 고향 교구 성모상에 관한 자랑 이야기였습니다.

천진암 성모상은 커다란 관광물이나 조경물이 아니라, 신도들이 앞에 모여 기도하는 신심의 대상이 되는 聖物로서, 규모와 위치, 등이 감안되었습니다. 성모상만 세우면 세계평화나 조국의 평화통일이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 소리내며 기도 몇 마디만 바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Le Puy의 프랑스인들이 자기네 나라 프랑스를 위하여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하여도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웠듯이, 우리도 평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숨을 바치며 싸워야 합니다.

전 세계 도처에서 전란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작은 우리 마을 지구촌에, 천진암 성지의 세계 평화 통일 성모상 앞에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프랑스 남중부에 먼 옛날 화산으로 형성된 高山 지대에 있는, Le Puy 읍내 한 복판 바위동산 암석 봉우리에는 높이 30m크기의 아주 오래된(900년대 건립 ?) 무쇠로 제

작 건립된 흑갈색 성모상이 千年 세월을 두고 읍민들을 지켜주고 있다. 읍내 동산 둘레 반경 4km 권내 별판 어디서나 올려다 보인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Photos 참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타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프랑스가 전란을 겪을 때에도 Le Puy의 읍민들은 성모상을 의지하며 무사하였고, 또 Nostradamus 시절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가 거의 50%이상 전멸하였던 시절에도, Le Puy 읍민들을 항상 기적적으로 무사히 지켜준 성모상으로 유명하다. 특히, 프랑스에서 사제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곳이고, 아시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지원하는 열심한 사제들이 가장 많은 교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와서 약 30여 년 동안 선교사로 근무한 Marcell Pellise신부(경북, 영주성당 설립자, 파리외방전교회 前지부장)도 그곳 Le Puy 출신이다.

1917년 세계 1차 대전이 최악에 달하던 시절, 레닌과 스탈린과 트로츠키, 등이 유혈혁명으로 소련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후부터, 소련은 무력증강에 집중하여, 미국보다도 핵무기 저장 분량이 훨씬 더 많아서, 강대국들의 핵폭탄이 모두 터지면, 지구가 40번 폭발될 분량이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핵무기 감축 추세로 나가고 있어, 인류가 한숨 돌리며, 좀 생각하는 시기로 본다. 이는 Fatima에 발현한 성모 마리아께, 연평균 5백만명 내외의 신도들이 순례하며 열심히 기도한 결과였다.

최근 빈번해진, “백두산 火山 폭발 임박(?)”이라는 기사로 극동 아시아인들의 우려와 공포가 점증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과학으로 막을 수 없다. 1917년 10월 포르투갈의 볼모지 파티마에 나타나셔서, 7만 5천여명의 군중들에게, [태양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성모 마리아께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백두산 상봉에 [평화의 성모상]을 세우고, 전 세계에서 신도들이 자유롭게 가서, 한민족의 무혈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모님께서서는 백두산의 화산폭발을 막아주실 것이다.

무신론자들과 이교도들과 이단자들이 들으면 코웃음 치며, 정

신 나간 사람의, “턱도 없는 소리요, 어림없는 헛소리” 라고, 대부분이 코웃음 치며, 비웃어버릴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무기제작이나 각종 체육시설과 오락이나 유흥시설에, 호텔 건립, 등에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 부어가면서 나라마다 경쟁을 하는 이때, 저 가공할 백두산 화산 폭발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야, 성모상 하나쯤 세우는 것을, 그나마 전 세계 천주교신도들이 모금하여 세우겠다면, 못하게 할 일은 아닌데 !

다만 누가 좀 발 벗고 나서서 뛰어봤으면, 요새 국제정세로 봐서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천상에 계신 성모님께서 도와주실 것이 분명함으로. 북한에도 관광수입이 매년 수십억불에 이르게 해주실 것이다. 프랑스의 피레네 산맥 심산궁곡 바위산 불모지로 극빈촌락이었던 Lourdes는 지금 17만(?)이 훨씬 넘는 읍내가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성모 마리아와 성녀 벨라뎃따, 처녀 둘이서 먹여 살린다고 말한다. 성모상은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 극동의 北韓發 核戰爭 위험 *****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유도탄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만 한다. U.N.과 미국과 남한의 설교는 잠꼬대 같은 헛소리로 마이동풍 격이다. 경제적 제재로 고립화시켜 포기시킨다고 ? 이미 절대 빈곤의 경제적 고립과 아사 속에서 만들어진 核武器의 信仰으로 남북공멸로 가는 자폭이나 극동대란의 핵무기 순교자들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神化한 北韓이 핵무기와 장거리 유도탄을 포기하기는, 미·소·중이 무장해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U.N.이나 한·미가 달성할 목표 설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 남한과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필연적 대안으로,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핵무기보다도, 이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의 사상이다. 즉, 북한은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이 반세기 이상 지배하는 사회다. 더

구나 현재 남한 사회의 국민 정신상태가 풍요와 자유 속에서도 반국가적 광란의 정신이상으로 야단법석을 차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적지 않은 知性人들이, 심지어 有神論 종교의 일부 信仰 지도자들까지, 무신론과 유물론 단체들 대변자로 맹활약하는 현상은 실망적이라기 보다는 절망적인 한숨이 절로 나오게 한다.

그래도 아직은 애국심과 충성심이 차고 넘치는 軍과 武將들이 있으니, 용기를 내자. 더욱이 우리에게는 天上에 계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며, 地上에 있는 신도들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가 계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세계 평화의 성모상을 건립하고,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며, 軍 將兵들과함께 국가와 민족을 지키자. 우리로서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과 의지가 되는 聖母 信心은 우리 信仰人들만이 할 수 있는 몫이다.

천만 불행히도 北韓發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 자체에는 물론, 남한과 日本과 중국에까지 엄청난 인명피해를 주게 되고 나서도, 통일은 커녕, 북한지역 일부만 잔존하는 휴전선의 이동으로 끝나기만 해도 다행일 것이며, 오히려 북한은 지상에서 아주 사라질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보나. 중국은 5개 국가로 분열되어 分國될 위험이 크며, 일본도 일부만 잔존하게 될 뿐, 대한민국에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NATO를 포함한 서방 자유세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단결로 인하여 아시아, 특히 극동의 지각변동이 새로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많은 착한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세계 평화의 성모 마리아께, 희생과 기도와 정성을 바치자! Msgr. Byon

● 작성일 : 2016-04-17 00:32

245. 신봉승 선생님 선종 ! MBC, 연속 사극, [조선왕조 500년], 특히 [파문] 작가 !

신봉승 선생님이 선종하셨습니다(향년83세). MBC 대하드라

마, [조선왕조 500년], 특히, 천진암 강학과 한국천주교회 창립자 이벽 성조에 관한 [파문](1989년 6월 7일부터 1989년 9월 13일까지 방영), 등의 명작을 비롯하여, 이 시대 문예 분야에 실로 커다란 발자욱을 남기신 신봉승 선생님이 선종하셨습니다. 변기영 몬시뇰이 서울삼성병원 영안실로 조문(2016.04.20)하면서,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103위 기념패(성물)를 유족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17번 참조).

신봉승 선생 조문(MBC 대하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파문]은 1989년 6월 7일부터 1989년 9월 13일까지, 3개월간 매주 수.목 1,2회씩 연속방영되어, 당시 국내는 물론, 해외, 미국의 교포들은 지금까지도 64개의 video 테이프를 돌려가며 보는, 실로 보기 드문 역사 사극의 명물입니다), 변기영 몬시뇰 서울삼성병원 조문(2016.04.20)(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17번 참조).

고 신봉승 작가(MBC 대하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파문, 1989년 6월 7일부터 1989년 9월 13일까지 방영), 변기영 몬시뇰 서울삼성병원 조문(2016.04.20)(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17번 참조).

신봉승 선생님은 주지하다시피, 조선왕조실록 이해와 연구의 대가로서 조선시대 우리 문화에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사극을 집필하여, 현대 우리 국민들을 깨우쳐 주셨고, 특히, 부끄럽지만,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에 뿌리가 되는 천진암 강학과 이벽 선생의 생애와 활동과 업적을 사극으로 크게 재현시켜주신 고마운 문학가이며, 예술가이며, 특히, 극작가이며, 역사학자입니다. 천주교회 모든 신도들이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파문]을 집필하시면서, 천진암 성지를 3차례나 방문하심으로써, 현장 확인 및 실물 교육적(object lesson) 사극 집필을 하시는 자세는 모든 사학인들의 본보기 스승이셨습니다.

Msgr. Byon

246. [사제이니까 죽였다]는 증언으로, 5명의 죽음을 [순교]로 인정, 시복 !

지난 23일, 스페인의 부르고스에서는, 5명의 순교자들이 새로 시복되었습니다. 새 복자들은 지난 1936년 스페인 내란 때 반란 군들이 살해한 5명의 죽음을 순교로 인정하여, 새로 시복되었는데, 돈 발렌틴 신부와 4명의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은 1936년 1월 15일 밤, 반란군들이 살해한 후 외딴 곳에 갖다가 버렸는데, “발렌틴 신부는 사제이니까 죽였다.” 는 증언에 의해서, 이들의 죽음을 순교로 인정하여, 이번에 시복되었습니다. 시성부 장관 아마또 추기경이 현지에 가서 시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Sono stati beatificati oggi a Burgos, in Spagna, il sacerdote Valentin Palencia Marquina e quattro compagni martiri, uccisi in odio alla fede nel 1936 durante la guerra civile spagnola. „,Nella notte del 15 gennaio 1937 Don Valentin e i quattro giovani furono arrestati, uccisi e abbandonati in un luogo solitario. La causa della morte di Don Valentin viene ben espressa da un testimone: «Lo uccisero perche era sacerdote». I giovani laici furono assassinati con lui, per difendere la loro fede „,]

2016-04-23 Radio Vaticana

Sono stati beatificati oggi a Burgos, in Spagna, il sacerdote Valentin Palencia Marquina e quattro compagni martiri, uccisi in odio alla fede nel 1936 durante la guerra civile spagnola. Al rito era presente anche il cardinale Angelo Amato, prefetto della Congregazione delle Cause dei Santi. Ascoltiamo il porporato al microfono di Roberto Piermarini:〈2016-04-23, Radio Vaticana, Burgos에서의 5위

시복식>

사실, ‘신앙에 대한 증오심(in odio fidei)으로’ 죽임을 당한 한국 천주교회 창립성조들과 수많은 신도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모두가 천주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앙이 아니었다면,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장 화일루와 치주제역시 서태후의 난 때, 어떤 시골에서, 천주교 신도들의 모임에 몇번 참석한 죄로, 세례도 받지 않았으나, 단지 천주교 신앙에 대한 증오심으로 죽임을 당하여, 1950년 비오12세 교황이 시복하였고, 2000년에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이 시성하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신도들과 특히 시복시성 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고할 예가 아닐까 합니다. 천주께 대한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신앙인들은 모두가 순교자들이고, 시복의 대상자들입니다. -Msgr. Byon -

● 작성일 : 2016-04-24 23:40

247. 복자회 김옥희 수녀님, 무주 산골에서 교회사 학문연구와 한국 명상수도 정신으로...!

<변기영 몬시뇰, 성지 직원, 전북 무주 김옥희 수녀님 다산영성연구소 방문(2016.04.09.)>(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역사자료실 제103번 참조).

복자수녀회의 김옥희 수녀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시고, 한국천주교회 창립사 연구에, 특히, 이벽성조에 관하여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교에서 연구하여,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부산대학교 역사학과 주임교수, 수원대학교 역사학과 주임교수, 특히, 한국천주교회창립성조시복시성위원회 역사분과 위원으로 크게 기여하셨고, 103위 순교복자시성추진위원으로 유홍렬 교수, 등과 함께 1980년대 초부터 주교회의와 천진암성지위원회에, 특히 문도공 정약용 승지의 필적, 등을 수집 연구하여, 학문적으로 크게 기여하셨다.

더욱이 1984년 10월 14일 주일, 로마의 사도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 집전으로 전 세계 각처에서 오신 많은 추기경, 대주교주교님들과 한국의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25명의 한국인 주교 전원이 공동으로 2만 5천여 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한국순교성인 103위 축일 첫 경축미사 봉헌 예절 순서 때 심옥희 수녀님은 우리나라 강원도 심산궁곡의 석청(石淸, 바위틈에서 채취한 야생 토종 벌꿀) 2리터를 이조백자 작은 항아리에 담아, 한국대표단의 예물로 교황 성하께 바치는 봉헌물 봉헌자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강원도 야생 토종꿀은 원주교구의 이대식 신부님이 구하여 마련한 것이었다(당시 103위 첫 기념일 로마 경축대회 준비의 한국측 실무 총책은 주교회의 103위 시성추진부장이었던 변기영 신부가 맡아서 하였다).

본래, 103위 축일은 9월 20일로 제정되었으나, 1984년도에 한하여 교황성하께서 10월 14일로 임시 변경하여 기념 경축하셨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를 후, 즉 10월 16일에 성하께서는 교황이 되신 후, 고국 폴란드에 2번째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산주의 치하였던 모국 폴란드에 교황의 방문과 특히 폴란드의 민주화를 위한 자유노동운동가 바웬사를 면담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소련 정보국(KGB)에서는 교황의 방문을 반대하며, 신변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위협하던 터라 성하께서는 한국순교 성인들을 위협한 모국 여행의 후보로 정하시고, 순교형장을 향하여 나가던 한국 순교성인들을 본받아 2차 모국방문을 결심하신 때였다. 요한바오로 2세 교황 성하의 모국 폴란드 방문은 마침내 폴란드의 민주화를 이룩하셨고, 이어서 소련의 무신론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트리며, 알바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민주화 개방을 이룩하셨다.

그동안 수집한 고문서와 유물을 잘 보전 관리하면서, 김옥희 수녀님은 전북 무주 산골에서, 한국교회사 연구와, 복자회 수도정신 실천과 고유한 영성 개발을 위하여 매진하고자, 전북 무주 심산궁곡 마을에 농가 몇 채를 마련하여 수사님들과 함께, 오늘

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노익장
답게(금년 80세?) 수덕과 학문에 집중하는, 이 시대 한국천주교
회의 모범이십니다. 천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Msgr. Byon-

변기영 몬시뇰, 성지 직원, 전북 무주 김옥희 수녀님 다산영
성연구소 방문(2016.04.09)(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역사자
료실 제103번 참조).

변기영 몬시뇰, 성지 직원, 전북 무주 김옥희 수녀님 다산영
성연구소 방문, 기념사진(2016.04.09)(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
이지 역사자료실 제103번 참조).

변기영 몬시뇰, 성지 직원, 전북 무주 김옥희 수녀님 다산영
성연구소 방문, 고문서 열람(2016.04.09)(사진은 천진암성지 홈
페이지 역사자료실 제103번 참조).

변기영 몬시뇰, 성지 직원, 전북 무주 김옥희 수녀님 다산영
성연구소 방문(2016.04.09)(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역사자
료실 제103번 참조).

변기영 몬시뇰, 성지 직원, 전북 무주 김옥희 수녀님 다산영
성연구소 방문, 수사님(2016.04.09)(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
지 역사자료실 제103번 참조).

● 작성일 : 2016-04-25 10:11

248. 교황청 기관지, Hassan Rohani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발언의 이례적 보도 음미 !

교황청 기관지, L'Osservatore Romano의, 박근혜 대통령
IRAN 방문 중, H. Rohani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발언에 대
하여 이례적인 보도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로 보아 매우 시의적
절하고, 또 계속하여 전 세계 강대국들의 무기 비핵화를 위하여
필요하고 효과적인 교회 언론의 사명을 수행한 것이라고 하겠습
니다.

최근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로 인하여 수십명씩 계속되는 무

고한 인명피해나, 북아프리카 난민 문제에는 비할 수 없는, 수십만 명이나 수백만 명의 대량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인류 문명 파멸의 핵무기 제거는 이 시대 우리 모두의 가장 위급한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제 모든 외교가의 모임에서, [한반도 남북한이 모두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적어도 공개적으로 그리 쉽게 발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强大國然하는 3국과, 초록은 동색이라는,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 외에는…!

북한도, 오죽하면 핵무기 신앙에라도 매달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머나먼 이란에까지 가서 이란의 현대화를 위한 산업건설에 수십조원 상당의 경제발전 수주를 기대하는 성과를 올린,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번 업적은 양국 경제발전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자멸을 예방하는 비핵화 운동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썩먹고 알먹은 쾌거라고나 할까?

그런데 국내 일부 언론들은 국가 원수의 이러한 쾌거에 대하여, 적어도 싫어하거나, 못 마땅해 하지 말아야 하며, 적어도, 정직하고 공정한 보도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저력을 북한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도 하루속히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핵은 핵을 부르므로, 핵은 남북통일에 백해무익한 것이니, 북한 핵은 미국 핵을 끌어들이게 하고, 남한 핵을 生産하게 하며, 일본 핵을 量産하게 함으로써, 중국 핵도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여, 결국, 아시아와 전 세계가 핵 전쟁시대로 빠져들기 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한반도의 통일은 오히려 더욱 어려워져서, [휴전선의 이동]으로 끝나는 전쟁의 막을 내리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핵보유국 위치]가 국가 경제발전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파키스탄, 인도, 소련, 등이 핵보유국이라고 하여, 무역특혜를 지불하는 나라는 없으며, 저들의 가난은 오히려 핵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이태리, 및 북유럽의 비핵보유 국가들이 핵 관리비 지출이 없으니, 그만큼 무역에 집중하여 더 잘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개발도상국가에서 핵보유국 유지와 경제 발전이라는 2가지를 다 성사시키려는 병진노력은, 평도 놓치고 알도 잃어버리게 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치 東獨이 統獨도 놓치고, 독일 공산당도, 동독경제도, 모두 놓치고 잃었듯이!

국내외 모든 언론들은 자질구레한 일에 특필대서하며, 돈벌이나 또는 잘못된 일시적 의리에 얽매여, 불의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온 국민들과 함께 상부상조하며, 현실로 다가온 핵 전쟁 예방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가 비핵화운동에 함께하는 것은 이 시대의 天命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란과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 인류의 평화공존에 매우 효과적이고 불가피한 첫 걸음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이란의 비핵화와, 극동 아시아 지역, 북한의 비핵화는 유라시아 전역의 비핵화를 이루는 출발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 역량에 의해서보다도, 국제사회의 일치된 공동노력으로, 무역뿐 아니라 기타 가능한 제반 분야에 있어서,[핵 보유국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중공의 핵과 소련의 핵도, 미국의 핵까지도 무력하게 하고, 백해무익하게 하여, 마침내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핵무기 없는 인류사회를 이룩하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조 문헌〉

il presidente iraniano Rohani al leader sudcoreano Park Geun-hye - Un mondo senza armi nucleari. <2016-05-03 L'Osservatore Romano>

La penisola coreana sia libera da armi nucleari: questo l'appello lanciato ieri dal presidente iraniano, Hassan Rohani, durante l'incontro a Teheran con il capo di Stato sudcoreano, Park Geun-hye.

L'Iran, ha sottolineato Rohani, «punta a un mondo senza armi di distruzione di massa, in particolare quelle nucleari, soprattutto nella penisola coreana e in Medio oriente». Quella di Park Geun-hye e la prima visita di un presidente sudcoreano dal 1962.

Un appello significativo, quello di Rohani, a poche settimane dagli ultimi test missilistici nordcoreani e dall'innalzamento della tensione in tutta l'area. Alcuni giorni fa erano stati la Cina e il Giappone, in un incontro tra i rispettivi ministri degli Esteri a Pechino, a esprimere «seria preoccupazione» per le continue provocazioni di Pyongyang, che vede come una minaccia le esercitazioni militari congiunte tra Stati Uniti e Corea del Sud.

Oltre alla questione nucleare, Iran e Corea del Sud si sono confrontati soprattutto sul piano economico e commerciale, concordando di triplicare gli scambi nei prossimi anni fino a raggiungere una quota di 18 miliardi di dollari (attualmente gli scambi raggiungono circa sei miliardi). Diversi ministri e circa duecento uomini d'affari sudcoreani hanno accompagnato Park Geun-hye a Teheran.

—Msgr. Byon—

Maria Auxillium Christianorum, ora pro nobis! – Msgr. Byon

Les armes nucleaires de grandes puissnces

(Pere Pierre Byon Ki-Young, a Chon-Jin-Am, Berceau de l'Eglise catholique en Coree... 1994. 25. May)

De nos jours, en fabriquant et en possedant les armes nucleaires, les pays puissants menacent les petits pays

faibles voire même l'humanité tout entière. Être un pays puissant signifie déjà en soi avoir une arme la plus forte, et, sans même posséder d'arme nucléaire, n'avoir pas à craindre d'être menacé. Le lion et le tigre n'ont d'autres armes que leur force et leur ferocité. Le fait d'être fauve levient l'arme la plus redoutable. Par contre, les petits animaux faibles ont besoin d'un système de protection.

Par exemple, la mouffette secrete et projette, comme moyen de défense, un liquide d'une odeur infecte. C'est une question inéluctable de survie. Ainsi, dans les petits pays faibles, l'idée de posséder des armes nucléaires pourrait provenir de leur état de nécessité. Surtout, dans un pays comme la Corée qui a enduré des guerres d'invasion au cours de son histoire : du continent, elle a eu l'invasion chinoise (Byung-Ja-Ho-Ran en 1637), de l'océan, elle a eu l'invasion japonaise (Im-Jin-Oue-Ran en 1592). En toute franchise, en tant que descendants des survivants de telles guerres implacables et prévoyant la réunification de la Corée, il nous est difficile de repousser la tentation de posséder des armes nucléaires. Mais en réalité ce sont des pays puissants qui possèdent ces armes et, à leur profit en menaçant les petits pays.

Comme les enfants apprennent le mensonge et l'injure auprès des adultes, les pays faibles sont infectés d'une maladie contagieuse ; l'envie de posséder l'arme nucléaire. Ils tentent d'imiter leurs prédécesseurs. Les pays puissants devraient se rendre compte de tout cela et assumer leur responsabilité. Il est donc équitable que les petits pays puissent effectuer de façon régulière l'inspection des

armes nucleaires en commençant d'abord dans les pays puissants. Me??me si de petites nations possèdent ces armes dangereuses, elles ne pourraient, en aucun cas, occuper des pays puissants. Comme on dit : "Rien n'est si contagieux que l'exemple", pour ce qui est de la suppression des armes nucleaires, les pays puissants devraient se montrer comme un exemple a suivre.

Or, en ce moment, les hommes politiques du monde, que ce soient ceux des grandes puissances ou ceux des pays faibles, nous semblent venerant comme Dieu, en les considerant comme l'objet de notre dernier recours. Sans doute, les effets de l'arme atomique seraient effroyables. Mais elle n'est ni si puissante et ni si utile que nous le pensions. Autrement dit, elle ne peut prolonger le maintien d'un regime dictatorial ni porter secours aux pays pauvres ; elle n'est purement et simplement que neusable.

Du plus, nous pourrions nous poser des questions sur l'efficacite. des armes nucleaires pour la defense nationale de chaque pays. Prenons l'exemple de l'ancien U.R.S.S. : s'est-elle ecroulee parce qu'elle n'avait pas d'armes nucleaires? N'est elle pas dans la misere complete? Ou est-ce parce que ses armes nucleaires etaient moins nombreuses et moins puissantes que celles des Etats-Unis? Et en consequence est-ce gra??ce aleurs armes atomiques que les americains ont accompli leur expansion economique, tout en sauvegardant un regime democratique?

La Russie et la Chine vivraient largement mieux que maintenant, si elles ne s'etaient pas tant livrees a la recherche nucleaire. De me??me les Etats-Unis et d'autres

puissances democratiques auraient pu contribuer plus a la prosperite de l'humanite et vivraient encore mieux aujourd'hui, s'ils ne s'adonnaient pas tant a recherche nucleaire. En fait, la possession des armes nucleairs par des petits pays ne peut e tre une menace pour les Etats-Unis.

Et cela n'est pas une garantie de stabilite pour leur regime politique, quel qu'il soit. En revanche, cela va acclerer leur effondrement en aggravant le processus d'appauvrissement. En depit de tout, les politiciens se sont voues entierement aux armes nucleaires en y investissant de facon insensee, et en y mettant le meilleur d'eux-me mes. Quel qu'il soit le pays qui se cramponne aux armes nucleaires ne peut que faire partie du groupe des fanatiques. Comment les consciences peuvent-elles rester silencieuses devant un tel abus?

Pour quelle raison la bonne conscience des puissances nucleaires se retranchent-elles derriere le mutisme? Les peuples, soi-disant de pays developpes vivent en quelque sorte de la vente des armes qui massacrent les peuples pauvres et innocents. Du plus, ils concluent des m rches e des prix de rabais avec cet argent malhonnete, gagne par le carnage des innocents. Comment ne peuvent-ils il savoir que le cafe qu'ils boivent est le sang de peuples faibles, et que le pain qu'ils mangent est la chair de ceuxci?

Les peuples des grandes puissances dirigees par les fonds venant le la vente des armes, ne sont-ils pas de la me me famille que celle des cambrioleur a main armee? Dans ces pays-la n'existent-ils que les loups sous forme

humaine? Que sont-ils donc devenus les intellectuels? Que font-ells les presses de ces pays? Nous pourrions nous demander si tour(politiciens forçant l'achat des armes dangereuses, marchants des armes, les intellectules gardant le silence et vivant sans souci) ont le me??me et sont, au fond, est pareils a des loups.

Actuellement, la Coree court terriblement le danger de la guerre a cause des armes nucleaires. Au debut, les nord coreeens afirmaient que leur recherche nucleaire serait purement destinee al'usage industriel. Mais recemment; ils ont laisse entendre un autre son de cloche, en disant : "Nous pouvons transformer Seoul en une mer de feu" pour contrecarrer cette affirmation menacante, sous le preteste d'empe??cher une attaque eventuelle du Nord, les Etats-Unis annoncent partout la mise en place de missiles en Coree du Sud, comme si cette peninsule etait l'un des camps d'entrai??-nement de l'armee americaine. En l'occurrence, surprise, la Chine don't l'attitude redouble de vigilance a l'egard des americains, se demande si elle n'est pas la vraie cible de ceux-ci.

De ce fait, nous avons l'impression que les puissances occidentales, prenant certaines parties de l'Asie qui font probleme, tels que Hongkong, Taiwan; Macao et ainsi que la Coree du Nord comme tremplin de leurs..., amorcent leur "strategie de trente ans", qui a pour but de diviser la Chine en plusieurs blocs, de sorte que le grand bouleversement de l'Asie approche rapidement d'un moment a l'autre. Parmi les americains, il existe des gens opposes aux armes nucleaires. De me??me parmi les japonais, il existe des anti-americais qui ne sont pas

communistes.

Ainsi, l'opposition au nucleaire est differente de l'anti-americanisme, et l'anti-americanisme ne correspond pas au pro-communisme. Or, pour quelle raison, la voix des presses garde-t-elle un silence pesant? Au moment ou une meche, don't la moindre flamme provoquerait un grand trouble en Asie, guette l'occasion de s'enflammer, pourquoi n'entendons nous que les echos lointains et faibles de la presse, qui touche nos oreilles comme des bourdonnements d'insectes mourants? Me??me si le pouvoir et l'ideologie changent d'un co??te a l'autre, que le peuple d'une nation n'est-il pas perpetuel et sa survie n'est-elle pas grandiose?

A present, nous sommes persuades que la force capable de transformer la Russie en voie de la democratisation et de l'humanisation, n'est pas du aux armes nucleaires des americains ni a celles d'autres pays democratiques. Le changement radical en Russie n'est pas fonde non plus sur la competence diplomatique des grandes puissances occidentales, ni sur leur expansion economique. Plus precisement, les armes nucleaires n'ont joue aucun ro??le dans la transformation de la Russie. En me??me temps, la puissance econmique des pays developpes de l'Occident n'a pas pu influencer l'ouverture de la Russie. En realite, le desequilibre des forces militaires et economiques ne peut que renforcer la situation d'inegalite et provoquer la guerre entre les pays opposes.

Bref, ni l'argent ni l'epee pas plus que le discours diplomatique n'ont pu toucher l'attitude fermee de la Russie. En se repentant, elle revient dans la bonne

direction gr ce aux prieres des fideles et a l'aide de la Sainte Mere. Dieu attendrit le coeur endurci des russes. La transformation de la Russie est pour notre humanite un livre de reference en provenance de Dieu. Par les competitions sportives et l'utilisation d'armes dangereuses progressent la violence et la force militaire. Beaucoup d'intellectuels restent aveugles quant aux consequences et a l'influence de ce genre de choses sur developpement de la civilisation humaine.

Il ne faudrait pas penser comme si la croissance economique etait l'unique moyen de survie d'un Etat et mettre tout l'energie au service du projet de developpement econmique. Il ne faudrait pas non plus denaturer l'Evangile, en considerant l'Eglise comme une organisation fondee en vue de resoudre loutes sortes de problemes sociaux. Tout le monde doit reprendre ses esprits. Les pays developpes de l'Occident don't le systeme de securite sociale est arrive au plus haut niveau s'eloignent de plus en plus de Dieu. Qu'est-ce que tout cela signifie?

C'est un fait, derriere le repentir de la Russie, il y a les prieres de nombreux fideles du monde entier. Surtout suivant le conseil du Saint Pere, chaque annee, plus de six millions de fideles catholique se rassemblent aux lieux saints comme Fatima, Lourdes et Banneux et prient la Vierge Marie pour le repentir des communistes. C'est precisement gr ce a ces prieres ferventes et perseverantes que Dieu a exauce leurs voeux. La reunification de la Coree egalement ne serait realisable d'abord que par la priere et la perseverance dans la

priere.

Les armes nucleaires du Nord (si elles existent), ne pourraient en aucun cas contribuer a la reunification de la Coree. Celles des Etats-Unis n'ameneraient pas notre peuple a s'unir de nouveau. Ni l'ideologie communiste de la Coree du Nord, ni la puissance economique de la Coree du Sud ne sont pas capable de realiser notre re??ve : la reunification de notre pays.

Que ce soit de notre propre gre ou de la volonte d'autrui, la reunification est encore loin, tant qu'on essaie de l'accomplir par la force militaire ou par le pouvoir de l'argent. Utilisant de tels moyens on pourrait peut-e??tre occuper ou annexer un pays, mais rien de plus. Qui ne pourrait distinguer l'apparence de reunification par annexion ou occupation d'avec la reunification, realisee par la comprehension et l'affection interieure? Nous y arriverons finalement a l'aide de la Sainte Mere, en priant avec amour dans la serenite et dans la comprehension pour la reunification de notre peuple.

(Pere Pierre Byon Ki-Young, a Chon-Jin-Am, Berceau de l'Eglise catholique en Coree... 1994. 25. May)

<1994년 5월 25일, “이달의 천진암” 제12호 3면 > For the denuclearization movement !

오늘날 강대국들은 핵무기 제조와 보유를 반성해야 한다.

2012년 서울의 핵 관련 세계 정상 회의 개최를 당하여 20년 전 小考를 다시 뒤적여 본다 !

- 1994. 5. 25. 강론 초 -

핵무기를 먼저 개발하고 제조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약소국들과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강대국들이다. 또 「강대국」

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없어도 아무런 위협을 받을 수 없는 것도 강대국들이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는 「맹수」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무기이므로, 별도 무기가 불필요하나, 스핑크 같은 연약한 동물들은 독한 방귀 같은 자신 보호무기가 필요하듯이, 사실상 핵무기 개발 제조 보유의 필요성은 약소국들에게나 있음직한 구상인데, 오늘날 핵무기란 강대국들이 먼저 만들어가지고 갖가지 목적으로 약소국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아이들은 어른들한테서 거짓말과 욕설을 배우듯이, 약소국들이 핵무기 보유병에 전염되어, 강대국 흉내를 내보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따지고 보면 그 책임이 먼저 「강대국」들에게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핵무기 사찰은 강대국들이 먼저 약소국들한테 수시로 받아야 할 일이며, 또 만일, 약소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대국들을 점령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핵무기 폐지는 강대국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일이다.

특히 우리가 근세에 와서, 대륙 민족들로부터의 1637년 병자호란과 해양 민족들로부터의 1593년 임진왜란 등을 겪으며, 비참한 전란에서 살아남은 선조들의 후예인 우리로서는, 특히 통일한국을 내다보면서, 핵무기 보유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약소국이든 강대국이든 간에 제 정신을 잃은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최후로 의지하는 대상인 神처럼 모시고 받들고 있다. 즉, 핵무기 신앙시대다. 그러나 핵무기란 장기 독재국가들의 체제 유지나 빈곤한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핵무기만 의지할 뿐이며, 각국의 자국 방어나 타국 침범에도 사실상 실용성이 없는 무기이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분명히 무용지물이다.

예를 들어,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와해되었으며, 아직도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는가?

소련의 핵무기가 미국의 핵무기보다 성능이 낮고 분량이 적어

서 소련의 와해를 막지 못하였는가? 따라서 미국은 핵무기 덕택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이루었는가? 소련과 중공, 등이 핵개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세계 인류 번영에 기여했을 것이며, 자국들도 더 잘 살게 되었을 것이다.

사실상 약소국들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없는 동시에, 약소국들 자신의 체제 유지에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약소국 자신들의 조직 붕괴에 가속제가 되고, 빈곤심화의 촉진제가 될 뿐인데도, 전 세계의 정치가들은 인류 자멸의 핵무기 개발, 제조 등에 엄청난 자금과 정성을 바치며, 「핵무기 신앙」에 빠져 있으니,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간에 핵무기에 매달리는 나라는 광인집단이 아닐 수 없다.

핵무기를 제조,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은 도대체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가난하고, 무지하고 순진한 약소국 국민들을 집단 살해하는 무기들을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소위 선진 강대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마시는 커피가 약소민족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무기를 팔아 벌어들인 돈으로 보다 싼 값에 사서 마실 수 있는 것이니, 저들의 커피에는 약소민족들의 피가 섞여 있고, 또 자신들이 값싸게 사먹고 있는 빵에는 약소민족들의 살덩이가 섞여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는가?

집단 살인무기를 제조 판매한 자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강대국의 국민들은 살인 강도들의 가족들이 아닌가? 무서운 집단 살인무기를 만들어 팔아먹는 나라에는 사람다운 사람들이 없고, 사람의 모습을 가진 늑대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강대국의 언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집단 살상 무기 대량생산과 무역거래에 관하여, 침묵할 의무가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핵무기 때문에 가공할 전쟁 위협으로 치닫고 있다. 핵무기 개발이나 제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순수 산업발 전용이라던 북한의 핵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큰 소리가 자연스레 나올 정도의 수준임을 드러냈고, 북

한 핵을 막아야 한다는 불가피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나라를 미군의 부대 훈련장으로 쓰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도 달갑게 여길 수 없는 미사일 배치 요청이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는 바로 중국대륙까지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냐고, 대륙 민족의 눈매를 달라지게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와 열강들과의 관계, 또 이념과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상이한 체제 관계, 등으로 반핵적인 발언이나 주장에 대하여, 각기 전혀 다른 각도에서, 특히 남북과 열강들과의 이해관계 면에서 오해와 증오, 소외와 보복 등이 걱정스러워 사실상 속에 있는 말을 시원하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인들 중에도 핵무기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고, 미국을 싫어하는 일본인들이 모두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므로, 반핵주의와 반미주의가 다르고, 반미주의와 용공주의가 다른데, 왜 아시아를 불바다로 만들 성냥개비가 한반도에서 춤을 추는 마당에, 무슨 독감에 걸렸길래 한국언론들의 목소리는 숨겨가는 모기들의 울음소리같이 멀리 가날프게 귀 밖에서만 울린 뿐인가? 국제적인 열강들의 세력은 언젠가 바뀌게 되고, 모든 나라 국민들의 사상도 변하고 있지만, 민족들은 보다 영구적이며, 그 생존은 절대 선천적인 것이 아닌가?

이제 소련의 민주화와 인도주의화, 한마디로 소련을 변화시킨 힘이 미국의 핵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 소련의 회개와 개방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핵무기 덕택이 아니다. 또 미국을 위시한 서방 열강들의 외교역량 덕택도 아니고,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발전 덕택도 아니다.

소련개방에 핵무기가 기여한 역할은 없었다. 또 동시에 소련의 개방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력 때문에도 아니다. 무력이나 경제력의 격차나 불균형은 국가들간의 편파와 세력별 단결을 강화시키며, 나아가서는 국가들간의 전쟁을 야기시키기 쉬울 뿐이다.

한마디로 돈(경제력)이나 칼(무력)이나 말(외교수완)로 소련이

회개하고 개방되어, 인도주의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황님의 권고를 따라, 전 세계 천주교 신도들의 기도와 성모님의 도우심 덕택이다. 신자들의 기도와 성모님의 간청을 들으시는 천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셨기 때문이다. 소련의 변화는 천주께서 현대 인류에게 읽어보라고 주시는 교과서이다. 천주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체육경기와 무기 제조라는 인간들의 완력과 무력 향상이 오늘날 인류의 문화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가게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지성인들이 장님이 되어 있다. 마치 경제발전이 국가존립의 유일한 목적인양 생각하면서, 또 지금도 무력이라는 것이 아직도 각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시대로 여기고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나라가 경제발전 계획에만 광분하고 있고, U.N. 이라는 이름아래 국제회의는 장사꾼들의 노천시장처럼 되고 있을 뿐이 아닌가 한다.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가들과 언론인들은 천주교회가 마치 사회의 경제 문제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자선단체 조직체인양, 은연 중 복음의 변질을 시도하며 강요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는 자신들의 업무를 남들에게 떠넘기는 직무유기이다. 정말 교회 내의 일부 신앙인들까지 교회가 사회의 가난을 해결하는 기관인양 오판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좀 제정신을 차려야 하겠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물질적 지원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사회복지문제가 가장 최고수순으로 해결된 북 유럽이나 서방 선진국의 국민들이 천주공경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사실 소련이 회개하고 개방된 것은, 전 세계의 천주교신자들, 특히 매년 6백여만 명씩의 신도들이 로마 교황님의 권고를 따라, 파티마, 루르드, 반뇌 같은 여러 성지를 순례하면서,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론 사회주의 소련의 회개를 위하여,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회심을 위해 성모님께 기도한 덕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남북통일도 신자들의 기도가 선행되고

지속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남북한 동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의 남북통일에 북한의 핵무기가 아무런 기여도 못할 것이며, 미국의 핵무기 덕택으로 우리겨레가 통일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 무력으로 통일해보겠다고 전쟁을 일으켜도, 기껏해야 휴전선의 이동으로 끝나는 전란에 그칠 것이며, 엄청난 인명피해만 있을 것이다. 또 북한 공산주의 사상의 힘이나, 남한과 자유세계의 경제력 덕택으로 통일되지도 않고, 또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의식 수준과 가치관의 일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의 손이건 자신의 손이건 간에, 손에 잡혀 있는 칼이나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즉 무력이나 금력으로는 통일되지 않고, 일시 점령되거나 합병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외형적 체제상의 합병이나 점령이라는 것은, 내면적이며 정신적인 사랑과 이해로 이루어지는 참 통일은 아니다. 진정한 참 통일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신도들은 우선 전 민족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발전적 변화를 위하여 힘쓰며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해와 사랑으로 민족통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이 무심할 수가 없다. 천상에 계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특히,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며, 지상 교회의 어머니이시고, 신도들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마침내 한겨레 하나되는 평화통일의 결실을 맺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는 분열하거나 서로를 죽이는 전쟁의 비극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다. Msgr. Byon

(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97번 참조).

Nagasaki, after bombardment of atomic bomb by B-29 fighter-bomber, A.M. 11:00 hours of the 9th, August 1945! There was only 1 country, United States, that could use the atomic bombs 70 years ago, when the world war II was terminated by only 2 atomic bombs.

Maria Auxillium Christianorum, ora pro nobis!

- Msgr. Byon

● 작성일 : 2016-05-04 12:56

249. 5월 7일(토), 제218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사진화보),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하여...(오후 6시 ~9시)

매월 첫 토요일 저녁에 바치는 천진암성지의 월례 촛불기도회는 오후 6시부터 여러 사제들이 [성모신심 미사]를 봉헌하고, 이어서 촛불을 들고 묵주의 기도 15단을 정성껏 바치며, 세계 평화의 성모상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平和統一은 공짜통일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은 統一戰爭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기도와 희생과 인내와 보속과 봉헌으로 점철된 殉教統一입니다. 죽고 죽이는 武士掌風이나, 西風과 대결하는 東風보다도 더 막강한, 천상에 계신 성모 마리아의 聖母 天風 까지도 동원하는 기도와 보속이 전제된, 天主님이 도와주시는 초자연적 戰力에 의해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통일입니다. 天主 聖父님의 神風으로 온 우주 천체가 再改되기 전에, 기도와 보속의 天風으로 우리나라와 우리겨레를 平和統一합시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면 하늘도 말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피흘리는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전범자들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천주님께 기도합시다 !!!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특히 극동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빈약한 국가들이, 무력 강국화와 경제대국화에 집중하면서 영토확장까지 추구하는 이웃 중국, 일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서 핵무기 신앙에 집착하는 북한을 대하고 있는 우리로서, “세계평화의 성모님”께 진심으로 열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남북한이 모두, 중국과 일본, 특히 북한도 더욱 진솔하고 정직하고 겸손해지고, 남한도 오락과 유흥과 사치와 향락을 줄이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 개인들도 국가도 모두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대가 천주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218회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전, 광암성당에서 미사 봉헌(오후 6시 미사, 2016.05.07)(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18번 참조).

제218회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성역로 행렬(오후 6시 미사, 2016.05.07)(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18번 참조).

제218회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대성당 터 세계평화의 성모상 앞(오후 6시 미사, 2016.05.07)(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18번 참조).

제218회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대성당 터 행렬(오후 6시 미사, 2016.05.07)(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18번 참조).

제218회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성모경당에서 각 도의 초를 봉헌하는 신자들(오후 6시 미사, 2016.05.07)(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18번 참조).

제218회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대성당터 제단 앞 신자들(오후 6시 미사, 2016.05.07)(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18번 참조).

제218회 조국과 민족, 직장가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

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대성당터 제단의 봉사자들(오후 6시 미사, 2016.05.07)(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18번 참조).

제218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후 안양 주세실리아 회장이 봉헌한 국수로 저녁식사를 기다리는 신자들(오후 6시 미사, 2016.05.07)(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318번 참조).

제218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후 신자들 잔치국수로 저녁식사(오후 6시 미사, 2016.05.07)(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18번 참조).

제218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후, 회장단들 잔치국수로 저녁식사(오후 6시 미사, 2016.05.07)(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18번 참조).

제218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 후 몬시놀과 직원들 잔치국수로 식사(오후 6시 미사, 2016.05.07.), 안양 주세실리아 회장 국수 봉헌(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18번 참조).

● 작성일 : 2016-05-11 11:44

250. 세자 요한 강영훈, 제3대 천진암성지위원회 위원장님 선종(향년 94세)

천진암성지 한민족100년계획 천진암대성당건립위원회 제3대 (1992~2014) 위원장님이 5월 10일, 어제 오후 3시, 노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영안실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영결미사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명동대성당)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3주년(제34회), 2012.6.24.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보좌주교 이성효 주교, 공동사제단, 100여명의 신학생들과 3,500여명 신자

들 참석(만세3창을 선창하시는 91세의 강영훈 위원장님!)

20여년간 매년 6월 24일, 천진암 성지의 한국천주교회창립기념일 행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참석하시어, 기념식사를 하였고, 말년에는, 힘이 붙이셔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셔도, “만세 삼창” 만이라도 하실 정도로, 끝까지 성지를 위하여 정성을 다 바치셨으며, 실로, 지대한 역할을 하신, 100년계획대성당건립위원회의 강영훈 전 위원장님의 영혼을 위하여 천진회 회원들은 모두 열심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6월 24일 행사(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98번 참조).

1993년 6월 24일 행사에서 기념식사를 하는 모습(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98번 참조).

2008년 6월 24일 창립기념행사 후, 천진암박물관에서 로마 교황성하의 교황특별 강복장 수여(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98번 참조).

교황 베네딕토16세 성하의 교황강복장(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98번 참조).

강영훈 위원장님은 이 시대 한국천주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일찍이, 사단장, 군단장, 육군사관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셨고, 육사교장 재직시에 5·16 군사혁명에 반대하여 투옥되었다가 육군 중장으로 예편, 미국과 특히 영국에서 유학하실 때는, 생활이 어려워 이웃집 골목 청소까지 하는 아르바이트로 혼자 비좁은 월세방에서 생계를 유지하셨으며, 주 바티칸 한국대사, 주 영국 한국대사,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및 최초 남북총리회담 개최, 평양 방문 김일성 주석과 상담, 등,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천진암성지와 100년계획 대성당 건립을 위하여, 역사에 기리 남을 일에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전임자 제2대 위원장 이송녕 박사(전 서울대 문리과대학장, 정신문화연구원장) 선종 후 3년간이나 공석으로 있던 후임 위원장 선임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

두고 있어서, 강 전 총리역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는 움직임이 언론에서까지 유력하게 거론되던 때, 1992년 10월 14일, 교황대사관에서 있었던, 요한바오로 2세 교황 등극 기념 리셉션 중에, 차기 대통령 출마를 하시느냐는 필자의 물음에, “Never happen !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하시기에, 그러시면, 우리 천진암 성지 100년계획 대성당 건립위원장을 맡아주실 수 없느냐고 하였더니, 신덕이 빈약하다며, 겸손하게 사양하셨으나, 주 바티칸 한국대사직도 하셨으니, 맡아주시도록 강청하고, 후에 김남수 총재 주교님도 쾌히 환영하셔서, 1992. 12. 14.에 위원장직을 수락하셨습니다.

20여 년간, 대성당 건립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우리나라 사회와 교회의 현실에서,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법 규정의 조항만을 따질뿐, 그 법규 조항 제정의 근본 목적과 근본정신을 외면한 채, 직무태만과 직무유기, 나아가,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공무원들은 규정을 보완하며 완수해야 할 행정력의 방향을 제시하며, 통찰력으로 행정을 지휘하던, 유능한 행정관들이 아쉬운 오늘날, 강 위원장님은 천진암 성지가 당면한 문제들을 국가와 민족과 사회와 교회의 내일을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차원에서, 앞장서서 처리하고자 애쓰셨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강 위원장님은 한국천주교회의 대표적인 평신도 지도자로서, 그동안 천진암 성지를 위하여, 특히, 한국의 대성당 건립을 위하여, 기초를 확립하는 일에, 갖가지 난관을 극복하시면서, 실로 큰 역할을 정성껏 교회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천상에서, 먼저 가신 이승녕 박사, 유홍렬 박사, 2분 선임자들과 천상에 계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천진회원들과 더불어 다 함께, 천진암 대성당 건립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상 교회 실무자들을 더욱 많은 일에 더욱 열심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천진암 성지에서는 운명하시던 날(5월 10일 오후 3시), 바로

저녁 7시에 변기영 몬시뇰과 김학렬 신부, 이그레고리오 신부, 박희찬 관리국장, 고옥자 사무실장, 허관순 편찬실장, 등 성직자들과 직원들이 다른 조문객들이 오기 전에 첫 조문의 예를 드렸습니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98번 참조).

전 국무총리 강위원장님의 그 동안의 지대한 업적에 관하여는 추후에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영안실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영결미사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명동대성당)(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98번 참조).

5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명동대성당, 영결미사(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98번 참조).

5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명동대성당, 영결미사 후 발인. 이 시대 만나기 어려웠던 위대한 지도자, 정직하고, 정확하고, 청빈하고, 민족애와 애국심과 신앙심으로 우리 모두의 사표가 되었던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는 고별미사 후에(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98번 참조).

5월14일 토요일 오전 9시, 명동대성당, 영결미사 후 오웅진 신부와(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98번 참조).

5월14일 토요일 오전 9시, 명동대성당, 영결미사 후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강영훈 전 총리를 함께 회고(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98번 참조).

5월14일 토요일 오전 9시, 명동대성당, 영결미사에 함께한 장의 주교님(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298번 참조).

● 작성일 : 2016-05-12 00:46

251. 이벽 성조 8대 종손 이완형 스테파노 회장 선종 (향년 79세)

이벽성조의 8대 종손 이완형 스테파노 회장 이 선종(향년 79세) 원주 자택에서 지병으로 2016년 5월 13일 선종하셨습니다. 변기영 몬시놀과 권혁훈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후손회 회장 내외, 김시몬 천진회 성지수호단장, 고옥자 성지 종합사무실장, 등이 원주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5월 14일 오후 3시 입관 예절에 함께하고, 장례미사는 5월 15일 성신강림주일 오전 6시에, 원주교구 주교좌 성당에서 천진암 성지주임 김학렬 신부님과 원동주교좌성당 주임 신부님 집전으로 고별미사 후, 화장하여, 배론 성지 납골당에 안장하셨습니다.

이완형 회장은 1979년 1월 12일, 횡성군청 양정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창립성조 후손들을 찾아 횡성 가담리를 들러온 변기영 신부를 처음 만나서, 삼촌 이상국 회장과 함께 이벽성조의 묘 확인 발굴, 이장에 함께 참여하고, 바로 입교 영세하였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영월, 횡성, 등 강원도 여러 군의 부군수로 국가에 헌신하셨습니다. 후덕하고 푸근하며 관대한 덕이 넘치는 지도자로서 보기 드문 선량하고 후덕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부친 이상훈 씨는 6·25 사변 때 전사하였고, 삼촌 이상국 회장의 보살핌으로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벽성조 8대 후손 이완형 스테파노 회장 선종(2016.05.12. 오후 7시), 영안실은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장례미사는 5월 14일 원주 원동 주교좌성당 오전 6시)2012년 6월 24일 한국천주교회 창립기념행사, 제1독서를 하는 생전의 모습(사진은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 new 제320번 참조).

이벽성조 8대 후손 이완형 스테파노 회장 선종(2016.05.12. 오후 7시), 영안실은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장례미사는 5월 14

일 원주 원동 주교좌성당 오전 6시), 2012년 6월 24일 한국천주교회 창립기념행사(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 제320번 참조).

이벽성조 8대 후손 이완형 스테파노 회장 선종(2016.05.12. 오후 7시), 영안실은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장례미사는 5월 14일 원주 원동 주교좌성당 오전 6시)(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 제320번 참조).

● 작성일 : 2016-05-17 07:57

252. 최보식 기자의, 李煥性(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인터뷰 - "全斗煥은 12·12와 상관있고, 5·18과는 無關" -

1980년 이른 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임시총회에서는, 서울 대구장 김수환 추기경 보좌주교였던, 경갑룡 주교를,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경갑룡 주교는 ,수원교구 신장본당 주임으로 한국천주교 발상지 천진암성지 개척을 시작하여 동분서주하며 집중하고 있던 변기영 신부를 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추천하여, 소속 교구장 김남수 주교의 동의를 받아, 그 해 5월 16일에, 자필 서한으로,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천진암 자료집 머릿말 참조).

당시 정국은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이른 바, 당시 보도의 표현으로, [광주 사태]가 일어나던 때였다. 그래서 마치 요동치는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한국교회 생일잔치상을 차리라는 주교회의 결의를 따라 5개년계획을 입안하고 구체화시켜, 승인을 받아 집행하던 실무자로서, 아직도 의문점과 논란이 있는, 당시 우리나라와 겨레가 겪었던, 이른 바, [5·18 광주 사태]에 관한 최고 책임자였던, 당시 전국 계엄 사령관, 이희성 장군과 최근 최보식 조선일보 원로 대기자의 인터뷰 내용은 오늘의

한국교회 현 구성원들과 후학들도 알아야 할 일이기예, 여기 전제하기로 하였다.>

신문에 나지 않은, 최보식 기자의, 李燾性(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인터뷰:

“金斗煥은 12·12와 상관있고, 5·18과는 無關”

“光州 수습되고 3개월 뒤 전두환이 대통령 돼… 안 그랬으면 光州 문제에 전두환 이름 안 나왔을 것.” “전두환은 새카만 후배… 내게 ‘형님’ 하며 어려워 해” “날 뛰어넘어 越權했다?… 내 성격 알면 이런 말 안 나와.”

“법정에서도 ‘지휘 체계가 이원화됐다’ 는 말들이 있었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나 몰래 따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소리인데, 그건 범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소. 내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यो.” “1996년 재판 당시 광주 현지까지 내려가 조사를 벌였으나 발포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없었어요.” “(재판은) 내 입장에서 보면 허무하게 진행됐소. 공판 과정에서 내게는 질문이 거의 없었소. 오직 전두환에게만 하고. 당시 정국을 총괄한 계엄사령관에게는 별로 질문할 것이 없었던 모양ियो.”

[[편집자 注)광주 5·18 사건 36주년을 앞두고 崔普植 조선일보 기자가 진압작전의 최종 지휘자였던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李燾性(이희성) 씨를 인터뷰하였다. 월요일마다 조선일보에 실리던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은 어제 나오지 않았다. 이희성 씨는, 당시 신군부의 실력자였던 金斗煥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이 광주 진압 작전에 개입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李 씨는 ‘병사들이 혼란 속에서 위험을 느껴 쏜 것일 뿐, 발포 명령도 없었다.’ 면서, ‘광주사태가 불처럼 他지역으로 번져 전국에서 民亂이 일어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 군에서는 그런 국가 위기 상황을 걱정했고, 절실했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터넷을 통하여 알려진 인터뷰 全文은 다음과 같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에 대한 유감 표명과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설(說)이 보도됐을 때, 그쪽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다.

‘광주 방문은 와전된 것이다. 5·18에 본인 책임이 있다는 뜻도 아니다. 당시 희생자가 있었고 대통령이 된 뒤로 충분히 수습을 못 한 데 대해 아쉽다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그는 광주의 가해자로 잘못 인식돼왔다. 이는 사실관계에서 명백히 틀린 것이다. 본인이 가장 억울해하는 대목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광주 학살 주범'인데, 반성 없이 억울해하니 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판단과 해석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문제라면 기자(記者)로서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은 느꼈다. 1980년 당시 정국을 관장한 李煥性(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만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첫 인상이 단아했다.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의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그는 방문객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게 무엇이 궁금하오? 하나하나 질문하면 답변드리지. 늙어서 생각이 잘 날지는 모르겠소.’

나는 곧바로 본질로 들어갔다.

- 당시 계엄사령관이라면 5·18 상황을 전체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소. 전국 계엄 상황이었으니, 국방장관과 대통령께 주요 사안은 보고했지만 내가 全權을 쥐고 통괄했다고 할 수 있소.’

- 1996년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5·18과 관련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요?

‘그렇소. 계엄사령관이었기에 책임을 진 거요. 5·18을 어떻게 보느냐를 떠나 결과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소. 희생자와 유족이 많이 생기지 않았소. 국가적으로 이를 추스르는 차원에서 이들의 요구와 주장을 감안해야 하는 거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거요. 도의적 책임을 진 거요(8개월 복역하고 특별사면됨).’

- 당시 국정 수반인 최규하 대통령도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오. 군의 작전 상황이니 계엄사령관과 국방장관에

게 있지,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께서야 책임질 일이 아니요.’

- 도의적 책임은 그렇고, 실제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5·18 당시부터 대학가에서는 ‘광주 학살 주범’으로 전두환을 특정했습니다.

‘그건 군의 작전 지휘 계통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5·18과는 무관하오. 그는 12·12(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이유로 정승화 육참총장을 강제연행한 사건)와는 상관있지만 5·18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소.’

- 계엄군 출동과 발포 명령을 그가 배후 조종했다는 게 통설입니다.

‘법정에서도 ‘지휘 체계가 이원화됐다’는 말들이 있었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나 몰래 따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소리인데, 그건 범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소. 내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오.’

- 계엄사령관이 위계상 높지만 당시 모든 힘이 전두환에게 쏠리지 않았습니까?

‘전두환은 새카만 후배였고 내게 ‘형님, 형님’ 하며 어려워했소. 나를 뛰어넘어 감히 월권해? 내 성격을 알고 이런 관계만 알아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전두환은 밝은 사람이지만, 음습하지 않아요. 몰래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요. 내 단호히 얘기하오. 광주에 관한 한 전두환 책임은 없소.’

- 그렇다면 5·18에 전두환을 지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봅니까?

‘광주가 수습되고 3개월 뒤 그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오. 대통령만 안 됐으면 전두환 이름이 그 뒤로 나오지 않았을 거요.’

- 전두환이 아니라면, 누가 5·18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겁니까?

‘지휘 계통의 최고위에 있는 계엄사령관인 나와 국방장관(周永福)이오.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소. 전두환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보안사령관이었고, 내 참모에 불과했소. 참모로서 내게 건의할 수는 있었겠지만, 작전 지휘 체계에

있지 않았소. 진압 작전에 개입할 수 없었소. 그는 광주에도 내려간 적이 없소.’

- 적극적인 스타일인 전두환이라면 광주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오히려 한번 내려갈 만하지 않았습니까?

‘현지 보안 부대를 통해 보고가 올라오니깐 그도 광주 상황을 알고 있었소. 내려가 본들 뭘 하겠소. 부대장에게 격려금이나 건네주는 게 고작이잖소.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내게 보고하고 광주에 내려간 적 있소. 광주 현지 부대에 배속시킨 공수여단 격려차 간 것이요.’

- 전두환이 육사 동기생 정호용을 통해 작전 지시를 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정말 군대 체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요. 특전사령관도 광주에 파견된 자기 부하들을 지휘할 수가 없소. 작전 책임과 지휘권은 배속된 부대 지휘관에게 있소. 조연은 할 수 있겠지만, 이래라저래라 작전 지휘를 하는 것은 군법에 어긋나는 거요.’

-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1980년 5월 21일 ‘자위권(自衛權) 보유 천명’ 담화를 발표할 때 보안사 참모가 초안을 건네줬다’ 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전두환의 5·18 개입 증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검찰 조사를 서너 번 받았어요. 꼭 밤중에 잠 안 재우고 심문을 했어요. 졸려서 정신이 몽롱해질 새벽에 진술서 서명을 받아요. 검찰이 신사인 줄 알았는데 그런 트릭을 써요. 그래서 보안사 참모인지 계엄사 참모인지 헷갈렸던 거요. 계엄사 참모였다고 하더군요. 설령 보안사 참모라고 해도 그런 건의를 해올 수 있는 거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요. 애초에 담화 발표 구상은 나 혼자서 한 거요.’

- 왜 그런 구상을 했습니까?

‘계엄군이 일방적으로 공격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다만 담화 내용에 대해 신경을 썼어요. 장차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봤으니까. 그래서 참모들을 불러 문안을 검토한 뒤 발표했소.’

- 장차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위권 보유 천명’ 이 ‘발포 명령’ 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예상했다는 건가요?

‘재판 과정에서 ‘사정을 모르는 병사들은 자위권을 발포 명령으로 알았을 것’ 이라는 말이 나왔소. 그런 해석은 오버요. 공격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개인마다 정당방위 차원의 ‘자위권’ 이 있다는 것이요. 피동적인 것이요. 발포 명령과는 다르요. 더욱이 담화문에서 ‘자위권이 있다’ 고 한 게 아니라 ‘자위권이 있음을 경고한다’ 고 했소. 예방 목적이지,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소.’ - 자위권을 천명한 담화 발표 뒤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됐습니까?

‘실탄 지급은 일선 부대 지휘관 차원에서 이뤄지는 거지, 계엄사령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요.’

관련 재판 기록을 보면 ‘자위권 담화’ 가 있기 전에 실탄 발사가 이미 있었다. 5월 19일 시위대에게 포위된 계엄군 장교가 위협사격을 한 게 첫 발포였다. 20일 밤 광주역에서는 실탄 사격으로 4명이 숨졌고, 21일 담화 발표가 있기 전에도 총격전이 벌어졌다.

- 누가 발포 명령을 한 겁니까?

‘1996년 재판 당시 광주 현지까지 내려가 조사를 벌였으나 발포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없었어요.’

- 총 맞은 시민들이 있는데 발포 명령자가 없다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전투라는 게 우발적이고 부화뇌동해서 일어날 수도 있소. 겁에 질려 있는 사병들이 막 쏘고, 어디서 날아온 총알에 누가 맞았는지도 가릴 수 없었소. 한밤중에 아군끼리 교전도 있었소. 다만 5월 27일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은 적극적이었소. 도청 지하실에 TNT와 수류탄 등 무기가 있었고 무장한 주동 세력이 있

었기 때문이오. 당시 북에서 이를 이용 안 할 리가 있었겠소.’

-당시 담화문에 ‘상당수의 다른 지역 불순 인물 및 고정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 광주에 잠입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첩보는 있었지만 확증을 잡지 못했소. 확증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소. 다만 무기고를 털고 시위대를 조직적으로 이끄는 등 민간인이 할 수 없는 행동이 있었소.’

- 광주가 수습된 뒤 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뒤처리와 민심 위무(慰撫)가 시급해 그런 조사에 착수할 수 없었소.’

- 공수부대를 투입해 초기에 과잉 진압을 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당시 공수부대는 소요 진압 임무가 있었소. 5월 18일 아침 휴교령이 내려져 있는데 학생들이 들어가겠다며 전남대 정문에서 군인들과 충돌한 게 발단이었소. 학생들은 가방에 넣어온 돌을 던졌고 군인들이 무방비로 맞은 거요. 그 뒤 시내에서 학생들이 집결하자 군인들이 뒤쫓아가며 진압봉으로 두들겨 뺐소. 이를 본 시민들은 공수부대원들이 무자비하다고 흥분한 거요. 어떤 세력이 ‘경상도 공수부대가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며 악성 루머를 퍼뜨렸소.’

- 광주가 수습된 뒤인 6월 초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초기 진압 작전의 과오 책임을 물어 당시 현장 지휘관을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린 게 맞습니까?

‘그건 맞소. 하지만 내가 반대했소. 현장 지휘관은 잘못된 것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으나 그건 앞서 말한 대로 불가피한 상황도 없지 않았소. 나는 지금도 작전 실패는 아니라고 봐요.’

- 술한 사상자를 낳은 국가적 비극을 초래했는데?

‘한 사건을 이쪽·저쪽, 위·아래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오. 광주 사태가 불처럼 타 지역으로 번져 전국에서 민

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 군에서는 그런 국가 위기 상황을 걱정했고, 절실했습니다.’

- 1996년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그 나름대로 진실 규명이 이뤄졌다고 봅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허무하게 진행됐소. 공판 과정에서 내게는 질문이 거의 없었소. 오직 전두환에게만 하고. 당시 정국을 총괄한 계엄사령관에게는 별로 질문할 것이 없었던 모양이오.’

〈2016-05-17 오전 9:56. 조갑제닷컴, 헤드라인〉

삼류작가 (2016-05-17 오전 9:56)의 댓글(?)

내가 지금까지 광주사태의 진상에서 가장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전두환이 광주사태진압을 지휘했는가? 좌파세력들의 주장처럼 '학살원흉'인가? 전두환이 발표명령을 했나? 아니면 그의 지시를 받은 부하가 내린 것인가? 그런데 청문회를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잡듯 뒤지고 했는데도 그에 대한 증거도 안 나왔고 발표명령자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이 흐르도록 말이죠. 아무래도 이상하다, 전두환은 광주사태의 진압책임과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의도적으로 신군부가 광주사태를 조장 학살을 자행했다는 좌파세력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들수가 없었죠. 이제서야 좀 알겠 같군요. 아,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그동안 왜 그렇게 좌파들의 타깃에서 벗어나있었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사회 정치적 기류가 어떻게든 전두환을 ‘광주학살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야 했으니, 팩트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라고 보입니다. 그가 광주사태의 책임자가 아니어도, 그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쓰고 돌팔이 매질을 당해줘야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고 이 일이 봉합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은게 팩트라고 밝혀지는 걸 피해당사자들이나 좌파세력들이나 국민들까지도 용납할 수가 없었을겁니다. ‘광주사태 사망자들이 어디까지나 ‘악랄한 살인마 전두환’의 직접 지시로 인해 숨진 순교자여야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전두환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우발적인 충격으로 인해 숨졌다는게 사실로 밝혀지는 것을 피해자 유족들이나 좌파세력들이나 야당들이 받아들이는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리는 게 거부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전두환씨가 관속에 들어가고도 한참은 시간이 지나야, 적어도 그가 광주사태와는 무관했다는게 인정될 것 같습니다.’ <2016-05-17 오전 9:56, 조갑제 닷컴 헤드 라인>

● 작성일 : 2016-05-17 11:53

253. 大韓民國 建國記念日,

8월 15일은 聖母 마리아 昇天大祝日 !

大韓民國 建國記念日, 8월 15일은 聖母 마리아 昇天大祝日이었다.

천진암 성지에서는 겨례의 꽃 무궁화의 날, 천진암 성지의 8월은 겨례의 꽃, 무궁화 사랑의 달 !

<한국천주교회 발상지 천진암 성지에서 8월 15일(木) 낮 12시에 기념 경축미사 봉헌>

천주교회 2천년 역사를 훑어보면, 天上에 계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며, 使徒들의 어머니시고, 地上 教會의 어머니시며, 信徒들의 어머니이신, 聖母 마리아의 紀念 祝日이나, 聖母 聖月, 5월에는 종종 神秘로운 恩寵의 단 비가 내렸었다. 특히, 8월 15일은 使徒들의 시대부터 聖母 마리아의 昇天을 기념하며 공경하던 가장 오래된 축일이었다. 끊임없는 戰亂과 凶年과 疾病과 迫害 같은 苦難의 渦中에서, 눈물로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상에 계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지상의 신도들과 함께 天主 聖父께 간구하시어, 종종 人力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던 自由와 平和와 救援의 큰 은총이 내렸었다.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포로들이 석방되는 慶事가 성모님 축일이나 성모님 성월

5월에 종종 있어서, 우연이라고만 보기에는 변수가 많은 편이다.

제1차 세계대전도 1917년 8월 15일 聖母昇天 大祝日을 기점으로 終戰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아주 끝났으며, 제2차 세계대전도 1945년 8월 15일 聖母昇天 大祝日에 日本이 항복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대의 그 무서운 전란이 끝났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2개 투하되어 도시는 잿터미가 되었고, 20여만명 일본국민들이 죽었어도, 日本은 항복은 커녕, 오히려 毒을 뽑는 방송만 계속하였었다. 그 당시 조선 땅에서도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부르며 하던 노래가 있었다. “갓따서 닛뽕, 단 지데 갓따서, 메이헤이 이마꼬소 뚝찌우리다(이겼다, 일본이, 또 이긴다 일본이, 이제서야 美, 英을 박살내어 진이겨 버린다!)” 후퇴와 항복과 패배라는 말 자체를 禁忌視하던 日本은 전 국민이 모두 죽어도 항복할 수 없는 체질의 軍隊의 나라, 軍國主義 帝國이었다. 마치 지금의 북한처럼. 미국의 무력이나 중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남북 어느 쪽에서든 평양이나 서울을 점령한다해도, 쌍방의 항복은 없으며, 종전이 되어도, 게릴라전은 짧아도 10여년, 길면 30여년 갈 것이다. 6.25 사변 후, 남부군 이현상 부대의 지리산 공비토벌은 3년이 걸렸었다. 그러나 전 세계 10억을 넘는 천주교 신도들의 애절한 기도와 천상에 계신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세계대전이 신앙자유 국가들의 승리로 끝난 것은 천상 성모마리아의 도우심이였다. 사실 당시의 표현으로 우리나라는 뜻밖의 해방을 맞았다.

1945년 9월 8일 성모 성탄축일에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 대통령으로 유명한, Roosevelt 대통령의 전권특사, 美國 Spellman대주교(후에 추기경)가 미군 하지 중장(Lt. General Hodge)을 대동하고, 대한민국의 해방군으로서, 소련군보다 한달 늦게서야 인천에 상륙하여 입국하였으며, 남 한 내의 일본군 무장해제와 정권인수를 정식으로 공식 접수하고, 다음 날 9월 9일에는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스펠만 대주교와 노기남 주교 공동 집전으로, 2차 대전 종식과 倭政 終熄으로 한민족 해방과 미군

의 개선 입성을 환영하는 미사를 봉헌하였다. 점령군 사령관 하지 중장과 예하 미국 장성들이 명동대성당 마당에 모인 정계 최고위 저명인사들 앞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노기남 주교의 손가락에 낀 주교 반지에 입을 맞추는 인사는 당시 한국인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100여 년간을 두고, 처참하게 잡아 죽여도, 말 한마디 못하고 맞아 죽던 천주교인한테 점령군 사령관 장군들이 무릎 꿇어 손가락에 입을 맞추다니 ! 기가 막히고 어안이 병병한 사진이었다.

1945년 10월 성모 마리아 로사리오 성월(16일?)에는 미국에 머물던 이승만 박사가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노기남 주교를 먼저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승만 박사는 그의 환영식 답사에서, 미국서 뉴욕 대교구장 Spellman 대주교와 G. M. Carrol 안신부와 재미 윤을수 신부, 및 중국 南京의 우빈(于斌) 대주교로부터 그동안 한국독립을 위해 받은 크나큰 특별 지원에 대하여 아주 진솔하게 정중한 감사를 표하였다. 독립군들의 전투현장 외에, 당시 국제무대에서 세계 4대 강국 지도자들, 즉,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중국 장개석 총통, 소련 스탈린 수상에게, 직접 대면하여 수시로 한국 독립을 주장하는 말을 할 수 있던 사람은 미국 뉴욕 대교구장이며 루즈벨트 미 대통령 전권특사였던 스펠만 대주교와 중국의 장개석 총통 정치 고문이었던 南京 교구장 우빈 대주교 뿐이었다.

독일과 일본과 이태리를 패배시키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끝맺은 것은 전투현장의 맥아더를 비롯한 名將들의 지휘 用兵術(technic) 뿐 아니라, 영국 처칠 수상과 미국 역사상 최고의 천재적 정치 지도자이며, 유일한 4선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위대한 정치가의 정책(politic)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은 U.N. 총회를 창설한 주역이었고, Spellman 대주교와는 매우 절친하여, 일심동체로 인류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이 시대는, 특히, 지금은, Roosevelt 대통령과 Spellman 대주교 같은,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역할이 필요

하고 아쉬운 시점이다.

1945년 12월 8일 성모무염시태 축일에는 노기남 주교가 명동 대성당에서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 귀국 환영식을 거행하며, 임시정부 요인들, 金九 主席과 金奎植 박사, 등을 위하여 환영미사를 드렸고, 그동안 임시정부의 업적과 희생에 감사를 드렸다. 이 날 환영행사 중에, 金九 主席은 공개석상에서 답사를 통하여, 그동안 한국독립을 지원한 蔣介石 총통과, 그 정치 고문이었던 천주교 우빈 대주교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특히, 1943. 11. 27. Cairo 회담에서, 미국 Roosevelt 대통령과 종종 동행하면서까지 그의 해외 미국 대통령 전권특사로 활약하던 스펠만 대주교의 성원은 지대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1945. 7. 26. 포스담(Potsdam), 회담에까지 장총통과 함께 참석하여, 회의참석자들, 처칠, 루스벨트, 스탈린, 장개석 등에게 회의 개최 직전을 전후하여, 약소민족의 자치권과 특히 대한민국의 독립을 역설해준, 천주교 Spellman 대주교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한 많은 세월, 일본의 속국 국민으로 숨을 죽이고 숨어 다니던 김구 주석과 임시정부 요인들에게는 얼마나 놀랍고도 고마운 일이었으랴 ! 사실 한국독립을 세계 강대국 정상들에게 직접 거론한 유일한 경우였다. 1945년 12월 2일,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은 귀국하여, 여정을 풀자마자, 8일에 명동대성당에서, 김구 주석과 함께 당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최고의 임시정부 귀국 환영식을 받은 것이었다.

이듬해, 즉, 1946년 10월 성모 마리아 로사리오 성월(9일?)에는, 미국 메리놀회 번(Byrne)신부가 초대 한국 교황대사로 임명되어 입국하자, 3일 후, 10월 12일에 명동대성당에서 노기남 주교가 환영미사를 드리고, 18일에는 美軍政廳과 천주교회가 古宮, 秘苑에서 환영 축하연을 공동개최하였다. 2년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2년 전 일이었다.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Corea) 대한민국을 독립국

가로 사전 승인하고, 교황대사를 임명한 것이다. 따라서 교황대사로서 제출하는 신임장을 받을 국가 원수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을 때였다.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는 100년 迫害(1785~1885)가 끝나는 것도 1886년 5월 1일, 聖母 聖月이 시작되면서였다. 5월 1일 韓·佛修好條約 체결로 인하여 신앙의 자유가 시작되었으니, 한국 교회는 성모 마리아와 프랑스 선교사들에게도 두고두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던 천주교대성당 건립이 같은 해 성모 성월 초(1886년 5월 3일 ?)에 明禮坊 鐘岷 언덕에 착공되었다.

明洞에 427평의 大聖堂이 착공되던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국에 성직자들이 모두 프랑스인 선교사들만 주교 1명, 사제 10명이 전부였고, 한국인 사제는 1명도 없을 때였으며, 수녀들도 전국에 1명도 없었으며, 신학생은 글방에 다니던 소년들 6명뿐이었고, 전국 신도수는 1만 4천 500여명 뿐이고, 그 중에 서울 장안에는, 고작 3백여명 남짓한 가난한 신도들만이 있을 때, 신앙의 자유와 대성당 착공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聖母 마리아께서 보살펴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은덕이었다.

1945년 8월 15일 聖母昇天 大祝日, 당시 우리 어려서의 표현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解放이 되었으나, 38선을 경계로 南北이 分斷되자, 北韓은 소련의 스탈린 無神論 共產主義 정권이 지원하는 共產黨 조직으로 출발하였으며, 南韓 각처에서는 社會主義 혁명을 위한 조직적인 民衆 武裝蜂起가 서울과 지방에서까지, 심지어 정부수립 이후에도, 그치지 않았다. 착하고 순수한 일가친척 농민들과 근면하고 정직한 동료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죽창과 낫이나 도끼를 들고, 아주 저속한 폭언과 폭력으로 대규모 방화와 폭동을 일으키는 일은 불가능하기에, 서울 용산역 폭동을 비롯하여, 여수, 대구, 순천, 제주, 등의 폭동이나 반란은 분명히 미리 교육받고 훈련된 조직체에 속한 요원들의 선전과 선동과 지휘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당시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각하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드디어 1948년 聖母聖月, 5월 10일 U.N. 감시하에 南韓에서는 반만년 역사상 최초로 국민들의 자유 총 선거가 실시되어, 制憲 國會議員들을 선출함으로써, 제헌국회가 탄생하였다. 제헌국회의원들은 절대다수(98%)로 이승만 박사를 국회의장으로 선출하였고, 해방 후부터 유진오 박사를 비롯한 헌법학자들이 미리 준비해 오던 헌법 초안을 접수하고 손질하여, 오늘날의 우리나라 헌법 제정을 제헌국회가 마무리하게 되었다.

마침내 1948년 7월 16일, 갈멜산의 복되신 童貞女 聖 마리아 祝日에, 國號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憲法을 확정하여, 다음 날, 즉, 미국 독립기념일이기도 한, 7월 17일에는 大韓民國 憲法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制憲節이다! 이어서, 헌법에 따라, 제헌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를 절대다수(98%) 찬성으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헌법에 의한 政府 組織法을 가결하고, 계속하여 부통령과 12部, 4處의 장관관을 임명하였다. 황제의 나라 大韓帝國을 상해 임시정부의 우리 선조들이 大韓民國으로 국호를 개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송한 이승만 대통령 정부와 제헌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같은 해, 즉, 1948년 8월 15일 聖母昇天 大祝日에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전 세계에 大韓民國 政府 樹立을 선포하였다. 위대한 우리나라 大韓民國 建國日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해 늦가을 파리에서 열리는 U.N. 총회에 요한 張勉 선생과 趙炳玉 박사, 金活蘭 女史, 3인을 대표로 파견하여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도록 요청하게 하고, 최초의 한국 대표 3인은 파리 Rue de Bac에 있는 파리외방선교회 본부 앞 길 건너의 Lutetia 호텔 2층에 머물면서, 파리외방선교회 신부들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후원으로 처녀외교 활동의 초년생들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共產黨 조직에서는, 이를 극구 반대하였다. U.N.의 승인은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南北이 공산주의

사회로 하나가 된 후에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침내 1948년 12월 8일, 聖母 無染始胎 大祝日에 당시 파리 U.N.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48대 6으로, U.N.은 대한민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기로 확정하였고, 발표식은 다음 날, 즉 12월 9일에 하였다. 그 당시에는 유엔 승인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다. 그러나, 1년 정도 지난 후, 즉, 북한 共產軍의 기습 南侵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38선 전역에서 일제히 시작되어,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계속하여 1주일 후 수원이 점령되고, 이어서 대전이 점령되어, 한달 만에 대구와 부산만이 남는 전황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風前燈火 같이 위태로울 때, 1년 전 U.N. 총회의 승인을 근거로 하여, 전 세계 60여개 국가가 대한민국을 지원하여, 20여개 나라는 현역 전투부대까지 파병하는데 있어서 명분과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성모님의 안배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마디마디를 천주교 신앙인의 편에서 살펴볼 때, 성모 마리아의 축일에 베푸시는 은덕을 부정할 수가 없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겨레를 위하여 성모 마리아 축일에 큰 은총의 선물을 주실 것만 같다. 특히 천진암 성지에서는 1995년부터 매월 첫 토요일 저녁에 성모신심 미사와 묵주의 기도 15단을 바치는 촛불 기도회를 지금까지 185회 여회가 넘도록 15년 이상 거행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을 위하여, 각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봉헌하고 있는, 천진암 성지의 순수하고 거룩한 촛불기도회가 시작된 후 몇 년이 지나자, 촛불만을 흥내 내어, 어느새 촛불기도회가 아닌, 촛불 시위가 서울 중심가에서 종종 개최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매우 언짢아 지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화나 인권신장이라는 말이 인기가 있으니까, 가장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조직체 요원들이 모두 너도나도 복장과 명찰을 바꾸어 달고 나와서,

사회 각처에 진출하여 자천 출연하지만, 몸둥이는 바꿀 수가 없는데도!!

한국천주교회는 최근 여러 교황님들의 모범을 본받아 성모 마리아 공경에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다. 더욱이,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문서로까지 천명해주신 바를 따라,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기원 천진암대성당 건립에 관심과 정성을 바쳐야 하겠다. 금년에 세계 평화의 청동제 성모상이 천진암 성지 광장 한쪽에 세워졌다. 천년세월을 두고 우리나라와 우리겨레를 지킬 것이다. 서울과 예루살렘과 바티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세워졌다. 교우들은 관광지나 유원지 가는 일을 줄이고, 천진암 성지의 성모상 앞에 와서,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대한민국 건국기념일, 8월 15일은 성모 마리아 승천대축일이다, 이 날은 천진암 성지에서 겨레의 꽃 무궁화의 날로도 기념하며, 천진암 성지의 8월은 겨레의 꽃, 무궁화 사랑의 달이기도 하다. 낮 12시에 미사가 봉헌된다.

- 좀 더 알고자 하는 분은 柳洪烈 박사 著, 한국천주교회사, 下권, <제111장, 민족의 해방과 교회 발전> 1962, 가톨릭출판사 발행, 및 CATHOLIC ENCYCLOPEDIA FOR SCHOOL & HOME, vol. 10. 1965, MCGRAW-HILL BOOK COMPANY, New York, London, etc.... - <Msgr. Byon>

● 작성일 : 2016-05-19 17:07

254. 6월 4일(토), 제219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하여...(오후 6시 ~9시)

오는 6월 4일(토요일) 저녁 6시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직장과 가정을 위하여,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제219회 천

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가 봉헌되었습니다.

매월 첫 토요일 저녁에 바치는 천진암성지의 월례 촛불기도회는 오후 6시부터 여러 사제들이 [성모신심 미사]를 봉헌하고, 이어서 촛불을 들고 묵주의 기도 15단을 정성껏 바치며, 세계 평화의 성모상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平和統一은 공짜통일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은 統一戰爭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기도와 희생과 인내와 보속과 봉헌으로 점철된 殉教統一입니다. 죽고 죽이는 武士掌風이나, 西風과 대결하는 東風보다도 더 막강한, 천상에 계신 성모 마리아의 聖母 天風 까지도 동원하는 기도와 보속이 전제된, 天主님이 도와주시는 초자연적 戰力에 의해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통일입니다. 天主 聖父님의 神風으로 온 우주 천체가 再改되기 전에, 기도와 보속의 天風으로 우리나라와 우리겨레를 平和統一합시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면 하늘도 말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피흘리는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전범자들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천주님께 기도합시다 !!!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특히 극동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빈약한 국가들이, 무력 강국화와 경제대국화에 집중하면서 영토확장까지 추구하는 이웃 중국, 일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핵무기 신앙에 집착하는 북한을 대하고 있는 우리로서, “세계평화의 성모님”께 진심으로 열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남북한이 모두, 중국과 일본, 특히 북한도 더욱 진솔하고 정직하고 겸손해지고, 남한도 오락과 유흥과 사치와 향락을 줄이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 개인들도 국가도 모두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대가 천주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218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한 천진암성지, 첫 토요일 월례 촛불기도회(오후 6시 미사, 2016.05.07.))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1번 참조).

● 작성일 : 2016-05-19 20:26

255. 교황님 말씀; Clericalism이 교회를 망치고 있지만, 교회의 주인공들(protagonisti)은 평신도들”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

성직자 위주의 우월주의(clericalism)가 교회를 변질시키고, 변형시키며, 아주 망치고 있지만, 교회의 주인공(protagonisti)은 평신도들”입니다!

Clericalism은, “성직자 위주의 사고방식, 성직자 우월주의, 성직자 중심주의, 성직자 체일주의정신” 등을 뜻하는 말로서, 현 교황님께서는 이를 엄히 경고하시며, 교회의 Protagonista, 즉, “교회의 중심적인 주인공 역할, 교회의 주연배우다운 활동, 교회활동의 주역, 등은 평신도들임”을 강조하십니다. 특히 남미 지역교회의 현실을 거론하시며, 온 교회에, 특히, 우리 성직자들이 모두 경각심을 갖도록 역설하십니다.

〈Papa: il clericalismo deforma la Chiesa, i laici sono protagonisti -2016-04-26 Radio Vaticana〉 결국, 나라는 정치인들이 망치고, 공무원들이 아주 멸망시키며, 종내에 가서는 나라를 지키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쓰러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듯이, 교회도 clericalism에 물든 일부 성직자들이 변질시키고, 변형시키다 못해, 아주 교회를 망쳐버리고자 하지만,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지키던 신도들을 통하여 쓰러져가는 교회를 지키고자 다시 일으켜 세우

며(rehabilitatio), 주님의 교회를 지키려는 사랑으로 순교의 피까지 흘리게 하는 것이, 지나간 교회의 역사입니다. 나라도 교회처럼, 애국 烈士들과 義士들과 독립운동가 선조들의 뜨거운 생애에서 후대인들이 그 모범을 본받고자 합니다.

천주님의 교회를 변질시키고, 변형시키며, 나아가 교회를 아주 망치는 일부 성직자들의 성직자 爲主의 우월주의 정신자세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일부 성직자들이 자신들이 명성과 존경과 영광을 위한 무대화하게 하며, 마침내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deformare).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역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평신도들에게도 신앙이 있고, 인권이 있고, 신심이 있음을 명심하고,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을 존경하며, 평신도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평신도들이 성직자에게서 보다 비할 수 없이 많음을 겸손되이 인정하고, 신도들한테서 배우려는 정신자세를 늘 지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의 우리나라 교회 현실은, 최근의 통계를 보면, 성직자 성소(대신학교 신입생) 숫자가 격감하여, 한 자리 수에 불과한 교구들이 대부분입니다(2016년, 4개 교구만이 신입생들 수가 두 자리 수입니다). 사제성소가 급감하는 적신호에 우리 모두는 얼마나 걱정하고 있으며,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직자 지망 신학생들 수의 격감은 물론 우선 우리 성직자들의 책임이지만, 우리 평신도들도 이제는 성직자 성소 증가를 위하여 발 벗고 함께 나서야 하겠습니다. 신학교 입학 신입생 지원자가 거의 없다시피한 교구의 일부 사제들까지도 체육과 휴식이라는 핑계로 고비용 골프장의 정기적인 고객으로 만들려는 일부 평신도들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신도들이 사제들을 망치고 있으며, 버려놓고 있다(spoil)” 는 소리를 주님께로부터 듣지 않도록 합시다.

기도하고 보속하며, 정신을 차립시다 ! [성소 배양]과 [사제 관리]에 무엇이 문제인지 주님 대전에서 우리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제성소 급감의 원인과 이유를 사회

변화에서만 찾으려 한다면, 또는, 기존 일부 사제들의 非사제적이며 反성직자적인 요소만을 찾아 탓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평신도들의 원인 제공은 없는지도 살펴봅시다.

사회주의 경영 제도의 직장 개념이 어느새 교회 안에도 서서히 들어와서, 성직자들의 세계에도 너무 깊이 뿌리내리며,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두루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도직 활동에만 매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사제들의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반성합시다. 성직자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예컨대, 일부 사제들도, 하다못해 골푸 채라도 둘러메고 다니는데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제들의 시간낭비와 인력낭비, 신앙생활의 낭비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지 않는지, 겸손하고, 진지하게 반성해봅시다. 오락과 유흥과 사치와 향락의 주인공들 속으로, 젊은 성직자들까지 끌어들여려고 발광하는 clericalism의 폭발에 성직자들의 발자국이나 그림자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Msgr. Byon

참고 필독 문헌

2016-04-26 Radio Vaticana /

Pope Francis: Clericalism distorts the Church /

Papa Francesco: il clericalismo deforma la Chiesa; Laici sono protagonisti della Chiesa;

Papa: il clericalismo deforma la Chiesa, i laici sono protagonisti, 2016-04-26 Radio Vaticana

Contenuto Articolo

«Il clericalismo e “frutto di un modo sbagliato di vivere l’ecclesiologia proposta dal Vaticano II” ed e “una delle deformazioni piu grandi che l’America Latina deve affrontare». Lo ha ricordato Papa Francesco in una lettera al cardinale Marc Ouellet, presidente della Pontificia

Commissione per l'America Latina, frutto del suo incontro il 4 marzo scorso con i partecipanti alla plenaria dell'organismo che si è svolta sul tema "L'indispensabile impegno dei laici nella vita pubblica" dei Paesi latinoamericani.

Nel testo Papa Francesco si sofferma, in modo particolare, sull'immagine del "Santo Popolo fedele di Dio" per riflettere sull'attività pubblica dei laici nel contesto latinoamericano. «Guardare continuamente al Popolo di Dio ci salva da certi nominalismi dichiarazionisti (slogan) che sono belle frasi ma che non riescono a sostenere la vita delle nostre comunità.

Per esempio, ricordo ora la famosa frase: "e l'ora dei laici" ma sembra che l'orologio si sia fermato». «Non si possono dare direttive generali per organizzare il Popolo di Dio all'interno della sua vita pubblica», ha proseguito in un altro passaggio Papa Francesco, «e illogico, e persino impossibile, pensare che noi come pastori dovremmo avere il monopolio delle soluzioni per le molteplici sfide che la vita contemporanea ci presenta».

«Al contrario – ha spiegato Francesco – dobbiamo stare dalla parte della nostra gente, accompagnandola nelle sue ricerche e stimolando quell'immaginazione capace di rispondere alla problematica attuale. E questo discernendo con la nostra gente e mai per la nostra gente o senza la nostra gente». In merito, il Papa cita sant'Ignazio di Loyola, che raccomanda una pastorale "secondo le necessita di luoghi, tempi e persone." Ossia non uniformando." "L'inculturazione – ha scritto il Papa – è un processo che noi pastori siamo chiamati a stimolare,

incoraggiando la gente a vivere la propria fede dove sta e con chi sta.

L'inculturazione è imparare a scoprire come una determinata porzione del popolo di oggi, nel qui e ora della storia, vive, celebra e annuncia la propria fede. Con un'identità particolare e in base ai problemi che deve affrontare, come pure con tutti i motivi che ha per rallegrarsi. L'inculturazione – ha ricordato Papa Bergoglio – è un lavoro artigianale e non una fabbrica per la produzione in serie di processi che si dedicherebbero a fabbricare mondi o spazi cristiani."

-Pope Francis: Clericalism distorts the Church
-<2016-04-26 Vatican Radio>

(Vatican Radio) Pope Francis said Tuesday that the clergy should serve lay people and not make use of them and spoke out against clericalism, calling it one of the greatest distortions affecting the Church in Latin America. His comments came in a wide-ranging letter reflecting on the role of the laity that was addressed to Cardinal Marc Ouellet, President of the Pontifical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The Pope's letter was a follow-up to the commission's recent Plenary Assembly whose theme was "the indispensable role of the lay faithful in the public life of Latin American countries." In his letter, Pope Francis explained that he wished to follow-up the discussions and reflections that emerged during the Plenary Assembly in order to prevent them "from not bearing fruit."

He urged the clergy to look closely at the people and lives of the lay faithful and avoid falling into the trap of

adopting certain slogans on their behalf that seem well-meaning but in practice don't succeed in supporting the lives of our communities. Pointing to the example of a famous phrase "it's time for the laity," he noted that in this particular case, that clock has ground to a halt.

We must remember, he said, that as clergy we all began our lives as lay people and that "we'd do well to recall that the Church is not an elite of priests, of consecrated people, of bishops but all of us make up the faithful and Holy People of God."

Turning to the issue of clericalism, the Pope said he considered it the outcome of "a mistaken way of living out the ecclesiology proposed by the Second Vatican Council" and described clericalism as "one of the greatest distortions affecting the Church in Latin America." He said clericalism has many negative impacts such as wiping out the personality of Christians and causing a belittling of the grace of our baptism that the Holy Spirit has placed in the hearts of lay people. Clericalism, he reminded, "forgets that the visibility and the sacramentality of the Church belong to all the people of God and not just to an illuminated and elected few."

On the positive side, Pope Francis noted that Latin America is characterized by many examples of popular ministry and piety, saying it is one of the few spaces where the laity (including their pastors) and the Holy Spirit have been able to come together without clericalism which he said "seeks to control and put a brake on this anointment by God of the faithful." He warned that this popular ministry "has its limits" and can sometimes lead

to distortions of religion but said if it is "steered properly" it can generate many excellent human values such as generosity, devotion, sacrifice and openness to the others.

Pope Francis spoke of the importance of giving encouragement and support to the efforts of the lay faithful who work in the public sphere but at the same time stressed "it is not the job of the pastor to tell the lay people what they must do and say" in those situations, adding "they know more and better than us." "It's illogical and even impossible," he continued, "for us as pastors to believe that we have the monopoly on solutions for the numerous challenges thrown up by contemporary life."

In conclusion, the Pope reiterated that the lay faithful are the protagonists of the Church and the world and stressed that "we are called to serve them, not to make use of them." (From Radio Vaticana)

● 작성일 : 2016-05-24 01:28

256. 양근성지 순교자 현양대회 (2016. 5. 29. 주일) 사진 화보

수원교구 양근성지 순교자현양대회(2016.05.29.주일. 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 주례, 20여명의 양평 여주 사제들 공동미사, 3천여명의 신도들 참석)(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300번 참조).

수원교구 양근성지 순교자현양대회(2016.05.29.주일. 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 주례, 20여명의 양평 여주 사제들 공동미사, 3천여명의 신도들 참석)

수원교구 양근성지 순교자현양대회(2016.05.29.). 정병국(이나시오)의원, 김선교 군수. 등 귀빈 참석(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300번 참조).

수원교구 양근성지 순교자현양대회(2016.05.29)(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300번 참조).

수원교구 양근성지 순교자현양대회(2016.05.29). 정병국 (이나시오) 의원, 양평본당 주임 이재열 신부. 특히, 정병국 의원은 이미 문화부 장관, 주요 정당의 지도적 요직 역임한 다선 국회위원으로서, 경기도 출신의 굳세고 바르고 용감한 정통 민주주의 역군으로서, 장차 통일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로서 위엄과 온화를 겸한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우리 모두의 대망의 정치 지도자!(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300번 참조).

수원교구 양근성지 순교자현양대회(2016.05.29.). 정병국 (이나시오) 의원, 양평본당 주임 이재열 신부. 특히, 정병국 의원은 이미 문화부 장관, 주요 정당의 지도적 요직 역임한 다선 국회위원으로서, 경기도 출신의 굳세고 바르고 용감한 정통 민주주의 역군으로서, 장차 통일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로서 위엄과 온화를 겸한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우리 모두의 대망의 정치 지도자! 김선교 군수는 중국의 시진핑처럼, 양평군 내 말단 공직에서부터 잔뼈가 굵어진, 명실공히 민초들의 어버이로서, 온 군민의 존경과 애정을 받는 군민들의 마음의 구심점 ! 경기지역민들이 일심단합하여 지키고 아끼고 가꾸어야 할, 이 시대 우리 고장의 자랑이요 구심점(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300번 참조).

● 작성일 : 2016-06-02 12:10

257. 가난한 신자들이 피땀으로 지은 구산공소 성당건물에서 마지막 미사를 드리고 나서... 2016. 6. 5.

구산본당 설정 당시 신장본당 주임신부였던 변기영 신부의 회고문 일부입니다.

1979년 6월 29일, 구산 본당 신설 설정 첫 미사는 산수갯(복자 김안당 묘지 270평)에서, 초대주임 길홍균 신부와 함께 구산 교구우들 약 20여명과 신장본당 회장들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렸다. 미사 강론과 새 신부 소개는 교구청에서 아무도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신장본당 주임(필자)이 하였다.

2016년 6월 5일 주일 저녁에 구 성당에서의 마지막 미사를 드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산 출신 김학렬 신부와 함께 가보니, 예상 외로 많은 신자들이 모였고, 38년 전 신자들도 꽤 많이 보였다. 백발이 성성한 모습들이었다. 옛 일의 이 회상을 누를 길이 없다. 모두가 반대하였던 구산본당 신설이었기 때문이다. 구산공소 회장들은 신부님 한분 생활비를 바칠 수 없다고 반대! 신장본당 회장들은 구산공소가 본당으로 독립하면, 신장본당 자체도 절대 운영 불가능하다고 반대 ! 교구장 주교님은 교구 사제들 중에 지원자가 전무하며, 구산공소의 본당신설을 모두가 절대 반대하고 있으니, 교구장으로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의 공식 말씀을 하시며, 국내 대학원 공부에나 열중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마치 조선교구 설정 때 부르기에르 소주교의 경우처럼, 우리 동창들 중에 성인신부로 알려진 길홍균 신부가 살레시오회에서 나와, 받아주는 교구가 없다가에, 구산본당 주임을 맡으라 하였더니, 둘러보고 나서, 작고 가난하지만 순교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자원하였고, 어렵게 교구장님의 억지 승인을 얻어, 드디어 구산 본당이 설정되었습니다. 길홍균 신부는 가난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구산 본당에서 교우들과 함께 [대건회] 사제지망 신학생들을 키웠습니다. 그리하여, 교구 내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구산본당은 사제양성을 위한 대건회의 산실이 되었고, 여기서, 김길민 신부, 고태훈 신부, 등 7,8명의 사제들도 탄생하였습니다! 구산 땅을 밟으며 살았던 성직자

들, 주문모 신부, 여항덕 신부, 모방 신부, 김대건 신부 장금구 신부, 최민순 신부, 윤공희 신부, 김창린 신부, 이계항 신부, 등, 천상과 지상에서의 기도와 보살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1976년 3월 4일, 2번 째 교구청 근무를 마치고, 신장 본당에 부임해보니, 신장 동네에는 외딴 교우집 5세대 뿐이고, 구산공소를 포함한 신장 본당 신자 수는 약 400여명, 1년 예산은 1,140여만원, 구산 공소 신자들이 연말에 바치는 교무금 쌀 33가마 내외로 신장본당을 운영하느라, 교구에서는 매월 쌀 3말값 3천원씩을 보조하던 시절, 전임자 김정원 신부는 혹심한 가난 속에서, 사제관 텃밭에 교우들과 함께 열무를 심어서, 몇 다발씩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며 고생을 하였고, 매월 사제관비는 사제가 재주껏 살다가, 연말 성탄 전후, 구산 공소 신자들이 바치는 그 해 교구금 쌀이 들어와야, 여름내내 살아온 생활비 외상 장부를 결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현 교육원의 전신인, [한국농촌사회지도자교육원] 창설과 교구내 98개가 넘는 공소활성화와 준본당화를 위하여, 평신도지도자 교육 3개년 계획의 입안과 시행 추진, 등으로, 일부 선배신부님들의 오해를 받아 눈에 밖에 났던 필자는 2번째로 교구청에 불러들어 갔다가, 박사과정 5년 중 2년차 중에, “좋아하는 공부를 더 잘 하도록, 작은 신장 본당으로 보낸다.” 는 핑계(?)로, 완전 타의에 의하여, 신장본당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으니, 당시 서울의 일부 말꾼들이 비아냥거리며, 下廻上 기미가 전무하고 불가능한데, 전투 중인 부하를 살해하는 上廻下이 아니냐고 수근거렸지만, 목수들이 내버리는 모퉁이 돌도 주님의 큰 집에는 쓰일데가 없지 않았다고 확신됩니다.

上下左右의 합동 연합작전으로 火刑式 후 Arno 냇갈 다리 위에서 흐르는 냇물에 재가 되어 뿌려지던 Savona Rolla 신부나, 火刑場 Jeanne d'Arc의 행운의 부러운 특은을 받기는 그리 쉽지 않으니, 주님의 안배와 섭리의 손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시작하지 않은 일, 남이 하는 일, 자신이 못

하는 일, 전에 없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한 일에 대안 없는 반대나 방해나 비협조라도 베풀기가 얼마나 쉬운지 !!!

구산 공소의 가난한 구교우들은 그 때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를 반기는 모습에서 사도시대 성모님 주변의 신도들을 연상케 합니다. 구산본당 설정, 남한산성 성지 개발, 신자가 전무한 퇴촌 공소, 산북 공소 신설, 전교회장 파견, 서부면 공소 신설, 천진암 성지 개척, 이벽 성조 묘 발견, 이장, 등과 이미 번역출판한 칼 라너 신부의 저서 수정판, 신애론 발행, 주교회의 한국교회 200주년 기념 계획 입안, 시행 추진, 103 순교복자시성운동, 창립선조 시복시성 추진, 등, 실로 모두가 돈도 꽤 들어 가야만 추진되는 교회 일들을 가난한 구산 공소 신자들의 기도와 참여와 협력을 굳게 신뢰하며, 앞서가시는 주님의 십자가 뒤 그림자만을 밟으며, 온갖 불합리하고, 부당한 비난과 반대와 방해와 최대의 비협조와, 시기 질투를 무릅쓰고... 뒤돌아다보면 실로 오늘의 우리가 겁이 나는, 과분한, 한민족100년계획천진암대성당 터 확보와 터닦기 공사와 착공에, 구산공소 신자들이 지상과 천상에서 기도하며 함께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교회 일은, 돈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는 본당이나 교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식하고 유력한 저명인사들이 무시하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자라난 다윗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도들의 神通力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실을 맺니다 (당시 주한교황대사 Luigi Dossena 대주교가 필자에게 하던 덕담?).

신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명성을 날리려는 허황되고 단견의 불쌍한 사람들이 돈과 감투병에 환장한 나머지, 주님 교회의 聖業을 얼마나 가로막고 장애하며, 괴롭히며 더럽히고 있는가!! 구산 공소 신자들의 신덕은 우리의 거울이고 교과서라고 느껴집니다! 주님의 섭리와 안배는 교회 내 못나고 무능하고 게으른 우리 성직자들의 사목적 직무유기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이 조선교구 설정 당시, Brughiere 蘇主教에게 보낸 편지 첫 머리 말씀)를 보완해드립니다.

옛 구산 공소 성당 건립 60주년이 되는 금년, 현 성당에서 300m 떨어진 서울쪽, 거북산(龜山)의 오른 쪽 뒷 발등에 신축부지 900여평이 마련되었다니, 성당터로 말하면, 지금의 자리보다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6·25 사변 후 그 어렵던 시절, 교우들의 피땀으로 세운 구산 공소 성당 건립 60주년을 맞아,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도록 시도하게 하신다는 교구장님의 고마운 마음을 따라, 오늘의 자료는 내일의 유물이므로, 아무쪼록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원형보전 현 상태로 이전이 완료되기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선조들의 말없는 신앙생활 교과서를!

다만 건물 이전 공사기간에, 구산본당 신자들의 미사봉헌 임시 대체성당이 없어, [산수갓 김안당 묘소]에 지은 성지 성당을 본당 신자들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 특히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본당 주임 신부가 걱정이 적지 않다니! 그러나, 복자 김안당 순교자 묘소는 그나마 교우들이 봉헌한 땅 270평 뿐이었으나, 1977년 김안당 순교기념비 건립 후, 장차, 명동 대성당(427평) 규모의 1,500여명 수용하는 성당을, 한강을 낀 서울의 상류(구산)와 하류(절두산)에 세우도록 바둑돌을 놓고자, 구산 공소 신자 3일간의 피정을 마치고나서, 구산 성당 건립 준비로 구산 신자들(15명 내외 ?)로 부터, 교우들의 여러 조각 땅들을 봉헌 받아(예, 박건순 신부네 500여평, 김학렬 신부네 200여평, 김진식 회장네 500여평, 등) 지금의 구산 성지 터 4,500여평 확보는 완전히 구산 신자들의 봉헌으로 장차 구산 성지 성당 건립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훗날 지금의 성지 성당 건립에도 구산 신자들은 정성을 바쳤으며, 특히, 구산 순교자들의 신덕과 묘를, 200여 년 간이나 (1810~2016) 박해시대에도 지키며, 오늘의 구산 성지를 조성하고, 꾸미고, 아끼고, 가꾸고 사랑하는 구산성지의 주인공은, 구산 본당 신자들이니, 이들에게만은, 성지 성당 임시사용을 좀

무료로 할 수 없을까!!? 구산성지 5천여 평 확보 당시의 책임 본당신부로서 교우들과 함께하였던 필자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며, 모든 문서는 천진암자료집에 이미 수록 편찬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지관리는 본당 사목자가 겸직함이 Canon의 정신이고, 규정으로 보입니다(Canon 526. art.2; 517 art. 1 ; Unus parrochus, aut unus moderator sit, etc...; 수원교구 성지관리 조례 제4조 1항~7항, 참조). 사실 연구소나 박물관이나 각종 위원회는 학문 연구나 여타의 주요목적이 상이하므로, 연구소 운영의 수익원이나 수익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지관리나 성지운영은 피하는 것이 더 합당하며, 성지순례나 성지 관리는 본당사목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 대학과 성지에 있는 연구소나 유사 기관(각종 위원회, 박물관, 출판사, 등)은 꼭 성지 내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적어서, 숙직 직원 외에, 연구소장, 직원 사제, 등은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맞춤형 운영 면에서, 수원교구 교회사 연구소는 수원 교구청이나 왕림대신학교 부근에 자리잡도록 함이, 연구소의 발전과 활용을 위하여 더 바람직하게 보이며, 교구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보좌신부들의 교육을 위해서나, 늙은 사제들의 요양도, 규정의 [맞춤형 적용]이 사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Msgr. Byon-

구산성당 마지막 미사(2016.06.05.주일 오후 5시, 左 구산성당 황용기 신부, 中 변기영 몬시뇰, 右 김학렬 신부)(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시사자료실 제309번 참조).

구산성당 마지막 미사 후 구산성당에서 마련한 조출한 저녁식사(2016.06.05.주일 오후 5시)(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시사자료실 제309번 참조).

● 작성일 : 2016-06-07 13:02

**258. 송병선 신부 [천진암 성지 건설본부장]으로,
김동원 신부, [천진암 성지 전담]으로 임명 !**

- 교구장 이용훈 주교 -

수원교구장 겸 한국천주교회발상지 천진암성지위원회 총재 이용훈 주교님께서서는 2016년 6월 17일 자로, 송병선 신부님(수원교구 전 관리국장, 현재 안식년 종료)을 [천진암 성지 건설본부장]으로, 동시에, 김동원 신부님(오전동 본당 주임)을 [천진암 성지 전담]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부임일자는 2016년 6월 21일 (오전 10시)입니다.

성지전담 전임 김학렬 신부님은 중첩되는 과로로 인하여 건강이 여의치 않아, 의료진의 의견을 따라, 원로사목자(은퇴)로서, 중첩된 현장 피로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현장을 떠나 요양하면서, 천진암 성지와 한국천주교회 창립사에 관한 연구와 집필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송병선 신부님은 본래 수원 사사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와, 사제의 인생길을 선택하여, 수원 조원동 본당 소속으로 가톨릭신학대학을 마치고, 1989년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몇몇 본당 보좌 신부와 본당 주임 사목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당 건립, 및 이재, 등에 현장 관리 경력을 쌓았으며, 수원교구 관리국장으로 임명되어, 장기간 교구 전반의 재정과 이재의 관리직 실무를 수행하고, 과로 후의 안식년을 마치면서, 이번에 [천진암성지 건설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천주교회 발상지 [천진암성지의 건설본부장]으로 송병선 신부님이 처음 임명됨으로써, 한민족100년계획 천진암 대성당 건립은 물론이고, 성지 전 분야의 건설과 재정 관리, 등이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상승된 차원에서, 총재 주교님의 교구장 직할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재 주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원 신부님은 최초의 천진암 본당 출신 사제로, 1993년 사제로 서품되었으며, 본래 수원 고색동 본당에서 서울 소신학교 (성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소신학교 마지막(?) 졸업생으로, 천

진암 본당 소속 대신학생으로서 서울 혜화동 대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대신학생으로 오스트리아(Oesterich)의 Insbruck 대신학교에 유학하여, 5년간 공부하고 신학석사학위를 받은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천진암 본당 소속 출신의 최초의 사제로 서품을 받고, 천진암성지에서 첫 미사를 올렸으며, 그 후, 천진암성지 보좌신부를 거쳐, 대만의 補仁大學에 7년간 유학하여,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들의 영성”에 관한 논문으로, 영성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수원 상현동 본당 주임과 중국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였고, 현재 오전동 본당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들의 시복시성 관련 업무에 정성을 다하다가, [천진암성지 전담]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천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재 주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신부님들에 관하여는 추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작성일 : 2016-06-13 04:32

259. 교황님 말씀; 평신도들은 교회의 주인공, 53년간 교회 장기근속 봉직한 평신도 칠순기념 저녁축하 !

교황님 말씀; 교회의 주인공이며 주역은(protagonista), 평신도들이기에, 사제들의 부임 환영식, 이임 환송식, 생신 축하, 본명 축하, 은경축, 금경축, 등, 등, 주로, 성직자들만 축하할 것이 아니라, 가끔씩 평신도들에 대한 축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53년간 (1964~2016) 교회에 장기근속 봉직한 고육자 로사, 천진암성지 종합사무실 실장의 [칠순 저녁]을 축하하였습니다, 무던히, 부지런히, 말없이, 앞에 나서지도 않고, 티를 내지도 않으면서, 온갖 잡일을 한결같이, 껴 안 부리고, 이유를 따지거나 묻지 않고,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 없이, 남에게 미루지도 않고, 모양을 내고 빼기거나 뽐낼 줄도 모르고, 알아주는 이들이 없어

도, 오로지 교회와 주님만을 위하여 묵묵히 어지간히 일만하며 살아온 일생을 축하합니다. 그러기에 여러 신부님들과 직원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끝없이 닦쳐오는 갖가지 성지 일만 하느라고, 7순을 맞이하는 데도, 일에만 시간과 손발을 다하느라고, 늙을 사이가 없었는지, 70인데 아직도 검은 머리에 童안이라고, 모두들, “아직 50도 안 돼 보여!” 하며, 한마디씩 한답니다! 기도 대장 별칭을 들을 만큼 기도시간은 엄수하며, 조용히 꾸준한 희생적인 삶은 밑거름이 되어 천진암성지의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고, 꽃들이 만발합니다. 앵자산의 야생 식물들과 동물들, 특히 각종 산새들의 박사 ! 고육자 실장이 남은 일생 건강히, 평화로이, 계속 주님의 일에만 전념해주시기를 모두가 바라고 기도하며 경축하였습니다.

천진암성지에서는, 교회에 53년간 장기근속한 고육자 종합사무실장 [칠순기념(2016.06.11)] 저녁회식에 평소 천진암성지를 아끼고 직원들을 위하던, 광주시 이상복 전 문화원장님과 이삼스님과, 남녀 천진회 회원들과 교회창립성조 후손회 회원들, 및 친지들이 성지 주임 김학렬 신부님과 변기영 몬시뇰, 부주임 이그레고리오 신부님, 성지 직원들, 등 90여명이 모여, 실내와 옥외 앞뜰, 둥근 식탁에서 축하의 저녁식사를 함께하였습니다.

53년간 (1964~2016) 교회에 장기 근속한 고육자 로사 실장의 [칠순 저녁]을 축하하였습니다.

천진암성지에서는, 교회에 53년간 장기근속한 고육자 종합사무실장 [칠순기념(2016.06.11)] 저녁회식에 평소 천진암성지를 아끼고 직원들을 위하던, 광주시 이상복 전 문화원장님과 이삼스님과, 남녀 천진회 회원들과 교회창립성조 후손회 회원들, 및 친지들이 성지 주임 김학렬 신부님과 부주임 이그레고리오 신부님, 변기영 몬시뇰, 등 90여명이 모여, 실내와 옥외 앞뜰에서 축하의 저녁식사를 함께하였습니다. 이삼 스님의 축사!

천진암성지, 장기근속 53년간 고육자 종합사무실장 칠순기념 (2016.06.11) 회식에 평소 천진암성지를 아끼고 직원들을 위하

던, 광주시 이상복 전 문화원장님과 이삼스님, 남녀 천진회 회원들과 교회창립성조 후손회 회원들, 및 친지들이 실내와 옥외 앞뜰에서 축하의 저녁식사를 함께하였습니다.

천진암성지, 53년간(1964~2016) 장기근속 고육자 종합사무실장 칠순기념(2016. 06. 11). 이삼 스님의 축하 대금 연주(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시사자료실 제311번 참조).

천진암성지, 53년간 장기근속 고육자 종합사무실장 칠순기념(2016.06.11)(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시사자료실 제311번 참조).

천진암성지, 53년간 장기근속 고육자 종합사무실장 칠순기념(2016.06.11), 이상복 광주시 전 문화원장님(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시사자료실 제 311번 참조).

천진암성지, 53년간 장기근속 고육자 종합사무실장 칠순기념(2016.06.11). 화동의 꽃다발 증정과 축가와 축사에 답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만 대신하였습니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시사자료실 제311번 참조).

천진암성지, 53년간 장기근속 고육자 종합사무실장 칠순기념(2016.06.11). 축하 케이크 이상복 전 문화원장님, 이삼스님, 등(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시사자료실 제311번 참조).

천진암성지, 53년간 장기근속 고육자 종합사무실장 칠순기념(2016.06.11). 백남식 사진작가의 기념촬영(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시사자료실 제311번 참조).

천진암성지, 53년간 장기근속 고육자 종합사무실장 칠순기념(2016.06.11), 화동 변동희의 꽃다발(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시사자료실 제311번 참조).

천진암성지, 53년간 장기근속 고육자 종합사무실장 칠순기념(2016.06.11) 저녁회식에 평소 천진암성지를 아끼고 직원들을 위하던, 광주시 이상복 전 문화원장님과 이삼스님, 남녀 천진회 회원들과 교회창립성조 후손회 회원들, 및 친지들이 실내와 옥외 앞뜰에서 축하의 저녁식사를 함께하였습니다(사진은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 시사자료실 제311번 참조).

천진암성지, 53년간 장기근속 고옥자 종합사무실장 칠순기념 (2016.06.11) 저녁회식에 평소 천진암성지를 아끼고 직원들을 위하던, 광주시 이상복 전 문화원장님과 이삼스님, 남녀 천진회 회원들과 교회창립성조 후손회 회원들, 및 친지들이 성지 주임 김학렬 신부님과 변기영 몬시뇰, 등 90여명이 모여, 실내와 옥외 앞뜰에서 축하의 저녁식사를 함께하였습니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시사자료실 제311번 참조).

● 작성일 : 2016-06-14 22:50

260. 7월 2일(토), 제220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사진화보),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하여...(오후 6시 ~9시)

매월 첫 토요일 저녁에 바치는 천진암성지의 월례 촛불기도회는 오후 6시부터 여러 사제들이 [성모신심 미사]를 봉헌하고, 이어서 촛불을 들고 묵주의 기도 15단을 정성껏 바치며, 세계 평화의 성모상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平和統一은 공짜통일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은 統一戰爭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기도와 희생과 인내와 보속과 봉헌으로 점철된 殉教統一입니다. 죽고 죽이는 武士掌風이나, 西風과 대결하는 東風보다도 더 막강한, 천상에 계신 성모 마리아의 聖母 天風 까지도 동원하는 기도와 보속이 전제된, 天主님이 도와주시는 초자연적 戰力에 의해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통일입니다. 天主 聖父님의 神風으로 온 우주 천체가 再改되기 전에, 기도와 보속의 天風으로 우리나라와 우리겨레를 平和統一합시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면

하늘도 말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피흘리는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전범자들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천주님께 기도합시다 !!!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특히 극동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빈약한 국가들이, 무력 강국화와 경제대국화에 집중하면서 영토확장까지 추구하는 이웃 중국, 일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핵무기 신앙에 집착하는 북한을 대하고 있는 우리로서, "세계평화의 성모님"께 진심으로 열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남북한이 모두, 중국과 일본, 특히 북한도 더욱 진솔하고 정직하고 겸손해지고, 남한도 오락과 유흥과 사치와 향락을 줄이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 개인들도 국가도 모두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대가 천주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7월 2일(토), 제220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사진화보), 조국과 민족, 직장가정을 위하여...(오후 6시 ~9시)(사진은 천진암성지 news 제326번 참조).

● 작성일 : 2016-07-05 20:00

261. 교황주일(6월 26일 주일)에 겸손한 반성과 진솔한 한마디 기도를 !

천주교회의 로마 교황님은 전 세계 약 45만 여명 성직자들의 대표자가 아니고,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이시다. 마치,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에 있는 3만여 명 미국인들의 대표자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단 한 사람, 미국 대통령의 대리자이듯!

추기경님들이 교황을 선출하지만, 교황 선임을 위한 추기경으로서의 임명이 전제된 것이므로, 사실상 추기경님들의 교황 선출

은, 임명 실현의 구체화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교황으로서의 선임은 그 기초가 이미 임명이 전제되고, 선행된, 보완적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에도, 종종 준교황이라도 된 듯한 사람들의 언동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교황님이 한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가 좀 어려워하고, 존중하며 고마운 마음을 느껴야만 한다. 교황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교황님 말씀의 내용과 본 의도조차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부터 하려는 이들과, 대들고, 따지고, 반대하며, 비판하며, 무시하려는 준교황들이 없지 않음은 흔히 종종 볼 수 있는, 너무나 서글픈 현실이다!

(Oggi Tropo qui molti 'quasi papi' sopra il Papa...!)

교황님의 말씀은, 그 어떤 단체나 회합이나 위원회나 기관들의 다수결 결론이나, 또 어느 유명한 대 학자의 말이나 의견보다도 차원을 달리하며, 최우선적으로 극진한 정성과 충성심을 가지고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Lumen Gentium art. 25. 참조). 교황님의 공식 말씀은 교회법보다 더 위에 있으니, 교회법 조항은 때때로 바뀌고, 추가되고, 폐지되고, 새로 제정되기도 하지만, 교황님의 공식 말씀은 천 년 전, 천오백여년 전에 하신 사항도 불변적인 것으로, 후대 교황님들이 뒤집거나 수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주교회는 260여 위의 교황님들 중에 거의 75%가 순교하셨는데, 교황님들은 순교의 선혈로 교회를 축성하셨다. 살벌하고 악하고 독한 이 세대에, 하느님의 종, 신덕의 사람, 사랑의 화신으로서, 포성이 그치지 않는 전쟁터에 목숨을 들어내 놓고 동분서주하시는 프란치스코 현 교황님을 위하여 날마다 한 마디 기도라도 바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겠다.

전에는 성체강복을 마치며, Tu es Petrus, super hanc Petram, aedificabo Ecclesiam meam ! 교황님을 위한 기도의 성가를 성체 현시 앞에서 불렀으나, 요즈음은 이 기도의 노래를 들어보기가 어렵다! Msgr. Byon

262.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 2016. 6. 24. 천진암 성지, 사진화보 -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 (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 (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주한 교황 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에게, 변기영 몬시뇰이, 기념제 거행 전 강학실에서 신임 천진암 성지 전담 김동원신부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7번 참조).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 (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 주한 교황 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에게, 변기영 몬시뇰이, 기념제 거행 전 강학실에서 신임 천진암 건설본부장으로 임명된 송병선 신부를 소개한 후,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7번 참조).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 (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기념제 거행 전, 수원교구장 겸 천진암대성당건립위원회 총재 이용훈 주교가 주한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를 맞이하고 있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7번 참조).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 (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 주한 교황 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에게, 변기영 몬시뇰이, 기념제 거행 전 강학실에서 신임 한민족100년계획천진암대성당건립위원회 이수성 위원장(전 국무총리)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7번 참조).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 (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7번 참조).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 (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 애국가 봉창과 6.25 전몰장병을 위한 묵념(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7번 참조).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 (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사제단. 주한 교황대사 Osvaldo Padilla대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충대리 이성효 주교, 교구장 보좌 문희중 주교, 변기영 몬시뇰, 성남대리구장 배영섭 신부, 광주 성당 주임 김화태 신부, 등 사제단(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7번 참조).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 (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 경축사 메시지 발표)((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7번 참조).

MESSAGE

MASS AT CHON JIN AM

JUNE 24, 2016 ? 11 A.M.

I wish to unite myself with the Bishop of Suwon Most Rev. Matthias RI long-hoon, the Ausiliary Bishops the Priests, Religious and Lay people ? as we celebrate the feast of St. John the Baptist.

Today we commemorate in our spiritual intentions the Servants of God, John Baptist Yi Byeok, and companions, whose remains are buried here at Chon Jin Am. We pray

that their cause of martyrdom will soon be approved and that they will be, in the near future, elevated to the Altars as “BLESSED”, martyrs for the faith. The “servants of God” at Chon Jin am were the first Christians in Korea who gave their lives for Christ ? the blood of these first martyrs is the foundation stone of the life of the Church in Korea.

The Visit of the Holy Father to Korea (August 14-18) brought out three spiritual realities of the life of the Church in Korea ? its past, present and future: MEMORY, HOPE, WITNESS.

- MEMORY: we cannot forget the peculiar origins of the Church in Korea, by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 it is a Church that was started by lay persons. The first Christians and martyrs are here at Chon Jin am. This memory is now blessed with our 103 saints, 124 blessed, all holy martyrs, and at present there is the advanced process in Rome, John Baptist Yi Byeok and 4 other companion whom we venerate and commemorate at today’s Holy Mass.

- HOPE ? We do not commemorate only the past, but also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e martyrs of the Church are shining examples to all the baptized of total commitment to Christ. The Holy Father, Pope Francis, after his visit, asks all Korean Catholics to commit themselves totally to Christ, in their lives and in their mission to others.

- WITNESS ? in the midst of secularization of society and relativism in search for personal material comforts, the life of the holy martyrs and servants of God bears

witness to the grace of the Spirit, as the continued fertility of the grounds of evangelization and personal sanctification.

Pope Francis asks us to be guardians of memory of hope” to be truewitnesses of the Gospel: “The Church is the guardian of memory and hope: she is a spiritual family in which the adults pass on to the young the torch of faith received from their forebears. The memory of past witnesses becomes a new witness in the present and hope for the future” (Pope Francis, August 20, 2014)

It is the prayer of Pope Francis that: The tree that was planted and nurtured by the blood of the martyrs will spread its branches ? in Korea and in other countries of Asia- like arms of love for Christ in Korea. We pray that MEMORY, HOPE, AND WITNESS will continue to urge us on to the joy of gospel.

AMEN

Seoul, 24 June 2016 /

+ Osvaldo Padilla

Apostolic Nuncio in Korea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 (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경축사를 하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경기도지사 대독). 경기도의 자랑스런 한국천주교회 발상지 천진암 성지와 100년계획 천진암대성당 건립을 위하여, 경기도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였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7번 참조).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 (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만세 9창을

외치는, 이수성 위원장, 김성훈 부위원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남기춘 사무총장, 등(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7번 참조).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 이용훈 주교의 미사 강론(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7번 참조).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제1독서를 하는 남기춘 성지 부위원장)(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Photos 참조).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미사 후, 신임, 천진암 건설본부장 송병선 신부의 모시는 말씀>(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7번 참조).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서울, Musica Sacra 합창단의 성가 연주(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7번 참조).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행사 후, 아주 간소한 도시락 접시로, 점심을 하는 주교들과 사제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7번 참조).

● 작성일 : 2016-07-06 20:36

263. 전쟁이 나더라도, 핵폭풍 전야가 오더라도, 天主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로, 평화를 잃지 맙시다!

天主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심으로, 전쟁이 나더라도, 핵폭풍 전야가 오더라도 평화를 잃지 맙시다!

교황님께서는 TV를 거의 보시지 않는다고 어느 기자의 질문에 답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매일 같이 시간마다 가공할 핵무기 언급과 세계 대전을 전제한 장거리 유도탄 시험발사와 방어무기 소식, 국내외의 지진과 태풍과 홍수! 이슬람 무장단의 끔찍한 자살폭탄 테러와 미국 사회의 끊이지 않는 무차별 총격사건, 게다가 국내에서도 무차별 무작위의 흉악한 사건들! 더욱이 중국 문화혁명을 되새기게 하는 무경위(無經緯)의 횡포가 정계와 일부 종교계에서까지도를 넘는 현실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군인들이 시작하거나,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백성들이, 특히, 그 시대 지성인들 중에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면, 하느님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악관이 악만이면 천필주지-익지서 -惡?若滿 天必誅之- 益智書).

주후 72년 경 이스라엘처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나 일본침략(한일합방) 때처럼, 지금 우리나라 사회와 교회의 실상이 이러한 지경인데, 전란이 나지 않는 것이 주님의 기적이요, 주님의 은총이며, 우리 신앙의 순교 선조들의 도우심입니다. 전란이 난들이보다 더할까? 신전에서 왕하는 무신론 세력들의 함성으로, 신도 거할 수 없는 처지라면, 이보다 더 큰 난리가 어디 있으랴?!

그러나 아무리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가리며 겹겹이 짙게 덮어 내리고, 우박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심하게 휩쓸며 불고 가도, 이 바람과 저 구름 위의 맑고 밝은 푸른 하늘은 변함 없이 우리를 지키며 보고 있듯이, 天主님께서서는 우리를 참새 한 두 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챙기십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시국입니다.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앞에서 원자폭탄이 터지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기로 합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어느날 가족들이 아침을 먹으려는 순간, TV를 보던 초등학교 3,

4학년 꼬마가, “엄마, 전쟁이 났대요, 할무니, 정말 난리가 났대요!” 하는 소리에, 출근 준비로 옷을 갈아입던 남편도, “뭐? 드디어! 기어코! 전쟁이 났구나!” 하며, 부인에게, “빨리, 간단히 짐을 꾸려서 챙겨가지고, 어머님 모시고, 아이들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도록 해요! 나는 회사에 들려서, 직원들 하며, 급한 일 하며, 우선 처리하고 바로 갈테니!” 하며, 일시에 집안에도 집안 난리가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기도하며 평화로이 차분하게 살고 있는 부인이, 커피와 라면을 차려오며, “애들아, 어서 앉아서 아침 먹자!” “커피 식기 전에 어서 마시고, 아침을 잡수십시다!” 하며, 조금도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이 모두 아침식사를 잘 하게 하는, [신앙 있는 부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 훗날, 저 꼬마들이 모두 자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새로 태어나 자라나는 어린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 옛날 그 무서운 전쟁이 나던 날 아침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서운 전쟁이 나던 날 아침에, 내가 너희만한 어린이였을 때, 전쟁 발발 보도에 우리가 모두 놀라고 겁에 질려, 당황하며 혼비백산할 때, 너희 증조할머니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전 날 아침처럼, 그 때 우리 온 가족이 모두 앉아서, 평화로이 아침 식사를 하게 하셨단다 ! 그 전쟁 통에 돌아가셨지만!”

天主님께 대한 신앙으로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天主님의 사랑과 안배를 신뢰하면서, 이 시국을 살아갑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스리는 나라들의 핵무기와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강대국들의 무기와 국제 협약을 너무 믿지 맙시다. 天主님을 믿는 신앙심으로, 하루하루를 평화로이 굳세고 바르게, 용감하게 살아갑니다. 天主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Msgr. Byon

● 작성일 2016-07-10 오전 4:04:00

264. 8월 6일(토), 제221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 조국과 민족, 직장과 가정을 위하여...(오후 6시 ~9시)

오는 8월 6일(토요일) 저녁 6시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직장과 가정을 위하여,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제221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가 봉헌되겠습니다.

매월 첫 토요일 저녁에 바치는 천진암성지의 월례 촛불기도회는 오후 6시부터 여러 사제들이 [성모신심 미사]를 봉헌하고, 이어서 촛불을 들고 묵주의 기도 15단을 정성껏 바치며, 세계 평화의 성모상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平和統一은 공짜통일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은 統一戰爭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기도와 희생과 인내와 보속과 봉헌으로 점철된 殉教統一입니다. 죽고 죽이는 武士掌風이나, 西風과 대결하는 東風보다도 더 막강한, 천상에 계신 성모 마리아의 聖母 天風 까지도 동원하는 기도와 보속이 전제된, 天主님이 도와주시는 초자연적 戰力에 의해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통일입니다. 天主 聖父님의 神風으로 온 우주 천체가 再改되기 전에, 기도와 보속의 天風으로 우리나라와 우리겨레를 平和統一합시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면 하늘도 말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피흘리는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전범자들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천주님께 기도합시다 !!!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특히 극동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빈약한 국가들이, 무력 강국화와 경제대국화에 집중하면서 영토확장까지 추구하는 이웃 중국, 일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핵무기 신앙에 집착하는 북한을 대하고 있는 우리로서, “세

제평화의 성모님”께 진심으로 열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남북한이 모두, 중국과 일본, 특히 북한도 더욱 진솔하고 정직하고 겸손해지고, 남한도 오락과 유흥과 사치와 향락을 줄이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 개인들도 국가도 모두 정직하고 근면하며, 천주대전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대가 천주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7월 2일(토), 제220회 천진암성지 월례 촛불기도회(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news 제328번 참조).

***** <변기영 몬시뇰 새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곡수1리, 곡수앞산길 122-10, 곡수리 천주교회

전화: 031-771-2086, 774-2086, Fax: 031-774-2084.

e-mail: msgrbky@chonjinam.org / Internet homepage:
<http://www.chonjinam.org>

전철-서울⇨용문 종점 하차⇨여주 이천(이포교) 방향 15km 지점 곡수리 천주교회.

승용차-서울⇨홍천 행 강북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첫 용문, 지평 교차로 하차⇨여주, 이천 방향. 15 Km.

* 곡수리 성당 은 수원교구 양평본당(주임 이재열 신부님) 관할 공소로서, 금년이 공소 설립 50주년이며, 3백여 년 전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5일마다 시골장이 열리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여, 장이 사라졌고, 20여 년 전 양평본당 주임 김영장 신부님 때 건립된 공소 성당 건물과, 금년 교구에서 신축한 작은 사제관이 있고, 현재 교우 수는 주일미사(오전 8시 30분) 참석 약 30여명과, 평일미사(매일, 오전 8시 30분)에는 7,8명 교우들이 참석하는데, 모두가 7, 8십대 몸이 불편한 교우

들 뿐, 젊은이들은 실제로 전무한 편이며, 주일에는 주변 군부대에서 장병들 20여명~40여명이 와서 미사에 참석하는 공소입니다. -Msgr. Byon-

● 작성일 : 2016-07-22 15:53

265. 100년 계획과 당대주의 반성 !

<무터위 속 성지 홈페이지 최근 방문자 통계

- 변기영 몬시뇰 새 주소>

천진암 성지 한민족 대성당 건립의 100년 계획과 당대주의.

한국에서 당대 관련 사제의 최상의 대표적인 박학다식한 석학들과 고위 원로 성직자들이 15년여에 걸쳐,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고 집중하여 탄생시키고, 다듬고 키우며, 정성을 바친, 천진암대성당 건립계획 한민족 “100년 계획”은, 한 때, 일부 후대인들의 무지하고 용감한(?) 당대주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당대주의는, 불확실한 모험주의의 시도로서, 과거 역사에 대한 파괴 先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천주님도 불가능하신 역사 개조라는 사회주의 혁명정신으로 가는 개인적 욕망주의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이는 근래에 와서, 역사수정주의 사고방식에 몰들어,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현 교황님은 되도록,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피하시고, “기억 지킴이” 표현에서 보듯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쓰십니다. 즉, “너희는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Hoc facite in meam commemorationem!” - 미사 통상문의 성체 성혈 축성 끝 말씀).

한민족100년계획 천진암대성당 건립 계획 입안과 시행에 함께한, 이 시대 신앙과 신심의 노병들이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年少하였던 필자와 더불어 함께 하며, 천진암 성지 성역화와 대성당 건립 계획에 깊이 관여

하며, 필자의 부족을 보완하던, 많은 선각자 선배님들 중에, 특별히 일부 몇몇 선배님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천진암 자료집 참조), 이분들의 숨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동시에,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천진암 성지에서 봉사하는 후대인들이 성지 성역화의 계획변경이나 노선 개조의 필요성을 느끼며, 시도할 경우, 우선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냉정하고 진솔하게 돌아보며, 초대 선임자들의 학덕과 경륜과 정성을 적어도 한번쯤은 참고삼아 훑어보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천진암 자료집 참조).

김남수 주교 - 로마 유학, 불교학 주제 신학박사, 부산 양정고등학교 교장, 한국주교회의 사무총장, 제2대 수원교구장, 순교복자 김대건 신부 시성추진회의 지도신부, 한국순교자시복시성위원회 위원장, 한국천주교회 발상지 천진암 성지 성역화위원회 위원장, 천진암 대성당 건립위원회 초대 총재.

유홍렬 박사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역사학과 주임교수, 천진암성지위원회 위원장, 100년계획 천진암대성당 건립위원회 초대 위원장, 한국 주교회의 103위 순교복자 시성추진위원회 위원.

이승녕 박사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주임교수, 학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천진암 성지 제2대 위원장.

유영도 신부 -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에서 철학박사, 신학 박사, 및 교회법 박사, 3개 학위를 취득한 한국 출신의 천재, 서울 대신학교 교회법 교수, 천진암 성지의 한국천주교회 창립기념일 제정의 교회법상 법률 담당. 한국순교자시복시성추진위원회 상임위원.

이원호 교수 - 일본 와세다대학 졸, 식물학 전공, 서울 시립대학 식물학 교수, 신장본당 총회장, 이벽성조묘이장위원, 천진암성지위원회 초대 위원.

염보현 지사 -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서울 올림픽 준비, 천진암성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영훈 총리 - 만주 건국대 졸, 미국 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

사, 육군사관학교 교장, 군단장, 주 바티칸 한국대사, 영국 대사, 국무총리, 최초 남북총리회담 주선, 천진암성지 제3대위원장.

김용래 지사 -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총무처장관, 천진암성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길 교수 - 평양고보, 연희전문(사학과), 미국 보스턴대학 철학박사, 연세대 사학과 교수, 국회의원, 천진암성지위원회 고문.

이어령 교수 - 서울대학교 졸, 문학박사, 숙명여대 교수, 서울 올림픽 문화분야 준비 참여, 천진암100년계획 대성당 건립위원회 상임위원.

최병렬 장관 - 서울법대 졸, 조선일보 편집국장, 문화공보부장관, 천진암성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광모 회장 - 이화여대 졸, 한국일보 기자, 한국소비자연맹, 천진암 성지위원회사무총장.

김성훈 교수 - 서울농대 졸, 중앙대학교 농촌경제학 교수, 농림부장관, 등. 천진암성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이 외에도, 실로 박학다식한, 훌륭한 분들이, 특히, 우리 사제들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유능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를 도와주며, 주님의 일을 함께 거들어주었는지!? 천상에 계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무식하고 무능한 우리를 보살피시는 손길이었습니다.

특별히 1980년부터 2000년 사이, 역대 주한 교황대사 대주교님들, 특히, Ivan Dias 대주교님(후에 로마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추기경)과 John Blaitis 대주교님은 매년 기념행사 참석은 물론이고, 경축미사 주례나 경축사나 경축기념 강론을 하였으며, 매년 수차례씩 빈번히 개최하던 천진암 성지와 100년계획 대성당 건립에 관한 각종 대소 위원회에, 김남수 주교님과 함께 거의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이, 성실하게, 또 진솔한 자세로 참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며, 진솔하게 관여하며 지도하여 주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 안에도 사회주의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각 분

야에 대소간의 영향을 적지 않게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오늘과 내일의 후대인들, 특히, 오늘의 우리는 결코 당대주의에 사로잡혀, 전문 석학들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과거 역사 자체를 무시하고, 반대하며, 온갖 흔적을 백지화하면서, 영점에서 새로 다시 시작하려는 유혹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실로 개인적인, 너무나 좁고, 짧은 안목과, 개인의 취향을 따라, 천진암 성지 100년계획의 정신과 의미와 가치와 교훈을 도외시함으로써, 천진암 성지를 우리들 개인의 인기와 명성을 위한 모험적인 시도의 연습 현장이 되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사람은 바뀌어도, 역사의 전승 위에서 보완적인 쇄신을 이어감으로써,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업 계획은 지속되는, 로마 교회 주님의 사도적 전승이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이, 이 나라에도, 적어도 한국천주교 발상지 천진암 성지 한 곳에서만이라도 남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쪼들리고, 시달리며, 들볶이고, 궁핍하더라도, 수익사업만은 일체 금기시하며, 결코 돈 벌이를 하지 않은, 천진암 성지의 초대 선임자들의 전통이 지켜진다면, 성모님께서는 후대인들과 천진암 성지에도, 더욱 풍성한 은총을 주시며, 모든 일을 보살펴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직자들이 주님 교회 일에 잔심부름을 하다가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게으르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주님의 안배에 신뢰하면서 나아갑시다. -추후 계속-

-Msgr. Byon-

* 최근 무더위 속에 성지 홈페이지 방문자 통계. 예전에는 무더위와 휴가철에는 급격히 줄던 성지 홈페이지 방문자가 금년 증가하는 기현상은 ?!!*

총 접속 통계 <2012. 3. 07.~ 2016. 8.10.>

총 접속 카운트 : 5911607

2016년 7월 총 접속횟수 : 210548 명

최대 접속 카운트 :10702

평균 접속 카운트 : 6792

최저 접속 카운트 : 4252

[시간별통계] [일별통계] 생략

2016년 7월 총 접속횟수 : 210548 명

최대 접속 카운트 :10702

평균 접속 카운트 : 6792

최저 접속 카운트 : 4252

일 카운트 그래프

1 9603 / 2 8519 / 3 8608 / 4 7160 / 5 6352 /
6 6998 / 7 6406 / 8 6442 / 9 7739 / 10 7721 /
11 6715 / 12 10702 / 13 8432 / 14 9258 / 15 5458
16 5795 / 17 4341 / 18 5914 / 19 5198 / 20 6459 /
21 5525 / 22 4828 / 23 4252 / 24 5865 / 25 8601 /
26 6707 / 27 7249 / 28 7127 / 29 5193 / 30 6484 /
31 4897

2016년 8월 총 접속횟수 : 64448 명

최대 접속 카운트 : 8977 평균 접속 카운트 : 5859

최저 접속 카운트 : 148

일 카운트 그래프

1 5051 / 2 5567 / 3 5522 / 4 5229 / 5 4882 /
6 5680 / 7 8977 / 8 7136 / 9 8150 / 10 8106 /
11 148

<2016. 8. 11. 01:30.>

***** <변기영 몬시놀 새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곡수앞산길 122-10, 곡수리 성당

전화: 031-771-2086, 774-2086, Fax: 031-774-2084,

e-mail : msgrbky@chonjinam.org

Internet : http://www.chonjinam.org

전철-서울→용문 종점 하차→여주 이천(이포교) 방향 15km
지점 곡수리 성당.

승용차-서울→홍천 행 강북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첫 용문,
지평 교차로 하차→여주, 이천 방향. 15Km.

* 곡수리 성당 은 수원교구 양평본당(주임 이재열 신부님) 관
할 공소로서, 금년이 공소 설립 50주년이며, 3백여 년 전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5일 마다 시골장이 열리던 곳이었으나, 지
금은 인구가 감소하여, 장이 사라졌고, 20여 년 전 양평본당 전
주임 김영장 신부님 때 건립된 공소 성당 건물과 교육관과, 금
년 교구에서 신축한 작은 사제관이 있고, 현재 교우 수는 주일
미사(오전8시 30분) 참석 약 30여명과, 평일미사(매일, 오전 8시
30분)에는 7, 8명 교우들이 참석하는데, 모두가 7, 8십대 몸이
불편한 교우들 뿐, 젊은이들은 실제로 전무한 편이며, 주일에는
주변 군부대에서 장병들 20여명~40여명이 와서 미사에 참석하
는 공소입니다. 천진암 성지에서 곡수리 공소까지는 자동차로
한시간 정도 걸리며, 서울 강남에서도 한시간 남짓 걸립니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곡수리 천주교회]를 치면 안내됩니다.
-Msgr. Byon-

● 작성일 : 2016-07-28 04:32

266. 교황님, 천주교회 여성 부제직에 관한 연구위원회 구성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여성들의 부제직 연구위원회” 구
성<추가 부언 설명>

(Commissione di studio sul Diaconato delle donne)

프란치스코 현 교황님께서, “여성들의 부제직” 에 대한 연구

위원회"(Papa crea Commissione di studio sul Diaconato delle donne)를 구성하시고, 12명의 위원들을 위촉하셨습니다. 남자 6명과 여성 6명 중에 남자들은 성직자들이고, 여성들은 몇몇 대신학교 교수들이며, 위원장으로는(presidente) [信仰教義聖省] 차관, Luis Francisco Ladaria Ferrer 대주교를 임명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여성들의 부제직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초대 교회 시대의 여성 부제직에 관하여 우선 살펴보고, 탐구하여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교의성성 차관 대주교를, 동 위원회의 담당 책임자(presidente)로 선정하여 임명하시고, 12명의 위원을 임명하셨다는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단순히 “연구” 하여 보라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여성들의 성직 참여에 관하여 현대 교회의 관심이 없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1984년 10월 14일, 로마의 사도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된, [한국순교 성인 103위] 축일, 첫 기념 경축미사 중의 공식 강론에서, 자발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한국교회를 세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언급하시며(1779년부터 1835년까지 56년간이나 사제들의 도움이 없이 - 비록, 잠시 중국인 사제들이 있었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의 조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고, 생명을 희생하신, "저 남녀 평신도들은 마땅히, 한국천주교회의 창립자들"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추가>: 사실 천주교회 내의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과 기능은 성직을 제외에 하고는 남자들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도 있다. 모든 본당 공동체의 출발과 결성과 성장은 대부분이 여성들의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성당건립이나 많은 봉사단체의 중심에는 여성들의 존재가 항상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성직과 신학연구나 성서학 연구와 그러한 분야의 교편을 잡는 일에 있어서 여성들이 매우 아쉽게도 그 활약이 저조하였던 이유는, 지나간 인류역사에 있어서, 완력과 무력과 세력을 장악한 장군들과 제왕들이 주로 남자들의 차지가 되어 왔기 때문이지만, 지금 유럽의 경우, 천주교회 대신학교 신학과 교수들 중에 여성 평신도 교수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시대의 성모 마리아는, 그리스도 생전에도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하셨으며, 사도들의 전교활동과 사목현장을 돌아보며, 보살펴주셨기에, 성모님은 사도들의 생활과 활동의 구심점이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성모님을, "사도들의 모후여"라는 호칭기도가 전승되고 있다.

한국천주교회 창립초기에도, 광암 이벽 성조의 부인 유한당권씨는 병조판서 권엄의 딸이었는데, 당시 관습에 따라, 어릴 때, 부모들끼리 정한 혼인으로 이벽성조와 결혼하였으나, 광암 이벽성조께서 천진암 심산궁곡의 입산수도에 10여년간 집중하므로,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유한당은 무육(无育=無育=자식을 낳지 못한 부인)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마치 당시 불교의 비구니 여승들처럼, 신생 천주교회 안에도 가정에서 동정생활의 기원이 되는 영향을 끼쳤으며, 그 영향으로, 이벽 성조 사후 반세기 후에 종친회에서 족보상 계자(系子=양자) 지정 때에도, 해주정씨 역시 무육(无育=無育=자식을 낳지 못한 부인)으로, 기록될 정도로, 교회 내의 가내 동정녀들이 양반집 족보에 기록될 정도로, 한국천주교회 창립초기에는, 지금처럼 수녀원이 없었기에, 집안에서 수절하는, 이미 거룩한 동정녀들의 신앙과 신심의 기원을 이루어, 동정부부 이누갈다처럼, 미리내 본당 병목골의 이회장 여동생, 이 말따 자매처럼, 집안에서 수절하며 동정을 지키는 여성들이 종종 있었다.

특히, 한국천주교회 창립초기에는 양반 학자들 중심으로 漢文 기도문을 바치며 출발하던 시절인데, 천주경역시, "재천아등부자

여, 이명이 현성하며, 이국이 임격하며(在天我等父者, 爾名顯聖, 爾國臨格...)를 종들과 상민들을 위하여, 유한당 권씨가 언문(한글)으로 번역하여, 언역정사(諺譯淨寫)하여 세간에 보급하였다. 이는 이벽전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천학서적의 일부 번역이 유한당 권씨에 의해 되었다고 하는 표현에서, 진서라고 하던 한문을 모르는 일반 상민들과 서민들 용의 언문 기도문 번역은 최우선 선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반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중국어로 된 漢文 천주경을, 처음으로, 언문(諺譯)으로 번역하여, 바치게 한 유한당의 업적을 높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에서 한문을 주로 사용하던 양반 천주교회들, 상민들과 종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서민들의 천주교회로 발전시키는 일에, 여성들이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면에서 볼 때, 1984년 103위 첫 축일 미사 강론 때,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성하의, 말씀 중에, “男女, 이 평신도들(Questi laici uomini e donne, giustamente considerati, “FONDATORI DELLA CHIESA IN COREA”)” 을 거론하시면서, “여성” 을 포함시켜 언급하신 것은 지당한 표현이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Latin어를 주로 사용하던 유럽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후에 와서, 미사 중 독서와 복음낭독, 기도문, 등을 현대 각국의 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게 하였는데, 한국천주교회는, 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 200여 년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여성들에 의하여, 전례상 기도문을 서민화하였다.

〈Questi laici uomini e donne, giustamente considerati, "I FONDATORI DELLA CHIESA IN COREA", per ben 56 anni dal 1779 dal 1835, senza l'aiuto di sacerdoti - tranne al presenza assai breve di due sacerdoti cinesi - hanno diffuso il vangelo nella loro patria fino all'arrivo dei Missionari Francesi nel 1836, ed hanno offerto e sacrificato la vita per loro fede in Cristo.- Sermo del Papa

Giovanni Paolo 2, il 14, Ottobre 1984, durante la Messa del primo festo dei 103 nuovi canonizzati Coreani nella Basilica di San Pietro in Roma)

***** 이하 원문(피온 글) *****

Papa crea Commissione di studio sul Diaconato delle donne

2016-08-02 Radio Vaticana

Papa Francesco, come espresso lo scorso 12 maggio nell'incontro con le superiori generali in Aula Paolo VI, ha ufficialmente istituito una Commissione incaricata di studiare la questione del Diaconato delle donne", "soprattutto riguardo ai primi tempi della Chiesa." Come presidente, Francesco ha nominato l'arcivescovo Luis Francisco Ladaria Ferrer, segretario della Congregazione per la Dottrina della Fede. I membri della Commissione sono 12, sei donne e sei uomini. Di seguito i loro nomi: Rev. da Suor Nuria Caldich Benages, M.H.S.F.N., Membro della Pontificia Commissione Biblica; Prof.ssa Francesca Cocchini, Docente presso l'Università «La Sapienza» e presso l'Istituto Patristico «Augustinianum», Roma; Rev. do Mons. Piero Coda, Preside dell'Istituto Universitario «Sophia», Loppiano, e Membro della Commissione Teologica Internazionale; Rev. do P. Robert Dodaro, O.S.A., Preside dell'Istituto Patristico «Augustinianum», Roma, e Docente di patrologia; Rev.do P. Santiago Madrigal Terrazas, S.I., Docente di Ecclesiologia presso l'Università Pontificia «Comillas», Madrid; Rev. da Suor Mary Melone, S.F.A., Rettore Magnifico della Pontificia Università «Antoniano», Roma; Rev. do Karl?Heinz

Menke, Docente emerito di Teologia dogmatica presso l'Universita di Bonn e Membro della Commissione Teologica Internazionale; Rev. do Aimable Musoni, S.D.B., Docente di Ecclesiologia presso la Pontificia Universita Salesiana, Roma; Rev. do P. Bernard Pottier, S.I., Docente presso l'«Institut d'Etudes Theologiques», Bruxelles, e Membro della Commissione Teologica Internazionale; Prof. ssa Marianne Schlosser, Docente di Teologia spirituale presso l'Universita di Vienna e Membro della Commissione Teologica Internazionale; Prof. ssa Michelina Tenace, Docente di Teologia fondamentale presso la Pontificia Universita Gregoriana, Roma; Prof. ssa Phyllis Zagano, Docente presso la «Hofstra University», Hempstead, New York.

(Da Radio Vaticana)

*****〈변기영 몬시뇰 새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곡수1리, 곡수앞산길 122-10, 곡수리 천주교회

전화: 031-771-2086, 774-2086,

Fax: 031-774-2084, Mobile: 010-5391-5953

e-mail: msgrbky@chonjinam.org

Internet home: www.chonjinam.org

전철-서울⇨용문 종점 하차⇨여주 이천(이포교) 방향 15km 지점 곡수리 천주교회.

승용차-서울⇨홍천 행 강북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첫 용문, 지평 교차로 하차⇨여주, 이천 방향. 15 Km.

* 곡수리 성당 은 수원교구 양평본당(주임 이재열 신부님) 관할 공소로서, 금년이 공소 설립 50 주년이며, 3백여 년 전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5일 마다 시골장이 열리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여, 장이 사라졌고, 20여 년 전 양평본당 전주임 김영장 신부님 때 건립된 공소 성당 건물과 교육관과, 금년 교구에서 신축한 작은 사제관이 있고, 현재 교우 수는 주일 미사(오전8시 30분) 참석 약 30여명과, 평일미사(매일, 오전 8시 30분)에는 7, 8명 교우들이 참석하는데, 모두가 7,8십대 몸이 불편한 교우들 뿐, 젊은이들은 실제로 전무한 편이며, 주일에는 주변 군부대에서 장병들 20여명~40여명이 와서 미사에 참석하는 공소입니다. 천진암 성지에서 곡수리 공소까지는 자동차로 한시간 정도 걸리며, 서울 강남에서도 한시간 남짓 걸립니다. 자동차의 나비게이션에, [곡수리 천주교회]를 치면 안내됩니다.

- Msgr. Byon

● 작성일 : 2016-08-03 03:11

267. 1억 2백 80여만 원을 봉헌한 교회직원, 30여 년 간 그리 많지 않은 급여에서, 매월 20~30여만 원씩 봉헌!

1억 2백 80여만 원을 봉헌한 교회 직원, 30여 년간 그리 많지 않은 급여에서, 매월 20~30여만 원씩 꾸준히 봉헌 !!

천진암 성지에 장기근속하며 봉직한 직원들 중에는, 사회 직장에 비하여, 매월 받는, 결코 많지 않은 월급에서, 성당건립 성금(돌값), 등으로, 매월 2,3십여만 원씩 30여 년간 꾸준히 매월 빠짐없이 봉헌하여, 2016년 6월 현재, 1억 2백 80여만 원을 바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40여 년째 라자로 돕기 장기 회원으로 지금도, 매월 월급에서 5만원씩 봉헌하고 있습니다. 교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각자 가능한 한 자신의 분수에 맞게, 다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직장이기도 한, 교회에 정성껏 봉헌하는 정신을 기르는데 귀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수원교구 내의 평신도들 중에, 특히, 교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본당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사회 직장의 보수에 비하여, 모두가 그리 많지 않은 급여 중에서, 이처럼 수십년씩 매월 꾸준히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교회에 이처럼 봉헌한다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전제된 봉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신도들은 교회를 자신의 직장보다도, 자신의 가정으로, 자신의 인생으로 삼고 일하며,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도 없습니다. 또한 최 장기근속에 무사고로 성실하고 근면하여, 일찍이 천진암성지 강영훈(전 국무총리)위원장님과 총재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님으로부터 기념패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직원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을 위하여도, 더욱이, 몸이 불편한 젊은 사제들이 적절히 요양할만한 마땅한 거처가 별로 없던 시절(1975~1995), 부득이 휴양해야 할 사제나 수도자를 위하여, 평소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로, 얼마 안 되는 급여를 10여년간씩 매월 저축하여 모은 그리 많지 않은 돈으로, 값싸고 허술한 작은 농가를 매입하고 (시골 마을에 50평 대지에 20평 가옥), 수리하여, 고생하는 사제나 수도자가 교대로, 1년~2년씩 무상으로, 거하며 휴양할 수 있게 제공하였으며, 더욱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용도대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 교구 소속의, S 신부님, B 신부님, 타교구의 Ch 부제님과 또 다른 교구의 Sh. 신부님, 모 수녀회의 K 수녀님, 대신학생, 등>

또한 사회의 직장에서처럼, 교회에 근무하는 평신도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넉넉히 주지 못하는 교회의 우리 성직자들은 늘 마음만이라도 급여에 보태어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봉사(奉仕)라는 이름으로 혹사(酷使) 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없는지, 성직자들뿐 아니라, 모든 신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정의를 부르짖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로서 교회가 반성할 점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구청이나 본당이나 모두, 신도들의 성금으로 운영하

며 유지하는 교회기관을 직장으로 삼고 봉직하는 교회 직원들도, 다소를 불문하고, 꾸준히, 진심으로, 정성을 바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쓰지 말아야만 할 데에 쓰는 돈을 낭비” 라 하고, “써야만 할 데에 돈을 안 쓰고, 못 쓰는 것을 인색하다.” 고 흔히 말하는데, [인색한 사람은 평생을 궁색하게 살게 마련]이랍니다. Msgr. Byon

● 작성일 : 2016-08-18 23:33

268. 중국의, [南韓 Thaad 設置 반대]와, [南中國海 독점]에 대한 美國의 대처방안 再考 !

中國의, [南韓 Thaad 設置 反對]와 [南中國海 영유권 독점]에 대한 美國의 대처방안과 - 우리의 大聖堂 建立 ! -

현대전을 염두에 두고, 남한의 사-드 설치를 극력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더욱이 남중국해 뿐 아니라 일명 조어도(釣魚島)의 소유권을 놓고, 中.日은 심히 다투며 무력충돌 직전에 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近海와 島嶼들과 각 나라의 국토는 그 지역을 터전으로 삼아, 유구한 세월을 살아온 原住民 種族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그 소유권과 사용권과 관할권이 있는 것이다.

다만, 주변 지역에 새로이 출몰하는 국가나 정권의 교체 와중에서, 移住民들의 사용권과 생존권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소유권과 사용권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생존권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오늘의 인류가 또다시 과거 北·南美的 西歐 정복군들이 저지른 近代史와, 사할린 지역의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한 韓族 강제 移住史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유권 문제는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편에서라도, 먼저 軍士力을 동원한 공격으로 점유하려고 하기 전에, 첫 단계로 반드시 우선 經濟力을 동원하여 먼저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不合理하고 不法의이며 非倫理的인 정복주의 일변도의 국가들 간에, 어느 편에서든 간에, 먼저 군사력을 동원하여 공격하거나 대처한다면, 새로운 大東亞戰爭으로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며, 아시아에서의 天下大亂은 쌍방들이 받는 손실이 지금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손실이 가장 크고 많을 것이다. 가장 넓고 크고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욕망도 과다하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語不成說이라서, 合理的인 대화로 설득이 안되어, 서로가 言語道斷과 馬耳東風, 牛耳讀經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軍事力보다는 經濟制裁로 소기의 目的 이상의 實益을 거둘 수 있다. 오늘의 중국이 大韓民國의 武裝解除를 강요한다면 이는 큰 誤算이다. 또한 오늘의 中國은 美國의 軍事力, 특히 泰德의 南韓 設置 그 자체보다는, 中國에 대한 미국과 그 友邦國들의 經濟制裁를 더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經濟制裁는 전쟁없이도, 中共政權을 견잡을 수 없이 뒤흔들어, 國力을 弱화시키고, 無力化시키며, 과욕을 줄이게 하고, 大國을 매우 急速히 여러 小國으로 分國化시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핵폭탄보다 경제폭탄은 더욱 무서운 것이다.

최근 핵무기 신앙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더욱이,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의 실로 여장부다운 눈부신 국제 외교활동으로, 한반도의 북한 非核化 실현 가능성이 매우 진전되고 있음은 전 세계가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우리 국민들도, 통치권자들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하며, 더욱 힘을 내어 더 잘하도록, 돈 안들어 가는 찬사에 정직하고 인식하지 말아야 하겠다. 나무에 올라가라고 권고하고 나서, 올라간 후에는 떨어지라고, 나무를 흔들어대던(勸上搖木), 구한국 말 정치 건달들의 행태를 다시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 특히, 일부 언론인으로 자처하는 개인이나, 그러한 개인들의 모임이나 조직적 단체는, 그 옛날 조선시

대의 시기 질투의 化神이었던, 정말 못나고, 아주 못돼 먹은, 실로 고약한 선비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와 민족과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보다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비인간화의 오염을 시켜서야 되랴? 그렇게 생긴 돈이나 집이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노동의 댓가로만 살고, 노동의 댓가만큼만 사는 수준이나 정도에 만족할 줄 알게 해야 한다.(知足可樂).

中國과 日本과 蘇聯, 등, 아시아의 강대국들은 주변의 弱小民族들의 생활터전을 점령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며, 보살펴주고,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共生해야 한다. 강대국들이 영유권 문제로 싸우면, 그 現場은 無罪한 약소민족들의 共同墓地化로 끝나게 되지 않고, 不治의 傷處가 되어, 강대국들에게도 끈질기게 고통을 주게 되며, 하늘도 무심하지 않을 것이다(惡罐若滿 天必誅之- 益智書).

각 나라의 正直한 言論들은 이 시기에, 극동 아시아의 安全과 世界平和를 위하여, 武力의 非核化 運動과, 武器 密貿易 축소에 대하여, 言聲을 높이며, 特筆大書해야만 한다. 中東과 아프리카에서 보듯이, 영토와 원유 자원, 등에 대한 강대국들의 過慾이 가난하고 무력한 약소민족들을 동원하여, 굶주리고 허기진 그들의 손에 끔찍한 무기를, 심지어 人類自滅의 핵무기까지 쥐게 하여, 同族相殘의 殘忍한 悲劇도 서슴지 않게 非人間化하면서, 더구나 종교적 신앙까지도 악용케 함으로써, 強大國들의 발등에까지 불을 지르게 하고 있다. 참으로 핵전쟁만은 모든 인류가 나서서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다.

經濟發展이 國家存立의 唯一한 目的이 아니므로, 天主를 信仰하며 恭敬하는 모든 信徒들은 오락과 유흥, 사치와 향락을 줄이고, 천주공경에 힘을 모아야 한다. 허구많은 일시적인 시사성을 띤 세속적인 시설들, 즉, 현대판 COLOSEUM 건설이나, 萬里長城 신축 현장에 몰려다니며, 모여서 기웃거리지 말고, 발길을 돌려서 弘益人間, 敬天愛人 정신의 천주공경하는 대성당 건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우리 韓民族의 平和統一을 위해서는, 103위 殉教 聖인들의 후예로서, 100년계획 천진암대성당 건립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다. 중세기 유럽에서처럼, 과도하게 화려한 대성당보다도, 검소하고, 소박하면서도, 순수하고, 진솔한 신앙의 전당으로, 弘益人間과 敬天愛人の 具體的 殿堂이 되는, 한민족 통일의 평화대성당 건립에 온 겨레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날 우리 선조들이 대성당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물려주지 아니하였다고 假定해 보자! 서울의 명동 대성당이 없이, 지난 100년을 살아야 했다면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가 지금 어떠할까? 로마의 사도 성 베드로 대성당이 없이 지난 500년 세월이 흘렀다면, 오늘의 전 세계 교회가 어떠할까? 독일의 쾰른 대성당이 없이, 800여년을 건디어야 했다면, 오늘의 독일 교회가 어떠할까? 파리의 성모대성당(Notre Dame)이 없이 700여년을 지내왔다면, 오늘의 프랑스교회가 어떠할까?

우리나라와 우리 韓民族을 위하여, 또한 아시아 민족들, 특히 가까운 日本과 中華민족들의 弘益人間다운 天主信仰의 天神族다운 人類化를 위하여, 우리나라에도, 극동의 한반도 중앙에 있는 韓國天主敎會 發祥地 天真菴 聖地에 반드시 大聖堂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으랴!?

한국천주교회 발상지 천진암 성지에 건립되는, 한민족 100년 계획 천진암대성당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단결의 구심점이 되고, 근간이 되어, 민족애와 애국심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천년 세월을 두고, 우리겨레와 우리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될 것이다. 일시적인 시사성을 띤, 시골 장마당의 대목장을 보는 포장마차처럼, 각종 관광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한민족의 관광 자원이 될 것이다. -Msgr. Byon

● 작성일 : 2016-08-25 06:17

269. 교황님, 자의교서 발표; 인간적인 발전을! (HUMANAM PROGRESSIONEM) 발표...

교황님, 자의교서 발표: “인간적인 발전을!(HUMANAM PROGRESSIONEM)” 발표,

[全人的 人間發展 奉仕部] 신설, 장관에, Peter K. A. Turkson 추기경 임명-

전인적 인간발전 봉사부](全人的 人間發展 奉仕部) 신설.

Dicastero per il Servizio dello Sviluppo Umano Integrale)

- 신설 부서 장관에, Peter Kodwo Appiah Turkson 추기경 임명 -

프란치스코 현 교황님께서는, 자의교서(Motu Proprio)로, [전인적 인간발전 봉사부](全人的 人間發展 奉仕部)를 설정하셨다. 이는, 교황청에 설립되어 기능을 해오던 여러 유관 단체와 위원회, 즉, [정의평화위원회], [같은 한 마음], [난민들과 이주민들을 위한 사목적 사무처], [건강 관리 역군들], 등의 기관과 단체들이 모두 2017년 1월 1일부터, 병합되어 관리 운영된다.

(The 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the Pontifical Council Cor Unum, the Pontifical Council for the Pastoral Care of Migrants and Itinerant People, and the Pontifical Council for Health Care Worker).

온갖 전란과 부당한 무력 충돌의 폭력으로 무참히 죽어가며, 기아에 허덕이는 난민들과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과 비참한 인권부재 상태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etc!

2016년 8월 17일, [慈悲의 聖年]을 기념하여, 새 부서 신설 결정에 관한 [敎皇自意 敎書], Motu Proprio를 결재하신 교황님께서는, 이번 자의 교서로 결정하신 바는 교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이에 상반되는 모든 기존의 결정사항은 모두 무효임을

밝히셨다.

la Chiesa e chiamata a promuovere lo sviluppo integrale dell'uomo alla luce del Vangelo. Tale sviluppo si attua mediante la cura per i beni incommensurabili della giustizia, della pace e della salvaguardia del creato.” Il nuovo Dicastero “sara particolarmente competente nelle questioni che riguardano le migrazioni, i bisognosi, gli ammalati e gli esclusi, gli emarginati e le vittime dei conflitti armati e delle catastrofi naturali, i carcerati, i disoccupati e le vittime di qualunque forma di schiavitù e di tortura e le altre persone la cui dignità è a rischio.” Si occupa inoltre di diritti umani, specialmente quelli attinenti il lavoro, incluso quello minorile, del commercio di vite umane, della pena di morte e del disarmo.

* 이하, 2016. 8. 17. 자의교서와 2016. 8. 31. Radio Vaticana에 발표된, [敎皇自意 敎書](Motu Proprio), “인간적인 발전을, HUMANAM PROGRESSIONEM”

〈Dicastero per il Servizio dello Sviluppo Umano Integrale〉의 Latin어와 Italia어, 프랑스어, 영어 원문, etc.

현 교황님께서 재위 4년여 동안 생명을 걸고, 전 세계 빈민가들과 약자들의 현장을 찾아 방문하시며, 동분서주, 고심초사, 하시던 업무를 총괄하여 지속하는 성성(聖省=部)을 교황청 내에 신설하심으로써, 교회가 복음 정신으로 이에 충실하도록 제도화하시고, 기관화하셨다. by Msgr. Peter Byon

LITTERAE APOSTOLICAE MOTU PROPRIO DATAE
HUMANAM PROGRESSIONEM
QUIBUS DICASTERIUM AD INTEGRAM HUMANAM
PROGRESSIONEM FOVENDAM CONSTITUITUR
FRANCISCUS

Humanam progressionem integram in Evangelii luce foveat oportet Ecclesia tota sua natura suaque navitate. Eiusmodi quidem progressio per sollicitudinem de inaestimabilibus bonis iustitiae, pacis et tutelae rerum creatarum peragitur. Apostoli Petri Successor Sua in opera ad eiusmodi bona promovenda continenter instituta accommodat quae cum Ipso consociatam operam prosequuntur ut aptiore modo postulationibus virorum mulierumque respondere possint quibus servire vocantur.

Quapropter ut cura Sanctae Sedis his in provinciis efficiatur, sicut etiam in illis quae ad valetudinem respiciunt et caritatis opera, Dicasterium ad Integram Humanam Progressionem fovendam constituimus. Ad eiusmodi Dicasterii munera peculiari modo pertinebunt quaestiones respicientes ad migrationes, egentes, aegrotantes, repulsos et a societate segregatos, contentionum armatorum et calamitatum naturalium victimas, carcere clausos, opere carentes atque cuiuslibet formae servitutis et cruciatus victimas.

Novum in Dicasterium, Statuto rectum quod hoc ipso die ad experimentum approbamus, confluent, a die I mensis Ianuarii anno MMXVII, munia horum in praesens Pontificiorum Consiliorum: Pontificii Consilii de Iustitia et Pace, Pontificii Consilii “Cor Unum”, Pontificii Consilii de Spirituali Migrantium atque Itinerantium Cura atque Pontificii Consilii pro Valetudinis Administris. Memorato die haec quattuor Dicasteria suis ab officiis cessabunt atque exstinguentur, abrogatis articulis 142–153 Constitutionis apostolicae Pastor Bonus.

Quaecumque vero hisce Litteris Apostolicis Motu Proprio datis decreta sunt, ea omnia firma ac rata esse iubemus, contrariis quibuslibet non obstantibus, peculiari etiam mentione dignis, atque decernimus ut promulgentur per editionem in actis diurnis L'Osservatore Romano et deinde in Actis Apostolicae Sedis edantur ac vim suam exserant a die I mensis Ianuarii anno MMXVII.

Datum Romae, apud Sanctum Petrum, die XVII mensis Augusti, anno MMXVI, Iubilaeo Misericordiae, Pontificatus Nostri quarto.

FRANCISCUS PP.

Papa istituisce

Dicastero per il Servizio dello Sviluppo Umano Integrale

〈全人的 人間 發展 奉仕部〉

LETTERA APOSTOLICA IN FORMA DI «MOTU
PROPRIO»

DEL SOMMO PONTEFICE FRANCESCO

con la quale si istituisce il

Dicastero per il Servizio dello Sviluppo Umano Integrale

In tutto il suo essere e il suo agire, la Chiesa è chiamata a promuovere lo sviluppo integrale dell'uomo alla luce del Vangelo. Tale sviluppo si attua mediante la cura per i beni incommensurabili della giustizia, della pace e della salvaguardia del creato. Il Successore dell'apostolo Pietro, nella Sua opera in favore dell'affermazione di tali valori, adatta continuamente gli organismi che collaborano con Lui, affinché possano meglio venire incontro alle

esigenze degli uomini e delle donne che essi sono chiamati a servire.

Pertanto, allo scopo di attuare la sollecitudine della Santa Sede nei suddetti ambiti, come pure in quelli che riguardano la salute e le opere di carità, istituisco il Dicastero per il servizio dello sviluppo umano integrale. Tale Dicastero sarà particolarmente competente nelle questioni che riguardano le migrazioni, i bisognosi, gli ammalati e gli esclusi, gli emarginati e le vittime dei conflitti armati e delle catastrofi naturali, i carcerati, i disoccupati e le vittime di qualunque forma di schiavitù e di tortura.

Nel nuovo Dicastero, retto dallo Statuto che in data odierna approvo ad experimentum, confluiranno, dal 1° gennaio 2017, le competenze degli attuali seguenti Pontifici Consigli: il Pontificio Consiglio per la Giustizia e per la Pace, il Pontificio Consiglio “Cor Unum”, il Pontificio Consiglio della Pastorale per i Migranti e gli Itineranti ed il Pontificio Consiglio della Pastorale per gli Operatori Sanitari. In quella data questi quattro Dicasteri cesseranno dalle loro funzioni e verranno soppressi, rimanendo abrogati gli articoli 142-153 della Costituzione apostolica *Pastor Bonus*.

Quanto deliberato con questa Lettera apostolica in forma di “motu proprio”, ordino che abbia fermo e stabile vigore, nonostante qualsiasi cosa contraria anche se degna di speciale menzione, e che sia promulgato tramite pubblicazione su *L'Osservatore Romano*, quindi pubblicato sugli *Acta Apostolicae Sedis*, entrando in vigore il 1° gennaio 2017.

Dato a Roma, presso San Pietro, il 17 agosto 2016,
Giubileo della Misericordia, quarto del mio Pontificato.

Francesco

LETTRE APOSTOLIQUE EN FORME DE «MOTU
PROPRIO»

DU SOUVERAIN PONTIFE FRANCOIS

par laquelle est etabli le dicastere pour les laics, la
famille et la vie

L'Eglise, mere attentionnee, a toujours reserve soin et
attention, tout au long des siecles, pour les laics, la
famille et la vie, en manifestant l'amour du Sauveur
misericordieux envers l'humanite. Nous-memes, ayant cela
a l'esprit en raison de notre charge de pasteur du
troupeau du Seigneur, nous employons promptement a
disposer toute chose afin que les richesses du Christ
Jesus se deversent de facon adequate et avec profusion
parmi les fideles.

A cette fin, nous prenons sans delai les mesures
necessaires afin que les dicasteres de la Curie romaine
soient conformes aux situations de notre temps et
s'adaptent aux necessites de l'Eglise universelle. En
particulier, notre pensee se tourne vers les laics, la
famille et la vie, auxquels nous desirons offrir soutien et
aide, afin qu'ils soient un temoignage actif de l'Evangile
dans notre temps et une expression de la bonte du
Redempteur.

Par consequent, apres avoir evalue attentivement toute
chose, de par notre autorite apostolique, nous etablissons
le dicastere pour les laics, la famille et la vie, qui sera

regi par des statuts speciaux. Les competences et les fonctions appartenant jusqu'a present au Conseil pontifical pour les laics et au Conseil pontifical pour la famille, seront transferees a ce dicastere a partir du 1er septembre prochain, entrainant la cessation definitive des Conseils pontificaux sus-mentionnes.

Nous desirons que ce qui a ete etabli ait effet des a present et pour l'avenir, nonobstant toute chose contraire.

A Rome, pres de Saint-Pierre, sous l'anneau du Pecheur, le 15 aout 2016, en la solennite de l'Assomption de la Bienheureuse Vierge Marie, jubile de la misericorde, ive annee de notre pontificat.

Francois

APOSTOLIC LETTER ISSUED MOTU PROPRIO

BY THE SUPREME PONTIFF FRANCIS

instituting the 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In all her being and actions, the Church is called to promote the integra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 in the light of the Gospel. This development takes place by attending to the inestimable goods of justice, peace, and the care of creation. The Successor of the Apostle Peter, in his work of affirming these values, is continuously adapting the institutions which collaborate with him, so that they may better meet the needs of the men and women whom they are called to serve.

So that the Holy See may be solicitous in these areas, as well as in those regarding health and charitable works, I institute the 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This Dicastery will be competent particularly in issues regarding migrants, those in need, the sick, the excluded and marginalized, the imprisoned and the unemployed, as well as victims of armed conflict, natural disasters, and all forms of slavery and torture.

In the new Dicastery, governed by the Statutes that today I approve *ad experimentum*, the competences of the following Pontifical Councils will be merged, as of 1 January 2017: the 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the Pontifical Council *Cor Unum*, the Pontifical Council for the Pastoral Care of Migrants and Itinerant People, and the Pontifical Council for Health Care Workers. On that date these four Dicasteries will cease exercising their functions and will be suppressed, and articles 142–153 of the Apostolic Constitution *Pastor Bonus* will be abrogated.

I decree that what has been set out in this Apostolic Letter issued *Motu Proprio* have the force of law, not 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even if worthy of special mention, and that it be promulgated by publication in *L'Osservatore Romano*, therefore published in the *Acta Apostolicae Sedis*, entering into force on 1 January 2017.

Given in Rome, at Saint Peter's, on 17 August 2016, the Jubilee Year of Mercy, the Fourth Year of my Pontificate.

Francis

2016-08-31 Radio Vaticana

E' stato pubblicato oggi il *Motu Proprio* "Humanam progressionem" con cui il Papa istituisce il nuovo "Dicastero per il Servizio dello Sviluppo Umano Integrale." Francesco ha nominato prefetto dell'organismo il cardinale

Peter Kodwo Appiah Turkson, finora presidente del Pontificio Consiglio della Giustizia e della Pace. Il servizio di Sergio Centofanti:

Nel nuovo Dicastero confluiranno, dal primo gennaio 2017, quattro Pontifici Consigli: Giustizia e Pace, Cor Unum, Pastorale migranti e Operatori Sanitari. In quella data, questi Dicasteri verranno soppressi. Una sezione del nuovo Dicastero si occuperà specificamente di profughi e migranti e viene posta ad tempus direttamente sotto la guida del Papa, a sottolineare la sua particolare sollecitudine per la loro situazione.

“In tutto il suo essere e il suo agire ? scrive il Papa nel Motu Proprio - la Chiesa è chiamata a promuovere lo sviluppo integrale dell'uomo alla luce del Vangelo. Tale sviluppo si attua mediante la cura per i beni incommensurabili della giustizia, della pace e della salvaguardia del creato.” Il nuovo Dicastero “sarà particolarmente competente nelle questioni che riguardano le migrazioni, i bisognosi, gli ammalati e gli esclusi, gli emarginati e le vittime dei conflitti armati e delle catastrofi naturali, i carcerati, i disoccupati e le vittime di qualunque forma di schiavitù e di tortura e le altre persone la cui dignità è a rischio.” Si occuperà inoltre di diritti umani, specialmente quelli attinenti al lavoro, incluso quello minorile, del commercio di vite umane, della pena di morte e del disarmo.

A questo scopo ? si legge nello Statuto - il nuovo Dicastero offrirà la sua collaborazione alle Chiese locali, favorirà e coordinerà le iniziative delle istituzioni cattoliche e potrà intrattenere relazioni “con associazioni, istituti e

organizzazioni non governative, anche al di fuori della Chiesa cattolica, impegnate nella promozione della giustizia e della pace.”

Il Dicastero è chiamato ad approfondire la dottrina sociale della Chiesa, adoperandosi “affinche essa sia largamente diffusa e tradotta in pratica e i rapporti sociali, economici e politici siano sempre piu permeati dallo spirito del Vangelo.”

Vengono, quindi, costituite presso il Dicastero la Commissione per la Carita, la Commissione per l’ecologia e la Commissione per gli operatori sanitari, presiedute dal prefetto del medesimo Dicastero che è anche competente nei confronti della Caritas Internationalis secondo i suoi Statuti.

Il nuovo organismo assume anche le competenze della Santa Sede circa l’erezione e la vigilanza di associazioni internazionali di carita e dei fondi istituiti agli stessi fini.

L’organismo è presieduto da un prefetto, coadiuvato da un segretario e almeno un sotto-segretario, che possono anche essere fedeli laici.

Il Motu Proprio e il relativo Statuto, approvato ad experimentum, sono stati approvati dal Santo Padre il 17 agosto scorso, su proposta del Consiglio dei Cardinali.

(Da Radio Vaticana)

● 작성일 : 2016-09-02 21:02

270. 9월 9일은 1831년 조선교구(대목구) 설정 기념일인데 !

순교 선조들의 피로 물든 신유년 박해가 유럽에 알려지면서,

조선교회는 교황청 포교성성을 놀라게 하였고, 차관 Cappellari 대주교는 조선의 정하상, 유진길, 등, 조선교회 창립선조들의 2세 평신도 지도자들이 올리는 애절한 성직자 파견 청원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목자들로서의 직무유기를 반성, 자책하였으며, 포교성성 장관 추기경이 되자마자, 얼마 안 되어, 바로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되어, 1831년 조선을 북경교구에서 분리하여, 조선대목구를 설정하였습니다.

교구설정 관례를 따라, “서울교구” 나, “한양 교구” 로 하지 않은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Corea라는 나라 이름과, “서울”, 혹은, “한양” 이라는 수도 이름들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 식별이 혼동되었기 때문으로 교회 史學人들 대부분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Corea 대목구가 1911년 서울과 대구로 분리되면서, [Corea 교구]명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파리외방 전교회의 주교님들은 신도수가 많지 않은 데도, 서울과 대구를 분리하고, 이어서 계속하여, 1,2만 명의 신도수를 가지고도, 교구를 분리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동시에, 그 어렵던 시절에 명동대성당을 비롯하여 많은 성당들을 건축하였습니다. 파리외방전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짚신을 신고 북경 3천리를 가고 오며, 박해를 피하여 심산궁곡으로 피신한 교우촌을 방문하며, 가난과 추위와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교구설립을 주선한 우리 신앙선조들의 희생과 노고를 9월 9일 하루만이라도 전국 교회가 함께 되새기며, 감사와 찬미와 기도를 바치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초대 교구장 Brughiere 소주교님의 묘는 중국 땅 산골 마을 공동묘지 무성한 수풀 속에 묻혀 있었는데, 1931년,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이 되던 해,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님들이 천신만고 끝에 찾아서, 서울, 마포 산 언덕, 용산 옛 신학교 터 뒤 언덕에 폭 70cm X 길이 120cm 정도 되는 얇은 돌판을 이불삼아 덮힌 평장 묘에 모셔져 있습니다. 서울 대교구장 Muttel 민대주교 묘

를 비롯하여, 초대 파리외방전교회 주교, 신부들, 특히, Ridel 이주교, 명동성당을 건립한 Eugenio Kost, 고신부, 등, 선종 순서대로 나란히 모두 평장되어 있습니다. 후대 우리 한국 주교, 신부들의 묘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터 없는 집이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으랴?! - Msgr. Byon

● 작성일 : 2016-09-08 23:13

271. 毒화살을 맞으면...! 韓·美·日의 對 北·中, 新大東亞 戰爭 勃發의 危險性 現場化 문턱에서...?

韓·美·日의 對 北·中, 新大東亞 戰爭 勃發의 危險性 現場에서...?

핵탄두 미사일의 끔찍한 독화살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런 독화살을 맞으며, 누가, 어디서, 왜 쏘느냐, 따져보며 다투기 전에, 우선 화살제거와 동시에 제독처리가 더 급한 일이 아니랴?!

우선 화살제거와 동시에 먼저 제독 처리가 더 급한 일이 아니랴?!

유-턴이 불가능한 철로 위를 마주 달려오는 제동 극난한 기차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남은 거리는 너무나 짧고, 시간은 없다!

이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모면한다는 것은 암벽을 타고 굴러 떨어지는 바위와 돌덩이들을 다시 산꼭대기로 기어 올라가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 독사의 종류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회개하여 살기를 도모하라고 가르쳐 주었느냐? 도끼를 이미 나무뿌리에 갖다 대고 있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베어서, 불속에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고 외치던 광야의 세자 요한의 목소리가 요르단 냇갈가에서 들리는 듯하다.

하늘이 이슬처럼 내려준 얼마나 많은 의인들을, 이 시대의 우리는 헐뜯고, 할퀴며, 꼬집고, 찌르며, 흠짓내어, 피투성이의 만신창이를 만들어, 한편에서는 총알보다 더 무식한 허위 조작과

선동의 고탐소리로, 위대한 발자국조차 흔적을 지우고자 광분하고, 또 한편에서는 잔 다-크의 화형장보다 더 끔찍한 화염 속의 재가 되어 흩날리게 하며 광란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大人이 보이지 않는 大國의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美人이 보이지 않는 미국의 잡담을 고지들을 사람이 몇이나 되랴? 날아오는 핵탄두 아래 가장 안전한 곳은 Thaad가 자리잡은 산 아래 마을이 피난곳일 텐데도…!

핵전란의 문턱에서, 성모님께 의지하며, 성모님과 함께, 천주님께 빌며, 온 몸의 피가 눈물이 되어 마르도록, 애절한 기도를 올리는 수밖에 ! 그래도, 이 순간 마지막 숨결로 바치는 기도 한마디가, 갯더미 위에서 위령미사 준비하는 것보다는 더 유용하지 않을까?! <추후 계속>

오늘의 人類는 세계 도처에서 서로 크고 작은 집단학살(集團虐殺)을 일삼다가 마침내 집단자살(集團自殺)의 수단으로 집단자폭(集團自爆)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도합시다 ! 더구나 중국이 평화협정을 또 내세운다니! 1973년 [파리 평화협정]과 미군철수로 시작된, 1975년 [월남 패망]을 되새겨 봅시다!

1945년 8월 5일, 원자폭탄 투하 직후의 일본 히로시마 모습 (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308번 참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호소문

- 핵실험과 핵무장은 중지되어야 한다. -

가톨릭교회는 1963년에 반포한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핵무기 개발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경고하였다. “한 국가가 원자 무기를 생산하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파괴적 원자 무기를 생산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 그뿐 아니라, 무기의 파괴적 결과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해도,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핵실험이 계속되어 세상에 치명적 결과를 주는 것은 여전히 인간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다”(「지상의 평화」, 110-111항 참조). 이 가르침은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교회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천주교주교

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2016년 9월 9일에 실시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지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북한은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가톨릭교회는 북한이 하루 빨리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기를 촉구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기울여 온 공동의 노력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비핵화와 평화는 분리될 수 없다. 핵무장은 결코 평화 유지나 자주권 수호의 방법이 될 수 없다. 핵은 한반도에 더욱 복잡한 분쟁을 불러일으키며, 파괴와 죽음을 포함하여 대단히 큰 물질적 정신적 위험을 초래한다. 시급히 핵무기 개발과 핵실험 포기를 선언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 정부와 세계 기구는 평화 구축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보도 이후, 대북 제재의 수위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가톨릭교회는 정부와 세계 기구를 향하여, 제재 이전에 대화를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에 끝까지 힘써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긴장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청한다. 모든 제재 조치의 참된 목적은 협상과 대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제재를 통해 국민 전체, 특히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 경제적 제재는 지극히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합법적이고도 윤리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한반도 위기를 가중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기를 호소한다.

3. 한반도 주변의 핵무장이나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가톨릭교회는 최근 거론되는 한반도 핵무장 논의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 핵실험이 한반도를 포함하여 그 어떤 나라의 핵무장이나 핵무기 배치를 정당화하는 기

회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의 핵무기도 제거되어 ‘위장된 평화’로부터 참된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북한 핵실험 개발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간에 진정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성사시켜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힘의 균형이 아닌 평화의 균형만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세계 평화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이 균형을 가지며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질서 위에 평화롭게 전개될 때 진정한 평화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핵은 한반도 평화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천명한다.

‘9·11 테러’ 15주기를 맞아, 증오와 폭력이 씨 뿌린 비극의 참상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인류가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증오는 증오를 가속하며,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다. 평화는 힘의 논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사목 현장 78항 참조). 평화는 전쟁의 원인이 되는 갈등과 비참함이 줄어들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의 질서에 대한 갈망이 자라는 가운데 완성된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그리스도교 형제자매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평화의 증진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교회 사명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평화에 대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종파와 국적을 초월하여 기도를 통해 정의와 사랑을 넓혀가는, 곧 평화를 위한 노력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특별히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6년 9월 12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 흥 식 주교

Msgr. Peter Byon

272. 지진과 화산폭발, 해일과 핵실험, 원전붕괴의 방사능 오염 시대에 성모 신심과 우리 신앙은 ?!

지구 자연 현상에 대한 자연 철학적 반성과 묵상.

- 평소애 우리 모두가 무심히 밟고, 딛고, 다니며 살고 있는 [땅]이지만, 이 땅은 우리에게 곡식을 내어주고, 가축을 키워주며, 우리가 집을 짓고 살게 하며, 길을 닦고 다니게 하면서도, 불평불만의 거부반응 표시나, 요구조건 한마디 없이, 우리의 생존을 지탱하여 주고 있다.

바다 물은 더하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땅과 바다의 고마움을 모르고,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을 지키고, 아끼고, 가꾸고, 사랑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이 고마운 땅과 바다를, 더럽히며 못살게 굴고 있다. 인간들은 전쟁을 일으켜, 무죄한 수백만, 수천만 명 젊은이들의 피로 물들이고, 주검으로 채우더니, 현세에 와서는 해양과 지하에서까지 가공할 핵실험도 수없이 자행하고 있고, 하늘로 오르기 위해, 수십 톤씩 되는 위성들을 시켜 발뒤꿈치로 힘껏 땅을 걷어차며 불로 지지고 떠난다. 이번 일본의 대지진과 대해일과 원자력 핵방사능 대오염의 현실 앞에서, 세계 인류는 정신을 차리는지! 어찌, 日本人들만의 不幸이며, 불운의 비극이라? 이 시대 지구상의 온 인류를 대표하여, 일본인들이 선택된 희생제물일 뿐이다.

지금 경주와 영남 지역의 지진은 우리 온 나라 모두가 동고동락하는 한 가정 식구로서, 반성할 것이 없는지 묵상하고, 기도하며, 온 국민이 오락과 사치와 유흥과 향락을 멀리하고,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어, 성모님과 함께 우주만물의 조물주 천주님께 진솔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하겠다. 전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준비에 소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애국심을 발휘하여, 온 국민이 대동단결

한다면, 당하는 천재지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동안 말없이 우리에게 봉사하던 땅과 바다 물과 대자연의 물질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할 것은 없는지? 이번 대재앙을 당하다보니, 지구가 전보다 더 작아지고, 전보다 더 좁아진 느낌이다. 더구나 생명을 가진 우리 인류가 아마 무생물이라고 무시하며 천시하던 물질만도 못한 점이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반성해야만 한다. 물질은 물리 법칙을 엄수하며,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성실하게 존재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해 봉사하고 있지 않는가? 땅과 바다와 물질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오용하는 우리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법칙대로만 대하고 있는 대부, 대모이신 대자연, 이 대자연은 우리의 투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륙이나 착륙을 위한 활주로도 전혀 없는 뽕족한 풀밭에도, 소음이나 공해나 연료도 없이, 더욱이 풀밭에 아무런 흠집도 내지 않고, 고요히 앉았다가 조용히 날아가는 잠자리만 한 항공기 하나를 만들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과학기술 신앙]만을 가지고, 너무나 빠르고, 뽕내며,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우쭐대며,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날 우리의 이 꼴을, 땅과 바다와 하늘은 어떻게 더 이상 참고 있으랴? 참으로 꼴不靚으로, 가관이 아니랴? 조물주 천주님을 까마득히 잊고서, 천주님을 위한 사용을 걱정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무생물이라고 무시하며 무심히 대하던 물질들도, 이제는 의인화(擬人化)나 신격화(神格化)라도 하여보며, [땅님], [바다님], [물님], 또, 너무나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느님” 보다는 차라리, [하늘님], 하며, 존경어라도 쓰면서, 우리를 낮추고 싶지 않은가? 저런 대재앙으로 이런 끔찍한 죽음과 공포와 고통으로, 온 인류가 지금 아주 혼쭐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有心한 인간들이 無心하게 無視하던, 無能하게만 여기던 無生命의 땅과 바다와 물질들한테서, 이보다 더 얼마나 무섭게 야단을 맞아야만

정신을 차린단 말인가?!

日本의 저 엄청난고도 끔찍한 지진과 해일과 核 방사능의 오염 공포 속에서, 같은 인류의 한 형제들이 아우성치며, “우리가 왜, 무엇하러,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참으로 不時에 땅이 되고 물이 되어가는 日本人들의 대재난 앞에서, 우리도 모두 잠시라도 땅이 되고, 물이 되어, 우리를 살펴보자 !

인간들의 전쟁과 핵실험 폭음, 오락과 유흥의 함성으로, 땅님께서도 놀라시고, 地神님께서도 심히 怒하셨나보다! 도처에서 폭발하는 火山과 지진은, 누가, 무엇하러, 왜, 누구를 위함인가? 큰 바다 물님께서도 大怒하시니, 海神님께서도 칼춤을 추시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법칙만 따르시는 정직한 무생물, 해일님은 너무도 인정사정이 없구나! 그래도, 하늘님의 怒氣만은, 다행인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天主님께서도 더 이상 미루거나 막을 수 없는, 진노의 그 날은, 천체가 지닌 未知의 힘(dark energy)으로 아니 올 수 없을 텐데!

우주 천체가 요동하면, 결코 지진이나 해일에 비할 바가 아니리라! 땅과 바다와 만물을 관리하는 인간들이 眞理와 自由와 正義를 滿喫(만끽)하며, 모를 수 없는 知能과 理性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닦으면서도, 無理와 非合理와 非論理와 不合理와 非倫理의 길에서 횡포를 일삼는 사람들이…!

특히, 존경과 영광과 추앙과 人氣와 찬미 받는 일에 환장한 종교인들이, 욕망과功名심에 化身이 되어, 선량하고 근면한 신앙의 사람들까지도 誤用하고 악용하며, 더 높은 하늘님 위에까지 오르려 함이, 이제는 하늘님도 못 말리는 지경에 왔으니, 日本人 우리 형제들이 겪는 땅님의 대지진과 물님의 대 해일속에서 방사능 공포와 죽음의, 어찌,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는, 달과 지구와 태양의 아주 사소한 궤도 이탈이나 변질로도 천체질서의 급변에서 오는 하늘님의 진노만이야 하라?

하늘님의 怒氣는 땅님도 물님도 바다님도, 地神도 海神도, 天

神도, 말리지도, 막지도 못할 것만 같다. 인류의 대표격으로 이번엔 日本人 형제들이 당하는 대재앙의 고통과 학업을, 전 세계인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천주 대전에서 이제는 [사람]으로 되돌아가야 하겠다. 특히, 知性人들과 宗教人들이 앞장서서!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No.49, 2011-03-17>

Msgr. Byon

**** 파티마의 성모상과 한국의 무신론극복 평화통일 ****

세계 2차 대전 참전 모면을 기도하며 걱정하던 포르투갈 부인들은 Fatima에 발현하신 성모님께 감사하며 정성을 모아 표하기로 하였다. 7천만 명 이상이 죽어간 세계2차 대전에 유럽에서 유일하게 참전을 모면한 나라는 포르투갈이었다. 또한 포르투갈은 성모 발현 후로, 교우들의 열심한 성모신심으로 바치는 기도와 성모님의 보살피심으로 잔인한 강력범죄가 없는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10세 미만의 루시아, 히야친타, 프란치스코 3명의 어린이들이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목격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9세) 루시아 소녀가 성모님의 모습을 6개월 동안 매월 한번씩, 그리고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뵈고 나서 말해주는 목격담을 근거로, 성모 마리아의 모습 최근사치를 그린 發現像을 토대로 하여, 매우 어렵게 木刻 조각상이 최초로 모습을 들어 낸 것은,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직후 전 유럽이 모두가 살기 힘든 때였고, 또 포르투갈과 그 중에서도 파티마 지역은 너무 몹시 가난한 시골이라 성모상 제작이 어려워, 발현 3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신심있는 교우 Gilberto Fernandes dos Santos 씨가 가까스로 어렵게 모아서 실로 정성껏 바친 성금으로, Jose Ferreira Thedim 조각가가 목각상 조각을 결심하고, 브라질에서 특별히 수입한 삼목(杉木)을 가지고 110cm 크기로 조각하여, 성모 발현지 상수리나무 옆에 아주 좁고 작게, 마치 한국의 열녀각(烈女

閣)이나 효자각(孝子閣)처럼, 지금 사진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다고 할만큼, 아주 작게 세운 발현각에 모시고, 1920년 5월 13일에 최초로 순례자들 기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목각 성모상은 발현지에서 약 3km 떨어진 파티마 본당으로 임시 옮겨, 축성하고, 성모 공경 본당행사를 한 후, 다시 상수리나무 옆 발현각으로 다시 옮기고 그 앞에서 순례오는 시골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후에는 수도 리스본으로도 옮겨 성모 신심행사를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의 전운이 심각해지면서, 1942년 10월 13일을 기하여, 포르투갈 부인회 회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진주 313개와 2,679개의 보석을 바치고, 12명의 조각가들이 무보수로 자원하여 면류관을 만들어서, 세계 2次 大戰 참전 모면을 기도하며, 성모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정성껏 만들어 씌워드렸는데, 후에 좀더 다듬고 보완하여,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 5월 13일에는 교황특사 Masella 추기경이 순례와서, 세계 교회 이름으로, 마침내 면류관 대관식(戴冠式)을 거행하였습니다. 1981년 5월 13일, 로마에서 故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저격당하신 자신의 몸속에 박혔던 암살범의 총알을, 감사의 뜻으로, 이 성모상 면류관에 보태어 박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천주 신앙을 외면하고, 핵무기 신앙으로 광분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핵폭탄 공격 위협으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락과 유흥과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어, 금년에 천진암 성지 100년계획 대성당 건립 넓은터 한쪽에 자리잡고 세워지는 성모상은 無神論 克服의, [世界平和의 聖母像]으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천진암 청동 성모상 자체(15m높이에 좌대 7m 높이) 제작 건립만도 힘에 겨운 처지이므로, 아직 면류관 제작과 대관식은 현재 우리나라 천주교회의 성모신심으로 보아, 엄두도 못내고, 훗날로 미루게 됩니다.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No.49.

2011-03-17, No. 296, 2016. 4. 16. 참조>

***** 프랑스 러뽀 (Le Puy) 읍내 수호의 성모상 *****

천진암 성지에 세워진 [천진암 성지 무신론 극복의 세계 평화의 성모상]은 전 세계 교회 안에서도 그리 작은 편은 아니지만, 아주 큰 편에 속하지도 못합니다. 인도네시아 마호멜 교도 섬에 고난회 회원들이 세운 성모상(35m)이나, 프랑스 러뽀(Le Puy)면 소재지 중앙 바위 동산 위에 중세기에 무쇠로 만들어 세운 성모상(33m) 등이 있습니다.

특히, Le Puy의 성모상은 프랑스 동남부 지역이 허구많은 침략(반달족, 몽고족, 이슬람, 등) 등으로 주변 지역 읍내들이 초토화될 때 유일하게 성모님의 보호를 받아 무사하였고, 한재가 심한 거듭된 흉년의 기근도 모면하면서, 특히, 각종 전염병이 만연하던 중에도, 더욱이, 노스트라다무스 시절 흑사병으로 전 유럽 인구의 50%가 무참히 사망하여 장례조차 못치르는 마을이 허다하였을 때도, 전 읍민들의 기도의 대상이요, 중심이며 의지가 되었던 성모께 대한 신심 집결의 대상으로, 실로 기적적으로 무사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Le Puy는 프랑스 전국에서 가장 작은 교구이지만, 사제 성소가 가장 많은 교구로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선교사제 파견이 가장 많은 교구이며, 최근 사제 성소의 급감현상으로 적지 않은 대신학교들이 폐교, 통합되고 있으나, 아직도 사제 성소가 여전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리외방전교회 한국 지부장과 경북 영주본당을 설립한 Marcel Pellise(M.E.P.) 배세영 신부의 고향으로, 필자가 Le Puy를 함께 방문하여 3일간 머물 때, 배신부님(한국 姓)이 밤늦도록 Perrin 신부님과 함께 들려주던 거룩한 고향 교구 성모상에 관한 자랑 이야기였습니다.

천진암 성모상은 커다란 관광물이나 조경물이 아니라, 신도들이 앞에 모여 기도하는 신심의 대상이 되는 聖物로서, 규모와 위치, 등이 감안되었습니다. 성모상만 세우면 세계평화나 조국의 평화통일이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 소

리내며 기도 몇 마디만 바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Le Puy의 프랑스인들이 자기네 나라 프랑스를 위하여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하여도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웠듯이, 우리도 평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숨을 바치며 싸워야 합니다.

전 세계 도처에서 전란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작은 우리 마을 지구촌에, 천진암 성지의 세계 평화 통일 성모상 앞에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프랑스 남중부에 먼 옛날 화산으로 형성된 高山 지대에 있는, Le Puy 읍내 한 복판 바위동산 암석 봉우리에는 높이 30m크기의 아주 오래된(900년대 건립 ?) 무쇠로 제작 건립된 흑갈색 성모상이 千年 세월을 두고 읍민들을 지켜주고 있다. 읍내 동산 둘레 반경 4km 권내 별판 어디서나 올라다 보인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타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프랑스가 전란을 겪을 때에도 Le Puy의 읍민들은 성모상을 의지하며 무사하였고, 또 Nostradamus 시절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가 거의 50%이상 전멸하였다던 시절에도, Le Puy 읍민들을 항상 기적적으로 무사히 지켜준 성모상으로 유명하다. 특히, 프랑스에서 사제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곳이고, 아시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지원하는 열심한 사제들이 가장 많은 교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와서 약 30여 년 동안 선교사로 근무한 Marcell Pellise신부(경북, 영주성당 설립자, 파리외방전교회 前지부장)도 그곳 Le Puy 출신이다.

Le Puy 성모상은 프랑스 동남부 지역 중부 고산지대 작은 읍내 주민들이 중세기에 무쇠로 만들어 읍내 한가운데 있는 바위동산위에 세운 것으로(철상 높이만 약 45m), 중세기를 전후하여 외부 야만족의 거듭된 침략 때(반달족, 이슬람, 몽골족, 게르만족, 등)와 각종 흉년이나 전염병, 특히 전 유럽 인구의 50% 이상이 죽어갔던 흑사병 만연 때(노스트라다무스 시절) 신도들 기도의 대상으로서, 기적적으로 읍내가 무사하였으며, 프랑스에서

가장 작은 교구지만 사제성소가 가장 많고, 아프리카 파견 선교 사제도 가장 많은 교구(많을 때는 850여명까지)로 유명하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309번 참조).

1917년 세계1차 대전이 최악에 달하던 시절, 레닌과 스탈린과 트로츠키, 등이 유혈혁명으로 소련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후부터, 소련은 무력증강에 집중하여, 미국보다도 핵무기 저장 분량이 훨씬 더 많아서, 강대국들의 핵폭탄이 모두 터지면, 지구가 40번 폭파될 분량이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핵무기 감축추세로 나가고 있어, 인류가 한숨 돌리며, 좀 생각하는 시기로 본다. 이는 Fatima에 발현한 성모 마리아께, 연평균 5백만 명 내외의 신도들이 순례하며 열심히 기도한 결과였다.

최근 빈번해진, “백두산 火山 폭발 임박(?)”이라는 기사로 극동 아시아인들의 우려와 공포가 점증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과학으로 막을 수 없다. 1917년 10월 포르투갈의 볼모지 파티마에 나타나셔서, 7만 5천여 명의 군중들에게, [태양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성모 마리아께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백두산 상봉에 [평화의 성모상]을 세우고, 전 세계에서 신도들이 자유롭게 가서, 한민족의 무혈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모님께서는 백두산의 화산폭발을 막아주실 것이다.

무신론자들과 이교도들과 이단자들이 들으면 코웃음치며, 정신 나간 사람의, “턱도 없는 소리요, 어림없는 헛소리” 라고, 대부분이 코웃음치며, 비웃어버릴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무기제작이나 각종 체육시설과 오락이나 유흥시설에, 호텔 건립, 등에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 부어가면서 나라마다 경쟁을 하는 이때, 저 가공할 백두산 화산 폭발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야, 성모상 하나쯤 세우는 것을, 그나마 전 세계 천주교신도들이 모금하여 세우겠다면, 못하게 할 일은 아닌데 !

다만 누가 좀 발벗고 나서서 뛰어봤으면, 요새 국제정세로 봐서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천상에 계신 성모님께서 도와주실 것이 분명함으로. 북한에도 관광수입이 매년 수십억불에 이르게

해주실 것이다. 프랑스의 피레네 산맥 심산공곡 바위산 불모지로 극빈촌락이었던 Lourdes는 지금 17만(?)이 훨씬 넘는 읍내가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성모 마리아와 성녀 벨라뎃따, 처녀 둘이서 먹여 살린다고 말한다. 성모상은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 극동의 北韓發 核戰爭 위험과 성모 신심 *****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유도탄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만 한다. U.N.과 미국과 남한의 설교는 잠꼬대 같은 헛소리로 마이동풍 격이다. 경제적 제재로 고립화시켜 포기시킨다고? 이미 절대 빈곤의 경제적 고립과 아사 속에서 만들어진 核武器의 信仰으로 남북공멸로 가는 자폭이나 극동대란의 핵무기 순교자들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神化한 北韓이 핵무기와 장거리 유도탄을 포기하기는, 미·소·중이 무장해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U.N.이나 한·미가 달성할 목표 설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 남한과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필연적 대안으로,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핵무기보다도, 이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의 사상이다. 즉, 북한은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이 반세기 이상 지배하는 사회다. 더구나 현재 남한 사회의 국민 정신상태가 풍요와 자유 속에서도 반국가적 광란의 정신이상으로 야단법석을 차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적지 않은 知性人들이, 심지어 有神論 종교의 일부 信仰 지도자들까지, 무신론과 유물론 단체들 대변자로 맹활약하는 현상은 실망적이라기 보다는 절망적인 한숨이 절로 나오게 한다.

그래도 아직은 애국심과 충성심이 차고 넘치는 軍과 武將들이 있으니, 용기를 내자. 더욱이 우리에게는 天上에 계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며, 地上에 있는 신도들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가 계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세계 평화의 성모상을 건립하고,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며, 軍將兵들과함께 국가와 민족을 지키자. 우리로서의 마지막 유일한 희

망과 의지가 되는 聖母 信心은 우리 信仰人들만이 할 수 있는 몫이다.

천만 불행히도 北韓發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 자체에는 물론, 남한과 일본과 중국에까지 엄청난 인명피해를 주게 되고 나서도, 통일은커녕, 북한지역 일부만 잔존하는 휴전선의 이동으로 끝나기만 해도 다행일 것이며, 오히려 북한은 지상에서 아주 사라질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보나. 중국은 5개 국가로 분열되어 分國될 위험이 크며, 일본도 일부만 잔존하게 될 뿐, 대한민국에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NATO를 포함한 서방 자유세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단결로 인하여 아시아, 특히 극동의 지각변동이 새로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많은 착한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세계 평화의 성모 마리아께, 희생과 기도와 정성을 바치자!

*** 천진암 성지의, “무신론 극복 세계평화의 성모상” ****

100년계획 천진암대성당 실내용, “무신론 극복의 세계평화의 성모상” 청동제(크기 1m) 성모상 축성식(2012. 02. 05)(변기영 몬시놀, 이승범 신부, 허보록 신부)(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주 풍경소리 제309번 참조).

현재 천진암 성지의, [무신론 극복의 세계평화의 성모상]은 국내 유일한 최대의 청동제(높이 15m)로서, 2013년에 제작, 건립되어,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Fernando Filoni 추기경에 의해 축성(2013. 10. 4) 봉헌되었다. 그러나, 이 청동 성모상 건립 이전에 작은 (높이 1m) 청동 성모상이 제작되어 100년계획 대성당 중앙 제단 앞 우편에 먼저 건립(2011. 11. 18) 축성 봉헌한 후, 순례단과 월례 촛불기도회를 위하여, 천막기지에 인쇄된 성모상 사진(15m)을 철제 가설대에 부착하여 주로 외부 행사 때 사용하였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309번 참조).

72세의 허약해진 변기영 몬시놀의 정년 은퇴와 동시에, 제2대 성지 주임으로 김학렬 신부가 부임하던 날(2012. 7. 17.) 밤에, 실로 이상하게도, 갑자기 전에 없던 태풍 급의 심한 회오리바람

이 천진암 성지 계곡 대성당 터 주변에만 아주 심하게 불면서, 공교롭게도 25m 높이의 성모상 사진 대 철타 4각형 아시바 구조물이 성모상 사진을 휘감고 쓸어져 모두 굽으러지고 부서지는 일이 일어났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309번 참조).

세계 평화의 성모상, 성모상 건립과정에 현장을 방문하시는 교구장 이용훈 주교님께 건립현장에서 변기영 몬시뇰 설명(2013.06.09)(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 309번 참조).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4주년 기념 경축미사 전에, 교구장 이용훈 주교님이 이성효 보좌주교님과 함께 세계 평화의 성모상 축복식 거행 중 분향(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주 풍경소리 309번 참조).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4주년 기념 경축미사 전에, 세계 평화의 성모상 축복식(2013.06.23, 주일)(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309번 참조).

부임 첫날밤에 일어난 현상으로, 후임 김학렬 신부는, 정신적으로 무언의 충격을 받았고, 여기저기서 돈을 꾸고 빌려서, 청동(25톤)으로 튼튼한 문화재급의 현재 있는 성모상 건립에 착수하여, 2012년 6월 24일에 건립을 마치고, 아직 부대시설과 장식물이 없이, 교구장 이용훈 주교께서 우선 축성봉헌하였다.

2013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 50주년 (1963~2013)이고, 수원교구 설정 50주년 (1963~2013)이며, 천진암 성지 50주년 (1963~2013)이다.

천진암 성지를 공식 방문하신,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Fernando Filoni 추기경께서, 교황강복을 전하면서, “천진암 성지의 무신론극복 세계평화의 성모상”도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추기경 명의로 공식 축성(2013. 10, 4.) 봉헌되었다. Deo Gratias(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 309번 참조)!

그러나 아직도 성모상 건립비는 적지 않은 금액이 부채로 남아 있다. 이제 성모상에 면류관 대관식과 축성 봉헌식은 남북한의 비핵화 평화통일이 선포된 후, 로마 교황께서 오셔서 집전하시게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Msgr. Byon

Card. Fernando Filoni in Chon Jin Am(2013.10.04) Benedizione della Statua Regina Pacis, dal card. Filoni 남북의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건립된, 세계 평화의 성모상 축성 봉헌(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 309번 참조)!

Card. Fernando Filoni in Chon Jin Am(2013.10.04) Pietra del segno, Annus fidei, cinquantesimo anniversario del Conc. vaticano II, e della erezione della diocesi di Suwon, anche la visitazione del card. Filoni, prefetto della Cong. per l'Evangelizzazione dei popoli. 남북의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건립된, 세계 평화의 성모상 축성 봉헌과 표지석 관람(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309번 참조)!

● 작성일 : 2016-09-20 21:36

273. 교황님 방한과 청소년들이 세운

한국천주교회의 젊은 피 !

Young Korean students founded

Korean Catholic Church 250 years ago !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5주년 기념행사(2014.06.24, 화요일)를 거행하고, 2014년 6월 24일 한국천주교회 탄생지 천진암 성지에서는, 한국천주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교회 창립 제235주년(1779~2014) 기념제를 거룩히 봉헌하였다. 연례 기념행사로써, 제36회(1979~2014) 제전이였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

교와 전 교구장 최덕기 주교, 이성효 주교 및 변기영 몬시뇰과 30여명의 사제들과 150여명의 대신학생들과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하였다. 이번 기념제에는 이달 말로 도지사 임기 연속 8년을 마치는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와 신임 남경필 도지사의 참석으로 더욱 뜻있는 행사가 되었다.

특히, 제1부 기념식에서는 모든 이가 태극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4절까지 제창, 6.25 전사자들 영혼을 위하여, 동시에 南北平和統一을 위한 기도를 바쳤다. 천진회 창립위원 이수성 고문(前 서울대학교 총장, 前 국무총리)의 紀念式辭와, 8년 임기를 마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祝辭가 있었다. 이어서 교회 창립 선조 후손들의 先唱으로, “대한민국 만세”, “한국천주교회 만세”,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만세”, “천진암 성지 만세”, 모두 12장을 우렁차게 목청껏 함께 불렀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기념 미사가 봉헌되고, 점심식사 직전, “天主恭敬歌” 기념비석이 제막되었다. 天主恭敬歌는 우리나라 천주교회 최초의 聖歌이며, 1770년부터 1784년까지 천진암 성지에 모이던 靑少年 선비들이 李曄 聖祖를 웃어른으로 모시고(爲上하야), 新學問 연구와 함께 자발적인 진리탐구의 講學이 절정에 오르던 1779년 겨울을 전후하여, 바로, 한국교회 창립초기에 이벽 성조께서 지어서, 제자들이 부르게 하던 노래로서, 천진암의 天學道場에서 賢友賢士 道友들의 天學叢林歌(其門下如叢林)였으며, 같은 시기에 지으신(下筆), 天學 敎義 敎科書와도 같은 聖敎要旨와 더불어, 심산궁곡에서나마 우리나라 천주교회의 탄생(natalis)을 알리는, 한국천주교 신앙의 움이 트고, 교회 공동체의 싹이 돋는 呱呱之聲이었다.

천주공경가는 다른 나라 敎會史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實生活에서 例示를 들어 보이며, 천주교 기본 敎義를, 補儒論的이며 護敎論的으로 읊은 복음선포의 함성이었다. 歌詞 외에는, 曲調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 천주교회 신도들이 세상 끝날까지 자자손손이 부르며, 우리 신

양선조들의 자발적인 신앙을 지키고 아끼며 가꾸어야 할 신앙의 遺産이다. 천주공경가와 성교요지는, 235년 전, 천진암의 天學道場을 본거지로 하여, 15년 가까이 당시 10代 후반과 20代 초반의 젊은 청소년 선비들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천주교 신앙을 실천하면서, 한국천주교회를 창립한 기적적인 敎會史를 증명해 주는 천진암 강학의 결실이다.

한국천주교회 창립 당시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10대 중반의 청소년들이었음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천진암 강학이 절정으로 이르기 시작하던 1777년~1779년 당시, 이벽 성조 23세, 정약용 15세, 정약종 17세, 정약전 19세, 이승훈 21세, 등이었으니, 지금의 고등학교 2,3학년생들과 대학교 1,2학년생들 나이의 청소년들이었다. 애국심과 의협심으로 불타던, 독립군들의 청산리 항일 투쟁 때, 중대장 이범석 장군이 16세였고, 부대장 김좌진 장군이 19세였으며, 윤봉길의사와 이봉창, 모두 20대 전후의 젊은 용사들이었음을 생각하면, 이상할 것이 없다.

이벽 성조께서는 1770년 15세 경 廣州山脈 앵자산 천진암에 入山하여, 1784년 봄까지, 자발적으로 천진암에 찾아드는 젊은 선비들과 더불어, 천주교 교리를 탐구하고 가르치며, 10계명을 준수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양력과 요일을 모르던 그 시절, 음력으로 매월 7일, 14일, 21일, 28일을 고정된 主日로 제정하여 지키고자, 천주께 기도를 바치고, 휴식하며 금식하였다. 이 때, 天學堂의 堂歌나 校歌, 나아가 교과서처럼, 우리 선비들은 聖敎要旨와 十誡命歌를 지어 부르고, 모든 종교의 출발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천진암의 天學道場 靑少年들은 천학총림가(天學叢林歌), 즉 校歌와 같은 團體歌처럼, 李檣 聖祖께서 지어 주신, 天主恭敬歌를 불렀다. 이런 점에서 천주공경가는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모든 단체가로 자자손이 부르도록 해야 하겠다

대학자 권철신 성현도 참석하던 己亥年 겨울, 천진암 강학에 함께 하기 위하여, 엄동설한 한 밤중에 눈쌓인 경기도 광주산맥 主峰 鶯子峴을 넘던 23세 이벽 성조의 발걸음으로 시작하여, 세

례성사를 받기 위해 북경 3천리 길을 걸어가오던 이승훈 전사의 발걸음으로, 또, 하느님의 종, 정약종 성현의 아들 성 정하상이 조선교구 설립을 위하여 10여세 소년 시절부터, 순교한 아버지의 친구, 趙東暹, 李基讓, 등의 유배지를 찾아 함경북도까지, 심지어 백두산 아래 茂山 땅까지도 오고가며, 북경 3천리를 10여 차례나 왕복하던 발걸음으로, 정하상 성인의 어린 제자들, 즉 충남 솔뫼와 청양 다락골과 당진의 15세 전후 김대진, 최양업, 최과출, 소년들이 사제가 되기 위하여 마카오까지 2만리 길을 걸어가던 같은 맥락의 발걸음으로 연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새로운 신앙으로 꿋고 타던, 소박하고 순수한 젊은 청소년 선비들은 그리스도의 젊은 제자들처럼, 새로운 종교, 천주교를 힘차게 전파하며, 순교의 피로 목숨을 바쳐 증거하였을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전승하였으니, 젊은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 청소년들의 정신과 덕행과 열성의 발걸음에 깃들여 있고, 서려있고, 묻어있는, 그 의미와 정신과 덕행과 교훈과 그 가치는, 오늘날 사제가 되기 위하여, 대신학교 교문을 두드리는 지망생들로 계승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로마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78세의 年老하심에도 불고하고, 아시아 전역에서 모여오는 靑少年들과 자리를 함께하기 위하여, 8월 무더위에 극동 우리나라에까지, 訪韓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총인가! 한국교회를 창립하신 이벽 성조를 비롯한 한국 청소년들의 젊은 신앙을 계승하여, 이 시대의 전 세계 교회는 靑少年 司牧과, 특히 未信者의 자발적인 入敎를 돕는 宣敎 施策의 轉換點을 삼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천진암 성지에 착공된, 한민족100년계획 천진암대성당은,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심산궁곡 암자 결의 이벽 성조 讀書處 비좁은 天學堂에서 불과 10여명 내외의 소년들이 천주공경가를 부르던 때와 달리, 현재 530만 신도 뿐 아니라, 향후 25년 내에 1천만 신도 시대에, 중국과 일본, 인도와 유럽에서 모이는 순례단들, 특히 젊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검소

하고 단순하게 건립될 것이다. 유럽의 대성당들처럼, 화려하게 건립할 자금도 없을뿐더러, 이벽 독서처에 모이던 소년들을 생각하며, 소박하고, 순수하며, 검소한 성당이 될 것이다. 유럽 대성당들이 관광을 위한 것이라면, 장차 천진암 대성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젊은이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큰 집, 하느님의 집이 되도록 세워질 것이다.

한국천주교회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는 젊은 청소년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신라의 불교는 이차돈이 17세 때 시작하고, 22세에 순교하였다. 천도교, 東學역시 최제우 대신사가 16세에 家出 修道하기 시작함으로써 출발하였다. 더욱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아시아 청소년들을 만나는 忠南 內浦 지역은 젊은 愛國 烈士들의 고향이다. 아오내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선하던 15세 소녀 유관순 여사, 청산리 전투에서 왜병들을 물리치던 대한 독립군 중대장 16세의 이범석 장군, 당시 독립군 사령관 19세의 김좌진 장군, 국권회복을 위해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상해로 떠나던 18세의 윤봉길 의사, 및 독립군 사령관 이청천 장군, 등과 솔피 출신의 15세 김대건 소년, 다락골 출신의 15세 최양업 소년, 당진 출신의 14세 최과출 소년, 모두가 內浦의 거룩한 젊은 피가 파도처럼 용솟음치는 듯하다.

-Msgr. Byon-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거행된 한국순교복자 103위의 시성식 광경. 당시 언론과 보도기관에서는 100만여명으로 보도하였으나, 필자는 55만명~60여만명으로, 내한한 성청 인사들에게 보고 하였었다(Sua Santità Giovanni Paolo II aveva concelebrato la messa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 con molti Cardinali, Arcivescovi, Vescovi, sacerdoti e fedeli cattolici - circa 500.000 - a Seoul il 6 maggio 1984. Per quella canonizzazione, il Rev. Byon, rettore di Chon Jin Am, il luogo natale della Chiesa, aveva servito per 5 anni (1980~1984) come segretario

esecutivo generale della commissione episcopale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

(Photos by Baeck - Nam-Shick)(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198번 참조).

변기영 몬시놀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사랑방 윗목 구석구석에 쳐 박아두었던 보따리들을 이것저것 내다가 풀어서 교회와 사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들은 죽기 전 알리려 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변기영몬시놀사랑방.kr 또는 www.msgr-byon.org 또는 www.msgrpeterbyon.org

● 작성일 : 2016.09.30 오후 8:42:10

274. 개천절에, 잃어버린 10월 상달(上月), 上帝聖月, 최초 애국가의 수난사를 잊지 말자!

Sorrowful history of the first national anthem of Korea !

변기영 몬시놀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사랑방 윗목 구석구석에 쳐 박아두었던 보따리들을 이것저것 내다가 풀어서 교회와 사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들은 죽기 전 알리려 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변기영몬시놀사랑방.kr 또는 www.msgr-byon.org 또는 www.msgrpeterbyon.org

잃어버린 10월, 상달(上月), 上帝聖月의 意味를 찾아, 최초 애국가의 수난사를 되돌아보자 !

10월은 상스달(上月), 上帝의 달이었다. 개천절은 한가위나 설날처럼, 그리스도교의 예수부활 대축일이나 성신강림 대축일처럼, 역사적 전통을 따라, 음력으로 따져서 지내야만 한다!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거행된 한국순

교복자 103위의 시성식 광경. 당시 언론과 보도기관에서는 100만여명으로 보도하였으나, 필자는 55만명~60여만 명으로, 내한한 성청 인사들에게 보고 하였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성모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천상천하에서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두려울 것 없으며, 무서울 것도 없네!
(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199번 참조).

(Sua Santità Giovanni Paolo II aveva concelebrato la messa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 con molti Cardinali, Arcivescovi, Vescovi, sacerdoti e fedeli cattolici - circa 500.000 - a Seoul il 6 maggio 1984. Per quella canonizzazione, il Rev. Byon, rettore di Chon Jin Am, il luogo natale della Chiesa, aveva servito per 5 anni (1980~1984) come segretario esecutivo generale della commissione episcopale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Photos by Baeck-Nam-Shick)(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199번 참조).

* 개천절에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갓 태어나서부터 수난의 길을 걸어온 애국가의 수난사 ! *

탄생한지 7년 만에 금지곡이 되어버린 노래, 대한제국 애국가!

大韓帝國 愛國歌

上帝保佑 〈상제보우〉

皇帝聖上 〈황제성상〉

聖壽無疆 〈성수무강〉

海屋籌山 〈해옥주산〉

威權瀛廣 〈위권영광〉
于千萬歲 〈우천만세〉
上帝保佑 〈상제보우〉
皇帝聖上 〈황제성상〉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성수무강케 하시고
해옥주 산같이
위권이 널리 떨치시어
천만세에 이르게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上帝保佑, 皇帝聖上 〈상제보우, 황제성상〉
聖壽無疆, 海屋籌山 〈성수무강, 해옥주산〉
威權瀛廣, 于千萬歲 〈위권영광, 우천만세〉
上帝保佑, 皇帝聖上 〈상제보우, 황제성상〉

탄생한지 7년 만에 금지곡이 되어버린 노래, 대한제국 애국가!
〈궁금해! 보훈이야기/독립 이야기에서〈2011/09/22 14:00〉

애국가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달리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노랫말과 곡조가 붙여져 나타난 것은 조선 말 개화기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여러 가지의 애국가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들은 어떤 곡조로 불렀는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주요 행사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한 애국가가 있는데요. 이 노래가 바로 ‘대한제국 애국가’입니다. 탄생한지 7년 만에 금지곡이 되어버린 노래, 대한제국 애국가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대한제국 애국가는 우리

나라에서 작곡된 최초의 서양음악이었습니다.

고종황제의 초상화(사진은 변기영 몬시뇰 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199번 참조).

다른 나라와의 공식행사에서 부를 ‘국가’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고종 황제가 직접 애국가를 만들 것을 지시하여, 1902년 7월 1일 독일의 작곡가 프란츠 폰 에케르트에 의해 완성되었지요! 그리고 1902년 8월 15일 ‘대한제국애국가’로 공식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작곡은 프란츠 폰 에케르트(사진은 변기영 몬시뇰 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199번 참조).

대한제국 국가 선포(1902.8.15)(사진은 변기영 몬시뇰 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199번 참조).

대한제국 애국가가 처음 쓰인 행사는 1901년 9월 7일 고종황제의 만수성결입니다. 당시의 영문잡지는 대한제국 애국가가 신선하고 강렬했으며, 그 연주는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 애국가는 1910년 경술국치로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가 공식국가가 되면서, 대한제국 애국가는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부르지 못한 노래, 대한제국 애국가! 일본의 탄압으로 애국가를 부를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애국가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국심과 민족혼을 고취시키는 노래로, 때로는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독립 노래로, 대한제국 애국가는 애국가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답니다. 대한제국 애국가의 첫 번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문 표기

上帝保佑, 皇帝聖上, 聖壽無疆, 海屋籌山, 威權瀛廣, 于千萬歲, 福祿無窮, 上帝保佑, 皇帝聖上

고전 한글 표기-

상데(上帝)는 우리 황대를 도으스성슈무강(聖壽無疆)흐스히옥두(海屋籌)를 산(山)갓치 뵈으시고,

위권(威權)이 환영(環瀛)에 쓸치사오천만세(於千萬歲)에 복늑

(福祿)이일신(日新)케 하소서.

상제(上帝)는 우리 황제(皇帝)를 도우소서.

현대 한글 표기

하느님은 우리 황제를 도우사. 만수무강하사 큰 수명의 수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엄과 권세를 천하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기쁨과 즐거움이날로 세롭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
리 황제를 도우소서.

아래의 가사는 한일병합조약 이전에 하와이로 간 한국 사람들
중, 대한제국 애국가의 멜로디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사를 바
꾸어 불렀던 대한제국 애국가의 가사입니다.

당시 한국어

상제(上帝)는 우리나라를 도으소서. 영원무궁토록 나라태평하
고, 인민(人民)은 안락하야,

위권(威權)이 세상에 떨치여, 독립자유 부강을 일신(一信)케하
소서

상제(上帝)는 우리나라를 도으소서.

현대 한국어

상제(하느님)은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영원 무궁토록나라 태평
하고 인민은 안락하야,

위권(위엄 과 권세)이 세상에 떨치여, 독립자유부강 을(一信)
일신 케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마지막으로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팝페라 카스트라토 장세
훈님이 불러주신 대한제국 애국가 독립군 버전의 가사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자주 독립 국가가 되기를 염원하며, 가사를 바
꾸어 불렀기 때문에 처음의 대한제국 애국가 가사와 차이가 있
습니다.

노래는 나라사랑 광장 홈페이지 → 보훈자료방 → 미디어자료
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narasarang.mpva.go.kr/data/music2.asp>) 또 한 번

버림받은 대한제국 애국가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대한제국의 국가는 또 다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대한제국 애국가를 작곡했던 프란츠 폰 에케르트가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도 작곡했다는 이유로 정식 국가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국가로 인정받았지만…! -〈이상 펴온 글〉

Msgr. Byon

- 이하는 개천절과 10월 상달의 용어와 의미와 교훈에 대한 이해와 묵상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 표현들을 추가한 것입니다.

가) 5월은 성모성월, 9월은 순교자성월이듯이, 10월은 上帝聖月이었다. 먼 옛날, 약 1만년 전경부터 天山山脈 一帶에서부터 해가 떠오르는 해 돋는 나라, 해가 살고 있는 나라, 빛의 나라, 빛나는 나라, 빛 고을, 빛의 본 고을인 東으로, 동방으로 수천 년에 걸쳐 민족이동을 해온 우리 배달겨레는 본래 수렵과 목축을 위주로 하며 살다가, 오늘날 중국 영토로 되어 있는 요동 별관과 목단강, 흑룡강, 송화강 유역과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유역에 이르면서, 농경생활을 시작하며 정착하였다. 3국시대까지만 해도, 특히 고구려 지역에서는 수렵생활이 아직도 국민들의 本業 중 일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농경문화가 제 궤도에 오르면서 해마다 처음 익은 첫곡식을 거두어 먹는 첫 보름달 밤에는 한가위를 경축하며 즐기었고, 농사한 대부분의 곡식을 거두는 때가 되면, 첫 얼음이 얼기 전이나 첫 눈이 내리기 전,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기 전, 춥지도 덥지도 않은 가장 온화한 때에 추수한 五穀百果로 음식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도록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한울님, 곧 上帝님께 감사와 환호의 제사하며 경축하는 일을 최고최대의 부족 행사로 삼았고, 논밭을 일구워 주고, 씨앗을 전해주며, 농경기술을 가르쳐준 祖上님들께 역시 감사의 예를 드리는 時祭를 올렸으며, 함께 농사일을 하던 이웃 사람들과 서로 음식을 나누

어 돌리며 감사하였다.

그러다가 약 4천년 전후부터 이집트, 바빌로니아, 중국, 등의 太陰曆이 극동에 산재하여 살던 우리겨레에게도 전해지면서, 8월의 滿月이 되는 한가위와, 三神 할머니를 연상하며 음력 10월 3일을 전후하여 한 달가량 거행되던 上帝 공경의 행사가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1900년대 초에 大敎敎에서 10월 3일을 開天節로 기념하며 경축하는 것을 상해 임시정부가 받아들여 國慶日로 삼았고, 1949년에 와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현재의 太陽曆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농경생활 문화와는 좀 맞지 않는 계절이 되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린 날”, 혹은, “하늘이 열어 준 날”, 곧 천지개벽과 萬物造化의 起源과 함께 우리 배달겨레의 起元을 되새기는 [開天節]은 다른 민족들이나 특히 현대의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날이다. 대부분 독립기념일이나 건국선포 기념일 혹은 점령 기념일 등이 큰 국경일로 되어 있다.

지금은 10월이 주로 관광 다니는 데만 치중하는 달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上帝님을 기억하고 그 恩德을 감사하며 기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달의 그 의미와 가치를 온 겨레가 다시 되찾아 살게 할 수는 없을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지금은 上帝라는 말 대신 天主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중국과 조선에서는 1590년대 경부터 쓰기 시작한 낱말이며 그 전에는 대부분 上帝라고 표현하였다. 통속적으로 사용하던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원래 [한울님]으로 온 겨레가 일상생활에서 써오던 것을 1960년대 중반부터, 즉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부터, 천주교회에서도 쓰기 시작하였다. 국민 일반 대중이 쓰는 말로 上帝님이나 天主님을 표현하여 大衆言語文化로 天主教의 韓國土着化를 시도한 것이었다. 사실 우리가 대신학생 때, 주교회의에서 천주교 공용어의 대혁명을 한 것이다. 당시 傳統 保守의이며 天才의인 大學者였던 朱在用 신부님의 극구반대에도 불

고하고, [天主]라는 말과 [하느님]이라는 말을 함께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좀 따져보면, 上帝란 정치적인 통치 개념 차원에서 표현한 말이고, 하느님은 자연현상을 따라 쓰던 자연 종교적인 말인데, 天主라는 단어는 인도와 중국을 거쳐 종교적인 면에서의 표현일 뿐더러, 100여 년간의 박해(1785~1885)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칼 아래 목을 느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소리없이 외치던, 실로 우리 순교선조들의 피로 물든 낱말이기도 하다. 출처야 어떻든 150여년을 두고 사용함으로써 이미 충분히 토착화한 단어, [天主님]이라는 단어가 무당집이나 서낭당에서도 흔히 쓰는 [하느님]이라는 말에 밀려서 이제는 우리 선조들의 殉敎信仰 精神도, 한국천주교회에서, 우리에게서 아예 사라져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제는 옛 先人들의 [上帝와 祖上의 달]이 세월 속에서 흐르고 흘러, 그 의미도 가치도, 역사도, 낱말도 모두 함께 저 멀리 사라져가듯, 天主信仰과 殉敎信仰역시 시대와 함께 흐르며 퇴색하여, 祈福信仰에 밀려 사라져 가지 못하도록, 聖地巡禮니, 殉敎者顯揚大會니 하며, 오늘의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몸부림치고 있다! 등록일 : 2008-10-12 (14:53)

나) 10월은 우리 배달겨레의 聖月 ! 上帝님께 祭祀하고, 祖上님을 공경하던 달 !

먼 옛날 우리 겨레가 농경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매년 음력 10월 초순에는 가을 추수가 끝나는 대로 마을마다 大洞會를 열어, 한 해 농사를 잘 짓도록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 上帝님, 곧 하느님께 마을의 큰 제사를 올렸습니다. 소나 돼지를 잡고, 떡을 하고, 술을 빚어, 정성껏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또한 가정마다 제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조상님들의 묘를 찾아 참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설이들의 타령에도, “10월이라 상사달이니, 上帝님께 祭祀하고, 조상님께 時祭하세”라는 대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을 ‘상팔(上月)’이라고 불렀으

니, 지금 우리가 지내는, 성모성월이나 순교자 성월처럼, 아직 천주교회가 없던 적어도 3천 5백여 년 전 달력이 전해지던 시대의 10월은 우리 겨레, 韓民族의 聖月이었습니다. 조상님들의 묘소가 아무리 멀어도, 민족 移動의 경로를 따라, 며칠씩 걸어서, 이사왔던 길을 되짚어서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습관을 ‘비단길’, 즉, ‘실크 로드’의 출발로 보는 것은 無理가 아닙니다.

10월이 되면, 첫 날부터 제일 먼저 上帝님을 공경하고, 祖上님들을 숭배하는 제사 준비에 바쳐서, 3일 째 되는 날에는 마을마다, 고을마다, 상제님께 모두가 모여 제사를 드리면서, 이 날, 음력 10월 3일, 초사흘날을, ‘하늘이 열린 날’, 또는, 사당 祭室의 휘장을 건듯이, ‘하늘을 여는 날’이라고 하여, ‘開天節’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훗날 불교가 전해진 후, 4월 8일,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는 초파일 경축의 성대한 관습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最近世에 들어오면서, 朝鮮 말기에 倭賊들한테 나라를 빼앗긴 후, 民族魂을 되살리려는 우리 선각자들은 1901년 天道敎의 羅喆道師를 중심으로, 中原 땅에서, 10월 3일을 開天節로 정하여 국경일로 지내도록 선포하였고, 해마다 경축하였으며, 1919년 3.1. 운동 이후, 상해에 모인 민족 지도자들은 이듬 해, 상해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을 한민족 건국 기념일로 하였으며, 1948년 大韓民國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를 그대로 전승하였는데, 다만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음력 10월 3일을 태양력을 따라, 같은 날의 양력 10월 3일을 오늘의 開天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10월은 날씨가 좋고, 추수철이라서, 음식도 풍요로우며,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가 많고, 10월 1일은 傳敎者들을 위하여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던 小花 데레사 聖女의 축일이며, 전교자들의 주보가 되어, 모든 신자들이 전교를 위하여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도록, 10월을 ‘전교의 달’로, ‘묵주 기도의 달’로 한국교회가 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사목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10월에 교우들이 모임을 따라, 이리저리 놀러 다니며 단풍구경이나 하고 즐기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온 가족이 다함께 성지순례에 하루를 바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조들이 자발적인 진리탐구로 세운, '한국천주교회 創立史의 의미와 가치와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본받고 실천하라'고, 금년 교황님께서는 방한 첫날 주교님들에게 하신 첫 강론에서만 10여 차례 이상, '기억 지킴이'를 강조하셨으니, 한국천주교회 신도들은 10월 중에 온 가족이 다함께 한국천주교회 발상지 천진암 성지를 찾아, 우리나라 천주교회 創立聖祖 5位, '하느님의 종 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복자 정약종', 우리 신앙선조들의 묘 참배를 잊지 않도록 합시다!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적으로도 단풍 관광보다 더 거룩한 일이니, 각 가정에서도 家門의 信心을 수립하여 전승시키는 일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Msgr. Byon

다) 10월은 상달(上月), 上帝의 달이다!

5월은 聖母聖月, 9월은 殉教者聖月이듯이, 10월은 上帝聖月이다. 먼 옛날, 天山山脈 一帶에서 해돋는 나라 東方으로 수천년에 걸쳐 민족이동을 해온 우리 배달겨레는 본래 狩獵과 牧畜을 위주로 하며 살다가, 오늘날 중국 영토로 되어 있는 요동 벌판과 묵단강, 흑룡강, 송화강 유역과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유역에 이르면서, 農耕 생활과 문화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해마다 처음 익은 첫 곡식을 거두어 먹는 첫 보름달 밤에는 한가위를 경축하며 즐기었고, 농사한 대부분의 곡식을 거두는 때가 되면, 첫 눈이 내리기 직전에 추수한 五穀百果로 음식을 만들어, 농사를 짓도록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한울님, 上帝님께 제사하고, 논밭을 일구어 주고, 씨앗을 전해주며, 농경기술을 가르쳐준 祖上님들께 時祭를 올렸으며, 함께 농사일을 하던 이웃사람들과 서로 음식을 나누어 돌리며 감사하였다.

그러다가 陰曆이 전해지면서, 8월의 滿月이 되는 한가위와,

三神 할머니를 연상하며 음력 10월 3일을 전후하여 上帝 공경의 행사가 한 달가량 거행되었다. 1900년대 초에 大倭敎에서 10월 3일을 開天節로 기념하는 것을 상해 임시정부가 받아들여 國慶日로 삼았고, 1949년에 와서 양력으로 바뀌었다.

10월 상달은 관광 다니는 데만 정신을 파는 달이 아니라, 上帝를 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달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사실 天主라는 단어는 1590년대부터 중국과 조선에서 쓰기 시작하였지, 그 전에는 上帝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원래 한울님으로 온 겨레가 써오던 것을 1960년대 중반부터, 즉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부터, 천주교회에서 쓰기 시작하였다. 上帝란 정치적인 통치 개념상 부르던 것이고, 하느님은 통속적으로 쓰던 말인데, 天主라는 단어는 중 종교적인 표현 일뿐더러, 100년 박해(1785~1885)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칼아래 목을 느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소리 없이 외치던 피로 물든 낱말이다.

우리겨레의 유구한 역사와 거룩한 전통이 서려있고 깃들어 있는 상달에 구세주 천주 성자의 모친 성모께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많이 바치도록 하자.

라) 10월은 상달(上月), 上帝의 달 !

이제 음력 10월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묵상해보자.

「10월이라 ‘上달’ 이니, 上帝님께 祭祀하고, 祖上님께 時祭하세!」

오늘날 우리 천주교회의 ‘聖母聖月’ 이나, ‘殉敎者聖月’ 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조상님들은 부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음력이 전해진 아주 먼 옛날부터, 적어도 삼국 시대 그 이전부터, 음력 10월을 가장 높은 「上달」로 삼아, 온 겨레가 한 달 동안 아주 경건하고 매우 성대하게 축제를 지내었다. 10월 상달의 우리겨레 종교문화를 조금이라도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간절하게라도 우리겨레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겨레는 먼 옛날 天山 山脈一帶에서 수렵을 주요 生業으로 하였으나, 사냥하다가 산 채로 잡게 되는 山羊이

나 야생 염소 같은 동물들을 키우면서, 부업삼아 牧畜業을 발전시켰다.

先史時代 우리 조상님들은 두려운 밤의 무서운 어두움을 없이 하는 햇님이 아침마다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며 햇님을 맞이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하늘과 땅 사이로 아침마다 햇님이 찾아오시는 「샛넉」, 즉, 東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햇님이 사시는 나라’, ‘햇님의 나라’, ‘밝은 나라’, ‘빛의 나라’, ‘빛 고을’ 이 있고, 그 ‘빛의 나라’ 에는 햇님을 날마다 보내주시는 한울님이 계시며, 자기네 조상님들의 혼령이 거기서 햇님과 한울님과 함께 살고 계시리라 믿었기에, 동으로, 동으로 수 천 년에 걸쳐 민족이동을 하였다.

따라서 빛을 숭상하며, 빛을 따라서 민족이동을 하여 온 우리 선조들은, 흰옷을 즐겨 입었으니, 족장이 죽거나, 부족의 큰 행사날이나, 부모가 죽으면 흰옷을 입었으며, 고종황제가 돌아가셨을 때는 온 나라가 흰옷을 입었으며,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우리를 白衣民族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빛을 숭상하는 겨레라는 뜻이다. 또 자기네가 자리 잡고 사는 마을이나 큰 의지가 되는 뒷동산은 백두산처럼 꼭 만년설이 없어도, 소백산, 태백산, 백악산, 하며 이름 지어 올라가서 산제사를 드렸는데, 산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산에서 하늘님께 올리는 제사로 출발하였으며, 마을 이름도 빛고을(光州), 밝은 고을(明州), 별고을(星州), 흰고을(白城), 별고을(陽城), 동으로 부르기를 즐겼다 <六堂 崔南善의 兒時朝鮮, 1926년 4월, 朝鮮日報 연재 참조>.

요동 별판과 송화강, 흑룡강,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유역, 등, 극동 지역에 와서는, 수렵생활에서 농경문화로 생업이 바뀌고 발전하게 되었으며, 추수하는 계절이 되면 秋夕을 시작으로 하여, 음력 10월에 절정을 이루었으니, 농사를 짓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신, 玉皇上帝 하느님께 마을마다 地域마다 部族마다 門中마다 모여서 성대하게 제사를 올리었으며, 집집마다 祖上님들께, 특히 논밭을 일구어주시

고, 농기구를 발명하여 주시고, 농사 기술을 익혀 주시며, 씨앗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신, 대대로 문혀 계신 할아버지들 묘에 가서 時享을 올렸고, 농사일을 함께한 이웃들과 떡과 술을 나누며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며 즐겼다. 한마디로, 10월 上달은 하느님과 조상님들과 이웃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달이었다.

韓民族의 해 돋는 나라, 東方으로의 民族移動과, 고향산천 天山山脈 歸鄉訪問 발걸음은 이른 바, 비단 길, 즉 Silk Road 東邦通路의 최초 개척이었다. 천산산맥 일대에서 주로 수렵생활과 부업으로 목축업을 하던 한민족이 동으로, 동으로 민족이동을 하면서, 극동지방과 한반도에 이르러, 농경문화를 발전시키며,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아 나라를 세우면서, 타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으면서도 우리 선조들은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였으며, 자기가 출발한 故鄉山川 天山山脈 지역을 가끔씩 다녀오는 일을, 마치 오늘날 정월 명절이나 추석 때 온 국민이 고향을 찾고, 부모와 조상의 묘를 찾아, 자신의 뿌리로 되돌아가는 관습처럼 여겼으니, 오늘날의 거룩한 우리 이 관습은 옛날부터의 저 관습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햇님의 나라, 동쪽으로의 민족이동과,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는 우리 겨레의 발걸음은 이른 바 「비단 길」이라고 부르는 동서통로의 최초 개척이었다. 비단장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처음 낸 길이 아니고, 한민족이 종교적인 이유로 민족이동의 발자국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弘益人間, 즉 우리겨레의 建國理念은 國際聯合, 즉 U.N. 大憲章이다.

先史時代부터 모든 민족들이 弱肉強食의 동물적 차원에서 통치하고, 점령하고, 탈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우리겨레는 建國理念이 弘益人間 이었으니, 전쟁에서 승리한 부족이나 패배한 부족이나,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하게 쌍방 모두에게 利益이 되게 하는 정신이었으니, 부패한 인류가 오늘날 정치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民主主義나, 또는, 사라져가고 있는 共產主義나, 全體主義 그 이상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敬天愛人의 人本主義 思

想에 근거한 弘益人間 정신은 오늘날 國際聯合이라는 U.N.의 大憲章 출발이오, 完成形이 아닐 수 없다.

「하늘이 열린 날」, 開天節 국경일의 정신은, 우리나라 건국의 근거를 하느님께 연결시키는 의미가 있으니, 「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도 구름없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애국가 속의 민족적 合誦祈禱역시, 다른 나라의 국경일이나 다른 나라의 애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上帝 天主 공경 정신과, 또한 부모와 조상님들을 위하는 교과서와도 같은, 「孝子門」이나 「孝子閣」역시,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문화유산은 宗教的이며, 信仰的이며, 神學的인 所懷를 切感케 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10월 생활」에서, 上帝 하느님과 조상님과 이웃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 가고, 명승지 관광과 각종 경기 관람과 오락과 유흥과 사치와 향락으로 차고 넘치는 느낌이다.

천주교회의 「목주기도의 달」이며, 「전교의 달」인 「10월 신앙생활」은, 우리겨레의 오랜 전통적인 「上달」을 나름대로 지키고, 아끼고, 가꾸며, 補完하고 성장시켜 꽃피우게 하는 계기로 삼는 사명도 없지 않음을 묵상해보고 싶다.

해마다 10월 「전교주일」에, 서울 가락동성당 하상회와 명동성당 하상회 회원들이, 천진암 성지의 「조선교구 설립자 묘역」에 모신 성 정하상 바오로 회장과 유진길 회장의 묘를 참배하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시제도 지내며, 천주공경과 조상에 감사하는 예를 올리는 것을 보면서, 옛 것과 새 것을, 좋은 것은 모두 함께 지키고 아끼고 가꾸고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작성일 : 2009-11-02 10:52

-Msgr. Byon-

변기영 몬시뇰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사랑방 윗목 구석구석에 쳐 박아두었던 보파리들을 이것저것 내다가 풀어서 교회와 사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들은 죽기

전 알리려 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변기영몬시놀사랑방.kr 또는 www.msgr-byon.org 또는
www.msgrpeterbyon.org

● 작성일 : 2016-10-04 04:11

275.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려서 놀림감이 되었던, 한 시골 교구 젊은 사제의 실로 고달프고, 고독한, 그러나 한국교회 역사상 최대의 기쁜 소식!

1983년 2월 26일 이날 오전 11시부터 성하를 알현한 후, 12시경 접견 후의 대법관들과 성하를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사진을 바라보면서 성하 좌측 뒤로 두 번째가 변기영 신부, 외쪽 앞이 당시 로마연락관(청원자) 전주교구 소속 김진석 신부, 교황님 우편 바로 뒤가 이태리인 Giullio Dante 변호사, 교황님 좌우의 12명 붉은 법복을 착용한 교황청 법원 대법관들, 이들은 새 교황님 앞에서 신앙과 양심으로 재판할 것을 선서하였고, 3개월 후, 103위 복자 시성 재판 때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추기경, 대주교, 주교, 유관 몬시뇰들) 총회(Rota Romana)에도 참석하였으며, 이날 교황님은 신규 개정판 교회법 전서(Canon)를 1권씩 기념으로 주셨으며, 변기영 신부가 받은 법전은 천진암 성지에 보전되어 있다(사진은 천진암성지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311번 참조).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거행된 한국순교복자 103위의 시성식 광경. 당시 언론과 보도기관에서는 100만 여명으로 보도하였으나, 필자는 55만명~60여만명으로, 내한한 성청 인사들에게 보고 하였었다(Sua Santità Giovanni Paolo II aveva concelebrato la messa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 con molti Cardinali, Arcivescovi, Vescovi, sacerdoti e fedeli cattolici - circa 500.000 - a

Seoul il 6 maggio 1984. Per quella canonizzazione, il Rev. Byon, rettore di Chon Jin Am, il luogo natale della Chiesa, aveva servito per 5 anni (1980~1984) come segretario esecutivo generale della commissione episcopale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 >-Photos by Baeck-Nam-Shick)(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이번 주 풍경소리 제311번 참조).

1982년 봄부터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산하 순교자시복시성추진위원회는 당시 교황대사 Francesco Monterisi 대주교의 권고를 따라 위원장 김남수 주교 명의로 2차례나 103위 순교복자들의 시성을 위하여, 기적심사 관면을 교황청 시성성에 요청하였다. 동시에 관련 문서들을 수차례 보내고 있었다.

로마를 방문한 103위 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가 1983년 2월 26일, 교황 요한바오로 2세를 알현하면서, 103위 시성을 간청하자, 교황께서는 변기영 신부의 손을 한참 동안 힘주어 꼭 잡고, “그래, 시성해야지, 아무렴, 기도하자 ! 나도 기도할게 ! (Si, si, preghiamo, si, preghiamo!)” 하셨다. 점심 먹으러 가서, 동석했던 Giulio Dante 변호사에게 자랑삼아, “교황께서, 오늘, 우리 103위 복자들을 시성해주신다고, ‘Si ! Si !’ 하셨다고 말하자, 함께 식사하던 단테 변호사와 당시 로마 연락관 김진석 신부는, 시쿤등해 하며 쓴 웃음을 지으면서, “교황님은 모든 간청에 대하여, 결코, ‘No 안 된다’ 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시니, 외국에서 오는 방문객의 간청에 예의상 하는 말씀일 뿐” 이라며, 믿지 말라고 하였다. 신부가 교황님 말씀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느냐고 변신부는 항변하였으나, 모자라는 촌놈으로 취급될 뿐이었다.

3월 5일에 귀국하여, 3일 후, 여러 주교님들과 각 교구 총대리 신부들과 수도회 장상 수녀들까지 약 50여명이 정능 수녀원의 신축 교육관에 모여,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의 시성추진 로마 현장 점검 귀국 보고회를 가졌다. “교황께서, 우리

103위 복자들을 시성해주신다고, ‘Si, Si’ 하셨다고 말하자, 모두들 큰 소리를 내며 웃었고, 심지어 수녀들까지도 깔깔대며 웃었다. 웃지 않는 주교님들이나, 신부, 수녀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기쁜 소식이라고 웃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된다는 표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교회 역사에, 100여명의 복자들이 한 번에 시성한 예가 없었기 때문이고, 교황님의 말씀은 의례적일 뿐이라고 모두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교님(한국천주교회200주년준비위원장, 경갑룡 주교) 한 분은, “변신부는 그래, 교황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 하였다. “물론입니다. 신부가 교황님 말씀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습니까?” 하자, “예끼, 이 사람아! 변신부, 너무 순진하군! 참 딱도 하군!” 하며, 모두들 다시 한 번 크게 웃었다. 변신부는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한쪽 옆에서는, “이태리 유학을 안 해서”, 잘못 알아듣고 온 거야! 하며, 잠시 회의장은 비웃음과 조롱 범벅이 되어, 어수선했다. 그러나, 원로 오기선 신부님만이 일어나서 내 편을 들었다. “교황께서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도 고맙지 뭐!” 당시 가톨릭신문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년에 103위 복자들의 시성이 가능하다”는 변신부의 귀국 인터뷰 내용을 박스기사로 무게 있게 보도하였다. 그러나 그 진의는 좀 의아하였다.

그러나 교황님의 손을 잡은 변신부의 사진이 인쇄물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열성과 신부님들(오기선 신부님, 김창석 신부님, 박희봉 신부님, 등)의 극성에 들볶이다 못해, 김남수 주교님은 바로 3월 15일에 로마로 갔으나, 교황성하는 만나 뵈을 수가 없었고, 시성성 장관 Palazzini 추기경만 뵈고 돌아왔다. 이어서 4월 20일 경, 김수환 추경님은 로마로 가서, 늦은 저녁이었는데도, 아예 비행장에서 바티칸으로 직행하여(?) 교황님께 103위 시성을 열망하는 한국 신자들의 간청을 전하였다고 국내에 알려 왔다.

그래도 103위 시성 가능성을 부정하며 반대하던 국내의 저명

한 성직자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수원교구 저 미친 놈, 변기영 신부가 아주 사기꾼이야 ! 103명이 어떻게 한 번에 시성된다는 말이냐?’ 고 공박하며, 유관 모임마다, 자리마다, “희대의 사기꾼”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심지어 기적심사 관면 확정 소식이 전 세계에 발표되던 6월 10일 전 날 저녁에도, 서울 큰성당의 공개 강연회에서까지, 수원교구 사기꾼 신부 이야기가 주제였다. 신자들은 속지 말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로마의 장의 신부가 변신부에게 헐레벌떡 숨가쁘게 국제전화로, “기적심사 관면, 추기경, 대주교, 대법관들 전체 총회에서 가결, 1시간 후, 교황 성하 즉시 서명 확정 발표” 소식을 알려왔다. 밤늦도록 TV와 신문사 기자들의 각종 문의 전화와 자신들이 주교회의 사무처로, 시성추진 사무실로 몰려와서, 로마와 파리에서는 대표 추기경들이 여러 주교들과 함께 배석하여, 성대히 이미 발표하였고, 각 나라 언론도 이 놀라운 소식을 크게 보도하는데, 당사자인 한국주교회의는 왜 공식발표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 야단이었다.

이 큰 소식은, 로마와 파리에서처럼, 서울에서도 마땅히 한국의 모든 주교님들이 모인 가운데 교회의 어른이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발표해야만 할 큰 기쁜 소식이었으나, 당시 김추기경님은 제주도 글라라 수녀회 피정 지도 중이라서 오실 수 없다고 하시고, 주교회의 의장 윤공희 대주교님은 광주대교구 사제 피정 지도 중이라 도저히 자리를 뜰 수 없다고 하시고, 위원장 김남수 주교님도 울산 예수성심수녀회 피정 지도 중이라서 역시 서울에 갈 수가 없으니, 주교회의 사무총장 정은규 신부나 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가 발표토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러나 정은규 신부는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가 좀 어렵다면서, 4년간 시성추진 실무를 담당한 변기영 신부가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변신부에게 미루었다. 엄청난 새 소식을 발표하는 자리는 이렇게 너무나 쓸쓸하였다.

그래서, 위원장 김남수 주교의 재확인 명령으로, 부득이 6월

12일 아침 TV와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103명이 함께 시성된다고 떠드는 사기꾼이라고 공격받던 103위 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가, 실로 외롭게 나서서 103위 시성 기적심사관면 확정 소식을 한국주교회의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시성추진과정에서 가장 애를 먹이며, 수십 년씩 걸리는 과정이 기적 심사인데, 이 과정을 관면 받으면, 사실상 시성은 확정된 바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각 나라 언론에서 2천년 교회 역사에 초유의 이 놀라운 소식의 주인공이 되는 한국 교회의 공식 발표 현장에는 어떤 주교님이나, 사제들도 참석함이 없이, 시성부 직원들만 데리고, 기자들 앞에 나서게 된 것이다! 103위 시성 추진부장의 초라한 사무실(당시 장충동 분도회관 2층) 밖에는 마땅한 발표 장소조차 없었다.

한국에서 103위 시성 확정 소식은 이렇게 정말 외롭게 발표되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약 1시간가량 걸렸다. 사기꾼 소리의 연속 사격이 시작된 지 3개월 (3월초부터 6월초까지) 후의 실로 의외의 기적적인 고독한 발표였다. 당시 유일한 교회 주간지 가톨릭신문은, 울산에서 수녀원 피정 지도하고 계신 위원장 주교님 명의로 6월 12일 자 발표공문이 나온 것처럼 하여, 이를 인용한 것으로 만들어, 1주일 후에 늦게라도 우선 보도하기로 하였다.

이듬 해, 1984년 12월 초, 모든 일이 끝나서, 위원회 해산 후, 주교회의 사무총장, 정은규 신부한테서 전화가 왔다. 사무실에서 만나서 직접 본인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의장 김수환 추기경과 주교회의 200주년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공희 대주교의 공동명의로, 주교회의 순교자 시복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에게 주는, 둘에 새긴, “감사패”였다. “여기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라는 말은 정 신부가 추가하자고 하여 만들었노라고 하였다.

수원교구 시골 촌놈이, 서울 주교회의에 불러가서, 주교님들 심부름하느라고, 서울과 로마와 국내 전국 교구에까지 동분서주

하며, 일부 선후배 사제들한테, 5년간 정신 못 차리게 들볶이며, 시달리며, 혼이 난 품값이었다. 미리내 본당에서 1957년 9월 27일, 혼자서 영세한. 해마다 9월 27일이 되면, 교황성하의 103위 순교복자 시성확정 발표를 되새기게 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03위 한국순교복자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 관면을 확정 발표하신 것은 1983년 6월 11일(로마시간)이지만, 교황청 여러 관련 부서에서 여러 절차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확정 교서(BULLA)를 발표하신 날은, 공교롭게도, 그 해, 1983년 9월 27일, 나의 영세 기념일이었다.

변기영 몬시뇰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한글과 영문 출입문 어떤 것을 치셔도 됩니다.

사랑방 윗목 구석구석에 처 박아두었던 보파리들을 이것저것 내다가 풀어서 교회와 사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들은 죽기 전 알리려 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변기영몬시뇰사랑방.kr 또는 www.msgr-byon.org

● 작성일 : 2016.09.30 오후 8:57:46

276. 주한 교황대사 Osvaldo Padilla 대주교, 곡수리성당 방문 - 2016.11.22. 오전11시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 (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에게, 변기영 몬시뇰이, 기념제 거행 전 강학실에서 신임 천진암 성지 전담 김동원 신부를 소개하고 있다. 신임 김동원 신부는 천진암 성지 본당 출신 최초의 사제로서, 서울대신학교를 나와, 오지리 Insbruck에 유학하여,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사제가 된 후, 천진암 성지 성당에서 첫 미사를 올렸으며, 중국 臺滿 補仁大學敎 신학대학원에서, 천진암 성지의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 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정약중, 등 학자들에 대한 연구논

문으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천진암 성지 보좌신부, 수원 상현동 본당 주임 신부, 등을 역임하였다.

*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주한 교황대사 Osvaldo Padilla 대주교, 곡수리 공소 성당 방문 확정.

성당 축성과 사우거사기념서재(沙右居士紀念書齋), 유한당권씨기념천학방(柳閑堂權氏紀念天學房), 등 신축 건물과 개보수 시설물의 축복식 및 “하느님의 종 권철신 권일신” 기념 표석, 제막식.

2016년 11월 22일 오전 11시에 주한 교황대사 Osvaldo Padilla 대주교는, 곡수리 성당(양평군 지평면)을 방문하여 수원 교구장 이용훈 주교와 여러 사제들과 신도들과 함께, 변기영 몬시뇰이 33년간(1984. 12. 31.~2016. 5. 21.) 머물던 천진암 성지에서 오래간만에 새로 옮긴 거처 입주 축복식을 거행합니다. 변기영 몬시뇰이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공소(양평 본당 관할)로 거처를 옮기도록, 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주교)에서는 사제관을 신축하였고, 또, 20여 년 전에 가난한 시골 공소 교우들이 피땀으로 건립한 공소 성당을 교구장 주교가 공식 축성하며, 옛 교육관을 개보수하여, 변몬시뇰의 서재로 축복합니다. 한국천주교회 요람지로 이미 Daveluy 주교가 부르던 권철신, 권일신, 등 대학자들의 복음을 선포한 양평 지역에, 옛 신앙 선조들을 기억하도록, 기념표석과, 사우거사 권일신 기념서재(沙右居士紀念書齋), 사제 식당으로 사용되는 신축 건물도 유한당권씨기념천학방(柳閑堂權氏紀念天學房),등으로 명명하여, 신축 건물과 개보수 시설물의 축복과, “하느님의 종 권일신” 기념 표석, 제막, 등을 거행합니다.

* 사우거사(沙右居士安東權日身)는 성오(醒悟), 직암(稷菴)으로 불리던, 권일신 성현을 당시 선비들이 부르던 호칭으로, [사우]는 성현의 영세 본명 방지거 사베리오(Franciscus de Xavier)의 고향 본관 명칭 한역에서 따온 듯하며(?), 거사(居士)라는 말은 유림들과 불자들 중에 덕망과 학식이 뛰어나면서도,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서 고요하고 고결하게 사는, 백성과 선비

들의 스승다운 대학자를 칭하던 낱말입니다.

1791년, 신해년 말, 천주교 신앙 때문에 체포되어,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다가 첫 번째 주막, 용인 관아(현재의 신갈 驅邑면 사무소 마을 관아)의 객사에서 첫날 밤, 뒤따라 온 자객들에 의해 타살된 후(직계 5대손 권오규 변호사와 동생 권오진회장의 증언과 1807년 판, 안동권씨 족보 목각본 참조), 장례식 때, 성현의 큰 형, 권철신 성현이 관 상판에, “沙右居士安東權日身之柩”라고 명기함으로써, 최종 재확인되었습니다.

박학다식하여 학문과 수덕을 좋아하던 권일신 성현은 용문사의 몇몇 기념비석에도 그의 명문장과 함께 이름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당대에는 유림들뿐 아니라, 불교 스님들도, 또 정조 임금까지도 존경하며 아끼던 대학자였으나, 양여지간(楊麗之間)에, 사학이치성(邪學而熾盛), 즉, 양평과 여주 지역에 천주학이 불 일어나듯, 무성한 것은 권철신과 권일신 형제 학자들의 영향이라고, 당시 여러 문헌이 밝히고 있듯이, 당대 저명한 성현으로, 생장향 양근면 갈산리에 있던 자택의 서재에는 다량의 소중한 저서들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그 방대한 서적들은 모두 1791년 신해년 말과 1801년 신유년 초 봄의 천주교 박해시절에, 천주교를 반대하던 건달패들에 의해 서당과 자택들이 불탈 때 소실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번의 紀念書齋에는 필자가 소장하며 자주 보고 사용하는 교회역사에 관한 일부 신구서적 약 4,000여권이 우선 이관, 장서되었습니다.

* 유한당 권씨(柳閑堂權氏)는 권일신 성현의 친척으로, 병조판서 권엄의 딸로서, 이벽 성조의 부인이었으며, 천주교 서적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나서, 1779년을 전후하여, 천진암에 입산수도하던 장부 광암 이벽 성조께서 심층 연구한 후, 이승훈, 정약종 형제들과 함께 실천하기 시작하여, 한국천주교회가 창립되던 때, 유한당 권씨는, 모두가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으로 쓰여진 책들이어서, 우선, 12단 기도문을 비롯한 천주교 서적들을 처음 언문(한글)으로 번역하여 정갈하게 베껴서, 즉, 謄譯淨寫

하여, 한문을 모르는 상민들에게 전파하였다고, 이벽전에도 기록되어 있을만큼, 당시 天學이라고 부르던 천주교를, 포천의 내촌면 화현리 본가와, 광주 두미의 별장에서, 유한당 언행실록, 등을 저술하며, 집안의 노비 가솔들과 평민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서 가르치던, 여류 학자이었으며, 동시에, 한국천주교회 복음전파의 대표적인 한국천주교회 최초의 여성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Msg. Byon-

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 (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 경축사 메시지 발표)

MESSAGE

MASS AT CHON JIN AM

JUNE 24, 2016. 11 A.M.

I wish to unite myself with the Bishop of Suwon Most Rev. Matthias RI long-hoon, the Ausiliary Bishops the Priests, Religious and Lay people ? as we celebrate the feast of St. John the Baptist.

Today we commemorate in our spiritual intentions the Servants of God, John Baptist Yi Byeok, and companions, whose remains are buried here at Chon Jin Am. We pray that their cause of martyrdom will soon be approved and that they will be, in the near future, elevated to the Altars as “BLESSEDS”, martyrs for the faith. The “servants of God” at Chon Jin am were the first Christians in Korea who gave their lives for Christ ? the blood of these first martyrs is the foundation stone of the life of the Church in Korea.

The Visit of the Holy Father to Korea (August 14-18)

brought out three spiritual realities of the life of the Church in Korea ? its past, present and future: MEMORY, HOPE, WITNESS.

- MEMORY: we cannot forget the peculiar origins of the Church in Korea, by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 it is a Church that was started by lay persons. The first Christians and martyrs are here at Chon Jin am. This memory is now blessed with our 103 saints, 124 blessed, all holy martyrs, and at present there is the advanced process in Rome, John Baptist Yi Byeok and 4 other companion whom we venerate and commemorate at today's Holy Mass.

- HOPE ? We do not commemorate only the past, but also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e martyrs of the Church are shining examples to all the baptized of total commitment to Christ. The Holy Father, Pope Francis, after his visit, asks all Korean Catholics to commit themselves totally to Christ, in their lives and in their mission to others.

- WITNESS ? in the midst of secularization of society and relativism in search for personal material comforts, the life of the holy martyrs and servants of God bears witness to the grace of the Spirit, as the continued fertility of the grounds of evangelization and personal sanctification.

Pope Francis asks us to be guardians of memory of hope" to be true witnesses of the Gospel: "The Church is the guardian of memory and hope: she is a spiritual family in which the adults pass on to the young the torch of faith received from their forebears. The memory of past

witnesses becomes a new witness in the present and hope for the future” (Pope Francis, August 20, 2014)

It is the prayer of Pope Francis that: The tree that was planted and nurtured by the blood of the martyrs will spread its branches ? in Korea and in other countries of Asia- like arms of love for Christ in Korea. We pray that MEMORY, HOPE, AND WITNESS will continue to urge us on to the joy of gospel.

AMEN

Seoul, 24 June 2016 /

+ Osvaldo Padilla

Apostolic Nuncio in Korea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거행된 한국순교복자 103위의 시성식 광경. 당시 언론과 보도기관에서는 100만여명으로 보도하였으나, 필자는 55만명~60여만명으로, 내한한 성청 인사들에게 보고 하였었다.

Sua Santita Giovanni Paolo II aveva concelebrato la messa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 con molti Cardinali, Arcivescovi, Vescovi, sacerdoti e fedeli cattolici - circa 500.000 - a Seoul il 6 maggio 1984. Per quella canonizzazione, il Rev. Byon, rettore di Chon Jin Am, il luogo natale della Chiesa, aveva servito per 5 anni (1980~1984) come segretario esecutivo generale della commissione episcopale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

(Photos by Baek-Nam-Shick)(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림, 기별, 시문 제1번 참조).

변기영 몬시놀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한글과 영문 출입문 어떤 것을 치셔도 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변기영몬시놀사랑방.kr 또는 www.msgr-byon.org 또는
www.msgrpeterbyon.org

● 작성일 : 2016.09.30 오후 9:36:32

277. Daveluy 主敎의 韓國 殉敎者 歷史를 위한 備忘錄

변기영 몬시놀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사랑방 윗목 구석구석에 처 박아두었던 보따리들을 이것저것
내다가 풀어서 교회와 사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들은 죽기
전 알리려 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변기영몬시놀사랑방.kr 또는 www.msgr-byon.org 또는
www.msgrpeterbyon.org

Walter Kasper 추기경의 천진암 성지 연구소 변기영 몬시놀
서재의 고문서 일부 열람 !(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
지 한국천주교회 창립사 제429번 참조).

Daveluy 主敎의 비망기와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들의 친필
고문헌들의 관계는?

로마 교황청 Cardinal Walter Kasper 추기경, 심상태 몬시
놀, 최인각 신부, 천진암 성지 방문(2012.10.20)(사진은 변기영
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한국천주교회 창립사 제429번 참조).

韓國 殉敎者 歷史를 위한 備忘錄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

vol 4(5 - 29 쪽)

〈한국천주교회창립사연구원에서〉

(朝鮮에 있어서 천주교의 起源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을 우리
가 얻어낸 자료들은 丁若鏞에 의해 수집된 것이다. 丁若鏞에 대
해서는 자주 언급되는데, 그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

왔고, 천주교에 관한 거의 모든 일에 처음부터 관계하였으며 거의 모든 천주교 지도자들과 인척이거나 친구 사이였다. 학문과 관직에 있어 뛰어난 인물이었으나 천주교를 저버리는 나약함을 보였음에도 1801년 유배를 면치 못했다. 수년 후에 赦免을 받고,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심행위와 모범적인 苦行의 실천에 오랫동안 온 힘을 기울였으며, 지극히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보이며 죽었다. 한 편으로 그는 天主教에 관한 몇 가지 글을 남겼는데, 우리가 한 일은 대단히 잘 쓰여 진, 그러나 애석하게도 너무나 짧은 그의 기록들을 단지 옮겨 엮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朝鮮王國에 天主教의 胎動을 일으키기 위해 하느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字를 德祖라 하고 號를 曠菴이라 하는 李穡이었다. (李)穡은 慶州 李씨로, 高麗朝 때부터 이미 지위가 높았던 그의 조상들 가운데에는 학문이나 벼슬로 뛰어난 사람들이 여럿이었다. 그의 家門은 증조부 이후로 武官職에 종사하였고, 이 새로운 부문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아오고 있었다. 穡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資質을 갖추고 태어났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친은 武官 벼슬을 얻는 데 필요한 활쏘기, 말타기 등의 훈련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穡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끈질기게 거부하였다. 이 일로 그는 부친의 애정을 잃었고, 부친은 지나치게 고집이 센 그의 성격을 가리키는 ‘벽’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렀다. 자라면서 穡은 힘이 세고 체구가 건장해졌다. 키가 8척에, 한 손으로 백 근을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였다. 활달하고 잘 생긴 그의 風采는 당당하였고 당연히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되었다. 그의 재주도 이처럼 뛰어난 外樣에 지지 않을 정도여서, 유창한 言辯은 도도한 강물의 흐름에 견줄 만하였고, 모든 면에서 월등한 智力을 타고난 그는 오직 事物의 理致와 學說의 참된 토대만을 추구하였다. 언제나 事物의 根本을 파고드는 데 몰두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經典을 공부함에 있어 그 깊은 뜻을 파악하려고 애썼다.

이처럼 좋은 소질은 개인적으로는 빛나는 미래를 그에게 보장하고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당대의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 쓴 책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였고, 자신의 일에 성공을 기하기 위하여 학문에 있어 자신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자 하는 모든 지식인들과 交分을 맺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관습이나 예의에 거의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고귀하고 고상한 느낌을 주었고, 그러면서도 농담을 좋아하였으며, 직업적인 학자들을 구별시켜주는 벼슬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었다. 이상이 당시 자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李穡의 모습이다.

때는 1777년(丁酉年), 유명한 학자 權哲身이 鄭若銓과 학문을 사랑하는 다른 여러 학구적인 양반들과 함께 심오한 학문연구에 몰두하고자 어떤 절에 들어갔다. 이 사실을 알게된 李穡은 기쁨으로 가득찼고, 그 뛰어난 사람들의 가르침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꺼워하며 즉시 그들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도처의 길은 눈에 덮여있었고, 거리는 백 리도 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들이 학문과 지혜를 그토록 갈망하는 열렬한 마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바로 길을 떠났고, 험난한 길들을 나아가면서도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지는 해도 그가 열망을 실현시키는 것을 늦추게 할 수는 없었으며, 그는 밤길을 계속하여 마침내 자정 무렵에 한 절에 다달았다. 그러나 자신이 절을 잘못 찾아왔고 산너머 반대편으로 가야함을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낙담했겠는가! 하지만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밤중에 넘어야 할 산은 거대한 산이었고, 눈더미에 덮여있었으며, 수많은 호랑이가 접근을 막고 있었다. 그래도 상관없다! 穡은 모든 승려들을 깨워 자신과 동행하게 하였다.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손에는 쇠를 박은 몽둥이를 들고 길을 계속하여, 짙은 어둠을 뚫고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곳에 도착하였다.

이토록奇異한 도착은 山中의 외판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연유로 그렇게 많은 손

님들이 때아닌 시각에 찾아왔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곧 모든 것이 밝혀지자 기쁨과 환희가 두려움의 뒤를 이었으며, 그토록 즐거운 만남으로 인해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이미 날이 새고 있는 것도 모를 지경이었다. 이 모임은 열흘이 넘게 계속되었는데, 하늘과 세상과 인간본성 등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깊이 다루어졌고, 모든 의문점들과 先賢들의 의견이 논의되었다. 그 위에 偉人들의 倫理經典들을 연구하였고, 유럽사람이 漢文으로 쓴 철학서적과 수학서적 몇 권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책들을 깊이 연구하매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마침내 연구와 토론은 그리스도교에 관한 몇 권의 초보적인 서적에까지(이 책들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미치게 되었다. 이 서적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당시 그들은 하느님의 존재와 攝理, 영혼의 靈性和 不滅性, 七罪宗을 그에 상대되는 일곱가지 德으로 물리치는 修行法 등을 다룬 몇 권의 概論書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中國經典들의 막연하고 모호한 학설에 익숙해있었어도 眞理를 渴望하던 그 곧은 사람들은 우리 聖敎의 기초원리를 검토하자마자 그 敎理에 담긴 위대하고 아름답고 확실한 모든 것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 책이 없었으므로 이 교리를 더 이상 깊이 연구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즉시 감동되었고 신앙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듯 眞理는 언제나 그 標識를 同伴하는 것이 사실이다. 언제나 진리의 빛은 이를 찾는 모든 이들의 눈에 빛나고, 곧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리가 행복의 싹처럼 심어주는 느낌에 무감각할 수 없는 법이다. (자기 나라에서 학문에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된 것을 보자니 얼마나 아름답고 흐뭇한가!) 이리하여 지혜를 추구하던 우리 주인공들은 聖敎에 젖어들게 되었고, 그 명확한 원리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聖敎의 모든 戒律을 즉시 실천에 옮기기를 바라겠지만, 당시 가지고 있던 책들이 그들을 지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일 아침저녁 옆드려 默想에 잠기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7일마다 하루씩 天主께

바쳐진 날이 있다는 것을 어디선가 보아 알게 되자, 매달 7일, 14일, 21일, 28일 모든 세상일을 중단하고, 영혼 수련에 대해 생각하면서 小齋를 지켰다. 그들이 이러한 수련을 얼마동안이나 지속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극비리에 이를 행하였다. 그런데 뒤이은 사실들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그들 중 대부분은 이를 오래 지키지는 못한 듯하다.

槩의 열렬한 마음에 풍요로운 씨앗이 심어졌다. 이러한 시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는 느끼고 있었고, 그의 모든 생각과 시선은 시작된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책들을 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던 中國을 향해 있었다. 이러한 조바심 가운데 몇 년이 흘렀고, 그가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바친 노력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 1783년 초여름, 4월 보름날, 누이의 忌日을 맞아 마재 丁씨네에 갔다가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槩는 丁氏 두 형제 若銓, 若鏞과 함께 배에 올랐다. 한양까지 오는 동안 그들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철학적 대화와 연구였다. 조선의 책 몇 권을 검토한 다음, 그들의 정신은 서양인들의 學說에 이르렀다. 그들은 天地와 인간의 창조, 영혼의 靈性과 不滅性, 그리고 來世에 천당과 지옥에서 받는 賞罰 등의 道理에 대해 차례로 자세히 토론하였다. 모든 사람이 이 道理의 참됨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으며, 그토록 아름답고 기분좋은 진리를 처음 듣는 여행객들도 모두 놀라고 기뻐하였다. 그 무렵에 이런 토론모임이 되풀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 槩의 끓는 열정이 휴식을 취하지 않았을 터이지만, 상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확실한 사실은,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던 西學 서적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천주교에 관한 몇 권의 서적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보았거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 책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문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조선인들은 北京에 연례적으로 가던 사절단을 통해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학문에 접할 기회가 자주 있었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천주교 敎理의 초보적

개념들이 널리 유포되어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당시의 서적들은 聖敎를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아니었다.)

진지한 마음으로 天主를 찾는 사람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天主께서는 그해를 끝은 영혼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해로 삼으셨다. 그해 1783년 겨울 李東郁이 北京 朝廷에 가는 書狀官으로 임명되었고, 아들 李承薰도 따라가게 되었다. 장차 여러 해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 대단한 인물에 대해 소개할 시점이 지금이다. 李承薰은 字가 子述이고, 平昌 李氏 양반 가문 출신으로, 조상들은 文官의 要職을 자주 맡았었으며, 그의 家門은 높은 평판을 얻고 있었다. 1756년(丙子年)에 태어난 李承薰은 열 살때부터 문장에 재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열아홉, 스무 살에는 벌써 온 나라에 뛰어난 학자로서 명성을 떨쳤다. 옛 聖賢들의 뒤를 따르고자 했던 李承薰은 학문과 品行이 더 나은 사람들과 교제하였으며, 學識을 높이는 일 뿐 아니라 品性을 가다듬는 데에도 애를 썼다. 李檠과도 아는 사이였지만 취향이나 성품이나 공부의 차이로 인해 아주 가까운 사이로 지내지는 못하였다. 25세 되던 1780년(庚子年)에 進士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바가 되었다. 李檠은 承薰이 北京使節團에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며 즉시 承薰을 찾아갔다.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그는 李承薰에게 이런 주목할 만한 말을 하였다고 한다. “자네가 北京에 다녀오게 된 것은 참된 道理를 알도록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일세. 萬物의 創造主이신 上帝를 恭敬하는 데 대한, 그리고 여러 聖人들에 대한 道理는 西歐人들이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러 있네. 이 道理 없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네. 心性을 바로잡을 수도 없고, 事物의 원리를 깊이 알 수도 없네. 그것이 아니면 임금과 백성의 여러 가지 의무를 어찌 알겠는가? 그것 없이 생활의 원칙도 없고, 天地의 창조, 天體의 물리적 질서와 규칙적 運行, 兩極의 질서 등을 우리가 알지 못하네. 天使와 惡靈의 구별, 세상

의 始初와 終末, 靈肉의 결합, 善惡의 理致, 죄를 赦하기 위한 天主聖子の 降生, 善人에 대한 천당 報償과 惡人에 대한 地獄罰 등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네.” 천주교 서적을 아직 보지 못했던 李承薰은 이러한 말에 크게 놀라고 감탄하면서 그런 책을 몇 권 보자고 하였다. 그는 천주의 존재와 標徵에 대한 초보서적들과 〈七克〉을 훑어보고 난 뒤, 행복감에 사로잡혀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면서 槩에게 무엇을 해야 할 지 물었다. 槩는 承薰에게 이렇게 말을 계속하였다. “자네가 北京에 가게 되었음은 天主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구원하고자 하심을 나타내는 표시일세. 도착하거든 바로 天主堂을 찾아가 서양 선비들과 상의하여, 모든 것에 대해 물어보고, 그들과 함께 교리를 깊이 연구하여 천주교 실천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오며, 필요한 책들을 가지고 오게. 生死에 관한, 즉 來世에 관한 莫重之事가 자네 손에 달려있으니, 가서도 가벼이 행동해서는 아니 되네.” 承薰은 가슴 깊이 파고드는 이러한 말을 열심히 새겨들었고, 이를 마치 스승의 말처럼 받아들였으며, 공동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다. 槩이 한 말을 살펴보면, 槩는 서양학문과 천주교에 똑같이 목말라하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많지 않은 말 속에서도, 그의 智力은 이미 천주교를 세계와 사회의 토대로 이해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번 일이 그에게는 오직 唯一無二하게 긴요한 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그가 곧 시작하게 될 大業, 즉 처음 천주교의 씨를 전파하는 大業을 天主의 恩寵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벌써 준비시키신 것이다.

承薰이 드디어 北京으로 떠났다. 北京에 도착하자 南堂을 찾아가 통(湯) 알렉산델 主教를 만나 가르침을 청했다. (바로 알렉산델 구베아 主教로서, 프란치스코회 제 3회원이었으며, 中國儀禮에 관한 敎皇令을 北京 敎區가 따르도록 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한 분이다. 북경에서 감금생활을 할 때 알게된 유명한 Caradre de St. Martin 주교와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중국이름

이 湯인 구베아 주교는 중국이 자랑할 가장 위대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요, 가장 위대한 주교 가운데 한 분이었으며, 포르투갈 國籍이었다.) 그는 또 索德超라는 서양사람을 만났는데,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아직 건강하였으며 태도가 상냥하였다. 그 외에 梁이라는 이름의 젊은 사람도 만났다. 네 곳의 성당에 오륙십여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북경에 머무는 동안, 열심히 천주교를 공부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고, (아마도) 梁신부에게 세례를 받을 때, 조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동포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조선천주교회의 주춧돌이라는 의미에서 洗禮名을 베드로라 하였다. 아마 그 때가 1784년 초였을 것이다. 그가 떠날 때 사람들이 많은 책과 십자가와 像本 등과 몇 가지 진기한 물건들을 주었는데, 이 물건들은 나중에 王宮으로 보내졌다. 1784년(甲辰年) 봄, 承薰은 이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가장 급한 일은 槩에게 책, 십자가, 像本 등을 보내는 것이었다. 槩는 초조함에 발을 구르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책들을 받자마자 집을 한 채 빌려 꼼짝도 않고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목타는 사람이 샘물을 만난 격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영혼이 말그대로 배고프고 목말라하던 진리를 찾아 깊이 탐구하는 데 얼마동안 폭 빠져있었다.

다른 모든 생각은 멀리 내던져지고, 완전히 새로운 靈의 生命이 온 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이제 그는 천주교와 迷信排斥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七聖事에 대한 解說, 基本敎理書, 福音書들에 대한 註釋, 매일매일 기념하는 聖人들의 行蹟, 그리고 꽤 완벽한 祈禱書 등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야 그는 천주교의 전체 모습과 상세한 내용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오직 온 나라를 更生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얼마간 연구한 다음 承薰과 丁若銓, 若鏞 두 형제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道理이고, 참된 길이 여기에 있네. 위대한 천주께서는 우리나라 萬百姓을 불쌍

히 여기서서, 세상 救贖의 善業에 널리 同參케 하고 싶어하시네. 이는 천주의 명령이니, 우리는 應하지 않을 수 없네. 천주교를 널리 傳播하고, 온 세상에 福音을 전해야 하네. 온 세상을 십자가 깃발 아래 불러 모으려 十字軍 遠征을 외치던 隱者 베드로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 길로 그는 몇몇 친구들 집에 찾아갔는데, 이들은 中人계급이었지만 모두가 學識과 德行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들과 그 친구들 대부분은 설교를 듣자마자 즉시 槩의 활기 있고 예리한 말에 굴복하였다. 이들은 崔昌顯, 崔仁吉, 金宗教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를 통해 四方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槩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새로운 종교에 관한 소문은 금방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모든 大事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많은 양반들과 선비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儒敎에 매여 있고 젖어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교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뺏어 가리라는 것을 잘 알았으며, 자신들이 지켜오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또 바른 眼目을 가진 몇몇 사람은, 새 종교에 있어 얼핏 보기에 나쁜 길로 이끄는 황당무계한 迷信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부분이 소개되지 않도록 힘을 쏟았다. 한 편 모든 善의 적들은 眞理 때문에 자기 쪽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자신의 정복자에 대한 崇拜가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편안한 눈길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께서 통치하는데 반대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李家煥은 조선에서 가장 지체 높은 가문 가운데 하나요, 당시에 여러 명의 유명한 학자들로 빛나던 집안 출신으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다.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학식으로 명성이 자자했으며, 벌써 찬사와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모든 계층에 천주교가 신속히 전파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이거 아주 큰일이로다. 이 외국교

리가 비록 이치에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으나, 우리 선비들의 道는 아니다. 李檣이 이로써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니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그를 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하리라.” 討論日時를 정하고, 李家煥이 李檣의 집으로 나아가니, 그 굉장한 論戰을 구경하려고 양쪽의 친구들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우선 李家煥이 자신이 誤謬라고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檣을 되돌리고자 시도하였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 李檣은 그의 말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그는 상대방의 주장을 아주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추적하여 논리 전체를 무너뜨려 분쇄하였고, 外敎人 학자는 버티어보려고 애썼으나 헛일이었다. 檣의 명쾌하고 명석한 발언은 사방에 빛을 내뿜었다. 항상 前後가 일치하고 이치에 부합하는 한 편, 더욱 강력한 증거를 내세워 점점 더 드러나게 하기를 계속하였다. 상대방의 논리를 모두 뒤집어엎는 李檣의 明哲함은 태양처럼 빛났다. 그의 공격은 하나하나 적중하였으며, 바람처럼 몰아치고 날카로운 칼로 가르는 듯하였다.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은 좀처럼 보기 드문 壯觀을 맛보았다. 그것은 難澁한 중국 학설들로 이루어진 구태의연한 學派의 우두머리가 공변된 眞理(福音의 光明)의 겸손한 守護者와 벌이는 싸움이었다. 사람들은 뛰어난 두 학자가 치열한 싸움을 갖가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전개하는 것을, 그리고 온갖 기교와 재능을 동원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런데 眞理의 支柱인 한 쪽은 조금도 휘어짐이 없이 꼳꼳한데, 다른 쪽은 그 柔軟性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막을 갑옷이 없어 꿇임 없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듯 하다가 곧 또다시 쓰러지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천주를 믿지 않는 이들은 은근히 몸을 떨었고, 반면에 천주께 충실한 마음들은 기뻐 두근거리고 행복한 기분으로 설레었다. 이렇게 유례없는 무대에서 승리를 거둔 신앙은 새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진실되고 곧은 영혼들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檣이 상대한 무서운

적을 완전히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루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조목조목 거둬진 토론은 사흘간 계속되었고, 그 결과, 이른바 새로운 교리의 아름다움과 넓음과 단단함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 결국 지치고 무너지고 굴복한 李家煥은 더 이상 내놓을 거리가 없어지자 이렇게 기억할 만한 말을 하였다. “이 道理는 훌륭하고 참되다. 그러나 이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줄 터인 즉, 어찌할꼬?” 그는 물러나 돌아가서 이후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더 이상 입을 여는 법이 없이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유명한 論戰의 모든 이익과 영예는 槩에게 돌아갔다. 眞理가 승리를 거두었고, 그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나가 도처에서 새 추종자들을 불러모았다. 그러나 천주교 신앙의 확장과 소문난 토론회의 결과를 접하고 또다른 적수가 나타나, 직접 이 종교의 원리를 들어보고 자기도 그 守護者들과 論爭을 벌여보고자 하였다. 그 사람은 李基讓으로, 당대에 두드러진 博識과 지체높은 가문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처음 거둔 성공들보다도 진리에 의해 더 힘을 얻은 槩은 對面을 피할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기꺼이 討論을 받아들였다. 그는 論敵 앞에서 天地의 이치, 세계와 그 모든 부분들의 아름다운 秩序, 四元素의 調和, 그리고 天主 攝理의 여러 가지 원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또 인간 영혼과 그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한 교리, 각 사람의 이승에서의 행실과 來世에서 받게되는 賞罰 사이의 놀라운 일치를 설명하고, 그리스도교의 명백한 진리가 굳건하고 손상시킬 수 없는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한 마디로 직접 만져보도록 해주었다. 李基讓은 토론을 더 지속할 수 없었고, 감히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였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믿는 듯하였으나 이를 솔직히 고백하고 실천에 옮길 결심은 하지 못하였다. 그가 물러간 뒤 槩은 두 학자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두 李씨는 대답할 말이 전혀 없으니 토론을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저들을 신용할 수 없다. 기대할 바가 전혀 없다.”

그러나 櫟은 신자들의 수가 날마다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福音이 신속히 전파되는 것을 조만간 보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래도 이 거룩한 사업을 확장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하여 櫟은, 그 학문과 명성으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론을 휘어잡을 만한 인물 몇 사람을 토대로 삼으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위에서 거론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揚根의 한 집안으로 눈을 돌렸는데, 이 집안은 신앙의 빛을 맨처음 받았으면서도 그 이후로 이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權씨 집안이었다. 이 이야기의 처음부분에서 소개된 바 있는 權씨 집안은 高麗 때부터 높은 벼슬을 지냈고, 왕조가 바뀔 때 새 임금 쪽에 가담한 가장 충성스러운 가문들 가운데 포함되었으며, 이후 文章이나 벼슬로 명망이 높은 사람들을 계속 배출하였다. 그런데 그때 號를 鹿菴이라 하는 權哲身이 있었는데, 다섯 형제의 맏이로서 모두가 그 학문과 德行으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그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들 가운데 하나라는 명성을 누리고 있었고, 세째인 稷菴 權日身도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집안은, 친척 중에도 뛰어난 사람이 많았을 뿐 아니라, 이들 곁에서 학문과 德望의 滋養分을 얻고자 전국 각처에서 몰려온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櫟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끌어들이도록 노력하여 이 나라 천주교의 뿌리와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같은 해 甲辰年(1784) (음력) 9월에 櫟은 말을 타고 揚根 고을 감산에 있는 그 집으로 갔다. 도착하자마자 천주교 전반을 깊이 검토하고 폭넓게 토론하기 시작하였으며, 곧 眞理가 환한 빛을 발하면서 드러났다. 나중에 本名을 암브로시오라 한 맏이 哲身은 나이가 쉬흔 가량으로, 중국 經書의 哲學과 倫理를 깊이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쳐온 사람이었다. 그는 복음의 빛에 저항하지는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명성을 가져다준 엄청난 연구작업의 성과를 한 순간에 저버릴 결심을 할 수 없었고, 櫟은 당장 그에게서 열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얼마 후에야 신앙을 실천할

결심을 하였는데, 일단 시작하고 나서는 변함없는 신앙심과 뛰어난 행동으로 빛을 발하여, 나중에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영예의 冠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의 동생 日身은 櫟이 이 집에 올 때 기대했던 바대로, 대단한 열심으로 즉각 천주교를 받아들였고 두 눈은 빛나는 열의로 가득찼다. 그는 천주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자마자 신앙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이어서 자기 집안 모든 남녀 식구들을 가르쳤고, 또한 친구와 친지들에게도 천주교를 전하였는데, 그의 학문과 덕행과 이름에서 비롯된 권위로 인해 전적인 성공이 보장되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열의와 열성을 바쳤던지, 揚根 고을은 가히 조선 천주교의 搖籃으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가 앞서 본 바대로 北京에서 영세했던 李承薰은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李櫟과 權日身에게 세례를 준 것도 분명히 이 무렵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건 완벽하고자 하였으므로, 本名도 숙고하여 재치있게 선택하였다. 櫟은, 한 편으로 그 높은 생각과 고귀한 행동을 볼 때,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천주교 연구를 도처에서 시작하게 하고 그리하여 이 나라에 救世主가 오시는 길을 마련함에 있어 그의 열정이 그로 하여금 말도록 한 역할을 볼 때, 두 사람의 使命에 어느 정도 타당한 유사성을 찾아본 듯, 本名을 洗者 요한이라 정하였다. 日身은 현명한 정신과 더불어 열렬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동포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몸 바치고자 하였으므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聖人을 主保로 모셔, 동양 전체에 그 음성이 울려 퍼졌던 이 성인을 表樣으로 삼아 따르려 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이 이름으로 그를 부를 것이다.

이 세 뛰어난 인물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고귀한 길로 꾸준히 나아갔으며, 신앙을 받아들일 만한 듯한 사람들의 눈에 신앙의 빛이 빛나게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때까지는 朝廷으로부터 금지 조치가 없었고, 모든 것이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벌써 반대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이

나라의 정신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진리가 싸움을 거치지 않고는 확산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뻔히 보이는 일이었으며, 나아가 온갖 종류의 폭력이 염려될 만하였다. 어찌 되었건 각자는 자신의 계획을 밀고나갔고, 신앙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때까지 진정한 敎人들은 주로 한양과 그에 인접한 지방에 몰려있었다. 그러나 攝理의 때가, 즉 숨겨져만 있을 수 없는 그 빛이 더욱 먼 지방에까지 전해져야만 할 때가, 그리고 수많은 장님들의 눈을 뜨게 하여 온순한 상태로 救世主 救贖者의 발아래 데려갈 때가 와있었다.)

특히 權 사베리오가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자신이 직접 한 일이건, 제자들이 한 일이건, 그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 그의 집에는 나중에 루도비코 곤자가라는 本名으로 불리게 될 이단원 또는 李存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

李 루도비코는 정직한 농부 집안 출신으로, 內浦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넓은 평야 옆에 자리한 충청도 천안 여사울 마을에 살고 있었다. (內浦는 바닷물이 밀려드는 수많은 운하가 지나가는 드넓은 평야인데, 한양의 곳간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비옥한 穀倉으로 유명하다. 潮水에 대한 서술 참조)

그는 타고난 재주가 비상하였고,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글공부를 하다가, 자연의 비밀을 넓고 깊게 공부해보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어떤 위대한 스승 곁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자기 고장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있는 權씨 家門의 名聲에 마음이 끌려, 權씨 형제를 찾아가 그들의 제자가 되었다. 權 사베리오의 이 제자의 훌륭한 정신과 뛰어난 자질이 마음에 들어 보살펴주고 있던 중 서양 교리를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 제자에게 천주교를 전해주었고, 이 제자를 그리스도교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뿐 아니라 특히 그 모든 계율을 실제 실천하도록 단단히 교육시키는 데 열중하였다. 그는 이 일에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된 李 루도비코는 자기 가족과 친지들을 가르치고 온 힘을 다해

천주교를 전파할 사명을 스승으로부터 부여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스승의 이러한 지시에 충실히 따랐던 李 루도비코는 곧바로 자기 가족과 주변사람들과 수많은 親知들을 입교시켰는데, 이들은 그의 학식과 덕행에 끌려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었으며, 루도비코는 이들의 정신과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 權 사베리오에 의해 그 기초가 놓여졌던 유명한 內浦지방 천주교회는 조선 교회 안에서 항상 커다란 빛을 발하여 왔는데, 이렇게 천주교의 못자리가 되어, 뒤에 우리가 보게되는 바대로 빛나는 순교자들을 배출하였다.

또한 전라도 지방에 천주교를 전하고, 이 지방 천주교회를 튼튼한 토대 위에 세운 영예도 權 사베리오에게 돌아갔다. 아우구스티노라 불리는 柳恒儉은 그 집안이 지체가 썩 높지는 않은 양반 가문이었으나, 그 지방에서는 상당한 평판을 누리고 있었고, 많은 재산으로 해서 꽤 영향력이 있었다. 그는 이 지방 중심지인 全州에서 15리 정도 되는 초남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글공부를 하여 능력 있는 지식인으로 알려질 수 있었다. 새 종교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이 종교를 믿는다고 알려진 유명한 인물들의 명성에 이끌려, 자기가 직접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름만으로도 그에게는 진리를 보장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천주교를 연구하기 위하여 權씨 집안을 찾아갔다. 그리스도교의 원리를 듣자 마자 그의 곧은 영혼은 승복하였고, 즉시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곧바로 많은 수의 가족을 가르쳤고, 또한 친구와 친지와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의 변함없는 열성 덕분에 그의 집안은 이 지방 천주교의 뿌리라고 할 만한데, 남쪽에 위치한 이 지방에서는 그 이후로 열심히 교인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었다. 또 전라도 珍山 고을에 살던 尹持忠 바오로도 같은 시기에 金範禹를 통해 신앙을 전해 받았는데, 金範禹에 대해서는 이제 곧 이야기할 것이다. 천주교 신앙의 용맹한 대표선수 尹持忠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미루었다가 나중에 그의 순교행적을 그

릴 때 함께 하도록 하겠다. 한 편, 그는 적어도 生前에 자기 고장 傳敎에 큰 몫을 하지는 못했다.

좀 가까운 지역에서는 丁씨 집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데, 若銓과 若鏞 두 형제가 槩와 함께 초기 講學會에 참여했음은 앞에서 보았다. 이 丁씨 집안은 本이 羅州이며, 경기도 廣州의 마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문장과 벼슬로 계속 명성을 드높여온 이 집안은, 당시에든 이름에 권위가 있으면서 천주교 활동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여럿이었다. 또한 양반인 봉산(豐山?) 洪씨 洪樂敏 루가 집안도 있는데, 당시 두 형제가 官職에 있었다. 이들은 그 즈음이나 또는 얼마 뒤에 李承薰에게 교리를 배웠다. 中人계급은 처음부터 가장 크게 참여했는데, 本名이 마티아인 崔仁吉은 譯官 집안 출신으로 李槩에게서 배웠고, 宮中樂士 집안 출신 池창홍 사바는 제발로 찾아가 교리를 배웠다. 성품이 순박하고 공손하며 부지런하여, 천주교를 잘 검토해본 다음에는 즉시 天主를 공경하는데 熱心 專念하였고, 항상 天主를 위해 죽기를 소망하였다. 또한 위험과 궁핍과 고통에 쉽게 몸을 내놓았고 이를 즐거운 마음으로 참아내었다. 다음은 冠泉이라는 號로 더 잘 알려진 崔昌顯 요한인데, 譯官 집안 출신으로, 역시 李槩에게 교리를 배웠다. 그는 활동적이고 지칠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천주교에 대하여 듣자 마자 신앙을 받아들이고, 천주교 서적들을 전부 자기 손으로 직접 筆寫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종교서적들을 아주 많이 筆寫하였으므로, 이 방면에 어찌나 명성이 높았던지, 敎人들 중에 책을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책방에 가듯이 그에게 찾아갈 정도였다. 모든 主日과 祝日을 위한 福音 解釋도 그가 조선말로 읊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그는 막 태어나는 교회를 위해 막대한 봉사를 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방금 소개한 이 사람들은 한양에 살았고 더 자주 등장하는 만큼, 먼저 언급해 두어야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활동적이고 능력있는 인물들은 틀림없이 천주교를 널

리 알리는 데 기여했을 터이지만, 더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이곳의 사회관계 관습을, 특히 노동일은 하지 않고 글공부만 하는 (또는 하는 듯이 보이는) 계층 사람들 사이의 사회관계 관습을 조금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믿는다.

누구나 아는 바대로, 이 나라 여자들은 최하층에 속하지 않는 한 집안에 갇혀 지낸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눈을 피하고, 모든 일에 뒤로 물러나 있으며, 訪問이나 다른 사회관계는 남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런 만큼 남자들의 교제는 더욱 자유롭고 빈번하다.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들, 특히 양반들은 능력에 따라 집 앞쪽에 한 두 채의 집을 짓는데, 이것은 바로 응접실이다. 이곳의 출입은 남성들에게만 허용되며, 문이 길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집안으로 전혀 통하지 않고도 드나들 수 있다. 집주인은 통상 이곳에 기거하면서 친구와 친지들을 접대하는 일을 즐긴다. 게다가, 손님을 厚待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로 간주되고, 중요한 예절에 속하는 까닭에,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모든 손님을 능력껏 접대하는 일을 명예로 생각하였다. 이런 사랑방 아무데나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日常 중에는 휴식을, 밤에는 잠자리를 請하면서 대접받을 수 있다. 네모난 나무토막이 베개로 쓰이고, 바닥에 깔린 이불이 침대로써, 모든 사람이 나란히 누워 함께 사용한다. 옛 풍습의 소박함과 다정함을 상기시키는 아주 아름다운 관습으로, 聖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후한 접대를 무의식중에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관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 民族에게 있어 뛰어난 同胞愛를 조성하고 유지시켜왔는데, 온갖 찬사를 넘어서서,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습에도 동전처럼 뒷면이 있을 터이지만, 여기서 자세히 논한다는 것은 우리 이야기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어쨌건 知人과 친구들의 동아리가 얼마나 쉽게 확대되었을 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類類相從>이라는 속담은 이곳에서도 역시 들어맞기 때문에, 모든 계급의 사람이나 모든 過客들이 아무렇게나 어울리는 것이 아님

을 볼 수 있다. 조선 사람은 천성적으로 遊覽과 談笑를 좋아해서 항상 산 넘고 개울건너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자기 집에서 할 일이 없는 경우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사랑방에서 저 사랑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라 안 소식을 전해 듣는다. 멀리 떨어진 곳에 볼 일이 있거나, 여러 날 가야하는 곳에 있는 어떤 친척이나 친구, 친지를 방문해야 할 때면, 여행짐으로 담뱃대와 지팡이만 가지고, 또는 기껏해야 어깨에 거는 작은 봇짐을 등에 지고, 여비로는 엽전 몇 닢, 어떤 때는 빈털털이로 걸어서 떠난다. 저녁이 되어서도 길을 다 가지 못했으면, 여인숙에 가는 대신에, 길에서 멀지 않은 사랑방을 찾아 간다. 그리고 번잡한 절차 없이 친구처럼 환대를 받으면서, “차린 것 없는” 상을 함께 나눈다. 피곤하거나 날씨가 궂을 때는 그 집에서 하루 이상 머물기도 한다. 주로 文學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짤막한 作文을 하기도 한다. 이런 사랑방에서는, 특히 여름철에, 친구들과 모여서 몇 날 몇 주씩 각자 공부한 것을 서로 나누고, 作文을 통해 상호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곤 하기 때문이다.

우리 이야기가 펼쳐지던 시대에는 특히 權씨 집안의 사랑방들이 수많은 親知들과 學文愛好家들로 북적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밀려드는 마치 여관과도 같은 곳이 되어있었다. 밤이 되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돌아가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서 하루밤이건 여러 날이건 머무르곤 하였다. 사람들에게 의하면, 그 근처의 길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온갖 처지의 사람들로 항상 가득 찼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집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몰려오는 거대한 응접실이 되어버린 듯하였다.

이상의 간단한 概觀으로 聖敎理가 어떻게 그리 짧은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전해지고 모든 사랑방에서 반복될 수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入敎했다거나 入敎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다가왔다가 그대로 되돌아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儒敎를 고수하면서 새로운 교리를 깨트리려는 목적으로, 또는 새로운 교리에 끌려들어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찾아 오기도 하였다. 몇몇 사람은 黨派心으로 인해 聖敎理에 귀를 기울일 생각조차 가지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틈에 끼기를 원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불행에 대한 염려가 이들을 붙들었다. 당시 상황은 바로 성인이 최고 법원 앞에서 설교했을 때 벌어졌던 일의 再現이었고, 또는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씨앗의 비유의 완벽한 실현이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있어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 스스로 알고 또 존중하는 善을 실천하지 못하게 막는 온갖 情念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朝鮮 兩班 세계를 분할하고 있는 여러 黨派들이 福音의 전파에 있어 엄청난 障礙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초기에 신앙을 전파한 모든 사람들은 南人이라는 黨派 소속이었으므로, 다른 모든 黨派와 최근에 南人 자체 내에서 분열된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의 반대자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 점은 뒤이은 사실들이 확인해주고 밝혀주게 될 터인데, 天主教가, 당시 權力을 쥐고 있던 南人들을 공격하여 다시는 再起하지 못하도록 치명타를 가하는 口實이 되는 것을 보게되기 때문이다.

救贖과 그리스도교 설립의 위대한 사업을 완수하려는 순간에 우리 聖敎의 崇高한 창립자 예수께서는 어디서나 영원히 眞理인 다음 말씀을 하셨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전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 天主教 基本敎理는 일반사람들 눈에 언제나 誇大妄想으로 보여 왔는데, 이제 物質에 폭 젖어있는, 그러나 信仰의 光明이 비추고 있는 이 民族 앞에 실제로 이루어져 드러나게 할 때가 온 것이었다. 이미 우리 聖敎는 이 나라 안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어느 모로 보나 뛰어난 훌륭한 인물

들을 信徒로 가지고 있었고, 양떼 가운데에는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聖敎는 피의 시험을, 아니 차라리 피의 受胎를 통과해야만 하였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天主를 뒤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가르쳐주어야 했으며, 또한 그때까지 책에서만 보아 온 敎理가 어떤 암흑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그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起源 때와 마찬가지로 天主께서는 피가 내를 이루어 흐르는 것을 즉시 허락하지는 않으셨으니, 이곳에서도 단지 한 방울의 피가 뿌려졌는데, 이는 天主의 사업에 참 印章을 찍기에는 충분하였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위로해줄 그 어떤 牧者도 가질 수 없었던 이 새 信者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信仰을 消滅시키키에는 너무나 부족하였다.

天主敎에 대한 반대자와 적들이 일어난 지는 오래전부터였고, 天主敎가 도처에서 거두고 있던 成果는 이런 반대자들의 수효와 불평소리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까지는 왕이 무슨 뜻을 표시한 것 같지는 않으므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사건은 政府內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私的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1785년(乙巳年) 봄, 天主敎가 정식으로 傳播되기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刑曹判書 金華鎭이 (어느 黨派 소속인지?) 사람들 마음에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조치로 天主敎의 成長을 멈추게 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감히 이름난 天主敎 指導者들에게 직접 공격을 가하지는 못하고, 本名이 토마스인 金範禹를 붙잡아 끌어 오도록 하였다. 金 토마스는 朝鮮에서 譯官 직책을 수행하는 中人階級 집안에서 태어나, 한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初期에 李檣에게서 天主敎를 배웠고, 은총의 부르심에 응하여 지체없이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 그는 즉시 자기 가족에게 傳敎하여 入敎시켰으며, 그의 열성은 이보다 더 멀리 나아가서, 자기 친구들 가운데 여러 사람을 改宗시키고 譯官 계층에 신앙을 퍼뜨렸다. (北京 主

敎의 書翰에는 이 사실이 1788년으로 되어있으나, 일련의 사실들로 미루어, 그리고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丁 요한의 의견에 따라 우리는 이를 이 시점에 위치시키고자 한다.)

天主教 傳播者 金範禹는 갑자기 天主教 신앙의 告白者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 고귀하면서도 어려운 使命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1785년 乙巳年 봄에 체포되었다.) 형조판서 앞에 끌려갔을 때, 형조판서는 그를 背敎시키고자 하였으나, 토마스는 天主의 은총에 의지하면서 비열한 背反을 용감하게 거부하였다. 갖가지 고문이 가해졌지만 虛事였다. 그는 잘 참아내면서 한 순간도 굽히지 않았다. 權日身 사베리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충직한 同敎人을 저버림은 자기 위치에 비추어 걸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기성, 李龍億, 홍익 등과 (이들은 누구인가?) 함께 형조판서 앞에 나아가, 용감하게 목소리를 높여 억압받는 眞理를 옹호하였다. (1785년 3월 太學生 (鄭)淑이 天主教人들의 친척과 친구들은 이들과 絕緣하라는 通文을 돌린다. 이 通文은 큰 소란을 불러왔는데, 거기에 金範禹에 관한 언급이 있다. 이 鄭淑이란 사람은 南人이면서도 天主教에 매우 敵對的이었다. 이 집안은 1786년에도 李承薰의 복귀에 반대하는 通文을 돌리며 들고 일어났다. 1785년의 通文은 천주교 신자들을 사회에서 축출하기 위해 천주교를 공격한 최초의 공식 문서이다.) 그는 형조판서에게 말하였다. “우리 모두 金範禹와 같은 종교를 信奉하오. 그의 生死는 그 혼자만에 관계되는 일일 수 없으니, 우리는 대감이 그에게 내리는 처분을 그대로 함께 나누고 싶소.” 判書는 그토록 유력한 인물들을 공격할 힘이 없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그럼에도 그는 義人에 대한 박해를 멈추지 않았고, 자세히 전해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酷刑을 가한 다음, 여전히 이 천주교인의 신앙과 끈기를 꺾을 수 없자, 충청도 동쪽 끝에 있는 丹陽 고을로 귀양보냈다. 金 토마스는 丹陽으로 끌려가서, (그는 거기 도착해서 큰 소리로 기도문을 바쳤

고, 여러 사람을 가르쳤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약 2년 후에 사망했다고 한다. 그는 한 순간도 자기 자신을 顛覆하지 않았다.) 얼마 후 상처의 후유증으로 衰盡해져 天主께 영혼을 바쳤다. 範禹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金 토마스는 이렇게 영예의 冠을 받았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해 주신 救世主의 죽음을 救世主께 돌려드리는 영광을 이 나라에서 첫번째로 얻었던 것이다. 우리의 임금이시며 아버지이신 天主께 대한 충성심과 진정한 孝心에서 비롯하는 의무는, 天主께 봉사하는 명예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감내하는 데 주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이곳의 여러 고장에 피의 목소리로 외치는 영광을 그가 첫 번째로 안았다. 拷問에 肉身은 무너질 수 있어도 靈魂은 소멸되지 않으며, 不滅性으로 가득 찬 소망 속에서 天主께 봉사함을 이 동양 맨 끝 나라의 暴君들에게 알려주는 영광도 그가 첫 번째로 안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金 토마스가 朝鮮의 수많은 殉教者들이 이루는 영광된 합창단의 맨 선두에 놓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 殉教者들은 그가 보인 模範이 引導하고 부추기는 대로, 刑吏들의 광기어린 칼날 아래에서도 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告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다른 餘波는 없었지만, 天主教人들로 하여금 그들의 敵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엿보게 하기에 충분하였고, 참 天主를 섬기기 위해서는 온갖 것에 대비하고 있어야 함을 깨우쳐 주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공포심이 특히 한양과 그 부근에 퍼져나갔고, 갓 태어나고 있는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만한 사람 가운데 몇몇을 흔들어놓았다. (많은 집안에서 자기네 가족 중 教人인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들에게서 背教를 얻어내기 위해 애원과 위협을 비롯해 온갖 노력을 다 하였고, 여기저기서 영광스러운 信仰告白도 있었지만 또한 개탄스러운 變節도 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天主教의 主動者이자 우두머리로 특히 李承薰 베드로와 李檠과 丁若銓, 鄭若鏞 형제를 지목하고 있었고, 도처에서 위협

적인 言辭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이 세 집안에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부분의 가족들은 겁을 냈다. 그리고 이 敎人들의 熱誠을 멈추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信仰實踐을 그치게 하고자 온갖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였고, 불행하게도 훌륭한, 또는 적어도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李承薰의 동생 致薰은 天主教에 대해 격렬한 증오심을 드러내면서, 형으로 하여금 天主教에 싫증을 느끼게 하고 결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였다. 결국 李承薰은 더이상 견딜 수 없어 모든 종교서적을 불태우고, 萬人 앞에 자신을 변명하는 글을 써서 사람들을 만족시켰다.

李櫟의 아버지는 天性이 激情的인 사람으로, 天主教에 連累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었는데, 天主教에 깊이 빠진 듯이 보이는 자기 아들의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종교적 心性을 뿌리뽑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자기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자 자살하기 위해 목을 매달기에 이르렀다. 櫟은 그러한 광경에 無感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굴복한 상태는 아니었다. 天主教人이라고 부르기도 不當한 어떤 敎人 하나가 그에게 찾아와, 그가 느끼고 있는 듯 보이던 動搖를 完結시키려고 하였다. 그는 櫟을 背敎시키는 데 성공하기 위해 가능한 온갖 수단을 다 썼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術數를 다 동원하였다. 櫟은 지치고, 그토록 시달림을 받아 정신이 昏迷해졌어도 공개적으로 背敎를 선언하지는 않았으며, 자기 앞에 놓여있는 모든 불행을 물리치기 위하여 婉曲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오호라!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가 잃지 않고 간직한 신앙심은 그의 가슴속에서 자연적인 人情에 끊임없이 공격을 가했다. 한 편에는 하느님 아버지가 계셨고 다른 한 편에는 친아버지가 계셨다. 어찌 天主를 否認하겠는가? 어찌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겠는가? 이러한 끊임없는 싸움은 그를 筆舌로 묘사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서글프고 우울해졌으며 말이

없어졌다.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시간마다 신음소리가 들렸다. 衣冠도 더 이상 벗지 않았고, 잠은 눈에서 멀리 달아나 버렸다. 아직은 가끔 음식에 손을 대기는 했지만, 입맛을 완전히 잃었으므로, 아무 맛도 없고, 몸을 위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치열한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불행하게도 本性이 우세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차츰 悔恨과 마음의 동요가 가라앉았고, 은총의 마지막 노력이 간신히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평소의 건강상태로 되돌아왔으며, 벼슬에 대한 욕심이 되살아났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그에게는 아무 것도 시도해볼 시간이 없었다. 1786년(丙午年) 봄 당시 유행하던 黑死病(중국인들 말로 疫病)에 걸렸고, 8, 9일 후, 그가 땀을 흘리기 시작하자 간호하던 사람들이 여러 겹의 이불로 덮었는데, 이 무거운 이불 밑에서 숨이 막히는데다가 땀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였으므로, 온갖 간호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른셋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다. 敎友들이 찾아가 悔改를 권하고 天主 앞에 나아갈 준비를 시킬 수 있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러나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 열의와 열성과 재능으로 이 나라에서 天主教에 문을 열었던 이 사람은 이처럼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스러졌다. 그는 뛰어난 資質과 부정할 수 없는 德性을 지녔지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는 救世主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이런 죄악의 돌에 걸려 넘어져서, 그가 일하던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볼 때 매우 슬픈, 그리고 그에 대해 자주 존경심을 가졌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최후를 보여주었는데 (그러나 우리 聖敎가 200여 년 전부터 서적을 통해서만 소개되고, 聖敎를 부각시키고 더 자세히 알려줄 사람이 아직 없던 상황에서, 우리 聖敎에 대한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은 영광을 얻은 것으로 그의 이름은 길이 남을 것이다.), 이는 그 어떤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이

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 작은 양떼의 신앙은 잠시 흔들리기는 했어도 아주 꺼져버린 것은 아니었다. 天主敎會가 한 편으로는 몇몇 구성원의 變節로 인해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지만, 다른 한 편으로 壓制者들의 迫害보다 때로 더 견디기 힘든 집안 迫害 가운데에서도 대부분 敎人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또 날마다 여기저기서 새로 入敎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으로 위안을 받았다. 天主敎에 대한 이 첫 번째 시위가 전반적인 열의를 많이 가라앉힌 듯 보이지는 않으며, 前進은 계속되었다. (이하 생략)

- 김형래 교수 초역 -

Mgr. Daveluy

vol. 4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

Copie des écrits de Mgr. Daveluy

Plan de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

Titre: l'Extrême Orient ou les témoins du Seigneur au 19e siècle dans le royaume de Corée (ou bien tout titre quelconque)

Le titre n'est pas encore choisi. L'épigraphe du livre est Crux de Cruce. La croix se plante par la croix. En tête doit être placée la tirade en grand: Justorum animæ in manu Dei sunt, etc.... puis de St. Paul aux Hébr. XI, 39: alii distenti sunt, etc. L'ép. dédicatoire est au Cardinal Préfet de la Propagande. Dans une introduction ou chapitre

préliminaire, il faut mettre l'histoire de quelques chrétiens coréens du temps de la guerre du Japon, rapporter l'introduction des livres chrétiens en Corée et finir par quelques mots de la vie de hong iou hani, le premier qui ait pratiqué dans ses derniers temps et mort probablement sans baptême et avant **les grandes conférences de Ni Pieki.**

L'histoire des chrétiens du temps de la guerre du Japon n'est pas ici, il faut en chercher des lambeaux dans les histoires ecclésiastiques en France. Les chrétiens d'ici prétendent tenir de Mgr. Imbert qu'il y eut alors un Coréen élevé au sous-diaconat ou diaconat. Il faut chercher d'où vient cette tradition. L'introduction des livres chrétiens en Corée est très obscure, je n'ai pu en trouver que peu de chose et n'aurai de ressource que dans les écrits anciens de quelques familles payennes; par conséquent ce sera long, peut-être même ce travail ne pourra se faire un peu bien qu'avec la liberté, étant impossible d'emprunter maintenant beaucoup de manuscrits aux payens. **L'histoire proprement dite commence aux conférences de Ni Pieki**, nous en avons la suite à vue de clocher, et nous pensons que les lacunes ne seront jamais comblées, toutefois si on veut continuer les recherches, peu à peu on gagnera quelque chose. Il n'y a plus qu'à puiser dans les manuscrits qu'ont certain nombre de grandes maisons et surtout dans les archives des tribunaux criminels.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거행된 한국순교복자 103위의 시성식 광경. 당시 언론과 보도기관에서는 100만여명으로 보도하였으나, 필자는 55만명~60여만명으로, 내한

한 성청 인사들에게 보고 하였었다.

(Sua Santità Giovanni Paolo II aveva concelebrato la messa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 con molti Cardinali, Arcivescovi, Vescovi, sacerdoti e fedeli cattolici - circa 500.000 - a Seoul il 6 maggio 1984. Per quella canonizzazione, il Rev. Byon, rettore di Chon Jin Am, il luogo natale della Chiesa, aveva servito per 5 anni (1980~1984) come segretario esecutivo generale della commissione episcopale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Photos by Baeck-Nam-Shick)(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제 429번 참조).

Ces deux sources nous sont presque fermées pour le moment. C'est à grand peine que de loin en loin on peut en attraper quelque petite partie, mais si un jour la religion devenait permise, nous pensons qu'il y aurait alors de grands fruits à espérer de recherches intelligentes et constantes, recherches réservées sans doute à nos successeurs par la Providence. On nous a pressé à beaucoup de mêler à l'histoire des martyrs, des documents sur l'histoire et les mœurs de ce pays. Nous avouons notre ignorance sur ce point qui demanderait des travaux à part que nous n'avons ni le temps ni les moyens d'exécuter. Les mœurs d'un pays s'apprennent par l'oreille et par les yeux. Or notre position de proscrit dans ce pays et les travaux sans cesse pressé du ministère ne nous permettons pas d'user de ces deux sens. Nous ne pouvons voir presque rien par nous mêmes, cloîtrés comme nous le sommes, nos relations ne sont presque jamais avec les gens instruits qui pourraient nous mettre

au courant des usages et coutumes et en outre nos relations même avec le peuple pratiquant sont toujours en passant et comme à la dérobée. Quel espoir avec cela de se former une idée nette et précise sur un pays? On a beaucoup écrit et anciennement et récemment sur la Chine et pays voisins. Chacun, nous n'en doutons pas, a dû le faire et de bonne foi et après recherches. Toutefois il faut avouer que mille et mille choses ont été peintes sous des couleurs fausses, reconnues en partie aujourd'hui. La crainte de tomber nous mêmes dans les mêmes défauts nous impose une grande réserve et nous fait trembler de dire un mot sur ces matières. On pourrait, si on le désire, faire précéder l'histoire de quelques mots sur ses anciennes dynasties et divisions, puis sur son organisation actuelle civile et militaire. Les quelques pages que nous avons traduites sur la suite des rois et le tableau des différents mandarins ou préfets, pourraient au besoin fournir quelque chose, mais bien sec et bien fade. Pour les quelques détails sur les moeurs, couchés par nous sur le papier à bride à battue, nous n'osons parler d'en faire usage, pour ne pas nous compromettre.

L'histoire des martyrs finirait par quelques lignes de récapitulation et ses derniers mots devraient être, *te matyrum candidatus laudat exercitus*, qui en sont le livre résumé.

On lit dans un livre de documents curieux qu'en l'année Sin-mi 1631, l'ambassadeur Tsieng tou-oueni vit à Péking l'Européen nommé Niouk Jean âgé de 97 ans et encore en parfaite santé, il semblait être, dit-il, un des bienheureux sin sien (les bienheureux immortels de la secte Laotse).

Ce doit être un des compagnons du P. Ricci. Il en reçut beaucoup de livres de science faits par les Européens et aussi des objets curieux, tels que pistolets, lunette d'approche, pendules, etc.

Ni Siou, surnommé Sin poug, un des ancêtres du martyr Ni Charles et un des plus fameux savants qu'ait eu la Corée, parle dans ses écrits de l'ouvrage du P. Ricci, intitulé tien tsou sir ei (véritables principes sur Dieu). Il en donne l'analyse, et parle aussi de la constitution de l'Eglise sous la direction du Souv. Pontife.

L'ambassadeur Ni i mieng i, en l'année Kieng-tsa 1720, vit aussi à Péking plusieurs des missionnaires et parle de la religion. Il dit que notre manière de vouloir se reformer le coeur pour servir Dieu, est assez semblable à celles de la religion des lettrés et qu'il ne faut pas placer notre religion au rang de la secte de Laotse; puis il compare l'Incarnation aux doctrines de Foë.

Ni ik i, surnommé Seng-ho, grand-oncle de Ni Kahoani, parle aussi de la religion dans ses écrits et dit que le Dieu des chrétiens n'est pas autre que le Siang-tiei des lettrés (le xam-ti des Chinois), et que le paradis et l'enfer sont empruntés de la doctrine de Foë. Il parle aussi du livre des sept vertus pour vaincre les sept péchés capitaux. Dans des mémoires de cette m^ee famille il est dit que les premiers livres de religion furent apportés avec télescopes et autres objets curieux par une ambassade qui allant au Japon rencontra les Européens dans une He et les recût d'eux.

Tieng Jean, dit iak-iong, dit que la religion était connue en Corée près de 200 ans avant **les conférences de Ni**

Pieki.

Vie de Hong iou-han i, appelé aussi Sa riang I

Il naquit en 1735 ou 36, branche de Poung-san; ses ancêtres avaient rempli des charges importantes et sa famille assez distinguée; dans son enfance il prit les leçons du fameux Ni iki et y apprit à se régler la conduite. Vers 1770, ayant rencontré quelques livres de religion, il en jouit lecture avec joie, laissa de suite ses livres d'étude et s'adonna à la pratique de la religion. Toutefois il n'avait pas les livres de prières et trop peu instruit des règles de l'Eglise, il avait vu seulement que les fêtes se succédaient de 7 jours en 7 jours et dès lors les 7, 14, 21 et 28 du mois, il ne se mêlait pas aux affaires du siècle et donnait tous ses soins à la prière et oraison. Ne connaissant pas non plus les jours d'abstinence, il s'abstenait toujours de prendre ce qu'il y avait de mieux sur la table, et si on lui demandait pourquoi, il répondait: Toute nourriture est bonne à manger, mais le cœur et les yeux se portent toujours sur ce qu'il y a de mieux; la cupidité étant mauvaise je cherche à la dompter.

Un jour il allait quelque part à cheval, voyant un vieillard lourdement chargé et fatigué par des chemins boueux, il en a compassion, descend de cheval, le force à y monter, y met aussi sa charge et marche à pied par ce chemin boueux, et quoique ses bas et autres habits en fussent tout mouillés, il n'avait aucun air de difficulté. Ayant vendu un champ, ce champ fut, deux mois après, ruiné un éboulement des montagnes; il n'est pas juste, dit-il, que les autres souffrent pour le malheur de mon

champ et il en renvoya tout le prix. L'acheteur refusait de le recevoir, mais il fit tant qu'il le força à l'accepter.

Par un hiver très froid, il était seul dans son appartement, mais voyant un jour une esclave souffrant beaucoup du froid il la fit coucher dans sa chambre, sans que pour cela son épouse ni le mari de l'esclave en conçussent aucun soupçon, tant il passait pour sévère et intègre dans ses moeurs.

Habitant d'abord à Niei san, il émigra à Sioung-heung et vécut 13 ans retiré dans les montagnes de Paik san. Là séparé du monde, il se livrait obscurément à ses exercices religieux. Il retourna ensuite à Niei san et y mourut.

* * *

(Les documents dans lesquels nous avons puisé la plupart des faits relatifs aux origines de la religion en Corée ont été réunis **par Tieng Jak iong dont il est parlé souvent. Il fut nommé Jean au baptême.** Il eut part à presque toutes les affaires de la religion ab initio et était parent ou ami de presque tous les principaux chefs. Homme distingué dans les lettres et les charges publiques, il eut la faiblesse d'abandonner la Religion, ce qui ne lui évita pas l'exil en 1801. Gracié plusieurs années après, il pratiqua avec ferveur, se livra longtemps à tous les exercices de la piété et d'une grande mortification exemplaire et mourut fort chrétiennement. Il a laissé en outre quelques écrits religieux. Nous n'avons fait que copier et relier ces notes malheureusement trop brièves, mais fort bien écrites.)

L'instrument dont Dieu se servit pour donner le premier branle à la Religion dans le royaume de Corée fut Ni Pieki

appelé Tektso et surnommé par lui-même Koang am. Pieki descendait de la famille des Ni des Kieng Tsiou et parmi ses ancêtres qui étaient déjà dans les dignités sous la dynastie Korie on comptait plusieurs membres distingués dans les lettres et par les dignités civiles qu'ils avaient obtenues. Depuis trois générations cette famille s'était livré aux exercices militaires et avait occupé des charges importantes dans cette nouvelle carrière. **Pieki naquit doué de mille belles qualités du corps et de l'esprit.** Dès l'enfance son père voulut l'appliquer aux exercices de l'arc, de l'équitation et autres qui puissent lui faire obtenir les degrés militaires; mais celui-ci s'y refusa constamment au point de dire que dut-il mourir il ne s'y livrerait pas. De là il perdit en partie l'affection de son père qui l'appela Pieki voulant par là désigner son caractère trop attaché à ses idées. En grandissant Pieki devint d'une force et d'une stature énorme. Il avait une taille de huit pieds(1) et d'une seule main pouvait enlever cent livres. Large et bien fait, son extérieur était imposant et attirait naturellement tous les regards. Ses talents ne le cédaient pas à un extérieur si avantageux. **Sa facilité de parole pouvait se comparer à l'écoulement majestueux d'un fleuve** et doué d'une intelligence supérieure en tout il ne cherchait que la raison des choses et les vrais fondements de la doctrine. Partout il s'occupait à pénétrer le fond des choses et dans l'études des livres sacrés du pays, dès sa jeunesse, il s'efforçait d'en saisir les sens profonds.

De si heureuses dispositions lui permettaient personnellement un avenir brillant. Il se livra de bonne heure à l'étude des livres des plus fameux docteurs de ce

temps et pour assurer le succès de ses travaux il chercha à se lier avec tous les gens instruits qui voulaient l'aider et le diriger dans la science. Se souciant peu des usages et de l'étiquette, il avait quelque chose de grand et élevé, mais aimait les paroles plaisantes, il n'eut jamais la noble dignité qui distingue les docteurs de profession(hak tsia). Tel nous est représenté Pieki par les documents du temps.

C'était en l'année 1777(tieng iou). Le fameux docteur Kouen T'siel sini, accompagné de Tieng Jak Tsieni et plusieurs autres nobles studieux et amateurs de la science, se rendit dans une pagode pour s'y livrer ensemble à des études profondes. Ni Pieki l'ayant appris en fut rempli de joie et heureux de pouvoir profiter des leçons de ces hommes remarquables il prend de suite son parti d'aller les trouver. C'était l'hiver. La neige couvrait partout les routes et la distance était de plus de cent lys: mais de pareils obstacles étaient loin de pouvoir arrêter ce cœur ardent et si avide de la science et de la sagesse. Il part de suite et à travers **ces chemins difficiles et ardu**s il ne sent pas la fatigue. Le jour tombant ne peut le déterminer à retarder la réalisation de ses désirs et continuant sa route de nuit il parvient enfin à une pagode vers minuit. Quel n'est pas son désappointement en apprenant **qu'il s'est trompé de pagode** et qu'il fallait aller de l'autre côté de la montagne. Sans se décourager il pousse sa pointe. C'est une énorme montagne qu'il faut franchir de nuit. Elle est couverte de monceaux de neige et des tigres nombreux en défendent les abords. N'importe! Pieki fait lever tous les bonzes et se fait accompagner par eux. A la main il prend un bâton ferré pour se défendre des

attaques des sauvages ennemis et poursuivant sa route à travers les épaisses ténèbres, il arriva enfin au lieu si désiré.

Une arrivée si étrange répandit la frayeur parmi les habitants de **cet édifice isolé et perdu dans le sein des montagnes.**

On ne pouvait se figurer quel motif amener à une heure si indue des hôtes si nombreux; mais bientôt tout s'étant éclairci, la joie le bonheur succédèrent à la crainte et dans les épanchements suggérés par une rencontre si heureuse on s'aperçut à peine que déjà le jour avait point. **Pendant plus de dix jours que dura cette réunion,** on approfondit toutes les questions sur le ciel, le monde, la nature humaine etc., tous les doutes et les opinions des anciens furent mis sur le tapis. De là on étudia les livres de morale des grands hommes; puis on en vint à examiner quelques livres philosophiques et mathématiques composés en chinois par les Européens, et on mit tout le soin possible à les approfondir. Enfin les études et conférences se portèrent sur quelques livres élémentaires (D'où venaient ces livres?) du christianisme. On ne sait au juste d'où ces livres étaient venus. Ils avaient seulement alors entre les mains quelques traités sur l'existence et la providence de Dieu, sur la spiritualité et l'immortalité de l'âme et sur la manière de régler ses mœurs en combattant les sept vices capitaux par les vertus contraires. Accoutumés aux doctrines obscures et confuses des livres chinois, ces hommes droits désireux de la vérité n'eurent pas plutôt examiné les fondements de notre Sainte Religion qu'ils entrevirent tout ce qu'il y a de

grand, de beau et de palpable dans cette doctrine; et sans pouvoir l'approfondir davantage, faute de livres, leurs cœurs furent aussitôt émus et leurs yeux s'ouvrirent à la Foi. Tant il est vrai que la vérité porte toujours avec soi son cachet. Sa lumière brille toujours aux yeux de tous ceux qui la cherchent et tout cœur droit ne peut rester insensible aux impressions qu'elle dépose comme un germe de bonheur. (Qu'il est beau et consolant de voir ces hommes qui dans leur pays marchaient à la tête de la science, parvenus à la connaissance de la vérité(1)) **Voilà donc nos amateurs de la sagesse imbus de la Religion et subjugués par l'évidence de ses fondements. Ils eussent désiré se mettre de suite à la pratique de toutes ses règles: mais les livres qu'ils avaient entre les mains ne suffisant pas pour les diriger, ils durent se contenter de se prosterner tous les jours matin et soir pour se livrer à la méditation. Puis ayant vu quelque part qu'il y avait de sept en sept jours un jour consacré au Seigneur, tous les 7, 14, 21, 28 du mois ils cessaient toute affaire du monde pour penser aux exercices de l'âme et y faisaient abstinence.** On ignore combien de temps ils continuèrent ces exercices, mais ils les faisaient dans le plus grand secret sans en parler à aucun autre et il est probable par la suite des faits que la plupart du moins n'y furent longtemps exacts.

Le cœur ardent de Pieki avait reçu un germe fécond. Il sentait combien ce commencement était peu de chose, et toutes ses pensées et toutes ses vues se portaient vers la Chine où il espérait trouver les livres nécessaires pour compléter l'œuvre commencée. Plusieurs années se

passèrent dans cette anxiété et les efforts qu'il fit pour parvenir à son but ne nous sont pas parvenus. Au commencement de l'été 1783, 15 de la 4ème lune tricio, après avoir été à Matsai dans la famille Tieng, pour l'anniversaire de la mort de sa sœur, il monta sur un bateau avec les deux frères Tieng, Jak tsion et Jak iong pour se rendre à la capitale. **Pendant le trajet les conversations et études philosophiques** furent encore leur occupation. Après avoir étudié quelques livres du pays, les esprits se portèrent sur la doctrine des Européens. Ils discutèrent au long et en détail des dogmes de la création du ciel, de la terre et de l'homme, puis de la spiritualité et de l'immortalité de l'âme et des peines et récompenses dans le ciel et l'enfer au siècle futur. Tous convinrent de la vérité de ces dogmes et y ajoutaient foi, et tous les passagers qui entendaient pour la première fois ces vérités si belles et si consolantes en étaient tout hors d'eux-mêmes et saisis de joie. Il n'est pas douteux que de pareilles conférences ne se soient renouvelées souvent vers ces époques, et l'ardeur bouillante de Piekhi ne sera pas restée dans le repos, mais les détails ne nous en sont pas parvenus. (Ce qui est certain, c'est qu'alors la plupart des gens instruits avaient vu ou entendu parler des livres de science des Européens, et souvent aussi des quelques livres de Religion qui étaient dans le royaume. C'était à la mode de s'en occuper et on remarque que dans les compositions littéraires que chaque année lors de l'ambassade à Péking les Coréens échangeant avec les Chinois on faisait souvent allusion à ces nouvelles sciences. On peut juger par là de la publicité qu'eurent ces

premières notions du christianisme, mais les livres alors existant ne donnaient pas la religion en détails.)

Dieu qui n'abandonne jamais ceux qui le cherchent dans la sincérité de leur cœur avait fixé cette année pour permettre la réalisation des vœux de quelques âmes droites. Ce même hiver 1783 Ni Tong ouki fut nommé troisième ambassadeur à la cour de Péking, et son fils Sieng houni devait l'y suivre. C'est ici le lieu de faire connaître cet homme remarquable qui pendant quelques années va jouer un rôle si important dans cette histoire. Ni Sieng houni appelé aussi Tsa siouri était de la noble famille des Ni de Pieng t'sang. Ses ancêtres remplirent souvent des charges assez importantes parmi les mandarins civils et sa maison jouissait d'une haute réputation. Il naquit en 1756(année Pieng tsa). Dès l'âge de dix ans il passait pour capable dans les lettres et à peine fut-il arrivé à 19 ou 20 qu'il avait dans tout le royaume la réputation de lettré distingué. Voulant marcher sur les traces des saints de ce pays, il se lia avec ce qu'il y avait de plus distingué par la science et la conduite et s'appliquait autant à régler ses mœurs qu'à se perfectionner dans les lettres. Il fit aussi connaissance avec Ni Pieki, et toutefois la diversité de leurs goûts, caractères et études ne leur permit pas de vivre dans l'intimité. A l'âge de 25 ans en l'année 1780(kieng tsa) il obtint le premier degré de bachelier appelé Tsin sa, et de toute part les regards se portaient sur lui. Ni Pieki ayant appris que Sieng houni devait suivre son père à l'ambassade de Péking fut comblé de joie et alla de suite le trouver.

Voici d'après les monuments de l'époque le discours remarquable qu'il lui tint: "Ton voyage à Péking est une occasion admirable que le Ciel nous fournit de connaître la vraie doctrine. La doctrine des saints, du service de l'Empereur Suprême Créateur de toutes choses est au plus haut degré chez les Européens. Sans cette doctrine nous ne pouvons rien. Sans elle on ne peut se régler le cœur et le caractère. Sans elle nous ne pouvons approfondir les principes des choses. Sans elle comment connaître les différents devoirs des rois et du peuple? Sans elle point de règle fondamentale de la vie; sans elle la création du ciel et de la terre, l'ordre physique des astres, leurs cours et révolutions régulières, l'ordre des pôles, etc. ne nous sont pas connus. La distinction des bons et mauvais esprits, l'origine et la fin de ce monde, l'union de l'esprit et du corps, la raison du bien et du mal, l'Incarnation du fils de Dieu pour la rémission des péchés, la récompense des bons dans le ciel et la punition des méchants dans l'enfer, etc. etc. etc. Sans la doctrine des Européens tout cela nous reste entièrement inconnu." A ces mots Seng houni qui n'avait pas encore vu les livres de religion fut ému de surprise et d'admiration. Il demande à voir quelqu'un de ces livres et ayant parcouru les traités de l'existence et des attributs de Dieu et le livre des sept vices capitaux combattus par sept vertus contraires, il fut ravi de bonheur et ne possédant pas de joie il demande à Pieki ce qu'il y avait à faire. Pieki continue en lui disant: "Puisque tu vas à Péking, c'est une marque que le Dieu Suprême a pitié de notre pays et veut le sauver. En descendant de voiture va de suite au temple du maître du

Ciel, confère avec les docteurs européens, interroge-les sur tout, approfondis avec eux la doctrine, informe-toi en détails de toute la pratique de la Religion et apporte-nous les livres nécessaires. Va, la grande affaire de la vie et de la mort, la grande affaire de l'Eternité est entre tes mains. Va et surtout n'agis pas légèrement." Seng houni écouta d'un air soumis ces paroles de Piekî qui le pénétraient profondément et les recevant **comme la parole du Maître**, il promit de faire tous ses efforts pour réaliser leurs communs désirs. En considérant le discours de Piekî il est facile de voir qu'il était également altéré de la soif des sciences et de la Religion, et le peu de mots qu'il prononça montrent que son intelligence avait déjà compris la Religion comme la base du monde et des sociétés. On voit que cette grande affaire était devenue pour lui la seule, l'unique nécessaire. C'est aussi que la grâce préparait déjà cet homme à la grande œuvre qu'il allait bientôt commencer en propageant le premier la semence de la Religion.

Seng houni partit donc pour Péking. Arrivé là il se rendit à l'église du midi et fut reçu par l'évêque Tong (c'est Mgr. Alexandre Govéa, du Tiers Ordre de St. François qui a tant travaillé à rassurer le diocèse de Péking à l'observation des décrets du St. Siège, pour ce qui regarde les rites chinois. Il était intimement lié avec le célèbre évêque de Caradre de St. Martin qu'il avait connu lors de sa captivité à Péking. Mgr Govéa en chinois Thong a été l'un des plus doctes et des plus grands évêques dont ait pu se glorifier la Chine, il était Portugais de nation) Alexandre ou Alexis auquel il demanda à s'instruire. Il

trouva aussi là l'Européen Sak(So) Tektso âgé de plus de 90 ans encore plein de santé et d'un extérieur très affable, de plus un jeune homme nommé Niang. Dans les 4 églises se trouvaient environ de 50 à 60 personnes. Appliqué à s'instruire à fond de la religion il put pendant le séjour qu'il fit à Péking se mettre en état de recevoir le baptême qui lui fut conféré par le Père Niang (probablement) et comme il fut le premier Coréen baptisé et disposé à répandre la religion parmi ses compatriotes, il fut appelé Pierre comme se trouvant de fait la pierre fondamentale de l'Eglise Coréenne. C'était probablement au commencement de l'année 1784. A son départ on lui donna beaucoup de livres, croix, images, etc et même quelques objets curieux qui plus tard furent envoyés au palais. Au printemps de 1784(kaptsin) Seng houni rentra à la capitale avec tous ces objets. Il n'eut rien de plus pressé que d'envoyer à Pieki des livres, croix, images, etc. Celui-ci trépignait d'impatience et comptait les jours. A peine eut-il reçu ces livres qu'il emprunta une maison et s'y referma pour s'adonner entièrement à cette étude. C'était une eau de fontaine pour un gosier altéré. Il fut là quelque temps tout absorbé à chercher et à approfondir la vérité dont son âme avait littéralement faim et soif.

Tout autre pensée fut rejetée au loin et il semblait qu'une nouvelle vie toute spirituelle pénétrait toutes les parties de son être. Il avait entre les mains de nouvelles preuves de la Religion et des réfutations de culte superstitieux, des explications des sept sacrements, des catéchismes, l'explication des Evangiles de l'année, les vies des Saints pour chaque jour et des livres de prières

assez complets. Avec cela il pouvait à peu près voir la Religion dans son ensemble et dans le détail; et ses pensées ne tendaient à rien moins qu'à la régénération complète de tout le royaume. Après un certain temps d'études il rencontra Seng houni et les deux frères Tieng Jak tsien et Jak iong et leur dit aussitôt: c'est vraiment une grande doctrine. C'est là la vraie voie. Le grand Dieu du ciel a pitié des millions d'hommes de notre pays et veut les faire participer largement au bienfait de la Rédemption du monde. C'est l'ordre de Dieu. Nous ne pouvons ne pas y répondre. Il faut répandre en grand la religion et évangéliser tout le monde. Ne dirait-on pas un nouveau Pierre l'hermite prêchant une sainte croisade et voulant enrôler tout le monde sous les étendards de la Croix?

De ce pas il se rend chez quelques-uns de ses amis, hommes de la classe moyenne, mais tous distingués par leurs connaissances et leur conduite. Il les prêche aussi que leurs amis et un grand nombre se rendirent presque de suite à sa parole vive et pénétrante. C'étaient entre autres T'soi t'sang hieni, T'soi in kiri, Kim tsong kio etc. De là Pieki porta la bonne nouvelle de différents côtés avec passablement de succès; et fidèle à sa mission il ne se donnait pas de relâche.

Bientôt le bruit de la nouvelle Religion se répandit de tous côtés et comme toutes les grandes œuvres, elle ne manqua pas de rencontrer des contradicteurs. Les nobles et les lettrés l'embrassaient, il est vrai, en grand nombre, mais beaucoup d'autres, attachés ou même entichés de la Religion des lettrés virent bien que la nouvelle doctrine

allait leur enlever bien du monde et craignirent même de voir saper par là les fondements de leur croyance. Quelques-uns aussi purent avec des vues d'abord droites s'efforcer d'empêcher l'introduction de ce que la nouveauté pouvait au premier abord faire considérer comme des rêveries superstitieuses qui entraîneraient dans une mauvaise voie. D'ailleurs l'ennemi de tout bien prévoyant les désertions et les vides que la vérité allait faire dans son parti ne pouvait d'un œil tranquille voir la propagation du culte de son vainqueur; et il mit en effet tout en œuvre pour s'opposer au règne de Jésus crucifié. Ni Kahoani descendant d'une des familles les plus distingués du royaume, et illustre à cette époque par plusieurs fameux docteurs, était lui-même un homme supérieur. Encore jeune il avait une réputation universelle de savoir et se voyait déjà entouré d'applaudissements et de respects. Apprenant la rapide propagation de la religion dans toutes les classes, il dit: c'est ici une très grande affaire. Quoique cette doctrine étrangère ne paraisse pas déraisonnable, ce n'est pas notre doctrine des lettrés; et puisque Piekî veut par là changer le monde je ne puis rester immobile. J'irai donc et le ramènerai dans la bonne voie. On fixa le jour de la conférence et Ka hoani se rendant chez Piekî, inutile de dire quelle foule de curieux et d'amis de chaque parti durent se réunir pour assister à cette solennelle discussion. Kahoani essaya tout d'abord de faire revenir Piekî de ce qu'il appelait ses erreurs et se croyait sûr de la victoire; mais chaque parole du docteur fut de suite relevée par Piekî qui réfutait chacune de ses assertions article par article et le poursuivant jusque dans

les plus petits détails détruisait et réduisait en poudre tout l'édifice des raisonnements que le docte payen s'épuisait en vain à vouloir relever. Sa parole claire et lucide mettait le jour partout. D'une part toujours d'accord avec lui-même et conforme à la raison, de l'autre il ne cessait de conforter ses preuves et de les faire ressortir de plus en plus. Sa lucidité à renverser toutes les raisons de son adversaire était brillante comme le soleil. Chacun de ses coups portait. Il frappait comme le vent et tranchait comme un instrument aigu. Les nombreux spectateurs jouirent alors d'un spectacle peu commun. C'était en quelque sorte le coryphée de la vieille école des ténébreuses doctrines chinoises aux prises avec un modeste défenseur de la vérité catholique (lumière évangélique). On pouvait contempler ces deux grands champions se livrant tour à tour aux divers exercices d'une lutte acharnée et mettant à profit toutes les ressources de l'art et du génie. Mais l'un toujours droit, colonne de vérité ne courbe pas un instant, tandis que l'autre malgré toute sa souplesse se laissant percer au défaut de l'armure tombait sans cesse et ne se relevait un peu que pour tomber encore. A cette vue les incrédules frémissaient sourdement, mais les cœurs fidèles palpitaient de joie et tressaillaient de bonheur. La foi restait triomphante sur ce théâtre éminent, se fortifiait chez les néophytes et prenait racine dans les âmes droites et sincères. Une journée ne suffit pas toutefois pour faire rendre les armes au terrible adversaire que Pieki avait en tête. Les discussions reprises coup sur coup durèrent pendant trois jours et eurent pour résultat de faire voir

plus en grand la beauté, l'étendue et la solidité de ce que l'on appelait nouvelle doctrine. Après ce temps Kahoani fatigué, vaincu, abbatu, n'ayant plus aucun subterfuge à mettre en avant dit ces mémorables paroles: cette doctrine est magnifique, elle est vraie, mais elle attirera des malheurs à ses partisans; que faire? Il se retira et depuis cette époque il ne se représenta plus, n'ouvrit plus la bouche et ne s'en occupa aucunement. Tout l'avantage, toute la gloire de cette célèbre conférence restait donc à Pieki. La vérité triomphait et le bruit ne manqua pas de s'en divulguer au loin et amena de toutes parts de nouveaux adeptes. Mais voici un nouvel adversaire qui apprenant les progrès de la foi et les résultats de la fameuse conférence voulut aussi entendre par lui-même les fondements de cette Religion et entra en lice avec ses défenseurs. C'est Ni Kei iangi non moins remarquable par la haute position de sa famille que par la vaste érudition qui le distinguait à cette époque. Pieki fort de la vérité qui le soutenait plus encore que de ses premiers succès n'était pas homme à éviter la rencontre et accepta volontiers la discussion. Il développa devant son docte adversaire la raison du Ciel et de la terre, le bel ordre du monde et de toutes les parties qu'il renferme, l'accord des quatre éléments et les divers fondements de la Providence. Il lui expliqua la doctrine de l'âme de l'homme avec ses différentes facultés, l'admirable correspondance des peines et des récompenses dans l'autre vie avec les actes de chacun pendant sa vie, et lui fit en un mot, toucher au doigt la vérité et l'évidence de la Religion Chrétienne appuyée sur des principes solides et

inattaquables. Kei iangi ne put soutenir la discussion et n'osait plus ouvrir la bouche. Il semblait croire au fond du cœur mais ne pouvait prendre son parti pour l'avouer franchement et se mettre à la pratique. Aussi quand il se fut retiré Pieki dit en parlant de ces deux savants: Ces deux Ni n'ont rien à répondre et ne peuvent soutenir la discussion; mais n'ayant aucun désir de pratiquer on ne peut se fier sur eux. Il n'y a rien à espérer.

Cependant Pieki voyait croître de jour en jour le nombre des croyants. Il pouvait espérer voir sous peu une propagation rapide de l'Evangile, mais il songeait toujours pour assurer l'extension et la durée de cette sainte œuvre à lui donner pour fondement quelques personnages dont la science et la réputation pussent imposer le respect et captiver les opinions. Ne comptant plus sur ceux dont nous avons parlé plus haut, il jeta les yeux sur une famille de Jang Keun qui déjà avait reçu les premières lueurs de la foi, mais qui semblait depuis ce temps n'y plus penser. Il s'agit de la famille des Kouen dont il a été parlé au commencement de cette histoire. La famille des Kouen était dans les hautes dignités du royaume dès la dynastie Korie. Au changement de dynastie elle fut comptée tout d'abord au nombre des plus fidèles maisons qui s'attachèrent au nouveau roi et depuis cette époque compta toujours des hommes remarquables soit dans les lettres soit dans les charges qu'ils remplirent avec distinction. Or à cette époque Kouen T'siel sini surnommé Nok am se trouvait l'aîné de cinq frères tous renommés par leur science et leur belle conduite. Il avait la réputation d'un des plus grands docteurs du siècle, et son

troisième frère Il sini surnommé Tsik am passait aussi pour un homme supérieur. Cette famille avait, outre beaucoup de parents distingués, une grande quantité de disciples qui venaient de toutes les parties du royaume sucer auprès d'eux le lait de la science et de la vertu. Pieki pensa donc qu'il fallait travailler à les enrôler sous les drapeaux du Christ pour en faire ensuite la racine et la base de la Religion dans ce pays.

A la 9e lune de cette même Kaptsin 1784 il se rendit donc à cheval dans cette maison à Kam san district de Jang Keun. Dès son arrivée on se mit à examiner à fond et à discuter en grand de toute la Religion; et bientôt la vérité parut dans tout son jour. L'aîné T'siel sini nommé plus tard Ambroise au baptême était un homme d'environ 50 ans qui avait passé sa vie à approfondir la philosophie et la morale des livres sacrés des Chinois. Sans résister à la lumière de l'Evangile, il ne put se décider à quitter en un instant tout le fruit de ses immenses travaux qui avaient fait sa réputation, et pour le moment Pieki ne trouva pas d'entrain chez lui. Ce ne fut qu'un peu après qu'il se détermina à la pratique, et après avoir une fois commencé il brilla par une foi constante et une conduite remarquable qui lui méritèrent sa couronne comme nous le verrons plus tard. Mais son frère Il sini embrassa tout d'abord la Religion avec une ferveur remarquable jointe à un zèle éclairé qui lui fit remplir entièrement les vues que Pieki s'était proposées en venant dans cette famille. En effet, à peine eut-il acquis la conviction de la vérité de la Religion qu'il se mit non seulement à pratiquer lui-même, mais il intruisit de suite les divers membres des sexes de

sa maison, et la communiqua aussi à ses amis et connaissances avec tout le succès que lui assurait l'autorité de son nom, de sa science et de sa conduite. Il y mit tant de zèle et d'empressement que le district de Jang Keun peut à juste titre être considéré comme le berceau de la Religion en Corée.

Ni Seng houni baptisé à Péking comme nous l'avons vu croyait conférer le baptême à ceux qui embrassaient la Religion, et c'est probablement vers cette époque qu'il baptisa Ni Pieki et Kouen Il sini, mais comme ces hommes distingués ne voulaient rien faire à demi, le choix même d'un nom de baptême se fit avec tact et réflexion. Considérant d'une part les idées élevées et la belle conduite de Pieki et de l'autre le rôle que son zèle lui avait fait embrasser en donnant partout le branle à l'étude de la Religion et préparant ainsi les voies à la venue du Sauveur dans ce royaume, on sembla voir quelque ressemblance fondée entre sa mission et celle du Saint précurseur et il fut décidé qu'il serait appelé Jean Baptiste au Baptême. Il sini ayant un cœur ardent joint à un esprit éclairé et voulant se consacrer à l'évangélisation en grand de ses compatriotes prit pour patron St. François Xavier dont la voix était retenti dans toutes les parties de l'Orient, afin d'en faire son modèle et de marcher sur ses traces. Et c'est sous ce nom que nous le désignerons désormais.

Ces trois hommes remarquables marchaient d'un pas également constant dans la noble voie qu'ils s'étaient tracée et ne manquaient pas l'occasion de faire briller la lumière de la foi aux yeux de ceux qu'ils espéraient

devoir l'embrasser. Jusqu'ici il n'y avait pas de prohibition de la part du gouvernement. Toutes les choses se traitaient librement, mais déjà il était facile de voir par les contradicteurs qui s'élevaient et par la connaissance de l'esprit de ce royaume que la vérité ne se répandrait pas sans combats et on pouvait même craindre toute espèce de violence. Quoiqu'il en soit chacun poursuivit son plan et la foi se répandit au loin. (Jusqu'ici les vrais pratiquants étaient surtout concentrés à la capitale et dans la province qui lui est adjointe, mais les temps marqués par la Providence étaient venus où cette lumière qui ne doit pas rester sous le boisseau devait être portée dans des régions plus lointaines et en ouvrant les yeux à tant de malheureux aveugles les amener souples et dociles aux pieds de leur Sauveur et Rédempteur.)

*

*

*

Kouen Xavier surtout eut ici un succès dont les suites furent immenses soit par ce qu'il fit lui-même, soit par les travaux de ses disciples. Il avait alors chez lui un jeune homme nommé Ni Tan oueni ou encore Tson T'siangi, appelé plus tard Louis de Gonzague au baptême.

Ni Louis était d'une famille honnête de cultivateurs habitant le village de Je sa ol de T'sien an, province de T'siong t'sieng, sur les bords de l'immense plaine connue sous le nom de Nai p'o. (Le Nai p'o est une immense plaine entrecoupée par mille canaux qui reçoivent le flux de la mer et renommée par sa fertilité en grains qui lui a fait donner à bon droit le nom de grenier de la capitale. Notes sur les marées.)

Ayant reçu de la nature des talents peu communs il se

livra d'abord chez lui à l'étude des lettres, mais bientôt le désir de travailler en grand et d'approfondir les secrets de la nature lui firent naître la pensée d'aller auprès de quelque grand maître, et attiré par la réputation de la maison des Kouen fort éloignée d'ailleurs de son pays, il se rendit auprès d'eux et se fit leur disciple. Kouen Xavier charmé du bon esprit et des belles qualités de cet élève lui donnait ses soins déjà depuis un certain temps quand il eut connaissance des doctrines européennes. Bientôt après il lui fit connaître la Religion et s'appliqua à le former solidement non seulement sur les principes fondamentaux du Christianisme, mais surtout à la pratique réelle de tous ses devoirs. Il y réussit au delà de tout espoir et bientôt Ni Louis devenu capable d'enseigner les autres retourna chez lui chargé par son maître de soigner la mission d'instruire sa famille et ses connaissances et de répandre la Religion de tout son pouvoir. Ni Louis fidèle à ses instructions convertit immédiatement sa famille, ses proches et une multitude de connaissances que son savoir et sa belle conduite lui attiraient de toutes parts, et dont il savait parfaitement captiver les esprits et les cœurs. Aussi fut tout d'abord jeté par Kouen Xavier le fondement de la célèbre chrétienté du Nai p'o qui a toujours jeté un si grand lustre dans l'Eglise de Corée, devint la pépinière de la Religion et lui donna de si illustres martyrs comme nous le verrons par la suite.

Kouen Xavier devait aussi avoir la gloire de communiquer la foi et d'établir sur des bases solides la chrétienté de la province de Tsion la. Niou hang kemi appelé Augustin était d'une famille noble non pas très

élevée, mais jouissant d'une grande considération dans sa province et d'une assez grande influence qu'augmentait encore une fortune magnifique. Il habitait à T'so Nami au district de Tsien tsiou environ à 15 lys de cette métropole de la province. Appliqué à l'étude des lettres il y eut quelques succès et pouvait passer pour un homme instruit et capable. Ayant eu bruit de la nouvelle Religion et attiré par la réputation des hommes fameux que l'on disait l'embrasser, il voulut examiner les choses par lui-même et vint chercher la famille Kouen pour pouvoir l'étudier avec des hommes dont le seul nom lui était un garant de la vérité. A peine eut-il entendu les principes du christianisme que son âme droite se rendit et il voulut commencer de suite à la pratiquer. De retour chez lui il instruisit immédiatement sa nombreuse famille, et communiqua aussi la bonne nouvelle à ses amis, connaissances et voisins. Sa ferveur, son zèle et sa constance peuvent faire signaler cette maison comme la racine de la Religion dans cette province méridionale du royaume où il y eut toujours depuis de ferventes chrétientés et de nombreux martyrs. Ce fut aussi environ à cette époque que Joun Paul appelé Tsi t'siungi demeurant dans la province de Tsien la au district de Tsin san reçut la foi par le moyen de Kim Pem ou dont nous allons parler immédiatement, mais nous remettons à parler de cet intrépide athlète de la Religion un peu plus tard en traçant les actes de son martyre. D'ailleurs il eut peu de part, du moins de son vivant, à la propagation de la foi dans cette province.

Dans des pays plus rapprochés nous devons signaler la

famille Tieng dont nous avons déjà vu deux frères Jak tsien et Jak iong prendre part aux premières conférences avec Piekî. Cette famille originaire de Na tsiou demeurait à Ma tsai district de Koang tsiou province de Kieng kei. Renommée soit dans les lettres, soit par les charges qu'elle avait toujours remplies avec distinction, elle avait alors plusieurs membres dont le nom faisait autorité et qui secondèrent à cette époque le mouvement religieux. Puis encore la noble famille de Hong Lucas dit Nak mini originaire de Pong san dont les deux frères remplissaient alors quelques charges. Ils furent instruits par Ni Seng houni à cette époque ou peut-être un peu plus tard. Dans la classe moyenne ceux qui prirent le plus de part dès le commencement furent T'soi in kiri nommé Mathias au baptême, d'une famille d'interprètes, instruit par Piekî; Tsi Sabas dit T'siang hongî d'une famille de musiciens attaché(s) à la cour, qui se présenta lui-même pour se faire instruire. D'un naturel simple, respectueux et diligent, après avoir bien examiné la Religion, il s'appliqua de suite avec ferveur à l'amour de Dieu et désirait toujours de mourir pour lui. Aussi s'exposait-il facilement aux dangers, privations et souffrances et les supportait avec joie. Puis T'soi Jean dit T'siang hieni plus connu par son surnom Koan t'sieni d'une famille d'interprètes, instruit aussi par Piekî. Il était actif et infatigable. A peine entendit-il parler de la Religion qu'il l'embrassa et copia de sa propre main tous les livres qui en traitaient. Il copia aussi pour d'autres une multitude de livres religieux et sa réputation sur ce point se répandit au point que quand quelques chrétiens désiraient des livres c'est à lui que l'on recourait

comme au grand magasin. C'est à lui aussi qu'on attribue la traduction en coréen de l'explication des Evangiles pour tous les dimanches et fêtes de l'année, par où il rendit un service incalculable à cette chrétienté naissante. Il y en avait beaucoup d'autres encore, mais tous ceux-ci résidant à la capitale et devant paraître plus souvent, nous avons cru devoir en faire mention dès à présent.

Des personnages si capables et si actifs devaient sans doute donner une grande publicité à la Religion, mais pour en donner encore une idée plus exacte nous croyons devoir mettre ici quelques détails sur les rapports de société tels qu'ils sont en usage ici surtout parmi les classes qui ne se livrent pas aux œuvres serviles et s'adonnent ou sont censés s'adonner aux lettres.

Tout le monde sait que dans ce pays les femmes qui ne sont pas de la dernière classe se tiennent renfermées. Elles fuient même la vue des hommes, restent étrangères à toutes les affaires, et les visites ou autres rapports de société n'ont lieu que parmi les hommes; mais ils en sont d'autant plus libres et plus multipliés. Sur le devant de la maison les personnes un peu à l'aise et surtout les nobles établissent un ou deux appartements, selon leurs facultés. Ce sont les salons de réception. Les hommes seuls y sont admis et les portes qui donnent sur le chemin permettent à chacun de s'y présenter sans communiquer aucunement avec l'intérieur de la maison. Le maître de la maison fait là sa résidence habituelle et se plaît à y recevoir et traiter ses amis et connaissances. Bien plus, l'hospitalité étant considéré comme un devoir sacré et faisant partie essentielle de la civilité, chacun se fait un honneur de

recevoir et traiter selon ses moyens tous ceux qui se présentent connus ou inconnus, et il est reçu d'aller demander indifféremment l'hospitalité dans ces salons extérieurs, assuré d'y rencontrer et le repos aux heures habituelles et un gîte pour la nuit. Un morceau de bois carré sert d'oreiller et la natte étendue par terre vous offre un matelas que tous partagent côte à côte. Usage bien beau qui rappelle la simplicité et la cordialité des mœurs antiques et fait penser involontairement aux réceptions hospitalières d'Abraham ou de Lotte dont l'Ecriture fait mention. Usage qui outre les services éminents rendus aux indigents, a introduit et conservé chez ce peuple une fraternité remarquable et que nous dirions au dessus de toutes louanges, s'il n'avait comme toutes choses le revers de la médaille qu'il est hors de notre sujet de discuter ici. On voit de suite combien par là doit facilement s'étendre le cercle des connaissances et des amis. Toutefois le proverbe étant vrai ici comme ailleurs, on conçoit que toutes les classes et tous les passants ne se réunissent pas indifféremment. Le Coréen naturellement flaneur et jaseur est presque toujours par voie(s) et chemins, par vaux et par monts. N'ayant rien à faire chez lui il va de salon en salon pour passer son temps et se mettre au courant des nouvelles du pays. A-t-il quelque'affaire en quelque lieu éloigné, ou, doit-il aller visiter quelque parent, ami ou connaissance à plusieurs journées de route, il part à pied ayant pour tout bagage sa pipe et un bâton, ou tout au plus un petit paquet suspendu aux épaules et porté sur le dos, pour tout viatique quelques sapèques, et quelquefois pas du tout. Si le soir il

n'a pas atteint le terme de sa course, souvent au lieu d'aller à l'auberge il se dirige vers quelque salon ouvert non loin de sa route. Là il est reçu à bras ouverts et traité sur le pied des amis, sans fatras de cérémonies, mais en partageant comme on dit la fortune du pot. S'il est fatigué ou que le temps soit mauvais il y passera quelquefois un jour ou plus. Souvent on y causera de littérature, ou bien même s'exercera à quelque petite composition, car, c'est aussi dans ces salons que l'été surtout les amis se réunissent et passent plusieurs jours ou plusieurs semaines à se communiquer leurs études et à exciter leur émulation réciproque par des compositions journalières.

A l'époque dont nous parlons les salons de la famille des Kouen en particulier déjà si fréquentés par de nombreuses connaissances et par les amateurs de la science devinrent un véritable hôtel où la foule se pressait sans cesse. Les personnes des environs se retiraient le soir et les plus éloignés y faisaient un séjour plus ou moins long. Les routes avoisinantes étaient, assure-t-on, continuellement couvertes d'une nuée de personnages de toutes les conditions et cette maison semblait convertie en une immense salle de réception où connus et inconnus se pressait le jour et la nuit.

Ce simple aperçu suffira pour faire juger comment un peu de temps la doctrine de la Religion put frapper mille et mille oreilles et se répéter dans tous les salons, mais il ne faut pas en conclure que tous l'aient embrassé(e) ou en aient eu le désir. La curiosité amenait les uns et ils s'en retournaient tels quels; d'autres attachés à la religion des

lettrés qui a dans ce pays une racine bien profonde venaient dans le dessein de combattre la nouvelle doctrine ou avec la résolution ferme de ne pas s'y laisser entraîner. Quelques-uns par principe de parti ne pouvaient avoir la pensée d'y prêter l'oreille, et beaucoup eussent bien désiré, il est vrai, se mettre au nombre des disciples, mais la crainte des malheurs, que déjà on pouvait soupçonner les arrêtaient, et ce fut bien alors la représentation de ce qui se passa lors de la prédication de St. Paul devant l'Aréopage, ou plutôt la réalisation parfaite de la parabole des semences proposée par Notre Divin Maître et sans parler de toutes les passions qui les mêmes chez tous les peuples lient le cœur des hommes et les empêchent de pratiquer le bien qu'ils connaissent et estiment, nous ferons dès ce moment remarquer que les divers partis politiques qui partagent la noblesse coréenne durent être un obstacle formidable à la propagation de l'Evangile. Tous les propagateurs de la Foi dans les commencements étant du parti appelé Nam in, plusieurs autres partis et les Nam in eux-mêmes récemment divisés entr'eux ont dû naturellement se porter pour adversaire de la Foi. Réflexion que la suite des faits confirmera et mettra dans un grand jour, puisque nous verrons la Religion devenir un prétexte pour attaquer les Nam in alors au pouvoir et en forces et leur porter un coup dont peut-être jamais ils ne se relèveront.

Sur le point de consommer la grande œuvre de la rédemption et de l'établissement du christianisme, le divin fondateur de la Religion proféra ces paroles mémorables qui seront vraies partout et jusqu'à la fin des siècles: Qui

amat animam suam perdet eam et qui odit animam suam in hoc mundo in vitam aeternam custo dit eam.> Cette doctrine fondamentale de la Religion qui a toujours paru folie aux yeux des gentils il était temps de la faire paraître en action devant ce peuple tout enfoncé dans la matière à qui la lumière de la Foi était présente. Déjà notre sainte Religion avait été publiée au loin dans le royaume; déjà elle comptait au nombre de ses disciples des personnages éminents distingués sous tous les rapports et chacune des classes de la société avait ses représentants parmi le petit troupeau.

Il fallait ici comme partout qu'elle passât par l'épreuve du sang, ou plutôt par la fécondation du sang. Il fallait apprendre à ceux qui voulaient suivre le Dieu crucifié jusqu'où vont les devoirs du vrai chrétien et leur expliquer à eux aussi une doctrine qui jusque là vue dans les livres pouvait leur présenter quelque obscurité. Mais de même qu'à l'origine du christianisme Dieu ne permit point immédiatement que les ruisseaux de sang coulissent, ici aussi ce sera seulement une goutte de sang suffisante pour imprimer son vrai cachet sur l'œuvre divine, et trop peu abondante pour éteindre la foi et abattre le cœur de ces néophytes qu'aucun pasteur ne pouvait même encourager ni consoler.

Les ennemis et contradicteurs de la Religion s'étaient élevés depuis longtemps et les progrès qu'elle faisait de toutes parts augmentaient de jour en jour leur nombre et leurs murmures. Toutefois il ne paraît pas que jusqu'alors le roi eut rien manifesté et l'affaire dont nous allons parler semble avoir particulière(privée) et sans la

coopération du gouvernement. Au printemps de **l'année 1785 (Eulsa)** moins d'un an après que la Religion eut vraiment commencé à se propager, le ministre des crimes Kim hoa tsini (de quel parti est-il) voulut en arrêter les progrès par quelque coup capable de jeter la terreur dans les esprits. Toutefois n'osant pas s'attaquer directement aux chefs bien connus des chrétiens, il fit saisir et traduire à son tribunal Kim Pem ou, nommé Thomas au baptême. Kim Thomas né d'une famille de la classe moyenne ayant des charges parmi les interprètes du royaume, habitait la capitale. Il fut instruit de la Religion dès l'origine par Pieki, et répondant de suite à l'appel de la grâce, il se mit sans retard à la pratiquer avec ferveur. Il en fit part aussi immédiatement à sa famille qui l'embrassa, et son zèle allant plus loin, il convertit encore un certain nombre de ses amis et répandit la foi parmi la classe des interprètes. (La lettre de l'Evêque de Péking met ce fait en 1788, mais la suite des faits nous engage à le placer ici avec Tieng Jean qui a tout vu.)

Propagateur de la Religion, il fut appelé tout d'un coup à en être le confesseur et ne recula pas devant cette noble mais difficile mission. **(Au printemps de l'année Eulsa 1785 il fut donc saisi.)** Arrivé devant le ministre celui-ci voulut le faire apostasier, mais Thomas appuyé sur la grâce divine refusa courageusement une si lâche défection. On le mit à diverses tortures inutilement. Il tint bon et ne fléchit pas un instant. Kouen Xavier ayant appris l'état des choses crut indigne de sa position d'abandonner son fidèle coreligionnaire. Accompagné de Ni Kei siengi, Ni liong eki et hong Iki, (qui sont-ils?) **(1785 3e lune nous** trouvons

une circulaire du t'ai hek saing siouki pour engager les parents et amis de ceux qui se feraient chrétiens à rompre avec eux. Elle fit grand bruit. Il y parle de Kim Pem ou. Ce Tsieng est Nam in mais très hostile à la Religion. En 1786 cette famille s'éleva par une circulaire contre la réintégration de Ni Seng houni. C'est la première pièce publique comme attaquant la Religion pour mettre ses adhérents au ban de la société.) il se rendit devant le ministre et eut le courage d'élever la voix en faveur de la vérité opprimée. Il lui dit: Nous professons tous la même Religion que Kim Pem ou. Sa vie et sa mort ne peuvent pas n'avoir de suites que pour lui seul. Nous voulons partager en tout le sort que vous lui réservez etc. etc. Le ministre ne se sentait pas la force d'attaquer des personnages si puissants. Il ne voulut pas les écouter et les fit renvoyer. Il n'en continua pas moins de persécuter le juste, et après diverses supplices que l'histoire ne nous a pas conservés, ne pouvant triompher de la foi et de la constance du chrétien il l'envoya en exil à la ville de Taniang à l'extrémité est de la province de T'siong t'sieng. Kim Thomas y fut conduit, (on dit qu'arrivé là il fit ses prières à haute voix et intruisit plusieurs personnes qui ne continuèrent pas. Quelques-uns mettent sa mort environ après deux ans. Il ne se démentit pas un instant.) et c'est là que peu après il rendit son âme à Dieu, consumé par les suites de ses blessures. Ainsi reçut la couronne Kim Thomas plus connu sous le nom de Pem ou. Le premier dans ce pays il eut la gloire de rendre au Sauveur la mort que le Sauveur daigne souffrir pour nous sur le Calvaire. Le premier il eut la gloire de dire à ces contrées par la

voix de sang que Dieu étant notre roi et notre Père, le devoir imposé par la fidélité et la vraie piété ne permit pas d'hésiter à tout souffrir même la mort pour l'honneur de son service. Le premier il eut la gloire d'apprendre aux tyrans de cette extrémité de l'Orient que si le corps peut succomber aux supplices l'âme ne périt pas et lui servit dans une espérance toute pleine d'immortalité. Il nous semble donc que Kim Thomas doit à juste titre être placé en tête du nombreux et glorieux chœur des martyrs de la Corée que son exemple a guidés et encouragés à confesser hautement Jésus-Christ sous les coups de la rage des bourreaux.

Cette affaire n'eut pas d'autres suites, mais elle suffisait pour laisser entrevoir aux chrétiens ce qu'ils devaient attendre de leurs ennemis et les persuader que pour servir le vrai Dieu il faut être prêt à tout. Aussi la terreur se répandit surtout à la capitale et dans ses environs et ébranla même quelques-uns de ceux qui étaient en quelque sorte les colonnes de l'Eglise naissante. (Nombre de familles firent alors tous leurs efforts par prières et menaces pour empêcher ceux qui leur étaient liés de pratiquer désormais et obtenir leur apostasie, et de toutes parts il y eut de glorieuses confessions, comme aussi des défections déplorables. Mais) La voix publique désignait surtout comme fauteurs et chef(s) de la Religion Ni Pierre dit Seng houni, Ni Pieki et les deux frères Tieng, Jak tsien et Jak iong, et éclatait partout en paroles menaçantes. Ces trois familles dont bien des membres n'avaient pas embrassé la foi furent intimidées et mettant tout en œuvre pour arrêter le zèle de ces chrétiens et

leur faire cesser la pratique n'y réussirent malheureusement que trop bien, du moins en partie. Le frère cadet de Seng houni appelé Tsi houni témoignait surtout une haine violente contre la religion et employa tous les moyens possibles pour dégoûter son aîné et le faire désister de sa détermination. Il fit tant qu'à la fin Seng houni n'y pouvant plus tenir brûla tous ses livres et fit un écrit pour se justifier devant le public et lui donner satisfaction.

Le père de Ni Pieki homme naturellement vif et emporté qui d'ailleurs n'avait jamais voulu se mêler à la Religion fit de son côté les plus grands efforts pour arracher du cœur de son fils les sentiments religieux qu'il y voyait profondément imprimés, et ne réussissant pas dans ses projets il en vint jusqu'à se lier le cou pour se donner la mort. Pieki ne pouvait être insensible à de pareilles scènes. Il n'y tenait plus et toutefois ne s'était pas rendu. Un chrétien, indigne de ce nom, vint près de lui pour tâcher d'achever l'ébranlement où il semblait se trouver. Il employa toutes les ressources possibles et usa de toutes les ruses imaginables pour réussir à le faire apostasier. Pieki fatigué, abasourdi de tant de vexations n'apostasia pas ouvertement, mais il usa de paroles de détours pour écarter tous les malheurs qu'il avait devant les yeux. Son cœur avait failli. Hélas! Depuis ce temps on l'empêcha de mettre les pieds dehors. La foi qu'il n'avait pas perdu livrait dans son cœur des assauts continuels à ses affections naturelles. D'une part, il voyait son Dieu, de l'autre, c'était son père. Comment renier son Dieu? Comment faire périr son père? Ces assauts continuels le

jettèrent dans un état que la plume ne peut décrire. Il devint morne, silencieux, mélancholique. Jour et nuit ses pleurs ne discontinuaient plus, ses gémissements se faisaient entendre d'une heure en heure. Il n'ôtait plus ses habits et le sommeil fuyait loin de sa paupière. Il mangeait encore quelquefois, mais tout appétit étant perdu, c'était sans goût et sans profit pour le corps. Cet état violent ne pouvait durer et par avance on entrevoyait que la nature avait malheureusement pris le dessus. Peu à peu les remords, les agitations de la conscience se calmèrent, les derniers efforts de la grâce étaient à peine sentis. Il se remit en son état ordinaire de santé, et on prétend même que le désir des dignités vint à renaître chez lui. Quoiqu'il en soit il n'eut pas le temps de rien essayer. Au printemps de l'année 1786(Piengo) il fut pris de la peste courante (le Jo ping des Chinois) et après huit ou neuf jours quand la sueur commençait à sortir ceux qui le soignaient l'enveloppèrent de plusieurs couvertures, malgré tous les soins et efforts qui lui furent prodigués, il ne fit qu'étouffer sous ces lourds vêtements et la sueur ne pouvant percer et sortir, il en mourut à l'âge de 33 ans. Il est impossible de savoir comment se passèrent ses derniers moments. On croit que des chrétiens purent pénétrer jusque près de lui, l'exhorter au repentir et le disposer à paraître devant Dieu. Mais on n'a pu le savoir clairement. Ainsi périt d'une manière bien peu consolante cet homme dont l'ardeur, le zèle et les talents avaient ouvert la porte à la Religion dans ce royaume. Avec de grandes qualités et des vertus incontestables, il n'avait pas assez compris la parole du Sauveur qui dit: Qui amat

patrem aut matrem plus quam me non est me dignus, et pour avoir heurté contre cette pierre de scandale il finit, soit dit sans vouloir porter aucun jugement, d'une manière bien affligeante pour ceux qui l'avaient vu à l'œuvre, *(son nom restera toutefois comme ayant eu la gloire de donner l'entrain à l'étude de notre Religion qui connue par quelques livres depuis près de 200 ans n'avait encore trouvé personne qui la fît ressortir et connaître plus en détails.)* et peu rassurante pour nous tous qui l'avions si souvent admiré.

Cependant la foi du petit troupeau un moment ébranlée était loin d'être anéantie. Si d'une part la chrétienté se trouvait dans le deuil à l'occasion de la défection de quelques-uns de ses membres, de l'autre elle était bien consolée et par la constance de la plupart au milieu des persécutions domestiques souvent plus difficiles à supporter que celles des tyrans et par les recrues que chaque jour amenait d'un côté et de l'autre, car il ne paraît pas que cette première démonstration ait beaucoup ralenti l'ardeur générale et les progrès continuaient. La foi faisait alors surtout de nombreuses conquêtes dans la grande plaine de Nai p'o où était retourné Ni Louis dit Tan oueni que nous avons vu sortir de la maison et de l'école de Kouen Xavier pour y diriger ses pas. Là ce ne sont plus des familles doctes et distinguées qui recrutent nos rangs; ce sont des familles honnêtes, des hommes de labeur, classe qui domine surtout dans cette région, mais la sève qu'ils reçoivent étant la même, ils produiront aussi en leur temps des fruits non moins remarquables. (Détails à la vie de Tan oueni) (Les talents distingués de Tan

oueni joints à un don particulier de captiver les cœurs lui attiraient de jour en jour plus d'admirateurs et peu savaient résister à l'influence de sa parole. Aussi le nombre des chrétiens augmentait considérablement dans ses environs puis la réputation de son érudition se répandant on vit bientôt arriver des personnes de tous les districts d'alentour et la foule était telle chez lui qu'il se forma à cette époque un dicton populaire: On va chercher la science dans la maison de Ni Tan oueni comme on va se rassasier dans celle de Ouen tong tsi, chrétien riche habitant non loin de là et renommé pour bien traiter ses hôtes que nous verrons bientôt mourir pour Dieu.)

N'ayant pas de détails circonstanciés sur ces premiers développements, il ne nous est possible de satisfaire sur ce sujet aux désirs des lecteurs.

Kouen Xavier occupé sans relâche aux travaux d'une vaste évangélisation qu'il s'était imposée en partage au Baptême, sentit toutefois le besoin d'un peu de retraite et de repos. Il avait compris sans doute à l'école de la grâce qui fut son seul maître qu'avant tout il faut se sanctifier soi-même, et qu'on ne peut servir utilement les autres qu'en leur communiquant de sa surabondance propre. Dans cette pensée, il conçut le dessein d'une retraite en règle; et pour pouvoir l'exécuter paisiblement, il quitta momentanément famille et amis et se retira secrètement dans une pagode vide située dans les montagnes appelées liong mun san, accompagné d'un seul de ses amis, Tsio Justin, dit Tong seumi, lui aussi de famille noble et distinguée. Arrivés là, ils convinrent de ne pas se dire un seul mot pendant tout le temps de la retraite et ils y

passèrent huit jours pleins, uniquement occupés à la méditation des vérités de la Religion et à tous les exercices que put leur suggérer l'Imitation de Jésus et des Saints. Il n'est pas douteux qu'une pratique si conforme au véritable esprit de la Religion ne leur ait obtenu de Dieu des grâces abondantes de vertu soit pour eux-mêmes soit pour ceux qu'ils voulaient instruire. Mais ces résultats comme tant d'autres choses nous seront toujours cachés.

Les clameurs et contradictions s'étaient un peu calmées avec le temps.

En l'année 1787(Tieng mi) (Cette année Hong Nak ani commence ses lettres contre la Religion) Ni Seng houni que nous avons vu succomber par faiblesse, mais dont la foi était toujours subsistante vint de nouveau trouver Kouen Xavier et les frères Tieng Jak iong et Jak Tsien pour traiter encore des affaires de la Religion. C'est à cette époque, il paraît, que pour presser et assurer d'avantage l'extension et développement de la foi et aussi pour mieux confirmer et diriger les néophytes de ce pays, ils formèrent le dessein d'établir entre eux la hiérarchie sacrée. Cette pensée extraordinaire qui aux yeux de plusieurs sera d'abord considérée comme une extravagance, était néanmoins fort naturelle.

N'ayant pas le bonheur comme les chrétiens de Chine qu'ils avaient pour modèle de posséder parmi eux des pasteurs venus de l'Occident, ils voyaient très bien qu'une chrétienté ne peut subsister sans chef, et dans leur ignorance, n'ayant pas encore pu apprendre que le sacerdoce descend nécessairement de Dieu et que son caractère divin doit se communiquer nécessairement aussi

par une chaîne qui remonte jusqu'à Jésus-Christ Sauveur Prêtre, il était naturel qu'ils essayassent de créer des Prêtres conducteurs du troupeau et d'assurer ainsi l'avenir de leurs travaux. A nos yeux ce projet des premiers propagateurs de la Religion en Corée est au contraire une pensée grande et féconde qui révèle et la hauteur de leurs conceptions, et la foi qu'ils avaient en la vérité du christianisme, et le désir sincère qui les pressait d'établir la Religion sur une base stable, solide et pour ainsi dire indestructible. Du reste leur humble soumission que nous verrons plus tard et les biens réels que la Providence permit être produits par leur ministère fantastique, semblent pouvoir être des garants de leur bonne foi et les faire excuser.

Ni Seng-houn i avait été à Péking où il fut baptisé. Il avait vu là en action la hiérarchie catholique, l'Evêque, ses Prêtres et autres clercs inférieurs. Dans l'Eglise de cette ville il assista aux saints Mystères, aux cérémonies religieuses et avait vu conférer la plupart des Sacrements. Aidé en outre par les diverses explications qui se trouvent dans les livres liturgiques ou dogmatiques à l'usage des chrétiens, il se trouvait en état d'organiser à peu près les choses et de simuler l'administration des sacrements.

(La prédication de Ni Louis surtout se fit remarquer par ses fruits abondants. Se voyant désormais tout consacré à l'oeuvre de la Religion, il s'y livra en grand et semblait n'avoir plus d'autre pensée. Le danger des persécutions probables ne l'arrêtait pas. Il allait partout remplissant de son mieux toutes les fonctions de son ministère et y eut un grand succès. La Religion devint alors très répandue

dans sa vaste région du Nai-p'o; elle s'exerçait avec une liberté et publicité presque entières, et il eut le bonheur comme la gloire d'y déposer alors en grand le germe de la foi qui jusqu'à nos jours n'a cessé de produire ses fruits, et a rendu cette contrée incontestablement la pépinière du catholicisme en Corée.)

Tout fut donc réglé le mieux que l'on put et on procéda à l'élection des pasteurs. Kouen Xavier, que sa position, sa science et sa vertu mettaient hors de rang, fut désigné Evêque. Ni Pierre, dit Seng-houn i, et Ni Louis, dit Tan-ouen i, furent nommés prêtres avec plusieurs autres peut-être. (T'soi Jacques de Ie-sa-ol au Nai-p'o semble avoir été prêtre de second ordre. Il était sous les ordres de Tan-ouen i que quelques-uns prétendent avoir été Evêque. Nous ne le pensons pas.) (Niou Augustin et T'soi Jean, dit T'siang-hien i furent prêtres aussi. (note d'Eur.)) Mais la tradition n'est pas assez claire pour en faire mention. Il est probable toutefois qu'un prêtre fut encore désigné pour la province de Tsien-la, car Ni Louis était chargé du Nai-p'o, l'Evêque et Seng-houn i restant pour soigner la Capitale et la province.

On ignore du reste s'il y eut quelque cérémonie pour consacrer ces prêtres improvisés au service des autels. Tout étant ainsi établi et réglé, chacun se rendit au poste qui lui était confié et se mit à faire une espèce d'administration des chrétiens, prêchant, baptisant, confessant, donnant la confirmation, célébrant les saints mystères et distribuant la communion aux fidèles. (La grand-mère du P. André, nièce de Ni Louis, et baptisée par lui rapportait qu'ils se servaient d'un calice d'or. Les

ornements sacrés étaient confectionnés avec de riches soies de Chine. Leur forme n'étaient pas celle des chasubles, mais la forme des habits de sacrifice en usage dans le pays. Ils se servaient du bonnet permis en Chine pour les cérémonies religieuses. Pour la confession, ils étaient placés sur un siège posé sur une estrade, et les pénitents se confessaient debout à peu près comme j'ai vu en Espagne. Les pénitences ordinaires étaient toutes en aumônes, et pour les plus graves le prêtre battait lui-même le pénitent sur les jambes. On peut présumer que les autres prêtres étaient sur ce pied. Accoutumés à fuir la vue des femmes de condition, ils ne voulaient pas les confesser, toutefois on les tourmentait tant qu'ils y consentaient. Les prêtres étaient alors regardés et traités comme des êtres surhumains et des hommes célestes. Ils circulaient peu et on venait chercher les sacrements. Mais devaient-ils sortir, ils le faisaient à pied et s'excitaient toujours à l'humilité.) Ces sacrements sont les seuls que nous trouvions consignés dans les mémoires. Le baptême donné par ces pasteurs pouvait être certainement valable et conférer la grâce de la régénération aux néophytes, mais malgré la nullité et le néant des autres fonctions qu'ils remplissaient, leur ministère donna un grand élan à la chrétienté et réchauffait partout la ferveur. On parle encore de l'enthousiasme et de la sainte ardeur avec laquelle se passaient toutes les cérémonies; et pasteurs et brebis semblent avoir été dans une telle bonne foi que le moindre doute ne s'élevait en l'esprit de qui que ce soit.

A la Capitale aussi les réunions se faisaient bien en règle et nous voyons T'soi Jean surnommé Koan-t'sien i

louer une maison exprès pour pouvoir y recevoir les prêtres et faire conférer les sacrements aux fidèles. Avec son caractère actif et capable, il disposait toutes choses, préparait les chrétiens convenablement et était alors occupé jour et nuit pour le service des prêtres et des chrétiens, sans redouter l'embarras et les fatigues. Ne semble-t-il pas qu'il fût installé catéchiste? Son père qui ne pratiquait pas du moins entièrement, non seulement ne s'opposait pas à ses nombreuses réunions qui se faisaient à sa maison, mais les couvrait au dehors de tout son pouvoir, en sorte que tout le monde en était dans l'étonnement et l'admiration. (En 1788, adresses au roi de Tsieng en ni, puis de Hong Nak-an i.) (C'est à cette époque que Xavier perdit sa femme.)

Ce clergé impromptu remplit ainsi ses fonctions pendant environ deux ans avec des succès plus ou moins marqués, quand en l'année 1789 (Kei-iou) quelques passages des livres de Religion lus avec plus d'attention leur firent naître quelques doutes sur la légalité de leur élection à la charge de pasteurs. Aussitôt ils furent saisis de crainte et de confusion, et examinant les choses de plus près la licéité de leur conduite devint de plus en plus problématique. De là on conclut qu'il fallait cesser de suite toute administration devenue téméraire et s'adresser à l'Evêque de Péking pour en obtenir une solution claire. (On doit bien admirer ici la simplicité et la droiture d'intentions qui dominait les chefs des chrétiens. Après s'être ainsi avancés vis-à-vis de toute la chrétienté, il devait bien leur en coûter pour quitter leur position au risque de se voir diffamés, et l'amour propre n'aura pas manqué de leur

suggérer mille prétextes pour attendre au moins la décision définitive. Mais non, il s'agit d'une affaire sacrée et sur un simple doute fondé en raison chacun se met de côté, preuve bien claire de la droiture de leurs vues et de la bonne foi où ils étaient.)

Chacun rentre donc dans sa vie privée, sauf la prédication et l'instruction des nouveaux et anciens chrétiens qui paraît avoir été continuée, et on ne s'occupe plus que de faire la lettre consultative et des moyens de la faire parvenir sûrement. L'ambassade annuelle offrait une occasion naturelle, mais les relations sûres n'ayant pas encore été organisées, il fallait trouver un homme capable et dévoué qui voulût bien se charger de la mission et offrît quelque chance de succès. N'ayant pas de chrétien parmi les gens qui font habituellement partie de l'ambassade, on jeta les yeux sur Ioun Paul, appelé Iou-iri pour essayer de lui faire jouer ce nouveau rôle aussi important que délicat. Ioun Paul descendait d'une famille tant soit peu noble du district de Nie-tsiou. Il avait été l'élève des Kouen et instruit de la Religion par Kouen Xavier. D'un caractère doux, affable et très discret, on pensa qu'il pourrait réussir; et déguisé en marchand, il se mit en route pour Péking à la 10ème Lune de cette même année 1789, porteur de la lettre consultative adressée simultanément à l'Evêque de cette ville par Ni Seng-houn i et Kouen Xavier. Cette longue route de plus de 3,000 lys qui font plus de 300 lieues faite en hiver à travers un pays étranger offre de véritables dangers par les fatigues inévitables et les maladies qu'il est facile d'attraper. D'où il n'est pas rare de voir succomber un ou deux de la

bande. Paul appliqué dès l'enfance à l'étude des lettres et livré à une vie sédentaire, n'était pas accoutumé à supporter la fatigue. D'ailleurs sans expérience, sans connaissances et sans aucun appui il était plus exposé que personne, et dut encore faire la route à pied comme tous ceux dont il simulait la profession. Toutefois soutenu par la grâce et confiant en la bonté de la cause pour laquelle il avait entrepris ce voyage, il en subit joyeusement les fatigues et arriva heureusement à Péking. Il se rendit de suite près de l'Evêque et lui remit la lettre dont il était le porteur; puis entrant dans le détail des divers événements survenus dans la nouvelle chrétienté, il conféra avec lui des moyens de lui porter secours. (Paul fut alors confirmé et reçut les autres sacrements.) Après le séjour ordinaire, au printemps de l'année Kieng-siou 1790, il reprit à la suite de l'ambassade la route de sa patrie; et adroit à répondre à tout et à se tirer des mauvais pas, il arriva sans exciter de soupçons ni susciter aucune affaire.

La réponse de l'Evêque était adressée à Ni Seng-houn i et à Kouen Xavier. Il les reprenait d'abord fortement de leur folle conduite en s'ingérant dans l'administration des sacrements et ajoutait que non seulement ils ne pouvaient célébrer les saints mystères, mais qu'ils ne devaient pas non plus sacrifier aux ancêtres, faire les prostrations d'usage, ni se mêler aucunement aux superstitions quelles qu'elles fussent. Enfin il les encourageait et exhortait à exciter continuellement les chrétiens. L'Evêque dans cette même lettre ou peut-être de vive voix avait promis aussi d'envoyer le Père Tsiou pour secourir et administrer les chrétiens, et commandait de prendre toutes les mesures

nécessaires et de faire choix d'hommes capables pour l'introduire sûrement. Cette réponse attendue si longtemps avec impatience ne laissait plus aucun doute sur la grande affaire en question. Elle fut reçue avec calme et soumission entière. Chacun se félicita de la prudence avec laquelle on avait cessé les fonctions du saint ministère et jamais plus désormais la pensée ne vint à l'esprit de qui que ce soit de s'ingérer aux affaires du sanctuaire. La joie, la ferveur et l'union des néophytes n'en fut pas troublée. Mais l'article concernant les sacrifices et les superstitions fut un coup de foudre pour plus d'un. (Jusque là, les fidèles de Corée assidus à toutes les observances de la Religion dont ils avaient connaissance, n'en avaient pas moins continué à participer au culte superstitieux que l'on rend dans ce pays aux parents défunts. L'ignorance et la bonne foi pouvaient jusqu'à un certain point les excuser, mais dès ce moment apprenant que la moindre coopération en cette matière était réprouvée par l'Eglise, chacun prit son parti et jaloux de conserver sa foi, s'abstint de tout ce qui était décidé lui être contraire. C'était blesser à la prunelle de l'oeil toutes les classes de la population. Dans ce pays la Religion des lettrés qui serait même appelée Religion des ancêtres est loi de l'Etat. Toute omission des cérémonies en usage sur cet article est punie sévèrement, et toute infraction est reçue avec une violente répulsion par l'opinion du pays sans exception. Ces usages traditionnels dont l'origine remonte très haut et inviolablement transmis de race en race sont aux yeux de tous la base de la société, le fondement de l'Etat, le point d'appui de tous les rapports naturels; et

malheur à celui qui aurait l'audace de les attaquer même en paroles. D'après cela il était facile de prévoir l'orage que l'on allait s'attirer et tout le parti que les adversaires de la Religion ne manqueraient pas d'en tirer pour essayer de nouveau de la détruire et renverser de fond en comble. Beatus qui non fuerit scandalizatus in me a dit la première victime des persécutions suscitées contre la vraie foi. Quelques chrétiens faibles cessèrent dès ce jour de se mêler aux pratiques religieuses et de ce nombre nous avons la douleur de compter Ni Seng-houn i, que la crainte avait déjà fait tomber d'une manière si déplorable quelques années auparavant. Il se retira chez lui et cessa tout rapport avec les chrétiens. Bien plus cédant au désir des dignités, il obtint différents mandarinats, et désormais nous ne le verrons plus paraître que de loin en loin poursuivi malgré sa défection et ne pouvant malgré mille efforts se laver auprès de ses ennemis du crime d'avoir introduit la Religion, espèce de péché originel à leurs yeux, qu'ils reprocheront encore à ses descendants. Malgré cette seconde chute de ce chef influent, la foi des néophytes ne paraît pas en avoir été ébranlée et la presque totalité des chrétiens, soumise d'esprit et de coeur à tout ce qui émanait de la véritable autorité, continua de pratiquer avec ferveur, et témoigna de son éloignement à toute pratique superstitieuse.

Dès lors, Kouen Xavier resté seul des trois premiers fondateurs ne fit que redoubler de zèle et sembla se multiplier pour diriger et entretenir les différentes parties du troupeau fidèle. Il fut merveilleusement secondé par le jeune T'soi Jean, surnommé Koan-t'sien i, alors âgé de 30

et quelques années. Et de leur côté Ni Louis au Nai-p'o et Niou Hang-kem i dans la province de Tsien-la continuèrent à employer leur temps et leurs forces à travailler au bien spirituel de leurs frères dans la foi. Cette même année 1790 en septembre, Ioun Paul et le catéchumène Ou allèrent à Péking pour demander des prêtres. (voir la lettre de l'Evêque de Péking.)

En cette même année 1790 eut lieu la conversion de T'soi P'il-kong i, appelé Thomas au baptême. T'soi Thomas était d'une famille de la classe moyenne à la Capitale. Ses ayeux avaient occupé quelque place auprès du gouvernement parmi la classe des médecins, mais à cette époque n'ayant pas d'amis qui pussent le faire avancer, il était très pauvre et n'avait pu même se marier. Instruit de la Religion par T'soi Jean, son caractère franc et ardent l'embrassa immédiatement et dès le premier jour il fut en ferveur, et ne pensant plus à autre chose, il oubliait même de subvenir aux nécessités du corps. Cet enthousiasme ne tomba point et inaccessible à la crainte, sans s'occuper des malheurs qu'il pouvait s'attirer, il lui arrivait de temps en temps au milieu de la foule des rues de s'écrier à haute voix: Il faut nécessairement servir le grand roi du Ciel et de la terre. Comment ne pas servir le grand Seigneur de toutes choses? Aussi quoiqu'il fût nouveau chrétien, il était partout connu comme tel et son nom était répété par toutes les bouches. On voit que la terreur n'avait pas encore atteint tous les coeurs ni fait fermer toutes les bouches.

Cependant les ennemis de la Religion dont les clameurs avaient été moindres pendant quelques années, étaient loin

de se tenir en repos. Ils tramaient toujours sourdement leurs affreux complots, et sans doute ne préparaient leurs batteries dans le secret que pour les rendre plus formidables. Dès l'année 1788 (mou-sin), Ni Kei-kieng i, d'abord ami de Seng-houn i et compagnon de ses études, qui jusques là avait été porté pour la Religion, se retira, fit même quelque écrit contre les chrétiens et alla grossir le parti de Hong Nak-an i (Hong Nak-an i était bien du parti des Nam-in. Nous ne savons pourquoi il se mit toujours à la tête de leurs ennemis. Toujours le premier à attaquer la Religion et ses partisans, il fut cependant impliqué dans leur ruine et nous le nommons à dessein. Plus tard il changea son nom et s'appela Hei-oun i. (La raison en est dans la division des Nam-in, voir la lettre de Hoang Alexandre.)), ennemi déclaré de la foi et l'un de ses plus haineux adversaires. Appliqués sans cesse à recueillir tout ce qui pouvait les faire parvenir à leur but, ils épiaient la conduite et les paroles des chrétiens et n'attendaient qu'une occasion favorable pour éclater et tâcher de les faire périr.

L'année 1791 (sin-hai) la leur fournit bientôt, lorsqu'à la mort de la mère de Ioun Tsi-t'siong i, ce chrétien ne fit pas les sacrifices aux parents défunts selon l'usage. Ioun Tsi-t'siong i qui va nous occuper maintenant, appelé encore Ou-iong i et nommé Paul au baptême, descendait d'une famille illustre de l'île Hai-nam. Ses ancêtres tinrent souvent une place distinguée parmi les dignitaires du royaume, et certain nombre d'entre eux se firent aussi un nom dans les lettres. Son père était venu s'établir dans le district de Tsin-san pvince de Tsien-la au village de

Tsang-kou-tong. C'est là qu'il naquit en l'année Kei-mio 1759. Dès l'enfance, son intelligence et sa bonne conduite se firent remarquer et bientôt il acquit une réputation de talent. (Sa famille se livrait à l'étude de la médecine et y avait de la réputation.) En l'année 1783 (kei-mio), à l'âge de vingt-cinq ans, prenant part aux examens publics il fut couronné et reçut son diplôme de bachelier dit tsin-sa. L'hiver de l'année suivante, s'étant rendu à la Capitale, il y trouva chez Kim Thomas dit Pem-ou deux livres de Religion qu'il emporta avec lui et dont il tira copie, mais ne pratiqua pas encore. Ce ne fut qu'environ trois ans après qu'ayant appris de Tieng lak-tsien i, tout l'ensemble de la Religion il l'embrassa sur l'heure et la pratiqua avec ferveur. (Tsi-t'siong i était cousin germain de Tieng par sa tante paternelle. Ce qu'il dit de Kim Pem-ou déjà mort pourrait bien être une ruse pour cacher la famille Tieng qui peut-être l'aurait instruit la première.) Plus tard, ayant appris que la Religion était proscrite, il brûla une partie de ses livres par précaution, sans toutefois cesser de lui être dévoué et d'en remplir exactement les pratiques. Nous ne voyons nulle part qu'il se soit beaucoup répandu parmi les chrétiens. Il paraît probable que par précaution ou pour d'autres raisons il eut assez peu de rapports avec eux, et qu'il s'occupa peu de la propager. En 1790, il apprit que la lettre de l'Evêque de Péking défendait les sacrifices et prostrations aux parents défunts et n'en continua pas moins de rester attaché à sa foi et à ses devoirs religieux, et il brûla les tablettes de deux générations conservées dans sa famille selon la coutume. Sur ces entrefaites sa mère, nommée Kouen, vint à mourir pendant cet été de

1791 (sin-hai).

La position était délicate. Paul, chez qui le décès de sa mère allait attirer successivement tous ses parents et amis pour faire condoléance et assister aux sacrifices, se trouvait placé entre deux abîmes. Il devait ou violer sa foi et renier son Dieu du moins en action ou se tenir prêt à affronter les reproches, injures et peut-être plus de la part de mille personnes connues et inconnues. Pour tout autre, l'hésitation eût pu avoir lieu. L'âme noble et droite de Paul lui a bientôt fait prendre un parti. Il revêt le deuil, pleure sincèrement sa mère, fait pour elle tout ce que peut suggérer en pareille occasion une piété filiale éclairée et bien entendue. Rien ne manquait à ce qu'exige l'amour et la convenance; seulement pas de sacrifices. Tout aussitôt, les murmures s'élèvent et se font entendre. Partout les conversations roulaient sur un attentat jusqu'alors inouï dans la personne d'un enfant de noble; la critique se répand de village en village, redouble avec le nombre de ceux dont la nouvelle frappait les oreilles, et en peu de temps une rumeur d'indignation retentit dans toute la contrée et ses échos sont répétés fort loin. Signalé comme impie pour tout ce qu'il avait de plus cher, montré au doigt par ses voisins comme un être qui a renié tout sentiment et principe naturels, injurié et menacé d'être traduit comme rebelle à son roi, Paul se trouvait déjà comme mis au ban de la société. Qu'on se figure, si l'on peut, la douleur, les angoisses, l'amertume dont son coeur était abreuvé.

Lui, il n'y a qu'un instant entouré de l'estime et des applaudissements de tous les environs, se trouve tout à

coup en butte à tous leurs traits envenimés, foulé aux pieds de tous et déchiré par d'affreuses imputations. Toutefois le juste ne se laissera pas abattre et vaincre par l'adversité. Il avait pour soutien et consolation sa conscience calme qui ne lui reproche aucun crime, l'exemple du divin Sauveur que les injures et les calomnies ont le premier poursuivi, et puis la grâce de son Dieu qui peut bien éprouver mais n'abandonne pas ses serviteurs. Et aussi persista-t-il dans la noble profession de sa foi.

Cette nouvelle parvint aux oreilles de Hong Nak-an i. Et aucune autre n'eût pu lui causer tant de joie. Aussitôt il adresse une pétition au premier ministre T'sai, alors tout-puissant, et il ne demandait rien moins que de faire poursuivre et condamner à mort le chrétien. La réponse du ministre à cette époque ne nous est pas connue. Il paraît toutefois qu'il donna des ordres au gouverneur de la province. (Le 22 de la 10^e lune, le ministre T'sai demanda au roi que ceux qui seraient convaincus du crime de la nouvelle Religion fussent punis du dernier supplice pour effrayer et faire revenir tout le monde, le roi le permet (manuscrits). Voir plus bas les notes du 6 et 9 de la 11^e lune.) Mais Hong Nak-an i ne s'en tint pas là. Il écrivit aussi au mandarin du district de Tsin-san qui était alors Sin Sa-ouen i pour le presser de faire des perquisitions et de pousser vivement l'affaire. Ce fut vraisemblablement cette lettre qui détermina Sa-oueni à faire les premières démarches.

D'après les usages de ce pays la visite domiciliaire chez un noble est une chose délicate et dangereuse; mais au

courant des moindres détails par le bruit public, il était sûr de son coup. Il se rendit donc chez Ioun Paul dit Tsi-t'siong i, et trouvant la boîte extérieure des tablettes, il fut un peu interdit; mais trop bien renseigné il examina de très près et s'apercevant qu'elle était vide (la boîte extérieure des tablettes est formellement prohibée aux chrétiens, mais alors comme aujourd'hui il paraît que quelques-uns se faisaient illusion sur sa licéité avec la différence toutefois qu'alors l'ignorance pouvait excuser ce que des instructions formelles ont rendu si clair par la suite. C'est du moins ce que la conduite franche et décidée de Tsi-t'siong i dans toute cette affaire nous donne à supposer.) il fit à l'instant saisir (Il paraît par les interrogatoires que Ioun Paul et Kouen Jean s'étaient retirés l'un à Koang-tsiou, l'autre à Han-san, probablement pour éviter les grands coups. Le mandarin n'a donc fait que donner ordre de les saisir. Cet ordre étant parvenu à leurs oreilles avec la nouvelle de la prise de l'oncle de Paul, ils vinrent de suite se livrer, faisant route jour et nuit. Nous ignorons si cet oncle de Paul était chrétien. Il paraît avoir été relâché de suite.) et emmener le chrétien, et envoya en donner avis au gouverneur de la province. Ioun Paul arriva à la préfecture de Tsin-san le soir du 24 de la 10e lune de sin-hai 1791. Les interrogatoires y commencèrent ce même jour et furent continués les suivants jusqu'à la réponse du gouverneur qui l'appelait à son tribunal où il fut envoyé le 29 de cette même lune. Le gouverneur de la province de Tsien-la résidant à Tsien-tsiou était alors Tsieng Min-si. Paul interrogé sur ce qu'il avait fait de ses tablettes répondit d'abord les

avoir enterrées, réponse qu'il fit sans doute pour choquer moins les idées du pays. Mais ayant creusé la terre au lieu indiqué par lui et ne les trouvant pas, on se mit à lui faire subir différents supplices et tortures atroces. C'est alors qu'il fit sa profession de foi claire et solide en ces termes: "Après la mort de l'homme son corps retourne dans la terre et son âme va soit au Ciel soit dans l'Enfer. Il n'y a pas d'âme qui puisse et doive rester dans la maison du défunt. Ceci est une vérité claire et démontrée que je connais certainement. Prendre une tablette de bois pour lui offrir des sacrifices et des nourritures, c'est témoigner aux parents sa piété et son amour par une voie fausse. Que sont ces tablettes sinon un morceau de bois, coupé sur la montagne et livré à l'ouvrier pour le tailler et y parer (par) le ciseau. Mais ce travail de l'ouvrier peut-il faire que l'âme des parents vienne y résider? Ces tablettes ne sont donc pas le père ou la mère. C'est un simple morceau de bois; et dès lors comment pourrais-je les honorer comme père et mère? Notre vraie Religion du Maître du Ciel défend à bon droit une pareille superstition. Or, je suis chrétien et observe tous les commandements de Dieu. J'ai donc brûlé ces objets." C'était la première fois sans doute qu'un gouverneur assis sur son tribunal rencontrait une telle liberté de paroles. Chacune d'elles taillait dans le vif et attaquait les affections les plus intimes de ces peuples-ci, en dévoilant le vide de leurs croyances religieuses dont les fondements étaient sapés et chancelants. Le gouverneur, après une déclaration si formelle, fit immédiatement son rapport et l'envoya au roi. Il nous reste quelques détails sur les interrogatoires que

Paul eut alors à subir. Ils roulent uniquement sur le crime d'avoir détruit les tablettes des ancêtres et de ne pas sacrifier aux parents défunts; ils n'offrent du reste rien d'un peu intéressant. Paul aussi présenta sa défense que nous avons non en caractères chinois qui formaient l'original, mais traduite en coréen. Qu'on ne se figure pas ici un plaidoyer tels qu'ils sont en usage en Europe avec toutes les précautions oratoires et les diverses ressources que fournit l'éloquence. Ce sont uniquement quelques pays où il rend compte de sa conduite et s'efforce sans blesser aucunement les principes de sa foi, de la présenter sous un jour moins odieux et moins révoltant pour l'opinion publique dont il avait été forcé par devoir de choquer les idées. Elle peut à peu près se résumer ainsi:

Le roi était alors Tsieng-tsong, âgé de 40 ans. Il gouvernait le royaume depuis environ 15 ans et l'histoire le signale comme un prince sage, modéré, prudent, ami de la science et juste appréciateur des belles qualités de ses sujets. Il avait reçu le rapport du gouverneur de Tsien-la, et la suite fait présumer qu'il n'était pas décidé à porter les choses si loin. Mais son premier ministre T'sai le poussa à faire mourir le chrétien et à ordonner d'exposer sa tête pendant cinq jours devant le public, pour effrayer les populations du midi et les empêcher de suivre la religion. Le roi finit par donner son consentement et la dépêche en fut immédiatement expédiée.

Il faut croire que les ennemis de la Religion se montraient alors bien menaçants, car le ministre T'sai, homme supérieur et non hostile aux chrétiens était

lui-même du parti des Nam-in et parent ou ami de presque tous les hommes éminents alors connus pour chefs de la Religion. Cette conduite de sa part surprit beaucoup et on l'explique en pensant que par crainte de donner prise sur lui et sa famille il préféra abonder dans le sens des accusateurs les plus violents; ce qui toutefois ne le sauva pas entièrement comme nous le verrons.

Très peu de temps après l'expédition de la condamnation à mort, le roi se repentit d'avoir cédé aux instances qui lui étaient faites; (par la pensée que ce premier acte deviendrait loi de l'Etat et qu'on continuerait à mettre à mort tous ceux qui suivraient cette religion) des ordres pressants furent donnés et il envoya un courrier extraordinaire avec ordre de surseoir à l'exécution et d'attendre de nouvelles délibérations. Il était trop tard.

A la réception des premières dépêches, on avait tout consommé et Paul portant sa tête sur l'échafaud avait obtenu la couronne le 13 de la 11e lune. Dans la trente-troisième année de son âge. Ainsi eut lieu la première exécution publique d'un chrétien, que le roi lui-même avait voulu éviter, mais qui depuis ce jour n'en servit pas moins toujours de point d'appui à nos ennemis pour faire considérer la condamnation à mort des chrétiens comme loi de l'Etat, et fut par le fait la cause des ruisseaux de sang qui tant de fois inondèrent la Corée. Ioun Tsi-t'siong i y gagna la palme du martyr dont Kim Pem-ou lui avait courageusement montré la route. Sa réputation et son influence morale devint alors bien grande dans toute la chrétienté et nul doute que son intercession aussi n'ait bien contribué à attirer dans l'arène et à

soutenir dans le combat la nombreuse troupe de ses imitateurs. Nous ne voyons nulle part que Tsi-t'siong i ait eu de fils; mais il laissa une fille qui parvenue à l'âge nubile fut mariée selon sa condition. (La fille de Paul avait alors 13 ans, elle se retira momentanément dans la maison du père de Kim Thomas, prétorien et élève de Tsi-t'siong i. Le jour elle se cachait dans le jardin et la nuit venait dans la maison. Elle fut mariée à un Song à Sout-pangi, district de Kong-tsiou. Sa mère la suivit chez son beau fils et continua, dit-on, à pratiquer. Mais aucun chrétien n'a eu depuis de rapports avec cette famille.) En effet, les persécutions n'étaient encore qu'à l'état d'essai et la haine de la Religion n'avait pas encore eu le temps de compléter son système infernal et d'en organiser les nombreux réseaux. Plus tard les chrétiens, proscrits, poursuivis par d'indignes traitements et placés de fait bien au dessous du dernier conspirateur contre le roi ou la sûreté de l'Etat, ne seront plus même censés faire partie de la société, et leurs enfants ne purent plus nulle part espérer trouver un parti convenable à leurs naissances ou à leur position.

Tsi-t'siong i eut près de lui un généreux compagnon de ses combats et de sa gloire dont nous n'avons pas parlé pour ne pas couper la narration de son martyre. Il s'appelait Kouen Sian-ien i, nommé Jean (Jacques d'après la lettre de l'Evêque de Péking) au baptême. Sa famille originaire de An-tong, province de Kieng-siang, s'établit ensuite à T'an-Pang au district de Kong-tsiou, et sans être de très haute noblesse comptait parmi ses membres quelques personnages assez distingués. Jean qui était parent de la mère de Tsi-t'siong i se livrait à l'étude des

lettres et s'appliquait à la fois à régler sa conduite et ses mœurs, quand il fut instruit de la Religion par Tsi-t'siong i lui-même: et se rendant de suite à l'appel de la grâce, il ne cessa plus de la pratiquer fidèlement.

A la mort de sa tante, mère de Tsi-t'siong i, il ne se montra pas moins généreux que celui-ci et il ne fit aucun des sacrifices superstitieux prescrits par l'usage. Nous n'avons sur lui aucun document détaillé, ces deux chrétiens purent se fortifier et consoler mutuellement. Kouen Jean partagea avec Ioun Paul les reproches et injures de ses parents et amis et de tout le voisinage. Il fut pris avec lui et emprisonné à Tsien-tsiou. Il y subit avec lui et d'une manière non moins constante les interrogatoires et les supplices de la question et fut décapité en même temps pour la foi à Tsien-tsiou le 13 de la 11e lune (8 décembre 1791 à 3 heures après-midi) de l'année Sin-hai 1791, à l'âge de 41 ans.

Il paraît que l'on fit alors afficher dans chaque village la mort des deux martyrs pour intimider le peuple et le détourner de la Religion. L'effet que les ennemis de la Religion attendaient d'une exécution publique des chrétiens se répandit bientôt au loin. Les mandarins enhardis et peut-être poussés par les méchants se mirent à faire écho dans beaucoup de districts. malgré le défaut de documents, nous voyons alors beaucoup de chrétiens saisis au district de Koang-tsiou avec T'soi Marcellin et racheter leur vie par l'apostasie. (Tout cela au Nai-p'o.)

Pendant que la Religion était ainsi attaquée et si glorieusement défendue devant le premier tribunal de la partie méridionale du royaume par deux athlètes qui

scellaient la vérité de leur sang, plusieurs de ses principaux membres étaient appelés aussi à la Capitale sur le théâtre des combats. L'affaire de Tsin-san en fut encore l'occasion. Hong Nak-an i, Mok Man-tsiang i, etc. présentèrent une accusation contre Kouen Xavier, dit Il-sin i, qu'ils désignaient comme le principal chef et fauteur de la Religion. (Nous avons sous les yeux plus de 30 adresses au roi, pétitions aux ministres, etc. qui parurent de la 9e à la 12e lune; quelques-unes parurent encore l'année suivante. Que l'on juge de là du bruit et du soulèvement d'alors, car chaque pièce représente une coterie d'après l'usage.) Celui-ci n'avait pas été inquiété à l'affaire de 1785 malgré son courage et ses réclamations publiques. Cette fois il ne put davantage échapper à l'envie de ses ennemis qui d'ailleurs ne pouvaient pas ignorer l'influence que son nom, sa science et ses efforts avaient chaque jour sur la propagation de l'Evangile.

(Le 6 de la 11ème lune, le ministre des Crimes Kim Tsang-tsip i demande au roi de faire des perquisitions pour détruire tous les livres de Religion; que ceux qui les livreraient d'eux-mêmes ne soient pas punis, mais que ceux qui ne les auraient pas livrés soient jugés selon la loi. Le roi répond que cet ordre a déjà été donné précédemment et il intime de fixer un délai de 20 jours, à partir de la publication dans chaque district, après quoi tout infracteur surpris devra être poursuivi selon la loi. Il commande que la publication se fasse en règle pour que personne ne puisse l'ignorer. 9 de la 11e lune, dans un ordonnance, le roi dit qu'il ne s'agit pas ici seulement d'une affaire d'enterrement de la part des deux nobles

mais qu'il s'agit du crime de porter la main sur les tablettes. Or si on supporte de tels faits, que ne devra-t-on pas supporter? Il commande de rabaisser le rang de la préfecture de Tsin-san, dans le district de laquelle le mal a pris naissance et de la mettre au dessous des 53 préfectures de la province de Tsien-la, puis veut que le mandarin en soit cassé pour ne pas avoir pris l'initiative par lui-même et puni les coupables. Il ordonne que dans tout le royaume on pousse les lettrés à l'étude des vrais principes dans les livres classiques, recommande de faire un choix plus consciencieux pour les examens de chaque province qui approchent et témoigne vouloir y récompenser le mérite et la vertu.)

Il fut donc arrêté et traduit devant le tribunal des crimes à la 11e lune. Ne pouvant pas obtenir une rétractation de la part de cet homme dont les convictions étaient si fortes, on le mit successivement plusieurs fois à la torture, et des supplices extraordinaires furent employés pour y réussir. Mais Xavier ferme dans les tourments ne se laisse pas un instant ébranler. Il fit clairement sa profession de foi, sous le fer et le fouet des bourreaux comme auparavant. il est impossible, dit-il, de ne pas servir le grand Dieu Créateur du Ciel, de la terre, des Anges et des hommes. pour tout au monde je ne puis le renier, et plutôt que de manquer à mes devoirs envers lui, je préfère subir la mort. Les tortures avaient réduit son corps à un état affreux qu'il serait difficile de peindre. Le roi qui connaissait Il-sin i pour un homme éminent et doué de mille belles qualités ne pouvait se décider à le faire mettre à mort, et toutefois il désirait le faire changer de

sentiments. Il commanda donc d'employer tous les moyens imaginables pour le gagner. D'après ses ordres recommença un nouvel assaut plus terrible que les précédents. Ce ne sont plus les supplices et les menaces, mais tous les moyens d'insinuations qui sont mis en jeu, les caresses, les flatteries, les promesses de toutes espèce sont successivement déployés avec toutes les ressources que l'amitié et la compassion peuvent suggérer, et aucune des affections propres au coeur humain ne fut laissée sans passer par l'épreuve. Mais tout étant inutile on revint encore aux supplices et tortures. Xavier se montra aussi insensible d'un côté comme de l'autre, soutint avec une constance admirable toutes ces manoeuvres tentatrices; et tous les moyens étant épuisés sans succès, le roi cependant ne pouvant le sacrifier entièrement, il fut condamné à l'exil à l'Ile de Tsiei-tsiou (Quelpaert) avec ordre au gouverneur de le mettre à la question trois fois par mois jusqu'à soumission. Xavier restait donc victorieux de ces épouvantables menées de l'Enfer et avait conservé sa foi intacte. Il sortit de prison et l'état de ses blessures étant par trop inquiétant, il lui fut permis de rester quelque temps avant de partir pour l'exil. Il passa ces jours-là dans la maison de Ni Ioun-ha. Pendant ce séjour tout occupé à soigner ses blessures et aux préparatifs du long voyage qu'il allait entreprendre pour se rendre au lieu de l'exil, il ne s'attendait pas à une dernière attaque qui allait encore l'assaillir. A l'instigation du roi encore, des personnes du tribunal des crimes vinrent lui représenter que sa vieille mère, alors âgée de 80 ans, ne pouvait tarder à mourir et que lui allant au delà de la mer

ne pourrait supporter d'en être séparé et de ne pas assister à ses derniers moments. On ne lui parla pas directement d'apostasie qu'il repoussait toujours avec indignation, mais on l'engagea seulement à une toute petite soumission vis-à-vis du roi qui ferait commuer son exil et lui éviterait le voyage d'outre-mer. Xavier fut sensiblement ému à cette pensée et soit qu'il ait fait lui-même quelque signe, soit, comme d'autres l'assurent, qu'un des assistants l'ait fait pour lui, à l'instant on dépêcha vers le roi et on commua son exil à la ville de Niei-san. Hélas! il n'eut pas même le temps de s'y rendre. A peine se fut-il mis en route que la violence de ses blessures le fit succomber et il mourut dans une hôtellerie.

Nous voudrions déchirer cette page de l'histoire que la vérité nous force à écrire. Eh quoi! Cet homme que nous avons vu si grand dans sa vie, si grand au milieu des supplices encore, vient de flétrir ses derniers moments par une tache que nous ne pourrions effacer; et quoique le peu de précision des documents ne nous permette pas d'apprécier la portée de sa faiblesse, nous en sommes réduits toutefois à rester le coeur navré de ce doute insoluble et d'une crainte fondée. Heureux si après avoir (refusé) perdu la couronne du martyr que les Anges tenaient déjà suspendue sur sa tête, il a pu trouver grâce devant le Dieu dont il eut le bonheur d'établir le culte dans ce royaume sur des bases solides et définitivement stables! C'est le second exemple notoire que nous rencontrons de chutes occasionnées par un regard trop naturel jeté sur les auteurs de nos jours, pour apprendre à la postérité qui dans ces pays surtout aura besoin de cette

leçon, que l'amour des parents d'ailleurs si juste et si raisonnable, doit lui-même être contenu dans des bornes qui lui permettent l'harmonie avec d'autres devoirs non moins sacrés.

Ni Seng-houn i que nous avons vu se retirer si honteusement et qui sans même avoir vu le feu avait voulu se mettre à l'abri des coups, était alors mandarin de la ville de P'ieng-t'aik. Malgré sa défection connue du public, la haine l'y poursuivit encore. Hong Nak-an i et ses partisans présentèrent à la cour une requête où il était signalé comme chef des chrétiens, ajoutant qu'on l'avait vu à la préfecture lire les livres de cette secte. Puis ils soudoyèrent des gens pour l'accuser de ne pas faire les prostrations en usage au temple de Confucius et finissaient par demander qu'il fût traduit et jugé selon les lois. On ne put ne pas examiner des faits en apparence si graves. Des perquisiteurs furent envoyés sur les lieux; mais n'ayant pas trouvé de preuves de la vérité des accusations Seng-houn i fit alors un écrit pour se défendre échappa pour cette fois aux mains des comploteurs, qui furent même punis pour leur odieuse calomnie. Dans cette même requête, nous trouvons les paroles suivantes: "Parmi les dignitaires du royaume et les personnages en réputation, déjà sept ou huit sur dix ont embrassé et sont perdus dans cette doctrine. Où arriverons-nous donc?" Personne sans doute ne se laissera tromper par la malice des auteurs dont l'exagération était manifeste; mais nous croyons pouvoir y trouver la confirmation de la propagation réelle de la Religion à cette époque, du grand nombre de ceux qui peut-être sans la pratiquer la

voyaient du moins de bon oeil, et surtout de la crainte fondée que concevaient ses ennemis de la voir sous peu envahir la masse et l'opinion si on n'y portait de suite quelque remède violent.

(Nous trouvons dans les monuments de l'époque la prise et le procès de T'soi In-t'siel i, Tsieng In-hiek i, Son Kieng-ioun i, Iang Tek-nioun i, T'soi In-kiri, T'soi P'il-tiei et autres, tous apostasièrent alors et tous furent martyrs plus tard.)

Au district de Hong-tsiou de même (famille de Seng-hoa).

Au district de Tang-tsin, Pai François avec beaucoup d'autres se laisse aller à la même lâcheté que plus tard il doit racheter de sa mort. Le district de Mien-t'sien se fit remarquer par le grand nombre des emprisonnements. Pak Laurent voyant les chrétiens emprisonnés depuis plusieurs mois les plaignait au fond du coeur et avait eu plusieurs fois le courage d'aller les consoler. Un jour alors qu'on venait de leur servir le déjeuner, il va frapper à la porte du mandarin, entre vis à vis de lui et crie d'une forte voix: "Battre violemment un peuple innocent, le tenir en prison pendant plusieurs mois, qu'est-ce donc que de tels principes?" Le mandarin en colère demande quel est cet individu. On répond que c'est un homme de Hong-tsiou, frère de Pak Il-teuk i, alors enfermé pour la Religion. De suite il est saisi, on lui passe une lourde cangue au cou et le bat violemment. Laurent ne se laisse pas ébranler ni intimider et dit au mandarin: "Cette cangue de bois est trop légère, faites m'en mettre une de fer." La position du mandarin devenait difficile, toute la ville était en émoi et

les rumeurs se formaient comme lors des grands événements. Laurent fut envoyé au tribunal criminel de Hai-mi, puis de Hong-tsiou où il fut violemment bastonné sans se démentir. Après un mois et quelques jours, une dépêche de la cour arriva et il fut relâché. Une telle constance dut bien consoler les vrais fidèles, ainsi que la conduite de Kim Pie, arrière-grand-père du P. Kim André, qui ne paraît pas s'être laissé ébranler devant les juges et commença alors une vie suite continuelle de vexations et d'emprisonnements.

Ni Tou-ouen i dont le nom était si répandu ne pouvait échapper non plus à la haine des perquisiteurs. Il subit diverses vexations et finit par être pris et renfermé à Kong-tsiou; nous ignorons tous les supplices qu'il eut à y supporter, mais lui aussi se laissa ébranler. Oh que les vrais confesseurs sont rares! Nous trouvons une lettre du gouverneur de cette ville Pak Tsong-ok i, datée du 2 de la 12ème lune, annonçant au roi la soumission de ce coupable. "Il apostasia, dit cet acte, de la manière la plus forte, témoigna sa douleur de s'être laissé entraîner dans une mauvaise doctrine, mêlée de magie, etc., s'engagea à aller dissuader tous ceux qu'il avait endoctrinés et à les ramener à la vraie voie et en fit serment." Le roi dit de ne le relâcher qu'après retour complet, sa résipiscence étant bien récente. Toutefois il fut relâché le 5 de cette même lune et retourna chez lui. Malgré une apostasie si éclatante il paraît qu'il reprit de suite la pratique de ses devoirs; mais trop connu dans le pays et les environs il prit le parti d'émigrer pour être moins en butte aux traits de ses ennemis et tromper leur surveillance. Dans la nuit

du dernier jour de cette année il fit ses adieux à son frère aîné. Non seulement tous ses parents dont plus de 30 familles habitaient ce lieu, mais encore tous les habitants de 300 et plus de maisons de ce village se réunirent alors autour de lui. Aucun ne pouvait se résoudre à la séparation, et toutefois la perspective de sa position empêchait de le retenir. Ce fut une scène aussi touchante que déchirante. Chacun semblait perdre en lui un père, un frère, un ami, et on ne peut la comparer qu'aux circonstances du départ des missionnaires des chrétientés. Il alla s'établir au district de Hong-san et recommença à travailler pour le bien de la Religion avec ferveur et constance quoiqu'avec moins d'éclat et de publicité.

Cette année encore T'soi Thomas dit P'il-kongi que nous avons vu ne pas craindre de crier tout haut dans les rues qu'il fallait nécessairement servir le grand Dieu du Ciel et de la terre, fut aussi saisi, probablement sur le bruit de la réputation qu'il s'était lui-même attirée, puis traduit devant le tribunal des Crimes. Interrogé sur sa Religion et ses sentiments, il répondit hardiment et à haute voix, là comme ailleurs qu'il fallait absolument suivre la Religion du Maître du Ciel et qu'il était disposé à en remplir toujours les devoirs. Les supplices auxquels il fut d'après cela soumis ne lui firent changer ni de sentiments ni même de ton. Il répondit toujours avec une simplicité, une franchise et une conviction qui mettaient tout le monde dans l'admiration. Le roi l'ayant appris admira et aima cette franchise, et ayant pitié de lui, il voulut lui conserver la vie et en conséquence commanda d'essayer

d'obtenir de lui par la persuasion quelques paroles qui pussent au moins pallier les choses. On s'appliqua donc à le séduire. Les ruses, les caresses et tout ce que l'on peut faire en pareille circonstance fut employé près de lui, mais en vain. Toujours la même constance et les mêmes réponses. Le roi cependant ne voulut pas permettre de poursuivre. Sur ces ordres le vieux père et le frère de Thomas furent appelés et par leurs larmes et supplications ils essayèrent d'émouvoir ce coeur généreux insensible à tous les efforts. Thomas fut fort impressionné. Tous les sentiments de la nature étaient révoltés. Toutefois il ne se rendit pas et dit encore que quoiqu'il en fût il ne pouvait se résoudre à renier son grand roi et son grand père. Tous les moyens et toutes les ressources étaient épuisés sans succès, il ne restait plus qu'à sévir selon toute la rigueur des lois, et plusieurs fois le ministre des Crimes demanda à poursuivre l'exécution et le roi ne voulut jamais y consentir. A la fin, le ministre, ayant lui-même compassion de P'il-kongi, fit dire au roi qu'il avait fait une toute petite soumission quoique ce ne fût pas, et aussitôt le prince louant beaucoup son bon esprit et son obéissance lui fit donner une belle place parmi celles que peuvent occuper les familles de médecins, et dans une autre affaire encore se félicita du changement d'idées de P'il-kongi. Celui-ci, soit qu'il eut réellement fait une légère soumission comme le prétendent quelques autres, soit qu'il eut enfin senti qu'il était de son devoir de réclamer contre des paroles qu'il n'aurait pas proféré, tomba bientôt dans une grande tristesse, se mit à pleurer sa faiblesse et se laissa même aller quelque temps au découragement. Mais

peu après, touché d'un vrai repentir il reprit sa première ferveur avec la fidélité à tous ses devoirs et nous le verrons encore appelé à confesser de nouveau sa foi.

Ici se termine ce qui nous a été conservé sur cette année 1791, qui vit prendre naissance à la première persécution véritable que la Religion eut à subir en Corée. Quoique le nombre des combattants n'ait pas été considérable chaque parti commença dès lors à s'y montrer à découvert. La position du catholicisme était toute faite. ici comme toujours c'est la vérité mais pure et entière. La devise du Chrétien, c'est la fidélité, l'amour, le dévouement pour Dieu, le grand roi de l'Univers, le père de tous les hommes, et cela au prix même de son sang propre. Ses adversaires y entreprennent la défense de leurs vieilles traditions dont les fondements mis à découverts ne présentent déjà que vide et faiblesse mais qu'ils veulent soutenir par la ruse, le mensonge et la calomnie qu'ils mettent en jeu pour faire donner la mort aux chrétiens.

Le combat est réellement engagé. Nous voyons au milieu des partis un roi non partisan de la Religion, il est vrai, mais loin de partager à son égard les opinions violents des accusateurs. Sage, réservé, juste appréciateur des grands hommes et avare du sang de ses sujets, il n'a pas encore pris un parti définitif et il continuera sur ce pied. Et quoique sa faiblesse n'ait pu empêcher l'effusion du sang, il ne fut pas persécuteur.

Le triomphe de nos deux glorieux martyrs ne fut pas effacé aux yeux du public par la faiblesse de quelques-uns des combattants. Cette faiblesse elle-même,

par toutes les circonstances qui l'accompagnèrent, fut aux yeux de presque tous un triomphe pour la foi, et vaincus ils ont été dans ce pays regardés comme vainqueurs. Aussi la chrétienté intimidée de toutes parts ne fut pas découragée, et se remit presque aussitôt sur son premier pied. On ne signale pas de nouvelles défections, tandis que les rangs se resserraient peu à peu de toutes parts.

Ni Pieki et Kouen Xavier n'étaient plus; Ni Seng-houn i avait déserté les drapeaux. Les chefs éminents avaient donc disparu. Il est vrai que Kouen T'siel-sin i, frère aîné de Xavier, et l'illustre famille des Tieng étaient toujours là et se montraient fidèles; mais peu mêlés aux affaires extérieurs ils ne dirigèrent jamais à proprement parler la chrétienté. A partir de ce moment T'soi Jean (Voici ce que dit Hoang Alexandre de T'soi Jean: "Le catéchiste en chef T'soi Jean était neveu éloigné de T'soi Mathias décapité en 1795, appliqué à bien instruire sa maison, il fut quand la Religion pénétra en Corée, un des premiers à l'embrasser; calme, prudent, éclairé et diligent, il passa ses 20 ans sans varier un instant, et à la beauté de ses exemples il joignait une parole toujours droite et douce. Aussi quelqu'un se trouvait-il dans la peine ou la tristesse à raison de quelque doute, ou contrariété, à peine avait-il vu Jean que ses doutes ou sa tristesse diminuait, toute difficulté disparaissait, et après avoir entendu quelques mots de sa bouche, il avait le coeur au large et tout était résolu. Expliquait-il les vérités de la Religion, il le faisait avec précision et clarté et savait les faire goûter. Il parlait sans apprêt et sans chercher à plaire et toutefois chacun l'écoutait avec plaisir et sans se lasser, toutes ses paroles

pénétraient bien avant dans le coeur et les auditeurs en retiraient un grand fruit. Très résigné à la volonté de Dieu, l'humilité lui était comme naturelle et quoiqu'il n'y eût dans sa conduite rien de frappant, on ne pouvait jamais y voir rien de répréhensible, aussi était-il le premier des chrétiens pour la vertu et l'estime qu'on en faisait, personne qui ne l'aimât et n'eût confiance en lui." Ce tableau montre bien qu'en tout pays la vraie vertu est la même et toujours aussi appréciée.) surnommé Koan-t'sien i, et T'soi In-kiri nommé Mathias, hommes zélés et capables mais de la classe moyenne, et qui n'avaient pour eux ni les talents ni l'influence des hommes éminents qui n'étaient plus. Cependant la Religion n'en souffrira pas et continuera ses pas progressifs d'une manière non moins réelle quoique peut-être moins éclatante aux yeux des payens. Et s'il est permis de sonder la conduite de la Providence, ne semble-t-il pas qu'après avoir excité le premier ébranlement par le moyen de quelques grands noms environnés de science, elle a voulu presque aussitôt les faire disparaître pour montrer que la Religion n'en a pas besoin. Leçon bien nécessaire dans ce pays surtout, où en égard à l'enthousiasme et à l'entrain qu'attire tout ce qui est docte et savant, et au respect qu'impose une haute naissance, il eut été à craindre que le christianisme ne fut considéré lui-même que comme une de ces belles doctrines philosophiques, purement naturelles qui après avoir jeté quelque éclat et ébloui quelque temps les yeux doivent nécessairement passer, ut non evacuetur Crux Christi. C'est donc sur ce nouveau pied que nous allons désormais essayer de suivre

la marche des événements.

Après 1791. (1791. Le Père Jean à remediis vint sur les frontières de Corée, mais ne rencontrant pas les chrétiens il s'en retourna et mourut bientôt après.)

L'Evêque de Péking avait promis un prêtre et ordonné de tout préparer pour l'introduire sûrement. Il était désiré par tous les chrétiens au delà de ce que l'on peut se figurer. Mais la persécution et la mort du grand chef empêchèrent pour le moment d'essayer de le recevoir. (Lettre de l'Evêque de Péking)

Après ce que nous avons rapporté il ne paraît pas qu'il y ait eu de grandes vexations à la Capitale. Le roi n'était pas pour les partis extrêmes et sa modération contient sans doute ceux qui auraient voulu frapper des coups plus décisifs. La province où les choses ont moins de retentissement et où chaque grand mandarin est un peu son maître ne fut pas aussi tranquille, et il paraît que le Nai-p'o en particulier (1792) ne cessa guères de supporter la persécution. Quoique peu de données nous soient restées, le district de Hong-tsiou devait donner le branle et ouvrir l'arène aux braves.

Dans le courant de l'année 1792, la famille Ouen très connue pour sa Religion devait entrer au tribunal criminel de Hong-tsiou sans que l'on sache positivement la cause de cette prise.

(Ouen Jean, petit-fils de Pierre, âgé de 64 ans, dit que son grand-père fut martyrisé de suite après l'affaire de Ioun Tsi-t'siong i en sin-hai 1791, mais étant contredit par un autre parent de 78 ans, nous ne savons quel parti prendre et laissons les choses telles qu'elles.)

(En 1793 Tsi Sabas et Jean Paik (Po) vont à Péking et obtiennent un Prêtre. On ne le fit entrer que l'année suivante.)

(Copier la vie de Ouen Pierre telle que je l'ai mise dans 'le choix des martyrs'.)

Tel fut le premier martyr connu à la ville de Hong-tsiou et probablement ce fut la seconde exécution publique. Il est resté en grande vénération surtout dans le Nai-p'o d'où il était et il marche dignement à la tête des nombreux imitateurs qu'il eut dans cette partie de la Corée.

Il est vraisemblable qu'il eut à cette occasion d'autres vexations; elles ne nous sont pas parvenues. Nous trouvons encore une persécution à Hong-tsiou en 1794. La violence et l'étendue de cette affaire sont inconnues. Pak Paul dit Kieng-hoa eut le malheur d'apostasier. Nous le verrons se venger en 1827.

Hoang Paul qui n'obtiendra sa couronne qu'en 1813 paraît avoir généreusement confessé sa foi devant ce même tribunal. (Un chrétien a entendu dire à un ou deux vieux payens que les famines n'étaient fréquentes en Corée que depuis l'année 1794. Il faudrait des recherches pour l'assurer. Si le fait est vrai ce serait une punition de la Providence sur les Coréens qui rejettent la Religion.) Natif du village de Ouni au district de T'sieng-iang, il pratiquait avec ferveur quand tout à coup il fut saisi et conduit devant ce mandarin qui lui dit: "Renie Dieu, injurie-le et je te permets de te retirer." Paul répondit: "Injurier Dieu, c'est ce que les animaux eux-mêmes ne pourraient faire, comment un homme qui a une âme spirituelle pourrait-il l'oser?" Il fut battu à mort avec la

terrible planche à voleurs. Ses forces étaient entièrement épuisées et il fut remis mourant à la prison sans avoir faibli. Il revint à la vie par les soins des prisonniers. Le mandarin surpris qu'il ait survécu lui imposa le métier de fustigateur, puis trois mois après le relâcha. Des douze chrétiens pris alors avec lui, il paraît avoir été seul fidèle à son devoir et à son Dieu.

A la capitale, quoique nous ne voyions ni martyrs ni emprisonnements, les ennemis de la Religion ne dormaient pas. Il y eut cette année divers conciliabules de nobles fort significatifs et qui montrent où on voulait en venir. (On signalait surtout Kim Ni et Kong Ni-t'sien i comme partisans de la Doctrine perverse et le roi nomma Ioun Haing-im i ministre des Crimes pour s'informer de tout.) Ils ne firent pas toutefois grand éclat et quelques défections seulement s'en suivirent par les vexations particulières des parents et amis.

La jeune chrétienté avait grandi seule et sans le secours d'aucun ministre du Seigneur. Par une disposition peut-être inouïe elle avait su ainsi se fortifier sans aucun conducteur et elle avait pu faire ses preuves jusque sur les échafauds. (Dès les premières années, dit un ancien mémoire, beaucoup de chrétiens s'étaient élevés au dessus des choses du monde, beaucoup aimaient vraiment le prochain comme eux-mêmes, beaucoup aussi amateurs de la chasteté ont su la conserver précieusement. Tout ceci est autant de traces frappantes des lumières de la protection et de la conduite directrice du St. Esprit; mais....) Il était bien temps que Dieu l'encourageât et la récompensât par la présence d'un pasteur. Les difficultés

qui avaient arrêté jusque là aplanies sans doute et le désir de posséder l'envoyé de Dieu doublant de jour en jour, T'soi Jean dit T'siang-hieni et ses amis se concertèrent pour envoyer à Péking des conducteurs sûrs. Il fut décidé que Ioun Paul dit Iou-iri qui avait déjà fait (2 fois?) le voyage de Péking se mettrait à la tête de l'expédition et serait accompagné par Tsi Sabas dit T'siang-hongi, pendant que l'on préparait à la Capitale une maison dont T'soi Mathias dit In-kiri devait être le chef. Tous ces noms sont déjà connus. (Pai Mathias du Nai-p'o est signalé aussi comme ayant fait partie de l'expédition. Il était sans doute en sous ordre. Vraisemblablement son séjour en province et son nom moins connu lui firent échapper la mort en 1795. Il ne fut saisi et exécuté que six ou sept ans plus tard. Les courriers n'allèrent pas jusqu'à Péking. Ils introduisirent le Prêtre dans la nuit du 23 décembre 1794.) Les deux vaillants courriers partirent donc à la grâce de Dieu vers la fin de cette année 1794. Ils purent heureusement éviter les nombreux dangers de la route. (Ils) Rencontrèrent le P. Tsiou à Péking et on convint de le faire entrer au moment du retour de l'ambassade vers la 3ème lune de l'année suivante. Arrivés à Pien-mien un chrétien de cette ville prêta sa maison et son concours pour tout préparer. Le Prêtre y changea d'habits, arrangea ses cheveux à la Coréenne et franchissant avec le fleuve Apno la terrible barrière, on rencontra de nouveaux chrétiens qui conduisirent le Prêtre jusqu'à la Capitale. C'était à la fin de la 3ème ou au commencement de la 4ème lune 1795. (Une lettre d'Europe dit que les courriers n'allèrent qu'à Pien-mien pendant l'hiver et y introduisirent

le Prêtre dans la nuit du 23 décembre 1794. D'autres notes semblent contredire. c'est obscur. Du reste il peut se faire qu'étant entré en décembre et resté caché jusqu'à Pâques, les chrétiens aient cru qu'il n'était entré qu'au printemps.)

Il fut reçu dans la maison qu'avait préparé T'soi Mathias au quartier nord de la ville et fut regardé et traité comme un Ange descendu du Ciel.

Le Père Tsiou, appelé Velloze ou Vellozo par les Portugais, (Le P. Tsiou est dit dans quelque lettre d'Europe avoir changé son nom en celui de Ni, nous n'osons nier le fait, mais il n'est connu des chrétiens d'ici que sous le nom de P. Tsiou et les actes civils de son procès l'appellent de même, nous le nommerons toujours ainsi.) était originaire de Sou-theou au Kiang-Nan en Chine et avait exercé le ministère dans le diocèse de Péking sous l'Evêque Tang qui l'envoya en Corée. Quoique Chinois et ayant la figure peu différente des Coréens, dans les commencements ne pouvant parler ni manger comme les autres et ne sachant pas porter ses habits, il ne pouvait paraître devant les payens.

Les chrétiens étaient au comble de leurs vœux, ils possédaient enfin le pasteur attendu depuis tant d'années et chacun brûlait du désir de le voir comme de recevoir les Sacrements. Bientôt l'affluence fut extrême. Le Prêtre peu au courant des choses du pays et les chrétiens n'ayant pas de chef parmi eux, tout se faisait sans ordre et sans garder les précautions que la prudence devait suggérer; chacun ne pensait qu'à son bonheur et à réaliser ses désirs, et en telles circonstances le Coréen est un

véritable enfant. (Voir les lettres édif.)

Peu de temps s'était à peine passé que le bachelier Han leng-ik i de famille noble et commençant depuis peu à pratiquer la Religion sans avoir la foi consolidée, voulut aussi voir le Prêtre et parvint à se faire introduire chez lui, mais aussitôt des desseins pervers s'élevèrent dans son coeur. Il alla rapporter tout ce qui se passait au frère de Ni Piekî ennemi de la Religion et en faveur à la Cour. (Le président des ministres était alors Hong Nak-sieng.)

Le grand ministre T'sai fut informé de tout par celui-ci et bientôt le roi lui-même. De suite l'ordre fut donné au grand juge criminel T'sio Kiou-tsin i d'envoyer à l'instant des satellites prendre l'étranger sans aucun bruit. (Le 27 juin) Heureusement les chrétiens, qui se défiaient un peu du traître, épiaient toutes ses démarches, et ayant connu toutes ses déclarations et les ordres qui s'en étaient suivis, on vint avertir le Prêtre, qui sortit sur l'heure et se réfugia chez quelqu'autre chrétien. T'soi Mathias, maître de maison du Père, resta seul pour la garder. Sans se déconcerter et sachant bien qu'il ne pourrait y échapper, il conçut la pensée de mettre le père entièrement en sûreté en se faisant passer pour le Chinois et se coupant immédiatement les cheveux pour contrefaire l'étranger, il attendait paisiblement. Peut-être aussi étant d'une famille d'interprètes, pouvait-il parler facilement le chinois. Les satellites vinrent en effet aussitôt et le saisissant lui demandèrent: "Où est le Chinois?" "C'est moi", répondit-il. On l'emmène mais bientôt on s'aperçut de la méprise, car le père Tsiou avait désigné comme ayant une belle barbe dont Mathias ne pouvait se flatter d'être bien pourvu. On

se mit donc en devoir de rechercher le Prêtre, et il n'aurait sans doute pu échapper si le roi craignant de léser beaucoup d'innocents n'avait recommandé de faire les choses sans tumulte et avec modération.

Ioun Paul et Tsi Sabas et 5 autres chrétiens ayant été bientôt pris l'ordre du roi fut de tuer les trois introducteurs (Tsi Sabas avait 29 ans. Ioun Paul 36 et T'soi Mathias 31.) immédiatement et de s'arrêter là. (T'soi Mathias, dit In-kiri, joignit à la gloire du martyre celle se s'être livré en place du Prêtre pour essayer de conserver son pasteur au troupeau, car s'il eût fui, il eût pu avoir quelque chance de se conserver la vie. Il doit participer aux mérites d'un pasteur qui donne sa vie pour ses brebis.) (Aussi les 5 chrétiens qui avaient généreusement confessé la foi au milieu des plus cruelles tortures furent mis en liberté comme n'ayant pas participé à l'entrée du Prêtre. Sabas, Paul et Mathias excitèrent contre eux toute la fureur du juge par leur fermeté et déconcertèrent ses ruses par la sagesse de leurs réponses. Une profession de foi claire et généreux était la seule réponse qu'ils faisaient aux questions concernant l'étranger, son arrivée et son domicile. Pour leur arracher des aveux compromettants on les accabla de coups, on leur disloqua les bras et les jambes, on leur écrasa les genoux, mais rien ne put fléchir leur courage ni lasser leur patience; une joie toute céleste anima leurs coeurs et leurs visages au milieu de ces affreux tourments, jusqu'au moment où ils consommèrent leur glorieux triomphe.) On les fit mourir la nuit de ce même jour dans la prison et leur corps furent jetés à la rivière le 12 de la 5e lune (28 juin 1795).

Ce qui ne laissa pas de faire grand bruit. Un dignitaire nommé Kouen Iou voulut profiter de la circonstance pour faire périr Ni Ka-hoani et autres chefs du parti Nam-in. Mais le roi sachant que c'était une calomnie ne permit pas de poursuivre. un autre fit une adresse au roi pour demander de lâcher les satellites et de pousser les choses; il n'y consentit pas non plus. Pendant trois jours il y eut hésitation sans que l'on pût en savoir la cause et les choses en restèrent là. (On se borna à prendre des mesures sévères pour empêcher toute communication avec la Chine et la conversion de nouveaux néophytes. Mais à cette occasion nous trouvons encore beaucoup d'adresses au roi et de circulaires des nobles entr'eux qui dénotent combien l'agitation fut grande et montrent en même temps la haine décidée à porter les choses à l'extrémité.)

Ainsi recueillirent la palme du martyr les trois chrétiens qui s'étaient donnés tout entiers à l'introduction et au service du Prêtre. Dieu permit que T'soi Jean dit T'siang-hieni échappât et pût encore continuer de rendre à la mission les services qu'il lui avait déjà consacrés depuis bien des années.

Le traître Han Ieng-iki fut loin d'être content des suites de sa honteuse conduite. A l'automne de cette même année, il mourut d'une manière assez misérable, hors de chez lui. A l'heure de la mort il pleurait et poussait sans cesse de grands gémissements et disait lui-même se repentir de ses péchés.

Le P. Tsiou ainsi proscrit et poursuivi dès son entrée avant même d'avoir pu s'habituer au lanage et aux usages du pays dut désormais se tenir entièrement caché et

prendre les plus grandes précautions. Les chrétiens eux-mêmes ignorèrent sa retraite pendant la plus grande partie du temps. C'est Kang Colombe qui eut le courage et le mérite de le retirer chez elle et nous devons faire ici connaître cette femme célèbre qui joua à cette époque un si grand rôle dans l'histoire de la chrétienté.

Kang Colombe, appelée Oan-siouki dans les actes de son procès, naquit dans quelque partie du Nai-p'o d'une famille payenne descendant de nobles bâtards. Elle montra dès l'enfance une pénétration d'esprit remarquable, jointe à un caractère ferme, droit et courageux, ne se permit jamais une mauvaise action et supportait avec une rare patience le caractère acariâtre de sa mère. Remplie de vues élevées, son âme aspira de bonne heure vers quelque chose de grand et elle songeait à devenir une sainte femme (style payen). Mais n'en connaissant pas d'autres moyens, elle suivait les autres, s'adonnait à la Religion de Foe et avait le dessein de quitter le siècle pour se livrer toute entière aux pratiques de cette secte. Quand parvenue à l'âge de dix et quelques années, ses connaissances s'étant développées, elle découvrit la futilité de cette religion et cessa de la suivre. Arrivée à l'âge nubile elle fut donnée en mariage en secondes noces au noble Hong Tsiengi vivant au district de Tek-san, et alors veuf. Il était d'une famille bâtarde et parent éloigné de Hong Nak-min i dont il a été parlé plus haut. Son mari était un homme simple et un peu stupide. Colombe avait peine à vivre en harmonie avec lui et se trouvait souvent dans l'anxiété; et cependant elle savait par ses prévenances et sa douceur gagner l'affection de sa

belle-mère dont le caractère était assez difficile. La Religion chrétienne se répandant alors beaucoup dans les environs, Colombe en entendit parler à un des parents de son mari. Le mot seul de 'Religion du Maître du Ciel' la frappa tout d'abord. Elle se dit: le Maître du Ciel, ce doit être le Maître du Ciel et de la terre, le nom de cette Religion est juste, sa doctrine doit être vraie. Elle demande des livres et à peine en a-t-elle pris connaissance que son intelligence en saisit la vérité, son coeur la beauté et son âme toutes les grandeurs. Elle s'y attache pour toutes les puissances de son être et du premier pas aspirant aux vertus héroïques, son assiduité, sa ferveur et sa mortification surpassèrent tout ce qu'on en pourrait croire. De suite elle s'applique à la conversion de sa maison et des villages voisins. Son mari auquel elle ne manquait pas de sonner son soins, n'avait aucune portée d'esprit. Quand Colombe l'exhortait il disait "C'est vrai, c'est vrai.", et se rendait à elle, puis quand les ennemis de la Religion la décriaient, il remuait la tête en signe d'approbation et croyait leurs paroles; que sa femme l'en réprimandât il versait des larmes et regrettait ses fautes, puis si de mauvais amis revenaient, il faisait encore comme auparavant. Colombe donc malgré tous ses efforts n'aboutissait à rien et elle vit bien qu'elle ne pourrait parvenir à le faire pratiquer ni en tirer aucun parti. Sa belle-mère aussi fut l'objet de son zèle, mais quoiqu'elle eût commencé à savoir craindre Dieu et à réciter les prières chrétiennes elle ne pouvait se résoudre à quitter le culte des ancêtres. Colombe l'exhorte sans cesse et surtout prie avec ferveur; Dieu fera un miracle

pour seconder les efforts de sa généreuse servante. Un jour la belle-mère balayait elle-même la salle des ancêtres, tout à coup un fracas horrible s'y fait entendre, les poutres et les colonnes en sont ébranlées; saisie de frayeur, elle alla se jeter dans les bras de sa bru et comprit enfin la vanité de ses superstitions. Après cette victoire, Colombe convertit encore son père et sa mère qui moururent tous deux d'une manière très édifiante. En l'année (1791) sin-hai, la persécution ayant fait éclat dans le pays où elle était, Colombe fut même arrachée et conduite près du gouverneur de Kong-tsiou, nous ignorons comment les choses se passèrent. Mais il ne paraît pas qu'elle eût alors de tourments à subir ni qu'elle ait apostasié et fût rendue à la liberté. Peu de temps après, soit par désir de vivre dans la continence comme quelques-uns le prétendent, soit pour vivre au milieu de chrétiens plus fervents ou pour d'autres raisons, elle se sépara de son mari (la sentence de Colombe porte "chassée par son mari", si ces mots sont exacts, il serait permis de présumer que celui-ci effrayé par la persécution et n'ayant pas envie de pratiquer lui aurait dit de se retirer de chez lui, ce qui se fait quelques fois dans ces pays.), lui confia le soin de ses terres et monta à la Capitale accompagnée de sa belle-mère, de sa fille (Il est certain qu'une fille de Colombe fut exilée en 1801 après apostasie, quelques-uns prétendent qu'une fille aînée fut alors martyre, mais nous n'en retrouvons aucune trace.) et de Hong Philippe, fils qu'avait eu son mari d'un premier lit, et celui-ci prit une concubine en sa place. Elle aida beaucoup Tsi Sabas pour ses voyages de Péking et à

l'arrivée du Prêtre en 1795, elle se fit bientôt baptiser. Le Prêtre l'eut à peine vue qu'il apprécia son mérite, fut rempli de joie et la nomma catéchiste chargée de tout ce qui concernait l'instruction des femmes, emploi dont elle s'acquitta avec autant d'activité que d'intelligence. Cette même année à la 5ème lune, le Prêtre ayant été trahi et courant les plus grands dangers, Colombe forme le projet de le cacher et arrangeant tout à elle seule, le cacha dans son bûcher et le nourrit pendant trois mois à l'insu de sa belle-mère et de son fils Philippe. Il paraît toutefois que les satellites en eurent vent car ils allèrent jusqu'à la porte de sa maison, puis n'osant en franchir le seuil ils se retirèrent. Colombe affligée de ne pouvoir offrir au Prêtre un asile plus commode parce qu'elle voyait bien sa belle-mère très éloignée de ses généreuses dispositions, entreprit toutefois de toucher son coeur. Elle se mit à pleurer et gémir presque continuellement, puis en vint à perdre l'appétit et ne dormait plus. La belle-mère craignant pour les jours de sa bru, voulut savoir la cause de son chagrin; Colombe répondit: "Le Père est venu au péril de sa vie pour sauver nos âmes, nous n'avons rien fait pour reconnaître ses bienfaits et il est sans aucun asile; l'homme n'étant pas de pierre ou de bois, comment pourrait-il ne pas en être vivement affligé? Je vais donc m'habiller en homme et parcourir le pays pour tâcher de le trouver et de le secourir." La belle-mère répondit en pleurant: "Si vous agissez ainsi, qui aurai-je pour appui? Je vous suivrai donc et mourrai avec vous." "Vénérable Mère. reprit Colombe, je suis bien consolée de voir à quel degré de vertu vous êtes arrivée; je ne craindrais pas

certainement d'exposer ma vie pour trouver le missionnaire. Cependant vu les circonstances du temps nous nous exposerions inutilement et ne pourrions le rencontrer. Mais le Seigneur du Ciel sait tout et pénètre le coeur des hommes, il voit notre bonne volonté, y aura égard et permettra peut-être que le Père vienne près de nous. Vénérable Mère, s'il se présentait oseriez-vous le recevoir dans votre maison? Si vous me donnez votre parole d'honneur que vous y consentez, votre fille aura de suite l'âme en paix, reprendra sa joie et s'acquittera envers vous, jusqu'à la mort, des devoirs de la piété filiale." La mère répondit: Je ne veux pas me séparer de vous, faites tout ce que vous voudrez. Aussitôt Colombe, tressaillant de joie, se rend à la cachette du Prêtre, le fait entrer à la salle d'honneur et il y demeura pendant 3 ans en toute sécurité, protégé par l'usage qui défend aux étrangers l'entrée des maisons des nobles.

Après un certain temps le danger paraissant moindre, le P. Tsiou s'occupa de l'administration des chrétiens; il semble toutefois avoir eu jusqu'à la fin la maison de Colombe pour domicile habituel et quand il en sortait elle seule savait où il allait. On prit des précautions extraordinaires pour cacher ses pas et ses démarches, il ne communiquait qu'avec les chrétiens réputés les plus sûrs et beaucoup de pratiquants surtout en province soupçonnaient seulement sa présence sans en avoir la certitude. Il se montrait même peu aux différents membres des familles dans lesquelles il se trouvait et plusieurs des serviteurs même chrétiens pouvaient seulement deviner sa présence sans qu'on leur avouât. Aussi la tradition n'a rien

laissé sur ses travaux apostoliques; on sait seulement qu'il allait de temps en temps à la Capitale chez Tieng Augustin, appelé lak-tsiong, chez Hoang Alexandre, dit Sa-iengi et chez Hong Antang (Antoine). Il fut aussi plusieurs fois et probablement séjourna quelque temps au palais Iang-tsiei-kong, autrement appelé Hiei-kong. Ce palais appartenait à un frère bâtard du roi, appelé Ni In ou encore Il-oang-son. Son fils nommé Tam ayant, dit-on, pris part à une conspiration, avait été mis à mort et le père Ni In avait été envoyé en exil à l'île de Kang-hoa, mais malgré des instances réitérées de la part des grands pour le faire mettre aussi à mort, le roi ne l'avait pas permis. La femme et la belle fille veuve de l'exilé étaient restées dans ce palais. Vers 1791 ou 92, une chrétienne ayant pitié de leur triste position leur parla de la Religion et elles se convertirent, mais personne ne voulait communiquer avec elles, sous prétexte que cela attirerait des affaires dangereuses. Colombe ne craignit pas tant, elle alla les trouver et leur fit même recevoir les sacrements. L'épouse du prince exilé s'appelait Song Marie et sa belle fille veuve Sin Marie; toutes deux ferventes chrétiennes s'agrégèrent même plus tard à la confrérie dite Mieng-to et beaucoup de chrétiens concevaient toujours de l'inquiétude sur les rapports avec ce palais. Le Prêtre allait donc là de temps en temps; les princesses avec plusieurs de leurs esclaves qu'elles avaient converties disposaient tout pour le service du Prêtre, il y était caché dans une chambre séparée attenante par le mur à la maison de Hong Antang où se trouva aussi la famille Tsio de Siou-heng, et on avait pratiqué un trou à ce mur pour

pouvoir communiquer secrètement; c'est même de ce palais et par cette maison que sortit le Prêtre quand il alla se livrer en 1801. On croit généralement que le prince exilé eut connaissance de ce qui se passait ainsi à ce palais mais on assure de toutes parts qu'il ne pratiqua aucunement.

En province le P. Tsiou alla dans la famille de Ioun Paul, son introducteur, au district de Nie-tsiou. Il alla aussi chez Niou Augustin, dit Hang-kemi, à T'sonami, district de Tsien-tsiou, province de Tsien-la et semble y être resté un certain temps; c'est sans doute lors de ce voyage qu'il alla au district de Ko-san près de là, puis dans les districts de Nam-p'o, Kong-tsiou, On-iang et dans le Nai-p'o où il paraît bien avoir fait une apparition. Il ne nous reste d'ailleurs aucun détail sur ces courses et leurs dates, il est seulement certain que la plupart des pratiquants ne purent alors avoir part à la réception des sacrements.

A la Capitale, Colombe se chargeait de tous les soins à l'intérieur pour l'entretien et la nourriture du Prêtre et il n'avait qu'à se féliciter de ses services. La confiance qu'il avait en elle fit qu'elle prit part en outre à l'extérieur à toutes les affaires importantes de la chrétienté et ses entreprises n'étaient jamais sans réussir. Dans l'arrangement des affaires, elle avait de la détermination et de la fermeté et de plus quelque chose de sévère et d'imposant qui la faisait respecter de tous. Son zèle était dirigé par une prudence qui savait mettre en toutes choses un ordre parfait, aplanir les obstacles et éclaircir les affaires les plus obscures. Elle se portait de tous côtés

pour répandre la Religion, y employant la nuit comme le jour, se réservait rarement le temps de dormir tranquillement et joignant à une instruction solide une grande facilité de parole, elle persuada et convertit beaucoup de monde. Dans ce nombre se trouvait beaucoup de femmes de familles mandarines. La loi du royaume ne faisant subir aucun supplice aux femmes de maison noble hors le cas de rébellion, ces femmes ne s'inquiétaient pas de la prohibition du gouvernement et le Prêtre espérant trouver là un grand appui pour propager et faire fleurir la Religion les traitait avec une libéralité toute spéciale, au point, dit un mémoire de l'époque, que toute l'influence semblait avoir passé entre les mains des femmes. Colombe réunissait aussi grand nombre de jeunes filles et les instruisait solidement. Elle fut aidée dans cette tâche par Ioun Agathe, vierge qui s'était retirée près d'elle et dont nous verrons l'histoire plus tard. Ces jeunes filles après leur maïage se répandant dans beaucoup de maisons, instruisaient d'autres personnes et les amenaient à la foi. Tous ces travaux mettaient de fait Colombe à la tête de la chrétienté, tous ceux qui la connaissaient s'inclinaient devant la supériorité de ses vertus et de son caractère, et tous l'appelaient le bouclier, la forteresse de la chrétienté. Mais en même temps le bruit de tant de conversions se répandait de plus en plus et l'affaire de la Religion devenait pour la Religion une affaire des plus graves.

Tels sont les seuls détails qui nous soient restés sur les travaux que fit ou dirigea le P. Tsiou, et ne pouvant espérer les lier à quelqu'époque, nous avons dû les réunir ici tels quels. Une tradition assez respectable rapporte

aussi qu'un jour se trouvant au quartier T'san-kol à la Capitale, il s'éleva dans la ville un incendie qui durait déjà depuis près de 24 heures. Le Prêtre désolé de ses affreux ravages et ne pouvant aller lui-même sur les lieux envoya le jeune Song, père de Song Philippe, avec de l'eau bénite avec ordre d'en jeter sur le feu et lui cependant se mit en prière. Le jeune homme arrivé sur les lieux jeta de l'eau bénite sur les flammes du côté où il ne restait que des ruines et les ravages cessèrent par le seul fait.

En 1796, le P. Tsiou écrivit à l'Evêque de Péking pour lui rendre compte de sa mission et lui faire connaître sa position. Jusqu'alors les perquisitions et l'état de surveillance ne lui avaient pu permettre de le tenter. Le courrier fut cette fois Hoang Thomas, dit Sim i, d'une famille honnête de Liong-meri au district de Tek-san. Quelques-uns disent qu'il avait été du nombre de ceux qui attendaient le Prêtre à Ei-tsiou (1ère ville frontière vis à vis de Pien-men) lors de son entrée. Il fut obligé d'acheter à prix d'argent une place de domestique auprès d'un des membres de l'ambassade. Le voyage fut heureux et les lettres furent remises à l'Evêque le 28 janvier 1797. Dans ces lettres le Prêtre parlait des moyens de procurer la paix à l'Eglise coréenne. Le meilleur lui paraissait être de faire demander un ambassadeur au Portugal pour venir saluer le roi pacifiquement, et faire alliance avec lui. Il devrait être accompagné de prêtres fort instruits en mathématiques et en médecine que l'on se flattait de faire rester et traiter honorablement par égard pour l'ambassade; nous ignorons si la demande en fut faite au Portugal. Mais tout le monde sait que cette ambassade ne

fut jamais envoyée, on l'attend encore aujourd'hui.

Ni Louis de Gonzague, malgré son apostasie de 1791, avait repris une partie de sa ferveur et chercha de nouveau à augmenter le nombre des néophytes. Il paraît certain qu'il vit le P. Tsiou et fut même probablement un certain temps près de lui. Le Prêtre lui répétait, dit-on, souvent: "Après tous tes méfaits et avoir follement administré les sacrements sans autorité, comment pourrais-tu assez faire pénitence? Le martyr seul pourra te les faire pardonner." Aussi Louis se livrait volontiers à toutes les fatigues et travaux pénibles et pensait sans cesse à se préparer au martyr pour expier ses fautes. Nous ignorons les circonstances qui excitèrent une nouvelle tempête contre lui, mais des ordres du gouverneur étant survenus, il fut repris probablement vers la fin de 1795 par son propre mandarin et envoyé à T'sieng-tsiou, chef-lieu militaire de la province. Il y subit la question et de violents supplices et ne se rendant pas il fut renvoyé à sa propre ville de T'ien-an, peut-être mis au rang des fustigateurs, punition en usage dans ce pays et très dégradante pour un homme de condition. Le mandarin toutefois ne lui fit pas exercer ce vil métier et se contenta de le placer chez un particulier sous caution. Il resta ainsi mi-prisonnier pendant 5 ou 6 ans, c.à.d. jusqu'à l'époque où reprit son procès en 1801. Il enseignait les lettres à beaucoup d'enfants des prétoriens et ses talents supérieurs joints à une vertu éclatante le firent aimer et respecter de tous. Ordre était donné de le mettre à la question le 1er et 15 de chaque mois jusqu'à ce qu'il se rendit et ces ordres durent être exécutés, toutefois il

est plus que probable qu'étant fort ami des prétoriens, on ne dut pas l'y faire beaucoup souffrir, du moins la plupart du temps. Du reste Louis ne paraît pas avoir failli, dans ces épreuves il pratiqua constamment sa Religion ostensiblement et put faire quelque bien dans ce pays. Ayant un jour obtenu permission d'aller visiter sa famille à le-sa-ol, il s'y informa de l'état de la Religion dans le village. Il apprit alors que poussé par la crainte on avait réuni tous les livres de Religion et en formant un bûcher les avait brûlés publiquement sur la place. A cette nouvelle il ne put retenir ses larmes et pleura amèrement tant de défections. puis s'informant si aucun volume n'avait échappé au funeste incendie un de ses parents apporta deux volumes qui avaient été secrètement soustraits, c'est tout ce qu'il en restait. D'où on peut juger de la position déplorable où était tombé ce grand village qui comptait autrefois tant de fervents chrétiens. La captivité de Louis le retenant ainsi, nous ne le verrons plus prendre part à aucune affaire, nous le suivrons seulement plus tard au moment de son dernier procès.

L'année 1796 nous offre un généreux confesseur qui pour n'être pas mort dans les supplices n'en eut pas moins de mérite devant Dieu et est bien digne aussi de trouver place sur nos tablettes édifiantes. Kim Thomas était son nom, connu aussi sous le titre de Kim P'ong-hen qui veut dire chef de canton. Né d'une famille du peuple au district de T'sieng-iang, province de T'siong-t'sieng, il avait un caractère droit et ferme, n'était pas sans quelque instruction et sur la demande du peuple fut nommé chef de canton. Ayant embrassé la Religion, il resta dans sa

charge, pratiquait avec ferveur, se livrait assiduellement à la prière et aux lectures, instruisant soigneusement sa famille et vivait en parfaite harmonie avec tout le monde. En l'année Pieng-tsin(1796), saisi et conduit à la préfecture de T'sieng-iang il eut de violents supplices à supporter, et on alla jusqu'à lui brûler du moxa sur l'anus sans pouvoir lui faire renier sa foi. Ayant fait rougir au feu un soc de charrue, on lui dit de monter dessus pieds nus et il se disposait à le faire, mais on l'arrêta en disant qu'il était fou. C'était la sainte folie de la croix! Condamné à mort trois jours avant l'exécution on lui barbouilla le visage de chaux et lui fit faire le tour du marché au son de la caisse. Mais sur ces entrefaites le mandarin ayant été cassé, la cause fut suspendue et quoique Thomas demandât que l'exécution ne fût pas différée, on la remit après l'arrivée du nouveau mandarin. Quand il eut pris possession, toutes les pièces du procès lui furent présentées et il dit de ne pas le garder à la prison, mais de le mettre sous caution chez un particulier, puis quelques jours après lui fit dire de s'en aller, et de sortir du territoire de cette préfecture. Il partit donc en gémissant et retourna près de sa famille où il témoigna son regret de n'avoir pu obtenir le martyre, disant que pour lui maison et famille n'étaient rien et qu'au fait il n'avait pas de chance.

De là il alla s'établir au district de Pou-ie, puis peu après à celui de Keun-san où il s'appliqua uniquement à instruire les chrétiens ses voisins et vivant dans un dénuement complet de toutes choses. Si les chrétiens lui donnaient quelque habillement ou des souliers, ils

répondait que les beaux habits entretiennent l'orgueil, et s'il rencontrait quelque pauvre endeguenillé, il changeait aussitôt avec lui. Sa nourriture était tellement vile que personne autre n'en eut voulu et souvent il ne prenait qu'un seul repas dans le jour. Il émigra plus tard au district de Ko-san, et quoique toujours dans le même dénuement il conservait le même calme et la même gaieté. Ayant conclu le mariage de sa fille, il se rendait un jour au marché pour faire quelque emplette avec de l'argent reçu d'un de ses amis pour cet effet, quand sur sa route il rencontra une femme éplorée et hors d'elle-même; lui en ayant demandé la cause, il apprit qu'on venait de ravir tout son petit mobilier pour payer des dettes à la préfecture et que toute sa famille était réduite à mourir de faim. De suite il lui donne tout l'argent qu'il avait en mains en disant: "Va payer tes dettes et recouvre tous tes meubles." Tous les payens en était dans l'admiration et de fait qui pourrait ne pas la partager.

En 1801, lors de la grande persécution, il alla cacher sa famille dans les montagnes et lui dit: "Attendez ici l'ordre de la Providence, pour moi j'ai toujours sur le coeur le martyre qui m'a échappé et l'occasion étant belle je vais me livrer." On lui représenta que sans lui toute sa famille mourrait de faim et que d'ailleurs lui aussi devait attendre l'ordre de Dieu, et à grand peine on parvint à le retenir, mais il conservait toujours l'espoir que Dieu lui accorderait cette grande grâce. Il était alors à An-koki, district de Liong-tam quand à la 7^e lune il fut pris de maladie; la veille de sa mort, il prédit devoir mourir le lendemain, et le moment arrivé, il se fit porter dans la cour, s'y

agenouilla et rendit le dernier soupir sans que l'on s'en aperçut. Pretisa in conspectu mors sanctorum ejus.

Mais revenons à la suite des faits et suivons la conduite du gouvernement et des partis. Après la mort des introducteurs du Prêtre les clameurs des ennemis de la Religion augmentèrent beaucoup et leur position devint menaçante. Le roi malgré sa modération n'y put tenir et malgré lui il se trouva obligé à y donner quelque satisfaction et à céder à l'opinion. Il envoya donc par disgrâce Ni Ka-hoani comme mandarin de la ville de T'siong-tsiou et Tieng lak-iong comme surveillant des postes à Kim-tseng, district de Hong-tsiou (c'est un usage dans ce royaume d'envoyer par disgrâce les hauts dignitaires dans des postes inférieures à leur dignité, c'est toutefois une punition légère.), puis enfin excita Ni Seng-houni à la ville de Niei-san, d'où il revint après un an. Tous ces endroits étaient signalés comme repaires de chrétiens et on avait pour but d'en effrayer les populations. Ces trois noms nous montrent évidemment que les fauteurs voulaient se servir du prétexte de la Religion, les Piek-p'ai pour renverser les Si-p'ai, et les No-ron pour abattre le parti Nam-in. Ni Ka-hoani, principal chef des Nam-in, est celui que nous avons vu entrer en lice avec Ni Piek et jamais il ne pratiqua. Il avait été ministre des travaux publics. Etant mandarin de Kang-hoa, il avait déjà vexé les chrétiens, arrivé à T'siong-tsiou il fit de même, et on rapporte qu'il réunissait exprès les lettrés les jours d'abstinence et leur faisait servir de la viande pour éprouver s'ils pratiquaient ou non. Tieng lak-iong avait eu aussi une dignité approchante de

celle de ministre; il était bien chrétien, mais avait presque déserté depuis les grandes affaires et arrivé à Kim-tseng il tourmenta aussi quelque peu les chrétiens pour se laver aux yeux du public et entr'autres tracassa la famille d'où est sorti le P. T'soi Thomas. Enfin Ni Seng-houni, comme nous l'avons vu plus haut, avait tout à fait renoncé à la Religion et avait même fait part de sa défection au public et arrivé au lieu de son exil il publia encore un écrit pour se disculper de christianisme, écrit auquel le siècle ne voulut pas toutefois ajouter foi. Ceci suffit pour nous dévoiler le but réel, quoique non avoué, des déclamateurs et de leurs partisans et confirme ce que nous avons annoncé dès le commencement.

Toute la conduite du roi à cette époque est expliquée par quelques lignes de Hoang Alexandre: "Le feu roi, dit-il, malgré ses soupçons et appréhensions, ne voulait cependant pas faire naître une grande affaire, mais comme il semblait y avoir des conséquences vis à vis de la cour de Péking, et la position devenir difficile. Aussi depuis 1795, quand plusieurs fois tous les grands demandèrent la prohibition sévère de la Religion, il se contenta de renvoyer l'affaire aux mandarins subalternes, sans avoir l'air d'y prendre part. La persécution en provinces venait aussi d'ordres secrets, et il faisait semblant de l'ignorer, tout cela était pour capter le coeur des chrétiens, saisir et tuer seulement le Prêtre en secret, mais sans avoir pu réaliser ses projets, il mourut inopinément." De telles dispositions de la part des grands et du roi étaient bien de nature à encourager les gouverneurs et mandarins de la province, aussi plusieurs d'entr'eux essayèrent

d'assouvir leur haine contre la nouvelle Religion comme nous le verrons à l'instant.

A cette époque, Hong Luc, dit Nak-mini, avait une dignité importante au palais et se trouva obligé par office de faire une adresse au roi relativement aux événements et à la Religion. Chrétien pratiquant, mais trop faible et irrésolu, il la fit, mais en termes ambigus et sans se prononcer ni pour ni contre. Il n'eut pas lieu de s'en féliciter. Le roi qui n'ignorait pas qu'il était chrétien lui reprocha son peu de franchise et de droiture ajoutant qu'un dignitaire public devait parler à son roi selon sa pensée tout net. Celui-ci forcé de répondre au roi eut la bassesse de placer dans sa réponse les odieuses calomnies répandues contre la Religion et y engageait le roi à poursuivre les chrétiens. Il paraît que le roi ne fut guères plus satisfait et donna encore bien à penser au chrétien apostat par la réponse peu flatteuse qu'il lui fit parvenir.

En 1797, le gouverneur de la province de T'siong-t'sieng résidant à Kong-tsiou était Han long-hoa. Il donna des ordres à tous les mandarins d'anéantir la Religion et de prendre les chrétiens et lui-même se mit en devoir de ne pas rester en arrière. D'après cela il y eut nécessairement beaucoup d'arrestations.

Le 8 de la 8ème lune intercalaire T'soi Ioun-t'sieni, mandarin de Tieng-son fit saisir Ni paul, dit To-kei et bien d'autres chrétiens. Tous, excepté Paul, furent relâchés après plus ou moins de supplices et une détention plus ou moins longue.

A la 8ème lune, Pak Laurent est pris par le mandarin de

Hong-tsiou.

Pendant l'été, Tieng Iak-iong toujours poursuivi par ses ennemis ne put plus y tenir et pour se justifier complètement il fit une adresse au roi où sa défection et son apostasie étaient clairement exprimées, ce qui lui permit de respirer un peu, à ce qu'il paraît.

En 1798, nous voyons des chrétiens prisonniers dans les villes de Kong-tsiou, Hai-mi, Hong-tsiou et Tek-san. (Il est parlé dans la notice de Ni To-kei de la mort de Ni Tson-t'siang à cette année. Je ne vois pas comment arranger cela avec la tradition la plus générale. Ce doit être ou une erreur ou un mensonge que le mandarin aurait fait pour obtenir plus facilement l'apostasie de Ni Paul dit To-kei ou bien la date de la prise et de la mort de Ni Paul serait erronée.)

Le 12 de la 6ème lune, mort de Ni Paul dit To-kei au marché de T'si-seng district de Tieng-son. Mettre ici sa vie telle qu'elle est en Europe.

Ouen Jacques fut pris cette année à Tek-san, 2ème ou 8ème lune. Nous trouvons aussi des prisonniers à Hai-mi, à Kong-tsiou. Une partie du Nai-p'o était donc en persécution.

Nous avons déjà dit que la présence du Prêtre soupçonné par beaucoup de chrétiens n'était pas réellement connue. Nous en voyons la preuve dans les mémoires de Sin Pierre dit T'ai-po et ce que nous en détachons ici fera connaître ce qui a dû se passer chez mille autres chrétiens sans que rien nous en soit parvenu. Mais auparavant disons un mot de ce célèbre chrétien qui rendit souvent service à la Religion et finit par la sceller

de son sang en 1839. Sin Pierre appelé T'ai-po était un noble de condition moyenne habitant à Tong-san-mit au district de Ni-t'sien, province de Kieng-kei. Dans le village de Tong-san-mit, son caractère ferme et droit joint à quelque peu d'éducation le mettait à même de se mêler avantageusement aux affaires, et guidé par un de ses parents nommé Ni Jean dit Ie-tsin i, branche des Ni de Tien-ei, habitant au même endroit, ils furent ensemble instruits de la Religion et désiraient vivement se rendre utiles. Ni Jean est celui que nous verrons plus tard renouer les communications avec Péking. Les mémoires que nous allons citer furent rédigés par Sin Pierre, probablement en 1838 dans sa prison et sur un ordre de M. Chastan.

«En 1791, quand parut la première prohibition formelle, je connaissais aussi la Religion sans cependant la pratiquer. Plusieurs nobles chrétiens du parti des Nam-in alors dans les charges et qui m'étaient auparavant attachés battirent à froid. Il n'y avait plus moyen de se parler ni communiquer de livres; ils baissèrent la tête, fermèrent leur porte et ne se souciaient plus d'avoir des relations. Moi aussi effrayé par l'exécution des martyrs Ioun et Kouen, je pensai qu'il n'y avait rien plus à faire, et quoique dans le coeur j'eusse la foi, au dehors je rompis naturellement avec mes amis et n'avais plus de force de me relever. Les prières journalières se récitaient ou ne se récitaient pas. J'étais sans savoir à quoi m'arrêter. Heureusement je conférai de tout avec Ni Jean dit Ie-tsin i. Liés par la parenté nous avons été instruits par le même maître et vivions l'un près de l'autre. En un mois tous

deux nous perdîmes nos parents et restés seuls, devant nous soutenir mutuellement, notre attachement à la Religion sembla revivre. Ce n'était guères toutefois qu'en paroles.

Il y avait à la Capitale un chrétien alors dans les charges chez lequel nous allions tous deux fréquemment. Quoique notre demeure en fût à 140 lys, chaque mois nous faisons cette route deux ou trois fois, le voyant ou ne le voyant pas, et par suite peu de communications surtout en matière de Religion. Nous désirions surtout avoir des nouvelles du Prêtre, et s'il y en avait un, de nous mettre en rapport avec lui. Mais ce chrétien sur la route des dignités était plus réservé que tout autre. S'il ne disait rien je me taisais. A la 12^e lune de l'année mou-o (commencement de 1799) par une nuit très froide, je couchai chez lui. Au chant du coq, la neige couvrant plaines et montagnes, cet ami se lève, tire d'une armoire une paire de bas d'enfants et me la donne en disant de la chausser. Les ayant regardés, il me parut qu'un enfant lui-même ne pourrait les mettre et tout étonné je dis: "Pourquoi engagez-vous une grande personne à mettre des bas d'enfants? C'est là une de vos farces." Il me répond: "La Religion étant très équitable, il n'y a vis à vis d'elle ni grands ni peits, ni nobles, ni roturier, à peu près comme ces bas qui souples et élastiques vont aux grands comme aux petits. Dans la Religion avec de la ferveur on peut voir le prêtre, comme ces bas avec un peu d'efforts entrent bien à un grand pied." C'étaient des bas venus d'Europe. Travaillés avec de la laine ils s'élargissaient selon le pied de celui qui les chausse. J'interrogeai alors

beaucoup sur le Prêtre, mais cet ami me dit: "Ce que je vous ai dit suffit. Tout dépend de vos actes. Rien de plus." Ce jour-là je m'empressai d'aller de tous côtés chercher des chrétiens pour savoir ce fin mot, mais partout aucune réponse. Il n'y a pas mèche. Devenu semblable à un malade, je tournai, avançai de ci de là, puis enfin sans espoir je tourne chez moi et fais part de cet événement à mon parent Ni Jean. Dès le lendemain il se rend à la Capitale et après environ quinze jours il revint en disant: "Il y a bien quelque chose en dessous, mais pour le voir aucun espoir. Dix jours après je remonte de nouveau. Mes connaissances semblent plus froides que jamais et cachent tout, sans même me permettre d'ouvrir la bouche. Enfin n'ayant plus où chercher et interroger, je vais chez un ami, y séjourne quelques jours et le conjure de dire quelque chose. Il répond: "Quoiqu'il y ait peut-être maintenant des personnes qui reçoivent les Sacrements, il n'y a aucun moyen de le voir. Selon moi vous ne gagnerez rien à rester ici, retournez chez vous, attendez un peu et préparez-vous aux Sacrements. C'est le meilleur parti. Au surplus, agissez comme vous voudrez."

Il me parut aussi que c'était ainsi, je redescendis et rapportai le tout à mon parent avec une joie mêlée de soupirs. Tour à tour, nous fîmes la route sept à huit fois, mais sans aucun succès. Alors nous décidâmes qu'il fallait que l'un de nous s'établît à la Capitale pour voir la tournure des choses, et aussitôt Ni Jean laissant une partie de sa famille en province se procure quelqu'argent et va s'établir dans cette ville.... et toutefois nous ne pûmes avoir la consolation de voir une seule fois le

Prêtre. La nouvelle de sa mort nous arriva plus tard et ne fit qu'augmenter nos regrets et notre désolation.»

Qui ne serait attendri à voir des efforts si sincères et si constants que Dieu ne permit pas d'être couronnés de succès. Mais surtout quand il faut penser que de telles démarches devaient être faites à cette époque par une multitude d'âmes affamées de la vérité, que pourront répondre tant de chrétiens qui environnés de mille grâces, en abusant tous les jours? Le secret était alors des plus stricts. la présence du Prêtre était connu du gouvernement, des arrestations et exécutions avaient lieu journellement de côté et d'autre. Faut-il s'étonner si les précautions les plus sévères étaient prises pour conserver l'unique pasteur sur lequel semblait reposer tout le salut du troupeau.

L'année 1799 ne vit qu'aggraver la position des chrétiens. A la Capitale et en province eurent lieu, disent les mémoires, beaucoup d'exécutions et toutefois bien peu nous sont parvenues. (Tous les faits suivants se rapportent à la persécution de T'sieng-tsiou suscitée par le traître Tsio Hoa-tsin i, elle est indiquée dans la lettre de Hoang Alexandre, mais une lacune de copiste nous prive des détails précieux qui pourraient s'y trouver.)

Le premier qui se présente est Pak Laurent, dit T'soui-teuki, pris à la 8e lune précédente par le mandarin de Hong-tsiou et assommé dans cette ville le 29 de la 2de lune 1799. (Les martyrs que nous allons placer ici sont peut-être de 1798, au moins plusieurs. On ne s'étonnera pas que les chrétiens ignorants aient oublié l'année. Ils reportent tout à l'année Sin-iou 1801 qui est

plus fameuse et est selon eux la première persécution, de même qu'ils reportent à l'année Kei-hai 1839 les exécutions qui ont suivi pendant deux ans. Il faut s'étonner au contraire que le jour du martyre ait été si bien conservé pour beaucoup. Dans les martyrs que nous allons donner pour 1799, les dates de la mort semblent ne pas s'accorder avec les faits; nous ne pouvons les débrouiller. Du reste les faits nous paraissent appuyés et dignes de foi.)

Mettre ici sa vie en omettant l'anecdote rapportée plus haut.

Ouen Jacques dit Tong-tsi, Tsieng Pierre, dit Tong-tsi (c'est une petite dignité du peuple) et Pang François, dit Pi-tsang (autre dignité plus élevée, car ici chacun appelé par le titre de sa dignité, s'il en a) étaient très liés avec Laurent et semblent s'être promis de se dénoncer l'un l'autre pour être martyrs ensemble. Il ne paraît pas qu'ils se soient dénoncés. Mais Dieu permis qu'ils fussent tous saisis à des époques peu éloignées et tous eurent l'honneur de verser leur sang glorieusement pour la Religion dans le cours de cette année.

Ouen Jacques pris dès l'année précédente mourut le 11 ou le 12 de la 3ème lune 1799 à T'sieng-tsiou, chef-lieu militaire de la province de T'siong-t'sieng. Mettre ici sa vie.

Tsieng Pierre fut aussi exécuté alors, on ne sait quel jour à la ville de Tek-san, et Pang François à la ville de Hong-tsiou le 16 de la 12ème lune.

(L'année 1799 Kei-mi est citée par les ravages que fit une espèce de grippe violente.)

Vie de Tsieng Pierre dit Tsieng Tong-tsi.

Vie de Pang François dit Pang Pi-tsang.

Nous avons anticipé les époques pour ne pas séparer ces amis inséparables et que la foi a pour ainsi dire unis sur les échafauds. Cependant nous voyons que les arrestations ne cessaient pas. Beaucoup de chrétiens se trouvaient en prison avec Tsieng Pierre et ses compagnons de supplices ne nous seront pas sans doute jamais connus non plus que les deux com-martyrs de Pang François.

L'été de cette même année le Tai-sa-kan Sin Heu-tso présenta une requête au roi dans laquelle il indiquait Kouen T'sien-sin i et Tieng Iak-tsong comme les piliers de la Religion européenne et demandait qu'on les poursuivît. Le roi avait à peine entendu ces deux noms qu'il fit de graves reproches à l'auteur de la requête, le cassa de sa dignité et défendit de donner suite à cette affaire, de sorte que pour le moment les manoeuvres des ennemis de la Religion ne réussirent pas.

Le roi qui était avare du sang de ses sujets et voyait beaucoup d'hommes éminents embrasser la Religion voulait tout examiner avec calme. Il fit cette année plusieurs fois les interrogatoires des chrétiens par lui-même, afin de mieux connaître les choses et de ne pas suivre aveuglement la passion qu'il voyait excitée contre la nouvelle doctrine et le parti Nam-in.

A la 8ème lune de Kei-mi (1799), dit Hoang Alexandre, tout à coup le roi fit appeler par le tribunal des Crimes T'soi Thomas, dit P'il-kong i, et lui demande s'il pratique encore sa mauvaise religion. Thomas, qui pensait

continuellement à souffrir la mort pour réparer sa faute passée, trouvait là la réalisation de ses désirs. Aussi tout en sachant qu'il y allait de sa vie, il déclara franchement la doctrine de la Religion et les vrais sentiments de contrition dont il était animé. Sa parole claire, brillante et élevée toucha vivement tous ceux qui étaient présents.

L'interrogatoire suivant conservé par Sin Pierre dans ses mémoires est, pensons-nous, celui de Thomas et son caractère semble s'y révéler.

Le roi: Moi aussi j'ai lu les livres de la Religion, mais comment te semble-t-elle comparée à celle de Foe?

Le chrétien: La Religion chrétienne ne doit pas être comparée à celle de Foe. Le Ciel, la terre et les hommes, tout n'existe maintenant que par le bienfait de Dieu et ne se conserve que par le bienfait de l'Incarnation et de la Rédemption de ce très-haut et très-grand Dieu, maître et gouverneur de toutes choses; comment pourrait-on mettre la Religion en comparaison avec cette autre doctrine dénuée de fondements et sans principes. Ici c'est la véritable voie, la vraie doctrine.

Le roi: Celui que vous appelez très-haut et très-grand maître de toutes choses, comment a-t-il pu venir dans ce monde, s'y incarner et qui plus est le sauver par la mort infâme qu'il subit de la main des méchants? Ceci est difficile à croire.

Le chrétien: Autrefois le très-saint roi Seng-t'ang, voyant une sécheresse de sept ans et tout le peuple réduit à la mort, ne put y rester insensible. Il coupa ses ongles, se rasa les cheveux et le corps couvert de paille, il offrit son propre corps en victime et allant dans le désert de

Seng-lim, se mit à pleurer et regretter ses péchés, puis composant une prière il s'offrit en sacrifice. La prière n'était pas achevée qu'une pluie abondante tomba sur un espace de plus de deux mille lys. Depuis ce temps tout le monde sait qu'on l'appelle le saint roi. (Tiré de l'histoire de la Chine) Or combien plus grand n'est pas le bienfait de la Rédemption? Tous les peuples anciens, modernes et futurs, toutes les choses de ce monde sont imprégnés du bienfait de la Rédemption, et ne subsistent que par elle. Aussi je ne puis concevoir comment vous dites que c'est difficile à croire.

Le roi: La doctrine de Foe (le nom de Foe signifie qui sait et connaît tout, sans égal. Ce nom ne se donne qu'à Siek-ka-ie-rai, fondateur de la secte qui paraît l'avoir pris et peut-être forgé lui-même.) n'est pas non plus à traiter légèrement. Le nom seul de Foe très-haut et très-grand est sans égal; comment le regarder légèrement et avec mépris?

Le chrétien: Si ce n'était ce nom de quoi eut-il pu se couvrir? Aussi le vola-t-il? Mais par le fait que Siek-ka-ie-rai est un homme fils du roi Tsieng-pan et de la Dame Mai-ia. Or de la main droite montrant le Ciel et de la gauche la terre, il dit: Au Ciel et sur la terre moi seul suis grand. N'est-ce pas là un orgueil et une vanité extrêmes et ridicules? Quelle vertu et mépris?

Le roi: La vérité se soutient par elle-même et chaque chose à la fin tourne au vrai côté. Nous verrons la suite.

Et sans rien décider il fit reconduire le chrétien au tribunal des Crimes. (Les ministres firent plusieurs adresses au roi pour faire mettre ce chrétien à mort, mais

le roi répondit indirectement et laissa voir son intention de l'épargner. Les choses en restèrent là et peu après Thomas fut relâché.)

Ceci suffit, ce nous semble pour montrer combien ce roi modéré était loin de partager la haine aveugle et emportée qui poussait les ennemis de la Religion, aussi tant qu'il vécut, s'il n'empêcha pas toute vexation, il en arrêta beaucoup et ne poussa pas à la persécution. Cependant la province moins contenue que la Capitale continuait à faire couler le sang.

Pai François dit Koan-kiem i, natif du village de Tsin-mok au district de Tang-tsin, instruit de la Religion presque aussitôt qu'elle se répandit en Corée, après avoir, comme nous l'avons vu, subi de la part de son propre mandarin une persécution dont il sortit peu honorablement, émigra à Tou-roum-pa-hoi, district de Sie-san et y pratiquait avec ferveur. D'accord avec quelques autres chrétiens, il avait encore émigré à Iang-t'ei, district de Mien-t'sien et y avait préparé même un oratoire pour tâcher de recevoir le Prêtre. Ils étaient dans une ferveur brûlante quand le 3 de la 10ème lune de l'année Mou-o 1798, le traître Tsio Hoa-tsini vint avec les satellites de Hong-tsiou, et François saisi par eux fut conduit à cette ville. On voulut lui faire dénoncer ses complices et livrer ses livres, mais malgré de violents supplices il répondit toujours ne pas en avoir et ne pensait qu'à se préparer à la mort. Pendant plusieurs mois, il dut subir de fréquentes tortures, puis fut transféré à T'sieng-tsiou, chef-lieu militaire et criminel de la province où il partagea les nombreux supplices de Ouen Jacques et autres. Toutes

ses chairs étaient en lambeaux, ses os ressortaient de toutes parts, mais le courage et la patience ne lui manquèrent pas. Il survécut à Ouen Jacques et sans que l'on sache comment se sont passés les mois suivants. La tradition de la famille place sa mort au 13 de la 12ème lune de cette année 1799 à T'sieng-tsiou où il mourut sous les coups à l'âge de 60 ans. Il était frère aîné de Pai Mathias que nous avons vu coopérer aux voyages pour l'introduction du P. Tsiou.

Au même temps deux généreux athlètes confessaient glorieusement le nom de J.C. dans la ville de Hai-mi, célèbre aussi dans nos sanglantes annales.

Vie de Ni François, dit Po-hien i

Il eut un digne compagnon de son triomphe dans In Eun-min i, appelé Martin.

Vie de In Martin, appelé Eun-min i et Tsong-kan i

Les détails sur cette année mémorable ne nous sont pas parvenus en plus grand nombre. Mais déjà nous ferons remarquer combien le pays du Nai-p'o, évangélisé par Ni Tan-ouen i, commençait à se distinguer comme nous l'avions annoncé. Ouen Pierre et Jacques, Ni Paul, Pak Laurent, T'sieng Pierre, Pang François, Pai François, Ni François et In Martin étaient tous de différents districts de cette vaste plaine. Faut-il s'étonner qu'une terre si grassement fécondée dès le commencement ait continué à produire des fruits admirables et soit restée proverbialement la terre classique du christianisme dans ce royaume.

Enhardi sans doute par la vue des exécutions que nous venons de rapporter, le madarin de la ville de Nie-tsiou,

province de la Capitale se mit aussi à poursuivre les chrétiens de son district.

Vers la 3ème lune de l'année Kieng-sin 1800, Ouen Jean avec deux de ses cousins, Ni Martin et un autre encore étaient allés pour passer la fête de Pasques chez le chrétien nommé Tsien Tsong-ho au district de Nie-tsiou. Celui-ci dont le nom de baptême nous est inconnu mais dont toute la famille pratiquait avec ferveur les reçut avec grande joie. (On tue un chien, on prépare du vin et réuni avec les chrétiens des environs sur le bord de la route, on récitait à haute voix l'Alleluia et le Regina, puis battant la callebasse on chantait en accord; le chant terminé, on buvait le vin et mangeait la viande, puis les chants recommençaient encore et alternant ainsi tout le jour se passa; mais peu après ayant été accusés par des familles ennemies, ils furent pris et conduits devant le mandarin au nombre de onze. (Hoang Alex.))

Pendant le trajet on passa devant la maison de Ouen Jean et sa vieille mère qui alors seulement apprit la prise de son fils se présenta en larmes devant les satellites en les conjurant de la laisser voir son fils un instant avant de l'emmener, mais elle ne fut pas écoutée et on continua la route. Arrivés devant le mandarin il leur dit: Dénoncez ceux qui vous ont instruits et vos complices, puis reniez Dieu. Jean répondit au nom de tous: Il nous est sévèrement défendu de dénoncer personne et devrions-nous mourir, nous ne pouvons nuire à qui que ce soit, encore moins pourrions-nous renier Dieu. Le mandarin en colère leur fit subir l'écartement des os et la poncture des bâtons. (Dans le nombre il y avait bien des

faibles, mais soutenus par la fermeté et les exhortations de Martin tous tinrent bon dans ces violents supplices plusieurs fois répétés et ils furent enfermés à la prison.)

Ce Ouen Jean dit Sa-sin i était de la ville de Nie-tsiou et le second beau fils de T'soi Marcellin dont il sera bientôt parlé. Fort lié avec Kim Yosaphat dit Ken-siouni, il fut instruit par lui de la Religion et en fit part de suite à sa famille qui se mit toute entière à la pratiquer. Ni Martin dit Tsong-pai, branche des Ni de Tsien-tsien d'une famille bâtarde du parti Sio-ron était du district de Nie-tsien. Son caractère était droit, ferme, mais violent et il avait des connaissances solides en médecine. (Sa force et son courage sortaient du commun et il était grand dehors ses vues et résolutions.) Quand il faisait quelque route longue ou courte, il avait pour manie de se reposer le jour et de marcher seulement la nuit et commettait fréquemment des violences fort opposées à la justice, mais à peine se fut-il mis à pratiquer qu'il dompta la violence de son caractère et ne conserva que sa droiture et sa fermeté. Il vivait seul avec son père et sa femme, et tous trois remplissaient tous leurs devoirs avec ferveur. A la même époque vivait à Tiem-teul, district Nie-tsiou, canton de Kim-sai, un noble nommé Im hei-ieng i, de la branche des Im de Pong-tsien. Ses père et mère, ses frères et soeurs tous pratiquaient la Religion excepté lui. Il disait, rapporte-t-on, que pour la pratiquer il faudrait n'avoir ni yeux, ni oreilles, ni aucun autre sens. Son père l'exhortait fréquemment à se convertir. Il y employait la douceur, puis les reproches et jamais Hei-iengi ne répondait un seul mot. Plusieurs années après, son père tombant malade

et étant près de sa fin le fit appeler et lui dit: Si je te voyais pratiquer avant de mourir, je n'aurais plus aucun regret en quittant ce monde. Le fils ne répondit rien encore. Un autre jour son père l'appelle de nouveau, le fait asseoir près de lui et lui dit: Je dois mourir demain. A voir ton air, je pense bien qu'après ma mort, tu me feras les sacrifices d'usage pour les parents. Pendant ma vie tu n'as guères écouté mes paroles, eh bien! Si après ma mort tu fais les sacrifices, je ne te regarde plus comme mon fils et te défends de porter mon deuil. (parole foudroyante et anathème désespérant surtout pour ces peuples-ci) Ici encore Hei-iengi ne répondit rien. Qui pourrait savoir ce qui se passait au fond du cœur?

Deux jours après son père mourut en effet. Ce fils donna des marques non équivoques de sa désolation; il se revêtit des habits de deuil, mais ne fit aucun des sacrifices d'usage. Toute la famille et les connaissances le regardaient avec étonnement et de mauvais oeil et des murmures furent excités de toutes parts. Au printemps de l'année Kieng-sin 1800 arriva le premier anniversaire, et là encore aucun sacrifice. Bientôt après le mandarin de Nie-tsiou qui l'avait fait épier envoya ses satellites et il fut pris avec Tsio Tsiei-tong i et son fils long-sam i, chrétiens qui vivaient chez lui. Le mandarin lui dit: Je sais clairement que tu ne suis pas la Religion du maître du Ciel. Mais on dit que tu ne fais pas les sacrifices aux parents. Je dois donc te faire mourir comme les chrétiens. Hei-iengi resta muet encore comme vis à vis de son père, et le mandarin le fit déposer à la prison avec et sur le pied des autres chrétiens prisonniers.

(* 원본 83쪽부터)

Tsio Tsiei-t'ong i était un noble du district de Iang-keun et de la branche des Tsio de Han-iang. Sa famille d'abord originaire de Hai-tsiou était venue s'établir à pai-se-kol district de Iang-keun et lui devenu veuf vivait avec ses deux fils Iong-sam i et Ho-sam i. Tous trois pratiquaient la Religion avec ferveur. Mais ne pouvant plus suffire aux besoins de leur subsistance ils se retirèrent dans la famille de Im Hei-ieng i à Tiem-teul district de Nie-tsiou. Iong-sam i, appelé Pierre, arrivé presque à l'âge de 30 ans, n'avait pu encore prendre le chapeau et se marier. Ayant tout le corps malade il était faible et grêle et tout l'extérieur fort peu avantageux. Ignorant de toutes les affaires du monde chacun riait de lui et n'en faisait aucun cas. Mais, remarque Hoang Alexandre, il était toujours fort bien traité chez Tieng Augustin qui admirait et louait beaucoup sa grande ferveur. Quand Im Hei-ieng i fut pris vers la 4ème lune de 1800, Ho-sam i sut s'évader, mais Iong-sam i et son père furent pris avec lui. Pendant la route le père dit à son fils: Cette fois je suis décidé à donner ma vie pour Dieu et serai certainement martyr, pour toi que feras-tu? Pierre répondit: Pour le martyre on ne peut se fier à ses résolutions ni à ses forces; comment oserai-je bien, me fiant à moi-même, m'avancer en parole? Ils sont conduits au mandarin et dès le premier interrogatoire le père fait une chute déplorable. Le mandarin dit à Pierre: Toi aussi renonce à ta Religion. Pierre: Je ne le puis. Le mandarin: Ton père veut se conserver la vie et toi tu voudrais mourir, n'est-ce pas là un manque de piété filiale? Pierre répond: Il n'en est pas

ainsi. Si les parents viennent à dévier et que les enfants continuent à remplir tous leurs devoirs, dira-t-on pour cela que les enfants manquent à la piété filiale? Mais de plus quoique chacun doive honorer et servir ses père et mère selon la nature il y a en outre le grand roi et père commun de toutes les créatures du Ciel et de la terre, c'est lui qui a donné la vie à nos parents, c'est lui aussi qui me l'a donnée, comment dès lors pourrais-je bien le renier? Le mandarin rempli de colère et d'aversion contre lui fit subir deux ou trois interrogatoires accompagnés de supplices atroces dans lesquels son genou fut brisé et détaché de la jambe et tout son corps réduit à un état affreux. Pierre eut une autre tentation à supporter. Le mandarin, après l'avoir beaucoup cahoté sans succès, fit appeler son père et lui dit devant le fils: Je dois vous faire mourir à cause de votre fils, mais serait-il juste que par votre faute le père et le fils mourussent, parlez-lui donc, une seule de vos paroles peut sauver la vie à tous les deux, tout dépend de vous, exhortez-le donc à se repentir; et en même temps il fait battre le père sous les yeux de son fils. Le père se met donc à exhorter son fils et celui-ci de dire: Je ne puis rompre avec les sentiments naturels, veuillez nous sauver tous les deux; puis il fait sa soumission et le mandarin tressaillant de joie les relâche et renvoie tous deux. Mais quand Pierre sortit il fut vivement réprimandé et exhorté par Ni Martin et pendant la nuit fut touché de douleur et d'une vraie contrition. Le lendemain matin retournant vis à vis du mandarin, il dit: Ce que j'ai dit hier est maintenant pour moi la cause d'un regret mortel, j'espère que le Mandarin voudra bien faire

mourir le fils pour sa faute, et traiter le père selon ses désirs; comment pourrait-on pour la faute du fils, faire mourir aussi le père? Donnez à chacun selon ses vœux et le mandarin ne voyant plus aucun moyen à mettre en oeuvre le fit enfermer secrètement. Chaque fois qu'il faisait des interrogatoires, quoiqu'il fût battre les autres chrétiens d'une manière ordinaire, il faisait battre Pierre longtemps et très violemment, c'est que voyant sa tournure il le méprisait souverainement et s'était dit: D'un tel homme il sera facile d'obtenir soumission; mais contre toute attente voyant qu'il était au contraire très ferme il le prit en grippe, le haïssait tout particulièrement et voulait absolument le faire mourir.

Enfin à la 4ème lune fut pris encore par le même mandarin T'soi Marcellin que nous avons vu plus haut subir une légère persécution à Koang-tsiou en 1791. Marcellin dont le nom vulgaire est le-tsiong i et le nom légal T'siang-tsiou était un noble du district de Nie-tsiou pratiquant avec toute sa famille, il regrettait toujours d'avoir manqué une fois l'occasion du martyre et quand cette persécution de 1800 s'éleva il répondit en riant à sa femme qui l'exhortait à fuir et à se cacher: "Quand je n'y serai plus tu vivras bien tout de même." Sa mère lui fit aussi des instances pressantes, et par respect pour ses ordres, il fit semblant de fuir disant aller à la Capitale. Il sortit en effet, mais revint le même jour et ce soir-là même les satellites de Nie-tsiou vinrent et se saisirent de sa personne. Arrivé devant le mandarin, celui-ci lui dit: "De qui as-tu appris la Religion et quels sont tes complices? Dénonce tout." Marcellin répond: "Ce que vous

me demandez me ferait violer le 5ème commandement, je ne puis donc rien déclarer." Le mandarin irrité le fait mettre aux tortures, lui commandant de plus l'apostasie, il répond: "Devrais-je mourir sous les coups, je ne puis ni trahir mon Dieu, ni dénoncer personne." Après de cruels supplices il est aussi déposé à la prison avec les autres confesseurs, dont nous reprendrons l'histoire un peu plus bas.

Pendant que ceci se passait au district de Nie-tsiou, le district de Iang-keun son voisin était loin d'être tranquille. Déjà pendant l'été de 1799 une bande de méchants s'était liguée pour prendre la famille Kouen dont la réputation était si grande, elle fut couverte de calomnies et accusée devant le mandarin. Cette famille se trouva alors dans une position fort critique et l'affaire devenait de plus en plus grave. Mais la sagacité et la bonté du mandarin lui fit arranger les choses et rendant les accusés à leur liberté, les projets des méchants ne purent cette fois réussir entièrement. Dès lors ils tramèrent secrètement leur affreux complot, s'unirent à quelques méchants dignitaires à la Capitale et à la 5ème lune 1800, allèrent devant le roi et lui dirent: "La mauvaise doctrine se répand en grand dans le district de Iang-keun, il n'est personne qui le sache et cependant le mandarin ne se met pas en peine de faire des perquisitions, il mérite donc d'être sévèrement puni." Le roi ayant accepté l'accusation, le mandarin de Iang-keun dut donner sa démission et son successeur à peine installé fit renaître le procès et saisit grand nombre de personnes. (Ce fut probablement Tsieng Tsiou-seng i qui est noté comme ayant demandé lui-même des pouvoirs

plus étendus pour pouvoir étendre le cercle de ses persécutions.)

Kouen Ambroise appelé T'siel-sin i, déjà vieux, fut saisi de crainte et se retirant à la Capitale il parvint à éviter pour le moment. Le mandarin fit emprisonner son fils en sa place. Mais quoique celui-ci eût demané plusieurs fois se subir aussi les peines en place de son père, le mandarin ne le permit pas et voulait absolument saisir Ambroise lui-même et par suite l'affaire traîna longtemps sans dénouement et on finit même par relâcher le fils. Malgré ces escarmouches très significatives et les nombreux emprisonnements opérés dans plusieurs parties des provinces les chrétiens ne restaient pas inactifs.

Le Père Tsiou, vers la 4ème lune de cette année, établit la confrérie nommée Mieng-to. Elle avait pour but de s'encourager mutuellement à l'étude de la doctrine religieuse et de s'efforcer de la répandre parmi les chrétiens et les payens. Le président de la Confrérie fut Tieng Augustin appelé Iak-tsong, que ses talents et ses vertus mettaient au premier rang parmi les chrétiens et dont nous parlerons bientôt plus au long. Cette érection fit assez de sensation et eut alors un heureux succès. Les confrères étaient assidus à leurs exercices, dit Hoang Alexandre, et ceux même qui n'en faisaient pas partie, entraînés par le mouvement général, se remuant et s'appliquant à la conversion des payens, pendant l'automne et l'hiver le nombre des nouveaux catéchumènes augmentait jour par jour. Les femmes en formaient la plus grande partie, les simples et les ignorants venaient après, et les nobles craignant les malheurs qui se préparaient

n'arrivèrent qu'en très petit nombre.

L'orage qui menaçait de fondre en grand sur la chrétienté n'était contenu que par la modération du roi, et quoiqu'il eût déjà cédé en partie aux clameurs du parti turbulent, il ne s'était pas encore prononcé directement contre la Religion; d'autre part il voulait épargner le sang de son peuple et surtout avait un amour et une estime profondes pour quelques-uns des hommes éminents qu'il savait l'avoir embrassée et ne pouvait se déterminer à sévir contre eux. Tant que vécut ce roi, les ennemis du nom chrétien qui connaissaient assez ses sentiments, n'osèrent pas découvrir en grand le fond de leurs projets et plusieurs chrétiens haut placés conservaient l'espérance de faire enfin triompher la vérité; l'un d'eux quelques années auparavant demandait seulement une dizaine d'années pour y parvenir. Malheureusement Dieu ne permit pas que la vie de ce prince se prolongeât et une large plaie s'étant formée sur le dos, il mourut le 28 de la 6ème lune de cette année 1800, après 24 ans de règne.

(On pourrait mettre ici quelques détails sur l'usage de ne pouvoir toucher le corps du roi en maladie pour le guérir.)

Cette mort si imprévue fut un coup terrible pour tout le royaume qui perdait un prince sage, modéré, ami de son peuple et qui pouvait encore espérer de nombreuses années, pour tomber au milieu des difficultés d'une minorité; mais c'était un véritable coup de foudre pour les Nam-in et pour les chrétiens qui voyaient en lui tomber le dernier obstacle qui pût s'opposer au torrent de leurs ennemis. Voici comment Hoang Alexandre dépeint la position actuelle: "Depuis 200 ans, les nobles étaient

divisés en 4 partis, nommés No-ron, Sio-ron, Nam-in et Sio-pouk. Vers la fin du règne actuel les Nam-in se divisèrent eux-mêmes en deux (camps) branches; l'une était composée de Ni Ka-hoani, Tieng lak-iong, Ni Seng-houni, Hong Nak-mini et quelques autres; tous avaient d'abord cru en Dieu, puis avaient renié leur Religion pour se conserver la vie; au dehors quoiqu'ils fissent semblant d'être hostiles à la Religion, au fond du coeur ils croyaient encore; leurs partisans du reste étaient fort peu nombreux. L'autre branche avait pour chef Hong Ei-ho et Mok Man-tsiang, ennemis acharnés de la Religion et pendant 10 ans ils avaient fortement invétéré leur haine mutuelle, ceux-ci étaient en outre de la couleur Piek-p'ai. Les No-ron se divisaient aussi en deux couleurs, l'une appelée Si-p'ai, composée de sujets vraiment dévoués au roi et très soumis à toutes ses intentions; l'autre appelée Piek-p'ai, formée d'hommes très attachés à leurs idées particulières et contrariant volontiers les vues du roi (les Piek-p'ai et les Si-p'ai se trouvent aussi quelque peu dans divers autres partis et surtout chez les Nam-in). Vieux ennemis des Si-p'ai, nombreux et puissants, le roi les redoutait, et depuis quelques années leur parti grossissait de toutes parts. Ni Ka-hoani était le premier lettré du royaume, et Tieng lak-iong avait des talents bien au-dessus du commun. Avant 1799, le roi les chérissait et les employait beaucoup, mais depuis il se refroidit et les laissa de côté. Ces deux hommes étant très redoutables aux Piek-p'ai, on cherchait surtout à leur nuire et quoique les partisans de Ka-hoani eussent renié la Religion et même la persécutassent, tous les Piek-p'ai continuaient à

les signaler toujours comme attachés à cette doctrine perverse, et accumulèrent sur eux des accusations odieuses avec force calomnies. Le feu roi les ayant toujours couverts et protégés un peu, on n'avait pu réussir à les abattre entièrement, mais celui-ci venant à mourir, son fils (nommé plus tard Sioun-tsong) (Les rois en Corée n'ont pas de nom, ils reçoivent toutefois de l'Empereur de Chine un nom représenté par un caractère chinois qui sert seulement dans ses rapports avec l'Empereur, très peu de Coréens en connaissent la prononciation et d'ailleurs on ne peut prononcer ce nom du roi, ce n'est qu'après la mort qu'on leur donne un nom sous lequel ils sont désignés dans l'histoire. Cet usage doit leur venir de la Chine.) lui succéda et le nouveau roi étant enfant, la régence tombait de droit entre les mains de son arrière-grand-mère, Kim Tsieng-siouni (branche des Kim de T'sieng-p'ong, famille différente de celle qui a donné les reines aujourd'hui existantes). Aussi abaissa-t-elle la grille (cette expression vient de ce que la reine dans ses rapports avec les dignitaires se met toujours derrière une ouverture fermée par une espèce de claie qui la cache un peu, car quoiqu'appelée mère du peuple les usages ne permettent pas qu'elle soit assise près des hommes comme en Europe) et prit en main l'administration du royaume. Cette reine était grand-mère marâtre du feu roi (seconde épouse de son grand-père) et étant du parti Piek-p'ai, sa famille avait été laissée de côté par le roi et par suite de cela la haine fommentée pendant longues années n'avait pu se produire au dehors, mais contre toute attente l'administration tombant entre ses mains, elle s'unit

étroitement aux Piek-p'ai et commença de suite à déverser son venin.

L'occasion était donc favorable pour les fauteurs, une minorité avec l'autorité entre les mains d'une femme et surtout d'une femme dont les sentiments étaient bien connus, devait seconder merveilleusement leurs projets d'attaque et de désordre. Le parti No-ron se confirma dans sa résolution de renverser le parti Nam-in, et les Piek-p'ai se préparèrent à redoubler d'efforts pour supplanter les Si-p'ai, et comme la plupart des hommes éminents nouvellement convertis étaient du parti Nam-in, la nouvelle Religion devait servir de prétexte pour s'en défaire plus sûrement, outre que la haine contre le christianisme que l'on prévoyait devoir ruiner la religion des Ancêtres, poussait encore les uns et les autres. Malheureusement tous ces projets fort adroitement combinés, réussirent et sans une protection toute spéciale de Dieu, le seul fait de la mort du roi eut anéanti la Religion à jamais dans ce pays. Toutefois l'éclat n'eut pas lieu immédiatement, nous l'attribuons à l'usage de ce pays qu'est de ne pas commencer des affaires aussi graves avant l'enterrement du roi défunt. Est-ce respect ou superstition? Peut-être tous les deux. Toujours est-il que jusqu'à l'enterrement chaque parti sait assez bien se contenir et nous en avons des exemples sous les yeux récemment encore. D'ailleurs les nombreuses cérémonies qui doivent se faire régulièrement près du corps du défunt et les immenses préparatifs pour ses obsèques ne laissent pas le temps de se livrer à tous les détails de bataille et procès. Or l'enterrement ne se fait pas ici au gré des

survivants, les règles sont là et elles sont suivies. Le temps fixé pour l'enterrement de l'Empereur de Chine étant de sept mois, le roi de Corée qui est son vassal, ne doit attendre que 5 mois et pour les nobles ou personnages importants le terme est fixé à trois mois. Pendant cet espace de temps, chaque parti peut bien préparer ses batteries, mais nous ne voyons pas qu'il y ait eu d'événements bien graves.

Revenons aux confesseurs que nous avons laissés à la prison de Nie-tsiou. Pendant ce temps, deux fois par mois, on leur faisait subir de nouveaux interrogatoires accompagnés de violents supplices, on assure que le corps de Ouen Jean plusieurs fois mis en lambeaux par les coups se trouvait entièrement guéri dès le lendemain. Ce chrétien avait une vieille esclave qui venait sans cesse le visiter et lui représentant la triste position de sa famille elle mettait tout en oeuvre pour le séduire et l'ébranler. Jean restait insensible à tout. Un jour ses paroles furent des plus touchantes et Jean en paraissait violemment ému, mais Ni Martin lança alors de travers un regard sévère à la vieille et celle-ci tremblante se retira sans oser même achever. Depuis lors elle ne se présenta pas et disait que craignant l'oeil terrible du noble Ni elle ne pouvait plus y aller.

Ni Martin eut à supporter aussi une terrible tentation. Son père vint le trouver à la prison et le prenant par la main lui dit en pleurant: "Veux-tu donc mourir et abandonner là ton père en cheveux blancs?" Martin répondit avec calme: "Mon père ce n'est pas que j'ignore les vrais principes de la piété filiale; si on considère

seulement la nature, ma conduite paraîtra bien peu généreuse envers vous, mais si on regarde les choses de plus haut, serait-il juste, dites-moi, pour des affections naturelles de renier le Seigneur suprême de toutes choses, notre grand roi et père commun à tous?" et il ne se laissa pas ébranler. Quelle foi vive, quel courage héroïque! Martin avait bien quelque connaissance en médecine, mais il était loin d'en avoir fait une étude complète. Depuis son entrée à la prison, quand on venait le consulter pour quelque maladie, il commençait toujours par implorer le secours de Dieu, puis employait selon les circonstances soit les médecines, soit l'acuponcture et tous se retiraient guéris. De là sa réputation se répandit au loin et tant le voisinage que les pays éloignés affluaient pour le consulter, au point que la porte de la prison ressemblait à une place de marché, sans que le mandarin osât le défendre. Bien plus, s'il y avait quelque malade à la préfecture, on venait aussi le consulter, et par suite de cela la disette de vivres ne se fit pas sentir dans cette prison. Kim Ken-siouni, quand il était interrogé sur les guérisons opérés par Martin, répondait pour ne pas faire trop de tapage, que sur dix, huit ou neuf guérissaient, mais il avouait que réellement c'était dix sur dix, cent sur cent et que pas un ne se retirait sans succès. Les préposés à la prison demandèrent à voir ses livres de médecine, Martin répondit: "Je n'ai aucune formule à moi spéciale, seulement je sers le Maître du Ciel; si vous voulez étudier la médecine il faut d'abord commencer comme moi par croire en Dieu." Les préposés lui dirent: "Vous prétendez avoir brûlé tous vos livres avec quoi

pourrions-nous apprendre?" Martin répondit en riant: "J'ai dans le coeur des écrits qui sont incombustibles et ils suffisent bien pour vous instruire et faire pratiquer la Religion. (Hoang Alexandre)

Parmi les prisonniers que nous avons vus entrer à cette prison, quelques-uns s'attendrissaient beaucoup et laissaient craindre une défection. Ni Martin les consolait, encourageait et exhortait jour et nuit, il leur disait: "Nous avons été pris le même jour, si nous mourrions aussi tous le même jour pour Dieu, ne serait-ce pas une bien belle chose?" En entendant ces mots la pensée se reporte naturellement vers la prière de ces 40 martyrs plongés dans une eau glacée. Toutefois la prière et les efforts de nos confesseurs n'eurent pas le même succès, plusieurs d'entr'eux firent leur soumission et furent relâchés, il ne resta que Ouen Jean, Ni Martin et Tsieng Tsong-ho, auxquels il faut ajouter T'soi marcellin, Tsio Pierre et le payen Im Hei-ieng i traité sur le pied des chrétiens. Dans la prison ils s'occupaient par distraction à faire des compositions littéraires, puis on récitait les prières, et s'adonnait à la prédication et exhortation des payens. Hoang Alexandre nous apprend même qu'un des geôliers fut alors touché de la grâce, crut en Dieu, se mit à la pratique et devint un fervent chrétien.

A la 10ème lune, les prisonniers furent cités devant le gouverneur qui commença par tâcher (de) les attirer par la douceur, ajoutant qu'une seule parole d'apostasie les ferait de suite relâcher et mettre en liberté. Marcellin répondit au nom de tous: "Après avoir servi le grand roi et père commun de tous les hommes est-il convenable de renier

par crainte de la mort? Non, j'en serai quitte pour mourir." Voyant que toute tentative était inutile, on leur fait donner une volée de coups sur les jambes, prononce leur sentence de mort que chacun d'eux signe et ils sont renvoyés à la prison. Ils n'eurent plus guères dès lors de tortures à endurer; mais au milieu des souffrances et privations de toute espèce, ils s'appliquaient par la pratique de la patience à mériter la grâce de rester ferme jusqu'à la consommation de leur sacrifice.

Cependant le payen Im Hei-ieng i avait subi régulièrement avec les autres chrétiens deux interrogatoires par mois, sans jamais y proférer une parole; comme eux il avait dû subir de violents supplices et toujours les supporter sans pousser aucun cri. Le mandarin étonné lui disait: "Promets seulement de faire les sacrifices d'usage et je te renvoie immédiatement; mais si tu refuses de le faire je te ferai mettre à mort." Là encore pas un mot de réponse. Quelque temps après l'interrogatoire de la 10ème lune, les chrétiens ses co-prisonniers lui dirent: "Toi qui n'adores pas notre Dieu, les supplices que tu endures ne te servent à rien, il vaudrait bien mieux faire ta soumission, te conserver la vie et t'en aller." Alors seulement il répondit: "Mon père à l'heure de la mort en déclarant ses dernières volontés m'a dit: Si tu fais les sacrifices pour moi, tu n'es plus mon fils et je te défends de porter mon deuil; maintenant que j'ai pris le deuil, comment pourrais-je pour me conserver la vie promettre de faire les sacrifices? Si on me tue, j'en serai quitte pour mourir, mais faire les sacrifices, jamais." Les chrétiens lui dirent: "Puisque tu es si déterminé,

maintenant encore il n'est pas trop tard, commence dès à présent à honorer et à servir Dieu et fais en sorte de bien mourir en confessant son saint nom." Ces paroles furent bien reçues, dès lors il se mit à apprendre les prières, à observer les dimanches et fêtes et ne forma plus qu'un seul coeur avec les autres chrétiens prisonniers et nous les suivrons tous ensemble lors de leur exécution en 1801. Ce respect pour les ordres du père mourant et cette obstination à ne pas les enfreindre pourront paraître bien étonnants, mais pour qui connaît l'esprit de ce peuple dont toute la religion se résume pour ainsi dire dans l'honneur et l'obéissance dûs aux parents, l'étonnement sera moindre et nous pouvons assurer que des faits analogues à celui-ci ne sont pas rares dans ce pays.

Le temps fixé par notre divin maître pour tomber entre les mains de ses bourreaux approchant, il voulut bien permettre qu'un traître perfide prît part aux complots de ses ennemis et donnât le premier signal des scènes sanglantes dont il devait être la victime. Des circonstances à peu près semblables se sont rencontrées à toutes les époques, déjà par deux fois cette histoire a dû en faire mention et nous les voyons encore aux approches de la crise qui se préparait.

Kim Ie-sam i était originaire du Ho-tsiong (le mot de Ho-tsiong s'applique à une vaste partie de la province de T'siong-t'sieng à l'ouest) et le cadet de trois frères qui tous avaient été baptisés et étaient allés s'établir à la Capitale pour fuir la persécution. peu à peu Ie-sam i se refroidit, renia sa Religion et se lia avec de mauvais sujets et tous les efforts de ses aînés ne purent le

rappeler de ses écarts. Il y avait encore un autre chrétien nommé Ni An-tsieng i, originaire du même endroit, établi aussi à la Capitale et qui avait quelque fortune; Ie-sam i, fort pauvre, espérait toujours recevoir de lui quelque argent et celui-ci ne satisfaisant pas assez ses désirs, il en avait conçu une haine violente qui le faisait même grincer des dents. An-tsieng i recevait les sacrements habituellement et Ie-sam i qui le savait secrètement se disait: Si le Prêtre l'exhortait à faire l'aumône, il ne pourrait pas ne pas la faire, et s'il ne la fait pas, c'est que le Père ne l'y pousse pas. De là sa colère se reporta sur le Père et voulant lui nuire, il alla déclarer toutes ses affaires aux chefs des satellites. Ceux-ci qui après cinq ou six ans de perquisitions n'avaient pas encore pu pénétrer les secrets des chrétiens furent transportés de joie et lui dirent: "Si l'affaire réussit nous te ferons obtenir une place grassement rétribuée, tâche seulement de savoir où est maintenant cet homme." Le Prêtre restait chez Colombe et Ie-sam i s'en doutait; il fait accord avec les satellites et leur dit de venir tel jour chez lui et qu'il leur ferait connaître (savoir). S'étant ainsi séparés, et Ie-sam i ayant été par hasard chez quelque connaissance y tomba malade, au point de ne pouvoir revenir chez lui. Au jour convenu les satellites s'y présentèrent, mais ne le trouvant pas s'en retournèrent tels quels. Heureusement un chrétien fut informé de tout et en avertit le Prêtre qui se retira dans un autre lieu. (c'est peut-être alors qu'il fit séjour dans le palais de Ni In.) Puis Ni an-tsieng i ayant aussi porté quelque somme d'argent chez Ie-sam i fit sa paix avec lui et dissipa (calma) sa haine pour un temps;

peu de jours après le roi mourait, et de toutes parts les affaires s'étant multipliées, on n'eut pas le temps d'exciter alors la persécution, mais Ie-sam i qui avait déjà fait ses déclarations, ne pouvait reculer, il continua à fréquenter ses mauvais compagnons, et trama fortement son complot avec eux, décidé à ne s'arrêter qu'après avoir vomi son poison. (lettre d'Alexandre)

(Ni Seng-hoa dans ses mémoires parle sans le nommer d'un traître chrétien à la Capitale qui désigna alors au gouvernement la marche à suivre pour détruire la Religion et indiqua tous les chefs. Ce malheureux, dit-il, vécut toujours depuis dans une grande misère et ne pouvait même pas parvenir à se convertir. Nous pensons qu'il parle de Kim Ie-sam i.)

Les cérémonies de l'enterrement du roi étant terminées, de suite, à la 11ème lune on cassa tous les dignitaires Si-p'ai et la moitié de la cour en fut vacante. Les grands ministres en fonction furent changés et choisis dans le sens de la réaction qui se fomentait; les trois grands ministres en charge furent dès lors Ni Pieng-mo, Sim Hoan-tsi et Kim Kouen-tsiou, tous du parti des No-ron et Sim Hoan-tsi en outre de la couleur Piek-p'ai. (On lit dans les lettres d'Europe qu'un ministre eut alors le courage de défendre les chrétiens en plein conseil et que nouvel Apollonius il reçut aussi la palme des martyrs en récompense de sa généreuse apologie. Toutes nos recherches n'ont pu encore nous faire rencontrer de traces de ce fait et nous ne voyons pas à qui il pourrait s'appliquer. Ce ne pourrait être que Ni Ka-hoan, mais sauf nouveaux renseignements, nous ne voyons

malheureusement pas moyen de le compter au nombre des martyrs.)

(Ici on ne peut improviser des ministres à volonté, leur dignité est à vie et on ne peut mettre en fonction que ceux qui possèdent déjà cette dignité. Pour en créer de nouveaux il faut suivre les règles et remplir une foule de formalités longues et difficiles.) De concert avec la reine régente, ils songèrent à mettre à exécution leurs affreux projets. En même temps les méchants qui depuis plusieurs années s'étaient joints aux Piek-p'ai pour attaquer la Religion, voyant ce grand changement dans l'état du temps, se relevèrent de concert avec eux et poussant vivement les choses. Dès la 12^e lune de cette année Kieng-sin parut au nom de la régente le décret impie qui prohibait la Religion dans tout le royaume, mettait au ban de la loi tous ses sectateurs et ordonnait de les saisir et juger sans miséricorde.

Dès la 11^{ème} lune un mandat d'arrêt avait été lancé contre T'soi Thomas de la part du tribunal des Crimes et il avait été jeté en prison. Son affaire de l'année précédente n'ayant pas eu de dénouement formel, sa prise ne devrait pas paraître étonnante; d'ailleurs ceci n'était qu'un fait personnel où la cour ne semblait pas concourir, les chrétiens quoique sur leur garde n'en furent pas très effrayés. Le 19 de la 12^{ème} lune, fête de la Purification au chant du coq T'soi Pierre appelé P'il-tiei, cousin germain de Thomas, faisait ses prières avec quelques autres dans une pharmacie donnant sur le bord d'une grande rue. Par hasard les sergents chargés de prohiber les jeux de cartes entendirent au dehors de la fenêtre le

bruit qu'ils firent en se frappant la poitrine, et croyant entendre le bruit de jeu de cartes enfoncèrent la fenêtre et se précipitèrent dans l'appartement. Ils ne virent aucune trace de cartes, mais ayant fouillé chaque personne, ils trouvèrent un calendrier ecclésiastique. Ne sachant pas lire et ignorant ce que c'était, ils le portèrent à leurs camarades plus savants et voyant que c'était un écrit de Religion ils retournèrent pour saisir les personnes. Le jour paraissait alors. Tous les autres chrétiens s'enfuirent, on ne put prendre que T'soi Pierre et O Etienne qui furent conduits au mandarin et enfermés avec T'soi Thomas.

Alors les chefs des satellites réunis au traître Kim le-sam i et aux mauvaises bandes de la Capitale firent de toutes parts leurs perquisitions et scrutaient tous les endroits qui leur paraissaient suspects. Les chrétiens furent dans une grande agitation, mais les circonstances de la fin de l'année calmèrent un peu bientôt les choses. (Alex.) Ce fut sans doute par suite du décret de la reine, que cette même 12ème lune, Tsio Justin, dit Tong-siem i, noble chrétien du parti des Nam-in et que nous avons vu autrefois se livrer aux exercices de la retraite spirituelle avec Kouen Xavier, fut saisi au district de lang-keun par son propre mandarin et déposé à la prison après un léger interrogatoire. Et peut-être encore à cette époque que Ni Kei-ien i, aussi noble du parti Nam-in et demeurant à la ville de T'siong-tsiou, fut pris de même par le propre mandarin et envoyé en exil après apostasie. Il paraît certain du moins que ce fut avant la fin de cette année Kieng-sin.

La circonstance de la fin de l'année mettait donc encore

un petit sursis aux grands coups qu'on était résolu de porter. C'est qu'il fallait bien laisser passer la grande fête du jour de l'an, le plus grand des jours de l'année et non moins célèbre que dans les pays d'Europe. on serait peut-être étonné de trouver à cette occasion aux dernières extrémités de l'Orient des usages assez semblables à ceux de nos pays en pareille circonstance, si on ne savait que la nature étant partout la même, les rapports de société ne sont pas différents et doivent se reproduire sous des formes à peu près analogues. Dès les 3 derniers jours de l'année la plupart des travaux extérieurs cessent, et on se livre au repos ou à quelque divertissement. Les enfants éloignés de leurs parents songent à se rendre près du foyer paternel, chacun retourne chez soi et il est bien peu de personnes qui passent cette époque hors de sa maison, on ne trouve guères que quelques portefaix ou commissionnaires qui par des retards malencontreux les passent à regret dans quelque auberge, et dans ce cas la plupart des aubergistes ne reçoivent rien le jour de l'an et donnent la nourriture gratis. Il y a plus, un usage assez suivi met à cette époque en liberté les détenus pour affaires non graves, ou leur assigne quelques jours de congé pour aller rendre leurs devoirs aux parents vivants et morts et le temps fixé étant écoulé, ils doivent se reconstituer d'eux-mêmes prisonniers. Dans ces jours encore les mandarins évitent de faire des saisies et souvent on refuse dans les préfectures de recevoir toute espèce d'appels, qui sont par le fait rejetés à plus tard, nous en avons été témoins plus d'une fois.

Dans l'étiquette la plus sévère il y a deux salutations en usage; la première se fait le dernier jour de l'année au soir, et porte le nom de 'salut de l'année écoulée'; la 2de se fait le matin du jour de l'an, c'est le 'salut du nouvel an' ou nos souhaits de bonne année, ce dernier salut est le seul vraiment de rigueur et qui soit pratiqué par tous. Il doit se faire à tous les parents, supérieurs et connaissances, et y manquer serait provoquer le refroidissement des relations et souvent s'exposer à des reproches graves. Mais la cérémonie la plus grave et la plus importante, c'est le sacrifice aux ancêtres, il se fait partout ce jour-là, avec la pompe que la position d'un chacun lui permet, c'est, croyons-nous même, le plus indispensable de toute l'année. Si les tombeaux des parents se trouvent près de la maison. on s'y rend aussi de suite, sinon on va les visiter dans le courant de la 1ère lune et on y fait les salutations d'usage. Les étrennes se retrouvent aussi dans ce pays, mais en petit; dans la famille il se bornera à quelque partie d'habillement donné aux enfants et aux inférieurs, puis des envois de pâtisseries chez les supérieurs, amis et connaissances. Du reste il est reçu au moins dans la province que quiconque fait son salut du nouvel an a droit à un verre de vin ou à d'autres nourritures. L'article des joujoux, dont la Corée est du reste fort mal assortie, joue toutefois quelque petit rôle au jour de l'an, mais seulement à la Capitale ou peut-être encore dans quelques autres villes. Les premiers jours de l'année se passent donc ainsi en échange de civilités, puis en réunions pour se récréer. Aucun travail ou transaction ne se reprend avant le 5 de la lune, ce qui

fait 8 jours de repos, mais on peut dire que 19 ou 20 jours se passent presque à rien faire et les jeux prennent une partie du temps, surtout des soirées. D'après ces quelques détails on ne sera pas étonné que la grande affaire de la ruine des chrétiens ait été suspendue pour quelques jours à l'occasion du nouvel an.

Nous sommes donc arrivés à l'année Sin-iou, qui répond à 1801; année Sin-iou à jamais mémorable par ses horreurs et ses cruautés! année gravée à jamais en caractères de sang dans le coeur de tous nos chrétiens et qui devrait être aussi dans le coeur de tout honnête homme, sur le pied de certaines années de Néron ou Dioclétien; mais aussi année glorieuse pour l'Eglise militante, comme féconde pour l'Eglise triomphante et où la Corée revêtue des toges sanglantes de ses généreux enfants semble avoir acquis le droit de se présenter avec confiance devant le Dieu crucifié pour faire valoir ses nobles titres à l'adoption d'enfant du calvaire. Non, nous en avons la douce assurance, la foi plantée et arrosée d'une manière si admirable dans cette contrée ne saurait y perdre ses racines.

On ne perdit pas de temps. Dès le 9 de la 1^{ère} lune, le traître Kim Ie-sam i conduisit les satellites chez le catéchiste en chef T'soi Jean, surnommé Koan-t'sieni. Jean qui s'attendait à l'orage s'était depuis quelques temps retiré et caché chez d'autres chrétiens; mais le 5 de cette même lune ayant été indisposé, il avait été obligé de revenir chez lui pour se soigner. Les satellites se présentèrent au milieu de la nuit, s'en saisirent et il fut écroué à la prison des voleurs. Peu après ayant été battu

de 13 coups de la planche à voleurs, il paraissait sans connaissance et étendu par terre il ressemblait à un homme mort, mais quand le juge commença à l'interroger il se redressa et développa avec dignité les 10 commandements. Le juge lui dit: "Puisque tu prétends honorer tes père et mère, pourquoi ne leur offres-tu pas les sacrifices?" Jean répondit: "Veuillez bien un peu réfléchir sérieusement. Pendant le sommeil aurait-on devant soi des nourritures délicieuses on ne pourrait les goûter, à plus forte raison comment un homme mort pourrait-il user des aliments?" Le juge ne put rien répondre et on le fit reconduire à la prison. Après cette prise les satellites en firent beaucoup d'autres et le jour et la nuit.; c'était seulement parmi les simples et les ignorants récemment convertis et des femmes. Les personnes plus influentes et plus haut placées furent alors prises en petit nombre.

Le 11, parut un ordre de la Régente qui nous a été conservé; elle s'exprimait ainsi: "Le feu roi disait souvent: en s'appliquant à faire briller la droite doctrine, la doctrine dérégulée (pervers) s'éteindra d'elle-même. Maintenant j'entends dire que la doctrine dérégulée se maintient et que depuis la Capitale jusqu'à la Province et surtout dans le Ho-tsiong, elle se répand de jour en jour davantage, comment pourrais-je ne pas en trembler? L'homme ne devient vraiment homme que par l'observation des relations naturelles, et un royaume ne trouve sa vie que dans l'instruction et la vraie doctrine. Or la doctrine dérégulée dont il est question ne reconnaît ni parents ni roi, et rejetant tout principe elle ravale l'homme au rang

des sauvages et des animaux. Le peuple ignorant s'en laisse emprendre de plus en plus et s'égare dans une fausse voie, c'est un enfant qui court à la rivière et s'y perd; comment pourrais-je ne pas le prendre en pitié et en avoir le coeur blessé? Les gouverneurs et mandarins des villes doivent lui ouvrir les yeux, faire en sorte que ses adeptes s'amendent clairement, et que ceux qui ne la suivent pas soient fortement éclairés et avertis, par là nous ne foulerons pas aux pieds les instructions que le feu roi s'est si généreusement efforcé de donner et les lumières qu'il a fait briller. Après cette stricte prohibition s'il y a encore des êtres qui ne reviennent pas à résipiscence, il faut les poursuivre de rébellion. En conséquence, les mandarins de chaque district établiront chaun dans toute l'étendue de sa juridiction le système des cinq maisons solidaires l'une de l'autre; si parmi les cinq maisons il y en a qui suivent la mauvaise doctrine, le chef qui leur est préposé avertira le mandarin pour les faire corriger. Après quoi s'il ne veulent pas encore changer, la loi est là, qu'on les extermine de façon à n'en laisser aucun germe. Telle est notre volonté, qu'elle soit connue et exécutée tant dans la ville capitale que dans les provinces."

Dès cette époque et pendant tout le cours de la 1ère et de la 2de lune commença à surgir une foule d'adresses au roi, pétitions aux ministres, circulaires des nobles, etc. dont le nombre est vraiment effrayant. Nous en avons sous les yeux une collection, loin toutefois d'être complète, qui atteste combien les esprits étaient montés et prouverait à elle seule que les choses étaient sans

remède. (Il est dit aussi dans ces mémoires que les mots de 'trois ennemis' employés dans les livres chrétiens pour désigner le démon, le monde et la chair ont donné lieu à l'accusation de rébellion, en faisant comprendre le gouvernement du roi sous le nom obscur de 'monde'. Cette remarque a été faite aussi par quelques autres. A tout prix, on voulait condamner les chrétiens comme rebelles afin de mettre par là ces familles tout à fait au ban de la loi et d'empêcher qu'elles ne pussent se relever. Quelle profonde malice! et malheureusement on ne réussit que trop bien.) Sur ces entrefaites une caisse renfermant des livres et objets de Religion, avec différents papiers compromettants et des lettres du P. Tsiou, avait été envoyée par précaution et mise en dépôt dans une maison que l'on croyait à l'abri des perquisitions. Mais bientôt après le dépositaire lui-même se trouvant en danger voulut la faire reporter à son propriétaire et craignant qu'elle ne fût saisie en route par les satellites, il la fit cacher dans des branches de sapin, espérant la faire passer pour une simple charge de bois de fagot. Le chrétien Im Thomas fut donc chargé de ce fardeau, mais la tournure en étant suspecte, un des valets de la mairie qui l'aperçut, soupçonna que ce pouvait être de la viande de boeuf tué en fraude, arrêta le porteur et le conduisit jusqu'au poste de la mairie, où la caisse ayant été ouverte devant le mandarin, on trouva tous ces objets et livres de Religion avec des lettres du prêtre. Le mandarin saisit l'envoya immédiatement sous escorte au tribunal des voleurs où tout fut déposé et le porteur soigneusement enfermé. Ce fut de l'huile jetée sur le feu et l'agitation

devint extrême. Ceci se passait le 19 de la 1ère lune. Cette caisse, au dire de Hoang Alexandre et de toute la tradition, appartenait à Tieng Augustin, dit Iak-tsong, (Tieng Jean, dit Iak-long, dans ses mémoires se récrie fortement contre la calomnie qui fit passer son frère Augustin pour propriétaire de la caisse. Il ne voit là qu'une ruse de ses ennemis pour parvenir à condamner de rébellion toute sa famille. Cependant outre les autorités que nous avons citées, il paraît que son frère ne nia pas que la caisse lui appartint et nous le regardons comme d'autant plus certain qu'un parent de cette famille nous assura que l'auteur des mémoires avait des raisons politiques pour tromper sur ce fait même après que tout était consommé.) et le mandarin de la mairie l'avait ainsi rapporté au grand juge criminel, qui était alors Ni Iou-kiengi, mais celui-ci conservait des doutes et voyant toute la gravité de l'affaire n'alla pas plus loin et la laissa tomber. Depuis cette saisie tous les chrétiens, consternés et tremblants, ne pensaient plus pouvoir vivre même un seul jour, une dizaine de jours se passa toutefois sans aucun événement. Dans les premiers jours de la 2de lune, le grand juge criminel fut remplacé par Sin Tai-hien i, qui, on ne sait dans quelle pensée, relâcha immédiatement tous les chrétiens apostats dont la prison regorgeait et n'en gardait que quatre, à savoir: T'soi Thomas, T'soi Pierre, T'soi Jean et Im Thomas. Les uns disaient qu'il voulait les faire périr sous les coups, d'autres qu'on parlait de les envoyer en exil et on cessa même un instant de faire de nouvelles arrestations, d'où les chrétiens conçurent une joie inespérée et osaient même se flatter que les choses

en resteraient là. Mais leur joie ne fut pas de longue durée, car sans perdre de temps Pak Tsong-oa et quelques autres se concertèrent et dans une adresse à la régente, après avoir fortement décrié la Religion, ils demandèrent qu'on traitât les coupables en rebelles et dénonçaient en même temps le grand juge Sin Tai-hien i pour avoir traité les chrétiens beaucoup trop légèrement. La régente tout en colère, fit en effet punir le grand juge et donna ordre de transférer les 4 prisonniers à la prison du tribunal appelé Keum-pou. (En fait de justice les nobles qui n'ont pas une dignité sont mis sur le pied du simple peuple.) D'après la loi les dignitaires et les rebelles seuls sont justiciables du Keum-pou; le tribunal des voleurs ne s'occupe que des voleurs et si le peuple se rend coupable de quelque autre délit il est justiciable du tribunal des Crimes. Les chrétiens saisis jusqu'alors, quoique tous du simple peuple avaient déjà été assimilés aux voleurs en les faisant juger par leur tribunal, maintenant les transférer au Keum-pou, c'était les mettre sur le pied des rebelles pour les traiter en conséquence. D'où l'on vit que les plans des ennemis de la Religion étaient dès le commencement déterminés et qu'ils étaient résolus de pousser les choses au parti extrême pour obtenir la réalisation complète de leurs projets.

Jusqu'ici les saisis n'avaient porté que sur des hommes du peuple; toutes les mesures étant bien organisées il était temps de frapper le coup décisif. Le 9 de la 2^{de} lune, un mandat d'arrêt fut lancé avec les formalités requises sur les principaux dignitaires du parti menacé; (Les satellites ne peuvent pas saisir les dignitaires, s'il sont accusés on

envoie un des mandarins subalternes du tribunal dont ils dépendent et on doit le suivre.) Ni Ka-hoan i, ministre du 2d ordre, Tieng Jean, dit Iak-iong, dignitaire du 4ème degré approchant du ministre, Ni Pierre dit Seng-houn i peu auparavant mandarin, et Hong Luc dit Nak-min aussi d'une dignité élevée furent arrêtés et déposés à la prison dite Keum-pou. Le 11 de la même lune Kouen Ambroise dit T'siel-sin i, et Tieng Augustin dit Iak-tsong le furent aussi et en même temps ordre fut donné au tribunal des voleurs de reprendre tous les chrétiens récemment relâchés. Le 14 Hong François Xavier dit Kio-man i fut pris avec son fils Léon, mais ce dernier fut envoyé à la prison de sa propre ville de P'o-t'sien. De plus on fit venir au Keum-pou les chrétiens détenus aux villes de Nie-tsiou et de Iang-keun, en un mot les principaux des chrétiens soit de la Capitale soit de la province furent arrêtés. Les allées et venues des satellites dans tous les quartiers ne discontinuaient ni le jour ni la nuit; le Keum-pou, les deux divisions du tribunal des voleurs, la prison du tribunal des Crimes, tout était plein et regorgeait même, assure-t-on. Des arrestations si nombreuses et de personnages si importants fit un éclat effroyable dans toute la ville, chacun était dans la consternation et surtout les chrétiens glacés d'effroi et cette terreur fut portée à son comble, quand n'épargnant plus même les femmes nobles, on vit le 24 les satellites se porter sur la maison de Kang Colombe et la saisir avec ses esclaves, et ce premier pas fait, beaucoup d'autres femmes nobles furent aussi arrêtées. La plupart de ces personnages importants sont déjà connus par ce que nous

avons rapporté dans cette histoire, nous ajouterons seulement quelques mots pour faire connaître les autres.

Kouen Ambroise, appelé T'siel-sin i était l'aîné de la famille des Kouen que Ni Piekî choisit pour en faire le fondement de la Religion dans ce pays et frère de Kouen François Xavier que nous avons vu périr en 1791. Nous avons déjà dit quelle réputation de science et de vertu il s'était acquis. Quand il entendit parler de la Religion, il eut d'abord peine à y croire et étant sur ses gardes il en approfondit assez longtemps les diverses parties avant de l'embrasser, mais une fois son parti pris, il ne se démentit pas. Près de ses parents il s'exerçait aux devoirs de la piété filiale; dans ses rapports avec la société, libéral et dévoué, il savait gagner la confiance de tous et généralement était regardé avec un grand respect. L'autorité de son nom attira beaucoup de payens à la Religion, puisque cet homme-là regarde la Religion comme vraie, se disait-on, comment pourrions-nous ne pas le croire? (Cependant) il ne se mêla jamais aux affaires de la chrétienté et resta toujours chez lui occupé à ses études et autres devoirs; malgré cela, son nom seul, trop grand aux yeux de ses rivaux, lui attira beaucoup d'envieux et sa conduite toute opposée aux maximes du siècle augmentait de jour en jour le nombre de ses ennemis. Dans des écrits et circulaires publiques plusieurs fois accablé d'injures, il ne s'en inquiétait pas et continuait tranquillement son genre de vie. Entendant parler des défections que les tortures arrachaient aux chrétiens il disait en soupirant: "Pauvres gens! quel dommage, ils rendent par là inutiles les travaux de la moitié de leur vie

et reçoivent les supplices sans aucun salaire." Pris lui-même et conduit devant ses juges, il y donna en détail toute la suite de la Religion et ses pratiques, dans les supplices son visage ne changeait pas et il répondait avec calme et tranquillité, au point qu'un de ses ennemis les plus acharnés ayant par fonction assisté à la question disait en sortant à ceux qui étaient là: "A voir les autres coupables dans les interrogatoires, il semble qu'ils soient tous hors d'eux-mêmes, mais pour Kouen T'siel-sin i, il répond au milieu des tortures comme un homme tranquillement assis à un festin."

Un autre prisonnier non moins distingué était Tieng Augustin appelé Iak-tsong, descendant de l'illustre famille des Tieng de Ma-tsai dont nous avons souvent parlé et un des frères aînés de Tieng Jean appelé Iak-iong. D'un caractère très droit, il avait encore l'esprit juste, précis et profond. De bonne heure il s'appliqua fortement aux études, eut des succès dans les lettres, se plaisait auprès des personnes graves et instruites, se lia avec le fameux lettré Ni Ka-hoani et voulut prendre les leçons des plus célèbres lettrés alors existants. Regardant la littérature comme trop légère il renonça à cette partie, résolut dès lors à ne pas entrer dans les dignités dont la voie lui était d'ailleurs si facile, puis se tourna entièrement aux travaux de philosophie et de morale. Quelque temps il s'appliqua à la doctrine de Laotse pour essayer d'obtenir l'immortalité qu'elle promet, mais bientôt reconnaissant le peu de fondement et la vanité de cette secte, il l'abandonna entièrement. Ses travaux embrassèrent encore la médecine et il s'y acquit un nom distingué. Vers l'âge de vingt ans il

devint veuf par la mort prématurée de son épouse; toute sa famille l'en plaignait beaucoup, lui seul se tourmentait peu de cet isolement où il se trouvait, ses pensées étaient plus haut. Toujours enfoncé dans l'étude il en perdait même la pensée de dormir et de manger, et on le vit quelquefois retiré dans un appartement, tout appliqué jour et nuit à ses recherches sans se troubler ou même percevoir du tapage, quoiqu'il fût, dont la maison retentissait. Quand la Religion se répandit en Corée, Augustin en fut de suite instruit, mais il ne se rendit pas et disait souvent que Ni Pieki sortait de la vraie voie, ce ne fut que 4 ou 5 ans plus tard qu'il céda aux sollicitations de la grâce et trouvant dans ses hésitations quelque chose semblable à la conduite de St. Augustin, il voulut prendre ce saint pour patron au baptême. Une fois qu'il eut commencé, il ne regarda plus en arrière et poursuivit sa route avec une ferveur et une persévérance au dessus de tout éloge. En 1791 alors que ses frères et tant d'autres de ses amis tombaient dans une misérable défection, il ne se démentit pas. Son père non seulement n'avait pas voulu pratiquer, mais encore décriait la Religion et la prohibait sévèrement à ses enfants. Augustin tout en continuant vis à vis de lui la pratique de tous les devoirs d'un fils pieux et dévoué, n'en continua pas moins tous ses exercices et supporta avec une patience inaltérable tous les mauvais traitements qu'il lui faisait subir. On rapporte qu'un jour ayant violemment gourmandé trois de ses fils à ce sujet, il finit par les lier ensemble, puis leur demanda comment ils se trouvaient. Augustin répondit qu'il se trouvait mieux que jamais pour bien pratiquer. Il avait eu

de sa lère femme un fils nommé Charles qu'il instruisait avec soin de tous les devoirs de chrétien, puis cédant aux instances de sa famille il se remaria, mais voulait vivre dans la continence avec sa femme; les chrétiens l'en dissuadèrent et suivant leurs conseils il en eut plusieurs enfants dont nous aurons par la suite à nous entretenir.

Les affaires de 1795 et années suivantes n'ébranlèrent pas la constance d'Augustin, comme il resta aussi insensible aux clameurs continuelles de ses ennemis, il semblait ne pas en avoir connaissance. Voici ce que Hoang Alexandre dit de lui après l'avoir si bien connu "Ne s'occupant nullement des affaires du monde, il se plaisait surtout à l'étude de la philosophie morale; fut-il malade ou souffrant de la faim il semblait ne pas s'apercevoir de la douleur; un point de doctrine lui était-il obscur, perdant le goût des nourritures et la pensée du sommeil il ne cessait ses recherches qu'après l'avoir éclairci; à cheval ou en bateau il ne discontinuait pas ses profondes méditations; voyait-il des ignorants, il mettait tous ses soins à les instruire et malgré qu'il eût la langue desséchée ou le gosier souffrant, on ne voyait chez lui ni paresse ni ennui à le faire et parmi les plus grossiers il en est peu qu'il ne parvînt à instruire. Il composa en faveur de ces ignorants deux volumes en coréen, intitulés: 'Principaux articles de la Religion', y réunissant ce qu'il avait vu dans les livres religieux, y ajoutant quelque peu du sien et s'efforçant surtout d'être clair; aussi les simples et les enfants en ouvrant ce livre y voient tout clairement; aucun doute, aucune obscurité ne les arrête; c'est un livre précieux pour les nouveaux chrétiens de ces pays et le prêtre

l'autorisa. Appliqué aux études pendant de longues années, c'était devenu chez lui une seconde nature. Aussi quand il rencontrait des chrétiens après les premiers compliments d'usage il parlait de suite de doctrine et pendant tout le jour on ne pouvait placer une parole inutile. Si on lui donnait la solution de quelque point qu'il n'avait pu pénétrer il en avait le coeur tout rempli de joie et en remerciait sans cesse. Si des gens tièdes ou stupides ne s'occupaient pas volontiers entendre les vérités du salut, il ne pouvait contenir sa peine et sa tristesse. On l'interrogeait sur toute espèce de points, et aussitôt semblant tirer quelque chose qu'il aurait eu en poche, il répondait sans trouble, discutant successivement sur tout et n'étant jamais à court. Ses discours étaient pleins d'ordre et sans confusions; son esprit étant admirablement précis il confortait la foi et échauffait la charité dans le coeur de tous. Sa vertu et sa réputation étaient moindres que celles du grand catéchiste T'soi Jean, mais ses talents et ses connaissances lui étaient supérieurs...."

De concert avec Kim Yosaphat, appelé Ken-sioun i, Augustin s'occupait de former une suite complète des vérités de la Religion, en classant par ordre, dans un seul ouvrage, ce qui est répandu dans beaucoup de livres et il en était à peine à moitié quand la persécution les surprit. Il est bien à regretter que cet ouvrage n'ait pas été conservé, rédigé par des hommes du pays, il eût dû être plus à la portée des peuples de ce royaume, aucun vestige n'en reste. S'étant établi à la Capitale il reçut nombre de fois le prêtre dans sa maison et avait été nommé président de la confrérie dite Mieng-to. Au courant de toutes les

menées des ennemis de la Religion, il voyait bien qu'il ne pouvait échapper à leurs coups, mais il le voyait avec calme et n'en continuait pas moins de se livrer aux bonnes oeuvres, son esprit et son coeur étant bien élevés au dessus de ce monde de boue. On rapporte que peu de temps avant sa prise, un de ses amis chrétien de la classe des interprètes étant venu le trouver, vit sur ses habits mille petits croix resplendissants de clarté et lui demanda ce que c'était. Augustin sans répondre directement détourna, dit-on, la conversation d'une manière adroite, mais les chrétiens y virent un présage des souffrances auxquelles il allait être en but. Le 11 de la 1ère lune de l'année Sin-iou, il revenait à cheval de Ma-tsai à la Capitale et rencontra sur la route un mandarin de la prison Keum-pou, qui déjà l'avait passé, quand Augustin se doutant qu'il allait pour le prendre, lui envoya son esclave pour savoir qui on voulait saisir, ajoutant que si c'était lui-même, il était inutile d'aller plus loin. En effet on allait pour le chercher, il fut donc pris dans ce même lieu et conduit à la prison de la Capitale. Dans les interrogatoires il fit noblement sa profession de foi, développa les vérités de la Religion devant ses juges et déclara nettement que se conserver furtivement la vie par le reniement de son Dieu, c'est ce qu'il ne pourrait jamais faire. De là on essaya cent fois de le faire changer, mais il ne répondit plus un mot et un mandarin dit à un de ses frères: "Votre frère est dur comme bois et pierre." Interrogé sur la fameuse caisse prise le 19 de la 1ère lune, il dit qu'elle lui appartenait, mais interrogé ensuite sur les lettres qu'elle contenait il n'ouvrit pas la bouche et resta muet.

Le juge envoya donc à la maison d'Augustin et fit dire à sa famille: "Si votre père voulait seulement indiquer les noms et la demeure du prêtre, il n'y aurait pas de raison pour qu'il mourût, mais il préfère de violents supplices et ne veut ouvrir la bouche. Vous, sa famille, ses enfants, songez-y bien et pour sauver la vie de votre chef, avouez tout franchement." La famille répondit ignorer le tout. Augustin en faisant l'apologie de la Religion avait dit qu'on ne devait pas la prohiber, ses juges en prirent occasion pour dire qu'il se récriait contre l'ordre du roi et présentèrent l'accusation dans le sens de crime de lèse-Majesté. (Dans ce pays ceux qui osent dire que le roi se trompe ou qu'il a tort d'agir de telle ou telle manière, s'exposent à être poursuivis de rébellion, qu'on ne l'oublie pas, car c'est là tout le crime de rébellion qui fut imputé à Augustin.)

Les livres de Religion pris dans la caisse présentant le monde comme un ennemi qu'il faut vaincre, on prétendit encore que ce mot indiquait le gouvernement sous un nom couvert; et enfin par suite de quelques notes prétendues sur les actes du gouvernement contre la Religion ou plutôt par suite de la détermination ferme où on était de passer par-dessus toute justice et de le traiter en rebelle, on le déclara tel et l'arrêt de mort fut prononcé avec les formalités voulues en pareil cas.

(Nous avons en main les écrits d'un noble qui voulut s'amuser à réfuter la Religion, il l'attaque par la doctrine chrétienne sur les ennemis le monde et la chair. "Regarder son corps, dit-il, comme un ennemi, c'est traiter d'ennemis les parents qui l'ont engendré. Regarder le monde comme

un ennemi, c'est regarder le roi en ennemi." puis prenant occasion de paroles par lesquelles la virginité est louée et désignée comme un conseil de perfection, il ajoute, avec l'exagération qu'inspire toujours la mauvaise foi: "Enfin cette doctrine défend les rapports naturels de l'homme et de la femme, elle est donc en tout contraire à la nature." Telle est la sottise impudence avec laquelle on ose bien mentir, tout en prétendant faire une discussion raisonnée.)

Enfin était encore détenu Hong François Xavier, appelé Kio-man i (Hong de Nam-iang) descendant lui aussi d'une noble famille de Nam-in, depuis longtemps distinguée par les charges importantes qu'elle remplit de race en race dans le royaume. D'un caractère grave et réfléchi, joint aux connaissances qu'il avait acquises, il était considéré et respecté de tous et avait obtenu le grade de Bachelier dit tsin-sa. Quittant la Capitale il avait été s'établir au district de P'o-tsien à 8 ou 10 lieues de là, et bientôt après la Religion pénétrant en Corée il en fut aussitôt instruit, vraisemblablement par la famille des Kouen de Iang-keun dont il était allié. Il ne l'embrassa pas de suite, mais plus tard éclairé et pressé par son fils Léon, il en reconnut la vérité, se mit à la pratiquer avec ferveur, se fit baptiser par le P. Tsiou et ne se démentit pas un instant. Quoique dans une belle position, il n'eut plus dès lors de pensée pour les grandeurs humaines et cessa ses relations avec ses nombreux amis payens, sans s'inquiéter du blâme et des reproches que sa conduite lui attira. Tout appliqué à ses devoirs et à l'instruction de sa famille, il s'efforçait de réchauffer les tièdes et de propager la Religion et passait fréquemment ses soirées à exhorter les chrétiens du pays

réunis chez lui à cet effet. On ne voit pas qu'il se soit jamais mêlé aux affaires de la Religion, toutefois ses ennemis voyaient d'une part en son nom une espèce de péché originel et de l'autre sa Religion leur était odieuse; aussi en 1801 prévoyant bien être recherché, il s'était caché quelques jours, puis sachant qu'il ne pourrait longtemps éviter il prit son parti et retournait chez lui en compagnie de son fils pour y attendre l'ordre de Dieu quand rencontré sur la route par les satellites il fut saisi et conduit à la Capitale; il ne perdit pas son calme et sa tranquillité et subit sans faiblesse les supplices qui lui furent infligés, et la sentence de mort ne se fit pas attendre.

Le procès de ces hommes importants ne devait pas durer longtemps, leur sort était décidé à l'avance et la rage de leurs ennemis ne pouvait souffrir de retard. Il reste peu de détails sur les circonstances de leurs interrogatoires et supplices, mais les pièces détachées des actes civils que nous avons entre les mains les portent comme accusés d'être sectateurs d'une religion étrangère et dépravée, puis pour Tieng Augustin seulement, d'être en outre rebelle aux ordres du roi qui l'avaient prohibée. Dès avant la fin des débats, le 21 de la 2^{de} lune, Kouen Ambroise terminait sa carrière à l'âge de 66 ans tué sous les coups au rapport des uns, et seulement des suites de ses blessures selon d'autres. Quelques-uns prétendent même qu'il rendit le dernier soupir en dehors de la prison, circonstance qui leur fait jeter quelque doute sur sa constance, et est en elle-même de nature à le faire, mais simple soupçon qui n'est appuyé d'ailleurs sur aucun

document, ne nous permet pas d'entacher la mémoire de ce chrétien dont les sentiments et la conduite ont été si fermes pendant tant d'années et jusque dans les supplices. Les principaux chefs furent aussitôt condamnés à mort et le 28 de la 2^{de} lune (8 avril 1801) montèrent sur l'échafaud en dehors de la petite porte de l'ouest: Ni Pierre dit Seng-houn i, T'soi Thomas dit P'il-kong, T'soi Jean dit T'siang-hien, Tieng Augustin dit Iak-tsong, Hong Luc dit Nak-min, et Hong François Xavier dit Kio-man i.

En même temps Tieng Iak-iong et Tieng Iak-tsien, frères d'Augustin qui s'étaient rachetés par de lâches et nombreuses apostasies (Tieng Iak-iong dit encore avoir apostasié lors de sa prise, ainsi que Ni Pierre et Ni Ka-hoan i) furent envoyés en exil; et nous voyons le ministre Ni Ka-hoan i, frappé de la même sentence de mort comme chef des chrétiens, enfermé dans une chambre sans nourriture et y mourir après sept jours d'une lente agonie. Ainsi périt cet homme remarquable, immolé à la fureur de ses envieux sous prétexte de Religion, mais toutes nos recherches n'ont abouti qu'à nous convaincre de plus en plus que jamais il ne pratiqua et jusqu'à la fin nous ne trouvons aucune trace de conversion qui puisse nous faire espérer qu'il ait trouvé grâce devant Dieu, dont l'existence lui fut toutefois connue, ainsi que la vérité de la Religion. (On apprendra avec satisfaction qu'un certain nombre de descendants de ce ministre pratiquent aujourd'hui.) *Dilexirunt magis gloriam hominum quam gloriam Dei.* Nos pensées se reportent d'une manière bien plus triste encore sur Ni Pierre que nous avons vu introduire la Religion dans ce pays-ci et l'y propager avec

zèle, ses nombreuses défections et les écrits dont il les accompagna pour se laver aux yeux du public nous ont déjà souvent percé le coeur, aujourd'hui nous le voyons bien porter sa tête sur l'échafaud, mais qui ne pâlera en apprenant qu'après apostasie, aucune trace de rétraction, aucun vestige de retour vers son Dieu n'a pu être rencontré. O profondeur des jugements de Dieu! Non multi potentes, non multi nobiles!! Il avait 45 ans. Après 3 jours, son corps fut reporté chez lui, personne n'osa aller y faire de visite de condoléance, son ami et allié Sim Iou fut le seul, il y alla en deuil et pleura sur le corps, ce qui excita des murmures. (Dans la nombreuse parenté de Ni Pierre on compte très peu de pratiquants, bien plus la plupart de ses parents sont jusqu'à ce jour fort hostiles à la Religion. De 3 fils qu'il laissa, deux branches seulement pratiquent aujourd'hui et nous aurons à en faire mention dans la suite de cette histoire.)

Mais détournons nos regards de ces lamentables tableaux et joignant nos concerts à ceux de la cour céleste qui vient de recevoir en triomphe nos cinq glorieux martyrs, édifions-nous des quelques détails qui nous ont été conservés sur ces morts précieuses. C'est d'abord T'soi Thomas dont le caractère si droit et si franc avait, comme nous avons vu, excité les sympathies du feu roi et les nôtres aussi d'une manière si admirable. Ses dernières tortures furent supportées sans aucune marque de faiblesse. Le bourreau peu expérimenté ne lui ayant pas tranché la tête du premier coup, Thomas porta sa main sur sa blessure, la retire toute ensanglantée, la fixe attentivement et dit avec joie: Précieux sang! (oui,

précieux sang en effet qui était le prix d'une éternelle félicité) et au même instant un second coup ouvre au généreux martyr les portes de la céleste patrie.

C'est ensuite le zélé catéchiste T'soi Jean. Dans les derniers interrogatoires il eut au tribunal des voleurs un moment de faiblesse, mais la grâce a pris le dessus, et de suite au tribunal des Crimes il se rétracte franchement et a l'audace, disent les actes civils, de composer alors par écrit et de présenter une apologie de la Religion et c'est sur cette noble confession qu'il va gaiement présenter sa tête au bourreau, voilà l'Apôtre. Il était âgé de 43 ans.

C'est encore Hong François Xavier sur lequel aucun détail ne nous est parvenu, mais dont un bel éloge fut tracé par ses juges eux-mêmes en disant: Qu'il s'était invariablement montré décidé à mourir de bon coeur pour sa Religion. Il avait 64 ans.

Suivons aussi Hong Luc, cet homme élevé en dignités qui plusieurs fois pour se mettre à l'abri des attaques, avait renié de bouche sa Religion sans toutefois perdre ses convictions ni abandonner la pratique. Ses apostasies précédentes lui firent faire grâce de la vie, et condamné à l'exil il reçut sur les jambes la bastonnade en usage en pareilles circonstances. C'est alors que la grâce reprenant le dessus et la foi toute sa vivacité, réveillèrent cette âme aux sentiments généreux. Il relève aussitôt la tête et dit à ses juges: "Tout ce que j'ai dit par le passé n'était que pour conserver furtivement mon existence; maintenant que je suis encore battu et déshonoré j'aime mieux vous dire tout ce que j'ai sur le coeur et mourir franchement. Le Dieu que je sers, c'est le Souverain Maître (Seigneur du

Ciel) de la terre, des esprits, des hommes et de toutes choses. Ni Matthieu (nom du P. Matthieu Ricci) et les autres missionnaires sont des hommes admirables de doctrine et de sainteté, toutes leurs paroles sont vraies, rien de faux chez eux. Je désire donc maintenant mourir pour Dieu et par là confesser sa vérité." Les premiers ministres qui présidaient à la séance furent aussi étonnés que piqués des paroles du confesseur de la foi et ce fut une grande rumeur dans toute l'assemblée. Un exprès fut immédiatement envoyé à la régente pour l'informer de ce fait et la reine irritée donna ordre de le traiter d'une manière extrême, ce qui fut fait et on peut se faire une idée de l'état où son corps dut alors être réduit. Hong Luc renvoyé ensuite à la prison disait en lavant le sang découlant de ses blessures: Voilà qui fait bien et met le coeur à l'aise. Ces paroles ont été conservées par un témoin. S'il faut en croire sa sentence Luc aurait dit aussi souffrir avec joie ses supplices pour expier ses anciennes apostasies dont ils étaient la juste punition. Quand il monta sur le charriot pour aller au supplice il avait un air de bonheur, tenait les yeux élevés en haut et exhortait le peuple, il mourut ainsi à l'âge de 51 ans. L'auteur contemporain de sa notice ajoute une réflexion bien digne d'attention. "Après avoir été fermes au commencement, dit-il, beaucoup fléchissaient à la fin; se relever après la chute et devenir martyr n'est pas chose commune ni facile. On dit que Hong Luc récitait tous les jours son rosaire et que même au milieu de ses fonctions publiques ou du concours d'hôtes et amis, il ne l'omit jamais un seul jour, serait-ce qui lui a mérité cette grâce extraordinaire?"

On est aussi heureux que surpris de rencontrer cette réflexion dans la bouche d'un néophyte et elle nous montre que les sentiments des chrétiens sont les mêmes par toute la terre, gloire donc et honneur à la bonne Marie qui jamais n'abandonne pas ses serviteurs.

Admironons enfin les derniers moments de Tieng Augustin. La noblesse de son extraction, ses talents remarquables et ses vertus éclatantes lui avaient acquis un grand nom qui réhausse encore sa glorieuse confession. Quand il monta sur le charriot pour aller au supplice l'air de son visage était calme et rayonnant de lumière. Pendant le trajet il appelle le conducteur et lui dit avoir soif. Les assistants le réprimandèrent fortement, mais il répondit: "C'est pour imiter un grand modèle que je demande à boire."

Infatigable prédicateur jusque dans la prison et à la barre de ses juges, le théâtre de son martyr devait encore être pour lui une chaire bien éloquente. Arrivé là il s'asseyait en face des instruments de supplice qu'il contemple avec bonheur, puis élevant la voix de manière à être entendu de tout le peuple environnant, il s'écrie: "Le Seigneur suprême du Ciel et de la terre et de toutes choses, existant par lui-même et infiniment adorable, vous a créés et vous conserve. Tous, vous devez vous convertir à votre premier principe, n'en faites pas follement un sujet de mépris et de raillerie. Ce que vous regardez comme une honte et un opprobre pour moi va être bientôt un sujet de ma gloire." On l'interrompt en l'avertissant de mettre sa tête sous l'instrument du supplice, il se place de manière à voir le Ciel. "Il vaut mieux, dit-il, mourir en regardant le Ciel qu'en regardant

la terre." Le bourreau tremblait et n'osait frapper, mais enfin la crainte du chatiment l'emportant sur l'admiration, il donne le coup. La tête n'était coupée qu'à moitié, Augustin se redresse, fait extensiblement un grand signe de croix et se replace paisiblement, la tête tomba sous un nouveau coup et l'âme du héros chrétien entre triomphante à la cour du roi des martyrs, il avait 42 ans. Ainsi finit un des hommes les plus remarquables et des plus beaux martyrs que la Religion ait compté dans ce pays. Admiré de tous, son souvenir est encore présent à beaucoup jusqu'à nos jours. Par une distinction que l'on a peine à s'expliquer, Augustin fut traité sur un pied plus sévère que ses autres compagnons; il est le seul dont les biens furent alors confisqués par ordre spécial de la cour sous prétexte de rébellion aux ordres du roi, sans toutefois l'avoir jamais accusé d'aucun complot. "C'est, dit-on, une précaution prise par ses ennemis pour rendre plus difficile la réintégration de sa famille et lui ôter (rendre impossible) toute idée de vengeance possible; la prise de la caisse et sans doute la noblesse et la fermeté constante de ses paroles en fournirent l'occasion; quoiqu'il en soit, c'est à nos yeux une distinction honorable pour notre martyr et de quel nouvel éclat ne brillera-t-il pas quand nous verrons plus tard presque toute sa famille partager sa palme. Le corps fut recueilli et enterré au pays natal d'Augustin et ses parents peu ou point chrétiens nous ont assuré que plusieurs guérisons miraculeuses s'étaient opérées sur son tombeau.

(1) Le pied dont il est parlé ici n'est pas si grand que

l'ancien pied français. C'est du reste un terme usité ici pour désigner un taille extraordinaire.

(1) par l'amour des sciences et se rendant de suite à l'évidence de ses principes. Ici comme ailleurs la Religion est toujours la fidèle compagne de la science qu'elle dirige et perfectionne, comme elle est elle-même soutenue humainement partout.)

* Détails à la vie de Tan oueni.

한 국 천 주 교 회 창 립 사 연 구 원

변기영 몬시뇰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사랑방 윗목 구석구석에 처 박아두었던 보파리들을 이것저것 내다가 풀어서 교회와 사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들은 죽기 전 알리려 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변기영몬시뇰사랑방.kr 또는 www.msgr-byon.org 또는 www.msgrpeterbyon.org

● 작성일 : 2016.10.01 오전 10:49:15

278. 서양 오랑캐의 도를 추종하는 저 5,6명은 족보에서 제명하라 !

〈이 땅에 빛을 밝힌 신앙선조-〈이벽 성조의 생애와 최후〉
Life & Martyrdom of John Baptist Yi Byeok, Server of
God, the Founding Father of the Church in Korea.

뜻밖에도, “이 땅에 빛을 밝힌 신앙의 선조”라는 제목으로, 평화방송에서 지난 해 11월에, 제작, 방영한 이벽 성조에 대한 동영상은, 전편과 후편으로, 각각 46분씩 걸리는 것으로 모두 92분 걸려야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하여 시청자들이 늘어서, 4만여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입니다. 딱딱한 논문식으로 되지 않고, 이야기식, 評傳 서술 형식으로 만든 것이

다. 편집자들은 촬영한 내용들 중에 시간 관계상(?) 많이 줄이느라고 애를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 이야기꾼이 두어 번 훑어보니, 그런대로 좀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이야기식이지만, 역사적인 사실과 근거문헌들을 가지고, 그동안 잘못 알려져 온 것들도 많이 바로잡고자 하였으며, 또 짧지 않고, 단순하지 않은 역사를 이야기하다보니, 이야기하는 자신도, 산골에서 향아리에 쌀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는데도, 굶어죽지 않도록, 하늘이 주시는 ‘나이’ 만은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특히, 많은 내용을 되도록 다 이야기하고자 과용을 부리며 빨리 늘어놓느라고, 속인들의 우스개 말처럼, 종종 말이 빠져서, 이가 헛나온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조선교구 설정 당시의 북경 교구장은 Alexander de Guvea 주교가 아니라, 당시 남경 교구장으로서 북경교구장도 겸직하던, Pires Perreira 주교였고, 김대건 부제와 함께 서해를 항해하여 중국에 갔던 사람은 이충익의 동생 이방익이 아니라, 이방익의 아들, 이의창입니다. 또, 을사년 박해 때, 이벽, 이승훈, 권철신, 권일신, 정약중, 등 저 5,6명의 최초 천주교 신도들을, 각 가문에서는 서양 오랑캐의 도를 따르니, 족보에서 제명하라는 문귀, “휘지문담지외야”는 을사추조적발사건의 통문에 나오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彼西學五六人擯以夷狄之類 揮之門牆之外也-벽위편).

- By Mgr. Peter Byon,

言論暴力과 言語暴力, 暴力이 亂舞하는 狂亂의 時局에,
暴力 政治와 政治 暴力! / 行政 暴力과 暴力 行政! /
言語 暴力과 言論 暴力! / 暴力 言語와 暴力 言論! /
司法暴力과 暴力 法治! / 宗教暴力과 暴力 信仰! /
暴力社會와 社會暴力! / 個人獨裁와 多數의 暴力! /
多數의 暴力과 暴徒 社會! / 社會暴力과 社會 正義! /
正義社會와 社會正義! / 民衆暴力과 暴力革命! /
含血吩人, 先汚其口! / 勸上搖木, 矯角殺牛! /

無血의 殉敎와 聖母님의 一生 !

Msgr. Byon

● 작성일 : 2016.10.10 오후 1:20:18

279. 동영상: [이 땅에 빛을 밝힌 신앙선조, 이벽 성조의 생애와 최후]를 다시 보면서 !

변기영 몬시뇰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사랑방 윗목 구석구석에 처 박아두었던 보파리들을 이것저것 내다가 풀어서 교회와 사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들은 죽기 전 알리려 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변기영몬시뇰사랑방.kr 또는 www.msgr-byon.org 또는 www.msgrpeterbyon.org

이 땅에 빛을 밝힌 신앙선조 -〈이벽 성조의 생애와 최후〉바탕화면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뜻밖에도, “이 땅에 빛을 밝힌 신앙의 선조”라는 제목으로, 평화방송에서 지난 해 11월에, 제작, 방영한 이벽 성조에 대한 동영상은, 전편과 후편으로, 각각 46분씩 걸리는 것으로 모두 92분 걸려야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하여 시청자들이 늘어서, 4만여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입니다. 딱딱한 논문식으로 되지 않고, 이야기식, 評傳 서술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편집자들은 촬영한 내용들 중에 시간 관계상(?) 많이 줄이느라고 애를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꾼이 너무 많은 분량을 말하였기 때문이지만, 못다 한 말이 훨씬 더 많고, 그 당시 역사의 현장은 더더욱 말할 내용이 많을 테니, 문헌에 나오는 한두 줄 문장이나, 한두 글자의 바늘구멍으로 보고 떠드는 소리들이 얼마나 옛 사실과 거리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필자 이야기꾼이 두어 훑어보니, 그런대로 좀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이야기식이지만, 역사적인 사실과 근거문헌들을 가지고, 그동안 잘못 알려져 온 것들도

많이 바로잡고자 하였으며, 또 짧지 않고, 단순하지 않은 역사를 이야기하다보니, 이야기하는 자신도, 산골에서 항아리에 쌀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는데도, 굶어죽지 않도록, 하늘이 주시는 ‘나이’ 만이라도 공짜로 알고,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특히, 많은 내용을 되도록 다 이야기하고자 과용을 부리며 빨리 늘어놓느라고, 속인들의 우스개 말처럼, 종종 말이 빠져서, 이가 헛나온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조선교구 설정(1831) 당시의 북경 교구장은 Alexander de Guvea 주교가 아니라, 당시 남경 교구장으로서 북경교구장도 겸직하던, Pires Perreira 주교였고, 김대건 부제와 함께 서해를 향해하여 중국에 갔던 사람은 이충익의 동생 이방익이 아니라, 이방익의 아들, 이의창입니다. 순교자 이의창의 묘는 병오년(1846) 박해 때 순교한 후, 횡성군 공근면 산골에 있다는 족보 기록을 따라, 필자 자신도 찾아보았고, 필자의 동창 이대식 신부에게도 부탁하여 찾아보게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전국이 개발화 일변도의 시국이라서, 지각변동과 변화가 심하여, 앞으로는 더욱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기가, 100년 밖에 안된 토마스 안중근 의사의 묘도 잃어버려, 찾지 못하는 민족이니... 참 ! 그래도 200여년이 지난 이벽 성조의 묘를 실묘 직전에 찾게 된 것은 하늘의 섭리였음이 분명합니다.

또, 을사년(1785) 박해 때, 이벽, 이승훈, 권철신, 권일신, 정약종, 등, 저 5,6명의 최초 천주교 신도들을, 각 가문에서는 서양 오랑캐의 도를 따르는 무리라 하여, 족보에서 제명하라는 문귀, “휘지문담지외야” 는 을사추조적발 사건의 통문에 나오는 것으로, 방송 자막에 나오지 않아, 좀 아쉬웠습니다(彼西學五六人 擯以夷狄之類 揮之門牆之外也-벽위편). 앞으로 문헌 위주로 뿐 아니라, 당시의 우리 문화 관습에 대한 상식과 이해가 전제된 수준에서, 보다 풍부하게 정리되어 옛 역사가 책으로 발행될 날이 오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By Mgr. Peter Byon.

● 작성일 : 2016.10.10 오후 9:45:25

280. 103위 성인들의 축일 첫 대미사를, 9월 20일 축일이 아닌, 10월 14일 주일에 성베드로대성당

기적의 9월 27일은 103위 시성이 최종 확정된, [103 성인들의 生日]이다! 그런데 103위 성인들의 축일(9월 20일) 첫 미사가 로마 에서는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집전으로 10월 14일 주일에 봉헌되었다.

유럽교회는 聖人 한분만 되어도, 크고 아름다운 대성당을 세워, 천상에 계신 성인과 천주님께 감사와 찬미의 선물로 바친다. 따라서 그 성당의 이름이 된다. 예컨대, 사도 성베드로 대성당, 사도 성 바오로 대성당, 성모 대성당, 세자 성 요한대성당, 소화 테레사 성당, 아씨시 프란치스코 성당, 빠도바의 성 안토니오대성당, 등. 103위 시성 후, 우리나라에서는 미리내 성지에 103위 대성당이 건립되었다. 교구장 김남수 주교의 업적이다. 지상의 천주교회는 천상의 하느님과 성인성녀들에게 바치는 감사와 찬미의 선물로 세워지지만, 성당은 신도들이 사용하고, 사회인들이 구경하며, 국가와 사회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한다.

1983년 6월 11일은 기적 심사관면이 확정된 날이고, 같은 해, 9월 27일, 오늘은 103위 시성이 확정된 날이다. 시성 확정에 필요한 기적 심사 인준이나, 기적 심사 관면이 되었어도, 시성확정에까지는 여러 해가, 때로는 수십 년씩 걸릴 때도 없지 않다. 로마 교회의 시복시성 행정은 완벽을 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1983년 6월 11일(토요일) 기적 심사 관면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경까지,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친히 임석하여 열린 103위 한국 순교복자들의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 회의(Romana Rota dei Concistori)에서, 관계 장관관급 이상의 교황청 추기경들과 대주교들, 몬시뇰들과 교황청 대법원

법관들과 선임이 허가된 변호사도 참석하는 회의를 통하여, 만장일치에 가까운 절대다수의 찬성표로 합의한 결론을 교황께서 윤택하심으로서, 103위 복자들의 시성을 위하여 제출된 기적에 관하여 장기간, 때로는 수십 년 씩 소요되는 기적 심사 관면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103위 시성은 확실시되었고, 전 세계 교회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시성추진 과정에서 교황청 시성부의 기적심사 관면 자체가 아직 시성 확정 자체는 아니었다. 최대한의 완벽을 기하려는 교황청의 사목행정, 특히, 사후 세계에 가 있는 신앙인들에 관한, 시복이나 시성 선언은 무류성(無謬性, infallibility)을 지닌 교의적(敎義的, dogmatic)인 성격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왔다. 다만, 기적 인정이나, 기적 심사 관면은 시성 확정으로 가는,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시 주교회의의 시성추진부에 각 교구에서 제출한 기적은 17건이었으나, 그중에 7건을 로마로 보냈고, 그 중에 3건이 기적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 심사에는 장기간이 요청된다는 사안이었다. 시성되려면 기적이 나와 된다는 이런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잘 알고 있던 한국교회였다. 주교회의의 시복시성추진부에서는 1982년도 초부터 교황대사의 도움을 받으며, 기적 심사 관면을 교황께 요청하여 왔었던 것을 윤택하시고(6월 11일), 나아가, 시성을 확정하신 것이다(9월 27일). 교황께서 시성을 확정, 윤택하시면, 뒤이어, 교서(Bulla)가 작성되고, 발표(Promulgatio)되며, 고유 기도문과 축일 제정에 들어가고, 시성식 거행 준비를 착수하게 된다.

1983년 9월 27일(화요일)의 103위 시성확정에 대하여, 당시 가톨릭 新聞은, “한국 교회 新紀元 이론, 27일 밤 - 감격 속에 잠 못 이론 시복시성추진부” - 라는 제목으로 톱기사화하였다(1983년 10월 9일 주일 판). 당시 가톨릭新聞의 보도에서는, [在 로마 시성수속 담당관 직무대리 겸 200주년기념사위 로마 연락

담당]으로 장익 신부를 소개하면서, 한국시간 밤 10시 15분에 본국 주교회의 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에게 이 큰 희소식을 알려왔다고, 크게 상세히 보도하였다.

후에 회의 현장 사진들을 받아 자세히 살펴보니, 3개월 전(6월 11일, 토요일)기적심사 관면 회의 때처럼, 이번 시성확정 회의(9월27일) 때도,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장익 신부 혼자서 맨 뒷자리에 옴서버로 쓸쓸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103위 복자들의 시성추진 기적심사 관면 자체도 기적이지만, 3개월 반 만에 103위 전원 시성 확정도 기적이며, 최초로 로마 베드로대성당이 아닌, 한국 서울에서의 시성식 거행 윤희도 기적이며, 평신도들 전원 동시 시성 확정도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시성운동 출발 때 한국교회는 복자 김대건 신부 한분의 시성추진이 중심 초점이었고, 교황청 시성성에서는 프랑스선교사 대표격으로, 앙베르 범주교와 함께, 2명의 시성 추진만을 김수환 추기경과 김남수 주교에게, 또 필자에게도, 시성부 장관 팔라찌니 추기경이 직접 수차 거론하였었기 때문이다.

기적심사 관면이 확정된 지, 꼭 3개월 16일만이었다(1983. 6. 11.~1983. 9. 27.). 103위 시성 확정 소식은, 3개월 전(6월 11일), 기적관면 확정 때처럼, 장익 신부가, 투표와 검표 후 결과에 대하여 교황성하의 인정과 윤희로 확정 몇 10분 후에, 즉시 거의 실시간이라 할 만큼, 국제전화가 매우 불편하던 당시로는 아주 신속히 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에게 알림으로써, 시성추진부에서는 감격에 넘쳐서 즉시 대사관, 주교회의 사무처, 관계 주교님들에게 알렸다. 주교위원회 위원장 윤공희 대주교님은 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에게, 다음 날(28일) 각 언론에 공식 기자회견을 갖도록 일임하였다.

기적심사 관면 확정 발표 때처럼, 주교님들이 모두 자리를 뜰 수 없는 각 교구의 사목 현장 사정으로, 이번에도 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의 외로운 발표와 기자회견으로, [103명 성인의 나라, 대한민국]이 각 언론에 특필대서되었다. 주교회의 이름으로

전국 교회에 감사미사 봉헌 요청 공문을 보내며, 정말 며칠 동안 감격과 감사에 젖어, 당시 한국교회 전체가, 특히 5년간 업무를 추진해온 주교회의와 더욱이 실무를 관장해온 시성추진부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 한동안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으며, 103위 시성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정말 생시인지, 환상과 착각이 아닌지... 감격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을 못 느낄 정도라고나 할까?

이 기회에 국내 여러 인쇄물이나 사전에서까지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고자 한다.

103위 시성 기적심사 관면일은 1983년 6월 11일(토요일)이고, 시성 최종확정일은 1983년 9월 27일(화요일)이다.

그리고, 참고로, 시복이나 시성 추진에 있어, 법정 대리인으로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며, 신청자 자신들(주로 지방교회 교구장 주교들이나 면속 수도회 대원장들)과 시성부와의 각종 시성신청 서류 연락업무를 위해 두는, 교회법 용어로, Postulator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요청자, 연락관, 수속담당관, 등으로 불리는 대리인을 두게 되는데, 최근에는 내용의 수정이나 추가나, 변경 등에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변호사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 대리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도 타당하다고 하겠다. 시복이나 시성 신청의 유권 사목자들인 연로한 주교들 중에는 대부분이 거리가 먼 나라에 상주해야 하는 신청 유권 사목자들이므로, 로마에 자주 와서, 시복시성 후보자들의 인적사항, 순교나 신앙활동 장소명칭, 관련 연월시, 등의 수정, 변경, 추가, 등을 하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이다.

한국천주교회200주년기념 경축 5년간의 국내외의 수많은 회의와 행사와 추진과정, 특히 103위시성에 관한 자세한 보도는, 가톨릭新聞 影印本 제6권과 제7권(1982.1.1.~1983.12.25.)과 제8권에 정확히 그 때마다 자세히 보도한 기록이 실려 있다. 다만 日刊紙가 아니고, 한국천주교회 내의 유일한 週刊誌였기에, 항

상 1주일 늦게 주일 판으로 보도되었다. 사회 주요 日刊紙들은 항상 하루 늦게 다음날 朝刊이나 夕刊에 보도하였으나, 그대신 週刊誌였던 가톨릭新聞의 보도는 日刊紙들보다 상세하고 풍부한 역사의 현장을 기록보도하고 있다. 천진암 성지 자료집(국배판 평균 400면씩 1권~131권)에는 사회 일간지들의 보도들도 수록되어있다. 100여만 명을 힘들게 갓 넘어서는 한국교회가 500여만 명 시대로 향하는 교회발전의 분수령을 오르는 현장 모습들이다. 우리를 돌아다보며, 맨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재촉하며 오르시는, 한국천주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목숨을 바치며 살아남은 우리 순교 선조들이 우리를 뒤에서 밀며 격려해 주신다. 천주께 감사를 !

한국주교회의가 주관한, 한국천주교회200주년기념 경축 5개년 간의 교회 모습에 관하여, 1980. 5. 16. 처음부터 5개년 계획수립과 1984. 11. 26, 시행 완료 때까지, 유일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관여한 필자가 볼 때, 가톨릭新聞은 보도의 사명 뿐 아니라, 역사 기록의 차원에서, 훗날 역사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을 확신한다.

1983년 2월 26일 한국주교회의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신부가 로마에서, 시성부장관 팔라치니추기경을 예방한 후 3일 후에, 새 교회법 선포식 겸 교황청의 대법관(로마나 로마의 곧치 스포리)들이 교황성하 앞에서 하는 연례선서식에 참석, 교황 요한바울로 2세 성하를 알현하면서, 103위 한국순교자 시성을 간청하였다. 교황성하께서는, 변기영 신부의 손을 한동안 꼭 잡으시고, 이태리어로, [Si, Si, preghiamo, Si. preghiamo!]즉, 그래, 물론 시성해야지, 함께 기도하자, 시성해야지!]하시며 답하시었는데, 단순히 의례적이 아닌,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한국순교자들의 시성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꼭 시성하시겠다는 목자로서의 간절하고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이미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시었다 이 때 성하의 자세는, 단순히 의례적이 아닌, 당신이 마음속으로 한국순교자들의 시성을 원하고 계시고, 꼭 시

성하시겠다는 목자로서 자신의 간절하고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시었다. 사실 당시에 한국의 어떤 성직자나 수도자나 신도들보다도 훨씬 더 성하께서는 한국순교자들의 諡聖을 갈망하시고 계셨다.

1983년 2월 26일 이날 오전 11시부터 성하를 알현한 후, 12시경 접견 후의 대법관들과 성하를 모시고 찍은 기념 사진(사진을 바라보면서 성하 좌측 뒤로 두 번째가 변기영 신부). 2월 12일 시성추진부장 변기영신부가 로마에 가서 교황성하를 뵈고 간청한 후, 한 달 후에, 즉 3월 15일에 시성추진위원장 김남수 주교가 로마에 가서 시성부장관 팔라치니 추기경을 뵈고 간청하였고, 교황성하는 해외 사목방문 관계로 뵈지 못하고 귀국하였고, 4월 1일부터는 재로마 연락관 김진석 신부를 윤민구 신부로 교체하는 국내 김남수 주교의 임명서로 시성성에 등록이 되어 윤신부가 연락관이 되었다.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가 로마 연락관 교체를 건의하게 된 것은, 아직 학위논문을 마치지 못하고 개인 집에 하숙하고 있던 김신부는 시간에 쫓기고 있었고, 전화가 없어 본국과의 연락이 어려웠고, 윤신부는 이미 학위논문을 마친 상태로 시간이 있었으며, 사제들의 기숙사에 머물고 있어서, 오히려 본국과의 연락도 쉬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한달 후에 즉, 4월 20일에는 한국 교회의 어른이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로마를 방문하여 21일에 교황성하를 뵈고 시성을 간청하였고, 4월 26일에는 시성부장관 팔라치니 추기경을 뵈기로 예약되었다고 서울 시성추진부에 로마에서 국내에 연락이 왔다. 윤신부(같은 해 4월1일, 시성부에 등록, 업무시작)와 단테 변호사가 시성부와 교황성하의 근황에 대하여 종종 알려주고 또 필자도 자주 전화로 점검하고 있었다. 특히, 교황청과 연락업무는 국내 대사관의 협력이 컸다. 당시 국제우편이 시일이 너무 걸려서, 대사관 외교행랑을 이용하였다.

그해 5월 10일,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이 시성부에서 끝나

서 결재가 되어, 5월 15일경이나 20일경에 성하의 결재와 동시에 발표되리라고 로마에서 연락이 왔었으나, 대법원의 최종회의와 성하의 결정은 대법관들과 함께 교황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어 확정하시게 되었으니,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 결정과 발표는 6월 11일이었고, 국내에는 6월 12일 아침에서야 공식 발표하였다.

1983년 6월 11일, 오전 11시부터, 교황궁에서 요한 바오로2세 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는 가운데, 개최된, 한국순교복자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위한, 대법관(Romana Rotta Concistori)들과 시성부 위원 대주교들 및 관계 추기경들의 최종 연석 합동회의. 사진은 시성부장관 팔라찌니 추기경의 보고 및 기적심사관면 건의 장면(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성모님의 손길 제2번 참조).

1983년 6월 11일, 오전 11시부터, 교황궁에서 요한바오로2세 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는 가운데, 개최된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위한, 대법관(Romana Rotta dei Concistori)들과 시성부 위원 대주교들 및 관계 추기경들의 최종 합동 연석회의에서 기적심사관면 건의에 적극 찬성하는 위원 대주교들의 발언 장면(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성모님의 손길 제2번 참조).

1983년 6월 11일, 오전 11시부터, 교황궁에서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는 가운데, 개최된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위한, 대법관(Romana Rotta Concistori)들과 시성부 위원 대주교들 및 관계 추기경들의 최종 합동 연석회의 중에 시성부장관 추기경의 건의와 위원 대주교의 찬동에 이어 변론을 시작하는 단테변호사의 발언 장면(당일 단테변호사는 3차까지 발언하였다)(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성모님의 손길 제2번 참조).

1983년 6월 11일, 오전 11시부터, 교황궁에서 요한 바오로2세 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는 가운데, 개최된,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위한, 대법관(Romana Rotta Concistori)들과 시성부 위원 대주교들 및 관계 추기경들의 최종 연석회의 중에 시성부장관 추기경의 건의와 위원 대주교들의 찬동 발언에 강력히 반대발언을 하는 몬시뇰. 이 몬시뇰을 흔히, “마귀의 옹호자” 라고 부르기도 한다(사진은 변기영몬시뇰사랑방 홈페이지 성모님의 손길 제2번 참조).

1983년 6월 11일, 오전 11시부터, 교황궁에서 요한 바오로2세 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는 가운데, 개최된, 한국순교복자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위한, 대법관(Romana Rotta Concistori)들과 시성부 위원 대주교들 및 관계 추기경들의 최종 합동 연석회의에서 기적심사관면 건의에 적극 찬성하는 위원 대주교들의 재발언 장면(사진은 변기영몬시뇰사랑방 홈페이지 성모님의 손길 제2번 참조).

1984년 10월 14일 성 베드로 대성당 103위 성인 첫 축일 대미사(사진은 변기영몬시뇰사랑방 홈페이지 성모님의 손길 제2번 참조).

984년 10월 14일, 로마 성 베드로대성당에서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성하의 주례로 한국순교성인 103위 첫 축일미사를 김수환 추기경님과 한국의 모든 주교님들과 프랑스의 많은 주교님들과 함께 한국신도들 약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만여 명이 넘는 세계 각처에서 모인 신도들과 함께 거행한 후, 오후에는 교황성하의 알현이 있었다.

본래 국내에서 거행된 103위시성식으로 새로이 시성된 103위 축일은 9월 20일로 정해졌고, 그 첫 축일은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이 주례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10월 14일로 변경하여 거행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는 성직자들이 한국에는 대부분이다. 10월 14일은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만 6년 전 교황으로 등극하신 때였다.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는 한국순교성인103위를 당신 교황 직무 수행의 후보로 생각하시고 가장 열심히 공경하셨으며, 15

일에 하루 마지막 점검을 하신 후 16일에는 고국 폴란드에 3번째 방문길에 오르시게 되어 있었다. 아직 민주화가 되기 전 무서운 공산국가였던 모국방문 길을 한국순교성인들과 함께 가시기 위해서였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 순교자들이 사형집행장을 향하여 걸어가던 마음으로, 한국순교성인들과 함께, 성하게서는 마피아단의 본거지 시칠리아와, 공산 게릴라들이 난무하는 남미를,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방문하셨다.

유럽교회는 聖人 한분만 되어도, 크고 아름다운 대성당을 세워, 천상에 계신 성인과 천주님께 감사와 찬미의 선물로 바친다. 따라서 그 성당의 이름이 된다. 예컨대, 사도 성베드로 대성당, 사도 성 바오로 대성당, 성모 대성당, 세자 성 요한대성당, 소화 테레사 성당, 아씨시 프란치스코 성당, 빠도바의 성 안토니오대성당, 등.

103위 시성 후, 우리나라에서는 미리내 성지에 103위 대성당이 건립되었다. 시성추진위원장이었던 교구장 김남수 주교의 업적이다. 지상의 천주교회는 천상의 하느님과 성인성녀들에게 바치는 감사와 찬미의 선물로 세워지지만, 성당은 신도들이 사용하고, 사회인들이 구경하며, 국가와 사회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한다 .

저 크고 많은 각종 공장들과 대학 건물들과 체육시설, 대규모 호텔들과 백화점들과 아파트 단지 건설을 보면서, 특히 천문학적 액수의 무기 구입 제작비를 생각하며, 103위 성인들의 천주공경 신덕과 교훈을 자자손손이 물려주는 한겨레 영성의 터전이 오, 샘물이 되어, 천년 세월을 두고 韓民族 수호의 유구한 천주님의 전당이 될, 신성한 천진암대성당 건립에도, 신도들과 온 국민이 관심과 정성을 기울였으면!!!

CONCELEBRAZIONE PER I MARTIRI DELLA COREA
OMELIA DI GIOVANNI PAOLO II
Basilica Vaticana - Domenica, 14 ottobre 1984

1. “Il regno dei cieli è simile a un re che fece un banchetto di nozze per suo figlio” (Mt 22, 2).

A queste nozze speciali il Padre eterno invita tutti i popoli e tutte le nazioni della terra.

Due secoli fa è stato invitato il popolo coreano. Nello scorso mese di maggio ho avuto la gioia di celebrare in Corea il bicentenario di quella cristianità.

Il popolo coreano ha risposto all’invito al mistico banchetto del Padre celeste mostrando nel proprio cuore una straordinaria disponibilità e un edificante impegno, che oggi sono premiati con una splendida fioritura della comunità ecclesiale.

In Corea la fede fu recata – caso unico nella storia – spontaneamente dai coreani stessi. Il cammino dei coreani verso la fede infatti è cominciato grazie all’iniziativa autoctona di alcuni laici. Tale cammino ci fa comprendere di quanta importanza, ai fini della salvezza eterna, sia rivestita l’aspirazione naturale della ragione umana alla verità. Fu infatti, come sappiamo, una leale ricerca della verità a spingere quei laici – era un gruppo di letterati e “filosofi” – a prendere contatti, non senza gravi rischi, con Pechino, laddove avevano sentito parlare della presenza di uomini, alcuni dei quali cattolici, che avrebbero potuto illuminarli sulla nuova fede da essi conosciuta mediante i nuovi libri. Questi laici, uomini e donne, giustamente considerati i “fondatori della Chiesa” in Corea, per ben 56 anni, dal 1779 al 1835, senza l’aiuto di sacerdoti – tranne la presenza assai breve di due sacerdoti cinesi – hanno diffuso il Vangelo nella loro patria fino all’arrivo dei

missionari francesi nel 1836, e hanno offerto e sacrificato la vita per la loro fede in Cristo.

E quel Figlio di Dio che, venendo sulla terra tanti secoli prima, aveva detto: “Chiunque è dalla verità, ascolta la mia voce” (Gv 18, 37), non poté deluderli nella loro ricerca, anzi, con la sua parola divina, li illuminò molto al di là di quanto essi all’inizio si attendevano. Li illuminò e li fortificò. Dette loro quello Spirito di forza che già li aveva guidati, senza che essi stessi se ne fossero resi conto nel cammino verso il Verbo di verità e verso il Padre.

È per questo Spirito di forza, che essi rimasero ben saldi in Cristo, pronti a perdere ogni bene, anche quello della vita, pur di non perdere lui, Gesù salvatore.

2. La Chiesa in terra coreana ha reso, specie nel corso dei primi cent’anni, una straordinaria testimonianza alla fede in Cristo, come ne sono prova le numerose schiere dei martiri.

Come è noto, durante l’Eucaristia giubilare del 6 maggio scorso a Seoul, mi è stato dato di canonizzare 103 martiri della Corea.

Questi martiri della Corea costituiscono un numero piccolo, ma particolarmente significativo, tra le migliaia e migliaia che vengono ricordati dalla storia.

Ciò che ci riempie di profonda ammirazione, almeno nelle testimonianze più eroiche che ci sono riferite, è l’eccezionale serenità e la misteriosa gioia delle quali, per uno speciale dono di Dio, essi furono capaci pur davanti alla prospettiva di crudeli tormenti e della morte. La forza dei martiri della Corea richiama alla memoria

quella di cui si parla circa i primi secoli cristiani. In essi lo splendore particolare della testimonianza sembra risentire in qualche modo della disciplina orientale concernente l'autodominio e il distacco ascetico dai beni di questo mondo, compresa la stessa vita fisica, completando nella loro carne "quello che manca ai patimenti di Cristo, a favore del suo corpo che è la Chiesa" (Col 1, 24).

3. Il Vangelo di oggi ci parla dei servitori che il re manda a chiamare gli invitati alle nozze di suo Figlio: "Andate ora ai crocicchi delle strade e tutti quelli che troverete, chiamateli alle nozze" (Mt 22, 9).

Molti figli e figlie di Francia hanno compiuto un grande servizio missionario nei confronti della giovane Chiesa di Corea.

Infatti, papa Gregorio XVI, avendo ricevuto una lettera della comunità di laici che chiedevano l'invio di sacerdoti, si rivolse nel 1827 alla Società delle missioni estere di Parigi, che conosceva un momento di forte espansione missionaria, proponendole di rispondere alla richiesta. Tra i volontari che si presentarono, vi era il primo vescovo designato dalla Santa Sede come vicario apostolico per la terra di Corea, monsignor Barthélemy Bruguière. Egli morì però prima di raggiungere il suo luogo di destinazione.

Ma il martirio attendeva i francesi coraggiosi che dall'anno seguente, il 1836, cominciarono la loro attività in Corea: Pierre Maubant e Jacques Chastan. Furono poi martirizzati il secondo vicario apostolico, monsignor Laurent Imbert, arrivato nel 1837, poi monsignor Siméon Berneux, monsignor Antoine Daveluy, ed altri eroi francesi dei quali abbiamo iscritto i nomi, come voi sapete, "nel

libro della vita” (Fil 4, 3; Ap 3, 5; 13, 8; 21, 27).

Questi martiri missionari hanno fraternizzato con i coreani in un’unica testimonianza di fede che mostra fino a che punto la carità ha un valore che non conosce le barriere o i limiti della nazionalità o della cultura. Colui che ama veramente la sua patria non può considerare “straniero” il cristiano di un altro Paese. E ogni vero cristiano considera suoi compatrioti, in un certo modo, gli uomini di altri Paesi. Come i missionari francesi seppero riconoscere dei fratelli nei coreani, così i coreani seppero riconoscere dei fratelli nei francesi. Il miglior modo di amare la propria patria e di rispettare quella degli altri è giustamente parte di questo spirito di “cattolicità”, cioè di autentica universalità, di questo amore per l’uomo insegnato dal Vangelo e che è un dono di Dio all’umanità intera.

Ecco perché il Vangelo è aperto ad ogni forma di cultura: esso feconda dall’interno le qualità spirituali e i doni propri delle diverse culture (cf. *Gaudium et Spes*, 53).

4. Dove dovrebbe condurci, oggi, questa riflessione sull’eroica testimonianza dei martiri, perché non rimanga un ricordo di essi meramente astratto?

Anche oggi, nonostante l’universale affermazione del principio della libertà religiosa, proclamata dalle organizzazioni internazionali, tanti nostri fratelli e sorelle, in non poche regioni del mondo, sono soggetti a incomprensioni, all’emarginazione, alla persecuzione e alla violenza fisica e morale a causa della loro fede in Cristo. In non poche nazioni, i cristiani così come i seguaci di altre religioni, sono imprigionati e privati delle loro libertà

fondamentali.

In questa solenne e importante celebrazione in onore dei 103 martiri coreani mi appello alle autorità interessate e chiedo loro di fare in modo che la libertà religiosa dei loro concittadini sia rispettata ad ogni livello. Il loro popolo non può e non deve essere discriminato a causa della sua fede! I cristiani sono, e intendono rimanere, cittadini leali ed esemplari, ma “fermi nella fede” (cf. 1 Pt 5, 9), pronti e desiderosi di promuovere e di contribuire al progresso morale e civile dei loro Paesi con tutte le loro capacità!

Questa celebrazione vuole anche essere un'esaltazione doverosa e grata, da parte dell'intera Chiesa, del lavoro instancabile e generoso compiuto, nel passato come nel presente, dai missionari – sacerdoti, religiosi, religiose, laici, uomini e donne – che hanno lasciato la loro patria, la loro famiglia, i loro affetti e ideali umani per dare una pronta risposta alla chiamata di Cristo e diffondere il suo Vangelo in tutto il mondo! Questo dinamismo missionario, che è parte della realtà stessa della Chiesa, può adottare, nel corso del tempo, differenti metodi e strumenti per permettere che il messaggio del Vangelo abbia maggiore incidenza e efficacia secondo le varie circostanze. Ma questo dinamismo sarà sempre fondato e animato da un'intensa fede e da un'immensa carità e sostenuto e illuminato dagli insegnamenti della Chiesa.

In questo senso la testimonianza dei martiri della Corea è essenzialmente, ancor oggi, un esempio pienamente valido e splendido per tutti i missionari, ai quali rinnovo la mia gratitudine e quella dell'intero popolo di Dio!

5. Il testo della seconda lettura di questa messa, presa da san Paolo, illustra molto bene la spiritualità dell'apostolo-missionario-martire.

Ci sono sorprendenti similarità tra ciò che vediamo in molti martiri della Corea e la personalità del grande apostolo dei gentili: totale dedizione alla causa di Cristo; coraggio inflessibile e spirito di sacrificio per la difesa di quella causa fino alle estreme conseguenze; un desiderio irrefrenabile e incrollabile di condividere la gioia interiore della propria esperienza cristiana con il maggior numero possibile di anime, senza mai soccombere all'incomprensione o allo scoraggiamento.

“Ho imparato ad essere povero e ho imparato ad essere ricco.” (Fil 4, 12). Paolo era pronto a tutto e, nello stesso tempo, era distaccato da tutto. Era preoccupato di una sola cosa: essere e rimanere con Cristo. Ogni altra cosa era vista come secondaria e finalizzata a quel traguardo assoluto, in relazione a quel valore supremo e irrinunciabile. Da Gesù stesso riceveva la forza per il suo completo distacco. Mediante la grazia, Gesù lo teneva vicino a sé. Ciò avvenne anche con i martiri della Corea.

6. Oggi i figli e le figlie della Corea e quelli della Chiesa in Francia gridano insieme: “Possa il Padre del Signore nostro Gesù Cristo illuminare gli occhi della nostra mente per farci comprendere a quale speranza ci ha chiamati” (cf. Ef 1, 17-18).

Ecco la luce della vostra vita: la speranza della salvezza e del regno di Dio. Questa è la verità che deve guidare i nostri passi, facendoci superare tutti gli ostacoli che si oppongono a tale prospettiva: prepararsi ad attendere il

regno del Signore, guardare sempre al di là della morte, e rendersi degni, con una vita santa, della terra nuova dei viventi. Il Signore Gesù sia la nostra guida. Diciamo anche noi con i martiri coreani e francesi: il Signore è mio Pastore! Egli mi rinfranca, mi sorregge e mi guida. Con lui non manco di nulla. Amen!

Oggi siamo qui riuniti, intorno all'altare di san Pietro, simbolo della "confessione" della vera fede, per celebrare insieme la santa Eucaristia in onore dei martiri della Corea, canonizzati in Seoul durante il periodo di Pasqua.

Con questo atto solenne vogliamo dare testimonianza non solo all'unità e all'universalità della Chiesa, ma anche al loro messaggio, alla loro "confessione" nel martirio, tanto rilevante e attuale oggi per il mondo e per la Chiesa universale.

Vorrei rivolgere uno speciale saluto ai carissimi fedeli coreani nella loro lingua:

Sia lodato Gesù Cristo! Sono davvero lieto e grato che siate venuti da così lontano per celebrare insieme con me la santa Eucaristia in onore dei santi martiri della Corea.

Auspicio che la vostra vita di veri cristiani faccia risplendere nel mondo di oggi il loro eroico esempio!

(L'Osservatore Romano 1984. 15, Ottore).

변기영 몬시뇰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사랑방 윗목 구석구석에 처 박아두었던 보파리들을 이것저것 내다가 풀어서 교회와 사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들은 죽기 전 알리려 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변기영몬시뇰사랑방.kr 또는 www.msgr-byon.org

- Msgr. Byon -

● 작성일 : 2016.10.10 오후 10:13:20

281. 「10월이라 ‘上달’ 이니, 上帝님께 祭祀하고, 祖上님께 時祭하세 !」

「10월이라 ‘上달’ 이니, 上帝님께 祭祀하고, 祖上님께 時祭하세!」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성모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천상천하에서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두려울 것 없으며, 무서울 것도 없네!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거행된 한국순교복자 103위의 시성식 광경. 당시 언론과 보도기관에서는 100만여 명으로 보도하였으나, 필자는 55만 명~60여만 명으로, 내한한 성청 인사들에게 보고 하였었다

(Sua Santita Giovanni Paolo II aveva concelebrato la messa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 con molti Cardinali, Arcivescovi, Vescovi, sacerdoti e fedeli cattolici - circa 500.000 - a Seoul il 6 maggio 1984. Per quella canonizzazione, il Rev. Byon, rettore di Chon Jin Am, il luogo natale della Chiesa, aveva servito per 5 anni (1980~1984) come segretario esecutivo generale della commissione episcopale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Photos by Baeck - Nam-Shick)(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참조).

오늘날 우리 천주교회의 ‘聖母聖月’ 이나, ‘殉教者聖月’ 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조상님들은 부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음력이 전해진 아주 먼 옛날부터, 적어도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음력 10월을 가장 높은 「上달」로 삼아, 온 겨레가 한 달 동안 아주 경건하고 매우 성대하게 축제를 지내었다.

10월 상달의 우리겨레 종교문화를 조금이라도 되돌아보기 위

해서는, 간결하게라도 우리겨레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겨레는 먼 옛날 天山 山脈一帶에서 수렵을 주요 生業으로 하였으나, 사냥하다가 산 채로 잡게 되는 山羊이나 야생 염소 같은 동물들을 키우면서, 부업삼아 牧畜業을 발전시켰다.

先史時代 우리 조상님들은 두려운 밤의 무서운 어두움을 없이 하는 햇님이 아침마다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며 햇님을 맞이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하늘과 땅 사이로 아침마다 햇님이 찾아오시는 「셋녘」, 즉, 東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햇님이 사시는 나라’, ‘햇님의 나라’, ‘밝은 나라’, ‘빛의 나라’, ‘빛 고을’ 이 있고, 그 ‘빛의 나라’ 에는 햇님을 날마다 보내주시는 한울님이 계시며, 자기네 조상님들의 혼령이 거기서 햇님과 한울님과 함께 살고 계시리라 믿었기에, 동으로, 동으로 수 천 년에 걸쳐 민족이동을 하였다.

따라서 빛을 숭상하며, 빛을 따라서 민족이동을 하여 온 우리 선조들은, 흰옷을 즐겨 입었으니, 족장이 죽거나, 부족의 큰 행사 날이나, 부모가 죽으면 흰옷을 입었으며, 고종황제가 돌아가셨을 때는 온 나라가 흰옷을 입었고, 또 자기네가 자리 잡고 사는 마을이나 큰 의지가 되는 뒷동산은 백두산처럼 꼭 만년설이 없어도, 소백산, 태백산, 백악산, 하며 이름 지어 올라가서 산제사를 드렸는데, 산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산에서 하늘님께 올리는 제사로 출발하였으며, 마을 이름도 빛고을(光州), 밝은 고을(明州), 별고을(星州), 흰 고을(白城), 별고을(陽城) 등으로 부르기를 즐겼다<六堂 崔南善의 兒時朝鮮, 1926년 4월, 朝鮮日報 연재 참조>.

요동 별판과 송화강, 흑룡강,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유역 등 극동 지역에 와서는, 수렵생활에서 농경문화로 생업이 바뀌고 발전하게 되었으며, 추수하는 계절이 되면 秋夕을 시작으로 하여, 음력 10월에 절정을 이루었으니, 농사를 짓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신, 玉皇上帝 하느님께 마을마다 地域마다 部族마다 門中마다 모여서 성대하게 제사를

올리었으며, 집집마다 祖上님들께, 특히 논밭을 일구어주시고, 농기구를 발명하여 주시고, 농사 기술을 익혀 주시며, 씨앗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신, 대대로 문혀 계신 할아버지들 묘에 가서 時享을 올렸고, 농사일을 함께한 이웃들과 떡과 술을 나누며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며 즐겼다. 한마디로, 10월 上달은 하느님과 조상님들과 이웃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달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10월 생활」에서, 上帝 하느님과 조상님과 이웃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 가고, 명승지 관광과 각종 경기관람과 오락과 유흥과 사치와 향락으로 차고 넘치는 느낌이다.

「하늘이 열린 날」, 開天節 국경일의 정신은, 우리나라 건국의 근거를 하느님께 연결시키는 의미가 있으니, 「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애국가 속의 민족적 舍誦祈禱역시, 다른 나라의 국경일이나 다른 나라의 애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上帝 天主 공경 정신과, 또한 부모와 조상님들을 위하는 교과서와도 같은, 「孝子門」이나 「孝子閣」역시,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문화유산은 宗教的이며, 信仰的이며, 神學的인 所懷를 切感케 한다.

천주교회의 「목주기도의 달」이며, 「전교의 달」인 「10월 신앙생활」은, 우리겨레의 오랜 전통적인 「上달」을 나름대로 지키고, 아끼고, 가꾸며, 補完하고 성장시켜 꽃피우게 하는 계기로 삼는 사명도 없지 않음을 묵상해보고 싶다.

해마다 10월 「전교주일」에, 서울 가락동성당 하상회와 명동성당 하상회 회원들이, 천진암 성지의 「조선교구 설립자 묘역」에 모신 성 정하상 바오로 회장과 유진길 회장의 묘를 참배하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시제도 지내며, 천주공경과 조상에 감사하는 예를 올리는 것을 보면서, 옛 것과 새 것을, 좋은 것은 모두 함께 지키고 아끼고 가꾸고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변기영 몬시뇰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한글과 영문 출입문

어떤 것을 치셔도 됩니다.

사랑방 윗목 구석구석에 쳐 박아두었던 보파리들을 이것저것 내다가 풀어서 교회와 사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들은 죽기 전 알리려 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변기영몬시놀사랑방.kr 또는 www.msgr-byon.org

● 작성일 : 2016-10-11 22:38

282. 태극기와 교황기를 처음 게양하며 - 양평본당 곡수리 공소 이야기 - (1)

변기영 몬시놀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사랑방 윗목 구석구석에 쳐 박아두었던 보파리들을 이것저것 내다가 풀어서 교회와 사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들은 죽기 전 알리려 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변기영몬시놀사랑방.kr 또는 www.msgr-byon.org 또는 www.msgrpeterbyon.org

양평성당 곡수리 공소의 2016년 여름 이야기-1

시골신자들이 20여 년 전, 송병수 신부님, 김영장 신부님, 등, 본당 주임신부님들과, 본당신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세운 공소 성당과 다목적 교육관이 불타는 연산홍 치마를 두른듯 얼굴도 붉게 되어, 60여년생 낙낙장송도 질세라 함께, 변기영 몬시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6. 4. 10.(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림·기별·시문 제2번 참조).

사진을 보면서, 오른 편부터 하느님의 종 권철신 성현의 직계 7대 종손,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후손회 회장 권혁훈, 이세시리아 부부, 하느님의 종 이승훈 성현의 8대 외손녀 모녀, 김헬렌과 신혜선 헤드비카 여자 천진회장, 천진암 성지 사무장 겸 연구원, 박물관 편찬실장 세라피나 허관순. 2016. 5. 21.(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림·기별·시문 제2번 참조).

국기 게양대가 없어서, 이재형 회장이 성금을 바쳐 세운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와 교황기가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백발의 장희복 공소회장이 만면의 희소를 띠고 있습니다. 2016. 8. 25.(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림·기별·신문 제2번 참조).

Mr. Lee Jae Hyeong, Leader of Chon Jin Association and Mr. Jang Heuy-Bock, Kock-Soo mission station faithfuls' leader are elevating national flag & Pontifical flag of Holy See with Msgr. Peter Byon.

국기 게양대가 없어서, 이재형 회장이 성금을 바쳐 세운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와 교황기가 휘날리게 되었습니다.(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림·기별·신문 제2번 참조).

하느님의 종, 권철신, 권일신 성현들의 전교로 양평과 여주지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을 기념하여, 교육관이 개보수되면서, 권일신 성현의 경칭을 따라 만든, 사우거사기념서재(沙右居士 紀念書齋) 석판을, 요한 한기수 공소 총무(전 공소 회장)가 최민성 미카엘군과 함께 서재 현관 입구 외벽에 부착하고 있다. <교구장 방문, 성당 축성을 준비하며> 2016. 9. 30.(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림·기별·신문 제2번 참조).

Mr. Han Ki Soo, leader & secretary general of the Kock-Soo mission station with Mr. Choi Seong Min, volunteer worker are putting a memorial stone of the Msgr. Peter Byon's bibliothech.

Mr. Han Ki Soo, leader & secretary general of the Kock-Soo mission station with Mr. Choi Seong Min, volunteer worker are putting a memorial stone of the Msgr. Peter Byon's residential house for his staff members.

교구장 주교님께서, 변기영 몬시놀의 거처를 위하여 아담하고 조그마하게(25평)신축하여 주신 사제전용 식당겸 여직원들 숙소 에, 권철신 성현의 친척 병조판서의 따님이며, 이벽성조와 혼인

한 여류학자 유한당권씨를 기념하는, 유한당권씨기념천학방(柳閑堂權氏紀念天學房) 석판을, 요한 한기수 공소 총무(전 공소 회장)가 최민성 미카엘군과 부착하고 있다<교구장 방문 성당 축성을 준비하며>. 2016. 9. 30.(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림·기별·신문 제2번 참조).

곡수리 공소 성당 청소 지원하러 와서 봉사하던, 양평본당 제대회 봉사단원들, 최혜숙 글라라, 최상순 엘리사벳, 송민재 아네스 자매들이 성당 청소하다가, 휴식시간에 변기영 몬시놀과 함께 맛있는 쥘 밤고구마로 간식을 하면서, 곡수리공소와 관련된 한국교회 창립사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곡수리 공소는 신자들이 200여명 가까이 있었으나, 300여년이상 오래되었던 5일장이 사라지고, 많은 교우들은 서울로 이농하여, 2016년 현재, 공소신자들의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 고령으로, 젊은이들이 거의 전혀 없어서, 공소의 성당 청소 관리조차 어려워, 양평본당에서 봉사자들이 와서 지원하고 있다.>(2016. 10월 12일)(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림·기별·신문 제2번 참조). -향후 계속 -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주한 교황대사 Osvaldo Padilla 대주교님께서,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님과 함께 양평군 지평면의 곡수리 공소 성당 방문, 축복식 거행!

성당 축성과 사우거사기념서재(沙右居士紀念書齋), 유한당권씨기념천학방(柳閑堂權氏紀念天學房), 등 신축 건물과 개보수 시설물의 축복식 및 “하느님의 종 권철신 권일신” 기념 표석, 제막식.(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림·기별·신문 제2번 참조).

2016년 11월 22일 오전 11시에, 주한 교황대사 Osvaldo Padilla 대주교는, 곡수리 성당(양평군 지평면)을 방문하여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와 여러 사제들과 신도들과 함께, 변기영 몬시놀이 33년간(1984. 12. 31.~2016. 6. 21.) 머물던 천진암 성

지에서 오래간만에 새로 옮긴 새 거처, 곡수리 성당 입주 축복식을 거행합니다. 변기영 몬시뇰이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공소(이재열 신부가 주임을 맡고 있는 양평 본당 관할)로 거처를 옮기도록, 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주교)에서는 아담한 사제관을 신축하였고, 또, 20여 년 전에 가난한 시골 공소 교우들이 피땀으로 건립한 공소 성당을 교구장 주교가 공식 축성하며, 옛 교육관을 개보수하여, 변몬시뇰의 서재로 (사진은 변기영몬시뇰사랑방 홈페이지 알림·기별·시문 제2번 참조).

일찍이 Daveluy 주교가 한국의 Antiochia라고 부르며, 천주교회 요람지로 부르던, 권철신, 권일신, 등 대학자들이 복음을 선포한 양평 지역에, 옛 신앙 선조들을 기억하도록, 기념표석과, 사우거사 권일신 기념서재(沙右居士紀念書齋)와, 사제 식당으로 사용되는 신축 건물도 유한당권씨기념천학방(柳閑堂權氏紀念天學房), 등으로 명명하여, 신축 건물과 개보수 시설물의 축복과, “하느님의 종 권일신 기념 표석(Ad memoriam rei perpetua m...)” 제막, 등을 거행합니다.

*사우거사(沙右居士安東權日身)는, 성오(醒悟), 일신(日身), 직암(稷菴)으로 불리던, 권일신 성현을 당시 선비들이 부르던 명칭으로, [사우]는 성현의 영세 본명 방지거 사베리오(Franciscus de Xavier)의 고향 본관처럼, 그 명칭의 한역에서 따온 듯 하며 (?), 거사(居士)라는 말은 유림들과 불자들 중에 덕망과 학식이 뛰어나면서도,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서 고요하고 고결하게 거하는, 학덕과 신망이 출중한 학자들, 특히, 백성과 선비들의 스승다운 대학자를 칭하던 낱말입니다.

1791년, 신해년 말, 천주교 신앙 때문에 체포되어,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다가 첫 번째 주막, 용인 관아(현재의 신갈 驅邑면사무소 마을 관아)의 객사에서 첫 주막 밤에, 뒤따라온 자객들에 의해 타살된 후(직계 5대손 권오규 변호사와 동생 권오진 회장의 가문의 전승에 의한 증언과 1807년 판, 안동권씨 족보 목각본 참조), 장례식 때, 성현의 큰 형, 녹암 권철신 대성

현이 관 상판에, “沙右居士安東權日身之柩” 라고 명기함으로 써, 최종 재확인되었습니다.

박학다식하여 학문과 수덕을 좋아하던 권일신 성현은 용문사의 몇몇 기념비석에도 그의 명문장과 함께 이름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당대에는 유림들뿐 아니라, 불교 스님들도, 또 정조 임금까지도 존경하며 아끼던 대학자였으나, 양여지간(楊麗之間)에, 사학이치성(邪學而熾盛)하여, 즉, 양평과 여주 지역에 천주학이 불 일어나듯 무성한 것은 권철신과 권일신 형제 학자들 덕망의 영향이라고, 당시 여러 문헌이 밝히고 있듯이, 당대 저명한 성현으로, 성장향 양근면 갈산리에 있던 자택의 서재에는 다량의 소중한 저서들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대한 서적들은 모두 1791년 신해년 말과 1801년 신유년 초봄의 천주교 박해시절에, 천주교를 반대하던 건달패들에 의해 서당과 자택들이 불탈 때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직계 종손들이 전합니다. 이번의 紀念書齋에는 필자가 소장하며 자주 읽고 사용하는 교회역사에 관한 일부 신구서적 약 4,000여권이 우선 이관, 장서되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틈틈이 수집한 고문서들은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사연구소에 그대로 소장하게 하였으며, 앞으로 모두 천진암박물관에 보전될 것입니다.

* 유한당 권씨(柳閑堂權氏)는 권일신 성현의 친척으로, 병조판서 권엄의 딸로서, 어려서 양가 부모들에 의하여 이벽 성조와 혼인하였으나, 당시 사정과 관례에 따라, 동거나 부부생활은 거의 어려웠으니, 이벽성조께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두 분 형제들과 무술훈련에 집중하던 무술소년으로서, 일찍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천주교 서적을 탐독하고서, 1770년 15세 경부터는 천진암 심산궁곡에 입산수도하였습니다.

1779년을 전후하여, 천진암에 입산수도하던 천학도사 광암 이벽 성조께서 天學을 심층 연구한 후, 이승훈, 정약종 형제들과 함께 실천하기 시작하여, 한국천주교회가 창립되던 시절, 포천 시가와 광주 두미에 주로 거하며 수학하던 유한당 권씨는, 모두

가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으로 쓰여진 천학 책들을, 우선, 12단 기도문을 비롯한 천주교 서적들을 처음 언문(한글)으로 번역하여 정갈하게 베껴서, 즉, 諺譯淨寫하여, 한문을 모르는 상민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丁學術이 저술한, [니벽전]에까지 기록되어 있을만큼, 당시 天學이라고 부르던 천주교를, 포천의 내촌면 화현리 본가와, 광주 두미의 별장에서, 유한당 언행실록, 등을 저술하며, 집안의 노비 가솔들과 평민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서 가르치던, 유한당 권씨는 특출난 당시의 젊은 여류 학자이었으며, 천주교 성당이나 시설물이 전무하던 시절, 자택을 天學房으로 삼아, 활약한 한국천주교회 복음전파의 대표적인 한국천주교회 최초의 여성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기에, 1984년 10월 14일, 로마의 사도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聖요한바오로 2세께서는, 103위 한국 순교성인 축일 첫 대사를 집전하시면서, 많은 추기경, 대주교, 고위 성직자들과 2만 5천여명의 군중들에게(한국 주교단 25명 동석), [… 남녀이 평신도들은 마땅히, 한국천주교회 창립자들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 Questi uomini e donne… debbono essere considerati, ‘Fondatori della Chiesa in Corea’….] - Msgr. Byon -

변기영 몬시뇰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사랑방 윗목 구석구석에 처 박아두었던 보파리들을 이것저것 내다가 풀어서 교회와 사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들은 죽기 전 알리려 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변기영몬시뇰사랑방.kr 또는 www.msgr-byon.org 또는 www.msgrpeterbyon.org

● 작성일 : 2016.10.12 오후 3:48:42

283. 양평본당의 지평면 곡수리 공소 지역의 역사(2)

변기영 몬시뇰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사랑방 윗목 구석구석에 처 박아두었던 보파리들을 이것저것 내다가 풀어서 교회와 사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들은 죽기 전 알리려 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변기영몬시뇰사랑방.kr 또는 www.msgr-byon.org 또는 www.msgrpeterbyon.org

곡수리 공소가 있는 지평면 지역은 본래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삭주현 관할이었습니다. 삭주현은 지금의 춘천지역인데, 춘천에서도 마족산 아래 천전리(泉田里), 즉 샘밭 지역이 산수가 수려하고, 오곡이 풍성하여 고조선 시대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며 큰 고을을 이루었으니, 지금의 소양강 댐 바로 아래 지역입니다. 샘밭 강가에는 지금도 선사시대의 고인돌들이 여기저기 많이 발견되어, 아직도 선사유적지 발굴작업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월성이씨라고도 부르는 경주이씨 가문이 오래 전부터, 필자의 추정으로는 신라 건국에 크게 기여한 6가라국 중 경주이씨 가문이, 적어도 통일 신라 이후로, 이곳 천전리에 일부가 자리잡았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춘천에서는 경주이씨들을 ‘샘밭이씨’ 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초기부터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한 지역이며, 한국천주교회 창립자 광암 이벽 성조의 아버지 이부만, 작은 아버지 이호만, 등의 세대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역으로, 이호만 공은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큰 부호로서, 식객들이 매일 100여명 내외가 여러 사랑채에 머물고 갔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2016년 4월 10일 현재, 곡수리 공소 성당과 교육관과 주차장의 아름다운 모습. 비록 젊은이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여, 고령의 할머니들이 이처럼 성당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천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들은 새로 이사 온 늙은 변기영 몬시놀에게, 노인들이 손수 농사짓는, 감자, 마늘, 가정용 방아로 새로 짠 헝쌀, 아욱, 오이, 고구마, 상추, 가지, 열무김치, 햇밤, 같은 야채를 자주 미사 때 가지고 와서 즐거운 얼굴로 바칩니다.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림·기별·신문 제3번 참조).

그러나, 만형 이부만공이 포천군 내촌면 화현리로 이주하던 시기와 동기는 확실치 않으나, 화현리 바로 건너마에에 오성대감으로 널리 알려진 이항복의 사당이 있고, 경주이씨 집안의 후손들이 학덕과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였기에, 젊은 가정들이 모여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고려 왕건태조 이후로, 용문산 줄기의 지평 지역은 철광산이 개발되어, 질이 좋은 철을 생산하게 되자, 광산에 모여드는 광부들로 인하여, 양근, 지평, 용문, 곡수, 지역에는 자연스레 시골장이 열리게 되었고, 저명한 스님들이 수도하는 용문사와 고달사가 가까이 있어서, 곡수리는 시골 장으로서의 일찍이 여지도서(輿地圖書, 上)에 나올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1980년 초까지, 약 400여년이상 시골장마당이 계속되던 곳입니다.

양근 갈산리가 생장향인 권철신, 일신, 제신, 익신, 득신, 5형제의 명성이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던 시기에, 이곳 곡수리는 용문사를 지나는 중간 읍내 장터로서, 직암 권일신 성현이 수행원들과 함께 종종 들릴 수밖에 없는 주막이 있던 마을로, 천주교를 모를 수는 없으나, 계속된 100년의 박해로 인하여, 이곳에 천주교 신앙의 씨앗이 움터서 자라기 시작한 것은, 해방 후, 6.25. 사변 1년 전, 1949년부터 이곳에 정착하여, 질그릇 가마를 세우고, 질그릇 화로, 시루, 물동이, 등을 만들어 팔면서 살던 김영수 요셉 회장의 외로운 전교활동으로 곡수리 지역에는 천주교회가 조금씩 알려지고, 입교자들이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용문 성당으로 예수성탄 대축일과 예수부활축일을 지내러 가는 것조차 힘들던 때입니다. 그러나, 김영수 요셉, 등

곡수리 초대 신자들이 한두 집씩 늘어서, 1960년대 들어서, 신자들이 20여명으로 늘었고, 1966년에는 양평본당에서 정식 ‘곡수리 공소’로 인정하여, 봄과 가을에 본당신부님이 곡수리에 오셔서 판공 미사를 드리면서, 신자들이 4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1970년대에 와서는 70여명의 신자 단체가 되었으며, 공소회장 집에 모여, 교리공부와 주일참례를 보다가, 30여평 남짓한 공소 건물을 지었고, 1980년대에 와서,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이 보건소장을 맡으면서, 지역신자들 치료와 어린이 교육, 등으로 크게 발전하여, 오늘의 곡수리공소 건설에 많은 이들이 크게 희생과 봉사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서울로 이주하는 바람에, 곡수리에는 주로 노령인구가 주류를 이루어, 공소도 그 여파로, 공소건물 관리조차 이곳 교우들 힘만으로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양평본당 교우들의 지원봉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계속〉 -

변기영 몬시뇰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사랑방 윗목 구석구석에 쳐 박아두었던 보따리들을 이것저것 내다가 풀어서 교회와 사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들은 죽기 전 알리려 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변기영몬시뇰사랑방.kr 또는 www.msgr-byon.org 또는 www.msgrpeterbyon.org

● 작성일 : 2016.10.13 오후 4:15:51

284. 사람마다 벼슬하면, 농부 될 사람 뉘 있으며?!

사람마다 벼슬하면, 농부 될 사람 뉘 있으며 ?!

의원마다 병 고치면, 북망산천이 왜 생겼나 ?!

옛 각설이 타령을 되새기며, 모를 심고 논을 매던 民草들의 철학이 깃들어 있는 한탄조의 노래입니다.

웬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도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대거 출현하는가 ? 혹시라도 불치의 감투병 중환자들은 없는지 ?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보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사회가 아닌가 ?

적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치는 용사들이 있어야 될 수 있는 통일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하고, 천추만대에 명성을 남기려고 죽기는 싫어하지만, 이는 [얼간이들]의 잠꼬대같은 생각입니다.

참으로 얼이 나간, 정신이 빠진 사람들이 아닌가?

수많은 용사들이 풀끝의 이슬처럼 쓰러져 간 후에, 살아남은 상관은 승전고를 들으며 개신장군이 되어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으스스대지만, 국방의 聖務가 싫고 겁이 나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높은 벼슬에까지 오르게 한다니, 그런 사람들을 선거로 뽑아 추대하는 국민들이야말로, 얼이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동네 사람들은 얼빠진 국민들이다. 누구를 탓하며 원망하는가?

푸른색은 한 점도 없는, 흰 모시처럼, 양상한 모양새만 남은 나무잎이 아니라?

Phylloxera 병균이 이렇듯이 퍼지면, 나무는 죽어 메마르게 되어, 베어서 땔감으로밖에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낫이 있어도, 베어낼 만한 힘이 없으니,
그 밭에 그 고추장이 아니냐?

Msgr. Byon

● 작성일 : 2016.10.21 오전 12:37:29

**285. 白頭山 天池 巡禮 - 開天節에 잊혀져가는 上帝
聖月 상달(上月)에 붙여. Pilgrimage to
Mount Paektu(白頭山) & Heavenly Lake
Chonji(天池), the most holy sanctuary
of all the Koreans' Forefathers of 5
thousand years ago !**

韓民族 最古 聖地 長白山脈 白頭山 天池 巡禮.

- 天真菴 聖地 Msgr.卞基榮 白頭山 天池 巡禮記

A Pilgrimage of Msgr. Byon with his staff members of the Chon Jin Am to Mount Paektu(白頭山) and Lake Chonji(天池), the most holy sanctuary of all the Koreans for 5 thousands years !

On the mountain, Paektu(白頭山), our Korean people's historical tradition has it that King Tan-gun founded Korea in the year 2333 B.C. He was not only a man of political acumen, but also a religious leader of his people about 5,000 years ago. Thus the mountain and it's lake has been forever held sacred in the eyes of the Korean people. For 5,000 years generations of Koreans have gazed steadily into the heavens to adore the Supreme Being whom they inherently believed in. This Mount was believed to be the holy intermediary place connecting earth with heaven. The name of the mountain means "white head", derived from the ever-present snow Which covers its summit. But, our ancient Koreans were fond of wearing white clothing and called themselves Paedalkyore, that is, 'Sons of Light'. They were peace-loving people and built small villages along the clear streams flowing from the mountain, where

they continually worshipped the all-seeing almighty Supreme God.

친전암성지, 변기영 몬시뇰과 직원들의, 韓民族 聖山 白頭山 순례(2014.08.20.)(사진은 변기영몬시뇰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200번 참조).

“白頭山 뚫어나려 半島 三千里, 無窮花 이 江山에 歷史 半萬年! 代代로 이어오는 우리 三千萬, 壯하도다, 그 이름 ‘大韓’ 이라네!”

- 우리가 어려서 부르던 노래다. -

白頭山은 檀君 聖祖 때를 전후하여 지금까지 半萬年 동안 韓民族의 聖山이다. 前에는 白頭山 全部가 우리나라 영토였으나, 지난 1957년 이후로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이 天池를 양분하여 가르고 있다. 중국 쪽에서는 白頭山이라고 부르지 않고, 長白山이라고 부르며, 天池도 長白湖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에 古朝鮮 때부터 高句麗, 渤海 시대에 이르기까지, 中原 東北之部の 遼寧省, 吉林省, 安東省, 松江省, 興安省, 遼北省, 黑龍江省, 등의 지역은 우리 韓民族이 만만년이상 오래 오래 내려오면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지배하던, 우리의 領土로서, 지금도 韓民族이 많이 섞여서 살고 있으며, 白頭山을 중심으로 사방 천여리 이상씩 뻗어 있는 長白山脈의 수백리씩 되는 계곡과 平原마다 배달겨레, 즉, 우리 선조들을 東夷族이라고 漢族들이 부르던, 韓民族의 땅이었다. 毛澤東 語錄에도, 遼東 지역은 朝鮮 땅이라고 하였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다.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는 불가분의 이웃 나라이니, 서로 돕고 사이 좋게 지낸다면, 領土 소유권이나 관할권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 아시아에 영구적인 평화가 있도록, 백두산 아래 적절한 곳에 世界平和의 聖母像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였다.

백두산은 자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백두산 정상에 있는 휴화산 분화구의 자연호수. 天池의 水面은 해발 2,190m, 면적은 9.165km², 둘레는 14.4km, 평균 너비 1.975km, 최대 너비

3.55km, 평균수심은 213.3m, 최대깊이 384m로 안내판에 적혀 있다.

한울님, 온 겨레가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 단군 성조의 弘益人間 가르침을 따라 온 누리에 平和를 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백두산 아래 저 넓고 푸른 숲 지대에, 세계 평화의 성모상을 하나 세워서, 지진과 화산이 아주 잠자게 하고, 극동 아시아 만민이 평화를 만끽하며, 하느님을 섬기게 되도록 했으면!- 백두산 아래에 성모상을 세우면, 많은 순례단들이 모여들어, 이 지역 동포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련만!!

〈一讀 勸告 文獻, /六堂 崔南善 著, 白頭山觀參記 1면~152면. 六堂 崔南善 全集 제6권, 서울, 玄岩社, 1973. / 細說 錦繡中華 彩色珍本, 東北之部 - 吉林省, 地球出版社有限公司, 中華民國台北市, 1975.〉

韓民族의 聖山, 白頭山 天文峰을 순례하는 天真菴 聖地 직원들(2014. 8. 20. 오후 3시 경, 원편부터 박희찬 국장, 고옥자 실장, 변기영 몬시놀, 허관순 실장). 해발 2,700여 미터의 천문봉을 오르며 허덕이는 75세의 卞基榮 몬시놀! 쓰러질 듯, 넘어질 듯, 미끄러질 듯, 주저앉을 듯하면서, 그래도, “올라가는 용기를! 돌아가는 지혜를! 내려가는 겸손을!” 되새기며…. 韓民族의 聖山, 白頭山과 天池를 드디어, 마침내…! Deo Gratias(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200번 참조).

백두산 天池의 水面은 해발 2,190m, 면적은 9,165km², 둘레는 14.4km, 평균 너비 1,975km, 최대 너비 3.55km, 평균수심은 213.3m, 최대깊이 384m / 해발 2,700 여 미터의 천문봉을 오르며 허덕이는 75세의 卞基榮 몬시놀! 쓰러질 듯, 넘어질 듯, 미끄러질 듯, 주저앉을 듯하면서, 그래도, “올라가는 용기를! 돌아가는 지혜를! 내려가는 겸손을!” 되새기며…. 韓民族의 聖山, 白頭山과 天池를 드디어, 마침내 …! 단군 聖祖와 반만년 전

우리 선조들에 대한 기억 속으로 되돌아가며…, 기도하며…, (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200번 참조).

해발 2,500m 지점에 있는 최종 주차장과 휴게소(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200번 참조).

백두산 입구 들어가는 산문(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200번 참조).

해발 2,700 여 미터의 천문봉을 오르며 허덕이는 75세의 卞基榮 몬시놀! 쓰러질 듯, 넘어질 듯, 미끄러질 듯, 주저앉을 듯하면서, 그래도, “올라가는 용기를! 돌아가는 지혜를! 내려가는 겸손을!” 되새기며…, 韓民族의 聖山, 白頭山과 天池를 드디어, 마침내(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200번 참조)!

해발 2,500m 차도 종점 주차장과 휴게소에 설치된 목조 안내 ((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200번 참조).

저 멀리 보이는 장백폭포, 장백폭포는 한겨울에도 얼지 않음, 68M 높이의 폭포로 흘러내리는 물의 낙차가 용이 하늘도 나는 것 같다하여 비룡폭포라 불린다(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200번 참조).

백두산 天池의 水面은 해발 2,190m, 면적은 9,165km², 둘레는 14.4km, 평균 너비 1,975km, 최대 너비 3.55km, 평균수심은 213.3m, 최대깊이 384m. 중국, 등소평의 답사 친필 기념비(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200번 참조).

中國 現代化의 大人, 등소평의 이 기념비문 친필 휘호를 보더라도, 이 호수를 중국인들도 마땅히, '天池'라고 부르고, 쓰는 것이, 장백산맥 5천년 역사를 지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長白湖' 는, 단순히 山高水長 長白湖 라는 산 이름을 따르는 장백호(長白湖)보다는, '하늘 못' , 즉, '천지(天池)' 라는 반

만년 된 명칭을 韓·中이 함께 써야 한다(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200번 참조).

백두산 天池의 水面은 해발 2,190m, 면적은 9,165km², 둘레는 14.4km, 평균 너비 1,975km, 최대 너비 3.55km, 평균수심은 213.3m, 최대깊이 384m - 반만년 배달겨레 신앙정신의 구심점 이오, 대상이오, 제단이었던 韓民族 배달겨레의 영원한 聖山 !

백두산 天池의 水面은 해발 2,190m, 면적은 9,165km², 둘레는 14.4km, 평균 너비 1,975km, 최대 너비 3.55km, 평균수심은 213.3m, 최대깊이 384m./ 2014. 8. 20. 오후 3시. 변기영 촬영(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200번 참조).

장백폭포 가는 길에 자연온천지대 안내판과 온천이 있다. 온천지대를 지나면 장백폭포의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장백폭포를 볼 수 있다. 장백폭포는 한겨울에도 얼지 않음, 68M 높이의 폭포로 흘러내리는 물의 낙차가 용이 하늘로 나는 것 같다하여 비룡폭포라 불린다.)과다한 등산객들로 여기도 오염은 불가피한 현실!

저 멀리 보이는 장백폭포, 장백폭포는 한겨울에도 얼지 않음, 68M 높이의 폭포로 흘러내리는 물의 낙차가 용이 하늘로 나는 것 같다하여 비룡폭포라 불린다(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200번 참조).

북한과 중국 국경 도문시, 강건너 뒤로 보이는 북한지역 산(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200번 참조).

백두산 天池의 水面은 해발 2,190m, 면적은 9,165km², 둘레는 14.4km, 평균 너비 1,975km, 최대 너비 3.55km, 평균수심은 213.3m, 최대깊이 384m /2014. 8. 20. 오후 3시 허관순 촬영(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200번 참조).

백두산 天池의 水面은 해발 2,190m, 면적은 9,165km², 둘레는

14.4km, 평균 너비 1,975km, 최대 너비 3.55km, 평균수심은 213.3m, 최대깊이 384m. 초가을 황홀한 단풍치마로 둘러 입고 하늘과 땅과 인간들을 하느님께 바치며 감사와 찬미를 드리게 하는 백두산 천지(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우리겨레가 나아갈 길 제200번 참조)!

A Pilgrimage of Msgr. Byon with his staff members of the Chon Jin Am to Mount Paektu(白頭山) and Lake Chonji(天池), the most holy place of Koreans for 5 thousands years ! Now, the half part of the sanctuary is divided in territory by China and North Korea. Sorry about that for our Korean People ! We prayed to Our Lady for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and we will be able to a Holy Statue of SS.Maria, Regina Pacis in Mundo so that any earth quake & vulcane never revive here and a new permanental peace between the China, Japan and Korean through Our Lady !

On the mountain, Paektu(白頭山), our Korean people's historical tradition has it that King Tan-gun founded Korea in the year 2333 B.C...He was not only a man of political acumen, but also a religious leader of his people about 5,000 years ago. Thus the mountain and it's lake has been forever held sacred in the eyes of the Korean people. For 5,000 years generations of Koreans have gazed steadily into the heavens to adore the Supreme Being whom they inherently believed in. This Mount was believed to be the holy intermediary place connecting earth with heaven. The name of the mountain means "white head", derived from the ever-present snow Which covers its summit. But, our ancient Koreans were fond of wearing white clothing and called themselves Paedalkyore, that is, 'Sons of Light'.

They were peace-loving people and built small villages along the clear streams flowing from the mountain, where they continually worshipped the all-seeing almighty Supreme God.

平和의 聖母像이 白頭山 자락에 세워지면, 잠에서 깨려는 休火山, 白頭山에 地振이나, 大小 火山 爆發이나, 長白山脈의 큰 기침이나 재채기라도 聖母님께서는 豫防해 주시지 않을까? 무력증강에 경쟁하듯 집중하는 日本과 中國과 蘇聯과 北韓과 南韓을 포함하는, 東北亞와 全 世界에 성모님께서는 戰雲이 사라지게 하시고, 戰爭을 豫防해주시지 않을까? 적어도 신도들은 물론, 만민이 모두 平和의 聖母님께 祈禱라도 한 번 더 바치게 될 텐데…! 나아가 옥수수 재배가 주요 산업이 되고 있는 이 地域民들에게 白頭山 聖母像 巡禮團은 큰 觀光資源이 되어, 주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Msgr. Peter Byon

● 작성일 : 2016.10.22 오후 8:45:02

286. 우리가 지금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닌데 !

지금이 어떤 때이며, 어느 때인지 모를 수 없는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모르려고 한다고, 모를 수 없는 일이 닥쳐 오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때가 아닌가?

무엇이라도 해야 할 때고, 어떻게라도 해야 할 때며, 혼자라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는가?

무섭게 빠른 속도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죽음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불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을 보며, 알고 있는 때가 아닌가?

하다못해 한마디 기도라도 바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주님께 기도조차 바칠 수 없는 때가 닥쳐오고 있지 않는가?

아니, 주님도 알아 뵈 수 없는 절망과 공포의 죽음의 순간이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고 있다!

노아의 홍수를 시작하던 폭우가 아니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잿더미로 만든 원자핵무기가 세계 여기저기 도처에서 날아올 준비태세에 돌입한 지금이 아닌가?

주님이 당하신 서글픈 배신자들의 발걸음이 우리 곁을 맴돌며, 그칠 줄 모르는 악의로 우리를 혈값에 팔고자 흥정하며 다투는 소리가 점점 요란하지 않는가?

사람이 사람에게 늑대요 시랑이니(Homo homini lupus est !), 우리 인간의 말을 할 줄 아는 시랑이들에게 무엇을 바라며 기대하는가?

우리를 기다리는 형장을 향하여, 힘을 내어 걸어가자! 비키고 피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우리 앞에는 순교 선조들의 발자욱이 피로 얼룩져 있다!

밤새도록 놀림감이 되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나서, 유자나무 가지로 엮은 관을 쓰고, 십자가 형틀을 지고서 앞서 가신 주님이 우리를 뒤돌아 바라보시며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신다.

수천만 명 인간군상들이 불시에 재터미로 바뀌는 것을 막아보기 위하여, 무엇이랴도, 어떻게랴도, 해봐야 한다.

천주님을 배반한 배신자들의 이목구비가 핵폭탄의 뇌관이 되어, 인류의 대재앙을 재촉하는 이 때, 무엇이랴도, 어떻게랴도, 혼자서랴도,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랴도 주님께 제물로 보태어 드리며, 기도의 예물을 바치자!

Msgr. Byon

● 작성일 : 2016.10.27 오전 3:58:19

287. 능지처참 형으로 순교하신 황사영 진사의 묘 참배 !

순교자 황사영 진사의 몸을 다섯 조각으로 찢어서 바친 신유년 말의 최후 제물!

1801년(辛酉年), 음력 정월 초부터 무서운 대박해가 시작되었다. 신유년의 대박해로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들 대부분이 마지막으로 목숨을 바치는 장렬한 순교의 해다.

권철신, 이승훈, 정약종, 황사영, 주문모 신부, 강완숙, 이가환, 이존창 등. 우리가 차마 잊을 수 없는, 신유년 대박해에 순교하시고, 수난하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천진암 성지에서는 매년 양력 2월 10일을 기념일로 정하여, 30여 년 째 미사를 올리고, 강론과 다과를 한다. 박해 중에 순교한 몇 분의 시성이나 시복만으론 부족하다. 천주교 신앙 때문에 수난하신 저 많은 선조들, 하느님 백성의 피 묻은 선조들을 어찌 잊어야 한단 말인가?

황사영 알렉시오가 16세 때, 진사시험에 합격하자, 정조 임금 이 감탄하여, 손목을 잡고, “지금 나이가 너무 어려서, 벼슬을 내리기가 어려우나, 스무 살이 되거든 꼭 내게 오너라, 네게 벼슬자리를 주리라.” 하여, 상감마마가 잡았던 손목을 남들이 잡지 못하게, 비단 한 폭으로 감고, 10여 년간 살았으며, 배론에서 체포될 때도, 그 손목은 포졸들이 잡지 못하게 하였다고 전한다.

1980년 9월 1일, 당시 주교회의 200주년위원회 사무국장 겸 시복시성 추진부장으로 있던 필자가 종친회 황용호 교수, 가톨릭신문사 고국상 기자, 등과 함께 장흥면 부곡리 홍복산 끝자락의 옛날 웅기촌 동막골 선영에 있던 황진사 묘를 처음 발굴할 때, 작은 조선 백자함에 그 비단폭은 잘 개켜지고 접혀서 삭아 있었다. 조국과 임금에 대한 황진사의 존경심과 충성심은, 상감이 잡았던 손목을 비단으로 늘 감고 체포될 때까지 10년을 변치 않았으니, 그 정신과 의지와 생활자세로 증명되고도 남는다. 친인척 주위 사람들도 이를 공인하듯, 무덤 속에까지 이를 함께 묻었다. 스무 살이 넘어도, 벼슬을 받기 위하여 대궐을 찾지 않

고, 교회 일에 전념하던 황진사는, 권력이나 명예나 벼슬을 탐하지 않는 선비임을 말해준다.

조선의 개국공신 후예로 대석학 권일신, 권철신 등을 타살하고, 이승훈, 정약중, 등, 서소문을 피의 제단으로 만들며, 심지어 함경도 무산, 전라도 강진, 흑산도, 신지도, 경산도, 진해, 마산, 밀양, 충남 예산, 등, 8도 강산을 유배지로 하여, 천주교 신앙인들을 죽이고, 가산을 몰수하고, 유배를 보내던 그 시절, 국제잡각을 가진 황진사의 政見대로, 만일 당시 프랑스해군력에라도 의지하여, 조선을 개혁하였더라면, 한일합방도 없었을 것이다.

일본 근대화의 계기로 보는 1860년대 초 일본의 明治維新보다 60여년 앞서서 우리는 西歐的 文明에 진입하였을 것이니, 당시 프랑스는 잔 작 루소를 비롯한 啓蒙主義(illuminati) 자들의 바람이 불면서, 1790년대 말부터 1800년 초에 이르는 현대화 작업이 일어나 우리로 말하면 만민공동회가 개최되기도 할 때였다. 황진사는 실로 선견지명이 있던 천재였다. 당시 자코뱅파니, 루트쏘파니, 하면서, 세계 최초로, 右翼과 左翼이라는 정치용어가 탄생하던 시절, 우리나라에 황진사같은 선견지명이 있고, 권세욕이 없는, 또 조국과 임금에 대한 존경과 충성이 극진한 젊은 선비가 있었다. 만일 그 때 황진사의 정견대로 우리가 西歐化에 진입했더라면, 영국이나 일본처럼 立憲君主制로의 개혁이 가능하고, 불가피했을 것이다.

1801년 신유년 박해를 마치는 최종 제물이 그 해말 서소문에서 능지처참형을 당한 황진사의 순교다. 십자가상 우리 주님보다 더 참혹한 처형이었다. 가족들이 모두 양반 지위에서 노비의 종 신분으로 바뀌어, 어머니는 거제도, 3살 아들 경현이는 추자도로, 부인 정명연 마리아(당시 28세)는 제주도 모슬포 대정읍으로 귀양을 가서 40년을 귀양살이를 하였다. 신유년 말 능지처참형으로 제물이 된 위대한 순교자요, 애국자이신 알렉시오 황사영 진사의 시복과 시성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황사영 진사 묘(黃嗣永 進士 墓)

장흥(長興)면 부곡리 선영의 황사영(黃嗣永) 진사(進士) 묘(석제(石製) 십자가 및 향아리 발견돼)(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람·기별·시문 5번 참조).

주문모 신부로부터 Alexius로 세례를 받았던 황사영은 신부와 거처를 같이 하며 전교에 힘쓰다 제천 산골 배론 토굴로 몸을 숨기고는 북경 주교 앞으로 보내는 백서(帛書)를 썼다. 그러나 도중에 밀사였던 황심(黃沁)이 잡히면서 황사영도 체포되어 순교하였다. 그는 능지처참형으로 처형되어 선영인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가마골(홍복산 밑)에 묻혔는데, 1980년 9월 1일 그의 17대손 황용호(黃龍浩, 동국대, 경상대)교수가 발굴묘에서 석제 십자가와 비단대(帶)가 들어 있는 향아리가 발견되었다(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람·기별·시문 5번 참조).

황사영 묘 발굴시 발견된 향아리를 변기영(신장 본당)신부가 들어내고 있다. 곁에 있는 황두희씨는 판윤공파(判尹公派) 종친회 회장으로 황사영의 직계손이다. 신유박해 당시 황사영의 외아들 경현이 추자도로 유배되자, 황씨 문중에서는 황사영의 사촌인 병직(秉直)을 양자로 들여 손(孫)을 잇게 하였다.(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람·기별·시문 5번 참조).

가마골 홍복산 아래 있는 황사영 진사의 묘를 발굴후 재 손질한 모습(1980.09.20일 경)(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람·기별·시문 5번 참조).

가마골 홍복산 아래 있는 황사영 진사의 묘를 발굴하기 전 답사 확인(1980년 7월 1일)(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람·기별·시문 5번 참조).

천진암 성지, 변기영 몬시놀과 성지 회장단들 황사영 묘 참배(2009.12.04)(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람·기별·시문 5번 참조).

송추, 가막골, 홍복산 끝자락에 있는, 순교자 황사영 진사 묘(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림·기별·시문 5번 참조).

송추, 가막골, 홍복산 끝자락에 있는, 순교자 황사영 진사 묘, 호텔 뒤란으로 허락을 받고 들어가 참배, 변기영 몬시놀 외 천진암 성지 직원3(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알림·기별·시문 5번 참조).

장흥(長興)면 부곡리 선영의 황사영(黃嗣永) 진사(進士) 묘(석제(石製) 십자가 및 향아리 발견돼).

주문모 신부로부터 Alexius 본명으로 세례를 받은 황사영 진사는 주신부님과 거처를 같이 하며 전교에 힘쓰다가 1801년 신유박해 때, 제천 산골 배론 토굴에 몸을 숨기고는 북경 주교 앞으로 보내는 백서(帛書)를 썼다.

그러나 도중에 밀사였던 황심(黃沁)이 잡히면서 황사영도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후, 달포 남짓하게 온갖 고문을 당한 후, 12월 초에 서소문 네거리에서, 양 팔과 양 다리와 목에 밧줄을 감고 사방에서 말 4필이 동시에 달리게 하여, 온 몸을 여섯으로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형의 옥시를 당하여 순교하였다(26세). 한국의 순교자들 중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형벌로 순교하였다. 천주교 때문에, 천주교 신앙 때문에, 천주님 때문에, 한국 교회사에 가장 무서운 박해와 고통을 받고 처참하게 죽은 순교자 황진사와 그 가정은 1801년 신유박해를 마감하는 수난의 순교가정이었다.

순교자 황진사보다 3살 위의 부인 丁命淵 마리아는 文度公 요한 丁若鏞 承旨의 친 조카딸이며, 광암 이벽 성조의 친 외조카딸인데, 1801년 제주도 모슬포 대정읍으로 유배되어, 39년간 官奴로 종살이하다가 68세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黃慶憲은 1801년 3살 때, 제주도로 유배가는 어머니와 함께 가다가, 추자도에 강제로 떨어뜨려, 마음착한 어부 뒤희가 거두어 길러서, 추자도에서 죽을 때까지, 제주도에 귀양생활하는 어머니를 한 번도 뵈지 못하고, 추자도에서 세상을 떠났다. 순교자 황진사의 어

머니 전주 이씨는 1801년 거제도로 유배되어, 문전걸식하는 걸인으로 지내다가 굶어서 꺾진하여 세상을 떠났다.

순교자 황진사가 능지처참형으로 처형되어 온 몸이 찢어져 사방에 흩어진 살덩이와 의복 조각들을 그 벗들이 모아, 창원황씨 종종산 선영인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가마골(홍복산 밑)에 묻혔는데, 1980년 여름, 종친회의 17대손 황용호(黃龍浩, 동국대, 경상대)교수와 당시 대구대교구에서 발행하던 가톨릭시보사의 고상국 기자가 자료를 추적하며 변기영 신부(당시 주교회의 200주년 주교특별위원회 사무국장 겸 순교자 시복시성추진부장)에 알려주어, 7월 초에 1차 답사하고, 9월 1일에 묘를 발굴하면서, 무덤 속에서 십자가형으로 놓은 돌들과와 비단대(帶)가 들어 있는 작은 이조백자 항아리가 발견되었다.

● 작성일 : 2016.10.29 오후 9:37:03

288. ‘나뭇잎 족속 같은 인생이어라’ - Virgilius -지금은 우리가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닌데...!

늦가을의 名詩,

‘나뭇잎 족속 같은 인생이어라’ - Virgilius -

[나무 잎 족속 같은 인생이어라.

있는 바람에 불리어 땅에 떨어지고,

봄이 오면 나무는 또 다시 새 움을 틔어나니,

인생도 이와 같아 누구는 태어나고, 또 누구는 죽느니라.]

古典 名詩를 즐기는 이들 중에는 오늘이 바로 기원 전 1세기 경 로마대제국의 유명한 시인 비르질리우스(Virgilius Publius Maro)의 탄생 일(Oct. 15, 70 B.C.)임을 기억하는 이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의 탄생일처럼, 늦가을 단풍지는 이 시기에 인생철학적인 이 名詩는 오늘날, 특히 그의 생일인 오늘 음미해볼 만 하다.

늦가을은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의 중간 결산서를 작성해 보

아야 하는 때다. 아마 어떤 이에게는 최종 결산서가 되기도 할 것이다. 오늘날 천 이백 여만 명이 서울을 가득 채우고 살고 있지만, 앞으로 100여년 후에는 오늘의 우리가 이름도, 고향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인간들이 태어나서, 이 서울을 점령하고 채우며 살 것이다. 마치 100 여 년 전에 서울을 차지하고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리와 집에서 100여년 후 오늘을 살며 지나가는 우리를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생각지도 못하며 살고 갔듯이!

Virgilius는 시골 농촌에서 태어나서 로마와 밀라노, 아테네와 나폴리, 등을 옮겨 다니며, 문학, 철학, 등 학문을 닦으며, Augustus를 비롯한 당대 많은 名人名士들과 交分을 나누며, 한 때 잠시나마 Caesar의 군대에도 입대한 적이 있던 名詩人으로서 소박하면서도 진솔한 철학적인 牧歌도 써서 남겼다.

구태여 聖書を 뒤적이지 않더라도, 50억 만 명을 넘는 인류는, 종합적인 진화론자, Teilhard de Chardin S.J. 신부의 대표적 著書 표제처럼, 지구상에 나타난, ‘人間群像(Le Phenomenon Humain)’이다. 매초마다 3명 정도 태어나고 2명 정도가 죽는다니, 우리도 그 중에 들어 있고, 그 속에 끼어 있는 현상의 一點일 뿐이다. 그러니, 아우성치며 野壇法席을 떨지만, 모두가 蝸牛角狀에 競爭長短에 不過하지 아니하랴?

오늘 축일을 지내는, 스페인의 大테레사 聖女의 가르침과 그 삶을 따라서, 오로지 天主님만을 섬기는 일에 모두 남김없이 바쳐야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살기 힘들어 하시는 주님의 居處는, 돈이 많은 교회기관들, 본당이나 수도원으로, 참고 견디다 못하시어, 마침내 떠나가시게 되는 것을, 오늘 유럽 교회의 여러 현실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교회도 같은 길로 들어서서 달리고 있지 않는지, 걱정할 때가 되었다.

체육이라는 이름으로, 휴식이라는 핑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인생을 어영부영하며 허송세월하고 있지 않은지, 되살펴보자!

Msgr. Byon

● 작성일 : 2016.10.30 오후 10:51:10

289. 원님 덕분에 나팔 한번 불어보는 이 시대 우리들!<한국주교단 전원 서명의 103위 시성 기적심사관면 청원서>!

이 시대 우리는 모두 원님 덕분에 나팔 한 번 불어보는 성직자들이 아닌가 ?!

〈복자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의 시복식에 뒤적여보는 103위 謚聖推進部の 業務日誌〉

- 한국 순교복자 103위 시성으로 우리에게 예외적인 특은을 베푸신 복자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의 시복을 경축하며, 주교회의 103位謚聖推進部の 業務日誌를 뒤적거리 보며, 1971년 12월 13일, 김대건 신부 시성추진 시작부터, 1983년 6월 9일, 103위 시성 기적심사 관면 청원 윤허로 시성 확정까지. -

1971년 12월 13일, 김남수 신부(후에 수원교구장 주교) 제안으로 주교회의에서 한국순교복자시성 추진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주교회의에서는 안건으로만 채택하였을 뿐, 주교회의 이름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기까지는 5년이나 걸렸다.

1975년 9월 13일, 전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결의한, 김대건 신부 시성 운동 전개를 당시 전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역사학자 류홍렬 교수 주도하였다.

1976년 4월 21일, 주교회의에서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청원서를 교황청에 제출기로 하고, 위원장을 자청한 김남수 주교를 인준하였다.

1977년 10월 13일, 김남수 주교가 로마 유학 중인 서울교구 소속 박준영 신부를, 在로마 한국 순교복자시성 추진 수속담당관으로 임명하였다(당시에는 주로 [연락관]이라고 불렀는데, 원

어는 postulator, 즉 [청원자]란 뜻이다).

1978년 4월 13일, 교황청에서 103위 한국순교복자 시성청원서를 정식 접수하였다는 회신이 청원서 제출 후, 2년만에야 국내에 도착하였다(박준영 신부 재임기간 중의 업적).

1980년 5월 16일, 수원교구 변기영 신부가 한국천주교회200주년기념준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천진암 판넬 헛칸 같은 집에 들어앉아, 3일 동안 5개년계획을 입안하면서, 순교자 시복시성 계획을 포함시켰다.

1980년 7월 17일, 전국 교구 총대리 신부들 회의에서 한국천주교회200주년기념준비위원회 사무국장 변기영 신부가 수립한 5개년계획 중에, 순교자 시복시성추진사업도, 200주년기념사업 중 하나로 확정, 이때부터 103위 시성추진의 실무 총책과 총지휘는 사실상 주교회의 특별위원회 사무국장 겸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 주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1980년, 11월 17일, 전국 주교회의에서 200주년기념계획안을 확대 분리하여, 주교특별위원회(주교 4명이 각 위원회 전담)에서 제출한 계획안을 거의 무수정 확정, 승인하고, 변기영 신부를 시성시복추진부장에 임명하였다(재임기간: 1980년부터 1984년 말까지 5년간).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103위 복자 시성추진을 뒤로 미루고, 이벽, 이승훈, 권철신, 정약종, 권일신, 강완숙, 황사영, 등 한국천주교회 창립의 신앙선조들 시복추진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강조하였으나, 담당 위원장 김남수 주교의 지시로, 103위복자 시성추진에만 우선 전념하도록 업무범위를 축소하였다.

1982년 5월 28일, 교황대사 몬떼리시 대주교의 권유로 시성추진부에서는 주교회의 명의로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보고 심사관면 청원서]를 교황청 시성성성에 제출하였다. 이때부터 서류보완 지시와 요청이 계속되었다. 강우일 신부(현재 제주 교구장 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로마를 다녀오면서, 국내 주교회의의 우리 시성추진부에 교황청 시성성의 간결한 지시,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여 주었다.

1982년, 6월 18일, 재로마 수속담당관 박준영 신부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어, 위원장 김남수 주교는 전주교구장 박정일 주교의 동의를 얻어, 로마에서 학업 중인 전주교구 소속 김진석 신부를, 박준영 신부 후임으로, [재 로마 연락관]으로 임명하였다<박준영 신부의 재임기간은 4년 8개월간이다>.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기적보고 심사 관면 청원서]를 추가 보완하여 로마로 다시 발송하였고, 한국어와 영어 번역본을 완성하여, 내용의 일반화를 시도하여, 국내외 관계 요로에 배부하였다. 당시 해외 우편물 검사가 심하여, 주한교황대사관 외교우편배낭을 이용하였다.

1983년 1월 28일, 전국신도들의 [순교복자 유해 본당 순회 기도회] 개최를 독려하였다.

(본 내용은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펴온 글입니다.)

103위 시성기적심사관면청원서 사본, 1983년 3월 5일 자, 한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으로 교황성하에 올린 문서(사진은 변기영문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성모님의 손길 3번 참조).

사실은 1982년도에도 2차례나 있었으나, 주교회의 시복시성담당위원장 김남수 주교의 서명만으로 제출되었었다. 그러나 103위가 소속된 연고지 관할교구장들이 고유권한(competenza)을 위임받은 주교회의 담당 위원장의 서명만으로는 문제발생여지가 있어서, 시성성성의 지시대로 보완한 최종 공문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서울교구장 자격으로 제일 먼저 서명하였다. 103위 시성후보의 연고지가 전혀 없는 교구장들(제주, 청주, 춘천, 등)은 처음에 제외되었었으나, 연고지 변경 불가피의 변동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모두 하기로 하였다. 시성성성에서는 이 공문이 [절대적 구비 근거요건]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 특히 주변 관련국들의 대주교나 추기경(김수환추기경을 포함한, 일본, 대만, 필리핀, 프랑스, 미국, 등)들이나 대통령이나 왕들이나 학회 대표

들의 시성 지지 탄원서나 추천서나 진정서 같은 것은 다만, [반대하지 않는다]거나, [찬성한다]거나, 나아가 [간청한다]고 하여도, 시성성성에서는 참고자료 정도로 다룰 뿐이지, 절대적인 필요 근거 문서는 아니다. 그 이유는 교구장 주교들이 시복시성 청원의 직권자들이기 때문이다.

103위 시성기적심사관면청원서 사본, 1983년 3월 5일 자, 한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으로 교황성하께 올린 문서1(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성모님의 손길 3번 참조).

103위 시성기적심사관면청원서 사본, 1983년 3월 5일 자, 한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으로 교황성하께 올린 문서 2(사진은 변기영몬시놀사랑방 홈페이지 성모님의 손길 3번 참조).

1983년, 2월 12일,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가 3주간, 로마 시성성성 방문. 장관 팔라찌니 추기경, 차관 크리스찬 대주교, 등을 면담하였다. 당시 시성성 장관 Palazzini 추기경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보낸 문서들을 시성성성에서 다 읽어보았으나, 103위 전부 동시 시성은 불가능하니, 한국인 대표로 김대건 신부 1명과 프랑스선교사 대표로 앵베르 범주교 1명, 즉, 2명만 시성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그나마도 약 5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정한다고 언급하였다. 변기영 신부는, 성직자들 시성보다 평신도들 시성이 더 우선임을 역설하였다.

1983년 2월 26일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가 로마를 방문, 개정된 교회법 선포식 겸 교황청 대법관(Romana Rota Concistori)들이 교황성하 앞에서 거행하는 연례 선서식에 옵서버로 참석. 교황 요한바울로 2세 성하 소그룹 접견실에서 직접 알현면담하며, 103위 시성을 간청하고, 기념품으로 새 교회법전한 권을 받았다.

우리 선조들의 시성을 간청하는 변기영 신부의 손을 꼭 잡은, 교황성하께서는, 한동안 손을 힘주어 잡으시고, 이태리어로, [Si, Si, preghiamo, Si...] 즉, “그래, 그래, 물론 시성해야지, 함께 기도하자, 시성해야지...!”하시며, 시성에 확고한 의지

와 결심을 표명하였다.

변기영 신부의 귀국보고회에서, 교황성하의 말씀, [Si, Si, preghiamo, Si…] 즉, “그래, 그래, 물론 시성해야지, 함께 기도하자, 시성해야지…!]를, 전하자, 관계주교님들과 각 교구총대리, 수도회 대표들은 모두, 교황께서 예의상, 외교관례상, 하신 말씀이니, 크게 믿을 바 못된다며, 변신부를 순진하고 모자라는 사람으로 여겼다.

다만 오기선 신부님만이, “글쎄, 이것 봐요, 교황님은 예의상, 외교상 “그래, 암, 시성해야지!” 하고 단순히 말씀하셨더라도, 시성추진에 미치고 환장한 변기영 신부에게는 아주 진지하고 정확하게 정중히 힘주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게지 뭐!” 하여, 우리가 모두 한동안 또 웃었다. 사실 필자는 처음 로마에 갔다 온 촌놈으로서 웃음거리였다. 이태리 유학을 하지 않아, 서투른 어학지식으로, 교황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3개월 후, 그 해 6월 10일, 103위시성은 확정 발표되었다.

3월 11일, 김진석 신부를 윤민구 신부로 연락관 교체 인사공문 발송.

3월 12일, 오기선 신부와 박희봉 신부, 김창석 신부, 등은 김남수 주교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의 로마 교황 예방을 강요하며 연일 분주하였다. 주교님들이 모두 로마에 가서 살다시피 해야만 한다고, 원로신부들은 주교님들, 특히 김추기경님과 김남수 주교님을, (주교님 표현으로), 매일같이, 들볶다시피하였다.

3월 15일, 김남수 주교께서 로마 재방문, 시성부장관 팔라치니 추기경면담. 교황성하는 해외 사목방문 관계로 뵙지 못하고 귀국.

4월 1일, 재로마 연락관 김신부를 윤신부로 교체하는 국내 김남수 주교의 임명공문서로 시성성에 연락관 등록이 되어 윤신부가 연락관 업무를 4월 1일부로 시작한다고 보고하여 왔다.

4월 20일, 김수환 추기경 로마 방문, 21일 교황성하 예방. 시

성 간청, 4월 26일에 시성부장관 팔라치니 추기경 예방 예약 연락 윤신부.

5월 10일,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 서류가 시성성에서 결재되어, 5월 15일경이나 20일경에 성하의 결재와 동시에 발표되리라고 로마에서 연락관의 보고가 왔었으나, 대법관들의 최종회의와 성하의 결정은, 연합회의에 교황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어 확정하시게 되었으니,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 결정과 발표는 6월9일이었고, 국내에는 時差 관계로 6월 10일에 공식 발표되었다.

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는 귀국 전 로마에서 당시 연락관 김진석 신부와, 공부를 마친 윤민구 신부를 불러 동석한 자리에서, 수속담당 연락관 교체를 당사자들에게 직접 알리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 3월 7일자로 재로마 수속담당관을 윤민구 신부로 교체하는데는 위원장 김남수 주교가 반대하였다. 이유는 전주교구장 박정일 주교의 동의를 가까스레 얻어서 임명한, 유학중인 전주교구 소속 김진석 신부를 연락관으로 임명한지 8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라고 한다는 것은, 도의상 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가는 받았으나, 임명 공문은 3월 11일(금)에서야 발송이 가능하였다(김진석 신부의 재임기간은 8개월간).

당시는 정치상황으로 해외우편검열이 심하던 때라, 공문의 로마 도착은, 거둬진 윤민구 신부의 국제전화 재촉 속에 3월 29일에, 또 시성성성에 정식 등록한 것은 4월 1일에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즉 4월 1일부터 윤민구 신부는 시성추진 정식 연락관(청원자)으로 로마와 서울을 연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미, 1983년, 3월 12일, 교황대사의 요청으로, 주교들이 서명한 시성탄원서를 재작성 보완하여, 대사관 외교행낭으로 발송하였다.

3월 14일 현재, 주교 6분의 서명이 누락되어. 3월 16일, 김학성 국장 일행을 안동과 부산교구장 서명 받으러 보냈다. 처음에는 해당 시성후보가 전혀 없는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은 필요치

않다고 하여, 제외하였으나, 다시 모두 추가 서명하여 보내라는 것이었다.

3월 15일, 김남수 주교가 로마를 또 방문하여, 시성성성장관 팔라찌니추기경을 예방하고 왔다. 교황님은 해외 방문으로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3월 21일, 시성탄원서에 제주교구장 서명이 빠져서 이를 추가로 받기 위해 김건태 신부를 제주도에 추가로 보냈다.

3월 23일, 모든 교구장 주교가 서명한 103위 시성탄원서 보완문서를 대사관 요청으로, 외교행낭 이용 위해 보내도록, 김학성 국장이 대사관에 전달하였다. 당시 정부의 국제 우편물 검사로 시일이 너무 걸리기 때문. 이 청원서 수신자는 교황성하였고, 시성성 장관에게는 사본을 동시 발송했다. 훗날, 시성성으로부터, 앞으로는 자기들 앞으로만 보내면 된다는 꾸지람(?)같은 언질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발송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4월 20일, 마침내 김수환 추기경이 103위 시성관계로 로마 방문. 사무총장 정은규 신부도 103위 시성 관계로 로마를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다. 무모한 일로 여기던 일이 되가는 듯하였다. 주교회의 사무총장 정은규 신부가 국내 시성추진부에, 로마의 장신부 국제전화 내용을 전달, 즉, 오늘 김수환 추기경 교황성하를 예방, 성하께서는 한국주교들의 기적심사 관면 시성청원서를 보시고난 후, 시성성성장관 팔라찌니 추기경에게 보내셨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지시하셨으니, 김추기경도 직접 시성성 장관 팔라찌니 추기경을 면담하도록 성하께서 권고하셨으나, 시성성 장관의 일정 예약으로, 김수환 추기경은 로마에 1주일 더 체류한 후, 4월 26일에서야 장관 추기경 면담 예정이라는 연락을 우리 시성추진부에 알림.

당시 시성성성의 계속되는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대사관, 단테변호사, 연락관, 등을 통하여 내려왔으며, 5월 초에는 시성성에서 재정리 완료하여, 팔라찌니 추기경이 최종적으로 다시 교황성하께 올릴 예정이라고 소식이 왔다.

그러나 대사관의 외교행낭도 1주일 정도씩 걸리던 때라, 발송된 보완 서류가 미도착하였는지, 관계서류 보완서를 또 보내줄 것을 시성추진부에 요청하여 왔다.

4월 22일, 교황대사관 외교행낭으로 재구비 보완서류를 추가 발송하였다.

4월 28일, 103위 시성가능성이 엿보이자, 사무총장 정은규 신부도 로마에 간다기에, 인편에 관계 보완서류를 맡기며 로마 연락관에게 전달도록 재발송하였다.

5월 16일, 교황대사 몬테리시 대주교의 요청으로 대사관에 가서 면담하는 중에, 교황성하의 지시로,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103위시성추진이 급진전되고 있다는 소식 받음.

저녁 늦게 로마 연락관 윤신부의 전화에서, 약 10일 이후 103위시성을 위한 결정적인 기적심사관면 공식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시성성의 소식을 전화로 전해왔다. 윤민구 신부가 연락관으로 임무를 맡은지 약 1개월 반 만이었다. 즉, 1983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그동안 국내에 다녀간 5일간을 포함하여), 그러나 후에 알고 보니, 시성성에서 심사완료된 후, 교황청 각 성성 회람과 최종 회의일자 관계로 6월 초순에서야 최종 결정 발표가 나오게 되었다.

6월 9일, 교황께서 임석하신, 관계부서 장관 연합심사회의(Romana Rota Concistori)에서 통과되어, 교황성하께서 한국순교자103위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윤허하시었다(결재)는 소식은, 회의에 참관하였던 장신부(현재 춘천교구 은퇴주교)가 즉시 국내 국내로(로마 시간으로 당일 오후), 즉, 국내 주교회의 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에게 통보하여 주었고, 국제 언론 통신에서는 이미 특필대서하며 보도하고 있는데, 로마와의 時差 문제도 있었지만, 한 밤중에도 언론사들의 문의전화는 빗발쳤으며, 정작 당사자인 한국 주교회의는 왜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느냐고, 언론계의 비판이 심하였다. 그러나 발표해야할 책임 당사자 주교님들이 모두 서울에 있지 않았다.

6월 10일(금)에서야 국내에서는 時差 관계로 이 소식 발표가 가능하였으나, 이 큰 소식의 공식발표를 위하여 총집합해야 할 주교회의 주교님들과, 특히, 국민들 앞에서 한국교회 대표로 발표해야 할 김수환추기경님은 제주도 어느 수녀원 피정지도(?)로, 윤공희대주교님(당시 주교회의 의장 겸 200주년주교위원회 위원장)은 전남 광주대교구 사제들 연수(?)로, 김남수 주교님(시성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울산 모 수녀원 수녀들 피정(?) 등의 이유로, 지방 출타 중이니, 그 발표를 위해 급상경할 수 없다며, 주교님들의 지시가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가 발표하라는 것이었다. 즉, 각 TV와 모든 언론의 카메라맨 앞에서 [변기영 신부가 공식 발표하라]는 김남수 주교의 지시가 떨어졌다.

일부 인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기도 한 일이 이루어졌다. 103위 시성에 사실 거의 무관심하던 이들도 나중에 알고보니, 한국교회 전체가 놀라는 대단한 중요한 발표였다. 103위시성 확정발표를, 아니, 당사자인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서야, 그나마도 주교도 아닌, 변기영 신부가 한국천주교회를 대표하여 발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당시 서울에서는 말쑥나 많았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그러했다.〉

103위 시성 기적심사관면 청원은 1982년도부터 시작하여 1년반이 지나서야 허락되었으니, 시성추진 청원서를 낸 후, 만 2년이 걸린 것보다는 그래도 빠른 셈이었다. 교황청, 특히 시성성의 업무 수행은 매우 느리다고 하기보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한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엄정하고 냉정한 시성행정업무 수행이라 할 것이다. 왕이나, 무슨 언론인협회장이나 추기경이나 굉장한 영향력 있는 이들의 주장이나 요구사항과는 전혀 별개의 시성행정 업무 수행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며 본받아야 할 것이다.

시성추진 자료집의 관련 사진은 이 홈페이지의 상단 photos란으로 들어가, [교황성하와 천진암] 메뉴로 들어가 일부 볼 수 있다. 참고로, [천진암 성지 자료집]에 있는, 당시 주요 문서 중 일부를 공개한다.

〈참고: 한국가톨릭대사전(한국교회사연구소 1985년 2월 12일 최석우 신부 발행) 711면에 나오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여기에 옮기며, 다만 〈 〉 안의 내용은 천진암성지 자료집 123권 중, 제 16권과, 제21권(한국천주교회창립사연구원 1998년 6월 24일 변기영 신부 발행)에 나오는 103위 시성추진부의 당시 업무일지와 在 Roma 연락관 신부들의 전화 기록과 각자 자필 서신 및 보고 서들을 추려서 적은 것〉

성지 주임 변기영 몬시뇰(한국주교회의 前 103위시성추진부장 (1980~1984).

〈전국 주교님들이 서명하여 주한대사관 외교행낭으로 교황청에 발송한 1983년 3월 5일 자, [103위 시성 기적심사관면 청원서] 공문 사진은 Photos난의 맨 아래 요한 바오로 2세 Beatificationdptj 볼 수 있습니다.〉

1983년 3월 5일 자로 3차 보완 재발송된, 주교님들의 [기적심사관면 청원서].

참고:

① 원래 시복시성 청원 직권자는 교구장이다. 다만 다른 이에 게 위임할 수도 있다.

② 처음에는 103위 시성 관련 교황청 시성성에 보내는 공문을, 주교회의 담당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주교 한 분의 서명으로 보냈었다.

③ 그러나, 103위가 소속된 관련 연고지 교구장들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유는, 기적심사관면 같은 사항은 위임으로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교구장 자격으로 김수환 추기경부터 서명하게 한 것이다. 위임은 위임권자가 위임취소나, 각종 유고시에 문제발생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④ 그런데 자기네 교구에 시성 해당자가 전혀 없어서, 제외시켰던 교구장들도, 혹시 103명 중 연고지가 새로 들어나고, 변경되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예 모든 교구장들이 서명하게 된

것이다. 주교 정기총회 때도 사유가 있어서 불참 교구장들이 있는 터에, 시급히 전국 주교들 전원 서명확인도 그리 쉽지 않았다.

⑤ 그래도, 모든 교구장 주교들이 서명날인한 [103위시성 기적심사 관면 청원서]를 공식 근거문서로 하여, 교황청 시성성에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⑥ 나중에는, 한국의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하여, 관련 주변국 대주교, 추기경들, 즉, 일본, 대만, 프랑스 파리, 필리핀, 미국, 등의 고위 성직자들도, 한국103위 시성 기적관면 청원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며, 간청한다는 개인별로 서명한 진정서나 탄원서 등의 서식을 만들어 발송하고,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문서는 참고사항이나 협조사항으로서 사무행정 처리에 있어서 절대적 근거 조건은 아니고, 도움이 될 뿐이다. 때로는 방해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 103위 한국순교자 시성에 있어서, 원님 덕택에 나팔 한번 불어보는 이 시대의 우리 성직자들은 신부건 주교건 누구건 간에, 큰 건물 낙성식하는 날, 떡집에 가서 떡시루 지게에 지고 심부름 한 폭이나 될까? 생각해본다. 물론 건물도 내가 지었노라고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 겸손하고, 소박하고, 진솔하면서도 용감하고 거룩하였던 순교선조들 앞에서 우리 모두 머리 숙여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현양사업에도 모두 힘을 쏟아야 하겠다!

* 지금 124위 시복추진을 위하여, 한국주교회의의 담당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번, 103위 시성추진 때 처럼, 신도들의 기도와 희생의 참여의식이 너무 미약해 보인다. 시복이나 시성추진은 학술적 논문작성위주나, 회의위주보다도 정신운동이 선행되고, 병행되고,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Msgr. Byon

● 작성일 : 2011-05-10(20:22)

● 작성일 : 2016.10.30 오후 11:09:20

290. 이 광란의 시국에 위령의 날, 무혈의 순교자 성모님의 일생을 되새기며….

위령의 날에 무혈의 순교자 성모님의 일생을 되새기며….
언론폭력과 언어폭력,
폭력 정치와 정치폭력,
폭력사회와 신앙인의 순교는!
광란의 시대에 폭력언어를 되새겨 본다.
언론폭력과 언어폭력,
폭력 정치와 정치폭력,
폭력사회와 신앙인의 순교는!
광란의 시대에 폭력언어를 되새겨 본다.
언론 폭력과 언어폭력 ! / 폭력 언어와 폭력 언론! / 사법 폭
력과 폭력 법치 ! /
폭력 정치와 정치 폭력! / 행정 폭력과 폭력 행정! / 종교 폭
력과 폭력 신앙! /
폭력 사회와 사회 폭력! / 개인 독재와 다수의 폭력 ! / 다수
의 폭력과 폭도 사회! /
사회 폭력과 사회 정의 ! / 정의사회와 폭력의 광란 ! /
폭력과 순교 ! 무혈의 순교와 성모님의 일생 !
言論暴力과 言語暴力, 暴力이 亂舞하는 狂亂의 時局에,
暴力 政治와 政治 暴力! / 行政 暴力과 暴力 行政! /
言語 暴力과 言論 暴力! / 暴力 言語와 暴力 言論! /
司法暴力과 暴力 法治! / 宗教暴力과 暴力 信仰! /
暴力社會와 社會暴力! / 個人獨裁와 多數의 暴力 ! /
多數의 暴力과 暴徒 社會! / 社會暴力과 社會 正義 ! /
正義社會와 社會正義 ! / 民衆暴力과 暴力革命 ! /
含血吮人, 先汚其口 ! / 勸上搖木, 矯角殺牛 ! /
無血의 殉教와 聖母님의 一生 !

291.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 11월 2일 위령의 날에, 교회 묘지에서,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 -

오늘(2016. 11. 2.) 위령의 날 오후 4시(로마시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Prima Porta에 있는 로마시의 공동묘지를 찾아 순례하시며,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미사를 올리시며 글을 남기셨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를 올립시다 !”

지난해에도, 망자들의 “안식처(koimētērion)”를 찾으시고, 묘지에서 “쉬고 있는 교우들은 아주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어 쉬고 있는 것이며, 다시 깨어나 영원히 안식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셨다.

* 이 고달픈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위령의 달에, 위령의 날에, 우리도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며, 잠시 쉬는 운명의 날을 맞이할 것임을 잊지 말자.

누군가 일찍이 이런 말을 하였었지."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은 병든 여인! 병든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죽은 여인! 죽은 여인 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아주 잊혀진 여인!"이라고. 우리는 먼저 간 잊혀진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천주님께 한마디 기도를 바치는데 인색하지 말자! 우리 모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부지런히 산다는 것이, 부지런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죽음을 견디고 참가하는 것으로 겨우 삶을 이어가고 있지 않는가?(忍死延生- 1801년 순교자 알렉시오 황사영 진사가 박해를 피하여 들어간 배론 웅기 굴속에서 북경 주교님에게 애

절한 탄원서, 帛書를 쓰면서, 말미에 가서 당시의 조선 교우들의
실상을 알리는 표현 ! -) Msg. Byon

이하 오늘 교황님 말씀에 관한 보도 기사 원문 ;

Papa: preghiamo anche per i defunti che nessuno ricorda
2016-11-02 Radio Vaticana

Oggi, 2 novembre, alle ore 16, il Papa celebrerà la Messa per la Commemorazione di tutti i fedeli defunti presso il cimitero romano di Prima Porta. In un tweet Francesco scrive: “Con fede sostiamo presso le tombe dei nostri cari, pregando anche per i defunti che nessuno ricorda.” Il servizio di Sergio Centofanti:

In tanti si recano in questi giorni al cimitero, una parola greca (koimētērion) che significa “luogo del riposo.” Riposo, non morte definitiva, perché in attesa del risveglio finale. “È bello pensare – ha detto Papa Francesco nel novembre di due anni fa – che sarà Gesù stesso a risvegliarci. Gesù stesso ha rivelato che la morte del corpo è come un sonno dal quale Lui ci risveglia. Con questa fede sostiamo – anche spiritualmente – presso le tombe dei nostri cari, di quanti ci hanno voluto bene e ci hanno fatto del bene.” La Scrittura ci dice che “sono nelle mani di Dio”, che sono mani “misericordiose”, mani “piagate” d’amore perché accolgono anche i nostri peccati. “Non per caso Gesù ha voluto conservare le piaghe nelle sue mani per farci sentire la sua misericordia. E questa è la nostra forza, la nostra speranza.” “È Lui che ci salva, è Lui che alla fine della nostra vita ci porta per mano come un papà, proprio in quel Cielo dove sono i nostri” cari.

Il Papa invita anche a ricordare quelli che nessuno ricorda: “le vittime delle guerre e delle violenze; tanti ‘piccoli’ del mondo schiacciati dalla fame e dalla miseria”, i fratelli e le sorelle “uccisi perché cristiani; e quanti hanno sacrificato la vita per servire gli altri.”

“La tradizione della Chiesa – afferma il Papa – ha sempre esortato a pregare per i defunti, in particolare offrendo per essi la Celebrazione eucaristica: essa è il miglior aiuto spirituale che noi possiamo dare alle loro anime, particolarmente a quelle più abbandonate.”

“Il ricordo dei defunti, la cura dei sepolcri e i suffragi – sottolinea – sono testimonianza di fiduciosa speranza, radicata nella certezza che la morte non è l’ultima parola sulla sorte umana, poiché l’uomo è destinato ad una vita senza limiti”, all’incontro gioioso con Dio, con la bellezza, la bontà, la tenerezza, l’amore pieno: “Questa certezza conferisce un senso nuovo e pieno alla vita terrena e ci apre alla speranza per la vita oltre la morte.”

(Da Radio Vaticana)

● 작성일 : 2016.11.03 오전 1:32:34

발 행 일 : 2017. 11. 18.

저술·발행 : 변기영 몬시뇰

편 집 : 허관순

발 행 처 : 권일신사우거사기념서재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곡수앞산길 122-10

전 화 : 031) 771-2086 / 전 송 : 031) 771-2084

Published: Msgr. Byon Ki Young

Edited: Seraphina Heo Kwan Sun

Koksoo Catholic Church, No. 122-10 Koksoo-Absankil

Jipyongmyon, Yangpyongkoon, Kyeongkido, 12544

Tel: 031-771-2086 / Fax: 771-2084

*internet homepage: **msgr-byon.org** / **chonjinam.org***

E-mail: msgrbky@chonjinam.org

〈原稿 資料保全用 非賣品 限定版 複寫本〉